

국립국어원 2011-01-19

발간 등록 번호
----------

11-1371028-000341-01
----------------------

# 2011년 충북 지역어 조사 보고서

■ 연구 책임자 : 박경래

■ 연구 보조원 : 박용희 · 금순미

■ 조 사 지 역 :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구촌리

국 립 국 어 원



.... **제 출 문** ....

국립국어원장 귀하

‘2011년도 충북 지역어 조사 및 전사’에 관하여 위원과 체결한  
연구 용역 계약에 의하여 최종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2011년 12월 16일  
연구책임자 : 박 경 래



2011년  
충북 지역어 조사 보고서

목 차

1. 조사 과정 .....	7
2. 전사 원칙 .....	18
3. 전사 자료 .....	21
제 1 편 구술 발화 .....	23
제 2 편 어휘 .....	211
제 3 편 음운 .....	265
제 4 편 문법 .....	311
4. 제출 자료(별첨)	
1) 보고서 100부	
2) 디지털 파일 48,00hz, 전사파일용 16,000hz 파일 및 전사 trs 파일	
3) 조사된 질문지	
4) 지역어 조사 정보 파일	
5) 제보자 조사표	
6) 지역어 자료 활용 동의서	



# 1. 조사 과정

## 1.1 조사 지점 개관

충청북도는 우리나라에서 유일하게 바다와 접해 있지 않은 내륙에 위치해 있다. 충청북도의 지역어 조사는 이러한 지리적인 특성을 고려하고 인구의 분포를 고려하여 진행하였다. 2005년부터 시작한 충청북도 지역어 조사는 2011년까지 총 여섯 지점에서 이루어졌다. 2005년에는 충청북도 북부 지역에 위치한 제천시에서 조사가 이루어졌고, 2006년에는 충청북도 중부 지역에 해당하는 청원군(청주시)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다. 2007년에는 충청북도 북부 지역과 중부 지역의 중간 지역인 충주시에서 조사가 이루어졌고 2008년에는 충청남도과 인접한 충청북도 남부 지역인 옥천군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다. 2009년에는 경상북도와 인접한 충청북도의 동남부 지역인 보은군에서 조사가 이루어졌고 올해(2011년)는 경상북도, 전라북도, 충청남도과 인접해 있는 충청북도 최남단에 위치한 영동군에서 조사가 이루어졌다.

영동군은 삼한(三韓) 시대에는 마한(馬韓)에 속했으나 삼국시대에는 신라의 세력이 북상하면서 백제와의 국경 분쟁지역이었다. 영동은 ‘길동(吉洞), 계주(稽州), 영산(永山), 계산(稽山)’ 등으로 부르기도 했으나 통일신라 경덕왕 당시에 영동으로 개칭하였다. 고려 성종(成宗) 14년(995)에 계주자사(稽州刺史)를 두었고 현종(顯宗) 9년(1018)에는 경상도 상주(尙州)로 소속시켜 명종(明宗) 2년(1172)에 감무(監務)를 두었고 1176년에 현령(縣令)을 두었다가 폐지하였다. 조선 태종(太宗) 13년(1413)에는 보은과 함께 경상도에서 다시 충청도로 이속시키고 현감(縣監)을 두고 영동현이 되었다. 이때 용화(龍化)가 경상도에서 이속되었다. 고종(高宗) 32년(1895)에 영동군(永同郡)이라 칭하고 군내(郡內), 군동(郡東), 남일(南一), 남이(南二), 서일(西一), 서이(西二), 북일(北一), 북이(北二), 양내(陽內), 양남일소(陽南一所), 양남이소(陽南二所), 용화(龍化)의 12개 면을 관할하다가 일제 강점기인 1914년 부·군·면(府·郡·面) 폐합에 따라 황간군(黃澗郡), 옥천군(沃川郡)과 경상도 상주군(尙州郡) 일부를 합병하여 영동(永同), 용산(龍山), 심천(深川), 양강(楊江), 양산(陽山), 용화(龍化), 학산(鶴山), 황간(黃澗), 매곡(梅谷), 상촌(上村), 황금(黃金)의 11개 면으로 개편하였다. 1940년 영동면(永同面)이 영동읍(永同邑)으로 승격되어 1읍 10면으로 오늘에 이르고 있다. 황금면은 1991년 추풍령면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영동군의 면적은 충청북도 전체 면적 7,431.50㎢ 중 11.4%에 해당하는 845.01㎢이다. 영동군 면적의 약 78%(658.29㎢)가 산지로 이루어져 있고 농경지와 기타가 각각 약 14%(119.2㎢)와 8%(68.70㎢)로 되어 있다.

전통과 자연이 어우러진 예향의 고장 영동군은 소백산맥과 노령산맥이 갈라지는 곳에 위치하고 있다. 동쪽에는 놀의산(訥誼山 743m)과 황악산(黃岳山 1,111m)이 있고 서쪽에는 마니산(摩尼山 640m)과 천태산(天台山 715m) 그리고 성주산(聖主山 624m)이 자리하고 있다. 남쪽으로는 천혜의 자연림으로 알려진 민주지산(眠周之山 1,242m)과 석기봉(石寄峰 1,200m), 각호산(角虎山 1,176m), 삼도봉(三道峰 1,176m), 천마령(天摩嶺 926m), 막기황산(1,000m) 등

높은 산들이 모여 있고 북쪽으로는 백화산맥의 포성봉(捕城峰 933m)이 있다. 아름다운 산들로 둘러싸여 있는 영동은 예전부터 경상도로 이어지는 교통로로 이용되어 온 추풍령(秋風嶺)과 괘방령(掛榜嶺)이 지금은 각각 고속도로와 지방도가 지나고 있으며, 경부선 철도가 지나가는 교통의 요충지다. 또한 영동군을 끼고 금강(錦江)과 초강천(草江川)의 2대 하천이 흐르고 있어 수원이 좋으며 양산팔경(陽山八景), 한천팔경(寒泉八景), 물한계곡(勿閑溪谷)등 맑은 물과 아름다운 경치로 관광자원이 풍부한 곳이기도 하다.

영동은 내륙 산지에 위치하여 한서의 차이가 심한 대륙성 기후의 특징을 보이지만 충청북도에서 가장 따뜻하고 일조량이 많은 전국 제일의 고품질 농특산물 생산지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전국 제일의 표고버섯 집산지이고 영동군에서 생산되는 포도·감·호두·사과·배 등의 과일이 전국 생산량의 약 6~11%를 차지한다. 감, 포도, 호도, 표고는 전국적으로도 유명하다.

2009년 8월 31일 현재 영동군에 거주하는 세대수는 21,271세대이며 총 인구는 50,971명으로 세대당 인구는 2.4명이다. 이 가운데 65세 이상 고령이 12,200명이고 외국인인 492명이 등록되어 있으며 이중 남자가 212명, 여자가 280명이다. 2011년 지역어 조사지인 영동군 용산면은 1895년에는 북일면의 산저리(山底里), 풍천리, 송림리와 북이면의 대동리, 와촌리(瓦村里), 어천리의 2개면 6개리로 편성하여 영동군 관할이 되었다. 1914년 총독부령에 의해 행정구역이 통폐합됨에 따라 북일면과 북이면을 통합하고 황간군(黃澗郡)의 서면(西面)과 청화리(靑化里)의 일부, 서일면(西一面)의 광탄동(廣灘洞)을 병합하여 용산면이라 하고 18개의 법정리로 개편하였다.

2011년도 충청북도 지역어 조사지로 선정된 영동군은 충청북도 최남단에 위치하여 동쪽으로는 경상북도 김천시와 상주시, 서쪽으로는 충청남도 금산군, 남쪽으로는 전라북도 무주군, 북쪽으로는 충청북도 옥천군과 접해 있다. 지리적인 특성으로 말미암아 인접한 경상도, 전라도 방언의 영향을 받은 충청북도의 남부 방언권에 속하는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 곳이다. 조사지점인 용산면 구촌리(九村里)는 면 소재지로 1990년 구촌 1리(구촌리: 골말)와 구촌 2리(구촌리)로 분리하였다. 구촌리는 본래 영동현 북북일면 풍천리 지역으로 구석에 있으므로 구촌(九村)이라 하였다고 하나 지역어 조사 제보자인 김동술(金東述) 어른의 말씀에 의하면 크고 작은 아홉 개의 자연마을로 이루어졌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구촌리는 1909년에는 영동군 북일면(北一面)에 속하다가 1914년 행정구역 통폐합에 따라 계땅, 골마, 대문안을 병합하여 평지마 장터 등과 함께 구촌리라 하고 영동군 용산면에 편입하였다. 계땅은 구촌 동북쪽에 위치한 마을이고, 골마는 구촌 산골짜기에 발달한 마을이며, 대문안은 면소재 중심지로 영산 김씨 다섯 형제가 마을을 이룰 때 마을 입구에 큰 대문을 세웠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라고 한다. 구촌리는 면 소재지로서 용산에서 가장 큰 마을이며 382가구 1,187명이 거주하고 있다. 농업인 가구와 회사원, 상업 등 가구가 혼재하는 농촌형 특성을 가진 마을이다. 구촌리는 경부고속도로 영동 인터체인지를 나와 좌회전하여 약 1km쯤 거리에 위치해 있다. 동쪽으로는 백화산으로 가로막힌 경상북도 상주시 모동면 모서면과 경계를 이루고 있고 북쪽으로는 충청북도 옥천군 청성면과 청산면에 인접해 있다. 용산면 구촌리는 영산 김씨 집성촌이다.





## 1.2 예비답사와 제보자 선정 과정

2011년도 충청북도 지역어조사 지역은 충청북도의 최남단에 위치한 영동군을 선정하였다. 이는 지금까지 조사지역이 제천시, 충주시, 청원군(청주시) 등 시 지역이었고 충청북도의 중부지역과 북부지역이었던 점을 고려한 것이다. 여기에 영동군이 경상북도, 전라북도, 충청남도과 접경을 이루는 곳이어서 접촉 방언의 성격을 가장 잘 보여줄 것이라는 점도 고려하였다.

조사지역을 확정하고 나서 조사 지점을 선정하기 위해 2011년 6월 17일 영동군청을 방문하였다. 군청 문화체육과에서 용산면 출신인 전 영동문화원장 김 어르신(79세 계유생)을 소개 받았다. 김 어르신은 40여 년의 교직생활 후 영동군 향토문화연구회 회장 역임하였다. 향토문화연구회 회장을 역임하는 동안 여러 문화사업을 하면서 영동군 전체를 잘 알게 되었고 다른 면의 어른들도 많이 알고 계셨다.

김 어르신으로부터 영동군 전반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었다. 영동군 용화면은 전라도 설천면과 인접하여 있어 전라도 말의 영향을 받았고 상촌면과 황간면, 매곡면은 경상도말투가 강한데 특히 황간은 경상북도 김천과 생활권을 이루고 있어 경상도 방언의 영향이 두드러진다고 하였다. 한편 양산면과, 학산면은 본래 옥천군이었다가 영동군에 편입된 지역이라는 정보를 주셨다.

김 어르신께서는 영동읍 심원리 김씨, 봉현리 박씨와 최씨, 용산면 산저리(밀골)를 소개해 주셨다. 용산면 산저리는 원래 밀골이라고 하는데 금강을 경계로 영동읍과 용산면으로 갈라지는 곳으로 밀양 손씨 집성촌이며 말투도 특이한 곳이라고 하여 손 (82세 경오생), 손 (79세 계유생) 어르신을 소개받고 찾아보았다. 대체로 건강이 좋지 않으시거나 외지 생활을 했거나 젊었을 때 공적인 일을 수행하신 경험이 있거나 하여 적절한 제보자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다시 마을 앞 구멍가게 주인에게 손 (85세, 토끼띠) 어른을 소개받고 찾아보았으나 늘 약주를 즐기시고 물고기를 잡아 파는 일을 업으로 하여 역시 제보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 되었다.

김        어르신으로부터 영동읍        와        도 소개를 받았으나 포도 농사로 일손이 가장 바쁜 철이어서 사람을 만나기가 어려웠다. 소개 받은 지역과 소개 받은 어르신들을 찾아 방문해 본 결과 적절한 제보자를 찾기가 어려웠다. 대부분 건강 상태가 좋지 않거나 적절한 제보자 조건을 갖추지 못하여 제보자로 적절하지 않았다.

그 외에도 매곡면        어른, 양산        어른, 용산면        어른, 수두리 비단강 숲마을을 소개받았으나 지역이나 경력이 지역어 조사 제보자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어 제외하였다. 날이 저물어 영동교육지원청에 들러 영동군 장학사에게 지역어 조사에 적당한 마을이나 제보자를 섭외해달라고 부탁하고 하루 일정을 마무리 하였다.

6월 27일 경부고속도로 인터체인지에서 멀지 않은 영동군 용산면 면사무소 총무과장을 찾아 구촌1리 노인회장이신 김        (노인회장 79세) 어르신을 비롯하여 이        (70대), 김        (70대) 어르신을 소개받아 노인회를 찾았다. 김        회장님을 비롯하여 이        (88세), 진        (73세) 어르신을 뵈었으나 협조를 받지 못하고        리 노인회로 가볼 것을 권유 받고 오후에 영동군 용산면        리 노인회를 찾았다. 노인정에서는 박        (86세, 전직 공무원이고 영동 향교 전교 역임), 김        (86세, 산곡리), 배        (85세, 구촌리) 어른을 뵈었으나 역시 제보자로는 적합하지 않았다. 박        어르신이 적극적이고 협조적이었으나 전직 공무원 등의 경력이 있는데다가 귀가 어두워 주변적인 정보를 더 듣는 것으로 이날의 일정을 대강 마무리하였다.

6월 28일 영동 출신의 박        선생님께 협조를 구했다. 며칠 후 박        선생님의 부친이신 박        어른의 연락처를 알려주면서 만나보라는 연락을 받았다. 박        어른께 연락하여 제보자 조건을 알려주고 적당한 분을 물색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6월 30일 박        선생님으로부터 부친이신 박        어르신과 연락을 취해보라는 연락을 받았다.

7월 1일 박        어른과 통화하여 제보자를 구했다는 연락을 받고 다음날 찾아볼 것을 약속하였다.

7월 2일 아침부터 비가 추적추적 내렸다. 오전에 영동군 용산면에 도착하여 박        어른께 전화를 드리고 노인정에서 만났다. 노인정에는 서너 분의 어르신들이 화투놀이를 하고 계셨다. 박        어른으로부터 지금은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주로 노인정에서 마을 어르신들과 소일하시는 김        할아버지를 소개받았다. 김        할아버지는 용산면 토박이이고 농사만 짓다가 심장병 수술을 하시고는 일손을 놓으셔서 조사를 위해 시간을 내주시기가 쉬웠고 협조적이어서 제보자로 적합하였다. 박        어른과 김        할아버지 그리고 노인회 어르신 몇 분과 점심 식사를 하고 오후에 노인정으로 가서 어르신들과 마을의 특징과 유래에 대하여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노인정 방문을 대강 마무리하였다. 김        할아버지를 댁으로 모시고 가서 본격적인 조사를 위해 사전 점검과 예비 조사를 실시하였다. 우선 김        할아버지께 조사의 목적과 조사 방법 등에 대하여 설명을 드렸다. 할아버지께서 지역어 조사를 위해 제보자가 되어 주실 것을 흔쾌히 약속해 주셨다. 녹음을 위해 조사 장소는 시끄럽거나 소음이 적은 할아버지 댁으로 하기로 하였다. 할아버지는 할머니와 단 두 분이 살고 계셔서 조사 장소로 매우 적절하였다. 할아버지에 대한 제보자로서의 적합성을 확인한 다음 저녁 무렵이 되어 다음날 아침에 다시 올 것을 약속하고 돌아왔다.

### 1.3 조사 기간과 조사 과정

현지 조사는 크게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제1차 조사는 2011년 7월 3일부터 7월 6일까지 이루어졌고 제2차 조사는 8월 12일부터 19일까지 이루어졌다. 본격적인 조사를 위한 제보자 선정과 예비조사가 6월 17일과 6월 27일, 28일, 30일, 7월 1일과 2일까지 있었다. 7월 2일 제보자를 최종적으로 확정하고 다음날인 7월 3일부터 본격적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7월 3일 아침부터 비가 부슬부슬 내리고 있었다. 질문지, 그림책, 녹음기, 카메라, 건전지 등을 챙겨 메고 아침 일찍 조사지로 향했다. 오전 9시 무렵에 제보자 댁에 도착하였다. 제보자인 김 할아버지와 제보자의 부인 김 할머니께 인사를 드리고 제보자와 관련된 인적 사항과 그동안의 경력을 조사하여 제보자로서의 적합성을 다시 한 번 점검하였다. 지금까지의 충청북도 지역어 조사 제보자 가운데 연세가 가장 적은(80세) 분이었다. 나중에 보조제보자로 적극적인 도움을 주신 김 할머니는 77세였고 이웃 면인 옥천군 청성면에서 열일곱 살에 시집 오셔서 지금까지 이 집에서 살고 계신다고 하셨다. 김 할머니는 허리 디스크 증세로 몸이 불편하셔서 움직이는 데 아주 힘들어하셨다. 그래서인지 할머니께서는 나중에라도 조사하지 말아달라고 미리 선을 긋고 말씀하셨다.

오전에는 제보자가 거주하는 용산면 의 자연지리적인 환경과 마을 성립 배경을 시작으로 형제자매와 관련된 이야기, 결혼 과정과 전통 혼례식, 결혼 생활 등 일생 의례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결혼 생활에 대하여 이야기 하는 중간 중간에 옆에 계시던 김 할머니께서 결혼 후 어렵게 사셨던 이야기와 삼 재배와 길쌈에 관한 이야기를 해 주시고 교회에 가셨다.

점심때가 조금 지나 교회에서 돌아오신 할머니께서 불편하신 몸으로 점심 식사를 준비해 주셨다. 두 분을 인근 식당으로 모셔 점심을 대접하겠다는 것을 부득부득 말리시면서 정이 듬뿍 담긴 점심상을 차려 주셨다. 바닥에 앉는 것이 불편하신 할머니께서 서서 점심을 드시는 모습이 안쓰러웠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한참을 쉬었다가 오후 조사를 시작하였다. 오후에 삼 재배와 길쌈에 관한 이야기를 제보자와 보조제보자로부터 더 듣고 환갑잔치와 장례 절차 등 일생 의례에 관한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하루 조사를 마무리 하였다.

7월 4일에도 아침 아홉 시에 제보자를 찾아뵈었다. 전날 다 하지 못한 일생 의례에 관한 제사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하루 조사를 시작하였다. 이어서 생업활동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논농사와 밭농사 그리고 가을걷이와 겨우살이에 대하여 차례로 조사한 다음 마을 공동체 생활을 위한 일손 등 농사를 짓는 순서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였다. 오전에 조사하는 동안에 부여에 사는 딸 내외가 손자 손녀를 데리고 친정에 다니러 와서 잠시 조사를 쉬었다가 인근 식당에 가서 점심 식사를 하고 돌아왔다. 딸 내외가 돌아갈 때까지 제보자 내외와 함께 조사의 취지와 목적 등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다. 딸 내외가 돌아가고 나서 거주생활과 관련된 조사를 하였다. 먼저 결혼 후 6·25로 인해 폐허가 된 집을 짓는 과정에 대하여 설명해 주셨고 이어 가신과 조상 숭배 신앙과 금기 생활에 대한 이야기를 해 주셨다. 오후 다섯 시가 넘어 이날 조사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다음날(7월 5일)은 제보자 할아버지께서 정기 검진을 받으러 대전에 있는 병원에 가시는 날이어서 조사를 쉬고 7월 6일에 찾아뵙기로 하고 돌아왔다.

7월 6일 아침 일찍 제보자를 찾아뵈었다. 전날 검진 결과를 여쭙었는데 특별한 문제는 없

고 평소에 복용하시는 약을 타 와야 했기 때문에 다녀오셨다고 하셨습니다. 이날 조사는 각종 질병과 질병을 치료하는 민간요법에 대한 이야기와 약초캐는 과정과 주변 이야기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가까이에는 높은 산이 없어서 약초는 많이 캐지 않았다고 한다. 이어 연중 세시풍속과 그에 관련된 전통 놀이에 대하여 조사를 하였다. 점심을 먹고 나서 할아버지와 함께 주변 백화산을 돌아 상주시 모동면과 모서면을 거쳐 황간면의 월유봉을 돌아오는 드라이브를 하였다. 약 두 시간 가량이 소요되었다. 집으로 돌아와서는 오후에 전통놀이에 대한 이야기를 마저 들은 다음 조사 마을과 관련된 성참당과 돌고개에 대한 전설과 설화에 대하여 이야기를 들었다. 이어서 물고기 종류와 물고기 잡기, 사냥에 대하여 조사하고 약초에 대하여 보충조사를 하였다. 구술발화 조사를 마치고 농경 부분 어휘 조사를 하던 저녁나절에 평소 노인정에서 자주 함께 하시던 할아버지로부터 좋은 안주가 있으니 약주 한 잔 하시자는 전화가 와서 농경 어휘 조사를 마치고 제보자 할아버지를 모시고 가서 노인정 할아버지들께 약주를 대접해 드렸다. 2011년도 국외 지역어 조사와 조사자의 사정 등으로 8월에 다시 찾아뵙기로 하고 하루 일정을 마쳤다.

7월 13일부터 7월 29일까지 국외 지역어 조사를 위해 중국 길림성 도문시 양수진에 다녀왔다.

8월 9일 음료수와 과일을 사 들고 예고 없이 오후에 제보자 댁을 방문하여 안부를 여쭙었더니 그동안 할머니께서 허리 디스크 수술을 하시고 병원에 계시다가 퇴원한 지 이틀이 되었다고 하셨습니다. 다행히 수술이 잘되어 회복중이라고 하셨습니다. 8월 11일에는 통원치료차 병원에 다녀오셔야 한다고 하셔서 12일에 찾아뵙기로 하고 돌아왔다.

8월 12일 아침 제보자 댁으로 가서 조사를 시작하였다. 조사 내용이 어휘편 음식에 관한 것이어서 제보자와 보조제보자가 함께 하였다. 할머니는 허리에 보조기를 하고 계셔서 주로 서 있거나 의자에 주로 앉으셨다. 조사 내용은 음식의 주식과 부식, 반찬과 별식, 부엌과 그릇에 대한 어휘와 가옥의 방과 가구, 건물, 마당, 마을과 가게에 대한 어휘, 의복의 복식과 장식, 바느질과 세탁에 대한 어휘, 민속의 세시 풍속과 농경용품, 생활용품에 대한 어휘 그리고 인체의 얼굴과 머리 그리고 상체에 대한 어휘를 조사하고 마무리하였다.

8월 13일 아침 제보자 집으로 가서 인체의 하체, 질병과 생리에 대한 어휘를 조사하고 이어 육아와 친족에 대한 어휘를 조사하고 점심식사를 하였다. 제보자 할아버지께서 오후에 아들 내외 가족이 온다고 하면서 뒷동산 정자에서 조사하자고 제안해 오셨다. 시원할 것 같기도 하고 조용할 것 같아 흔쾌히 동의하고 정자로 올라갔다. 정자에는 무더운 열기가 휘감았고, 주변에서 들려오는 풀벌레 소리, 새소리 등도 녹음에 방해가 된다고 생각하니 평소와 달리 귀에 거슬렸다. 그래도 집에서 조사에 방해를 받는 것보다 낫다고 생각하여 정자에서 오후 조사를 시작하였다. 오후에는 물에 사는 동물, 곤충과 벌레, 가축, 들짐승과 날짐승 등 동물에 관한 어휘와 꽃과 풀, 나무, 과일과 열매 등 식물 그리고 산과 들, 강과 바다, 시후, 날씨와 방향 등 자연에 관한 어휘를 조사하여 어휘편 조사를 마쳤다. 어휘편 조사를 마치고 가지고 간 음료수와 간식을 먹으며 잠시 휴식을 취한 다음 음운편 조사를 시작하였다. 단모음, 이중모음 그리고 장모음과 성조에 대한 조사를 마치자 해질 무렵이 되어 이날 조사를 마무리하였다. 14일은 휴일이어서 쉬기로 하고 15일에 다시 찾아뵙기로 하고 돌아왔다.

8월 15일에 제보자 댁에 도착하니 할아버지께서는 벌써 깔고 앉을 자리와 간식거리를 준비하시고 정자에 올라갈 준비를 하고 계셨다. 할머니께서 누우시거나 편하게 쉬실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할아버지의 자상한 배려로 생각되었다. 아침나절 시원한 시간에 음운 과정에 대하여 조사를 시작하였다. 오전에 용언의 활용 부분 조사를 마치고 곡용 일부를 조사하고

인근 식당으로 할아버지를 모시고 가서 점심 식사를 하였다. 점심식사 후 잠시 쉬었다가 오후 조사를 시작하였다. 오후 조사에서는 곡용에 대한 음운과정 조사를 마무리하고 음운편 조사를 마쳤다. 음운편 조사를 마치고 잠시 쉬는 사이에 조사지인 용산면 일대의 지명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다. 이어 문법편 대명사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이날 조사를 마무리하였다. 다음날은 할머니의 병원 진료가 있어 쉬기로 하고 19일에 다시 찾아뵙기로 하였다. 돌아오는 길에 정육점에 들러 쇠고기를 사서 할머니께 드리고 돌아왔다.

8월 19일 아침 일찍 제보자 댁으로 찾아뵈었다. 할머니께서 타 주신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이날 조사를 시작하였다. 조사 내용은 문법 편의 조사(助詞)와 종결어미, 연결어미, 주체존대, 시제, 부정, 사동과 피동, 보조용언이었다. 오전에 문법편 조사를 마치고 오후에는 보조제보자인 김 할머니를 함께 모시고 옷 짓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와 가을걷이와 갈무리 등 농사일과 관련된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구술발화를 조사하였다.

8월 20일은 용산 장날이었다. 아침에 장터에 들러 수박과 복숭아 한 상자 사 가지고 제보자 댁으로 갔다. 제보자 부부의 따뜻한 마음씨에 조금이라도 보답하기 위해서였으나 제보자 부부는 그럴 때마다 손사래를 치셨지만 조사를 끝까지 잘 마무리해 달라는 압력이라는 농담으로 웃어넘겼다. 이날 조사할 내용은 옷 만들기과 염색 등 의생활 관련 내용과 채소 재배와 요리, 나물 채취와 요리, 밀반찬의 조리 등 식생활 관련 구술발화였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서로 보완하면서 이야기를 해 주셨다. 여기에 결혼 생활과 시집살이에 대한 경험담, 기타 자녀들에게 바라는 점 등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질문지에 대한 조사를 마쳤다. 조사를 마치고 제보자를 섭외해 주신 박 어른과 노인정 어르신들을 모시고 점심식사를 대접해 드렸다. 미리 공지를 해서인지 처음 뵙는 어른들도 몇 분 계셨다. 이날의 주 화제는 긴 장마 탓에 고추값이 급값이어서 지난해에 비해 값이 세 배나 비싼 근당(600g) 이만 사 천 원이나 되는데 어떻게 해야 고추에 병이 생기지 않는지에 대한 이야기였다. 점심 식사를 마치고 제보자 댁으로 돌아와 제보자 부부와 제보자 댁의 사진, 마을 사진 등을 찍었다. 12월에 보고서가 완성되면 보고서를 들고 다시 찾아뵈는 것을 약속드리고 전체 조사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 1.4 제보자

### (1) 주제보자

- 이름 : 김 (남, 원숭이띠)
- 나이 : 80세(원숭이띠, 1932년 \*\*월 \*일생)
- 출생지 : 충북 영동군 용산면
- 거주지 : 충북 영동군 용산면
- 선대거주지 : 충북 영동군 용산면
- 직업 : 농업, 무(현재)
- 경력 : 없음
- 학력 : 소학교
- 병역 : 한국전쟁 참전
- 제보자 소개 과정 : 2011년 충청북도 지역어조사 지역은 충청남도과 전라북도 그리고

경상북도과 접경을 이루고 있는 영동군으로 정했다. 조사 지점과 제보자 선정을 위하여 2011년 6월 17일 오전 영동 군청 문화관광과를 방문하여 김 전 영동향토문화연구원장을 소개받고 오후 세 시에 만나기로 약속하였다. 점심 식사 후 영동문화원을 방문하여 김 전 향토문화연구원장님을 만나 지역어 조사에 적당한 마을이나 제보자를 소개해 달라고 부탁하여 많은 정보를 얻었으나 시간이 늦어 소개만 받고 돌아왔다. 2011년 6월 27일 김 어른으로부터 소개받은 영동군 영동읍 을 거쳐 영동군 용산면 을 방문하였으나 적절한 제보자를 찾을 수 없어 용산면 로 이동하여 용산면 사무소에서 노인회장 등을 소개받았으나 역시 적절한 제보자를 찾지 못하고 돌아왔다. 6월 28일 용산면 출신 박 선생님께 부탁하여 제보자 조건에 맞는 적절한 분을 섭외해 달라고 부탁하고 7월 2일 용산면 구촌리를 다시 방문하여 제보자를 소개받았다.

- 제보자의 특기 사항 : 영동군 용산면 출신이고 현재까지 용산면 에서 거주하고 계심. 충기가 좋고 건강하신 편이나 심장 수술 이후 일은 전혀 하지 않고 있다고 하심. 할머니는 인접 면인 옥천군 청성면 출신으로 18세에 결혼하여 계속 용산면 에서 살고 계심. 할머니께서 허리가 불편하셔서 거동이 불편하였고 할아버지에게 조사하는 데에는 협조적이었으나 할머니는 조사를 사절하셨음. 후에 허리 수술을 받으시고 난 뒤의 조사에서는 할머니도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셨다.
- 제보자의 음성 특징 : 발음은 비교적 정확하나 목소리가 작은 편임. 말 끝에 비음성 발음을 덧붙이는 습관이 있다.
- 집 뒤 동산에 있는 정자에서 조사한 경우도 있는데 매미 소리와 벌레 소리가 들려 녹음에 지장을 주는 경우도 있었다.

## ② 보조제보자

- 이름 : 김 (김 할아버지의 부인)
- 나이 : 77세(여, 돼지띠, 1937년생)
- 직업 : 농업, 무(현재)
- 출생지 : 충북 옥천군 청성면
- 거주지 : 충북 영동군 용산면
- 선대거주지 : 충북 옥천군 청성면
- 경력 : 없음
- 학력 : 한글 해독
- 병역 : 해당사항 없음
- 제보자 소개 과정 : 주제보자인 김 할아버지의 아내로서 김 할아버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다.
- 제보자의 특기 사항 : 충기가 좋은 편이나 허리 디스크로 고생하고 계셨음. 조사 기간 동안 디스크 수술을 해서 회복 중이었다. 여성 관련 일에 대하여 비교적 자세히 기억하고 있었다.
- 제보자의 음성 특징 : 발음은 비교적 정확하나 목소리는 차분한 편이었다.

## 1.5 조사 일정

- (1) 조 사 자: 박경래(세명대 교수)  
 (2) 조사 일시: 2011년 6월 17일 ~ 8월 20일  
     제 1차 조사: 7월 3일 ~ 7월 6일  
     제 2차 조사: 8월 12일 ~ 8월 20일  
 (3) 조사 장소: 제보자의 집 또는 제보자 집 뒷동산의 정자  
     충청북도 영동군 용산면 구촌리 제보자의 집  
 (4) 조사 내용:

파일 이름	녹음시간	분 야	제보자	전사여부
SCB_YD_01	42:40	구술발화1: 조사마을의 환경과 배경		미전사
SCB_YD_02	1:54:15	구술발화2: 형제자매 이야기, 일생의례-결혼 과정, 전통 혼례식, 결혼생활 관련		전사
SCB_YD_03	1:26:20	구술발화3: 결혼생활 이야기, 시집살이; 의생활-목화, 삼 재배와 길쌈 관련		전사
SCB_YD_04	13:10	구술발화4: 의생활-목화, 삼 재배와 길쌈		전사
SCB_YD_05	33:15	구술발화5: 목화, 삼 재배와 길쌈 관련		전사
SCB_YD_06	52:20	구술발화6: 환갑잔치, 장례 관련		미전사
SCB_YD_07	20:40	구술발화7: 제사 관련		미전사
SCB_YD_08	1:19:00	구술발화8: 생업활동-논농사 관련		미전사
SCB_YD_09	32:20	구술발화9: 생업활동-밭농사 관련		미전사
SCB_YD_10	1:25:15	구술발화10: 생업활동-밭농사, 가을걷이와 겨우살이 관련		미전사
SCB_YD_11	41:25	구술발화11: 생업활동-마을 공동체 생활을 위한 일손		미전사
SCB_YD_12	1:00:35	구술발화12: 거주생활-집짓기 관련		미전사
SCB_YD_13	11:40	구술발화13: 거주생활-가신과 조상숭배 신앙, 금기 생활		미전사
SCB_YD_14	1:08:30	구술발화14: 질병과 민간요법, 각종 질병과 민간요법, 약초캐는 과정과 주변이야기		미전사
SCB_YD_15	1:09:20	구술발화15: 세시 풍속과 놀이-세시 풍속, 전통 놀이		미전사
SCB_YD_16	05:50	구술발화16: 전통 놀이 관련		미전사
SCB_YD_17	1:13:25	구술발화17: 전통 놀이, 전설과 설화, 물고기, 약초, 사냥		미전사
SCB_YD_18	2:02:30	어휘1: 2.1 농경		미전사
SCB_YD_19	1:12:30	어휘2: 2.2 음식-주식과 부식 20601 쌀밥 ~ 20842 개다리소반		미전사
SCB_YD_20	1:21:05	어휘3: 2.3 가옥-방과 가구 20901 쌀밥 ~ 21206 두레박		미전사

SCB_YD_21	10:20	어휘3: 가옥-마을과 가게 21206 두레박 ~ 21216 에누리	미전사
SCB_YD_22	1:43:00	어휘4: 가옥-마을과 가게 21219 꾸다 ~ 21443 다듬이질	미전사
SCB_YD_23	1:42:10	어휘5: 민속-세시풍속 21501 설날 ~ 21742 도롱이	미전사
SCB_YD_24	49:50	어휘6: 인체-얼굴과 머리 21801 이마 ~ 21937 목물	미전사
SCB_YD_25	1:17:55	어휘7: 인체-하체 22001 복사뼈 ~ 22258 부아	미전사
SCB_YD_26	1:27:00	어휘8: 친족 22301 아버지 ~ 22379 사투리	미전사
SCB_YD_27	1:15:05	어휘9: 동물-물에사는 동물 22401 물고기 ~ 22736 올가미	미전사
SCB_YD_28	1:04:35	어휘10: 식물-꽃과 식물 22801 진달래꽃 ~ 23027 마름	미전사
SCB_YD_29	1:25:35	어휘11: 자연-산과 들 23101 산꼭대기 ~ 23441 서풍	미전사
SCB_YD_30	52:15	음운1: 음운목록-단모음 31001 테 ~ 31052 과자	미전사
SCB_YD_31	28:40	음운2: 음운목록-장모음 성조 31053 일(一) ~ 31088 적다(少)	미전사
SCB_YD_32	03:25	음운3: 음운과정-활용 32001 막-(防)[ㄱ] ~ 32002 흐르-(流)[ㅡ]	미전사
SCB_YD_33	1:23:00	음운4: 음운과정-활용 32003 오-(來)[ㅏ] ~ 32078 닳-(煎)[술에서 장이~]	미전사
SCB_YD_34	1:00:35	음운5: 음운과정-활용 32079 짜-(鹽) ~ 32150 눈-(燠)	미전사
SCB_YD_35	1:02:30	음운6: 음운과정-활용 32151 깨닫-(覺) ~ 32210 쓰다듬-(撫)	미전사
SCB_YD_36	2:00:35	음운7: 음운과정-활용 32211 사:납-(猛) ~ 3.2.2 곡용 32346 여덟(八)	미전사
SCB_YD_37	19:50	음운8: 음운과정-곡용 32346 여덟(八) ~ 32362 밖(外)	미전사
SCB_YD_38	14:30	구술발화18: 영동군 용산면 구촌리 일대 지명 관련	미전사
SCB_YD_39	54:10	문법1: 대명사-인칭대명사 40101 나 ~ 40128 저리	미전사
SCB_YD_40	2:03:00	문법2: 조사-보조사 40230 은/는 ~ 40908 -나/는가 보다	미전사
SCB_YD_41	05:35	문법3: 부사 41001 실컷 ~ 41009 가끔	미전사
SCB_YD_42	01:10	문법4: 부사 41010 먼저 ~ 41012 가득	미전사
SCB_YD_43	1:05:20	문법5: 부사 41013 몽땅 ~ 41116 아니뎨 굴뚝에 연기나라, 부사 일부 확인	미전사
SCB_YD_44	52:00	구술발화19: 옷 짓는 과정, 가을 걷이와 갈무리	미전사
SCB_YD_45	43:20	구술발화20: 가을걷이와 갈무리 -도정, 농사	미전사



		관련 등, 광산 관련		
SCB_YD_46	30:00	구술발화21: 의생활-옷만들기 10418 ~ 염색 10426		미전사
SCB_YD_47	1:17:55	구술발화22: 1.4. 의생활 1.4.3. 옷만들기, 염색 10426 ~ 1.5. 식생활~1.5.3. 밑반찬의 조리 10511 오곡밥		미전사

(5) 조사 시간: 총 46시간 44분 40초

(6) 녹음기: 마란츠 PMD 660

(7) 마이크 : SHURE SM11

## 1.6. 전사

(1) 전사자: 금순미 / 박경래

전사 일시: 2011년 7월 10일 ~ 2011년 12월 4일

전사 내용: 구술발화 1번, 2번, 3번, 4번, 5번 파일 및 어휘, 음운, 문법 항목 전사

구술발화 전사시간: 4시간 48분

구술발화 SCB\_YD\_01 - 42:40

구술발화 SCB\_YD\_02 - 1:56:15

구술발화 SCB\_YD\_03 - 1:26:20

구술발화 SCB\_YD\_04 - 13:10

구술발화 SCB\_YD\_05 - 33:15

어휘 SCB\_YD\_18 ~ SCB\_YD\_29

음운 SCB\_YD\_30 ~ SCB\_YD\_37

문법 SCB\_YD\_39 ~ SCB\_YD\_43

(2) 1차 점검: 박경래

1차 점검 일시: 2011년 11월 7일 ~ 2008년 11월 25일

(3) 2차 점검: 박경래

2차 점검 일시: 2011년 11월 26일 ~ 2009년 12월 4일

## 2. 전사 원칙

### 2.1. 구술발화 전사

영동 지역어의 구술 발화는 여섯 시간 정도의 분량을 전사하였다. 구술 발화는 조사자의 말과 제보자의 말을 모두 전사하되 발음을 그대로 전사하였다. 구술발화는 발화 문장 단위로 분절(segmentation)하여 전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내용에 따라 하나의 이야기 단위로 분절하여 전사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각 분절 단위의 끝은 반드시 문장 종결 부호(마침표, 물음표, 느낌표)로 마무리하였다. 제보자의 이야기 중에 조사자의 말이 들어가 겹치는 경우에는 제보자의 말과 조사자의 말을 각각의 문장으로 나누어 전사하였다. 구술 내용이 전환될 경우에도 조사자의 말과 제보자의 말을 모두 전사하였다. 이야기가 중간에 끊겨 내용이 전환되면 문장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문장부호를 사용하여 문장을 마무리하였다. 의미 내용상 분절이 어려운 경우에는 같은 분절 내에서 문장이 끝날 때까지 전사하고 문장 종결 부호를 넣어 마무리하였다. 전사한 각 분절 단위별로 문장 종결 부호를 넣어 마무리한 다음 이어서 { } 안에 전사한 지역어에 대응하는 표준어 문장을 직역하여 넣고 문장 종결 부호를 넣었다. 하나의 문장 안에서 단어의 일부가 생략되었지만 추정이 가능한 경우 ( ) 안에 생략된 부분을 넣어 의미 파악이 용이하게 하였다.

표준어에 대응되는 어휘나 표현이 없거나 어감이 달라서 설명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지역어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전사한 각 분절 단위마다 전사 번호를 부여하였다. 전사 번호는 구술 내용과 질문지에 제시된 질문 내용의 번호와 일치하도록 하였다. 전사 번호는 분절된 문장의 맨 앞에 입력하고, 발화자 표시는 전사 번호 다음에 한 칸을 띄고 “@”(조사자)나 “#”(제보자) “#1”(보조제보자)와 같은 부호를 입력하였다. 제보자가 다른 사람의 말을 간접 인용하여 말한 경우에는 해당 인용 부분을 따옴표(‘ ’)로 표시하였다. 영동 지역어 조사의 제보자는 세 명이였다. 으나 각각 따로 조사하였기 때문에 구술 참여자가 조사 상황에 여럿 나타나는 경우는 없었다. 음성 전사의 경우 잘 들리지 않는 부분이 있을 때 또는 들리더라도 무슨 소리인지 모를 경우에는 음절 수 또는 모라(mora) 수 만큼 \* 부호를 넣었고, 잘 들리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추측 가능하거나 생략되었더라도 추측이 가능한 경우에는 추측할 수 있는 말이나 생략된 말을 ( ) 안에 표기하였다. 표준어 대역에서도 같은 방법으로 표시하였다. 음절이나 형태소 경계에서 제보자가 휴지를 두어 발음한 경우에는 음절 사이에 “-”를 넣어 표시하였다. 구술 발화 질문지와 전혀 무관한 내용은 발화된 내용에 따라 별도의 항목 번호를 부여하고 문장 단위로 전사하였다.

### 2.2. 어휘 항목의 전사

- ① 조사 항목에 대응하는 지역어 어휘는 조사된 어절 단위로 전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따라서 곡용 어미나 활용 어미가 연결된 경우에는 그들 어미가 포함된 부분까지 전사하였다.
- ② 지역어 어절이 표준어형으로는 띄어 써야 할 경우라도 하나의 발화 단위로 판단되면 지

역어의 음성 전사에서는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다.

- ③ 하나의 표제어에 여러 개의 방언형이 나타나는 경우 각각의 분절에 동일한 항목 번호를 부여하고 전사하였다. 보고서에는 하나의 표제항 아래 여러 개의 방언형이 나타나도록 하였다.
- ④ <주의>를 통하여 조사된 지역어형은 별도의 항목으로 전사하지 않았으나,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표제 항목과 관련된 지역어 정보를 ( ) 안에 기록하였다. 그 외에 추가적인 정보가 필요할 경우에도 ( )안에 기록하였다.
- ⑤ 질문 항목에 없는 지역어형을 전사할 때는 지역어형을 분절하고 어휘 항목 번호로 “=2”를 부여하고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⑥ 지역어형이 없는 경우 또는 조사된 항목에 대하여는 지역어 응답란에 “\*” 표시를 하였고, 지시 대상은 없는데 이름만 있는 경우에는 응답형 뒤에 “&” 표시를 하였다.
- ⑦ 지역어 응답형이 두 개 이상인 경우, 친구형은 응답형 뒤에 (+친), (+구)로 표시하였다.
- ⑧ 사용 빈도의 차이가 있는 경우는 응답형 뒤에 (+다), (+소)로 사용 빈도 차이를 표시하였다.
- ⑨ 지역어형이 비칭과 존칭으로 구별될 때 비칭은 응답형 뒤에 (+비)로, 존칭은 응답형 뒤에 (+존)으로 표시하였다.
- ⑩ 조사 항목에 대한 지역어형이 두 개 이상이고 사용 계층이 노년층과 젊은층으로 구분되는 경우 응답형 뒤에 (+노), (+유)로 표시하였다.
- ⑪ 조사 시 제보자가 생각나지 않는다고 하거나 통상 사용하는 응답형을 생각하지 못할 때 조사자가 해당 어형을 제시하여 나온 응답형일 경우 (조사자 제시)로 기록하였다.
- ⑫ 제보자의 응답형에 대해 제보자가 확신할 수 없어하는 경우에는 (?제)로, 조사자가 응답형에 대해 의문점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조)로 표시하였다.
- ⑬ 확인조사를 통하여 조사된 어휘 항목은 구술발화의 보조 제보자 표시 부호와 나란하게 “#1”를 어휘 뒤에 붙였고 어휘나 음운, 문법 조사에서 보조 제보자의 응답형은 방언형 뒤에 “(보조)”라고 표시하였다.
- ⑭ 질문 항목에 없는 지역어형을 전사할 때는 어휘 항목 번호로 “=2”를 부여하고 어절 단위로 분절하고 전사하였다.

## 2.3. 음운 항목 전사

- ① 조사된 지역어의 어간과 어미가 통합된 음성형을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② 어미를 선택하여 조사하도록 제시한 항목에서는(‘-고(-더라)’, ‘-아/어서(-아/어도)’ 등) 조사하기 쉬운 어미를 선택하고 그 결과를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 ③ 질문 항목에 없는 지역어형을 전사할 때는 음운 항목 번호로 “=3”을 부여하고 어절 단위로 분절하고 전사하였다.

## 2.4. 문법 항목 전사

- ① 표제 항목에 대응하는 지역어가 포함된 부분을 문장 단위로 분절하고 어절 단위로 전사하였다. 표제 항목에 대응하는 지역어가 포함된 부분을 문장 단위로 분절한 것은 해당

문법 항목의 사용 환경을 제시해 주기 위한 것이다.

- ② 질문항목에 없거나 표제 항목에 대응되지 않는 지역어형을 전사할 때는 문법 항목 번호로 “=4”를 부여하고 어절 단위로 분절하고 전사하였다.

## 2.5. 표기 방법

- ① ‘위’가 단모음 [y]로 실현되면 ‘위’로 전사하고 상향 이중모음 [wi]로 실현되면 ‘위[wi]’로 전사하였다.
- ② ‘외’가 단모음 [ø]로 실현되면 ‘외’로 전사하고, 이중모음 [we], [wE]로 실현되면 각각 ‘웨’ ‘웨’로 전사하였다.
- ③ 모음 ‘에(e)’와 ‘애(ɛ)’가 변별적 기능을 가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모두 ‘ㅐ’로 통일시켜 표시하였다. 옥천 제보자는 ‘에(e)’ 발음을 많이 하는 편이었다.
- ④ 비모음은 해당하는 음절 다음에 ~ 표시를 하였다.
- ⑤ 장음은 “:”, 인상적으로 특히 긴 장음은 “::”으로 표시하였다.
- ⑥ 이중모음 으( [yi])는 으ㅡㄴ:구(연구), 으ㅡㅇ:감(영감) 등과 같이 표기하였다.
- ⑦ 하나의 단어 내에서 음절과 음절 사이에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발음하는 곳에는 “-”으로 표기 하였다.
- ⑧ 말을 하다가 생략한 경우에는 “...”로 표기하였다.

2011년 충북 지역어 조사 보고서

### 3. 전사 자료



# 제 1 편 구술 발화

파일번호: 02

SCB\_YD\_02

조사내용: 구술발화-형제자매 이야기, 일생의례-결혼과정, 전통 혼례식, 결혼생활

조사지역: 충북 영동군 용산면 구촌리

제보자: 김 (80세, 남, 원숭이띠)

조사자: 박경래(세명대학교 교수)

조사일: 2011년 7월 3일

조사장소: 제보자의 집

조사시간: 1시간 54분 15초

## 1.1. 일생 의례(제보자의 출생과 성장)

10201 # 그게 예: 가스미, 가스미 갱:장이 이 빠개저 나가능 거그치 아됩니다. {그게 예: 가슴이, 가슴이 팽:장히 이 빠개저 나가는 것같이 아됩니다.}

10201 # 심장이 발, 발짜글 하고. {심장이 발작을 하고.}

10201 @ 그개 저 심:근경새기라구 하능 거연나부내요. {그개 저 심:근경색이라고 하는 거 였나 보네요.}

10201 # 그르치요. {그렇지요.}

10201 # 상:근 영새기지요. {심근경색이지요.}

10201 # 으-ㅇ 경새긴데. {심근 경색인데.}

10201 # 그 인재 츠매: 발짜글 해따가 낭중앤 자꾸 더해 가주고 세 번췌 대수술을 해야된 다 고라더라고요. {그 이제 처음에 발작을 했다가 나중에 자꾸 더 해 가지고 세번 췌는 대수술을 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10201 # 그래가주구 이 가스물 요래 뚝빠개짜녀요. {그래가지고 이 가슴을 이렇게 쪽 빠궂 겹아요.}

10201 # 포가 나지요? {표가 나지요?}

10201 @ 아:아. {아:..}

10201 @ 이 월개 예예. {예예.}

10201 # 포가 나지요? {표가 나지요?}

10201 @ 예. {예.}

10201 # 여 요까지 다 이 아주 여러노코 헐 항 거요. {여 요기까지 다 이 아주 여러 놓고 한 거예요.}

10201 # 그러면 이 피췌럴 여길 뺨미다 요거. {그러면 이 핏줄을 여기를 뺨미다 요거.}

10201 @ 예:. {예.}

10201 # 이댄 피췌럴 혈가닐 빼 가주고. {이 댄 핏줄을 혈관을 빼 가지고.}

10201 # 요기 빼구 요 요기서 여기 이 다 빼구. {여기 빼고 요 요기서 여기 이 다 빼고.}

10201 # 요까지 요거 다: 뽀미다. {요기까지 요거 다 뽀니다.}

10201 # 다: 뽀요. {다 뽀요.}

10201 # 가따 이서 놓 거지요. {갓다 이어 놓은 거지요.}

10201 @ 음:. {음.} 10201 # 허허. {허허.}

10201 @ 아:. {아.}

10201 # 그래 살:고 이찌요 지금. {그래 살고 있지요.}

10201 # 허허. {허허.}

10201 @ 그래두 의수리 조아서. {그래도 의술이 좋아서.}

10201 # 예예: 그래요, 의수리 조아서. {예, 그래요, 의술이 좋아서.}

10201 # 다: 중는다 그래쫌 뭐, 그때는. {다 죽는다 그랬지요 뭐, 그때는.}

10201 @ 그개 저 혈과니 이르케 오 쪼라드러 가주구 그렇 거자나요. {그개 저 혈관이 이렇게 돌아들어 가지고 그런 거잖아요.}

10201 @ 피가 안 통해서. {피가 안 통해서.}

10201 # 그르쵸, 안 통하쵸. {그렇지요, 안 통하지요.}

10201 # 안 통해 가주구 인재. {안 통해 가지고 이제.}

10201 # 그 수술할라구 들면 그 이 저:. {그 수술하려고 들면 그 이 저.}

10201 # 심:장. {심장.}

10201 # 심:장이 이 피쭈머니 아니유? {심장이 핏쭈머니 아니요?}

10201 # 팍팍팍하는데 그 피 팍팍팍 가능 기 지그면 다: 나타납니다. {팍팍팍하는데 그 피가 팍팍팍 가는 게 지금은 다 나타납니다.}

10201 # 아주 저기. {아주 저기.}

10201 # 현대시그로 대 이썬 가주구. {현대식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10201 # 아주 수수라능 기 다 보이두룩 그르케 대이찌요. {아주 수술하는 게 다 보이도록 그렇게 되어 있지요.}

10201 @ 예. {예.}

10201 @ 그:: 하라부지 태어나서서부터 지금까지 사라오신 내려개 대에서 한 번 얘기 좀 해주세요. {그 할아버지 태어나서서부터 지금까지 살아오신 내력에 대해서 한번 얘기 좀 해 주세요.}

10201 @ 머 하이튼 앤날 앤나래 놀:등 거, 머 칭구들 머 머하구 이렇 거. {뭐 하여튼 옛날 앤날에 놀던 거, 친구들 뭐 뭐하고 이런 거.}

10201 # 예예. {예.}

10201 # 그렇. {그런.}

10201 @ 하이튼 머 하실 말씀 인능 거 다 한 번 얘기해 줘 보세요. {하여튼 뭐 하실 말씀 있는 거 다 한 번 얘기해 줘 보세요.}

10201 # 예, 그렇건 머 얘기할 쑈 있지요. {예, 그런 건 뭐 얘기할 수 있지요.}

10201 @ 예:. {예.}

10201 # 나는 인재 이: 지배서 태어난 사라뽀미다. {나는 이제 이 집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10201 # 이: 지배서. {이 집에서.}

10201 @ 아:. {아.}

10201 # 예:, 이 지배서 태어나꾸. {예, 이 집에서 태어났고.}



10201 # 이 아주 초갓찌비써써요, 지비 엔:나래. {이 아주 초갓집이었어요, 집이 옛날에.}

10201 @ 예. {예.}

10201 # 아:주 초가찌비고. {아주 초갓집이었고.}

10201 # 어, 이 집 이 뜨리기 한 질 땀니다. {어, 이 집 이 뜰이 한 길 됩니다.}

10201 # 한 질. {한 길.}

10201 # 그런 초가찌배 사라서, 살:민성 태어난 사라미요 내가. {그런 초갓집에 살아서, 살면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내가.}

10201 # 그런데 어:, 아번님께서 일찌기 도라가시쨌요. {그런데 예 아버님께서 일찍이 돌아가셨지요.}

10201 # 그라구 이제 어먼님하구 인재 눈님덜 둘:, 인재 동생 한 사람. {그리고 이제 어먼님하고 이제 누님들 둘, 동생 한 사람.}

10201 # 그래 나하고 고래 사:남매가 여기서 사라쨌요. {그 나하고 그렇게 사남매가 여기서 살았지요.}

10201 # 그런 쪽:: 머 여기두 엔나래 아주 초님미다. {그런 죽 뭇 여기도 옛날엔 아주 촌이었습니다.}

10201 # 아주 초니니까 머. {아주 촌이니까 뭇.}

10201 # 어: 그냥 농사짓는 초니니까. {어 그냥 농사짓는 촌이니까.}

10201 # 일 나무도 지개로 저다가 사내 가서 저다가 불 때 가뭇서 밥패먹꼬 살:고. {이 나무도 지개로 저다가 산에 가서 저다가 불 때 가뭇서 밥 해 먹고 살고.}

10201 # 어: 그래 살:다보니까 결구건 어디 나가본 대두 우꼬:. {어: 그래 살다 보니까 결국은 어디 나가 본 데도 없고.}

10201 # 그 일찌기 도러가셔쨌:. {그 일찍이 돌아가셨지요.}

10201 # 아번니미 나 스물한 살 때 도라가시쓰니까. {아버님이 나 스물한 살 때 돌아가셨으니까.}

10201 # 머 내가 다: 인재 예: 집 채기뭇 말파시피 하고 사라끼 때미내. {내가 다 이제 예 집 책임을 맡다시피 하고 살았기 때문에.}

10201 # 여기 내려근 대주 대충 다: 압니다. {여기 내력은 대충 대충 다 압니다.}

10201 @ 그러면 하라번니미 장나미싱가요? {그러면 할아버님은 장남이신가요?}

10201 # 내가 장: 장:나민대 눈님덜 두리꼬. {내가 장 장남인데 누님들 둘 있고.}

10201 @ 네. {네.}

10201 # 동생은 어: 대정가 살:다 삼년 저내 주거쨌요. {동생은 대전에 가서 살다가 삼년 전에 죽었어요.}

10201 @ 음. {음.}

10201 # 나보다 먼저 주거쨌요. {나보다 먼저 죽었지요.}

10201 @ 그러면 누님드른뇨? {그러면 누님들은요?}

10201 # 누:님드런 인재 지금 사라 개심미다, 두 분 다. {누님들은 이제 지금 살아 계십니까, 두 분 다.}

10201 # 한 부년 어: 그르녕개 팔썽 여서시지요. {한 분은 예 그러니까 팔십여섯이지요.}

10201 # 둘:째 누니면 팔썽 썸. {둘째 누님은 팔십 셋.}

10201 # 그 나는 팔썽. {나는 팔십.}

10201 @ 음. {음.}

10201 # 내: 동생은 세: 살 터우리조. {내 동생은 세 살 터울이지요.}

10201 # 그르닝께 내: 동상언 칠씨빌곱, 지금 사라 이쓰면. {그러니까 내 동생은 일흔일곱, 지금 살아 있으면.}

10201 @ 음. {음.}

10201 @ 그럼 누님뿐드른 어디 사세요? {그럼 누님분들은 어디 사세요?}

10201 # 한 부넨: 어:. {한 분은 예.}

10201 # 츠:매넨 인재 요 백짜릴리라고 요 가까운대로 시집벌 간는데: {처음에는 이제 요 기 백자리리라고 요기 가까운 데로 시집을 갔는데.}

10201 # 예: 지그먼 인재 사:능 거넨 저:: 청주 가 살:구 이씨요. {예 지금은 이제 사는 건 저기 청주에 가서 살고 있어요.}

10201 # 청주. {청주.}

10201 # 청주에 내가 따리 한, 따리 딱 하난데. {청주에 내가 딸이 한, 딸이 딱 하난데.}

10201 # 따라나 아 하구. {딸 하나 하고.}

10201 # 고고 아:더리 또 두:째 아더리 고가 살:고 이끼 때매. {그그 아들이 또 둘째 아들이 거기에 살고 있기 때문에.}

10201 # 거기서 살:구 이씨요, 지금. {거기서 살고 있지요, 지금.}

10201 # 그라구 인재 자근 누니먼 요 청사나라카는데 살:고 이꼬요, 지금. {그리고 이제 작은 누님은 여기 청산이라고 하는데 살고 있고요, 지금.}

10201 @ 청산. {청산.}

10201 @ 다 정정하시구요? {다 정정하시고요?}

10201 # 근대: 지금 다 정정하지 안치요. {그런데 지금 다 정정하지 않지요.}

10201 # 기도 어두꼬. {귀도 어둡고.}

10201 # 또 모미 다: 조털 아나조. {또 몸이 다 좋지 않지요.}

10201 # 그르께. {그렇게.}

10201 # 또 자근 누니먼 허리가 이 꼬보::랑 합니다. {또 작은 누님은 허리가 꼬부::랑 합니다.}

10201 # 머 좀 환:자 테기지요 머. {뭘 좀 환자 같지요.}

10201 @ 가끔 이르께 만나시거나. {가끔 이렇게 만나시거나.}

10201 # 예, 만나지요. {예, 만나지요.}

10201 # 일:려내 한 번 쓰건 만내고. {일년에 한 번 썩은 만나고.}

10201 # 두: 번두 만내기두 하고 만내지요. {두 번도 만나기도 하고 만나지요.}

10201 @ 절물 절물 때 가치 클 때보다 더: 요새 만나면 더: 새록새로 카지시요? {젊은 때 같이 클 때보다 더 요새 만나면 더 새록새록하시지요?}

10201 # 그르치오::. {그렇지요.}

10201 # 근 머 참 늘거갈쭈록 어 자꾸 만내쓰면 하는데. {그건 뭘 참 늘어갈수록 어 자꾸 만났으면 하는데.}

10201 # 자주 몸 만내지요 더, 옛날보담. {자주 못 만나지요 더, 옛날보다.}

10201 @ 예. {예.}

10201 # 인재 나이 머꾸 이라닝께 점점 더 몸:만내요. {이제 나이 먹고 이러니까 점점 더 못 만나고.}

10201 # 일려누 맵::뻥씩 만내 썩 만내서 하는데. {일 년에 몇: 번씩 만나서 만나서 하는데.}

10201 # 지그먼 인재 활똥러기 즈거저 자주구 와따가따 자주 모타지요. {지금은 이제 활동력이 작아가지고 왔다 갔다 자주 못 하지요.}

10201 @ 그러면 스무 살, 스무란 살 이때 선친께서 도라가시고:. {그러면 스무 살, 스물한 살 때 선친께서 돌아가시고.}

10201 @ 그리구 인젠 농사지싱거요, 그럼? {그리고 이제 농사지으신 거예요, 그럼?}

10201 # 그르치오:. {그렇지요.}

10201 # 농사릴 참 여:러 가지 해씀니다. {농사를 참 여러 가지 했습니다.}

10201 # 농사도. {농사도.}

10201 # 근대 이 농사를 지따 보니까. {그런데 이 농사를 짓다 보니까.}

10201 # 고 땅이 만:치 안초:. {그 땅이 많지 않지요.}

10201 # 여기 땅이 마:는대가 아님미다. {여기 땅이 많은 데가 아닙니다.}

10201 # 아:주 살:기가 어려운 어:: 지여기여썬요. {아주 살기가 어려운 에 지역이었요.}

10201 # 그래서. {그래서.}

10201 # 이 그라고 옴나래, 지금:-도 마창가지지만. {이 그리고 옛날에는, 지금도 마찬가지로.}

10201 # 이 농사질 땅이 여::기 저기 이래 부터이씀니다. {이 농사질 땅이 여기 저기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10201 # 그라면 이 지개로 어: 거러덜 저다가. {그러면 이 지개로 에 거름을 저다가.}

10201 # 아:. {아.}

10201 # 버: 자주고 그 누덜 자주고 인재 예: 퇴비 하 해: 자주고. {부어 가지고 그 놈을 가지고 이제 에 퇴비를 해 가지고.}

10201 # 농살 지키타보면 보::통 고여기 아니지요::. {농사를 짓다 보면 보::통 고역이 아니지요::.}

10201 # 그리고 요 땅이 존 지여기 아니애요. {그리고 여기 땅이 좋은 지역이 아니애요.}

10201 # 토오카질 안씀미다, 요개. {토옥하질 않습니다, 여기.}

10201 # 저 잘 안 대지요. {잘 안 되지요.}

10201 # 곡씨기. {곡식이.}

10201 # 그래두 이: 농사:꺼리는 머 만:치도 양코 이래서. {그래도 이 농사거리는 뭐 많지도 않고 이래서.}

10201 # 여::러 가지 농살 지바쨌오~::. {여러 가지 농사를 지어 봤지요.}

10201 # 어: 바태는 담::배도 싱가 보고. {밭에는 담배도 심어 보고.}

10201 # 인삼도 해 보고. {인삼도 해 보고.}

10201 # 머 이 채:소장물도 해 보고. {뭐 이 채소 작물도 해 보고.}

10201 # 별걸 다 해바쨌. {별 걸 다 해봤어.}

10201 # 근대 팔로가 조칠 안치요, 여긴 또. {그런데 팔로가 좋질 않지요, 여긴 또.}

10201 # 그룽 건 옴:나래 음. {그런 건 옛날에 음.}

10201 # 에:: 인재 옴:나랜 경웅기 이렇 개 나와 자주 인재. {에 이제 옛날에 경웅기 이렇게 나와 가지고 이제.}

10201 # 경웅기로도 가따 팔고. {경웅기로도 가져다 팔고.}

10201 # 그: 아주 옴:나래년 소나 이렇 걸로 썬:르다가 팔든지. {그 아주 옛날에는 소나 이런 걸로 실어다가 팔든지.}

10201 # 지개루 저다 파라야 대요. {지개로 저다 팔아야 돼요.}

10201 # 그라고 인재 여기 장:이 여기도 장:언 습미다. {그러면 이제 여기 장이 여기도 장은 습니다.}

10201 # 그걸 인재 여:러 군대 갈라면. {그걸 이제 여러 군대를 가려면.}

10201 # 여기 세:군대 장언 갈 쭈가 이썬요. {여기 세 군대 장은 갈 수가 있어요.}

10201 # 세: 군대. {세 군대.}

10201 # 영동 장. {영동 장.}

10201 # 영동 장이 켈: 크지요~:. {영동 장이 제일 크지요.}

10201 # 항간 장. {황간 장.}

10201 # 청산 장. {청산 장.}

10201 # 인재 여기: 장이 스니께 여기 장 보고. {이제 여기 장이 서니까 여기 장 보고.}

10201 # 그렇 걸 땡그러노면 그르케 도라 땡기민 파라야 대요. {그런 걸 만드려 놓으면 그렇게 돌아 다니면서 팔아야 돼요.}

10201 # 그으. {그.}

10201 # 그 수아기 별로요:, 일러내.{그 수확이 별로요, 일 년에.}

10201 # 사라온 내여걸 얘기해 보며노. {살아온 내역을 얘기해 보며요.}

10201 @ 농토는 얼마나 대선는대요? {농토는 얼마나 대셨는데요?}

10201 # 농토는, 어 약 한 전체에서 한 이천 평 정도 부쳐 보고:. {농토는, 약 한 전체에서 한 이천 평 정도 부쳐 보고.}

10201 # 그래 아:드리 여러시니까 자꾸 학빠에 파라머거야 대요.{그래 아들이 여럿이니까 자꾸 학비에 팔아먹어야 돼요.}

10201 # 그래 자꾸 줄과썰요 머. {그래서 자꾸 줄였지요 뭐.}

10201 # 그: 학빠릴 점부 내:고 학, 공부시켜썬니다. {그 학비를 전부 내고 학, 공부시켰습니다.}

10201 # 한 사람도 혜:택뿐 니리 업썬요. {한 사람도 혜택본 일이 없어요.}

10201 # 수업료 다: 내야 대고. {수업료 다 내야 되고.}

10201 # 어: 기성해비 다 내야 대고. {기성회비 다 내야 되고.}

10201 # 머 일리리 다: 내가민성 공부 시키썰요. {뭐 일일이 다 내가면서 공부를 시키지요.}

10201 # 그래 대학교 한 사람배께 모: 시키썰요. {그래 대학교 한 사람밖에 못 시켰어요.}

10201 # 그라고 어: 점부 고등학교, 중학교에 끝마 끝마치기도 하고. {그리고 예 전부 고등학교, 중학교 끝마 끝마치기도 하고.}

10201 @ 그::런 곡씨:글 시물 때 제일 그래도 수하기 마능 개 어떻거여썰요? {그런 곡식을 심을 때 제일 그래도 수확이 많은 게 어떤 거였어요?}

10201 @ 도우미 마:니 땡거? {도움이 많이 된 거?}

10201 # 수하기 마:이 땡거넌 그래두 잘: 지면 인사미 켈: 나썰요~ 머. {수확이 많이 되는 것은 그래도 잘 지으면 인삼이 제일 낫지요.}

10201 # 그라고 인재 담:배가 땅거보담 수하기 좀 나:닝까. {그리고 이제 담배가 다른 것보다 수확이 좀 나으니까.}

10201 # 이 건조::시래, 연:날 건조시런 이 흐그로 싸: 올린 흑뻥. {이 건조실에, 옛날 건조실은 흙으로 쌓아 올린 흙벽.}

10201 # 거기 그렇 기 건조시립니다. {거기 그런 게 건조실입니다.}

10201 # 지그먼 인재 다: 이 기계 건조시리지요. {지금은 이제 다 이 기계 건조실이  
지요.}

10201 # 그른대 예:: 그 두 개까지도 가지구 담:배 농사두 해: 바썰요. {그런데 예 그 두  
개까지도 가지고 담배 농사도 해 봤어요.}

10201 # 근대 인:삼 농사년 그 한 십년 해썰요, 인삼 농사털.{그런데 인삼 농사는 한 십  
년 했어요, 인삼 농사를.}

10201 # 인삼 농산 참 그거는 어렵습니다. {인삼 농사는 참 그것은 어렵습니다.}

10201 # 인삼 농사. {인삼 농사.}

10201 # 이: 땅얼 일런 간 무커야 대요. {이 땅을 일년 간 묵혀야 돼요.}

10201 # 거 인삼 거르멀 할라면. {인삼 거름을 하려면.}

10201 # 아주 그개 옌나랜. {아주 그개 옛날엔.}

10201 # 그라고 옌나래 한 어:: 시보: 년 저내 잉삼 농살 해썰요. {그리고 옛날에 한 예:  
십오 년 전에 인삼 농사를 했어요.}

10201 # 그때만 해도 지금 인삼 농사하고 다릅니다. 지그먼. {그때만 해도 지금 인삼 농사  
하고 다릅니다, 지금은.}

10201 # 그때년 푸럴 해:다가 바태다 까라 가주구, 소로 가라 가주 디지버 가주구, 그걸  
썬습니다.{그때는 풀을 해다가 밭에다 깔아주고 소로 갈아 가지고 뒤집어 가지고,  
그걸 썬습니다.}

10201 # 그 저 가랑넙꺼튼 걸, 이렇 걸. {그 저 가랑잎 같은 걸, 이런 걸.}

10201 # 인삼: 농사진능 건 보시썬 끼여, 더러, 교순님도. {인삼 농사 짓는 건 보셨을 거  
야, 더러, 교수님도.}

10201 # 그르케 하며년 그 십 년쭈건 해야지. {그렇게 하면 그 십 년쭈은 해야지.}

10201 # 그래도 그 수하걸 재대로 볼 쭈가 이썰요. {그래도 그 수확을 제대로 볼 수가 있  
어요.}

10201 # 그 짜료털 안 내뿌릴라만. {그 재료를 안 내버리려면.}

10201 @ 음. {음.}

10201 # 그래 가주구 이기 썬릴 일런 키워야지요. {그래 가지고 이게 썬를 일 년 키워야  
지요.}

10201 # 그래 또 사:년. {그래 또 사:년.}

10201 # 지금 여긴 옹년근 농사 여가내 안 진 묻 쯔니다, 여기는. {지금 여긴 육년근 농사  
여간해서 안 짓 못 짓습니다, 여기는.}

10201 # 어 옹년그니야 거 홍삼-이쥬~. {육 년근이야 홍삼이지요.}

10201 # 근대 인재 여기는 뽕싸무루 다 파라야 땀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는 백삼으로 다  
팔아야 땀니다.}

10201 # 그라면 그기: 예 얼마 걸리나면 옹 년 걸립니다. {그럼 그게 얼마나 걸리느냐하면  
육 년 걸립니다.}

10201 # 옹 년. {육 년.}

10201 # 옹 년 걸리고 함 번 딱카면 전부 소:땀니다. {육 년 걸리고 한 번 딱 하면 전부  
손해입니다.}

10201 # 한 번만 암:만 자래따캐도 소내여. {한 번만 아무리 잘 했다고 해도 손해야.}

10201 # 자료드러깅 기개. {재료 들어 간 게.}

10201 # 근대 이걸 오래하고 수이별 좀 더 보려면. {그런데 이걸 오래하고 수입을 좀 더 보려면.}

10201 # 게소캐서 연자걸 해야 대녕 거여. {계속해서 연작을 해야 되는 거야.}

10201 # 게소캐서. {계속해서.}

10201 # 근대 그거뚜 또 여 여유치 아눔떠다. {그런데 그것도 또 여의치 않습니다.}

10201 # 그래서 한 십년 간 따카고 마라쨌요. {그래서 한 십 년간 딱 하고 말았지요.}

10201 @ 하라부::지는 여기서 나:서, 여 이지배서 나셔서 이지배서 쭉 사셔꼬. {할아버::지는 여기서 나:서, 이 집에서 나셔서 이 집에서 쭉 사셨고.}

10201 # 예. {예.}

10201 @ 그개 그러니까 팔십 년 여기서 사선내요? {그개 그러니까 팔십 년 여기서 사셨네요?}

10201 # 그르쵸:. {그렁쵸:.}

10201 # 해. {해.}

10201 @ 지금 연새애. {지금 연세에.}

10201 # 웅기지 아난쑤니다. {웁기지 않았습시다.}

10201 @ 아, 연새가 여드니라고 하시니까. {아, 연세가 여든이라고 하시니까.}

10201 @ 그: 잔나비떠:라고 그러셔쨌? {그러니까 잔나비떠라고 그러셨쨌?}

10201 # 예. {예.}

10201 @ 그리고 인제 크싱거뚜 여기서 크셔꾸 그지요? {그리고 크신 것도 여기서 크셨고 그렇지요?}

10201 # 그러쵸:. {그렁쵸:.}

10201 @ 학교는::? {학교는?}

10201 # 학교는 지금 여 구렁초등학교가 인년대 저 용산초등학교 땡기쑤요. {학교는 지금 여기 구룡 초등학교가 있는데 저 용산 초등학교를 다녔어요.}

10201 # 거기 쨌: 먼저 설리비 대편 학교요, 여기년. {그게 제일 먼저 설립된 학교요, 어기는.}

10201 @ 그때는 이르미 머여쑤요? {그때는 이름이 뭐였어요?}

10201 # 그때: 그때도 동수리지요. 사문 {그때도 동술이지요. 사뭇.}

10201 @ 아니, 학교 이름? {아니, 학교 이름?}

10201 # 학교 이름? {학교 이름?}

10201 @ 예. {예.}

10201 # 용산국민학교요. {용산 국민학교요.}

10201 # 그때 용산국민학교라캐요. {그때 용산 국민학교라고 해요.}

10201 @ 예:. {예:}.

10201 # 일짱 때. {일정 때.}

10201 @ 네. {네.}

10201 # 진 학교니까. {지은 학교니까.}

10201 @ 그러면 그때 먼년 간 다니셔쑤요? {그러면 그때 몇 년 간 다니셨어요?}

10201 # 용 년노. {육 년이요.}

10201 @ 용 년? {육 년?}

10201 # 음 녀너지요. {육 년이지요.}

10201 @ 음. {음.}

10201 @ 그:러면 일째::때 그말기::나요, 일째? {그러면 일제 때 그 말기였나요?, 일제?}

10201 # 일째 말기죠. {일제 말기죠.}

10201 @ 예. {예.}

10201 # 예, 일째 말기. {예, 일제 말기.}

10201 # 오, 오항년까징 거기서 다니고. {오 오학년까지는 거기서 다니고.}

10201 # 인재 참 저 일 일쩍 교유걸 바꼬. {이제 참 저 일 일정 교육을 받고.}

10201 # 어: 일항, 이래 일항년만, 거 유강년 때만 아: 항글 배우고. {에 일학 일학년만, 그 육 학년 때만 아 한글 배우고.}

10201 # 조러블 해찌요. {졸업을 했지요.}

10201 @ 음:. {음.}

10201 @ 그때::는 그러면 나이가 어느 쯤도 대쓸때 다녀썬요? {그때는 그러면 나이가 어느 정도 됐을 때 다녔어요?}

10201 @ 그때는 연세분 드신분들도 다니고 막 그래따 그래대요? {그때는 연세분 드신 분들도 다니고 막 그랬다 그래대요?}

10201 # 그러쵸. {그렇쵸.}

10201 # 장:개 간 사람도 다니썬요. {장가 간 사람도 다녔어요.}

10201 # 장:개간 사람도 가치 다녀썬요. {장가 간 사람도 같이 다녔어요.}

10201 @ 음:. {음.}

10201 @ 하라번니문 그때 연세가 어어? {할아버님은 그때 연세가?}

10201 # 그렇개 드러갈 켜 아홉살 때 드러간나요? {그러니까 들어 갈 적에 아홉 살 때 들어갔나요?}

10201 # 아홉 살 때. {아홉 살 때.}

10201 # 옴나랜 지금가치 머 일곱 살, 여서 썬로 아나쵸. {옛날엔 지금같이 뭐 일곱 살, 여섯 살로 안 하지요.}

10201 # 더 느깨 가지요. {더 늦게 가지요.}

10201 # 초등학교. {초등학교.}

10201 @ 그리구 나서 그럼 학교 마치고서는? {그리고 나서 학교 마치고서는?}

10201 # 학교 마치고부터면 농사일 해쵸:. {학교 마치고부터는 농사일 했지요.}

10201 @ 농사. {농사.}

10201 # 농사일. {농사일.}

10201 # 농사일 하다가 하하 유기오 사뵈니 나: 가주 인재. {농사일 하다가 하하 육이오 사뵈니 나가지고 이제.}

10201 # 구닌 가따 오고. {군인 갔다 오고.}

10201 # 전:쟁언 아내썬니다. {전쟁은 안 했습니다.}

10201 @ 아, 유기오 때는 그림: 어트개 지내썬쵸요? {아, 육이오 때는 그림 어떻게 지내셨어요?}

10201 # 유기오 때 그 유기오::가 이... {육이오 때 그 육이오가 이...}

10201 # 용사니 여기 전장뵈니다. {용산이 여기가 전쟁터입니다.}

10201 # 진짜 여 아주 뻑썬::늘 한 대요. {진짜 여기 아주 백전을 한 데요.}

10201 # 요거 아주 유:명한 댐니다. {요기가 아주 유명한 데입니다.}

10201 # 옴:날부터 이 전장-이 부터따하면. {옛날부터 이 전쟁이 붙었다 하면.}

10201 # 전장하문서 치르는 니 동네라고 그러는데. {전쟁하면서 치르는 이 동네라고 그러는데.}

10201 # 여 사:람 마:이 주거썬요. {여기 사람이 많이 죽었어요.}

10201 # 인임군도 마이 죽꼬. {인민군도 많이 죽고.}

10201 # 여 미군두 와서 여기 주두내 가주고 전장한 대요. {여기 미군도 와서 여기에 주둔해 가지고 전장한 대요.}

10201 # 미군 여 유:기오 때 춤:. {미군 여기 육이오 때 처음.}

10201 # 저 대전하고. {저 대전하고.}

10201 # 대전서 전장하고 나면 여기 예: 진찌 구:추캐 가주구, 여기 와서 전장한 대요. {대전에서 전쟁하고 나면 여기 예: 진지 구축해 가지고, 여기 와서 전장한 대요.}

10201 # 그래서 전장-이 이러나니까 머 피란을 양 갈 썬가 업썬. {그래서 전쟁이 일어나니까 뭐 피란을 안 갈 수가 없지요.}

10201 # 그 피란날 알:루 니리간다능 기 가다 가다가 저 어. {그 피란을 아래로 내려간다는 게 가다가 가다가 저.}

10201 # 성조: 그러닝께 낙동강. {성주 그러니까 낙동강.}

10201 # 지금 저 왜, 왜간 거 다리 끄너전 그 다리. {지금 저 왜 왜관 거기 다리 끊어진 그 다리.}

10201 # 그걸 모:건내 가고 우린 대로 올라와썬. {그걸 못 건너가고 우린 도로 올라왔지요.}

10201 # 저녕: 거 내리가다봉께 그 머, 차다니 대 가주구 모:까개 하니 머 할썬 업썬. {저 녀 거 내려가다 보니까 그 뭐, 차단이 돼 가지고 못 가게 하니 뭐 할 수 없지요.}

10201 # 그래 다시 올라와 가주. {그래 다시 올라와 가지고.}

10201 # 그른대 지내다가. {근데 지내다가.}

10201 # 해복 참 저 어:: 구닌더리 인재 우리 국꾼더리 이 올라와 가주. {회복 참 저 예 군인들이 우리 국군들이 이 올라와 가지고.}

10201 # 그냥 그대::로 살다가 이제 정시그로 가는 군대로 가썬. {그냥 그대로 살다가 이제 정식으로 가는 군대로 갔썬.}

10201 # 제:주도 가서 홀러는 바꼬. {제주도 가서 훈련은 받고.}

10201 @ 음:. {음:.}

10201 @ 그 그 유:기오 때 얘기 줌 해썬 보세요. {그 그 육이오 때 얘기 줌 해썬 보세요.}

10201 @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그때 상황이 어땠는지.}

10201 # 상황언 여기 아::주 시:만 전투럴 한대라나서. {상황은 여기 아주 심한 전투를 한 데라와서.}

10201 # 이 부리 싹:: 이 동네가 싹:: 타썬썬니다. {이 불이 싹 이 동네가 싹 탔썬썬니다.}

10201 # 아 싹: 타고. {싹 타고.}

10201 # 어:: 그: 가따 오는 온 그 결과를 썬썬 얘기해 보면. {예 그 갔다오는 온 그 결과를 썬썬 얘기해 보면.}

10201 # 지금 저 심무내 노근리라고 마:이 나오지요? {지금 저 신문에 노근리라고 많이 나오지요?}



10201 # 노근니 사꺼니라고. {노근리 사건이라고.}

10201 @ 예예예. {예.}

10201 # 음, 이제 우리가 피:란갈 때는 저짜그로 이래 도라서 철: 천 천:: 천날 피라넨 여  
덕찐동이라는대 가서 피라늘 하고 하루찌넉 자고.{음, 이제 우리가 피란갈 때는  
저쪽으로 돌아서 철 첫 첫날 피란은 여기 덕찐동이라는 데 가서 피란을 하고 하루  
저녁을 자고.}

10201 # 발써 막: 아: 자꾸 인재 후태해 내리오고 이라는대 그거릴 참: 기가 매킨 꼴두 보  
지요, 우리. {벌써 막 예 자꾸 이제 후퇴해 내려오고 이러는데 그거를 참 기가 막  
힌 꼴도 보지요, 우리가.}

10201 # 이제 이 덕찐가서 막 피란 하루찌넉카는대 임:민구니 막 선발 때 와썬요:. {이 덕  
찐 가서 막 피란을 하루 저녁을 하는데 인민군이 막 선발대 왔어요.}

10201 # 그 덕찐동이라는대 와썬요, 와썬. {그 덕찐동이라는 데 왔어요, 왔어.}

10201 # 그래 막 지내가고 이썬요 아패. {그래 막 지나가고 있어요 앞에.}

10201 # 피란미니랑 가치 지내가능 거 우리가 모껴글 하고 봐:썬요 우리. {피란민이랑 같  
이 지나가는 것을 우리가 목격을 하고 봤:어요 우리가.}

10201 # 그래도 어트감니까?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10201 # 자꾸 피라늘 갈 쑈배끼. {자꾸 피란을 갈 수밖에요.}

10201 # 전장은 여기서 안 안죽 아나는대. {전쟁은 여기서는 안 아직 안 하는데.}

10201 # 이제 그라고 어: 차차차차 찬차이 니리가능 거지요. {그리고 어 차차차차 천천히  
내려가는 거지요.}

10201 # 우리넨 거러서. {우리는 걸어서.}

10201 # 소도 함 마리 몰:고 가지 야:들 등애 어꼬 지고. {소도 한 마리 몰고 가지 야:들  
등애 업고 지고.}

10201 # 어 인재 그때마내두 뭐 어:: 인재 초동하꼬 재우 조려파고 구닌 갈 나이는 대쓰니  
까. {이제 그때만 해도 뭐 어:: 이제 초등학교 겨우 졸업하고 군인 갈 나이는 됐으  
니까.}

10201 # 머 질머지구 땡기고 야:들도 가치 막 질머지고 이래 내리가썬요. {뭐 쭈어지고 다  
니고 아이들도 같이 막 쭈어지고 이렇게 내려갔지요.}

10201 # 그래 인재 우리 니리갈 때 막 점부 여기 예 전:장 준비합니다. {그래 이제 우리  
내려갈 때 막 전부 여기 예 전쟁 준비합니다.}

10201 # 아:, 그렇께 여기넨 전:장터니까. {아, 그러니까 여기는 전쟁터니까.}

10201 # 아 야:포넨 바 저: 요 너매 당지그튼대 저 황간그튼대 가따 야: 포:진찌 차려 노  
코. {아 야포는 저 요 넘어 당지 같은데 저 황간 같은 데 가져다 포진지를 차려  
놓고.}

10201 # 우리가 인재 전:쟁하능 걸 보구 내리가능 거여 막. {우리가 이제 전쟁하는 걸 보  
고 내려 가는 거요 막.}

10201 # 여기 전:장하넨 걸. {여기 전쟁하는 걸.}

10201 # 이 우리 아: 우리 야:구니 구꾸니 포 쏘능 기 보입니다. {이 우리 아(군) 우리 아  
군이 국군이 포 쏘는 게 보입니다.}

10201 # 보이고 가서 떠러지넨 거뚜 보이고. {보이고 가서 떨어지는 것도 보이고.}

10201 # 폭파라넨 거또. {폭발하는 것도.}

10201 # 그리구 우리가 인재 자꾸 피라늘가야 살쌍부르닝께 자꾸 내뺄지요 머. {그리고 우리가 자꾸 피란을 가야 살 것 같으니까 자꾸 내뺄지요 뭐.}

10201 # 그 여기서 사밀:: 가닝가, 오 오:일 간 해따카등가. {그 여여기에서 삼일 간인가, 오 오일 간 했다고 하딘가.}

10201 # 사밀 간 해편지 기어개 아삼푸리하네요. {삼일 간 했던지 기억이 아삼푸레하네요.}

10201 # 그래 전:장얼 여기서 하고 인년대 자꾸 니리가지요. {그래 전쟁을 여기서 하고 있는데 자꾸 내려가지요.}

10201 # 니리가서 니리가다가 인재. {내려가서 내려가다가 이제.}

10201 # 자꾸 그 인명군드리랑 가치 니리가능 거요. {자꾸 그 인민군들이랑 같이 내려가는 거요.}

10201 # 우리가 선발때랑. {우리가 선발대랑.}

10201 # 전:장언 인재 여기서 하고 이꾸. {전쟁은 이제 여기서 하고 있고.}

10201 # 그래 우린 자꾸 니리가문. {그렇게 우리는 자꾸 내려가면.}

10201 # 그 총 미구 가능 기 바매넌 마리오. {그 총 메고 가는 게 밤에는 말이야.}

10201 # 그 완전 그 인명군 푸른 복짱하구두 니리가요. {뭐 완전 그 인민군 푸른 복장하고도 내려가요.}

10201 # 가덜. {개들이.}

10201 # 그래두 그 몰 몰 모:짜바요. {그래도 그 못 못 못 잡아요.}

10201 # 가치 거러난자덜하곤 전장얼 아내요. {같이 걸어가는 자들 하고는 전쟁을 안해요.}

10201 # 가문서 자꾸 내리가기만 하지. {가면서 자꾸 내려가기만 하지.}

10201 # 그 인재 낭:중애 인재 며칠 한 사밀 가닝가. {그 이제 나중애 이제 며칠 한 삼일 간인가.}

10201 # 자꾸 니리가다 봉개. {자꾸 내려가다 보니까.}

10201 # 저 성주라는대까지 가썬요. {저 성주라는 데까지 갔어요.}

10201 # 우리가 성주. {우리가 성주.}

10201 # 인재 피란끼를 자꾸 따라 니리 가능 거지요. {이제 피란길을 자꾸 따라 내려 가는 거지요.}

10201 # 그래 벌써 인재 여긴 전장이 끝나고. {그래 벌써 여긴 전쟁이 끝나고.}

10201 # 어: 그 인재 낙똥강 전투가 버려전다능 기요. {그 이제 낙동강 전투가 벌어진다는 거요.}

10201 # 그렇게 뽁 쫑수벌 하년대. {그러니까 막 공습을 하는데.}

10201 # 피란미니 갈 쭈인나요. {피란민이 갈 수 있나요.}

10201 # 그 철거 막 끄너부련 끄너재끼고. {그 철근 막 끊어버렸, 끊어 찢히고.}

10201 # 근대 다시 올라오는 수배끼 어트기요. {근데 다시 올라오는 수밖애 어떻게.}

10201 # 니리가덜 모다고 다시 올라와쥬. {내려가지를 못하고 다시 올라왔지요.}

10201 # 다시 올라올 때에는 인재 기름길로 와쥬~:. {다시 올라올 때는 기름길로 왔지요.}

10201 # 기름길로. {지름길로.}

10201 # 이 피:라널 가따 올라오년대. {이 피란을 갔다 올라오는데.}

10201 # 한 사흘 네리가느라고 잠 모짜고. {한 사흘 내려가느라고 잠 못 자고.}

10201 # 올라오느라구 하루 찌넉 잠 모짜고. {올라오느라고 하루 저녁 잠 못 자고.}

10201 # 이틀찌넉 잠 자멀 안 자닝께. {이틀 저녁 잠 잠을 안 자니까.}

10201 # 거리 오는대도 자미 와요. {걸오 오는 데도 잠이 와요.}

10201 # 그럼 논뚜렁애 이래 지채가다가 폭 빠지기도 하고. {그럼 논두렁에 이래 지나가다가 폭 빠지기도 하고.}

10201 # 그런대 가족찌리 가따가 난 지비 하도 궁구매서. {그런데 가족끼리 갔다가 난 집이 하도 궁금해서.}

10201 # 찬차이 올라오라카고. {천천히 올라오라고 하고.}

10201 # 미리 미리 미리 올라오는데 그런 꼬털 보고. {미리 올라오는데 그런 꼴을 보고.}

10201 # 그 노근니 진짜 구:래 사:람 주궁 걸 집쩍 모껴캐쨌요. {그 노근리 진짜 굴:에 사람 죽은 걸 직접 목격했지요.}

10201 # 참 마:이 주거쓰니다, 거기서. {참 많이 죽었습니다, 거기서.}

10201 # 그 양쪽 구래 뽁뽁카개 주거가주이꼬 산 날망 빼탈까지. {그 양쪽 굴에 뽁뽁하게 죽어 가지고 있고 산 등성이 비탈까지.}

10201 # 공수까지 해따카는대요, 공수 비행기가. {공수까지 했다 하는대요, 공수 비행기가.}

10201 # 이 사경만 하면 이짜개 그 굴:하고 으: 이짜개 보만 사:라미 중년대. {이 사격만 하면 이쪽에 그 굴:하고 예 이쪽에 보면 사람이 죽는데.}

10201 # 산나무에서 주거쓰니까. {산나무에서 죽었으니까.}

10201 # 그 치우아낭 그대로쥬. {그 치우지 않은 그대로지요.}

10201 # 그대로 내가 모껴칸 사라미요. {그대로 내가 목격한 사람ियो.}

10201 # 그라고 지배까지 와 보고. {그리고 집에까지 와 보고.}

10201 # 지배 오니께 머 임민 정치 하지요. {집에 오니까 뭐 인민군 정치하지요.}

10201 # 그때 막 여기 저 좌:익 한 사람더리 마니 이짜나요. {그때 막 여기 저 좌익한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10201 # 그 사람더리 인재 다 머 이:장도 배치가 대이꼬 막. {그 사람들이 이제 다 뭐 이장도 배치가 되어 있고 막.}

10201 # 정치럴 빨::리 하드라고요. {정치를 빨::리 하더라고요.}

10201 # 거 공산당덜 창 기가 매키개 짜구 항 기요. {공산당들 참 기가 막히게 짜고 한 거 예요:}.

10201 # 거 유기오 전쟁얼. {그 육이오 전쟁을.}

10201 # 그런 경허멀 지킬쥬. {그런 경험을 \*\*지요.}

10201 # 유기오 사:벼늘. {육이오 사변을.}

10201 @ 음. {음.}

10201 @ 그러면 동네:는 언제 부리 타쨌요? {그러면 동네는 언제 불이 났어요?}

10201 # 그 일차. {그 일차.}

10201 # 일차 전:장할 때. {일차 전쟁할 때.}

10201 @ 내려갈 때? {내려갈 때?}

10201 # 그리잉개 임밍군덜 전:장할 때. {그러니까 인민군들 전쟁할 때.}

10201 @ 애. {예.}

10201 # 이 동네덜 썩 태웅 거요::, 고만. {이 동네를 썩 태운 거요::, 그만.}

10201 # 여긴 전:차가 두: 대 파개가 대썩니다. {여기 전차가 두 대 파괴가 났습니다.}

10201 # 임핑군 전차가. {인민군 전차가.}

10201 # 가:드리 직접 끌고 옹 거. {개들이 직접 끌고 온 거.}

10201 @ 예::. {예::.}

10201 # 그래 다: 거러가찌만. {그래서 다 걸어갔지만.}

10201 # 여 아주 전:장, 옴:날부터 전:장 해::따하문 여 전:장얼 한담니다 여기년. {여기 아주 전쟁 옛날부터 전쟁 했다하면 여기서 전쟁을 한담니다, 여기는.}

10201 @ 음. {음.}

10201 # 이 상각찌대라 그러탐니다. {여기가 삼각지대라 그렇담니다.}

10201 # 여가 상각찌대. {여기가 삼각지대.}

10201 @ 아, 저기 저 절라도하고. {아, 저기 전라도하고.} 10201 # 절라도, 경상도하고 여 상각찌대 아주 이 중심지랍니다. {전라도, 경상도하고 여기 삼각지대 아주 이 중심지랍니다.}

10201 # 절락쌍으로 그래 대이팝니다. {전략상으로 그래 돼 있담니다.}

10201 # 그 나두 드른 바지요. {그 나도 들은 바지요.}

10201 @ 그::러면 그무려배는 그럼 선친께서는? {그:러면 그 무렵에는 그럼 선친께서는?}

10201 # 사라 계시쥬. {살아 계셨지요.}

10201 @ 사라 계시쥬. {살아 계셨고.} 10201 # 예:. {예:.} 10201 @ 음. {음.}

10201 # 그라구 삼년- 후에 도라가시쥬요. {그리고 삼 년 후에 돌아가셨어요.}

10201 @ 그럼 전쟁 끝나자마자? {그럼 전쟁 끝나자마자?}

10201 # 예애. {예.}

10201 # 끝난 다매 삼년 후에. {끝난 다음에 삼 년 후에.}

10201 # 그 이 초가찌비 아주 옴날 초가찌비쥬는데. {그 이 초가집이 아주 옴날 초가집이 옴는데.}

10201 # 인재 전장하고 와 가주구. {전쟁하고 와 가지고.}

10201 # 터털 인재 따쥬. {터털 이제 뒹고.}

10201 # 어 다시 인재 나추고 이래 가주 으: 흑짱얼 내가 바가 가주 집쩍. {어 다시 이제 낮추고 이렇게 해 가지고 흙장을 내가 박아 가지고 직접.}

10201 # 내가 싸 가주구. {내가 썰아 가지고.}

10201 # 지별 지어 지타가 살:다가 인재. {집을 지어 짓다가 살다가 이제.}

10201 # 이 이 집 쥬진 그르닝개 에 팔썽팔련도 오나요? {이 이 집 지은 지는 그러니까 팔십팔 년도인가요?}

10201 # 저 고속또로 나는 나든 해. {저 고속도로 나는 나던 해.}

10201 @ 음. {음.}

10201 # 그래 지쥬요. {그렇게 지었어요.}

10201 @ 고속 경부고속또로가 낭 거는 칠썸비년도 아닝가요? {경부고속도로가 난 거는 칠 십이 년도 아닝가요?}

10201 @ 시 시자캉개? {시 시작한 게?}

10201 # 아, 그를끼오~. {아, 그럴 거요.}

10201 # 그르대 애: 그리닝개 인재 경부고속또로 아: 이진 거시기 그 그애가 아니구나. {그런데 애 그러니까 이제 경부고속도로 아 이진 거시기 그해가 아니구나.}

10201 @ 새마을운동하고 한:참 뒤에. {새마을 운동 하고 한참 뒤에.}

10201 # 으:. {으:}.

10201 @ 하신? {하신?}

10201 # 그 인재 그 어: 그췌 벽돌찌부로 상 거는 인재. {그 이제 그 에 글췌 벽돌집으로 산 것은 이제.}

10201 # 애: 하이간 유기로 전쟁얼 치르고. {하여간 육이오 전쟁을 치르고.}

10201 # 어 삼년 이따. {어 삼 년 있다가.}

10201 # 아:주 초가찌번 그래 짝 타빠린는대. {아주 초가집은 그래 짝 타버렸는데.}

10201 # 짝 타빠리닝개. {짝 타버리니까.}

10201 # 이 저 탄: 저 메짬 이췌췌요, 요. {저 저 다른 저 몇 집이 있었어요, 요기.}

10201 # 요 아:느로 메짬 인재 인는 지배 가서 살:다가. {요기 안으로 몇 집 이제 있는 지배 가서 살다가.}

10201 # 아: 지벌 새루 지어 지코 살:다가 인재. {에 집을 새로 지어 짓고 살다가 이제.}

10201 # 이 지번 어: 이 지번 한 시보:년 십 십칠런 댜나. {이 집은 에 한 십오 년 십칠년 댜나.}

10201 # 십칠런 저내 진 진 지비요. {십칠 년 전에 지은 지은 집이요.}

10201 @ 예. {예.}

10201 # 새로. {새로.}

10201 @ 예::. {예.}

10201 @ 그때: 머 피란 가고 이러면서. {그때 뭘 피란 가고 이러면서.}

10201 # 곡췌까툭 거 단지에 너 가주 땅에 무꼬 머 그래때면서요? {곡식 같은 거 단지에 넣어 가지고 땅에 묻고 뭘 그랬다면서요?}

10201 # 무:더췌요~:. {묻었지요.}

10201 # 그람뇨. {그럼요.}

10201 # 그른대 이 무든 무더도. {그런데 이 묻은 묻어도.}

10201 # 이 화: 부리나면 몸몸몸 몸: 먹췌니다. {이 화(재) 불이 나면 못못못 못 먹췌니다.}

10201 # 무등 거뚜 몸 머거요. {묻은 것도 못 먹어요.}:

10201 @ 왜그러췌? {왜 그렇지요?} 10201 # 화:근내가 나고. {화근내가 나서.}

10201 # 그래서 몸: 머거요. {그래서 못 먹어요.}

10201 @ 아::. {아::.}

10201 # 그래 지비 안 타고 이췌야 그개 유지가 대이꼬. {그래 집이 안 타고 있어야 그래도 그개 유지가 돼 있고.}

10201 # 다른 사라미 암 파머그면 파 머거도 대도. {다른 사람이 안 파먹으면 파 먹어도 돼도.}

10201 # 이 부리 나서 화:재가 나면 고만 다: 몸 먹췌니다 다:. {이 불이 나서 화재가 나면 그만 다 못 먹췌니다 다.}

10201 # 상:: 모췌니다. {모조리 못 췌니다.}

10201 # 아무 거뚜. {아무 것도.}

10201 # 하나도 건질 개 업췌요, 아주. {하나도 건질 게 없어요, 아주.}

10201 # 머글 껌. {먹을 거.} 10201 @ 땅 췌개 인는대두요? {땅 속에 있는데도요?}

10201 # 예? {예?}

10201 @ 땅 쏘개 무던는데. {땅 속에 묻었는데.}

10201 # 땅 쏘개 무터 인는 거뚜 헌니리요. {땅 속에 묻혀 있는 것도 헛일이요.}

10201 # 몸: 머거요. {못 먹어요.}

10201 @ 아, 그러케돼요? {아, 그렇게 돼요?}

10201 # 예, 몸: 머거요. {예, 못 먹어요.}

10201 @ 그래두 또 무더 농 거뚜 저: 아까 말쓰마신거처럼 머 좌이카는 분들, 이런 분들. {그래도 또 묻어 논 것도 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뭐 좌익하는 분들, 이런 분들.}

10201 # 다 파 머거요. {다 파 먹어요.}

10201 @ 다 팜 건. {다 파서.}

10201 # 다 파 머거쨌요~. {다 파먹었지요.}

10201 # 피란 나간 사람꺼넌 다 파 머거요. {피란 나간 사람 거는 다 파 먹어요.}

10201 # 미리 막 드러 온 사람덜 이런 사람더리. {미리 막 들어 온 사람들 이런 사람들.}

10201 # 머글 끼 읍쓰니까요 머. {먹을 게 없으니까요 뭐.}

10201 # 농사도 그때 한:동안 모:쨌쨌머. {농사도 그때 한동안 못 지었지요.}

10201 # 그르잉개 파 먹어. {그러니까 파 먹어.}

10201 @ 지배 키우던 짐승두 머 자버 머꼬 그래뻤면서요? {집에 키우던 짐승도 뭐 잡아 먹고 그랬다면서요?}

10201 @ 그때는? {그때는?}

10201 # 짐승두 자바 먹쨌요. {짐승도 잡아 먹지요.}

10201 # 지붕, 짐승두 그나마 인녕 거넌나마 인넌 사람더리 자바 먹쨌니다. {짐승, 짐승도 그 남아 있는 건 남아 있는 사람들이 잡아 먹쨌니다.}

10201 #나마 인녕 거 알:기만 알:면. {남아 있는 걸 알기만 알면.}

10201 # 근대 인재 요:기넌 전:장얼 한 아주 소개릴 한 지여기니까 머. {근데 요기는 전쟁을 아주 소개를 한 지역이니까 뭐.}

10201 # 더군다나 그런 짐성이 이쓰면 아무나 자바 머거도 상과니 우:꼬. {더군다나 그런 짐승이 있으면 아무나 잡아 먹어도 상관이 없고.}

10201 # 막 자바 머거꼬요. {막 잡아 먹었고요.}

10201 # 그래두 인재 이 초:내넌 일방 피란 해따가 여패 피란 해따가 온 사람더리 이쓰니까. {그래도 이제 이 촌에는 일방 피란했다가 옆에 피란했다가 온 사람들이 있으니까.}

10201 # 그 그르케 망 모: 짜바 머거쨌요 머. {그 그렇게 막 못 잡아 먹었지요 뭐.}

10201 # 그래서 이 피란 가구 읍는 지블, 꺼넌 자바 먹쨌요. {그래서 이 피란 가고 없는 집을, 거는 잡아 먹쨌.}

10201 @ 그러면:: 구넌:: 가신 거는: 유기오가 끝나고 가쨌나요? {그러면 군인 가신 거는 육이오가 끝나고 가쨌나요?}

10201 # 예, 끝나고 가쨌. {예, 끝나고 갔쨌.}

10201 @ 어:. {어:}

10201 # 인재 유기오 사변 그: 당시에 간 사람도 마이 이쨌. {이제 육이오 사변 그 당시에

간 사람도 많이 있죠.}

10201 # 피랑 가서 간 사람도 마니 이꼬. {피란 간 사람도 많이 있고.}

10201 # 그런데 나넨 유기도 사, 사:뵤 다: 치리고. {그런데 나는 육이오 사, 사뵤 다 치르고.}

10201 # 어: 정식 인재 영짱 바다 가주. {에 정식 이제 영장 받아 가지고.}

10201 # 제:주도 가서 육 개월 간 훈련 바꼬. {제주도 가서 육 개월 간 훈련 받고.}

10201 # 전방 배치 대가주. {전방에 배치가 되어 가지고.}

10201 # 구닌 생활 하고 나와쥬. {군인 생활 하고 나왔지요.}

10201 @ 제주도에는 그 저기 모슬포인넨대 거기:서? {제주도에는 그 저기 모슬포 있는데 거기서?}

10201 # 예, 그래고. {예, 그러고.}

10201 @ 교육빠다. {교육받아.}

10201 # 모슬포가 그 홀:련습니다. {모슬포가 그 훈련습니다.}

10201 @ 예. {예.}

10201 @ 저이 저이 아버지두 거기서 훈련 하셔따 그래요. {저희 아버지도 거기서 훈련하셨다고 그래요.}

10201 @ 그리고 저이 아버지는 유기도 전투에 참석, 참전 하셔꺼든뇨. {그리고 제 아버지는 육이오 전투에 참전하셨거든요.}

10201 # 아, 참전하시쥬도 매 어: 제일 훈련소 거기 바든 사람더리 마니 이쥬. {아, 참전하셨어도 뭐 제일 훈련소 거기서 받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요.}

10201 @ 예. {예.}

10201 # 저 이 제이 훈련소 쯔금 낭중에 생깁니다. {제이 훈련소 쯔금 나중에 생긴 겁니다.}

10201 # 저거. {저거.}

10201 @ 그름, 군 저:기 군대는 어디에서 근무하셔쥬요? {그럼, 군 저기 군대는 어디에서 근무하셨어요?}

10201 # 군대는 전방에 애:: 이십 썩단 애 육썩 연대 가서 에 한 한 일련 근무하다가. {군대는 전방에 에 이십 사단 육십 연대에 가서 에 한 일 년 근무하다가.}

10201 # 또: 유꾼본부 가서 한 일련 쯔더 근무하고 이래 재대해쥬. {또 육군본부 가서 한 일 년 쯔더 근무하고 이제 재대했지요.}

10201 @ 음. {음.}

10201 @ 그 이십 썩다니면 어디에 인능거쥬? {그 이십 사단이면 어디에 있는 거쥬?}

10201 # 지그면 어디 인능가 잘 모르 건내요. {지금은 어디에 있는지 잘 모르겠네요.}

10201 # 그때:넨 이십 썩다니 애: 저:기 사창니 이쥬쥬요. {그때는 이십 사단이 에 저기 사창리에 있었어요.}

10201 # 사창니. {사창리.}

10201 @ 음. {음.}

10201 # 그래따가 이리저리 똥기 똥기 똥기기두 하구 그래쥬요. {그랬다가 이리저리 옮겨 옮겨 다니기도 하고 그랬지요.}

10201 @ 그리고:: 인재 재대하고 지배 오셔쓰꺼 아니애요? {그리고 이제 재대하고 집에 오셨을 거 아니어요?}

10201 # 그르쵸. {그렇지요.}

10201 # 와쥬~:. {왔지요.}

10201 @ 그러면 겨로넨 언제 하셔쵸요? {그러면 결혼은 언제 하셨어요?}

10201 # 겨로넨 군대 가기 저내 해쵸니다. {결혼은 군대 가기 전에 했습니다.}

10201 # 군대 가기 저내. {군대 가기 전에.}

10201 @ 가기 저내? {가기 전에?}

10201 # 네. {네.}

10201 # 스물한 사래 해쵸요. {스물한 살에 했어요.}

10201 # 스무살, 한 사래. {스무 살, 한 살에.}

10201 @ 음:. {음:.}

10203 @ 그럼 할머니 어트개 만나쵸느대요? {그럼 할머니 어떻게 만나셨어요?}

10203 # 그르잉개 중매 겨론 해쵸요. {그러니까 중매 결혼을 했지요.}

10203 # 인재 누니미 중매덜 한태기쵸. {누님이 중매를 한 덕이지요.}

10203 @ 아, 누니미 먼저. {아, 누님이 먼저.}

10203 # 예, 누니미 청산 인는데. {예, 누님이 청산 있는데.}

10203 # 인재 이 우리 내자가 여 청산 싸라미요. {이 우리 내자가 여기 청산 사람이요.}

10203 @ 예. {예.}

10203 # 청산, 저 청 청사니 아니고. {청산, 저 청 청산이 아니고.}

10203 # 청성. {청성.}

10203 # 청성면 장수리. {청성면 장수리.}

10203 @ 청성, 예. {청성, 예.}

10203 @ 예. {예.}

10203 # 장수리라는 데 사라쵸요. {창수리라는 데 살았어요.}

10203 @ 그럼 거기서 사시다가 이리 오시구 인재. {그럼 거기서 사시다가 이리 오시고.}

10203 @ 계속 또 여기서 사시능 거내요? {계속 또 여기서 사시는 거네요?}

10203 # 그르치요. {그렇지요.}

10203 @ 그러면 저: 할머니는 며쌀 때 이리 오셔쵸요? {그러면 저 할머니는 몇 살 때 이리 오셨어요?}

10203 # 열려서 쌀. {열여섯 살.}

10203 @ 열려. {열여.}

10203 # 열려덜 쌀. {열여덟 살.}

10203 # 세: 살 차이지요. {세 살 차이지요.}

10203 # 그래서. {그래서.}

10203 @ 열려덜 쌀? {열여덟 살?}

10203 # 응. {응.}

10203 @ 음::. {음::.}

10203 # 조온 합니다, 옌나랜. {조흔 합니다, 옛날옌.}

10203 @ 예. {예.}

10203 # 옌나랜 조호니지요 다. {옛날옌 조흔이지요 다.}

10203 @ 또 할머니:는 그: 그쪽 청성에서 거기두 농사 지쵸나요? {또 할머니는 그 그쪽 청성에서 거기도 농사지으셨나요?}



10203 # 그르쵸~:. {그렇지요:}.

10203 # 네. {네.}

10203 # 거기도 머: 농초니니까 농사찌고 머. {거기도 뭐 농촌이니까 농사짓고 뭐.}

10203 @ 음:. {음:}.

10203 @ 중매는 어트개 해썬요? {중매는 어떻게 했어요?}

10203 @ 그거 과정은 아썬요? {그거 과정은 아썬요?}

10203 @ 어트개 누가? {어떻게 누가?}

10203 # 그썬 중매넌 인재 예: 자근누니미 그 청성며내 살고 이끼 때미내. {글썬 중매는 이제 작은누님이 그 청성면에 살고 있기 때문에.}

10203 # 그 쪼그로 또 영겨리 자꾸 이래 가까우니까 진. {그쪽으로 또 연결이 자꾸 이래 가까우니까 그진.}

10203 # 동네가 가까우니까. {동네가 가까우니까.}

10203 # 아: 와따가따 하는 사라미 내지서 가주 중매가 땡 거썬. {왔다갔다하는 사람이 내지 서 가지고 중매가 된 거지요.}

10203 @ 그 그 중매하면 그때부터 어떤 시그로 해썬요? {그 그 중매하면 그때부터 어떤 식으로 했어요?}

10203 @ 그냥 얘기가 인재 처매? {그냥 얘기가 이제 처음에?}

10203 # 중매. {중매.}

10203 # 예, 중매하면 예:나랜 그때 사지니 겨우 썬: 사진도 여가내 모: 찌거요. {예, 중매하면 옛날에는 그때 사진이 겨우 제일 사진도 여간해서 못 찍어요.}

10203 # 어짜다 썬는 사진 머 쪼매난 증명사진 니. {어짜다 썬는 사진 뭐 쪼그만 증명사진이.}

10203 # 증명::은 유기오 사며 나고 증명이 바로 발그비 대쓰니까. {증명은 육이오 사변이 나고 증명이 바로 발급이 되었으니까.}

10203 # 증명사진 찍기 위한 거 증명사진 거통 거 고령 거배끼 읍썬요. {증명사진 찍기 위한 그 증명사진 같은 거 그런 거밖에 없어요.}

10203 # 초:내선 큰 사진 안 찍썬니다. {촌에서는 큰 사진 안 찍썬니다.}

10203 # 큰 사지넌 어:꼬. {큰 사진은 없고.}

10203 # 고령 결로 그냥 이래 보고서 과정이 나오썬. {그런 결로 그냥 이렇게 보고서 과정이 나오썬.}

10203 @ 사전, 사진 보고? {사전, 사진 보고?}

10203 # 예, 사진 요고. {예, 사진 요거.}

10203 @ 예:. {예.}

10203 # 사:주나 비키 주고. {사주나 보여 주고.}

10203 @ 예:. {예:}.

10203 # 예, 그라고 인재 예: 사:주 하지요. {예, 그리고 예 사주 하지요.}

10203 # 사:주. {사주.}

10203 # 약, 그래 가주 야콘시기 대능 거썬. {그래 가지고 약혼식이 되는 거지요.}

10203 # 그거 사:주 하면. {그거 사주하면.}

10203 # 사주 하능 기 지금 야콘시걸 하는데. {사주 하는 게 지금 약혼식을 하는데.}

10203 # 지금 그기 예: 사주 썬 보내고 이라면 그기 야콘시기썬. {지금 그게 예 사주 썬

보내고 이러면 그게 약혼식이지요.}

10203 @ 고건 어트개 해요? {그건 어떻게 해요?}

10203 @ 사주 보낼 때? {사주 보낼 때?}

10203 # 사주 보내닝 건 엔:나래 하:이니 이썅니다. {사주 보내는 건 엔나래 하인이 있습니다.}

10203 # 아:, 증 마라자면 우리 일가면 일가에 산지기라고 이썅요:. {에, 증 말하자면 우리 일가면 일가에 산지기라고 있어요.}

10203 # 그 아시개쥬? {그 아시쥬지요?}

10203 @ 예:. {예:.}

10203 # 산지기 그 사라를 시켜서 보냅니다. {산지기 그 사람을 시켜서 보냅니다.}

10203 # 사줄 썸 가주고. {사주를 썸 가지고.}

10203 # 썸 가주 보따리아다 이래 썸 가주구 거기다 보내면. {썸 가지고 보따리아다가 이렇게 썸 가지고 거기에다 보내면.}

10203 # 아: 인재 신부 썸배 보내면 신부 썸배서 태기럴 거기서 해 옵니다. {에 신부 집에 보내면 신부집에서 택일을 거기서 해 옵니다.}

10203 # 인재 얼, 언:재 결 겨로널 할라고 겨론 날썰 자바 가주고. {이제 얼 언제 결혼을 하려고 결혼 날썰를 잡아 가지고.}

10203 # 어 인재 에 겨론 할라고 겨론시결 하자고 그 통지가 옵니다. {에 이제 에 결혼 하려고 결혼식을 하자고 그 통지가 옵니다.}

10203 # 그러면 인재 그: 날썰가 정해지닝 거지요. {그러면 이제 그 날썰가 정해지는 거지요.}

10203 # 겨론식 날썰가. {결혼식 날썰가.}

10203 @ 그 사:주보낼 때 그 사주, 사줄 땀, 단자라 그러자나요? {그 사주 보낼 때 그 사주 사주단자라고 그러쥬아요?}

10203 # 네. {네.}

10203 @ 그건 어트개 해요? {그건 어떻게 해요?}

10203 @ 고거뚜 머. {그것도 뭘.}

10203 # 그거. {그거.} 10203 @ 저:기 쥬이:. {저 쥬이.}

10203 # 예, 그거 인재 창호지애다가 생녀워릴 딱 썸고. {네, 그거 이제 창호지애다가 생년월일 딱 썸고.}

10203 # 어 인재 이 실랑 생녀워릴 썸고. {어 이제 이 실랑 생년월일 썸고.}

10203 # 그 인재 이: 어: 썸썸때공 땀: 우애 인닝 거 썸개 가주. {그 이제 이 에 수숫대 땀 위에 있는 것 썸개 가지고.}

10203 # 이래 딱: 이래 봉해서. {이렇게 딱 이렇게 봉해서.}

10203 # 이래 색썰로 이래 감:썸니다. {이렇게 색썰로 이렇게 감썸니다.}

10203 # 아래 위로 가마서 이래. {아래 위로 감아서 이렇게.}

10203 # 에: 거시기 봉투지애다 느: 가주고. {에 거시기 봉투애다가 넣어 가지고.}

10203 # 어 그라고 인재 이 저 보재기럴 사:주뽀재기라구 이썅요. {어 그리고 이제 이 저 보자기를 사주보자기라고 있어요.}

10203 # 거길 썸가주고. {거기에 썸 가지고.}

10203 # 썸:땀서 인재 그 어: 하:이널 썸켜서 보내닝 거지요. {땀땀서 이제 그 하인을 시

켜서 보내는 거지요.}

10203 @ 전 그거는 저는 말:만 드러보고 실째로는 암 바꺼든뇨. {전 그것은 말만 들어 보고 실째로는 안 봤거든요.}

10203 @ 그러:구. {그리고.}

10203 # 실째로 암 보시썬요? {실째로 안 보셨어요?}

10203 @ 예:. {예:}.

10203 # 하, 그래요. {하, 그래요.}

10203 @ 말:만 드러바썬요. {말만 들어봤어요.}

10203 # 네. {네.}

10203 @ 그래 가주고 그:: 창호지애다가 썬서 저버 가주구. {그래 가지고 그 창호지애다가 썬서 접어 가지고.}

10203 @ 그:: 수수 그걸루 어트개 한다 그러는데. {그 수수 그것으로 어떻게 한다고 그러는데.}

10203 @ 고고. {그거.}

10203 # 예, 이게 썬수 글썬 맨: 우애 올라간 그 수수. {예, 이게 수수 글썬 맨:위에 올라간 수수.}

10203 # 이 저: 여:는 고 대공이 이 가늘민성 이래 쪽빠로 그 짐:니다. {이 저 열리는 그 대공이 이 가늘면서 이렇게 똑바르고 짐:니다.}

10203 @ 예. {예.}

10203 # 그리잉개 인재 고 사:주 썬서 인재 사주 머 이 요만:칭 요러개 맹글지요. {그러니까 이제 사주 썬서 이제 사주 뭐 이 요만큼 이렇게 만듭지요.}

10203 # 이거 요러개. {이거 요렇게.}

10203 # 요만치. {요만큼.}

10203 @ 예예. {예.}

10203 # 예 요망칭 맹그넨대. {요만큼 만드는데.}

10203 # 그래 가주 양짜개 인재 딱 이걸 썬수때공얼 딱 까운텔 잘르면. {그래 가지고 양쪽에 딱 이걸 수숫대를 딱 가운데를 자르면.}

10203 # 머 인재 고래 합치 가지고. {뭐 이제 그렇게 합쳐 가지고.}

10203 # 요고 요골 그냥 봉토지 그냥 노코 요래 합치 가지고. {요고 요걸 그냥 봉투애다가 그냥 놓고 이렇게 합쳐 가지고.}

10203 # 양짜겔 이래 아래 우엘 짜: 맴니다. {양쪽을 이렇게 아래 위예를 동여맴니다.}

10203 # 하하. {하하.}

10203 @ 그러면 이 요 요 요:로케. {그러면 이 요 요 요렇게.}

10203 # 예:, 그르쵸. {예, 그렇지요.}

10203 @ 이르케 길:개 해 가주 여기두 썬매고 요기두 썬매고. {이렇게 길게 해 가지고 여기도 동여매고 여기도 동여매고.}

10203 # 예. {예.}

10203 @ 사주 썬 거 이르케 저봉 거애다가 가운데를 이르케 짹 저 쪼개지니까. {사주 썬 거 이렇게 접은 거애다가 가운데를 이렇게 짹 쪼개지니까.}

10203 # 예예. {예.}

10203 @ 가운데다가 끼어 가주구. {가운데다가 끼워 가지고.}

10203 # 예예. {예.}

10203 @ 양짜개를 이르게 쫓매고. {양쪽을 이렇게 동여매고.}

10203 # 예예. {예.}

10203 @ 그러면 이제 여기 고정되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가 고정되니까.}

10203 # 예. {예.}

10203 # 예. {예.}

10203 @ 아. {아.}

10203 # 그르케 하지요. {그렇게 하지요.}

10203 @ 그르케 해 가주구 그거. {그렇게 해 가지고 그거.}

10203 # 그르케 해 가주 이제 보재기애다 싸지요. {그렇게 해가지고 보자기애다 싸지요.}

10203 # 또 보재기애다. {또 보자기애다.}

10203 # 예. {예.}

10203 @ 보재기 머 색깔가통 거뚜 거 구벼래요? {보자기 뭐 색깔 같은 것도 구별해요?}

10203 # 색 꼬, 색깔은: 아편 흥 하, 뒤엔 청 머 이렇 걸로 주로 하지요:. {색 고, 색깔은 앞은 흥, 뒤엔 청 뭐 이런 걸로 주로 하지요.}

10203 # 고로케 인재 여 겨부로 대 인능 거. {그렇게 이제 겹으로 돼 있는 거.}

10203 # 고론 시그로 하지요. {그런 식으로 하지요.}

10203 @ 그기 무슨 의미가 인나요?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10203 # 그기 글썄 남녀털 갈리넨 인저 그 머 예: 생가카넨 그런 의미가 인녕 거지요. {그게 글썄 남녀를 가르는 이제 그 뭐 에 생각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지요.}

10203 @ 음. {음.}

10203 @ 그럼 이제 사:주 보내면 태길 해 오고. {그럼 이제 사주 보내면 택일 해 오고.}

10203 @ 그: 궁합가통 건 안 바썌요? {그 궁합 같은 건 안 봤어요?}

10203 # 궁하번 미리 보고서. {궁합은 미리 보고서.}

10203 # 결정할 때 에 인재 그 사:주 보내기 저내. {결정할 때 에 이제 그 사주 보내기 전에.}

10203 # 그 중매자가 아: 이 아무 무슨 떠하고 무슨떠 하군 이: 궁하비 마따. {그 중매자가 에 이 아무 무슨 떠하고 무슨 떠하고는 이 궁합이 맞다.}

10203 # 머 이런 얘긴 하고서 하지요. {뭐 이런 얘기는 하고서 하지요.}

10203 # 미리. {미리.}

10203 @ 아. {아.}

10203 # 미리. {미리.}

10203 # 사:저내 미리. {사전에 미리.}

10203 @ 궁합뽐 때는 머 멀: 가주구 궁하볼 바요? {궁합 볼 때는 뭐 뽐 가지고 궁합을 봐요?}

10203 # 궁하번 떠 가주 보지요. {궁합은 떠 가지고 보지요.}

10203 # 떠. {떠.}

10203 @ 떠. {떠.}

10203 # 어:, 떠 가주. {네, 떠 가지고.}

10203 # 생녀눠털 이렇 건 인재 세미라개 보는 사라면 그렁 거까지 다: 따지고 보고. {생년월일 이런 거 이제 세밀하게 보는 사람 그런 것까지 다 따지고 보고.}

10203 # 양작. {양쪽.}

10203 # 생년월일까지 다: 따지 보고. {생년월일까지 다 따져 보고.}

10203 # 그 인재 띠, 날 자주 주로 궁아불 결정얼 하지요. {그 이제 띠, 날 가지고 궁합을 결정하지요.}

10203 @ 그럼 그건 저 색씨 찌배서 주로 하나요? {그러면 그건 저 색씨 집에서 주로 하나요?}

10203 @ 양쪽 찌배. {양쪽 집에.}

10203 # 그때 양쪽 찌배서 다: 보녕 거지요. {그때 양쪽 집에 다 보는 거지요.}

10203 # 따지고 보면. {따지고 보면.}

10203 # 다: 본다고 봐야지요. {다 본다고 봐야지요.}

10203 @ 음. {음.}

10207 @ 그리고 나서 인재 태길하면 인재: 거론 준비하자나요? {그리고 나서 이제 택일 하면 이제 결혼 준비하잖아요?}

10207 # 예? {예?}

10207 @ 준비해야 되자나요? {준비해야 되잖아요?}

10207 # 예, 해야지요. {예, 해야지요.}

10207 @ 머: 어떻 걸 준비하나요? {뭐 어떤 걸 준비하나요?}

10207 # 그른대 인재 준비:하녕 거는 머 그기 날짜가 결정이 대면. {그런데 이제 준비하는 거는 뭐 그게 날짜가 결정이 되면.}

10207 # 잔치 준비가 중요하지요 머. {잔치 준비가 중요하지요 뭐.}

10207 # 잔치 준비. {잔치 준비.}

10207 # 그라고 인재 옴:나랜 가:매 타고 땡기야지요. {그리고 이제 옛날엔 가마 타고 다녀야지요.}

10207 # 가:매. {가:마.}

10207 # 가:매 타면 하:이닐 구해야 대고. {가마타면 하인을 구해야 되고.}

10207 # 그라고 인재 상가 머 여자 찌:배 오는 사라먼 요까기라 고라지요. {그리고 이제 뭐 여자 집:에 오는 사람은 요각이라 그러지요.}

10207 @ 예? {예?}

10207 # 여자 츠개서 오넨 사라먼 요:각. {여자 측에서 오는 사람은 요각.}

10207 @ 요:각? {요각?}

10207 # 어, 대:표. {예, 대표.}

10207 @ 예, 요가기라 그래요? {예, 요각이라고 해요?}

10207 @ 그걸? {그걸?}

10207 # 그라면 인재 부모가 아버지가 오든지 주로. {그럼 이제 부모가 아버지가 오든지 주로.}

10207 # 아:부지가 읍쓰면 머 크노빠가 온다든지 머. {아버지가 없으면 큰오빠가 온다든지 뭐.}

10207 # 오빠가 이쓰면 그르케 하고. {오빠가 있으면 그렇게 하고.}

10207 # 요각, 요가근 여자: 츠개서 오넨 걸 요가기라 하고. {요각, 요각은 여자 측에서 오는 걸 요각이라고 하고.}

10207 # 남자 츠개서 가능 건 상가기라 그라쥬. {남자 측에서 가는 건 상각이라 그러지요.}

10207 # 상각. {상각.}

10207 # 그 인재 상:가근 남자 츠개서 인재 아버지가 읍쓰면 머 마텝이 가던지. {그 상각은 남자 측에서 아버지가 없으면 뭐 만형이 가든지.}

10207 # 아니면 그 지바내 예: 중요한 대:표 인무리 델마난 사:라미 가고 가능 거쥌. {아니면 그 집안에 예 중요한 대표 인물이 될만한 사람이 가고 가는 거쥌.}

10207 # 아버지:가 읍쓰면. {아버지가 없으면.}

10207 # 그때. {그때.}

10207 # 그른 준비릴 하고 인재. {그런 준비를 하고.}

10207 # 예: 그 가:매릴 미고 머 어:: 이래 가야 대고 남자 츠겐. {예 그 가:마를 메고 예 이렇게 가야 되고 남자 측에서는.}

10207 # 또 여자 츠겐 이 놓이나 머 어 이 이불 머 오까지 이렇 걸 해 가주 가주와야 대닝께. {또 여자 측에서는 이 놓이나 뭐 어 이 이불 뭐 옷가지 이런 걸 해 가지고 가져와야 되니까.}

10207 # 사라미 마이 피료하지요. {사람이 많이 필요하지요.}

10207 # 옴:나랜. {옛날에는.}

10207 # 아주 복잡파지요 머. {아주 복잡하지요 뭐.}

10207 # 옴:날. {옛날.}

10207 @ 아: 그러면 감:: 가:매를 남자 츠개서 가져 가서. {아: 그러면 가:마를 남자 측에서 가져 가서.}

10207 @ 신부를 거기 모셔오능 건가요? {신부를 거기 모셔 오는 건가요?}

10207 # 그른대 인재 어 그기 으: 양쪽 따 피료항 기요. {그런데 이제 그게 양쪽 다 필요한 거요.}

10207 # 장:개 가는 나런 남자 츠개서 피료항 기고. {장가 가는 날은 남자 측에서 필요한 거고.}

10207 # 올 때년 여자 츠개서 피료항 겁니다. {올 때는 여자 측에서 필요한 겁니다.}

10207 # 여자 츠개서 그렁 걸 인재 다: 이 하:인더릴 시키 가주. {여자 측에서 그렁 걸 이제 다 이 하인들을 시켜 가지고.}

10207 # 사람, 하이니 읍쓰면 사:람이라두 어트개 사서라도. {사람, 하인이 없으면 사람이라도 어떻게 사서라도.}

10207 # 그 질머지고 올 싸람 가매 델 싸람 이런 사라미 선정이 대야 대니까. {그 짚어지고 올 사람 가마 델 사람 이런 사람이 선정이 돼야 되니까.}

10207 # 그라면 인재 여자 츠개서 부다멸. {그럼 이제 여자 측에서 부담을.}

10207 # 남자 츠개서 어: 부다멸 할 쥌도 인넌대. {남자 측에서 예 부담을 할 수도 있는데.}

10207 # 어 이: 충청도: 시건 여잔 여자대로, 남잔 남자대로. {이 충청도 식은 여자는 여자대로, 남자는 남자대로.}

10207 # 그래서 그리 항 걸로 알고 이썬요. {그래서 그렇게 한 걸로 알고 있어요.}

10207 # 근대 경상도 가면 그기 다르다 그래요. {그런데 경상도 가면 그게 다르다고 해요.}

10207 # 남자 츠개서 다: 부담한답니다. {남자 측에서 다 부담한답니다.}

10207 # 남자가 부:자고 이라면 남자가 다: 채김지고 해따고 그런 애긴 드러쥌. {남자가

부자고 이러면 남자가 다 책임지고 했다고 그런 얘기는 들었지요.}

10207 # 그런 과정이 예: 준비 과정이지요. {그런 과정이 준비 과정이지요.}

10207 # 그러면 잔치. {그러면 잔치.}

10207 # 그 다매 인재 잔치 준비하느 건 머 손님 대저팔라고 하능 거니까. {그 다음에 이제 잔치 준비 하는 건 뭐 손님 대접하려고 하는 거니까.}

10207 # 자기 성지에 따라서 어: 인재 더 자라고 스우면 자라고. {자기 형편에 따라서 더 잘하고 싶으면 잘 하고.}

10207 # 그런 방버부로 하고. {그런 방법으로 하고.}

10207 # 또 인재 이 음식걸 주고 바찌요~::: {또 이제 이 음식을 주고 받지요.}

10207 # 어 인재 상 그, 그췌 상얼 해 가주. {이제 상 그, 글췌 상을 해 가지고.}

10207 # 남자가 인재 여자 츠개 보내고. {남자가 이제 여자 측에 보내고.}

10207 # 여자 츠겐 또 남자 츠그로 보내고. {여자 측에서는 또 남자 측으로 보내고.}

10207 # 그래 가주 인재 장가 인재 참 저 잔친 치른 다매 인재 그걸 가주 노나 먹찌요. {그래 가지고 장가 참 저 잔치 치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나누어 먹지요.}

10207 # 또 동:내 돌리 주기두 하고. {또 동네 돌려 주기도 하고.}

10204 @ 그러면 인재 여자:가: 준비하능 거 하고 남자가 준비하능 거는 보면. {그러면 이제 여자:가: 준비하는 거 하고 남자가 준비하는 거는 보면.}

10204 @ 남자는 주로 가:마:나 이런 잔치췌개더 준비가 마늘 껴 가꼬. {남자는 주로 가:마:나 이런 잔치 쪽에 더 준비가 많을 거고.}

10204 @ 여자는 인재 혼수도 마려내야 대자나요? {여자는 이제 혼수도 마련해야 되잖 아요?}

10204 # 그르췌~::: 올나랜 인재 함 번 하먼... {그렇지요, 옛날에 이제 한 번 하먼...}

10204 @ 그개 인재 더 마늘 껴 가튼대 여자 츠개서 준비할 깨. {그게 이제 더 많은 거 같 은데 여자 측에서 준비할 게.}

10204 # 여자 츠개서 준비하능 기 마늘:: 췌배끼 엄능 기. {여자 측에서 준비하는 게 많을 수밖에 없는 게.}

10204 # 전:부 옥까지 해 가주 와이지. {전부 옷가지 해 가지고 와이지.}

10204 # 그라고 인재 예: 이 시지보는 사라미 줌 인는 사라미고 움넌 사라미면 성사대루 하넝 갱개. {그리고 이제 이 시집 오는 사람이 줌 있는 사람이고 없는 사람이면 형세대로 하는 거니까.}

10204 # 어 마이 아내와도 대지만. {많이 안 해와도 되지만.}

10204 # 이: 가족뜰꺼까지 부:자넌 다: 해다 주자나요. {가족들 것까지 부자는 다 해 주잖 아요.}

10204 # 하다모태 양, 참 저 버선 항커리라도 지어서 가져 와야 대고. {하다못해 참 저 버 선 한 췌레라도 지어서 가져 와야 되고.}

10204 # 머 만치요:. {뭐 많지요.}

10204 # 여자드리 하능 건. {여자들이 하는 건.}

10204 # 옥까지 머 어: 이, 이불 머 자기 일:평생 부:자는 저 익꾸 머글 췌 가져 온다능 건 대요 머. {옷가지 뭐 에 이 이불 뭐 자기 일평생 부자는 저 입고 먹을 거 가져 온 다는 건데요 뭐.}

10204 # 췌지볼 때. {시집 올 때.}

10204 # 엔나래 그래캐 아, 하닐 걸로 알고 이써썩썩. {옛날에 그렇게 알, 하는 걸로 알고 있었어요.}

10204 # 우린. {우리는.}

10204 @ 이불두 여러 가지가 이짜나요? {이불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10204 @ 뭐 숨: 능 거. {뭐 숨 넣은 거.}

10204 # 그르치요, 인재 예. {그렇지요, 이제 예.} 10204 @ 종뉴두 이르캐. {뭐 종류도 이렇게.}

10204 # 예, 그람뇨. {예, 그럼요.}

10204 # 머 이 인재 그기 글썩 부:자, 움는 사람 하곤 구부니 다룽 기고. {뭐 이 이제 그 게 글썩 부자, 없는 사람 하고는 구분이 다른 거고.}

10204 # 성새대로 하녕 거니까. {형새대로 하는 거니까.}

10204 # 아:주 머 북짜파지요. {아주 뭐 복잡하지요.}

10204 @ 음:. {음:.}

10204 @ 이부래. {이불에.}

10204 @ 저:기 껌때기, 혼 혼? {저기 껌데기, 혼?}

10204 # 호칭. {호칭}

10204 @ 예, 호칭이라구두 또까튼거요 호칭하구? {예, 호칭이라고도 똑같은 거요 호칭 하고?}

10204 # 호칭이라 하고 껌따기래구. {호칭이라 하고 껌데기라고 하고.}

10204 # 그렇 거까지도 하고. {그런 것까지도 하고.}

10204 @ 예. {예.}

10204 @ 그리구 그: 그개 두꺼께 항 거뚜 이꾸. {그리고 그 그개 두껍게 한 것도 있고.}

10204 @ 그 얹:께 항 거뚜 이꾸 그르치요? {그 얹게 한 것도 있고 그렇지요?}

10204 # 그르치요~::: {그렇지요.}

10204 # 인재 이 이 그 인재 이부를 글썩 인재 예: 엔:나래 부:자년 이불두 한 채만 하능 기 아니지요. {이제 이 이 그 이제 이불을 글썩 이제 예 옛날에 부:자는 이불도 한 채만 하는 게 아니지요.}

10204 # 여:러 채 하고. {여러 채 하고.}

10204 # 이 씨 씨어머이 씨아부지 이불까지도 해 가주 오구머. {이 시 시어머니, 시아버지 이불까지도 해 가지고 오고 뭐.}

10204 # 그건 자기 성새대로 하능 거녕께 머. {그건 자기 형새대로 하는 거니까 뭐.}

10204 # 어: 그 부:자더런 아:주 북짜파개 해 가주 오지요. {예 그 부:자들은 아주 복잡하게 해 가지고 오지요.}

10204 @ 그 호, 혼니불두 이꼬. {그 호 훌이불도 있고.}

10204 @ 혼? {훌?}

10204 # 혼니불 인재 여르매 덤능 거 이렇 거뚜 해 가주 오고 머. {훌이불 이제 여름에 덤 는 거 이런 것도 해 가지고 오고 뭐.}

10204 @ 혼니불하고 호칭하고는 다룽 거자나요? {훌이불이라고 호칭하고 다른 거잖아요?}

10204 # 요 온 호칭언 게 이부를 싸:닝 거지요. {요 훌칭은 그개 이불을 싸는 거지요.}

10204 @ 예. {예.} 10204 # 이부릴. {이불을.}

10204 # 거꺼뽀기. {꺼꺼뽀기.}



10204 # 그러면 인재 빨래하기 조으라고. {그러면 이제 빨래 하기 좋으라고.}

10204 @ 예. {예.} 10204 # 자:주 아내두 거껍띠기만 빨면 쉽싸너요? {자주 안 해도 걸 껍테기만 빨면 쉽잖아요?}

10204 # 그랑개 인재 그걸 이부릴 싸 가주 오능 게 호칭이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불을 싸 가지고 오는 게 훌칭이지요.}

10204 @ 금 혼니부른 머 어떠케 만드려요? {그러면 훌이불은 뭐 어떻게 만드려요?}

10204 # 혼니부른 인재 여르매. {훌이불은 이제 여름에.}

10204 @ 예. {예.}

10204 # 솜니부릴 여러매 터풀 썩가. {솜이불을 여름에 덤을 수가.}

10204 # 혼니부리라고 인재 또 그 여러매 덤넌 이불로 난 그르케 알고 이써요. {혼니불이라고 이제 또 그 여름에 덤는 이불로 난 그렇게 알고 있어요.}

10204 @ 네. {네.}

10204 # 으. {으.}

10204 @ 그러면 혼니부른: 그:: 항 겨부루 항 건가요? {그럼 훌이불은 그 한 겹으로 한 건가요?}

10204 # 혼니불도 겨부로 하긴 하는데. {훌이불도 겹으로 하기는 하는데.}

10204 @ 예. {예.} 10204 # 소:물 아느쵸 솜:. {솜을 안 넣지요 솜.}

10204 @ 아, 소:물 안 느코. {아, 솜을 안 넣고.}

10204 # 소물 안 해요. {솜을 안 넣어요.}

10204 # 소물 안 능 거예요. {솜을 안 넣은 거예요.}

10204 @ 솜: 능 거는 솜:니부리구. {솜 넣은 것은 솜이불이고.}

10204 # 예. {예.}

10204 @ 그거 두:: 겹 두: 겨부루 하능 겨뚜 이짜나요? {그거 두 겹 두 겹으로 하는 것도 있잖아요?}

10204 # 인재 두 겨분 두 겨비지요 장. {이제 두 겹은 두 겹이지요 항상.}

10204 @ 예. {예.}

10204 @ 점니부리래능 거또 이써요 그럼? {겹이불이라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10204 @ 혼니불, 점니불 이르캐? {훌이불 겹이불 이렇게?}

10204 # 점니불 쏘린 별루 안 드러 반는데. {겹이불 소린 별로 안 들어 봤는데.}

10204 # 인재 혼니부라고 이부른 글썤 어:. {훌이불이라고 이불은 글썤 예.}

10204 @ 솜:니불. {솜이불.}

10204 # 어: 그랑개, 호칭-이라고 인재 이불 싸능 거하고. {그러니까 훌칭이라고 이제 이불 싸는 거하고.}

10204 # 어 그르케 구분하문 대지요. {그렇게 구분하면 되지요.}

10204 @ 누: 뉘비 이불두 이써요? {누 뉘비 이불도 있어요?}

10204 # 뉘비이부런 뉘비런 이래 이래 줄, 줄로 이래 항 강개 뉘비이부립니다. {뉘비이불은 뉘비는 이렇게 이렇게 줄 줄로 이렇게 한 거니까 뉘비이불입니다.}

10204 # 줄, 줄루 이래 바궁 거. {줄 줄로 이렇게 박은 거.}

10204 @ 예. {예.}

10204 # 이제 그랑개 옴:나래 지그먼 어: 이 재봉으로 박찌만. {이제 그러니까 옛날에 지금은 재봉으로 박지만.}

10204 # 엔:나래 소느로 바가서 맹궁 걸 누비이부리라 그라능 기여. {옛날에 손으로 박아서 만든 걸 누비이불이라 그러는 거야.}

10204 @ 예. {예.}

10204 # 네. {네.}

10204 @ 보::료라능 거뚜 이씨요? {보료라는 것도 있어요?}

10204 @ 보:료? {보료?}

10204 # 예? {예?}

10204 @ 보:료. {보료.}

10204 @ 이르게 깔고 앙꼬. {이렇게 깔고 앉고.}

10204 @ 이르게 등애? {어떻게 등애?}

10204 # 아: 아 그거 이찌요~. {아 아 그거 있지요.}

10204 # 그기 인재 지금 자부동 시그로 해 가주 와요 다:. {그게 이제 지금 방석 식으로 해 가지고 와요 다.}

10204 # 엔나래도. {옛날에도.}

10204 @ 음. {음.} 10204 # 그 하지요. {그거 하지요.}

10204 @ 그거 누가 만드려요? {그거 누가 만들어요?}

10204 # 그건 인재 하이간 저 실, 새닥 츠개서 맹그라 가주 오능 기요. {그건 이제 하여간 저 신(랑), 새댁 측에서 만들어 가지고 오는 거요.}

10204 # 여자 츠개서. {여자 측에서.}

10204 @ 예. {예.}

10204 @ 엔나래는. {옛날에는.}

10204 # 이, 츠 틀까요 쯔? {이거 틀 틀까요 조금?}

10204 @ 저는 갠차나요. {저는 괜찮아요.}

10204 # 갠차나요? {괜찮아요?}

10204 @ 예, 하라번님 더웁가요? {예, 할아버님 더웁가요?}

10204 # 아이 쯔꿈 더웁 거 가트내요. {아니 조금 더운 것 같네요.}

10204 @ 아이, 제가 저거 마:니 도라가면 소리가 나서. {아니, 제가 저게 많이 돌아가면 소리가 나서.}

10204 @ 그래서 살짝 쯔코마케 트러놀께요. {그래서 살짝 조그맣게 틀어놓을게요.} 10204 # 아:, 쯔꿈. {아, 조금.}

10204 @ 제간. {제가.}

10204 @ 엔나래는 다: 숨:너짜나요? {옛날에는 다 숨 넣잖아요?}

10204 # 숨 느초오~::: {숨 넣지요.}

10204 # 그 이 글썸 부:자는 숨:두 두꾸께 늘 쑤 이꾸. {그 이 글썸 부자는 숨도 두겹게 넣을 수 있고.}

10204 # 근대 가나나문 그 머 모카컬 마이 안 너서 한 저 마이 몬 몬 쪽 고하거나 이라면 소물 약:께 하지요. {그런데 가난하면 그 뭐 목화를 많이 안 넣어서 한 저 많이 못 구하거나 이러면 숨을 얇게 하지요.}

10204 # 그래 이제 이 부:자는 두꿍께 해 가주. {그래 이제 이 부자는 두겹게 해 가지고.}

10204 # 두꾸께 해야 뜨시자나요. {두겹게 해야 따뜻하잖아요.}

10204 # 그런 시그로 그래 해서 하고 이찌요. {그런 식으로 그래 해서 하고 있지요.}

10204 @ 모카::두 마니 시머썬요? {목화도 많이 심었어요?}

10204 # 여기 모카도 마:이 성과 본 댐이다. {여기 목화도 많이 심어 본 데입니다.}

10204 # 이래 자주 일정 때. {이렇게 해 가지고 일정 때.}

10204 # 일정 때 그거 목커릴 싱구먼 부 이 바다가썬요. {일정 때 그거 목화를 심으면 전 부 이 받아 갓어요.}

10204 # 일본 애드리 인재 저드리 썬 머글라고. {일본 애들이 저희들이 썬 먹으려고.}

10204 # 마이 해기는 모카: 또 여 마이 싱군 댐이다. {많이 하기는 목화 또 여기 많이 심은 데입니다.}

10204 # 생산 마이 한대요. {생산 많이 한 데요.}

10204 @ 그거::는 농사를 어트개 해요? {그거는 농사를 어떻게 해요?}

10204 # 모과년 이: 바태다가 아: 모과썬릴 뿌립니다. {목화는 이 밭에다가 목화썬를 뿌립니다.}

10204 # 뿌려. {뿌려.}

10204 # 가라 자주 고:릴 땡그라 자주. {갈아 가지고 골을 만들어 가지고.}

10204 # 뿌리고서 어: 인재 더프먼 나오썬. {뿌리고서 에 덮으면 나오지요.}

10204 # 그 인재 거러덜 마니 하먼 더 마이 열고. {그 이제 거름을 많이 하먼 더 많이 열고.}

10204 # 인재 여녕 건. {이제 여는 건.}

10204 # 인재 그라먼 그기 모카 썬구먼 시기가 좀 일러 일, 썬썬 일썬기 성과야 디요. {이제 르러면 그제 목화 심는 시기가 좀 일러 일, 조금 일썬 심어야 돼요.}

10204 # 그래 자주 너무 느개 싱구먼 그 모카가 수화기 즈썬. {그래 가지고 너무 늦게 심으면 그 목화가 수확이 적지요.}

10204 # 그래 인재 모과: 농사년 그라먼 머 썬시 피 자주. {그래 이제 목화 농사는 그러면 뽕 썬이 피어 가지고.}

10204 # 머이 다:래라고 열면. {뽕 다래라고 열면.}

10204 # 어 그개 인재 모과가 대녕 건대. {에 그제 이제 목화가 되는 건데.}

10204 # 그거 다:래릴 절무 저머썬 때 그걸 따: 머끼도 합니다. {그거 다래를 썬썬 썬썬을 때 그것을 따 먹기도 합니다.}

10204 # 따 머그먼 달캉하니 마시썬요. {따 먹으면 달달하니 맛있어요.}

10204 # 허허. {허허.}

10204 # 그 이구먼 인재 이 숨 고치 피지요. {그 이제 숨 같이 이렇게 피지요.}

10204 # 피지요. {피지요.}

10204 # 모과가 피지요. {목화가 피지요.}

10204 # 그라먼 그걸 따:능 기고. {그러면 그걸 따는 거고.}

10204 # 그럼 수화글 수화기 끝날 무려배 뽕바 자주고. {그러면 수확을 수확이 끝날 무렵 에 뽕아 가지고.}

10204 # 저 뽕뽕사내 가따 들: 들 썬 거 그정 가따 너러서 말리면. {저 뽕뽕산에 갓다 뽕: 뽕 썬 거 그것은 갓다 널어서 말리면.}

10204 # 썬 건 다: 썬니다. {썬 건 다 썬니다.}

10204 @ 예. {예.}

10204 # 건 그래 수화걸 하고. {그건 그렇게 수확을 하고.}

10204 # 수하카능 건. {수확하는 건.}

10204 @ 그 씨두 이짜나요? {그 씨도 있잖아요?}

10204 @ 그 대추씨 가치 생겨씨요? {그 대추씨 같이 생겼지요. }

10204 # 이찌요~. {있지요.}

10204 # 그기 인재 씨가 인는데 어. {그게 이제 씨가 있는데 어.}

10204 # 그 씨넌 썬아시라고 이씨. {그 씨는 썬아라고 있어.}

10204 # 썬알. {씨아.}

10204 # 씨아시. {씨아.}

10204 # 썬아시라는 그 저 우리나라에서 맵근 거요. {썬아라는 그 저 우리나라에서 만든 거요.}

10204 # 그건. {그건.}

10204 # 우리 옛날부터 그기 이씨요. {우리 옛날부터 그게 있어요.}

10204 # 씨아시. {씨아가.}

10204 # 이래 돌리닝 거요. {이렇게 돌리는 거요.}

10204 @ 예. {예.}

10204 # 돌리면 이 아래 우애 막 따라 도라가기 때미내. {돌리면 이 아래 위가 따라 돌아가기 때문에.}

10204 # 모과가 씨넌 다 그냥 이짜그로 빠저고. {목화가 씨는 다 그냥 이쪽으로 빠지고.}

10204 # 썬알. {씨아.}

10204 # 씨가 발라집니다. {씨가 발라집니다.}

10204 @ 아래 위에 머가 도라가요? {아래 위에 뭐가 돌아가요?}

10204 # 아래 우애 이 똥그라캐 이래 맵그렁 길 이기 양짜그루 이래 북캐 대이씨. {아래 위에 이 둥그렇게 이렇게 만든 것이 이게 양쪽으로 이렇게 붙게 되어 있어.}

10204 @ 예. {예.}

10204 # 요래 마쳐 가주고 이래 돌리면. {이렇게 맞춰 가지고 이렇게 돌리면.}

10204 # 모칼 이래 느면. {목화를 이렇게 넣으면.}

10204 # 어 이래 지넌 바라매 씨넌 이짜그로 떠러저고. {어 이렇게 되는 바람에 씨는 이쪽으로 떨어지고.}

10204 # 모카는 이리 나온다 이거여. {목화는 이리 나온다 이거야.}

10204 # 그라먼 씨럴 바르닝 거여. {그러면 씨를 발리는 거야.}

10204 # 이제 고 다매 그라먼 그기 그 과정이 끝나면. {이제 그 다음에 그게 그 과정이 끝나면.}

10204 # 활로 화리라고 이씨요. {활로 활이라고 있어요.}

10204 # 활. {활.}

10204 # 여기 진짜 이래 쏘넌 활 그거랑 비스타개 이래 맵궁 기 대나무로. {여기 진짜 이렇게 쏘는 활 그거랑 비슷하게 이렇게 만든 것 대나무로.}

10204 # 대나무 활로 맵그라 가주. {대나무 활로 만들어 가지고.}

10204 # 퉁:퉁 퉁기면 소:미 대뿌리닝 거여. {퉁퉁 퉁기면 숨이 돼 버리는 거야.}

10204 # 숨:. {숨.}

10204 @ 음. {음.}

10204 # 소:미. {숨이.}

10204 # 거기 그 소:미 대면 인재 그거럴 이런대 이래 널:린대다 이래 깔고. {그게 그 숨 이 되면 이제 그것을 이런 데 이렇게 넓은데다 이렇게 깔고.}

10204 # 이불만: 이불, 이불솜 할라면 이불만:칭 이르게 이런 대다 가따 노코. {이불만 이 불솜을 하려면 이불만큼 이렇게 이런 데다 갖다 놓고.}

10204 # 이래 피 노무 그거 인재 활로 티그, 텅깅 걸 그걸 소:미라카능 거여. {이렇게 피 놓으면 이제 활로 텅긴 걸 그것을 숨이라고 하는 거야.}

10204 # 숨:. {숨.}

10204 # 소:물 가따 이러케 이불 널비만칭 해 가주고. {숨을 갖다 이렇게 이불 너비만큼 해 가지고.}

10204 # 딱: 눌러 멀루 줌 이래 뽕뜨탕 걸로 눌러면. {딱 눌러 무엇으로 줌 이렇게 반듯한 걸로 누르면.}

10204 # 이 짜브라전 다:매 이래 개: 가주고. {이 눌린 다음에 이렇게 개어 가지고.}

10204 # 나두따가 이불 멍그녕 거요. {바 두었다가 이불 만드는 거요.}

10204 # 이불. {이불.}

10204 # 숨:니불 멍그녕 거요. {숨이불 만드는 거요.}

10204 @ 예:. {예.}

10204 # 그르케. {그렇게.}

10204 # 그라고 인재 또 그건 인재 베 날라면. {그리고 또 그걸 이제 베를 하려면.}

10204 # 이 베를 멍글라 인재 온, 온 찢 껴, 이래 베를 만, 멍글라면. {이 베를 만들어 이제 옷 옷 지을 것 이렇게 베를 만 만들려면.}

10204 # 그거 소무로 인재 탕 거럴 놀루지도 양코. {그거 숨으로 이제 탄 것을 누루지도 양고.}

10204 # 거기, 내 고대 얘기해쥬요~:? {그게, 내 금방 얘기했쥬요:??}

10204 # 여: 거시기 어:: 사:주, 사:주할 때 그 쪼개녕 거 어? {여 거시기 에 사주, 사주 할 때 그 쪼개는 것 어?}

10204 # 그, 그걸 그걸 꼬너 가주고. {그 그걸 그걸 꿰어 가지고.}

10204 # 이: 소느로 가꼬 요 쪼망칭 요래 소물 요래 띠: 가주고. {이 손으로 가지고 요 조 그만큼 이렇게 숨을 이렇게 떼어 가지고.}

10204 # 고기다 노코 이르게 소느로 비비면. {거기에다 놓고 이렇게 손으로 비비면.}

10204 # 이래 거시기 떡까래 거치 그르케 대능 거여. {거시기 가래떡 같이 그렇게 되는 거야.}

10204 # 그걸 인재 예: 멍그녕 과정언 물:래라고 이썬요. {그걸 이제 만드는 과정은 물레 라고 있어요.}

10204 # 물래:. {물레.}

10204 # 물래에다가 이 가락꼬지 거통 기 여 썬로 멍궁 기 이썬요. {물레에다가 이 가락꽃 이 같은 게 여기 쇠로 만든 게 있어요.}

10204 # 여기다 이제 땡깅 대 고기에 인재 또 그라구 저 조 조꺾띠기 이: 그걸 가따 요기 꼬트머리다 쥬구고. {여기에다 이제 동인데 거기에 이제 또 그리고 저 조 조꺾띠 기 그걸 갖다 여기 꼬트머리에다 끼우고.}

10204 # 인재 이 썬릴 뽕녕 거요. {이제 이 실을 뽑는 거요.}

10204 # 어 이걸 돌리면 이래이래:하면 시:리 대녕 거여. {어 이걸 돌리면 이렇게이렇게

하면 실이 되는 거야.}

10204 # 실. {실.}

10204 # 그 인재 요 아 기수리요. {그 이제 요 아주 기술이요.}

10204 # 요걸 국:개 하면 뿔떡, 뿔떡베가 대고 아주 가늘게 하면 조은 고 베가 대능 기  
요. {요걸 굵게 하면 뿔떡, 뿔떡베가 되고 아주 가늘게 하면 좋은 그 베가 되는  
거요.}

10204 # 그래 새:가. {그래 사이가.}

10204 @ 뿔떡베라 그래요? {뿔떡베라 그래요?}

10204 # 뿔떡베라는 젤: 나뿔 거. {뿔떡베라는 건 제일 나뿔 거.}

10204 @ 예. {예.}

10204 # 나뿔 논 땡근 만 만드는 오시대고. {나뿔 옷 만든 만 만드는 옷이 되고.}

10204 @ 예. {예.}

10204 # 시털 잘 모뽀부먼. {실을 잘 못 뽑으면.}

10204 @ 네. {네.}

10204 # 시털 잘: 뽀부먼 아주 곧: 오시 대능 거여. {시를 잘 뽑으면 아주 고은 옷이 되는  
거야.}

10204 @ 예. {예.}

10204 # 그 그 킁 기술링 기여 그기. {그 그게 큰 기술인 거야 그게.}

10204 # 흐. {흐.}

10204 # 이 실: 뽑는 기수리. {이 실 뽑는 기술이.}

10204 @ 예. {예.}

10204 # 그래 가주 이 오서 땡그능 거여 엔:나래. {그래 가지고 이 옷을 만드는 거야 옛  
날에.}

10204 @ 네:. {네:.}

10204 @ 그러면 굴:그 굴:개 나옴 개 뿔떡베: 하능 거고. {그러면 굵은 굵게 나온 게 뿔떡  
베 하는 거고.}

10204 # 예 뿔떡베고. {예 뿔떡베고.}

10204 @ 고은:: 거는. {고은 거는.}

10204 # 고옴 건 조은 베다 이거여. {고은 건 좋은 베다 이거야.}

10204 @ 예. {예.}

10204 # 아주 가늘게 잘: 뽀바야. {아주 가늘게 잘 뽑아야.}

10204 # 가늘게 잘: 뽀부먼 존: 베가 대능 거여. {가늘게 잘 뽑으면 좋은 베가 되는 거야.}

10204 @ 예:. {예:.}

10204 # 엔:나랜 그래쥬요. {옛날에 그랬쥬요.}

10204 @ 그 그거 저기 그 머라 그래요? {그 그거 저기 그 뭐라고 해요?}

10204 @ 수, 수수께이? {수 수수깡?}

10204 @ 그. {그.}

10204 # 쭈수깡이. {수수깡.}

10204 @ 예, 그걸루 항 거자나요? {예, 그걸로 한 거잖아요?}

10204 @ 고고 요만큼 찢러 가주고? {그거 요만큼 잘라 가지고?}

10204 # 이 이거 비빌땡거라고. {이 이거 비비던 거라고.}

10204 # 또 인재 요고 뽀볼 때는 그걸 여기다 꼽는 게 아니고 저 거시 조. {또 이제 요거 뽀볼 때는 그걸 여기다 꼽는 게 아니고 거시기 조.}

10204 @ 어떤 조? {어떤 조?}

10204 # 조 조 줄때 조깅따기 저 키워 크는. {조 조 좇대, 조깅테기 저 키워 크는.}

10204 # 고거털 여 매지털 꼬너 가주 요기다 끼워 가주구. {고거를 여 마디를 꿰어 가지고 여기다 끼워 가지고.}

10204 # 어 실:타래 실:타래 감는 건 고걸루 하능 기여 또. {에 실타래 실타래 감는 건 고 걸로 하는 거야 또.}

10204 @ 그 조 조가 머 어떠케 생깁 거예요? {그 조가 뭐 어떻게 생긴 거예요?}

10204 @ 그 저 스승 얘기하능 거 아니지요? {그 저 조 얘기하는 거 아니지요?}

10204 # 수:숙. {서숙.}

10204 @ 스:스기요? {서구이요?}

10204 # 어, 수:스기라카지 조털. {어, 서숙이라고 하지 조를.}

10204 @ 예, 수숙. {예, 수수.}

10204 # 스:수기라고도 하고 조라고도 하는데. {서숙이라고도 하고 조라고도 하는데.}

10204 @ 네::. {네::.}

10204 # 줍쌀 알자나요? {줍쌀 알잖아요?}

10204 # 줍쌀. {줍쌀.}

10204 @ 네. {네.}

10204 # 쌀, 쩌맴콤폴 거. {쌀, 조그만한 거.}

10204 # 저 저 이 수 머여? {저 저 이 수수 뭐야?}

10204 # 수:숙 여기 저 어: 이:: 수수깁이 머여 맵그능 건 아리 더 굴궁 건. {수수 여기 저 에 이 수수깁 뭐야 만드는 건 알이 더 쿼은 것은.}

10204 @ 네. {네.}

10204 # 쑤수라카고. {수수라고 하고.}

10204 # 쑤수. {수수.}

10204 @ 쑤수. {수수.}

10204 @ 예. {예.}

10204 # 쑤수라고 안히야? {수수라고 안해?}

10204 @ 예. {예.}

10204 # 쪼마냥 건 조라카능 기고. {조그만한 건 조라고 하는 거고.}

10204 # 줍쌀. {줍쌀.}

10204 @ 줍쌀. {줍쌀.}

10204 # 줍싸래 그. {줍쌀에 그.}

10204 @ 그 꺾따기. {그 꺾테기.}

10204 # 싸리 안댕 걸 조. {쌀이 안 된 걸 조.}

10204 @ 어 그 꺾따기::라 그러면. {에 그 꺾테기라 그러면.}

10204 @ 머 글 저:기 줄기. {뭐 그 저기 줄기.}

10204 @ 그거 꺾따기예요? {그게 꺾테기예요?}

10204 @ 아::. {아::.}

10204 # 인재 이 알: 굴궁 거넌 쑤수. {이제 이 알 쿼은 것은 수수.}

10204 # 수수라고 그거 어: 저 사:주, 사:주애 쓰명능 기고. {수수라고 그거 에 저 사주 사주에 써 먹는 것이고.}

10204 @ 그 조, 아까 그 조껍때를 거기 끼운다고 했는데. {그 조, 아까 그 조 껍때기를 거기 끼운다고 했는데.}

10204 @ 그 조껍때기는 어떤, 어떻 걸 얘기하능 거요. {그 조껍때기는 어떤 걸 얘기하는 거요.}

10204 @ 그 껍때기가? {그 껍때기가?}

10204 # 껍때기는 인재 예: 그: 대궁. {껍때기는 이제 예 그 대궁.}

10204 # 대궁. {대궁.}

10204 @ 대궁애 이파리 인능 거? {대궁애 이파리 있는 거?}

10204 # 어, 대궁. {어, 대궁.}

10204 @ 예::. {예::.}

10204 # 대궁얼 잘르면 그 쏘기 비 가주 이따고. {대궁을 자르면 그 속이 비어 있다고.}

10204 # 대궁이. {대궁이.}

10204 # 그래잉개 인재 이거 끼우면 대도록 대 이따고. {그러니까 이제 이게 끼우면 되도록 되어 있다고.}

10204 # 요래 요망콧 팔라 가주고. {이렇게 요만큼 잘라 가지고.}

10204 @ 예::. {예::.}

10204 # 그기 인재 실:타래라카능 기여. {그게 이제 실타래라고 하는 거야.}

10204 # 실:타래. {실타래.}

10204 @ 아 그래 가주고 요로:캐 가마노면 요로캐 배 불르게 요로:캐. {아 그래 가지고 요로캐 감아 놓으면 이렇게 배부르게 요로캐.}

10204 # 예: 똥:구라캐 요래. {예, 동그랗게 요렇게.}

10204 @ 요로캐 생깁 거 .... {요렇게 생긴 거 ...} 10204 # 으:, 꼬래지. {응, 그런 꼴이지.}

10204 # 예, 마저. {예, 맞아.}

10204 @ 그걸 실:타래라 그래요? {그걸 실타래라고 해요?}

10204 # 예, 그걸 실:타래라카능 거 아녀. {예, 그걸 실타래라고 하는 거 아니야.}

10204 @ 예. {예.}

10204 @ 그르니 요새 애들 머, 저두 잘 모르겐는데. {그러니 요새 애들 뭐, 저도 잘 모르겠는데.}

10204 @ 요새 애드리야 알개써요? {요새 애들이야 알겠어요?}

10204 # 으호호, 그리요. {으호호, 그래요.}

10204 # 어 애:더리 알마냥 건 아니지. {어 애들이 알만한 건 아니지.}

10204 # 이렇 거넌. {이런 거는.}

10204 # 지끄매더런 아주 저너 모르지. {지금 애들은 아주 전혀 모르지.}

10204 # 지금 구:경두 아넌는데 머. {지금 구경도 안 했는데 뭐.}

10204 # 저너 몰를거여. {전혀 모를 거야.}

10204 # 음음. {음.}

10204 @ 아까그 활로 탄다그러자나요? {아까 그 활로 탄다 그러잖아요?}

10204 @ 활로 탄다고. {활로 탄다고.}



10204 # 어, 활로 타능 기여. {어, 활로 타는 거야.}

10204 @ 그거를 전 잘 모르개썬요. {그거를 전 잘 모르겠어요.}

10204 @ 머 이르캐 두 두드리능 거. {뭘 이렇게 두 두드리는 거.}

10204 # 탁탁 이래. {탁탁 이렇게.}

10204 # 이 화를 이래 들고:. {이 활을 이렇게 들고.}

10204 # 진짜 이 활거치 요르캐 대 인능대. {진짜 이 활같이 요렇게 되어 있는데.}

10204 # 요 활 주리 이짜나? {이 활 줄이 있잖아?}

10204 @ 예. {예.}

10204 # 그걸로 이 이르캐 씨아 씨 발라놓 그 모과를 가따가 노코서. {그걸로 이 이렇게 씨앗 씨 발라 놓은 그 목화를 갖다가 놓고서.}

10204 # 탕탕탕탕 타면 그기 버러져 가주 소:미 대능 거요. {탕탕탕탕 타면 그게 벌어져 가지고 숨이 되는 거요.}

10204 # 소:미 대버려. {숨이 돼 버려.}

10204 # 그람 막 이러캐 병::하니 이러캐 대지. {그러면 막 이렇게 병하니 이렇게 되지.}

10204 @ 그르며:는 이르캐 반달 모양으로 대쓸꺼 아니요? {그러면 이렇게 반달 모양으로 되었을 거 아니예요?}

10204 @ 이러캐? {이렇게?}

10204 # 그르쵸, 반달 모양. {그렇지요, 반달 모양.}

10204 @ 그럼 여기 이르캐 인재. {그러면 여기 이렇게 이제.}

10204 # 여 주리 이쵸. {여기 줄이 있쵸.}

10204 @ 주리 이꼬. {줄이 있고.}

10204 # \*\* \*\*\*

10204 @ 그러문 요 주를 주래다가 대고 하능 거요? {그러면 요 줄을 줄에다가 대고 하는 거요?}

10204 # 이 익. {이 이.}

10204 # 그거 모과를 여기다 노코. {그거 목화를 여기다 놓고.}

10204 # 주래다 고 고 줄 이걸 탕탕 텅기면 주래서 텅기 가주구. {줄에다 고 고 고 줄 이것을 탕탕탕 텅기면 줄에사 텅겨 가지고.}

10204 # 그거 소:물 맹그라 논능 거야. {그거 숨을 만들어 놓는 거야.}

10204 @ 아:: 그러면 화를 여 노코. {아:: 그러면 활을 여기 놓고.}

10204 @ 고: 줄 인능대다 모과를 노코. {고: 줄 있는 데다가 목화를 놓고.}

10204 @ 이거 주를 탕 노:면. {이거 줄을 탁 놓으면.} 10204 # 그르치. {그렇지.}

10204 # 쵸::라능 기여. {그러는 거야.}

10204 @ 그 주리 툴 때마다 모카가. {그 줄이 툴 때마다 목화가.}

10204 # 아, 모카가 버러저넝 거여 고래. {아, 목화가 벌어지는 거야 그렇게.} 10204 @ 아, 그래서 이러캐 병:그러캐. {아, 그래서 이렇게 병:그렇게.}

10204 # 그래서 병:하개 병:하개 그래 아주 골고루 고만 잘: 이래 텅기야 댜다고. {그래서 병하게 병하게 그렇게 아주 골고루 그만 잘 이렇게 텅겨야 된다고.}

10204 # 그래 가주서 소:덜 맹그넝 거요. {그래 가지고 숨을 만드는 거요.}

10204 # 엔:나래. {옛날에.}

10204 @ 아, 그러니까 그개 인재 엔:나래 지배서 하든 방버비고. {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옛날에 집에서 하던 방법이고.}

10204 @ 그 뒤:애 항 개 인재 근 솜틀찌배 가주 가서 타 온다능 거뚜 결구근 그러케 붕:  
하개 해오능 거지요? {그 뒤에 한 게 이제 그 솜틀집에 가져 가서 타 온다는 것  
도 결국은 그렇게 붕하게 해오는 거지요?}

10204 # 그르치요::. {그렇지요.}

10204 # 그렇 거지 그건. {그런 거지 그건.}

10204 @ 지배서 저 솜: 오래 쓰면 이르게 놀려 가주고 가라안짜나요? {집에서 저 솜 오래  
쓰면 이렇게 놀려 가지고 가라앉잖아요?}

10204 @ 그래서 그거 가끔 보니까 그 솜 타 가주고 오류 그러기도하든대? {그래서 그거  
가끔 보니까 그 솜 타 가지고 오고 그러기도 하던데?}

10204 # 그러지요, 인재 지그문 기개루 다: 하지. {그렇지요, 이제 지금은 기계로 다  
하지.}

10204 # 여기 인재 아내. {여기 이제 안 해.}

10204 # 옴:나랜 그래따 이런 애깁 기요. {옛날에 그랬다 이런 애깁 거예요.}

10204 @ 예예. {예.}

10204 # 옴:나랜. {옛날에는.}

10204 @ 그리고, 인재 그르케 해서 그걸 이부래다가 너어 논능 거구. {그리고, 이제 그렇  
게 해서 그걸 이불에다가 넣어 놓는 거고.}

10204 @ 그다매 또 머리에 이르게 베:능 거뚜 이짜나요? {그 다음에 또 머리에 이렇게 베  
는 거 있잖아요?}

10204 # 비:개? {베개?}

10204 @ 예, 그건 어트개 해요? {예, 그건 어떻게 해요?}

10204 # 베개야 머 여러 가지로 멍그를 쭈 인능 깁개 옴나래도 마창가지요. {베개야 뭐 여  
러 가지로 만들 수 있는 것이니까 옛날에도 마창가지요.}

10204 # 머 거기 예:: 곡씨걸 느넌 사람도 이꼬. {뭐 거기 예 곡식을 넣는 사람도 있고.}

10204 # 앙 그러면 머 좀 어: 몰개. {안 그러면 뭐 좀 예 모래.}

10204 # 몰개두 아내는 느코. {모래도 안에는 넣고.}

10204 # 그라고 인재 머 그 베:개 멍그넝 건 이 수:릴 노치요~:. {그리고 이제 뭐 베개 만  
드는 건 이 수를 놓지요.}

10204 # 그 어 수: 아시지요? {그 예 수 아시지요?}

10204 @ 여패? {옆에?}

10204 # 으, 여패 하는대. {으, 옆에 하는대.}

10204 # 그건 인재 수루 해 가주구 막 아주 보기 조캐 멍그능 건 머 근 솜씨대루 가능 거  
쥬. {그건 이제 수로 해 가지고 막 아주 보기 좋게 만드는 것은 뭐 그건 솜씨대로  
가는 거지요.}

10204 @ 곡씨근 딸:러썬 주로? {곡식은 뭘 넣었어요 주로?}

10204 # 곡씨건 그거 메물. {곡식은 그거 메밀.}

10204 # 메물썬띠기두 너코 곡씨 썬띠기. {메밀 썬띠기도 넣고 곡식 썬띠기.}

10204 # 인재 곡씨건 머 그 알:맹인 먹기 위해서 그 하고 머. {이제 곡식은 뭐 그 알맹이  
는 먹기 위해서 그거 하고 뭐.}

10204 # 여러: 가질 늑띠다::. {여러 가지를 넣습디다.}

10204 # 곡썩 껌띠기도. {곡식 껌떼기도.}

10204 @ 저는 어릴때보니까 저 저 썩겨. {저는 어릴 때 보니까 저 저 왕겨.}

10204 # 아, 썩겨는 호니 마:이 는능 기고. {아, 왕겨는 흔히 많이 넣는 거고.}

10204 @ 그거 그캐. {그거 그렇게.} 10204 # 어, 왕겨는 머 벼 왕겨는 머 거 호니 마이  
능 거. {어, 왕겨는 뭐 벼 왕겨는 뭐 그거 흔히 많이 넣는 거.}

10204 # 근대 메:물껌띠기. {그런데 메밀 껌떼기.}

10204 # 이렇 거뚜 느코 머 메밀. {이런 것도 넣고 뭐 메밀.}

10204 @ 음. {음.} 10204 # 여러 가지 느코 하더라고. {여러 가지를 넣고 하더라고.}

10204 @ 물개도 너썩요? {모래도 넣었어요?}

10204 # 어? {예?}

10204 @ 물개두 너썩요? {모래도 넣었어요?}

10204 # 물:개두 느치요. {모래도 넣지요.}

10204 # 그 인제 무껌썩. {그 이제 무껌지.}

10204 # 물개 느면. {모래 넣으면.} 10204 @ 무껌썩나요? {무껌썩아요?}

10204 # 무껌껌요. {무껌껌요.}

10204 # 썩마내도. {썩그만해도.}

10204 @ 어:. {여:.}

10204 # 지금 머 황토. {지금 뭐 황토.}

10204 # 황토 저: 비:개 이렇 거 무껌썩나. {황토 저 베:개 이런 것 무껌썩아.}

10204 @ 예. {예.}

10204 # 딱따카개 멍글기도 하고 머 그런 시건 머 비스태요. {딱딱하게 만들기도 하고 뭐  
그런 식은 뭐 비슷해요.}

10204 # 그거 멍기녕 건. {그거 만드는 것은.}

10204 @ 그 여껌 수 논대 거기 양썩개 퐁그라차나요? {그 옆에 수 놓은 데 거기 양썩에  
둥그라썩아요?}

10204 @ 이르캐? {이렇게?}

10204 # 그르썩. {그렇지요.}

10204 @ 고 고거 이르미 머 따로 이썩요? {그 그거 이름이 뭐 따로 있어요?}

10204 # 아이고, 이러미 그 따루 인넌대. {아이고, 이름이 그 따로 있는데.}

10204 # 그 여자더리 자랄지. {그 여자들이 잘 알지.}

10204 # 난 잘 모르건는데. {난 잘 모르겠는데.}

10204 # 허허. {허허.}

10204 # 이르면 따루 이썩요. {이름은 따로 있지요.}

10204 # 그. {그.}

10204 @ 그 껌떼기늬 머라 그래요? {그 껌떼기는 뭐라고 해요?}

10204 # 비:개? {베개?}

10204 @ 비:개? {베개?} 10204 # 베개. {베개.}

10204 @ 예, 그거뚜 껌띠기두 빨자나요? {예, 그것도 껌떼기도 빨썩아요?}

10204 @ 껌떼기만 주로 잘 자주 빠라서 갈, 가라서? {껌떼기만 주로 잘 자주 빨아서 갈,  
갈아서?}

10204 # 그 그르썩. {그 그렇지요.}

10204 # 그 비 베:개 껌띠기라 그랄꺄 아마. {베 베개 껌테기라 그랄 꺄 아마.}

10204 # 베:개 껌띠기라 그라지 시픈대. {베개 껌테기라 그러지 싶은데.}

10204 @ 예. {예.}

10204 @ 이르꺄 꺄고 안능 거뚜 맨들고? {이렇게 꺄고 앓는 것도 만들고?}

10204 # 그 매뽕서기라카지. {그거 뱃방석이라고 하지.}

10204 @ 매뽕서기요? {뱃방석이요?}

10204 @ 그거 멀루 만드려요? {그거 뿔로 만들어요?}

10204 # 으? {으?}

10204 @ 매뽕서근 멀루 만드려요? {뱃방석은 뿔로 만들어요?}

10204 # 매뽕서근 내내 소금 느코 그래 뱃글라요 엔나래도. {뱃방석은 내내 솜 넣고 그래  
렇게 만들어요 옛날에도.}

10204 @ 소고미요? {소금이요?}

10204 # 솜: 느코 솜. {솜 넣고 솜.}

10204 @ 아, 솜. {아, 솜.}

10204 # 솜 느코. {솜 넣고.}

10204 @ 음. {음.}

10204 # 엔나랜 솜 느코 주로 뱃글지. {옛날엔 솜 넣고 주고 만들지.}

10204 # 훌꺄론 아납띠다. {훌꺄로는 안 함디다.}

10204 @ 예::. {예::.}

10204 # 훌꺄론 아나고. {훌꺄로는 안 하고.}

10204 @ 그꺄 매뽕서기라 그래요? {그꺄 뱃방석이라 그래요?}

10204 # 꺄꺄 매뽕서기라 그라지 아매. {꺄꺄 뱃방석이라 그러지 아마.}

10204 # ㅎㅎ. {ㅎㅎ.}

10204 @ 그 저거는 머라 그래요? {그 저거는 뿔라 그래요?}

10204 @ 저, 집 지푸루 여꺄 거 이르꺄 뽕그러꺄 뱃 거? {저 꺄 꺄으로 엮은 거 이렇게  
그렇게 된 거?}

10204 # 아, 집 지부로 영꺄 거 그 저 매: 매: 노코 하넝 거. {아, 꺄 꺄으로 엮은 거 그  
저 매 매 놓고 하는 거.}

10204 # 어 그뚜 매뽕서기라카는대. {예 그것도 뱃방석이라 하는데.}

10204 # 이근 꺄방 꺄뽕서기라카등가. {이건 꺄방 꺄방석이라고 하던가.}

10204 # 꺄뽕석. {꺄방석.}

10204 # 꺄뽕서깁가? {꺄방석인가?}

10204 @ 예. {예.}

10204 # 꺄방서꺄끼여. {꺄방석일 거야.}

10204 # 이근 꺄방서기라꺄끼여 아매. {이건 꺄방석이라고 할 거야, 아마.}

10204 @ 예:. {예:}.

10204 # 이근 그냥 꺄구 안녕 거넝꺄. {이건 그냥 꺄고 앓는 거니까.}

10204 # 그꺄 매뽕서기라꺄. {그꺄 뱃방석이라고 해.}

10204 # 그건 참 매뽕서기여. {그건 참 뱃방석이야.}

10204 # 이 매에두. {이 매에도.}

10204 @ 예. {예.}

10204 # 이 저 돌:로 맹궁 거 이래 돌리녕거. {이 저 돌로 만든 거 이렇게 돌리는 것.}

10204 @ 예. {예.}

10204 # 그거 매빵서기여. {그게 맷방석이야.}

10204 @ 하라버:니::미 그럼 겨론하셔쓸 때가 인재 구내 가기 저니라고 하셔짜나요? {할아버님이 결혼하셨을 때가 이제 군에 가기 전이라고 하셨잖아요?}

10204 @ 선친두 사라개시구? {선친도 살아계시고?}

10206 # 응, 그르치. {응, 그렇지.}

10204 @ 그때 가족뜨른 누구 누구 이써씨요? {그때 가족들은 누구 누구 있었어요?}

10206 # 가족뜨런 어머니면 아버지 다 이꼬. {가족들은 어머니는 아버지 다 있고.}

10206 @ 네. {네.}

10206 # 어:, 동생이 이꾸. {에, 동생이 있고.}

10206 # 눈님덜 돌: 런 시직 가꼬. {누님들 둘은 시집 갔고.}

10206 @ 하라버지 할머니는? {할아버지 할머니는?}

10206 # 사라개서씨찌. {살아계셨었지.}

10206 @ 음. {음.}

10206 @ 그때 그러며는 연세가 어느 정도 되써씨요? {그때 그러면 연세가 어느 정도 되셨어요?}

10206 @ 할아버님? {할아버님?}

10206 # 그때가 인재 글썸 스물한 살. {그때가 이제 글썸 스물한 살.}

10206 @ 아니, 하라버지애 저:기 조분님? {아니, 할아버지의 저기 조부님?}

10206 # 아:, 아번님? {아, 아버님?}

10206 # 아번니면 한 삼십 한 육썸 대찌유. {아버님은 한 삼십 한 육 세썸 되었지요.}

10206 # 삼십. {삼십.}

10206 @ 그러며는 그위에 어르시는? {그러면 그 위에 어르신은?}

10206 @ 조분니믄? {조부님은?}

10206 @ 하라버지애 조분님은? {할아버지의 조부님은?}

10206 # 우리 하라버지는 그때애 예: 한 오래살다 도라가시썸께. {우리 할아버지는 그때애 한 오래 살다 돌아가셨으니까.}

10206 # 아매 한 칠썸: 년새 대찌요. {아마 한 칠십 연세 됐지요.}

10206 # 칠썸여덜. {칠십여덟.}

10206 # 정학카개는 짐 몰러. {정확하게는 지금 몰라.}

10206 # 한 칠썸 한 오새썸 대꺼나. {한 칠십 한 오 세썸 됐거나.}

10206 # 오래살다 도라가시쓰니까. {오래 살다 돌아가셨으니까.} 10206 @ 예. {예.}

10206 # 하라번니면. {할아버님은.}

10206 @ 갱장이 조아하셔꽤내요? {굉장히 좋아하셨겠네요?}

10206 # 어. {어.}

10206 @ 흐. {흐.}

10206 @ 옼나래는 찌:기 손자 겨로나고 머 이러:능 거 보능 개 그르케 쉽지는 아나짜나요? {옛날에는 저기 손자 결혼하고 뭐 이런 거 보는 게 그렇게 쉽지는 않았잖아요?}

10206 # 쉽찌안쵸. {쉽지 않지요.}

10206 # 쉽잖아. {쉽지 않아.}  
 10206 # 아 인재 하라번니면 그때 도라가시찌. {아 이제 할아버님은 그때 돌아가셨지.}  
 10206 @ 음. {음.} 10206 # 예. {예.}  
 10206 @ 저 어릴 때 보니까 머 한 오십 육십때면 다: 저기 대, 대꼬바리 저 저 장:죽? {저 어릴 때 보니까 뭐 한 오십 육십 되면 다 저기 대 대꼬바리 저 저 장죽?} 10206 # 아:, 그. {아, 그.}  
 10206 # 꼬꼬 땡기요. {꽃고 다녀요.}  
 10206 # 꼬꼬 땡기요. {꽃고 다녀요.} 10206 @ 예. {예.}  
 10206 @ 그거 이르게 여기 등애다 꼭꼬 다니구 이르시구. {그거 이렇게 여기 등애다 꽃고 다니고 이리시고.} 10206 # 어, 등애다 꼬꼬 땡기요. {어, 등애다 꽃고 다녀요.}  
 10206 @ 지금 오십때면 머 제:가 오십땡대. {지금 오십 대면 뭐 제가 오십 대인데.} 10206 # 호호. {호호.} 10206 @ 헤헤 점짜나요? {호호 젊잖아요?}  
 10206 # 그러치요. {그렇지요.}

## 1.2. 전통 혼례식

10208 @ 그러면 예:저내 인재 에 겨론시카자나요? {그러면 예전에 이제 결혼식 하잖아요?}  
 10208 @ 흘래식? {혼례식?}  
 10208 # 흘래식. {혼례식.}  
 10208 @ 그럼 인재 요새하고 다르게 옛날 전, 전통 흘래식할 때는. {그럼 이제 요새하고 다르게 옛날 전 전통 혼례식 할 때는.}  
 10208 @ 또 그 절차도이꾸, 머 차리능 거뚜 이꼬 그 여러 가지가 이때요? {또 그 절차도 있고 뭐 차리는 것도 있고 그 여러 가지가 있대요?}  
 10208 # 그개 행래쌍이라구 해 가주구. {그개 행례상이라 해 가지고.}  
 10208 # 어: 차리능 기 이찌. {어: 차리는 게 있지.}  
 10208 # 이기 그 참 옛날랜 정하카개하구 이찌. {이게 그 참 옛날엔 참 정확하게 하고 있지.}  
 10208 # 그거 차리닝 걸. {그거 차리는 걸.}  
 10208 @ 딸: 어뜨케 줌:비해써요? {뭐 어떻게 준비했어요?}  
 10208 @ 그거 차릴라먼? {그거 차리려면?}  
 10208 # 차리닝 거 인재 장:개 가면. {차리는 거 이제 장가 가면.}  
 10208 # 예: 여자 여자 지배 지배서 먼저 차리지요 그게. {예 여자 여자 집에 집에서 먼저 차리지요 그게.}  
 10208 # 먼저 차려요. {먼저 차려요.}  
 10208 # 여자 지배서. {여자 집에서.}  
 10208 # 여자 지배서 인재 차리능 건대 근. {여자 집에서 이제 차리는 건데 그건.}  
 10208 # 예: 지:쌍이라고 이찌요? {예 큰쌍이라고 있지요?}  
 10208 # 지:쌍? {큰쌍?}  
 10208 @ 예. {예.}

10208 # 이래 노푼 지:쌍. {이렇게 높은 큰상.}

10208 @ 예. {예.}

10208 # 지:쌍애다가 어: 잔치지넬라고 장마난 그 음식글 대충 거기 다 차려 노치. {큰상 애다가 에 잔치 지내려고 장만한 그 음식을 대충 거기 다 차려 놓지.}

10208 # 차리 노코. {차려 놓고.}

10208 # 다글 암딱. {닭은 암탉.}

10208 # 암딱 이래 자버다 노면 양짜개다 가따 노코. {암탉 이렇게 잡아 놓으면 양쪽에다 갖다 놓고.}

10208 # 보재기애다 싸 가주. {보자기애다 싸 가지고.}

10208 @ 암따기요? {암탉이요?}

10208 # 어: 암딱 장따 개 가주. {응 암탉 장닭 해 가지고.}

10208 @ 아: 암딱 장딱? {아, 암탉 장닭?}

10208 # 어: 그래 싸서 노코. {어 그래 가지고 싸서 놓고.}

10208 # 인재 초뿌릴 키노코. {이제 촛불을 켜 놓고.}

10208 # 상차리멸. {상차림을.}

10208 # 그라고 인재 예: 실랑 츠개도 어: 술쌍을 가따 노코. {그리고 이제 예 신랑 측에도 에 술상을 갖다 놓고.}

10208 # 다 인재 여자 츠개도 술쌍얼 가따 노코. {다 이제 여자 측에도 술상을 갖다 놓고.}

10208 # 그 인재 이 마빠라보고 서서. {그 이제 맞추 바라보고 서서.}

10208 # 어 행니를 치르닝 거지 행닐. {행례를 치르는 거지 행례를.}

10208 # 그라면 인재 남자:가 함번 하면 여잔 두: 번 하고. {그러면 이제 남자가 한 번 하면 여자는 두 번 하고.}

10208 # 저른 그르카개 그르케 하능 기고. {절은 그렇게 하게 그렇게 하는 것이고.}

10208 # 그라고 인재 절 시키넨 사لامي 이씨요. {그리고 이제 절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10208 # 그라면 인재 지금 저 어: 사:해 보드시 하나가 인재 이꼬. {그러면 이제 지금 저 에 사회 보듯이 하나가 이제 있고.}

10208 # 어 여패 서서 이꼬. {에 옆에 서서 있고.}

10208 # 어: 절차는 인재 그개 수릴 실랑은 츠:매 부강재배릴 함 번 함 분 부강재배릴 하지. {에 절차는 이제 그개 술을 신랑은 처음에 북향재배를 한 번 한 번 북향재배를 하지.}

10208 # 부칸. {북향.}

10208 # 부강재배. {북향재배.}

10208 # 그거 먼지 하고 시자걸 하넝 거여. {그거 먼저 하고 시작을 하는 거야.}

10208 # 그 인재 예: 수릴 인재: 이짜개서 따러 주면 저짜개서두 따라서 인재 어 멍넨 방식그로 해. {그 이제 술을 이제 이쪽에서 따라주면 저쪽에서도 따라서 먹는 방식으로 해.}

10208 # 함 번치린 그행 그행살 하고. {한 번 치르고 그행 그행사를 하고.}

10208 # 그라면 인재 그 이 행내는 끝나넨 거지. {그러면 이제 그 행례는 끝나는 거지.}

10208 # 행내는 끝나능 기고. {행례는 끝나는 거고.}

10208 # 그라면 인재 예: 그 신방 차려 논 대로 가기 마려닝 거지. {그러면 에 그 신방 차려 놓은 대로 가게 마련인 거지.}

10208 @ 거기:. {거기.} 10208 # 따루 이따가, 따루 이따가 인재. {따로 있다가, 따로 있다가 이제.}

10208 @ 거기 상애: 그:: 그르니까 월래는 인재 아까 지쌍이라 그래짜나요? {거기 상애 그르니까 원래는 이제 아까 큰상이라고 그랬잖아요? }

10208 # 어 지쌍애다 차리놔. {어 큰상에다 차려놔.}

10208 @ 그거 그거 가따가 인재 거기다가 차리자나요? {그거 그거 갖다가 이제 거기다가 차리잖아요?}

10208 # 그르치요. {그렇지요.}

10208 @ 그 위에 어떻 거 어떻 거 올려요? {그 위에 어떤 거 어떤 거 올려요?}

10208 # 그 우애넌 글썽 인재 이 잔치할라고 음:시겔 장마나자나? {그 위에는 글썽 이제 이 잔치하려고 음식을 장만하잖아?}

10208 @ 예. {예.}

10208 # 옛날 잔치넌 지배서 하거던. {옛날 잔치는 집에서 하거든.}

10208 # 지배서. {집에서.}

10208 @ 예예. {예.}

10208 # 지배서 하닝께 손님덜 줄라고 장마난 거 적끄텅 거 하고. {집에서 하니까 손님들 주려고 장만한 것 적 같은 거 하고.}

10208 # 머 인재 어물류라도 이쓰면 어물류 과:일두 줌 차려 노코. {뭐 이제 어물류라도 있으면 어물류 과일도 줌 차려 놓고.}

10208 # 그 우애다 차려 노코 양짜그로 차려 노코. {그 위애다 차려 놓고 양쪽으로 차려 놓고.}

10208 # 어 인재 울 그라고 인재 행살 치르능 거요. {어 그리고 이제 행사를 치르는 거요.}

10208 # 행살치러요. {행사를 치러요.}

10208 @ 기 우애 떡뚜 해 노치요? {그 위에 떡도 해 놓지요?}

10208 @ 떡? {떡?}

10208 # 떡또 대 노치. {떡도 해 놓지.}

10208 # 떠뚜 개노는. {떡도 개 놓는.}

10208 # 왜 그리냐하문 떠걸 인재 예:: 상이라고 보내. {왜 그러냐하면 떡을 에 상이라고 보내.}

10208 # 상이라고. {상이라고.}

10208 # 상얼 보낸다 이거여. {상을 보낸다 이거야.}

10208 # 잔치한 음식 이 일쩔하고 어 이거덜 잔치 항거덜 저쪽 찌배 보내지. {잔치한 음식 이 일체하고 어 이것을 잔치한 것을 저쪽 집에 보내지.}

10208 # 하:인드럴 시키 가주구. {하인들을 시켜 가지고.}

10208 # 지금 마라자면 인재 전 어: 새댁 찌배서 먼저 오녕 거지. {지금 말하자면 이제 저 에 새댁 집에서 먼저 오는 거지.}

10208 # 그 상이. {그 상이.}

10208 # 그기 새다글 디리와야 자 저 실랑언 낭중애 잔치릴 하녕 거녕개. {그게 새댁을 데려와야 저 신랑은 나중애 잔치를 하는 거니까.}

10208 @ 예. {예.}

10208 # 그리차나요? {그렇잖아요?}



10208 @ 예. {예.}

10208 # 그리닝께 인재 새다걸 달구 오면 이짜개서 인재 또 어 잔치한 그 애대로 고거덜  
싸서. {그러니까 새떡을 데려 오면 이쪽에서 또 잔치한 그 애대로 그거를 싸서.}

10208 # 어: 모가치럴 항 함 모가지 보내닝 거여:: {에 뭇을 한 뭇 보내는 거야.}

10208 # 그르케 하능 기 그 상이라카능 거지. {그렇게 하는 게 그 상이라 하는 거지.}

10208 # 상. {상.}

10208 # 상 보내고 반능거라 카능 거지. {상 보내고 받는 거라 하는 거지.}

10208 @ 그러면 그 상이 예:: 음시글 얘기하능 거예요? {그러면 그 상이 예 음식을 얘기  
하는 거예요?}

10208 @ 음식? {음식?}

10208 # 음:시걸 얘기하능 거지. {음식을 얘기하는 거지.}

10208 # 음:식. {음식.}

10208 # 음시걸. {음식을.}

10208 # 노나 머글 음시걸 어 저짜 퍼내다 보내주닝 거여. {나누어 먹을 음식을 에 저쪽  
편에다 보내 주는 거야.}

10208 # 그러면 그걸 바드면 동네애다가 또 골::고로 접씨나 이런데 다머 가지고. {그러면  
그걸 받으면 동네애다가 또 골고루 접씨나 이런 데 담아 가지고.}

10208 # 어 집집마다 노나 조파고요. {어 집집마다 나누어 주었다고요.}

10208 # 여기는. {여기는.}

10208 # 여기 한 시근 그르케 해파고. {여기 한 식은 그렇게 했다고.}

10208 @ 아 그럼 마:니 보내야 되쟤내요? {아 그럼 많이 보내야 되겠네요?}

10208 @ 여러찌반태. {여러 집한테.}

10208 # 그룽께 옴나래 목 목모코리라고 이래 쟁 기 이찌. {그러니까 옛날에 목코리라고  
이렇게 큰 게 있지.}

10208 # 그거 두: 개씩 보내지. {그거 두 개씩 보내지.}

10208 # 인재 항 거 하난 떡, 땡뉴 보내고. {이제 한 거 하나는 떡, 떡류 보내고.}

10208 # 하나넌 어 그 저 과:일하고 저 적 머 이 대:지고기 다리만 다리 하나. {하나는 에  
그 저 과일하고 저 적 뭐 이 돼지고기 다리만 다리 하나.}

10208 # 세: 개까지도 보내고 머 이라닝 거여. {세 개까지도 보내고 뭐 이러는 거야.}

10208 @ 아:. {아.}

10208 # 모코리. {모코리.}

10208 # 모코리라고 이파고. {모코리라고 있다고.}

10208 # 모코리. {모코리.}

10208 @ 멀루 만드러요? {뭇로 만들어요?}

10208 # 어? {머?}

10208 # 모코리라루 저 버드나무로 땡그닝 거여 그. {모코리라고 저 버드나무로 만드는 거  
야 그거.}

10208 # 버드나무. {버드나무.}

10208 # 드 저 포랑애. {들 저 도랑애.}

10208 @ 예. {예.}

10208 # 쪼마:한 버드나무 이래 쪽쪽 올라오능 거 고거. {조그만한 버드나무 이래 쪽쪽 올

라오는 거 그거.}  
 10208 # 베껴 자주 땡그넝 거요. {벗겨 가지고 만드는 거요.}  
 10208 # 그거 모코리라카능 기여. {그거 모코리라고 하는 거야.}  
 10208 # 모코리. {모코리.}  
 10208 @ 네. {네.}  
 10208 @ 그거 머 요새 구경도 하기 어려운대요. {그거 뭐 요새 구경도 하기 어려운대요.}  
 10208 # 모코리::넌 어디 저 방물과이나 이런대 가면 더러 볼 쭈 이꼬. {모코리는 어디 저  
 박물관이나 이런 데 가면 더러 볼 수 있고.}  
 10208 @ 네. {네.}  
 10208 @ 네. {네.}  
 10208 # 기냥 기냥은 그개 암 땡근다고 잘. {그냥 그냥은 그개 안 만든다고 잘.}  
 10208 @ 옰나랜 다:: 지배 이땡 거자나요? {옛날에 다:: 집에 있던 거잖아요?}  
 10208 @ 그거. {그거.}  
 10208 # 그리요. {그래요.}  
 10208 @ 거기::애 그 올려논 중에 용띠기라능 거 이씨요? {거기에 그 올려 놓는 것 중에  
 용띠이라는 거 있어요?}  
 10208 # 아, 용띠. {아, 용띠.}  
 10208 # 용띠걸 인재 헤 그기 인재 예:: 이 띠꾸걸 띠꼭 잔치 하는 집뚜 이짜나? {용띠을  
 이제 그개 이제 예 이 띠국을 띠국 잔치 하는 집도 있잖아?}  
 10208 # 띠꼭. {띠국.}  
 10208 # 근대 이 예: 그기 지역마다 쪼금씩 틀리능 기. {그런데 이 예 그개 지역마다 쪼금  
 씩 다른 게.}  
 10208 # 이 상:가거나 요:각 이렇 거 우쪼넝 대저팔 때는 띠꾸그로 하는 디도 이꼬. {이  
 상각이나 요각 이런 거 옷손을 대접할 때는 띠국으로 하는 데도 있고.}  
 10208 # 인재 바부로 하는 대도 이꼬:. {이제 밥으로 하는 데도 있고.}  
 10208 # 그 지역마다 다르더라고요. {그개 지역마다 다르더라고요.}  
 10208 # 그라면 인재 그기 그 용띠-이 가래띠 아니여. {그러면 이제 그 용띠이 가래띠 아  
 니야.}  
 10208 # 가래띠그로 땡그넝 기 이기 용띠기라카능 기여. {가래띠으로 만드는 게 이게 용띠  
 이라하는 거야.}  
 10208 # 근대 그걸 호니 호 재 머여 그 행네쌍 우애다 올려 노치. {그런데 그걸 흔히 호  
 제(상) 뭐야 행례상 위에다 올려 놓지.}  
 10208 # 그리여 그건. {그래 그건.}  
 10208 @ 그건 어트개 만드능 거예요? {그건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10208 # 거 쌀, 쌀  
 두 쌀두 한 한 시끼 다마 노코 머. {그 쌀도 쌀도 쌀도 한 식기 담아 놓코 뭐.}  
 10208 # 여러 가지 그래 다마 논능 기요. {여러 가지 그래 담아 놓는 거요.} 10208 @ 그  
 머 의미가 이 인능 건 가요? {그 뭐 의미가 있 있는 건가요?}  
 10208 # 으무가 인능 인능 기 약까는 이따고 봐야 대능 기여. {의미가 있기 있는 게 약간  
 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야.}  
 10208 # 그래넝개 인재 예: 이 다걸 암딱 쭈딱 올리노는 시그로 이 실, 실랑 펴내도 하나  
 해 노코. {그러니까 이제 이 닭을 암탉 수탉 올려 놓는 식으로 이 신랑 편에도 하

나 해 놓고.}

10208 # 또까치 두 개씩 하거덩. {똑같이 두 개씩 하거든.}

10208 # 거기 올리 논능 건. {거기 올려 놓는 건.}

10208 # 또꺼치. {똑같이.}

10208 # 그저 겨론시걸 하닝께. {그저 결혼식을 하니까.}

10208 # 남녀가 합쳐저능강께 두 개씩카능 거여. {남녀가 합쳐지는 거니까 두 개씩 하는 거야.}

10208 #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두 개씩.}

10208 # 그 구부는 그 그르케 보면 대능 기요. {그 구분은 그렇게 보면 되는 거요.}

10208 @ 용떠근 왜 용떠기라 그래요? {용떡은 왜 용떡이라 그래요?}

10208 @ 어트개 만드려요? {어떻게 만들어요?}

10208 # 그기 요트림그치 이래 멩그라 가주. {그게 용트림같이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10208 # 고기다 대출 하나 쏴뜰지 이래 꼬바 노치. {거기다 대추를 하나 쏴뜰지 이래 쏴아 놓지.}

10208 # 그래 용구치 이래 예: 시그로 멩그라 논능 기구. {그래 용같이 이렇게 식으로 만들어 놓는 것이고.}

10208 # 용이 하늘로 올라가는 시그로 해 가주 빠빠타개 새와 노코든. {용이 하늘로 올라가는 식으로 해 가지고 뽀뽀하게 세워 놓거든.}

10208 # 용트림. {용트림.}

10208 @ 아 떠글 그러케 맨드려요? {아 떡을 그렇게 만들어요?} 10208 # 허허허허. {허허허허.}

10208 # 그르케 하지. {그렇게 하지.}

10208 @ 그러면 인재 여자 치개서 이르게 와서 겨론시글 할라면. {그러면 이제 여자 측에서 이렇게 와서 결혼식을 하려면.}

10208 @ 머: 오뚜 이버야 대고 머: 머리에도 화장도 하고 이렇 거 하자나요? {뭐 옷도 입어야 되고 뭐 머리에도 화장도 이런 거 하잖아요?}

10207 # 하지. {하지.}

10207 @ 그렁 건 머 머가 이써요? {그런 건 뭐 뭐가 있어요?}

10207 # 그른대 그렁 건 여자가 하는 기라나서 난 지금두 별 간시멜 안 두구서 잘 모르는대. {그런데 그런 건 여자가 하는 거라나서 난 지금도 별 관심을 안 두고서 잘 모르는데.}

10207 # 그저내 머 보면 부넌 바른다카고. {그전에 뭐 보면 분은 바른다고 하고.}

10207 # 연지곤지 쨍는단 마리지. {연지곤지 찍는단 말이지.}

10207 # 빨강 거. {빨간 거.}

10207 # 빨강 거 치라고. {빨간 거 칠하고.}

10207 @ 어디가 연지고 어디가 곤지예요? {어디가 연지고 어디가 곤지예요?}

10207 # 연지곤지 머 이래 양짜글 마라능 기고. {연지곤지 뭐 이렇게 양쪽을 말하는 거고.}

10207 @ 여기하고. {여기하고.}

10207 # 요요요요 요기하고 요기하고 이래 세군대 하지. {요요요요 요기하고 요기하고 이렇게 세 군대 하지.}

10207 # 세 군대. {세 군대.} 10207 @ 예. {예.}

10207 # 이 연지곤지라 하닝개 머 이 여가 먼저닝개 여기 하개찌. {이 연지곤지라 하니까  
 뒤 이 여기가 먼저니까 여기 하겠지.}

10207 # 연 연 연지라카능가. {연 연 연지라고 하는가.}

10207 # 여긴 곤지라카고? {여긴 곤지라 하고?}

10207 @ 모르개썬요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10207 # 허허허허, 나도 그 고고렐 확씨랑 걸 모르거썬 잘. {허허허허, 나도 그 그것을 확  
 실한 것을 모르겠어 잘.}

10207 @ 예. {예.}

10207 # 고리개. {그렇게}

10207 @ 거기 찍꼬. {그거 찍고.}

10207 @ 오슨? {웃은?}

10207 # 오슨 인재 예: 아이고 그기 머여. {웃은 이제 아이고 그게 뭐야.}

10207 # 어: 아 이르미 뱅뱅 도넨대. {예 아 이름이 뱅뱅 도는데.}

10207 # 오션 그 오셜. {웃은 그 웃을.}

10207 # 아이고 머라카나? {아이고 뭐라고 하나?}

10207 @ 소:개 입능 거는 머요 저? {속에 입는 건 뭐요 저?}

10207 @ 치, 치마? {치마?}

10207 # 치마. {치마.}

10207 @ 저고리. {저고리.}

10207 # 저고리, 아 인재. {저고리, 아 이제.}

10207 @ 치마 저고리 이꼬. {치마 저고리 입고.}

10207 @ 그 우애다가 원삼? {그 위에다가 원삼?}

10207 # 원삼. {원삼.}

10207 # 원사미라캐. {원삼이라고 해.}

10207 # 창 그 원삼. {참 그 원삼.}

10207 # 원삼. {원삼.}

10207 @ 네. {네.}

10207 # 원삼-므로 인재 거도선 하닝 거지. {원삼으로 이제 것웃은 하는 거지.}

10207 @ 네. {네.}

10207 # 원사무로. {원삼으로}

10207 @ 치마 저고리는 새까리 어떻 거 이버요? {치마 저고리는 색깔이 어떤 거 입어요?}

10207 # 새까런. {색깔은.}

10207 # 새까:. {색깔.}

10207 # 새까런 아이고: 청홍으로 입평가? {색깔은 아이고 청홍으로 입턴가?}

10207 # 그르치 아능 거 가티요. {그렇지 않은 거 같아요.}

10207 @ 어디가 청이예요? {어디가 청이예요?}

10207 @ 치마가 청이예요? {치마가 청이예요?}

10207 # 치마가, 치마가 치 치마가 청이 아니자나. {치마가 치마가 치 치마가 청이 아니잖아.}

10207 # 치마가 홍일결. {치마가 홍일 결.}

10207 @ 치마가 홍이고 위에 저고리가 청이고? {치마가 홍이고 위에 저고리가 청이고?}

10207 # 예. {예.}

10207 # 그러케 보능 건대. {그렇게 보는 건데.}

10207 @ 예:. {예:}.

10207 @ 머리에두 쓰자나요 또? {머리에도 쓰잖아요 또?}

10207 # 그 쪽두리. {그 족두리.}

10207 @ 쪽또리. {족두리.}

10207 # 글 쪽또리라그리지. {그걸 족두리라 그러지.}

10207 @ 남자두 머 머리에? {남자도 뭐 머리에?}

10207 # 남자는 그 어 거시기 예:. {남자는 그 어 거시기 예.}

10207 # 무슨 과나라카나. {무슨 관이라고 하나.}

10207 @ 사 사 사 사:모. {사 사 사 사모.}

10207 # 사:모. {사모.}

10207 # 사모관대라카능 기. {사모관대라 하는 게.}

10207 # 사:모. {사모.}

10207 @ 예. {예.} 10207 # 어 이근 관대년 이 허리띠는 관대. {어 이건 관대는 이 허리 띠는 관대.}

10207 @ 예. {예.}

10207 # 사:모관대. {사모관대.}

10207 # 사:모관대라 그래요. {사모관대라 그래요.}

10207 @ 시, 바래 신능 거뚜 다르자나요? {신, 발에 신는 것도 다르잖아요?}

10207 # 바래 신능 거뚜 다르지. {발에 신는 것도 다르지.}

10207 @ 그건 머라 그래요? {그건 뭐라 그래요?}

10207 # 그건 아이고:!. {그건 아이고.}

10207 @ 좀 장화가치 생겨뜬대. {좀 장화같이 생겼던데.}

10207 # 예, 장화가치 생 생겨썩요. {예, 장화같이 생 생겼어요.}

10207 # 그 향교에서 배완는대도 또 이저버려따고. {그 향교에서 배웠는데도 또 잊어버렸다고.}

10207 # 이저버려썩. {잊어버렸어.}

10207 # 장화거치 생기썩 그기? {장화같이 생겼지 그게?}

10207 @ 예: 저는 이 이르문 함 번두 모: 드러바썩요 아직까지. {예, 저는 이 이름은 한 번도 못 들어 봤어요 아직까지.}

10207 # 거 모과라구 아나나? {거 목화라고 안 하나?}

10207 @ 목과? {목화?}

10207 @ 그러구 또 실:두 가따 노차나요? {그리고 또 실도 갖다 놓잖아요?}

10207 @ 거기 실? {거기 실?}

10207 # 시른 청홍실. {실은 청홍실.}

10207 # 청홍시른 가따 나. {청홍실은 갖다 봐.}

10207 # 청홍시른 그 따라 땡기녕 거녕께 머. {청홍실은 그 따라 다니는 거니까 뭐.}

10207 # 그거 몽능 거뚜 청홍실로 무끄던. {그거 묶는 것도 청홍실로 묶거든.}

10207 @ 뭇? {뭇?}

10207 # 저:기 저 사:주 쓸 때. {사주 쓸 때.}

10207 @ 예:. {예:}.

10207 # 그래 청홍시를 따라 땡기여 아주 그진. {그래 청홍실은 다라다니는 거야 아주 그진.}

10207 # 옴:나래도. {옛날에도.}

10207 @ 이유가 인나:, 인나요? {이유가 있나:, 있나요?}

10207 # 그링개 예 청홍. {그러니까 예 청홍.}

10207 # 그래 인재 예 남녀:털 구분하능 거. {그래 이제 남녀:를 구분하는 거.}

10207 @ 네:. {네:}

10207 # 노꼬니지요, 그기. {노끈이지요, 그계.}

10207 @ 그리고 나서 인재 그거 끝나면:.. {그리고나서 이제 그거 끝나면.}

10207 @ 시댁 어른드란테 또 인사하고 저라고 이르지요? {시댁 어른들한테 또 인사하고  
질하고 이르지요?}

10207 # 아, 인재 그기 당이른 아나지. {아, 이제 그거 당일은 안 하지.}

10207 @ 아, 당일라는 아내요? {아, 당일날은 안 해요?}

10207 # 인재 성:구리라고 바드면 하:. {이제 선구레라고 받으면 해.}

10207 @ 예? {예?}

10207 # 성:구리라고 그라지. {선구레라고 그러지.}

10207 # 승:수리. {선구레.}

10207 # 선:구리. {선구레.}

10207 @ 성:? {선?} 10207 # 선:구래. {선구레.}

10207 # 선:구래라구 해서. {선구레라고 해서.}

10207 # 그걸 바드면 어 부모드란테 하능 기여, 인재. {그걸 받으면 예 부모들한테 하는  
거야, 이제.}

10207 # 왜 그리냐하며 새:다기 이 실랑한테 와쓸 때. {왜 그리냐하면 새댁이 이 신랑한테  
왔을 때.}

10207 @ 예. {예.}

10207 # 어 실랑이 잔치할 때. {어 신랑이 잔치할 때.}

10207 # 그 인재 찐부가 하능 기여. {그 이제 신부가 하는 거야.}

10207 # 찐부가. {신부가.}

10207 # 성:구래넌 어머니 아부지한테 예 저럴 하넉 거. {선구레는 어머니 아버지한테 예  
절을 하는 거.}

10207 # 그기 인재 참 저 어: 겨론시개 인재 여자가 하는 행봉이요. {그게 이제 참 저 예  
결혼식에 이제 여자가 하는 행동이요.}

10207 # 처태. {첫째.}

10207 # 처째. {첫째.}

10207 # 그 성:구래라 구라지. {그 선구레라 그러지.}

10207 # 성구래. {선구레.}

10207 # 그 씨어머니 씨아부지한테 하넉 거여. {그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 하는 거야.}

10207 # 성구래. {선구레.}

10207 @ 그러면 이 이거는 여자가 예시기 끝난 다텔매 그지요? {그러면 이거는 여자가 예  
식이 끝난 다음에 그지요?}

10207 # 인재 이걸 성구래넌 어: 그째 여자가 여자가 인재 이 씨지벌 와쓸 때 하능 거시  
여. {이제 이걸 선구레는 예 글째 여자가 여자가 시집을 왔을 때 하는 거야.}

10207 # 시지벌 와썬 때 거 선:구래. {시집을 왔을 때 거 선구래.}

10207 # 잔친날. {잔칫날.}

10207 @ 아 잔친날. {아, 잔칫날.} 10207 # 천 진사여. {첫 인사여.}

10207 # 그기 처 진사. {그게 첫 인사.}

10207 @ 예:. {예:.}

10207 # 엔나랜 그기 처 진사여. {옛날엔 그게 첫 인사야.}

10207 # 씨어머이 씨아부지한테는.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는.}

10207 @ 폐:배카고는 어트개 달라요? {폐:백하고는 어떻게 달라요?}

10207 # 폐배건 어 그기 인재 폐배건 행네지낼 때 하능 기지. {폐백은 어 그게 이제 폐백은 행레지낼 때 하는 거지.}

10207 # 행래지낼 때. {행레지낼 때.}

10207 # 그래 인재 다: 끈난 다:매 예 예이가 다: 끈, 예시기 다 끈난 답애. {그래 다 끝난 다음에 예의가 다 끝나, 예식이 다 끝난 다음에.}

10207 # 예 폐배걸 어: 그 머 어 밤:하고 머 대:추하고 이렇 걸 던진다고 그라고 머. {폐백을 예 그 뭐 밤하고 대추하고 이런 걸 던진다고 그러고 뭐.}

10207 # 그걸 인재 예:: 새다기 바다 가주 가등가. {그걸 이제 예 새택이 받아 가지고 가 던가.}

10207 # 그르캐 하고 그라고 또 인재 오:리털 전다털 하고. {그렇게 하고 그리고 또 이제 오리를 전달을 하고.}

10207 # 오:리넌 어:: 장:모한테 전다털 하등가 이라지 아매. {오리는 예 장모한테 전달을 하던가 이러지 아매.}

10207 # 그라도록 대 이따고. {그러도록 돼 있다고.}

10207 @ 음: 오리요? {음 오리요?}

10207 # 오:리. {오리.}

10207 # 오:릴 싸 가주 가개 대고 오:리. {오리를 싸 가지고 가게 되고 오리.}

10207 @ 그, 그럼 어떤 오리예요? {그 그럼 어떤 오리예요?}

10207 @ 저 사라인은 그 산 오리예요? {저 살아있는 그 산 오리예요?} 10207 # 아니요, 나무로 맹궁 거. {아니예요, 나무로 만든 거.}

10207 # 나무로 맹궁 거. {나무로 만든 거.}

10207 @ 나무로 땃등거? {나무로 만든 거?}

10207 # 어. {예.}

10207 # 호호. {호호.}

10207 @ 그거 월래 저기 저 저 예:시칼 때두 그 상위에두 그거 올려노치 안나요? {그거 원래 저기 저 저 예식할 때도 그 상위에두 그거 올려 놓지 않나요?}

10207 # 아, 올려 놔따가 글썸 올려 놔따가 예식 다: 끈난 다매. {아, 올려 놔다가 글썸 올려놔다가 예식 다 끝난 다음에.}

10207 # 그 저 장:모가 바다 가주가지 아매 그건. {그 저 장모가 받아 가지고 가지 아매, 그건.}

10207 # 호호. {호호.}

10207 @ 예:. {예:.}

10207 @ 그거뚜? {그것도?}

10207 # 폐 폐배건 어: 인재 각 각까지 과:일 이렇 거하고 각까지 마신능 걸 고기다 다마  
다카고 이렇 걸 다마 가주구. {폐 폐백은 예 이제 갖가지 과일 이런 거하고 갖가  
지 맛있는 걸 거기에 담아서 닭하고 이런 걸 담아 가지고.}

10207 # 어: 인재 폐:배건 하먼. {예 이제 폐백은 하먼.}

10207 # 고 그기 인재 증 마라자먼 어. {그 그게 이제 즉 말하자면 예.}

10207 # 아: 폐:백뚜 여자가 해 가주 오네. {아 폐백도 여자가 해 가지고 오네.}

10207 # 여작뚜, 여자가 해 가주 와 가주구. {여자도 여자가 해 가지고 와 가지고.}

10207 # 시 이 시지불 오 와서. {시 이 시집을 오 와서.}

10207 # 그걸 폐:배걸 가주구 그: 대저벌 하능 기여. {그걸 폐백을 가지고 그 대접을 하는  
거야.}

10207 # 술하고 가주 와 가가주. {술하고 가지고 와 가지고.}

10207 # 고건 폐배카고 그기 폐배기 안주태기여. {그건 폐백하고 그게 폐백이 안주 턱이야.}

10207 # 안주. {안주.}

10207 # 응? {응?}

10207 # 어 시지븐 씨아부지 씨어무이 이 술 대저파고. {예 시집은 시아버지 시어머니 이  
술대접하고.}

10207 # 안주::가 폐배기여. {안주가 폐백이야.}

10207 @ 예::. {예.}

10207 # 으 그라고 인재 근 머: 간따니 머꼬서 다른 사라미 다: 노나 먹찌. {으 그리고 이  
제 그건 뭐 간단히 먹고서 다른 사람이 다 나누어 먹지.}

10207 @ 그때. {그때.}

10207 # 그 고들창 고로케 대 인능 거지. {그 원래부터 그렇게 돼 있는 거지.}

10207 @ 그때 절 하자나요? {그때 절하잖아요?}

10207 # 아, 절하지 인재. {아, 절하지 이제.}

10207 # 예 절하고. {예 절하고.}

10207 @ 그러구 시아버지 시어머니만 한테 하능 개 아니고. {그리고 시아버지 시어머니만  
한테 하는 게 아니고.}

10207 # 인재 가족 가족덜 안치 노코. {이제 가족들을 앉혀 놓고.}

10207 # 순서대로 인재 켈::먼저 성구리는 저른 그래 바꼬. {순서대로 이제 제일 먼저 선  
구레는 절른 그렇게 받고.}

10207 # 나머지는 인재 할 싸람만 메싸람 어: 정애 가주 하고. {나머지는 할 사람만 몇 사  
람 에 정해 가지고 하고.}

10207 # 그저넌 예: 씨어머이 씨아부지만 한테만 하능 거라능 기여 저 이 사실런. {그전에  
는 예 시어머니 시아버지만 한테만 하는 거라는 거야 이 저 사실은.}

10207 @ 예:. {예.}

10207 # 씨어머이 씨아부지한테만. {시어머니 시아버지한테만.}

10207 # 예 지끄먼 고만 인사하기 겨매가주 겨론시글 해도 그거 하민서 대꾸 인사랄 다  
시켜 빠리지. {예 지금은 그만 인사하기 겜 해가지고 결혼식을 해도 그거 하면서  
대꾸 인사랄 다 시켜 버리지.}

10207 # 지그먼. {지금은.}

10207 @ 음. {음.}



10207 # 찐시기요 근. {신식이요 그건.}

10207 # 옛날엔 딱 씨어머니 씨아버지만 한테만 하도록 대 이따, 대 인능 기라능 기요.  
 {옛날엔 딱 씨어머니 씨아버지만 한테만 하도록 돼 있다, 돼 있는 거라는 거요.}

10207 @ 아: 그래요? {아 그래요?}

10207 @ 그개 선:구래::라능 거예요? {그개 선구레라는 거예요?}

10207 # 어, 성구리. {예, 선구레.}

10207 @ 예:. {예:.}

10207 @ 아 저는 또 그거 참: 드러썩요. {저는 또 그거 처음 들었어요.}

10207 @ 그 말도. {그 말도.}

10207 # 아 옛날엔 꼭 그걸 하능 기요. {아 옛날엔 꼭 그럴 하는 거요.}

10207 @ 예, 근대 폐:배글 하면:. {예, 그런데 폐백을 하면.}

10207 @ 시 시댁 씨구드란대 다: 이르케 하는줄 아라꺼등뇨. {시 시댁식구들한테 다 이렇  
 게 하는 줄 알았거든요.}

10207 # 아: 아녀. {아: 아니야.}

10207 @ 그개 아니예요? {그개 아니예요?}

10207 # 옛:나랜 꼭 씨아무이 씨아버지만 한테 하만 하도록 대 인능 건대. {옛날엔 꼭 시  
 어머니 씨아버지만 한테만 하도록 돼 있는 건대.}

10207 # 지그먼 인재 현:대 시그로 해 가주. {지금은 현대식으로 해 가지고.}

10207 # 다: 그만 항 꺼 한 자리에서 그냥 인사차 그래. {다 그만 한 꺼(번에) 한 자리에  
 서 그냥 인사차 그래.}

10207 # 이 사라만태도 하고 저 사라만태도 하 기냥 저럴 한다능 기여. {이 사람한테도 하  
 고 저 사람한테도 그냥 절을 한다는 거야.}

10207 @ 네:. {네:.}

10207 # 어 술 한 잔씩 가치 노나 머꼬 이런 시기지. {예 술 한 잔씩 같이 나누어 먹고 이  
 런 식이지.}

10207 # 옛:나랜 그르키 아나능 기여. {옛날엔 그렇게 안 하는 거야.}

10208 @ 그리고 나면 인재 그: 예식쁘러 온 사라들란대 음식두 대저파고 머. {그리고 나  
 면 이제 그 예식 보러 온 사람들에 음식도 대접하고 뭐.}

10208 @ 또 술두 대저파고 이래자나요? {또 술도 대접하고 이러잖아요?}

10208 # 그르치요. {그렇지요.}

10208 @ 그건 머. {그건 뭐.}

10208 @ 그렇 건 멀: 대저패요? {그런 건 뭘 대접해요?}

10208 @ 어땡 거뜔? {어떤 것들?}

10208 # 손니모문? {손님 오면?}

10208 # 소:니만태넌? {손님한테는?}

10208 @ 예. {예.}

10208 # 소니만태넌 그새 인재 내가 성이겄 손니멀 대저파고 수꾸만 머. {손님한테는 글썽  
 이제 내가 성의겄 손님을 대접하고 싶으면 뭐.}

10208 # 그기 상가니 움녕 거여. {그게 상관이 없는 거야.}

10208 # 대:지. {돼:지.}

10208 # 옛:나랜 돼:지럴 대:지 주로 자꼬. {옛날엔 돼지를 돼지 주로 잡고.}

10208 # 아주 어: 돈 마는 사라먼 소도 자바 가주 하녕 거여. {아주 에 돈 많은 사람은 소도 잡아 가지고 하는 거야.}

10208 # 소도 자바 가주 하구 머. {소도 잡아 가지고 하고 뭐.}

10208 # 성세대로 하능기요 그건. {형세대로 하는 거요 그건.}

10208 # 머 웬마난 사라먼 그냥 쪼마난 대:지 자바 가주. {뭐 웬만한 사람은 조그마한 돼지 잡아 가지고.}

10208 # 손니멀 쪼만치 청하면 그래 간따나기도 하고. {손님을 조금만 청하면 그렇게 간단 하기도 하고.}

10208 # 그러닝개 머 적또 꾸코. {그러니까 뭐 적도 굶고.}

10208 # 떡뚜 하고. {떡도 하고.}

10208 # 이래 가주 골고루 지금 저 이 현대 예식장에서 하능 거나 비스타게 그래 하는데. {이렇게 해 가지고 골고루 지금 저 현대 예식장에서 하는 거와 비슷하게 그렇게 하는데.}

10208 # 지그먼 과:일류가, 엔:나랜 읍쓰니까. {지금은 과일류가, 옛날엔 없으니까.}

10208 # 아: 머 간따난 과:일아니요? {아 뭐 간단한 과일 아니예요?}

10208 # 엔나랜 감: 대:추 머 어: 밤:. {옛날에는 감, 대추, 뭐 에 밤.}

10208 # 그라고 인저 배:거통 건 이꼬 사과년 엔나랜 사과두 읍써따구요. {그리고 이제 배: 같은 건 있고 사과는 옛날엔 사과도 없었다고요.}

10208 # 우리나라. {우리나라는.}

10208 # 사과거통 건 엔나래 썬지요. {사과 같은 건 옛날에 썬지요.}

10208 # 아주 예나랜 쓰두 아나드라고. {아주 옛날에는 쓰지도 안하더라고.}

10208 @ 그럼 인재 손니무루 인재 잔치찌배 와서. {그럼 손님으로 잔치집에 와서.}

10208 @ 잔치 보러 와따가 가는 분한테는 머 밥-이라도 항 끼 식싸대저파고. {잔치 보러 왔다가 가는 분한테는 뭐 밥 이라도 한 끼 식사대접하고. } 10208 # 밥 바배. {밥 밥에.}

10208 # 바:비 아니고 국씨지. {밥이 아니고 국수지.}

10208 # 국씨. {국수.}

10208 # 술 주밍성 그거 주밍성 인재 예: 국씨 항 그럭 주고. {술 주면서 그거 주면서 이제 예 국수 한 그릇 주고.}

10208 # 국씨 항 그러기 인재 그기 전:심 대저파능 기고. {국수 한 그릇이 이제 그게 점심 대접하는 거고.}

10208 # 그라문 인재 수털 자:꾸 더 머그라칼라먼. {그러면 이제 술을 자꾸 더 먹으라고 하려면.}

10208 # 어디 그늘 라무나 어디저 어: 지배 인재 이 저 엔:나랜 사랑이라 구라지. {어디 그늘 나무나 어디 저 에 집에 이 옛날엔 사랑이고 그러지.}

10208 # 사랑. {사랑.}

10208 # 사랑방 거튼대다 이래 더 놀다 가라카고 모아 노코. {사랑방 같은 데다 이렇게 더 놀다 가라고 하고 모아 놓고.}

10208 # 자꾸 가따 주지. {자꾸 갖다 주지.}

10208 # 술 머그라고 가따 주고 다. {술 먹으라고 갖다 주고 다.}

10208 # 그래 대저벌 항 거지요. {그렇게 대접을 한 거지요.}

10208 @ 저 국씨 먹꼬. {저 국수 먹고.}

10208 @ 그 다매 그러먼 다룽 거 인재 머? {그 다음에 그러먼 다른 거 이제 뭐?}

10208 # 그렇게 인재 타. {그러니까 이제 타래반.} 10208 @ 고기나? {고기나?}

10208 # 타:래바니라구 땡그라 가주. {타래반이라고 만들어 가지고.}

10208 # 그 인재 채미 찢씨라고 놔 가주고. {그 이제 채미 접시라고 놓아 가지고.}

10208 # 아주 국씨 머글 때 아주 모가치루 딱 한 사람 한 사람씩 해서 주지. {아주 국수 먹을 때 아주 몯으로 딱 한 사람, 한 사람씩 해서 주지.}

10208 # 그 다매 인재 더 놀:다 갈:: 싸라면 그런데다 모이 노코. {그 다음에 이제 더 놀다가 갈 사람은 그런 데다 모아 놓고.}

10208 # 타래바니라구 땡그라 가주. {타래반이라고 만들어 가지고.}

10208 # 안주. {안주.}

10208 # 인재 예: 안주럴 인재 타래바니라고 이래 줌 여러시 먹뚜룩 땡그라 가주. {이제 안주를 타래반이라고 이렇게 줌 여럿이 먹도록 만들어 가지고.}

10208 # 술하고 자꾸 가따 주지. {술하고 자꾸 갖다 주지.}

10208 # 술하고. {술하고.}

10208 @ 타래반? {타래반?}

10208 @ 타래바니 머예요? {타래반이 뭐예요?}

10208 @ 상이에요? {상이에요?}

10208 # 으, 상이지. {으, 상이지.}

10208 # 상은 인재. {상 이제.} 10208 @ 똥그랑 거? {똥그란 거?} 10208 # 예: 안주럴 이제 끌고루 해서. {예 안주를 이제 끌고루 해서.}

10208 # 술 안주 대개 해서 여러시 머그라고 가따 주능 걸 타래바니라고 하고. {술 안주 되게 해서 여럿이 먹으라고 갖다 주는 걸 타래반이라고 하고.}

10208 # 타래반. {타래반.}

10208 @ 타래바니라구 하능 개 상만 얘기하능 개 아니라. {타래반이라고 하는 게 상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10208 @ 상 위에 음식-글 언즌 걸 얘기하능 정가요? {상 위에 음식을 얹은 걸 얘기하는 건가요?}

10208 @ 음식카구 상하구 다: 얘기하능 거요? {음식하고 상하고 다 얘기하는 거예요?}

10208 # 고 타래바넌 수:란주꺼리만 해:서 내보내능 거인대. {그 타래반은 술 안주거리만 해서 내보내는 것인데.}

10208 @ 예. {예.} 10208 # 으? {응?}

10208 # 인재 바파고 이렇 건 다 미리 다 함 분 대저벌 하고. {이제 밥하고 이런 건 다 미리 다 한 분 대접을 하고.}

10208 # 일판 땡궁 거 이렇 거 일쩔. {일단 만든 거 이런 거 일체.}

10208 # 근 채미. {그 채미.}

10208 # 채미릴 나 가주고 어 전시마고 가치 대저벌 하고. {채미를 놓아 가지고 점심하고 같이 대접을 하고.}

10208 # 냥:중애 수릴 더 머글 때넌 타래바늘 땡그라 가주. {나중에 술을 더 먹을 때는 타래반을 만들어 가지고.}

10208 # 쭈 쭈란주로 내보낸다 이거여. {술 술안주로 내보낸다 이거야.}

10208 @ 채미? {채미?}

10208 # 으? {응?}

10208 @ 채미? {채미?}

10208 # 채미라 고라지:. {채미라고 그러지:}.

10208 # 여기선 채미라 고란다고. {여기서는 채미라 그런다고.}

10208 # 채미. {채미.}

10208 @ 그럼 채미가? {그럼 채미가?}

10208 # 밥. {밥.}

10208 # 밥 인재 점:심 머글 때 따라 내보내능 기여. {밥 이제 점심 먹을 때 따라 내보내는 거야.}

10208 # 하나패 하나씩. {한 앞에 하나씩.}

10208 # 그건. {그건.}

10208 @ 그거 그거는 채미라고 하는데 머 고기도 이꾸. {그거는 채미라고 하는데 뭐 고기도 있고.}

10208 # 그르치, 떡또 노코. {그렇지, 떡도 넣고.}

10208 @ 떡뚜 이코 부침개두 이개 일따는. {떡도 있고 부침개도 있고 이게 일단은.} 10208 # 어: 다:: 골고루 해서 채미릴 놔:서. {어 다 골고루 해서 채미를 놓아서.}

10208 # 어 전심 식사할 때 예: 개이나패 하나씩 주고. {어 점심 식사할 때 예 개인 앞에 하나씩 주고.}

10208 @ 예. {예.}

10208 # 그라고 인재 그걸 다: 끈난 다맨 더: 놀:다 갈 때 인재. {그리고 이제 그거 다 끝난 다음에 더 놀다 갈 때 이제.}

10208 # 예 별도로 채, 참 타래바닐 봐 가주고. {별도로 채, 참 타래반을 놓아 가지고.}

10208 # 어 안주. {어 안주.}

10208 # 안주 타래바닐 봐 가주 여러 사라미 가치 먹뚜룩 내보낸다 이거지. {안주 타래반을 놓아 가지고 여러 사람이 먹도록 내보낸다 이거지.}

10208 @ 아:. {아.}

10208 # 잔치릴 그르캐 치르능 거지. {잔치를 그렇게 치르는 거지.}

10208 # 옴:나랜. {옛날에.}

10208 @ 그르니까 채미라고 하능 개 인재 음식기라, 음식기라는 뜨시내요? {그러니까 채미라고 하는 게 이제 음식이라 음식이라는 뜻이네요?}

10208 # 그르치요, 으으음:시기라는 뜨시아. {그렇지요, 음식이라는 뜻이야.}

10208 @ 한 사람이 저 사람한테 주는 음식. {한 사람이 저 사람한테 주는 음식.}

10208 # 으, 아주 별도로 인재 한 사람 항 사라마패 인재 그걸. {으, 아주 별도로 이제 한 사람 한 사람 앞에 그걸.}

10208 @ 요기 인재 접씨 하나애다가 그 사람 머글 망큼 주능 거. {여기 이제 접시 하나에다가 그 사람 먹을 만큼 주는 거.}

10208 # 어, 머글 망큼. {머, 먹을 만큼.}

10208 @ 고걸 채:미라고, 거기 인재 머. {그걸 채미라고, 거기 이제 뭐.}

10208 # 어, 채미라. {어, 채미라.}

10208 @ 돼지고기두 이꼬: 떡뚜 이꾸:. {돼지고기도 있고, 떡도 있고.}

10208 # 그르치. {그렇지.}

10208 @ 부칭거뚜 이꾸 머 이르게 골고로. {부친 것도 있고 뭐 이렇게 골고루.}

10208 # 허허 골고로 땡궁 걸 골고로 해서. {허허 골고루 만든 걸 골고루 해서.}

10208 # 어, 개별째그로 하나씩 주고. {어, 개별적으로 하나씩 주고.}

10208 @ 예. {예.}

10208 @ 그리고 인재 그 더 마니: 이르게 상애다가 이견짜건 언저서 가따 주능 거는 그건 타래바니라구 하구. {그리고 이제 더 많이 이렇게 상애다가 이것저것 없어서 갖다 주는 거는 그건 타래반이라고 하고.}

10208 # 타래반. {타래반.}

10208 @ 예. {예.}

10208 # 그 인재 떠 꺼텅 건 아나지 인재. {그 이제 딱 같은 건 안 하지.}

10208 # 일절. {일절.}

10208 # 과:이리나 별또로 고래 담녕 거 우애. {과일이나 별도로 그렇게 담는 거 외에.}

10208 # 여, 기냥 안:주 땡꺼 이렇 걸로. {여기 그냥 안주 될 거 이런 걸로.}

10208 @ 떠근 안 느코? {떡은 안 넣고?}

10208 # 어. {어.}

10208 @ 과이른 노코. {과일은 넣고.}

10208 # 음. {음.}

10208 @ 아, 이런 마를 저 침 드리마요. {아, 이런 말은 저 처음 들어봐요.}

10208 # 호호. {호호.}

10208 @ 그래니까 이 이렇 거 저, 저가 이거 맨:날 이르게. {그러니까 이런 거 저 제가 이 거 매일 이렇게.}

10208 # 허허허. {허허허.}

10208 @ 아무리 차자 다니면서 무리바도. {아무리 찾아 다니면서 물어봐도.} 10208 # 아니, 근대 예. {아니, 근대 예.}

10208 # 진짜 저 시고래 게::소캐서 안니꼬. {진짜 저 시골에 계속해서 안 있고.}

10208 # 도시에서 살문 그렇 기 읍써저쓰니까. {도시에서 살면 그런 게 없어졌으니까.}

10208 @ 예:. {예:}.

10208 # 아: 모들 수도 이따고, 건. {아: 모들 수도 있다고, 그건.}

10208 # 우린 인재 그걸 해 본 사라미고. {우린 이제 그걸 해 본 사람이고.}

10208 # 또 나거턴 사라먼 이런 사라미라고. {또 나 같은 사람은 이런 사람이라고.}

10208 # 여기 살민성. {여기 살면서.}

10208 # 그저내 인재 그런대 가면 이 저령 검 저령 거 담:꼬 노나 주 능걸 나한테 채기물 매끼요. {그전에 이제 그런 데 가면 이 저런 것 저런 것 담고 나누어 주는 걸 나한테 책임을 맡겨요.}

10208 @ 방애다 따로해나찌요? {방애다 따로 해냈지요?}

10208 @ 여기 광:이나. {여기 광이나.} 10208 # 그르치, 인재. {그렇지, 이제.}

10208 # 예: 아주 저 채밀쩍씨라 논는대라고:. {예 아주 저 채미쩍시라고 놓는 데라고.}

10208 # 어 아주 저 가:방. {아주 저 과방.}

10208 # 가:방이라 카능 겨. {과방이라 하는 거야.}

10208 # 과방. {과방.}

10208 # 과방. {과방.}

10208 # 과방이라고 별또로 아주 이래 방알 하나 채비하든지 채비해서 거기서 자::꾸 놔:서. {과방이라고 별도로 아주 이렇게 방을 하나 채비하든지 채비해서 거기서 자꾸 놓아서.}

10208 # 어 인재 심:부름꾼더리 인재 와서 날라 가지. {어 이제 심부름꾼들이 와서 날라 가지.}

10208 # 그러면 인재 자꾸 인재 에 손님덜 대저과는대 가따 상애다 가따 놔 가주 가따 주고 이라능 거지. {그러면 이제 자꾸 이제 에 손님들 대접하는데 갖다 상애다 갖다 놔 가지고 갖다 주고 이러는 거지.}

10208 @ 네. {네.}

10208 # 그 채김을 내가 엄청 마타 가주 해 본 사라미요. {그 책임을 내가 엄청 맡아 가지고 해 본 사람이요.}

10208 # 아주. {아주.}

10208 @ 그거 하는 사라를 머라구 해요? {그거 하는 사람을 뭐라고 해요?}

10208 # 그 과방쟁이라 그러지 머. {그 과방쟁이라 그러지 뭐.}

10208 # 과방쟁이. {과방쟁이.}

10208 # 으흐. {으흐.}

10208 # 과방쟁이러: 이러덜 하능 기지 머. {과장쟁이라고 이름을 하는 거지 뭐.}

10208 # 과방. {과방.}

10208 # 과방 보넌 아주 쟁이유. {과방 보는 아주 쟁이요.}

10208 # 과방 보는 쟁이. {과방 보는 쟁이.}

10208 # 과방쟁이라 그란다고 그걸. {과방 쟁이라고 그란다고 그걸.}

10208 @ 그거 잘 해야지 대능 거 가뜨라구요. {그거 잘 해야지 되는 것 같더라고요.}

10208 @ 그개. {그개.}

10208 @ 또:까치 해야지. {똑같이 해야지.}

10208 # 그기 으 음식걸 푸근푸근 망 노나 주면. {그게 음식을 푸근푸근 막 나누어 주면.}

10208 # 모:지래고 암 모지래능 건 그사람드란테 고 고고 보넌 사라만테 달려 가주 이뺨 마리어. {모자라고 안 모자라는 건 그 사람들한테 그거 그거 보는 사람한테 달려 가지고 있단 말이야.}

10208 @ 예예. {예예.}

10208 # 그래서 우리그튼 사라면 이런데 우리 일가더리나 이 또 머탄 사람드런 다 이거 어티개 해쓰면 조으까? {그래서 우리 같은 사람은 이런 데 우리 일가들이나 이 또 뭇한 사람들은 다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10208 # 상이럴 해: 보지 나한테. {상의를 해 보지 나한테.}

10208 # 그러면 손님 얼마 초청해썬니까? {그러면 손님 얼마 초청했습니까?}

10208 # 그걸 먼저 무러바야 디야. {그걸 먼저 물어봐야 돼.}

10208 # 그러면 인재 손니미 얼마다 이라면. {그러면 이제 손님이 얼마다 이라면.}

10208 # 그때 인재 생각때로 대:질 메 끈 짜리 자부면. {그때 이제 생각대로 돼지를 몇 근 짜리를 잡으면.}

10208 # 기냥 노나 머꺼썬니다. {그냥 나누어 먹겠습니다.}

10208 # 이래 가주 대:질 인재 잠능 결루 하고. {이렇게 가지고 돼지를 이제 잡는 결로 하고.}

10208 # 대:지도 큰: 놈 이꾸 자근 놈 이쓰니까. {돼지도 큰 놈이 있고 작은 놈이 있으니까.}

10208 # 이 그런 시그로 해서 조정열 마차 주지. {이 그런 식으로 해서 조정을 맞춰 주지.}

10208 # 그러면 인재 고걸로 가주 마차선 메기야 인재 정화카개 끈나녕 거지. {그러면 이제 그걸로 가지고 맞춰서 먹여야 이제 정확하게 끝나는 거지.}

10208 @ 네:. {네:}.

10208 # 쪼끔 나물 쭈도 이꼬 쪼끔 모지렐 쏜 인녕 거지. {조금 남을 수도 있고 조금 모자랄 수는 있는 거지.}

10208 @ 예:. {예:}.

10208 # 그래두 이런덴 그래두 장터니까. {그래도 이런 덴 그래도 장터니까.}

10208 # 오히려 머 줌 사 나를 건 사 날라도 대지만. {오히려 뭐 줌 사 나를 건 사 날라도 되지만.}

10208 # 초:내는 그거뚜 심든다구요 엔나랜. {촌에는 그것도 힘든다고요 옛날에는.}

10208 @ 그거 어렵쪼. {그거 어렵쪼.}

10208 # 그거뚜 힘드러. {그것도 힘들어.}

10208 @ 엔나래는 머 여름처래는 더워 가주 보관두 어려워짜나요? {옛날에는 뭐 여름철에는 더워 가지고 보관도 어려웠잖아요?}

10208 # 그릉개 여르매 자라나지. {그러니까 여름에는 잘 안 하지.}

10208 # 여르맨 항:갑잔치도 자라나고. {여름엔 환갑잔치도 잘 안 하고.}

10208 # 어? {어?}

10208 # 어: 이 호닌 대:사를 여르매 안치르지요. {에 이 혼인 대사를 여름에 안 치르지요.}

10208 # 무조건 안치르요. {무조건 안 치러요.}

10208 @ 아, 그래서 봄 가을로 주로. {아, 그래서 봄가을로 주로.}

10208 # 아주 \*\*\*. {아주 \*\*\*.}

10208 # 음식 간수하기가 나쁘니까 안하녕 거요. {음식 간수하기가 나쁘니까 안 하는 거요.}

10208 # 그래서 가을, 겨울, 보매 하능겁니다. {그래서 가을, 겨울, 봄에 하는 겁니다.}

10208 # 그래서 그르캐 하능 거지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거지요.}

10208 # 난 그르캐 알구 이써. {난 그렇게 알고 있어.}

10208 @ 네:. {네.}

10208 @ 예저내 저이 그 할머니 보니까 여르매 머 요새까치 냉장고가 이써요 머가 이써요? {예전에 저희 할머니 보니까 여름에 뭐 요새같이 뭐 냉장고가 이써요 뭐가 있어요?}

10208 @ 아무 거또 업쓰니까. {아무것도 없으니까.}

10208 # 아::무 거뚜. {아무 것도.}

10208 # 그르닝개 글썸 여르매 하면 써거서 그 머. {그러니까 글썸 여름에 하면 찍어서 그 뭐.}

10208 # 아무 거뚜 몬 머글 파니면 그거 안 대닝개 여르매 아나능 거지요. {아무 것도 못 먹을 판이면 그거 안 되니까 여름에 안 하는 거지요.}

10208 @ 떡따가 밥 까통 거뚜 나무면 그거뚜 쉬:자나요? {그러니까 떡다가 밥 같은 것도 남으면 그것도 쉬잖아요?}

10208 # 그:럼뉴::. {그럼요.}

10208 @ 그리니까 그거 아까우니까. {그러니까 그거 아까우니까.}

10208 @ 그 저기 그르새:: 다 저기 싸릿가지나 머 이렇 걸루 하자너요? {그 저기 그릇에 다 저기 싸릿가지나 뭐 이런 걸로 하잖아요?} 10208 # 어어:. {어.}

10208 @ 저기 저 아까 버드나무나 이렇 거. {저기 저 아까 버드나무나 이런 거.}

10208 # 응. {응.}

10208 @ 고고 해 가주고 끄느루 무껴서 새매다가 요리::캐 너:따가 그르캐두 먹때요? {그 거 해 가지고 끈으로 묶어서 샘에다가 요렇게 넣었다가 그렇게도 먹데요?}

10208 # 어 그리여. {응 그래.}

10208 # 근대 엔:날 엔:나랜 그 인재 술 거통 거 이통 거 간수할라면 새아미다 당구녕 거 여. {그런데 옛날 옛날에는 그 이제 술 같은 거 이렇게 간수하려면 샘에다 담그는 거야.}

10208 # 그저 새:매두 이름 맘대로 다:이써 {그저 샘에도 이름이 맘대로 다 있어?}

10208 # 그러구 맘머 여러시 대중이 명는덴 그르치도 모타고. {그리고 여러시 대중이 먹는 덴 그룽지도 못하고.}

10208 # 내 지배 인년 시앙이면 그 가능한대. {내 집에 있는 샘:이면 가능한대.}

10208 # 그거뚜 힘드능 거람 마리여. {그것도 힘든 거란 말이야.}

10208 # 엔나랜. {옛날에.}

10208 @ 그럼 아까 인재 국씨: 먹짜너요? {그러면 아까 이제 국수 먹잖아요?}

10208 @ 국씨애두 머 위애다가 올려 노쿠 줌. {국수에도 뭐 위에다 올려 놓고 줌.}

10208 # 깨미라카지. {고명이라 하지.}

10208 # 응 꺾미. {그 고명.}

10208 # 끼미. {고명.}

10208 # 으호. {으호.}

10208 # 그럼 인재 예: 잘:하닌 사라면 소고길 사서 소고기 끼밀 한다든지. {그럼 이제 예 잘하는 사람은 소고길 사서 소고기 꺾미를 한다든지.}

10208 # 대:지고기 꺾미한다든지 머. {돼지고기 고명한다든지 뭐.}

10208 # 쪼끔씩 이래. {조금씩 이래.}

10208 # 그라곤 다 게:라널 쌀머 가주 인재. {그리고 다 계란을 삶아 가지고 이제.}

10208 # 예: 참 저 꺾:가주구. {예: 참 저 구워 가지고.}

10208 # 꺾:가주 잘개 쓰:러 가주. {구워 가지고 잘게 썰어 가지고.}

10208 # 썰:꼬추하고 고추는 썰:꼬추루 맹그라 가주. {실고추하고 고추는 실고추로 만들어 가지고.}

10208 @ 예. {예.}

10208 # 가:늘기 쓰:러 가주. {가늘게 썰어 가지고.}

10208 # 고골 올리 노코 이라지. {그걸 올려 놓고 이려지.}

10208 @ 예. {예.}

10208 @ 그, 그걸 꺾미라 그래요? {그걸 고명이라 그래요?}

10208 # 으, 꺾미라고 이랍디다. {으, 고명이라고 이랍디다.}



10208 @ 예. {예.}

10208 # 께미한다고. {고명한다고.}

10208 @ 이뿌, 잘: 그렇까 마뚜 나구: 보이기두 조캐 할려구 하능 건가요? {이뿌(게), 잘  
그러니까 맛도 나고 보기도 좋게 하려고 하는 건가요?}

10208 # 그르쵸. {그렇지요.}

10208 @ 음. {음.}

10208 # 보기 조캐 하기도 하고. {보기 좋게 하기도 하고.}

10208 @ 그 고명이래능 거뚜 이써요? {그 고명이라는 것도 있어요?}

10208 @ 고명? {고명?}

10208 # 고명? {고명?}

10208 @ 예. {예.}

10208 # 고명::언 무슨 마린지 잘 모르건는데. {고명은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는데.}

10208 @ 께미. {고명.}

10208 # 여기선. {여기선.}

10208 @ 고기루두 하구 머. {고기로도 하고 뭐.}

10208 # 아 글썸 고기로도 하능 기여. {아 글썸 고기로도 하는 거야.}

10208 @ 김? {김?}

10208 # 고기로도 하고 머. {고기로도 하고 뭐.} 10208 @ 짐:? {김?}

10208 # 김도 뿌시 노코. {김도 부셔 놓고.}

10208 @ 음. {음.}

10208 # 어:, 글썸 그기 계:란도. {에 글썸 그계 계:란도.}

10208 # 계:란도 이래 꼬 가주고 하능 겨. {계:란도 이렇게 구워 가지고 하는 거야.}

10208 # 꼬추. {고추.}

10208 # 꼬치도 빨강꼬치털 잘:: 쓰러 가주 이래 올리 노코 이라능 겨. {고추도 빨간 고추  
를 잘 썰어 가지고 이렇게 올려 놓고 이러는 거.}

10208 @ 예. {예.}

10208 # 국씨 우애는. {국수 위에는.}

10208 @ 예. {예.}

10208 @ 그::리고 밀까루루 부치능 거 이짜나요? {그::리고 밀가루로 부치는 것 있잖  
아요?}

10208 # 부치닝 거 이짜. {부치는 거 있지.}

10208 @ 예, 그거 밀까루두 하고. {예, 그거 밀가루도 하고.}

10208 @ 녹뚜루두 하고 머? {녹두로도 하고 뭐?}

10208 # 근대 저:니라 두라능 거닝께 머. {근데 전이라고 그러는 거니까 뭐.}

10208 # 녹뚜저니니 머. {녹두전이니 뭐.}

10208 # 청포저니니 머. {청포전이니 뭐.}

10208 # 그렇 건 저 이 그 곡씨 이름대루 따라서. {그런 건 저 이 그 그 곡식 이름대로 따  
라서.}

10208 # 전:. {전.}

10208 # 전:. {전.}

10208 # 전: 부치능 기라 구라지. {전 부치는 거라 그러지.}

10208 # 전:. {전.}

10208 @ 그거뚜 곡씨:개 따라서 쪼끔씩 차이가 이찌 안나요? {그것도 곡식에 따라서 조금  
씩 차이가 있지 않나요?}

10208 # 곡씨개 따라서 차이가 이깨쪼. {곡식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쪼.}

10208 # 건 다 인능 걸로 바야지. {그건 다 있는 걸로 봐야지.}

10208 @ 제일 마니 항개 멀로 해췌요? {제일 많이 한 게 뭘로 했어요?}

10208 # 제일 마이 하능 건 그 머 지금 이 채소::류로 마이 하능 건대. {제일 많이 하는  
건 그 뭐 지금 이 채소류로 많이 하는 건데.}

10208 # 그 머 고기로도 마이 하고 지그면. {그 뭐 고기로도 많이 하고 지금은.}

10208 # 지금 고기가 마느니까 머 여러 가지로 하능 거니까. {지금 고기가 많으니까 뭐 여  
러 가지로 하는 거니까.}

10208 @ 예. {예.}

10208 # 전 부치면 머 머 아::주 한 마:느닝개. {전 부치면 뭐 뭐 아주 많으니까.}

10208 # 주로 멀: 마이 하는지 잘 모르거췌. {주로 무엇을 많이 하는지 잘 모르겠어.}

10208 # 그래두 배추::나 이렇 기 재일 마늘 꺼여. {그래도 배추나 이런 게 제일 많을  
거야.}

10208 # 여기 인제 농사::주로 마이 하능 거. {여기 이제 농사 주로 많이 하는 거.}

10208 # 그렁 거 마이 하지. {그런 거 많이 하지.}

10208 # 절후에 절후에 따라 다르고. {절후에 절후에 따라 다르고.}

10208 # 호:박 이췌 땐 호박전 마이 꼬 머꼬 머. {호박 있을 땐 호박전 많이 구워 먹  
고 뭐.}

10208 # 그 인제 생산댄 시:기마덤 쪼끔씩 달르게 해먹췌. {그 이제 생산된 시기마다 조금  
씩 다르게 해 먹지.}

10208 # 전 부쳐 명능 기. {전 부쳐 먹는 게.}

10208 @ 예:. {예.}

10208 @ 밀가루로 하능 거췌? {밀가루로 하는 거췌?}

10209 # 으, 밀가루로 하능 기여. {으, 밀가루로 하는 거야.}

10209 # 그 전. {그 전.}

10209 @ 밀가루에다가 머: 저: 채, 채소류. {이 밀가루에다가 뭐 저 채소류.}

10209 # 이제 채소류: 거툇 거 머: 머:. {이제 채소류 같은 거 뭐 뭐.}

10209 # 골고로 골파 머 파: 머 여러::가지로 하능 거니까요. {골고루 골파 뭐 파 뭐 여러  
가지로 하는 거니까요.}

10209 # 그 머. {그 뭐.}

10209 # 무:적또 꺾 먹꼬 머:. {무적도 구워 먹고 뭐.}

10209 @ 예? {예?}

10209 # 여::러. {여러.}

10209 @ 머또 꺾 머거요? {무엇도 구워 먹어요?}

10209 # 아이, 무::정 머. {아이 무적 뭐.}

10209 # 골과정 머. {골과적 뭐.}

10209 # 두부적 머. {두부적 뭐.}

10209 # \*\*\* \* \*\*\*\*\*. {\*\*\* \* \*\*\*\*\*}

10209 # 전: 꾸, 전: 부치닝 거라고 해 가주. {전 구워 전 부치는 거라고 해 가지고.}

10209 # 머:시 안 대능 기 읍찌 머, 그. {무엇이든 안 되는 게 없지 뭐, 그.}

10209 # 하면 되닝 거니까 머. {하면 되는 거니까 뭐.}

10209 @ 금 저카고 저:니 다: 가통 거요? {적하고 전이 같은 거예요?}

10209 # 가통 거요. {같은 거예요.}

10209 # 적. {적.}

10209 # 저글 저:나라카구. {적을 전이라 하고.}

10209 @ 예:. {예:.}

10209 # 저걸 저:나라 카닝 거여. {적을 전이라 하는 거야.}

10209 @ 무::나 골파나. {무나 골파나.}

10209 # 어: 인재 머. {어: 이제 뭐.}

10209 @ 배, 배차 이렇 걸로. {배 배추 이런 걸로.}

10209 # 인재 저기라고도 하고 저:나라고도 하닝 거여 건 머. {이제 저기라고도 하고 전이라고도 하는 거야 그건 뭐.}

10209 # 두: 가지루 쓰능 거여. {두 가지로 쓰는 거야.}

10209 @ 또 요마::나캐 부치능 거또 이짜나요? {또 요만하게 부치는 것도 있잖아요?}

10209 # 고령 건 머 육:찌니니 해 가주구 고령 거뚜 이찌요. {그런 건 뭐 육전이니 해 가지고 그런 것도 있지요.}

10209 @ 쪼:끄망 거. {조그만 거.}

10209 # 고기로 고기로 맹근다든지. {고기로 고기로 만든다든지.}

10209 # 이래 가주. {이렇게 해가지고.}

10209 @ 예. {예.}

10209 # 어:. {응.}

10209 @ 그::를 때 그: 인재 아까 돼지: 잡는 말씀하셔짜나요? {그럴 때 그 아까 돼지 잡는 말씀하셨잖아요?}

10209 @ 그거는 어트개 자버요? {그거는 어떻게 잡아요?}

10209 # 대:지 잡능 건 인재 어 지그면 머 이 도살장에서 잡지만. {돼지 잡는 건 이제 어 지금은 뭐 이 도살장에서 잡지만.}

10209 # 엔:나랜 이: 지방에서 그냥 아:: 돌, 도로지 그통 거 하능 거 인재. {옛날엔 이 지방에서 그냥 아 도로지 같은 거 하는 거 이제.}

10209 # 서루 자바 가주 노나 명능 걸 도로지라카능 아녀. {서로 잡아 가지고 나누어 먹는 걸 도로지라고 하는 거 아니야.}

10209 @ 도로지요? {도로지요?}

10209 # 어. {어.}

10209 # 그러면 인재 폰 모이 가주 자바 가주 노나 명능 거. {그러면 이제 모여 가지고 잡아 가지고 나누어 먹는 거.}

10209 @ 예. {예.}

10209 # 어, 그러면 인재 예: 그기 인재 주로 어: 해본 사라미 내가 해본다고 이라면 그 사라미 잡찌요 머. {어, 그러면 이제 예 그게 주로 예 해본 사람이 내가 해 본다고 이라면 그 사람이 잡지요 뭐.}

10209 # 잡능 건. {잡는 건.}

10209 @ 예:. {예.}

10209 # 인지 잘쭈 그래두 능수개서 자란다카능 사라문 이리 저리 자꾸 와서 자바 달라카  
먼 자바 주고 이라지. {잘 쭈 그래두 능숙해서 잘 한다고 하는 사람은 이리저리  
자꾸 와서 잡아 달라고 하면 잡아 주고 이리지.}

10209 # 그 술 기냥 가치 노나 먹꼬:. {그 술 그냥 같이 나누어 먹고.}

10209 # 어 인재 그 옛날엔 기냥 자바 조. {에 이제 그 옛날엔 그냥 잡아 줘.}

10209 # 품싸글 부능 거뚜 아니고. {품삿을 주는 것도 아니고.}

10209 # 지그먼 다 저 도살장이나 이런데 가서 자꼬. {지금은 다 저 도살장이나 이런 데  
가서 잡고.}

10209 # 품싸 주야 자바. {품삿 줘야 잡아.}

10209 @ 네:. {네.}

10209 # 옛날엔 기냥 기냥 수리나 한 잔쭈 노나 먹꼬. {옛날엔 그냥 술이나 한 잔씩 나눠  
먹고.}

10209 # 그 인재 안:주꺼리 나옴 거 안:주 고고 해 가주 술 머꼬 이라지 머. {그 안주꺼리  
나온 거 안주 그거 해 가지고 술 먹고 이리저리 뭐.}

10209 @ 음. {음.}

10209 # 도:널 주거나 이라진 아녕 거지. {돈을 주거나 이러지는 앓는 거지.}

10209 @ 그 돼지 자부면 그걸 여럿이: 함 마리를 자바서 이르케 나너 명능 거 그걸 도로  
지라 그래요? {그 돼지 잡으면 그걸 여럿이: 한 마리를 잡아서 이렇게 나눠 먹는  
걸 그걸 도로지라고 해요?}

10209 # 예:. {예.}

10209 @ 아:. {어.}

10209 @ 그말도 처음 드러바썰요. {그 말도 처음 들어 봤어요.}

10209 # 허허허. {허허허.}

10209 # 그르케 하능 거요. {그렇게 하는 거요.}

10209 @ 옛날엔 돌부리라는 건 머요, 그럼? {옛날엔 돌부리라는 건 뭐예요, 그럼?}

10209 # 인재 그 돌부리라 쏘리가 여긴 도라지::인대 이:: 시그로 인재 마릴 표혀하녕 거  
여. {그 돌부리라 소리가 여기는 도로지인데 에 식으로 말을 표현을 하는 거야.}

10209 @ 그개 가툼 거요? {그개 같은 거예요?}

10209 # 예:, 돌부리 마자. {예, 돌부리 맞아.}

10209 # 그개 돌:부리. {그개 돌부리.}

10209 @ 도로지. {도로지.}

10209 # 돌부리리카능 기 더 원 저 표주널끼여. {돌부리하고 하는 게 더 원 저 표준어일  
거야.}

10209 # 근대 여긴 도라지라고 그르가는데. {근데 여긴 도로지라고 그렇게 하는데.}

10209 # 도라지라고 이라능 기 인재 그 표준얼 잘 모표여낭거지. {도로지라고 이러는 게  
이제 그 표준어를 잘 못 표현한 거지.}

10209 # 인재 그. {이제 그.}

10209 @ 이 돌부리레능 거는 사저내도 업썰요, 또. {돌부리라는 거는 사전에도 없어  
요, 또.}

10209 @ 그거뚜. {그것도.}

10209 # 그 돌부:리가 인재 그 도로지라고두 하구. {그 돌부리가 이제 그 도로지라고도 하고.}

10209 # 글썸 돌부리라고두 인재 하는데 이썸요. {글썸 돌부리라고도 이제 하는데 있어요.}

10209 # 표여니 쪼끔씩 달라져가주 그를 쭈두 이썸 꺼요. {표현이 조금씩 달라져 가지고 그럴 수도 있을 거요.}

10209 @ 예:. {예.}

10209 # 돌:부리도 만능 기요 그기 돌:부리. {돌부리도 맞는 거요 그게 돌부리.}

10209 @ 예:. {예.}

10209 # 돌부리라고도 해요, 여기도. {돌부리라고도 해요, 여기도.}

10209 @ 예:. {예.}

10209 @ 돼:지 잠능::거는 어떤 방버부로 자벼요? {돼지 잡는 거는 어떤 방법으로 잡 아요?}

10209 @ 돼지 잠능거? {돼지 잡는거?}

10209 # 돼:지 잠능 건 그: 지그문 끄시르기두 하고 이라는대 그저넨 터리길 뽐썸요~, 무 려 디: 가주구. {돼지 잡는 건 그 지금은 그슬리기도 하고 이러는데 그전엔 털을 뽐썸요, 물을 끓여 가지고.}

10209 @ 주길, 주길 때는 어트개해요? {죽일 때는 어떻게 해요?}

10209 # 인재 츠:매 츠:매 죽... {이제 처음에 처음에 죽...}

10209 # 츠:매 주길 때는 이 날카로웅 카털 가주 모걸 찌릅니다. {처음에 죽일 때는 이 날 카로운 칼을 가지고 목을 찌릅니다.}

10209 # 모글 찌르면 인재 피가 나오지요. {목을 찌르면 이제 피가 나오지요.}

10209 # 그러면 어: 돼:지 그러면 죽썸니다. {그러면 예 돼지 그러면 죽썸니다.}

10209 # 지그문 머 망치로 대가릴 때리 가주 잡꼬 이라지요. {지금은 뭐 망치로 대가리를 때려 가지고 잡고 이러지요.}

10209 # 그래 그저넨 모걸 찢러 가주 피털 빼구 이라면 죽썸니다. {그래 그전엔 목을 찢러 가지고 피를 빼고 이라면 죽썸니다.}

10209 # 그러면 인재 그 피는 어:: 창사구애다 느: 가주 피창얼 맹글쥬:. {그러면 그 피는 에 창자애다 넣어 가지고 피창을 만들지요.}

10209 # 지금도 여 어:: 거시::기 하지요? {지금도 여기 에 거시기 하지요?}

10209 # 이진 머라 카나? {이것은 뭐이라고 하나?}

10209 # 순대. {순대.}

10209 @ 순대. {순대.}

10209 # 예, 순대::애럴 맹글지요, 그 피는. {예, 순대를 만들지요, 그 피는.}

10209 # 여러 가지 잡채:, 참 저 채소:거통 거 마이닝 마시개 맹글라면 여러 가질 줌 느 가주 써겨 가주 순대를 맹글지요, 피는. {여러 가지 잡채, 참 저 채소:같은 거 많 이 넣어 맛있게 만들려면 여러 가지를 줌 넣어 가지고 섞어 가지고 순대를 만들지 요, 피는.}

10209 @ 예:. {예.}

10209 # 그라고 인재 예:: 무렐 끄리 가주구 뜨거운 무렐 버 가주 터 터리길 뽐썸니다. {그리고 이제 예:: 물을 끓여 가지고 뜨거운 물을 부어 가지고 털을 뽐썸니다.}

10209 @ 네:. {네:}.

10209 # 뜨거운 무릎 부면 터리기가 뭉뚱뭉뚱 뽀피집니다. {뜨거운 물을 부으면 털이 뭉뚱 뽀피집니다.}

10209 @ 이거서 그렇 거지요, 껌띠기가? {익어서 그런 거지요, 껌떼기가?}

10209 # 아이 껌띠기가 이거쨌. {아이 껌떼기가 익었지.}

10209 # 이거 이거 가주 그래 인재. {익어 익어 가지고 그래 이제.}

10209 # 칼로 깨꼬타개 인재 이 때를 빼끼고. {칼로 깨끗하게 그이제 이 때를 벗기고.}

10209 @ 예:. {예:}

10209 # 뽀이:야캐 비끼 가주구 그 인재 사::가거나 머 육까거나 이래 가글 떠서 잘: 잡지요.. {뽀얇게 벗겨 가지고 그 사각이나 뭉 육각이나 이래 각을 떠서 잘 잡지요.}

10209 # 그래 떠 가주 인재 찜능 거지요, 찔머. {그래 떼어 가지고 삶는 거지요, 삶아.}

10209 # 찔마서 찔마서 주로 멍능 기여, 연나랜. {삶아서 주로 먹는 거야 옛날에는.}

10209 # 이래 가주. {이렇게 가지고.}

10209 # 그람 대:진 자봉 거지요. {그러면 돼지는 잡은 거지요.}

10209 @ 음: 이르키 떼:능 거를 각 떼다 그래요? {아 이렇게 떼는 것을 각 떼다 그래요?}

10209 # 예, 각 떼다 그라능 기여. {예, 각 떼다 그러는 거야.}

10209 # 육까그로도 띠고 머, 사:가그로도 띠려면 띠고 이래 띠는 띠능 거요.{육가으로도 떼고 뭉, 사각으로도 떼려면 떼고 이래 떼는 떼는 거요.}

10209 # 오:각또 내고 머. {오각도 내고 뭉.}

10209 # 부이별로 띠지요, 그냥. {부위별로 떼지요, 그냥.}

10209 @ 네:. {네:}.

10209 @ 그:: 돼지 자부면 예저내 그 내장들 이짜나요? {그 돼지 잡으면 예전에 그 내장들 있잖아요?}

10209 # 내장 이찌요. {내장 있지요.}

10209 @ 예. {예:}

10209 @ 그거는 어트개 해쨌요? {그거는 어떻게 했어요?}

10209 # 내:장언 저 이 돌부리 꼬기로 한다: 이라면 어:: 거기 수란주로 다 찔마 머거. {내장은 저 이 돌부리 고기로 한다 이러면 어:: 거기 술안주로 다 썰어 먹어.}

10209 # 찔마 머거서 그 인재 술:하고 그걸 머거 치워 빼리고. {삶아 먹어서 그 이제 술하고 그걸 먹어 치워 버리고.}

10209 @ 예. {예:}

10209 # 인재 고기는 가끼 팔든지 노나 가든지 이랍니다. {고기는 각자 팔든지 나눠 가든지 이랍니다.}

10209 @ 음. {음:}

10209 # 어. {어:}

10209 @ 그: 아까 피창이라구 하능개::. {그 아까 피창이라고 하는 게.}

10209 @ 피창이요? {피창이요?}

10209 # 예. {예:}

10209 @ 그거:가 다 만드려 놓 겐, 너 가꾸 만드려 겐 얘기하능 거요, 그 피:만 얘기하능 거요? {그거 다 만들어 놓은 겐, 넣어 갖고 만든 겐 얘기하는 거예요, 그 피만 얘기하는 거예요?}

10209 # 피:창은 글썽 창사구애다 능 걸 피창이라카::능 기고. {피창은 글썽 창자에다 넣은  
걸 피창라고 하는 거고.}

10209 @ 아:. {아.}

10209 @ 그러면. {그러면.}

10209 # 엔:나랜. {옛날엔.}

10209 # 엔나랜. {옛날엔.}

10209 # 지금. {지금.}

10209 @ 요새 순대가 피창이내요? {요새 순대가 피창이네요.}

10209 # 야, 예. {네.}

10209 # 엔:나랜 인재 피창이라 그래썬요. {옛날에는 이제 피창이라고 그랬어요.}

10209 # 순:대라고 아나고. {순대라고 안 하고.}

10209 @ 예. {예.}

10209 # 지그먼 순:대라 구라지요? {지금은 순대라고 그러지요?}

10209 @ 다 쏜. {다 순대.}

10209 # 허허허. {허허허.}

10209 @ 다 피창이라구 해똥 거 가터요 그저내. {다 피창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전에는.}

10209 # 여기서는 피창이라구 해따 이거여. {여기서는 피창이라 했다 이거야.}

10209 # 그거 인저 피털 고걸 저걸. {그거 이제 피를 그걸 저.}

10209 @ 피를 창사구애 느따구 해서 피창이나 부내요? {피를 창자에다 넣었다고 해서 피  
창이나 보네요?}

10209 # 어 예예예. {예 예예예}

10209 # 그러치요~::: {그렇지요.}

10209 # 그릉 거지. {그런 거지.}

10209 @ 예::: {예.}

10209 # 그릉 거여. {그런 거야.}

10209 @ 저는 어릴 때 그 동네에서 잔치하고 이러면 돼:지 자부먼 그 저: 그 머야 저 오  
쭈통. {전 어릴 때 그 동네에서 잔치하고 이러면 돼지 잡으면 그저 그 뭐야, 저  
오쭈통?}

10209 # 오쭈통. {오쭈통.}

10209 # 그거 거시 공거치 이래 바라물 느 가주고. {그거 공 같이 이렇게 바람을 넣어 가  
지고.}

10209 @ 그래가꾸 차구 그랜는데. {그래 가지고 차고 그랬는데.}

10209 # 그러치요, 가주 놀지요 그. {그렇지요, 가지고 놀지요 그거.}

10209 @ 예. {예.}

10209 # 허허허. {허허허.}

10209 @ 애드리 머 각 할 쭈 인능 거 그거빠개 업짜나요. {애들이 뭐 할 수 있는 게 그것  
밖에 없잖아요.}

10209 # 어 마저, 그리여. {어 맞아, 그래.}

10209 # 공:이 읍:쓰니까. {공이 없으니까.}

10209 @ 예. {예.}

10209 @ 그러케 인재:: 그:: 잔치 하자나요? {그렇게 이제 그 잔치 하잖아요?}

10209 @ 그럼 그 음식 만드려야 되자나요? {그럼 그 음식 만들어야 되잖아요?}

10209 # 만드려야지요. {만들어야지요.}

10209 @ 누가: 어뜨캐: 만드려요? {누가 어떻게 만들어요?}

10209 # 그릉께 인재. {그러니까 이제.}

10209 # 그기 고대 게: 애길 함 분 해 바찌요, 우리? {그게 아까 게 애길 한 번 해 봤지요, 우리?}

10209 @ 예. {예.}

10209 # 그 인재 이:: 경사-아::애 인재 모이능 게 거통 걸 하면. {그 이제 이 경사에 이제 모이는 게 같은 걸 하면.}

10209 # 어:: 가치 와서 해 주죠. {예 같이 와서 해 주지요.}

10209 # 그라고 또 이우싸람더리 그, 그릉 행사가 이따면 다 와서 해줍니다. {그리고 또 이웃사람들이 그, 그런 행사가 있다면 다 와서 해줍니다.}

10209 # 엔:나랜. {옛날에는.}

10209 # 다: 가치 해썬요. {다 같이 했어요.}

10209 # 나도 가서 해주고 너도 와서 해주는 시그루 다 그래 가치 해썬요. {나도 가서 해주고 너도 와서 해주는 식으로 다 그래 같이 했지요.}

10209 @ 예:. {예:}.

10209 # 또 그라고 트:키나 글썬 그 혼사께나 이렇 걸 해따 이라면. {또 그리고 특히나 글썬 그 혼삿께나 이런 걸 했다 이라면.}

10209 # 그 사람드리 주로 와서 하지요 머. {그 사람들이 주로 와서 하지요 뭐.}

10209 # 주로 와서 마::이 모이 가주고 하개 하개되지요. {주로 와서 많이 모여 가지고 하게 되지요.}

10209 @ 혼사께 가통 거 하면 거기 머 어뎡 걸 가따가 이르캐 주나요? {혼삿께 같은 거 하면 거기 뭐 어떤 걸 갖다가 이렇게 주나요?}

10209 # 그 혼사께 그통 거 하면 글썬 반:지 꼬통거 주로 하 해:주고 이랍떠다, 요기는. {그 혼삿께 같은 거 하면 글썬 반지 같은 거 주로 해주고 이럽디다, 여기는.}

10209 @ 반지요? {반지요?}

10209 @ 이런 반, 손? {이런 반지, 손에?}

10209 # 응, 반:지. {응, 반지.}

10209 @ 소내 끼는 반지? {손에 끼는 반지?}

10209 # 예. {예.}

10209 @ 엔나래도 그래썬요? {옛날에도 그랬어요?}

10209 # 엔나래::는 엔나래도 인재 그라는 사라미 이썬요. {옛날에는 옛날에도 그러는 사람이 있지요.}

10209 # 또 그런대 엔나랜 그걸 반지께 거통 걸 혼사께 자라남니다. {또 그런데 옛날엔 그걸 반지께 같은 걸 혼삿께 잘 안 합니다.}

10209 # 그냥 가서 바: 주고 이라고. {그냥 가서 봐 주고 이라고.}

10209 # 지그문 그릉 걸 마이 해도. {지금은 그런 걸 많이 해도.}

10209 # 예나랜 그거 마이 아내썬니다. {옛날엔 그거 많이 안 했습니다.}

10209 @ 그저내 보니까 머 막걸리 두 통 이렇 거... {그전에 보니까 뭐 막걸리 두 통 이런 거...}



10209 # 그르치요. {그렇지요.}

10209 # 막걸리. {막걸리.}

10209 # 막걸리 그통 거 주구 그라지요. {막걸리 같은 거 주고 그러지요.}

10209 @ 예:. {예.}

10209 @ 그 인재 동네 아줌마드리 와 가주구. {그 이제 동네 아줌머니들이 와 가지고.}

10209 @ 또 저: 불 피워 가주 거기서 아까 적. {또 저 불 피워 가지고 거기서 아까 저.}

10209 # 예, 그 적 꾸치요~:. {예, 그 적 굽지요.}

10209 # 어, 적 꾸코 머 이렇 거 음식걸 가치 협조\*\*\* 하지요. {어, 적 굽고 뭐 이런 거 음식을 같이 협조\*\*\* 하지요.}

10209 @ 그거 저기 꿀 때는 저 숟, 그 뚜껑. {그거 저기 구울 때는 저 숟, 그 뚜껑.}

10209 @ 그거 뒤지버 가주구 거기서 마:니 해찌요? {그거 뒤집어 가지고 거기서 많이 했지요?}

10209 # 그기 소두방인대 처리라 그라지요. {그게 솔뚜껑인데 철이라 그러지요.}

10209 # 철. {철.}

10209 @ 예. {예.}

10209 # 이진 적 쏜는 처리라 그래요. {이진 적 굽는 철이라고 해요.}

10209 # 그걸. {그걸.}

10209 @ 보통 때는 소두방으로 쓰능 거자나요? {보통 때는 솔뚜껑으로 쓰는 거잖아요?}

10209 # 예, 소두방은 그개 인재 그걸 꾸면 처리라 그라능 기여. {예, 솔뚜껑은 그개 이제 그걸 구우면 철이라고 그러는 거야.}

10209 @ 예. {예.}

10209 # 철. {철.}

10209 # 소두방이라고 아나고. {소두방이라고 안 하고.}

10209 @ 그르닝까 소두방으로 쓰다가:... {그러니까 소두방으로 쓰다가...}

10209 # 네. {네.}

10209 @ 그런 니리 이쓰면 그걸 가따가 뒤지버 노코 그 때는 처리라고 한다고. {그런 일이 있으면 그걸 갖다가 뒤집어 놓고 그때는 철이라고 한다고.}

10209 # 예, 처리라고 고란다고요. {예, 철이라고 그런다고요.}

10209 @ 예:. {예.}

10209 @ 참 우리 으르신드리 옛날 조상드리 이름두 잘 부쳐써요:~? {참 우리 어르신들이 옛날 조상들이 이름도 잘 붙였어요?}

10209 @ 쓸 때마다 이르믄 다르개. {쓸 때마다 이름을 다르게.} 10209 # 예:. {예.}

10209 # 예, 그르치요. {예, 그렇지요.}

10209 # 예, 인재 거. {예, 이제 그거.}

10209 @ 그 소두방두 그르케 쇠루 되 거 무쇠루 되 거자나요, 주로? {그 솔뚜껑도 그렇게 쇠로 된 거 무쇠로 된 거잖아요, 주로.}

10209 # 그르치요, 무쇠요. {그렇지요, 무쇠요.}

10209 @ 근대 인재 그렁 거뚜 이꾸 나무루두 맨들때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나무로도 만들때요?}

10209 @ 소죽 까통 거 끄릴 때. {소죽 같은 거 끓일 때.}

10209 # 예, 그러치요 어 어. {네, 그렇지여 어 어.}

10209 @ 그거는 머라 그래요? {그거는 뭐라 그래요?}

10209 @ 그거뚜 이르미 또까트나요? {그것도 이름이 똑같나요?}

10209 # 그건 인재 소두방:. {그건 이제 소두방:.}

10209 # 아 그기 소뚜경이라구 그냥 머래, 궁 그래 그래 해주 그라지유, 아마 아매. {아 그게 솔뚜경이라고 그냥 머래 그건 그래 그래 해도 그러지요, 아마 아마.}

10209 @ 예:. {예.}

10209 # 어, 새죽 쏘뚜경 머. {아, 소죽 솔뚜경 뭐.}

10209 # 밥솔 뚜경이라기도 하고. {밥솔 뚜경이라고도 하고.}

10209 # 이라지요. {이러지요.}

10210 @ 근대 엔나래는 그러캐해 가주구 인재 잔치를 하자나요? {근대 옛날에는 그렇게 해 가지고 잔치를 하잖아요?}

10210 # 예. {예.}

10210 @ 그러면 인재 나재는 그러캐 음식머꼬 손님드리 와서 놀다 가고 머 손님드리 와서 놀다 가고 머 이르캐 인재 하자나요? {그러면 이제 낮에는 그렇게 음식 먹고 손님들이 와서 놀다 가고 뭐 이렇게 이제 하잖아요?}

10210 @ 그럼 인재 저녁 때 대면 또 저녁 때 인재 머 천날 천날뺨 보낸다고 머 이러능 거 이짜나요?. {그럼 이제 저녁 때 되면 또 저녁 때 뭐 첫날 첫날밤 보낸다고 뭐 이러는 거 있잖아요?}

10210 # 그르치요. {그렇지요.}

10210 @ 그거 가지고 머 장난도 치고 엔나래 그르지 아나썌요? {그거 가지고 뭐 장난도 치고 옛날에 그러지 않았어요?}

10210 # 그거 천날::뺨 보내능 거 인재 대충 내가 알기는 그 신방얼 차리 주능 거지요~:.. {그거 첫날밤 보내는 거 이제 대충 내가 알기는 그 신방을 차려 주는 거지요.}

10210 @ 네. {네.}

10210 # 인재 음식카고 술하고 머 이렇 걸 조금 가따 차리 노코. {이제 음식하고 술하고 뭐 이런 걸 조금 갖다 차려 놓고.}

10210 # 천날뺨미니께 인재. {첫날밤이니까 이제.}

10210 # 거:: 실랑 신부가 행동하두록. {그 신랑 신부가 행동하도록.}

10210 # 그 맹그라 낯: 방얼 차리 주지요. {그 만들어 놓은 방을 차려 주지요.}

10210 # 그라면 인재 그 뭐: 어트카능가:: 하고 요로캐 문꾸녕을 뚜꼬 디다 봄미다. {그럼 이제 그 뭐 어떻게 하는가:: 하고 이렇게 문구멍을 뚫고 들여다 봅니다.}

10210 # 허허허 \*: 어띠키 하능가. {하하하 \* 어떻게 하능가.}

10210 # 그렁 거 그기 장나니지요 머. {그런 게 그게 장난이지요 뭐.}

10210 @ 예:. {예.}

10210 # 난 그리키 하능 걸루 알고 이썌요. {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10210 @ 예:. {예.}

10210 # 그 그 아내 내용언 머 서로 잘: 정아강 건 머. {그 그 안에 내용은 뭐 서로 잘 정확한 건 뭐.}

10210 # 다: 해본 사람드렁 걸로 알고 이꼬. {다 해본 사람들인 걸로 알고 있고.}

10210 # 지그문 그르캐 아나지만. {지금은 그렇게 안 하지만.}

10210 # 엔:날 사람더런 그라면 인재 예:: 좀 비내 그통 걸 뽀바 주고. {옛날 사람들은 그

러면 이제 예 좀 비너 같은 걸 뽑아 주고.}

10210 # 온꼬름 거튼 거 풀러 주고 머 이런 시그로 아내서 \*\*\*\*. {웃고름 같은 거 풀어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안에서 \*\*\*\*.}

10210 # 그거 어트캐 하능가 뭇꾸녀걸 장난치는 사람더런 고기애 뭇꾸녀걸 뜨꾸 디다 봄니다. {그거 어떻게 하는가 문구멍을 장난치는 사람들은 고기에 문구멍을 뚫고 들어다 봄니다.}

10210 # 그기 장나니지요 머. {그게 장난이지요 뭐.}

10210 @ 엔나랜 다 창호지루 해끼 때매 침 발라 가꼬 다. {옛날에는 다 창호지로 했기 때 문에 침 발라 가지고 다.}

10210 # 예예, 그리잉개 그쎄. {예, 그러니까 글쎄.}

10210 # 이 이 뭇꾸녀글 뜨꾸 디다 본다고. {아 이 문구멍을 뚫고 들어다 본다고.}

10210 @ 그러:: 그렇 거:: 때무내 이썬뻘 재미 인능, 머 이르캐 동네에서 머 싸우미 나따 등가 머. {그런 거 때문에 있었던 재미 있는, 뭐 이렇게 동네에서 싸움이 났다던 가 뭐.}

10210 @ 아니면 또 머 재미 이썬뻘가 머 이런 얘기? {아니면 또 뭐 재미 있었던가 뭐 이런 얘기?}

10210 # 이제 그렇 거로넌 머 별로 여기 이썬뻘 동네도 아니고:. {이제 그런 것은 뭐 별로 여긴 있었던 동네도 아니고.}

10210 # 그런 얘긴 머 별로 읍썬썬, 이동내는. {그런 얘긴 뭐 별로 없었었어요 이 동네는.}

10210 # 음 탄 얘길 드러보먼 흑썬 머 어: 참 별별 리리 다 이따면. {어 다른 얘길 들어 보먼 흑시 뭐 참 별별 일이 다 있다면.}

10210 #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더리 이떠구만. {뭐 이런 얘기도 하는 사람들이 있더구만.}

10210 # 그건 머 자세향 건 우리가. {그건 뭐 자세한 건 우리가.}

10210 # 하하. {하하.}

10210 # 모껴칸 사람드리 아니고 또 머 여긴 머 그런 니리 이썬뻘 대가 아니기 때매. {목 격한 사람들이 아니고 또 뭐 여긴 뭐 그런 일이 있었던 데가 아니기 때문에.}

10210 # 그건 잘 모르개꼬. {그건 잘 모르겠고.}

10210 @ 드른 얘:기는 이썬썬? {들은 얘기는 있어요?}

10210 @ 그렇 거 머. {그런 거 뭐.}

10210 # 그 그 장, 탄 장나니 이썬뻘, 머 이런 얘기는 어 실랑이 도망가따, 머 새다기 도 망가따 이런 얘긴 더러 디끼답, 디끼덩구만. {그 그 장(난), 다른 장난이 있었다, 뭐 이런 얘기는 어 실랑이 도망 갔다, 뭐 새택이 도망 갔다 이런 얘긴 더러 들리 더, 들리더구만.}

10210 @ 예:. {예.}

10210 # 그런 얘긴 더러 디끼더라고. {그런 얘긴 더러 들리더라고.}

10210 @ 그리::고 보먼 그:: 그래따가. {그리::고 보먼 그:: 그랬다가.}

10210 @ 나중애 그 신부:, 신부 때개 갈 때 그러덩가요? {나중에 또 신부 댁에 갈 때 그러덩가요?}

10210 @ 그 저 실랑 꺼꾸루 매달라 가주구 머? {그 저 실랑 거꾸로 매달아 가지고 뭐?}

10210 # 어:, 그 실랑 다라 멍는다 거 이썬썬. {아, 그 실랑 달구쳐 먹는다는 거 있지요.}

10210 # 그 엔나랜 그기 이 흘래 때는 그기 왜 인느냐 하면. {그 옛날에는 그게 이 흘래 때는 그게 왜 있느냐 하면.}

10210 # 이제 예: 실랑이 인재 새덕 찌배 춤: 가능 거지요~. {이제 예 신랑이 새덕 집에 처음 가는 거지요.}

10210 # 춤: 가문 인재. {처음 가면 이제.}

10210 # 그 새덕 찌배서 실랑을 덜고, 덜로웁니다. {그 새덕 집에서 신랑을 데리고, 데리러 옵니다.}

10210 # 처나미 이따든지 이라면 . {처남이 있다든지 이라면.}

10210 # 아: 덜러 오면 가지요. {아: 데리러 오면 가지요.}

10210 # 가면 인재 천날 저녁개 실랑얼 다라 멍넌다고 고라지요. {가면 이제 첫날 저녁에 신랑을 달아 먹는다고 그러지요.}

10210 # 다라 머거. {달아 먹어.}

10210 # 다라 멍넌다 구라지요. {달아 먹는다고 그러지요.}

10210 # 고려문 인재 그: 신부 찌배서 인재 준빌 다: 하구 이찌:. {그러면 이제 그게 신부 집에서 이제 준비를 다 하고 있지.}

10210 # 다하고 이따가. {다 하고 있다가.}

10210 # 아: 인재 내 오는대. {아: 이제 내 오는대.}

10210 # 그 동아내 아:주 참 고:야칸 장난널 치는 동네가 이찌요. {그 동안에 아주 참 고약한 장난을 치는 동네가 있지요.}

10210 # 매다라 노코 인재 발빠다글 뚜디리 패니께. {매달아 놓고 이제 발바닥을 두드려 패니까.}

10210 # 그거뚜 인재 이 골고루 여러 가지쥬. {그것도 이제 이 골고루 여러 가지지요.}

10210 # 몽딩이로 하는 사람. {몽둥이로 하는 사람.}

10210 # 그런 대도 이꾸 목치무루 하는 대도 이꾸. {그런 데도 있고 목침으로 하는 데도 있고.}

10210 # 그라고 되::개 아프게 하는 대도 이꼬. {그리고 되개 아프게 하는 데도 있고.}

10210 # 기냥 이래 살살 잘: 순:조로개 기냥 하는 대도 이꼬 인재 그래서 말:로만 하는 대도 이꼬 이르치요~ 뭘. {그냥 이렇게 살살 잘 순조롭게 그냥 이렇게 하는데도 있고 그래서 말로만 하는 데도 있고 이렇지요 뭘.}

10210 # 그래도 인재 그라면 인재: 실랑한테 술 요:청얼 하거나 해녕 거지요, 인재. {그래도 이제 그러면 이제 신랑한테 술 요청을 하거나 하는 거지요, 이제.}

10210 # 그라고 미리 해 능 거 인재 가따 술 머꼬 그래. {그리고 미리 해 넣은 것 갖다 술 먹고 그래.}

10210 # 칭구 인재 살기 보능 거지:. {친구 이제 \*\* 보는 거지.}

10210 # 썰랑이닝께. {신랑이니까.}

10210 # 그동내. {그 동네.}

10210 # 그런 시기지요. {그런 식이지요.}

10210 # 실랑 다루능 거. {그건 신랑 다루는 거.}

10210 # 난 그르케 알고. {난 그렇게 알고.} 10210 @ 예. {예.}

10210 # 나도 다 재껴 본사라미니께. {나도 다 달려 본 사람이니까.}

10210 @ 술:: 가통 거 으더 머꼬 머 이려면선 놀:구 이르케 장난치능 거지요, 그기? {술

같은 거 얻어 먹고 뭐 이러면서 놀고 이렇게 장난치는 거지요, 그게?}

10210 # 그리치 인재 그거지 머. {그렇지 이제 그거지 뭐.}

10210 @ 하라번니문 어트개 하셔썬요? {할아버님은 어떻게 하셔썬요?}

10210 # 아 나도 가닝개 실랑을 다룬다구 구라대. {아 나도 가니까 실랑을 달구친다고 그러대.}

10210 # 그 니들 다라바라. {그 너희들 달아 봐라.}

10210 # 동네가 그르키 앙 큰 동네여썬썬. {동네가 그렇게 안 큰 동네였었어.}

10210 # 머 호썬도 만틀라고. {뭐 호썬도 많질 앓고.}

10210 # 청년들도 한 여나문뻘개 안 대드라고. {청년들도 한 여남은밖에 안 되더라고.}

10210 # 고 동네는. {그 동네는.}

10210 # 이런 동네는 옴나래 사:라미 마:늘 때니까 삼십 명도 더 대, 여기는. {이런 동네는 옛날에 사람이 많을 때니까 삼십 명도 더 돼, 여기는.}

10210 # 어 또래 청년만 해도. {어 또래 청년만 해도.}

10210 # 그런디 건 동네가 썬마내 가썬 한 열 명 안썬기드라고. {그런데 거긴 동네가 썬그 만해 가지고 한 열 명 안썬이더라고.}

10210 # 그 아이 신사저그로 하자구 그 머. {그 아이 신사적으로 하자고 그 뭐.}

10210 # 어 다라 매고 머 패대고. {어 달아 매고 뭐 패대고.}

10210 # 그 말:로만 하구 그래. {그 말로만 하고 그래.}

10210 # 수리나 한 잔 먹썬고라고 난 그래. {술이나 한 잔 먹자고 그러고 난 그래.}

10210 # 그라고 썬나썬썬썬. {그리고 썬났었썬썬.}

10210 @ 네:. {네.} 10210 # 허허. {허허.}

10210 # 그래 썬미파 술 가썬 오지 머. {그래 썬 있다 술 가져 오지 뭐.}

10210 # 그라고 연:정 연:방 대번 수털 가파 가치 노나 머썬 그래. {그리고 연신 연신 대번 술을 가져다 같이 나눠 먹고 그래.}

10210 # 그라고 마라썬썬. {그리고 말았썬썬.}

10210 # 아이 패대는 댄 아::주 막 어 사:래미 그 다음날 거러 가두 모타개 패대는 동네도 이썬파능 기여. {패대는 데는 아주 막 에 사람이 그 다음날 걸어 가지도 못하게 패대는 동네도 있었다는 거야.}

10210 # 여기 이 동네는 그러카든 아내썬. {여기 이 동네는 그렇게 하지는 앓았어.}

10210 @ 그렇 거 보셔썬요? {그런 거 보셨어썬요?}

10210 @ 혹썬 그르캐 시:마개 하능 거? {혹시 그렇게 심하게 하는 거?}

10210 # 시:마개 하능 거 우리두 바썬썬. {심하게 하는 거 우리도 봤썬썬.}

10210 # 바따고. {봤다고.}

10210 @ 어트개 해요, 그러면요? {어떻게 해요, 그러면요?}

10210 # 글썬 그: 지개썬썬이나 이렇 걸 가파 이 밭모글 다라 매 가썬. {글썬 그 지개 고 뻘나 이런 걸 갖다 이 밭목을 달아 매어 가지고.}

10210 # 으 어깨에 미:고 썬디리 패는 대두 이썬. {어깨에 매고 두드려 패는 데도 있고.}

10210 # 저 실랑까래는 썬, 저 여기 인저 옴:나랜. {저 시렁에는 시(렁), 저 여기 이제 옛날에는.}

10210 # 그 옴:날 썬번 그런대 저런 썬경이라고 이썬 실경까래. {그 옛날 집은 그런대 저런 시렁이라고 있어, 시렁.}

10210 # 실경까래. {시렁.} 10210 @ 두개 이러:캐? {두 개 이렇게?} 10210 # 예, 두 개 이래. {예, 두개 이렇게.}

10210 @ 예. {예.}

10210 # 멀 물건 언녕 거. {무엇을 물건 없는 거.}

10210 @ 예. {예.}

10210 # 거기다 가따 막 올라매 노코서 뿌디리 패고 머. {거기다 갖다 막 올라매어 놓고서 두드려 패고 뭐.}

10210 # 그라는 동네도 이꼬. {그러는 동네도 있고.}

10210 # 그래 다치머따카는 사람두 마니 드러바꼬. {그래서 다쳤다고 하는 사람도 많이 들어 봤고.}

10210 # 그 시:마개 하는 동네는 그러캐두 합니다. {그 심하게 하는 동네는 그렇게도 합니다.}

10210 @ 잘모타면 다치자나요? {잘 못하면 다치잖아요?}

10210 # 그통개 글썸 그이튼날 잘 거러 땡기도 모타개 하는 동네도 이꼬. {그러니까 글썸 그 이튼날 잘 걸어 다니지도 못하게 하는 동네도 있고.}

10210 # 허. {허.}

10210 # 그르니 동네마둥 다르지. {그러니까 동네마다 다르지.}

10210 # 하는 방버비. {하는 방법이.}

10210 # 또까찢 아나. {똑같지가 않아.}

10210 @ 그걸 실랑 다려 멍는다 그래요? {그걸 신랑 달구쳐 먹는다 그래요?}

10210 # 어, 실랑 다려 멍는다고 그라녕기여. {어, 신랑 달구쳐 먹는다고 그러는 거야.}

10210 # 호호. {호호.}

10210 @ 다려 멍는다. {달구쳐 먹는다.}

10210 # 음:. {음.}

10211 @ 맨: 처매 겨론:: 처:매 하셔쓸 때에 시논살림 하자나요? {맨 처음에 결혼 처음에 하셨을 때 신혼살림 하잖아요?}

10211 @ 그:: 처:매 겨로나면 인재 살림:- 해야 대자나요? {그 처음에 결혼하면 이제 살림을 해야 되잖아요?}

10211 @ 그럴 때 멀: 준비해 가주구 멀 어떠케 시작해써요? {그럴 때 무엇을 준비해 가지고 무엇을 어떻게 시작했어요?}

10211 # 이제 나와 가튼 경우는 어: 나도 녁너카지 모타개 살고. {이제 나 같은 경우는 어 나도 녁너하지 못하게 살고.}

10211 # 여기 우리 안 내자가 녁너칸 지바니 아니여써써요. {여기 우리 안 내자가 녁너한 집안이 아니었었어요.}

10211 # 그라고 그: 아부지가 일찌기 도라가시 가지고 어: 머 여덜 썬 때 도라가시파니까 아주 일찌기 도라가셔써. {그리고 그 아버지가 일찍이 돌아가셔서 가지고 예 뭐 여덜 살 때 돌아가셨다니까 아주 일찍이 돌아가셨어.}

10211 # 그래 삼초하고 어:: 살다가 아: 살리물 참 저 시지불 와끼 때미내 어 기냥 아 우린 실, 우리 지배 와서 나: 살든 그대루 그냥 가치 이래 사라찌 머. {그래 삼촌하고 예 살다가 아: 살림을 참 저 시집을 왔기 때문에 예 그냥 아 우리는 실, 우리 집에 와서 나 살던 그대로 그냥 같이 이렇게 살았지 뭐.}

10211 # 특빠랑 거 장마내 가주 살:거나 이러친 아나씨. {특별한 거 장만해 가지고 살거나  
이렇지는 않았어.}

10211 # 그냥 그래 \*\*\*\*\*. {그냥 그래 \*\*\*\*\*.}

10211 # 농사 지 가땀 요러캐 가주 그냥 사롱 거. {농사 지어 가면서 이렇게 가지고 그냥  
산 거.}

10211 @ 그::. {그::.} 10211 # 특빠랑 건 읍sey. {특별한 건 없어요.}

10211 @ 예: 그때 인재:: 대개 시집가고 그러면 그:: 혼수루 마려내 가능 거뜨리 필쭈저그  
루 가져 가능 거가 이썸나요? {예: 그때 이제 대개 시집 가고 그러면 그:: 혼:수로  
마련해 가는 것들이 필수적으로 가져 가는 거 있었나요?}

10211 @ 꼭 까저 가능 거? {꼭 가져 가는 거?}

10211 # 그쵸 이 꼭: 까주 가능 건 이 이불롱얼 해 가주 오기 대 인능 거여. {글쵸 이 꼭:  
가져 가는 건 이 이불 농을 해 가지고 오게 돼 있는 거야.}

10211 # 이불롱. {이불 농.}

10211 @ 농. {농.}

10211 # 어, 그린대 인재 그기 형퍼니 안다면 그거뚜 인재 그럼 인재 실랑 츠개서 기냥 어  
사 가주 와서 지낼 쭈두 이꼬:. {어, 그런데 이제 그게 형편이 안 닿으면 그것도  
이제 그럼 신랑측에서 그냥 싸가지고 가서 지낼 수도 있고.}

10211 # 양 그라만 그점마넌 필쭈저그로 와 해 가주 오녕 거지. {안 그러면 그것만은 필수  
적으로 와 해 가지고 오는 거지.}

10211 # 이부라고 농 하나. {이불하고 농 하나.}

10211 @ 농. {농.}

10211 # 응, 고 더코 어: 인재 이불 는녕 거니까 고곤마넌 필쭈저깅 걸로 알:고 이썸쵸요,  
옴:나랜. {응, 그 덩고 예 의복 넣는 거니까 그것만은 필수적인 걸로 알고 있었지  
요, 옛날에는.}

10211 @ 예. {예.}

10211 # 고기 중요항 기지. {그게 중요한 거지.}

10211 @ 그:: 옴날 어른들 말쓰미 농은 오동나무루 만드능 개 쵸: 조타고? {그 옛날 어른  
들 말씀이 농은 오동나무로 만드는 게 제일 좋다고?}

10211 # 그러치요. {그렇지요.}

10211 # 오:동나무 농얼 치능 거지요. {오동나무 농을 치는 거지요.}

10211 # 옴:나랜. {옛날에는.}

10211 @ 그기 왜? {그게 왜?}

10211 # 그 오:동나무는 그 부래 자란탄다능 기요. {그 오동나무는 그 불에 잘 안 탄다는  
거요.}

10211 # 부래. {불에.}

10211 # 어? {어?}

10211 # 그라고 개구꾸. {그리고 가볍고.}

10211 # 그 왜 부래 자란타. {그 왜 불에 잘 안 타.}

10211 # 그 으녕에서두 마이 쓰능 거 아니유? {그 은행에서도 많이 쓰는 거 아니요?}

10211 # 으:녕. {은행.}

10211 # 그기 나문 나문대 자란탐니다. {그게 나무는 나무인데 잘 안 탐니다.}

10211 # 부리 자람부터요. {불이 잘 안 붙어요.}

10211 @ 예:. {예.}

10211 # 불따미 읊써, 그라고 그건. . {불땀이 없어, 그리고 그건.}

10211 # 그래서 화:모그로넨 안 써. {그래서 화목으로는 안 써.}

10211 # 화:모건. {화목은.}

10211 # 그런 특-쟁이 이찌요. {그런 특징이 있지요.}

10211 @ 불따미 엽따구요? {불땀이 없다고요?}

10211 @ 멀: 불따미라 그래요? {무엇을 불땀이라고 그래요?}

10211 # 부리 탐. {불이 타는.}

10211 # 이 부래다 느면. {이 불에다 넣으면.}

10211 # 활:활 타능 기 이꼬. {활활 타는 게 있고.}

10211 # 밍기::하니 안, 잘 안 타능 걸 그 인재 불땀 읊따카능 거여. {밍기하니 안, 잘 안 타는 걸 그 이제 불땀이 없다고 하는 거야. }

10211 @ 아:. {아.}

10211 # 밍기하니. {밍기하니.}

10211 # 그 부리 일방 부뚜 아난다고 그렁 거넨. {그 불이 금방 붙지도 안 한다고 그런 거는.}

10211 @ 예:. {예.}

10211 # 말르긴 말라써도. {마르긴 말랐어요.}

10211 @ 예. {예.}

10211 @ 그걸 불따미 엽따 그래. {그걸 불땀이 없다 그래.}

10211 @ 이 이 말두 저 첨: 드러보는 마래요. {이 이 말도 저 처음 들어 보는 말이에요.}

10211 # 허허허. {허허허.}

10211 # 그 인재 오동나무넨 그런 특-쟁얼 자주구 인녕거 가터, 특쟁얼 자주고 이따고. {그 이제 오동나무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 같아,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10211 @ 예:. {예.}

10211 @ 아이 그래니 하라번넨두 이르게 뵙꾸 자꾸 이견찌건 재가 배우자나요. {아이 그러니 할아버님도 이렇게 뵙고 자꾸 이것저것 재가 배우잖아요.}

10211 # 여 대학교 교순니미여 거 나안테 좀 무려 볼 끼 이써서. {여기 대학교 교수님이야, 거 나한테 좀 물어 볼 게 있어서.}

10211 @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10211 # 어. {어.}

10212 @ 또 이르게 그리구 나서 인재 예: 애: 생기자나요? {또 이렇게 그리고 나서 예 애가 생기잖아요?}

10212 # 예. {예.}

10212 @ 그러면 인재 그때는 어트게 해써요? {그러면 그때는 어떻게 했어요?}

10212 @ 팔, 팔람매 두서따 그래쓰니까 인재. {팔, 팔 남매를 두셨다 그랬으니까 이제.}

10212 # 그래닝까 머 그때야 머. {그러니까 뭐 그때야 뭐.}

10212 # 어::. {어.}

10212 #1 아이 왜 이르게 더워? {아이 왜 이렇게 더워?}

10212 # 그땐: 이 병원도 마땅차나찌요. {그때는 이 병원도 마땅치 않았지요.}



10212 # 여기 아주. {여기 아주.}

10212 # 어::. {어.}

10212 # 그래두 인재 다 기양 자연:사느로 \*\* 하능 거 키와찌요. {그래도 이제 다 그냥 자연산으로 \*\* 하는 거 키웠지요.}

10212 @ 여기, 여기 이썬요. {여기, 여기 있어요.}

10212 @ 허허. {허허.}

10212 #1 무슨 말쓰믈... {무슨 말씀을...}

10212 @ 하라버지 그동안 이르게 쪽:: 사라오신 얘기. {할아버지 그동안 이렇게 죽 살아오신 얘기.}

10212 @ 히. {히.}

10212 #1 그렇 거덜 저기 체크를 가주 가서여? {그런 거를 저기 체크해 가지고 가세요?}

10212 @ 예. {예.}

10212 @ 그래서 나중에 책 만드러서. {그래서 나중에 책 만들어서.}

10212 @ 보존도 하고. {보존도 하고.}

10212 #1 어디서 오셨는데? {어디서 오셨는데?}

10212 @ 청주에서 와썬요. {청주에서 왔어요.}

10212 #1 청주. {청주.}

10212 #1 청주 어디서 오신데? {청주 어디서 오셨는데?}

10212 @ 처:으매 저기: 팔람매라고 하셔짜나요? {처음에 저기 팔 남매라고 하셨잖아요?}

10212 @ 그때 처:매 인재 애:가 생겨썬 때. {그때 처음에 이제 애가 생겼을 때.}

10212 @ 제일 그:: 맘:두 설레고 막 그르자나요? {제일 그 마음도 설레고 막 그렇잖아요?}

10212 @ 그땐 느끼미 어뜨셔썬요? {그땐 느낌이 어떠셨어요?} 10212 # 으호호호. {으호호호.}

10212 # 그썬 머 그땠야 아:: 그래도 어::. {글썬 뭐 그땠야 예 그래도 예.}

10212 # 장모님도 여와 계시구. {장모님도 여기 와 계시고.}

10212 # 그래서 머 어:: 모듬 거덜 잘:: 저살 해 주기 때미내. {그래서 뭐 예 모든 것을 잘 \*\* 해 주기 때문에.}

10212 # 머 기냥 그래 너머 가썬요 머. {뭐 그냥 그래 넘어갔지요 뭐.}

10212 # 허허. {허허.}

10212 @ 음:. {음.}

10212 @ 그러며:는 처썬. {그러면 첫썬}

10212 @ 처썬::가? {첫썬:가?}

10212 # 딸. {딸.}

10212 @ 딸. {딸.}

10212 @ 따를 하라버님 며썬 때 나썬썬요? {딸을 할아버님 몇 살 때 나썬썬요?}

10212 # 따리. {딸이.}

10212 #1 수물려더래. {스물여덟에.}

10212 # 수 수 수물 수물 세:새 아니여? {스 스 스물 스물 셋에 아니야?}

10212 # 수물래시라내. {스물넷이라네.}

10212 #1 수무릴고배. {스물일곱에.}

10212 #1 수무릴곱. {스물일곱.}

10212 @ 하라버지 수무릴고배? {할아버지 스물일곱에?}

10212 #1 예. {예.}

10212 @ 그러면 군대 군대 가따 오고 나서 한참 이따가 나선내요? {그러면 군대 갔다 오고 나서 한참 있다가 났으셨네요?}

10212 #1 군대 가따 와서 나찌. {군대 갔다 와서 났았지.}

10212 # 좀 이따 나찌요. {좀 있다 났았지요.}

10212 @ 그때 저:기 할, 할머니 입떠타고 그르시지 아나씨요? {그때 저기 할머니 입뿔하고 그르시지 않았어요?}

10212 # 입떠선 벨루 아나능 거 가티유. {입뿔은 별로 안 하는 같아요.}

10212 @ 음:. {음.}

10212 @ 그 시:만 사람드른 아주: 애:멍능 거 가뜰대. {그 심한 사람들은 아주 애 먹는 거 같던데.}

10212 # 쪼구문 해깨찌요? {조금은 했겠지요?}

10212 # 아주 아주 아나든 아나찌. {아주 아주 안 하진 않았지.}

10212 @ 예:. {예.}

10212 #1 아니 어트개 그렇 거꺼지 시:마개 그르캐. {아니 어떻게 그런 것까지 심하게 그렇게.}

10212 @ 별거 다: 무려 보지요 머. {별거 다 물어 보지요 뭐.}

10212 @ 옛날 산, 상 거 요새 요새하고 달라서. {옛날 사는 거 요새하고 달라서.}

10212 # 허허허. {허허허.}

10214 @ 찌기 애: 나면 처:매 처:매 나면 바까태도 몬 나가게 하고: 그러자나요? {저기 애 났으면 처음에 처음에 났으면 바깥에도 못 나가게 하고: 그러잖아요?}

10214 @ 음식뚜 또 가려서 먹꼬. {음식도 또 가려서 먹꼬.}

10214 # 그기 엔:나래 그기 아니요. {그게 옛날에 그게 아니요.}

10214 # 아주 한 한 일쭈이른 머 별루 안 나가도 일쭈일만 너무먼 다: 나가서 할똥하고 바패머꼬 다 해야 대 엔:나랜. {아주 한 한 일 주일은 뭐 별로 안 나가도 일주일만 넘으면 다 나가서 활동하고 밥 해 먹고 다 해야 돼 옛날엔.}

10214 @ 네:. {네.}

10214 # 그 그기 따캉 거지요 사실 옛날싸람들. {그게 딱한 거지요, 사실 옛날사람들은.}

10214 @ 그래서 병:: 생긴 분들도 만차나요? {그래서 병 생긴 분들도 많잖아요?}

10214 # 그러치요~:. {그렇지요.}

10214 # 엔:날엔 그런 실정이지요. {옛날에는 그런 실정이지요.}

10214 @ 그름 아이 나쓸 나쓸 때 맨:처매는 머 머거요? {그럼 아이 났았을 났았을 때 맨 처음에는 뭐 먹어요?}

10214 # 미역국빠끼 아내조. {미역국밖에 안 해줘.}

10214 # 미역국. {미역국.}

10214 @ 미역국. {미역국.}

10214 # 미역국. {미역국.}

10214 # 지그면 별걸 다 해 먹찌만. {지금은 별걸 다 해 먹지만.}

10214 # 그거 엔:나랜 미역국뚜 다: 제대루 모:끄리 주녕 거여. {그거 옛날에는 미역국도 다 제대로 못 끓여 주는 거야.}

10214 @ 그::진 미여꾸카고 이제 쌀바파고 이르게 멩능 경가요? {그건 미역국하고 이제 쌀밥하고 이렇게 먹는 건가요?}

10214 # 그르초. {그렇지요.}

10214 @ 그걸 머라 그래요? {그걸 뭐라 그래요?}

10214 @ 그걸 천? {그걸 첫?}

10214 # 척, 처꼭빔. {첫, 첫국밥.}

10214 @ 처꾸빔? {첫국밥?}

10214 @ 예. {예.}

10214 @ 그리구 며칠 똥아는 머 바께 몬 나가게 한다 그러자나요? {그리고 며칠 동안은 똥 밖에 못 나가게 한다 그러잖아요?}

10214 @ 그개. {그게.}

10214 # 그리 일주일 간 그래 경기쥬릴 치능 처농능 거 아니요. {그래 일주일 간 그래 금기줄을 치는 처 놓는 거 아니요.}

10214 # 경기쥬. {금기줄.}

10214 # 사람두 모:도개 하고. {사람도 못 오게 하고.}

10214 @ 그건 어트개 처요? {그건 어떻게 처요?}

10214 # 경기쥬런 인재 예 그기 새끼럴 이래 파: 가주고. {금기줄은 이제 예 그개 새끼를 이렇게 꼬아 가지고.}

10214 # 웬:새끼로 파 웬:새끼. {원새끼로 파 원새끼.}

10214 @ 웬:새끼로? {원새끼로?}

10214 # 오른새끼는 이래이래 꼬능 기여겨. {오른새끼는 이래 꼬는 거야.}

10214 # 웬새끼는 이래 이래 꼰능 기여. {원새끼는 이렇게 이렇게 꼬는 거야.}

10214 @ 예. {예.}

10214 # 그래 꺼 가주고 거기다 인재 꼬:치 거멍 이르게 다능 기여. {그래 꼬아 가지고 거기다 이제 고추 솟검정 이렇게 다는 거야.}

10214 # 솔립. {솔잎.}

10214 # 머 이르게도 꼬꼬. {뭐 이렇게도 꽃고.}

10214 @ 그거 저기. {그거 저기.}

10214 #1 아:더런 꼬치를 꼰넌대: 딸만 나면 수꺼멍하고 솔리파고배께 아내요. {아들은 고추를 꽃는데 딸만 나면 솟하고 솔잎하고밖에 안 해요.}

10214 # 허허. {허허.}

10214 @ 제가 지금 그거 여쭙 볼라구. {제가 지금 그거 여쭙 보려고.}

10214 #1 예:. {예.}

10214 @ 아들하구 따하구 다룽가 해가주구. {아들하고 딸하고 다룽가 해 가지고.}

10214 @ 아드른:. {아들은.}

10214 @ 아드른:. {아들은.}

10214 #1 아드른 다 꼬바요. {아들은 다 꼽아요.}

10214 #1 세 가지. {세 가지.}

10214 @ 솔립. {솔잎.}

10214 @ 그다매 꼬추. {그 다음에 고추.}

10214 # 꼬추. {고추.}

10214 # 거멍. {숯.}

10214 @ 거멍. {숯.}

10214 @ 따른 꼬추만 빼구. {딸은 고추만 빼고.}

10214 # 꼬추만 빼고 인재 두 가지만 해. {고추만 빼고 이제 두 가지만 해.}

10214 @ 예:. {예.}

10214 @ 그리구서 인재: 일주일 몬 나가개: 하자나요? {그리고서 이제 일주일 못 나가게 하잖아요?}

10214 @ 그러면 그 삼치리리라 그래능 거요? {그러면 그 삼칠일이라 그러는 거예요?}

10214 # 삼치리라 구라녕 거지. {삼칠일이라고 그러는 거지.}

10214 @ 왜 삼치리리라 그래요? {왜 삼칠일이라고 그래요?}

10214 # 아 그 그파면 사밀랄, 사밀마내도 나가야 대고. {아 그 급하면 삼일날, 삼일만에 도 나가야 되고.}

10214 # 며 이렇 기여 따지구 보면. {뭐 이런 거야 따지고 보면.}

10214 # 옴:나래. {옛날에.}

10214 @ 삼치릴 그러문 쓰 한 이시비릴 꺼 까튼대. {삼칠일 그러면 한 이십일일 거 같 은데.}

10214 @ 삼치른 이시빌. {삼칠은 이십일.}

10214 @ 이시빌쫼. {이십일쫼.}

10214 # 에이. {에이.}

10214 #1 삼치리면뇨 저: 삼 주거던뇨. {삼칠일이면요 저 삼 주거든요.}

10214 @ 예. {예.}

10214 #1 삼준대 삼 주릴 모디썰요. {삼 주인데 삼 주를 못 있어요.}

10214 #1 옴:나랜 그냥 한 니빈대 한:. {옛날엔 그냥 한 입안데 한.}

10214 #1 한 주일만 이쓰면 인재 가야, 나가야 대요. {한 주일만 있으면 이제 가야, 나가 야 돼요.}

10214 @ 이리 마:나서. {일이 많아서.}

10214 #1 그라닝개 이르게 제:가 아들 마니 나서 아픈 대가 마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 가 아이들 많이 낳아서 아픈 데가 많아요.}

10214 # 대:, 대기 바쁜 사라면 그췌 사밀마내도 나가야 디야. {되, 되게 바쁜 사람은 글췌 삼일만에도 나가야 돼.}

10214 # 사밀마내도. {삼일만에도.}

10214 @ 예:. {예.}

10214 #1 막 재 이 저 관절로 그냥 아픈 대가 마:너요. {막 이 저 관절로 그냥 아픈 데가 많아요.}

10214 # 대:개 바쁜 사라면 사밀마내도 나가야 덴다는 기여. {되게 바쁜 사람은 삼일만에도 나가야 된다는 거야.}

10214 # 옴:나랜. {옛날에는.}

10214 @ 예:. {예.}

10214 # 그 일:쫼일두 \*\*\* 망 나가야 대고 이리여. {그 일주일도 \*\*\* 막 나가야 되고 이래.}

10214 @ 할머니두 지금 며 불퍼난 대가 마느세요? {할머니도 지금 뭐 불편한 데가 많으 세요?}

10214 @ 할머니? {할머니?}

10214 #1 병위내 가 치료도 하고 \*\*\*\*. {병원에 가 치료도 하고 \*\*\*\*.}

10214 #1 이 다리가: 간절로 아프지. {이 다리가 관절로 아프지.}

10214 #1 아나푼 대가 읍썌요. {안 아픈 데가 없어요.}

10214 @ 절므셔썌 때 일: 마니 하셔서 다 그렇 거지요. {줍으셨을 때 일 많이 하셔서 다 그런 거지요.}

10214 #1 아주 기냥 머: 한 이레::도 간시니 인재 일쥬일도 간시니 이따가 나가서 인재 내가 다: 해야지. {아주 그냥 뭐 한 이레도 간신히 이제 일쥬일도 간신히 있다가 나가서 이제 내가 다: 해야지.}

10214 #1 그르니까 그냥 이 관저리 생겨 가주구 아픈텔. {그러니까 그냥 이 관절이 생겨 가지고 아픈데를.}

10214 # 바: 저러지, 내 얘기가 마자. {봐 저러지 내 얘기가 맞아.}

10214 # 사밀마내도 나가야 댜다닝개 글썌 사밀마내. {삼 일만에도 나가야 댜다니까 글썌 삼일만에.}

10214 @ 글썌요, 예. {글썌요, 예.}

10214 # 그기 삼치리리유. {그게 삼칠일이요.}

10214 # 사밀마내도 나간다 썌리지. {삼 일만에도 나간다는 썌리지.}

10214 #1 아 근대 선생님 생가캐봐유. {아 근데 선생님 생각해봐요.}

10214 #1 팔람매를 나: 노쿠 지가 먼:대 이르캐 아나푸거썌유. {팔 남매를 낳아 놓고 제가 똬데 이렇게 안 아프겠어요.}

10214 @ 그르개유. {그러게요.}

10214 #1 옴:나리라 그르캐 마:이 나 가주구. {옛날이라 그렇게 많이 낳아 가지고.}

10214 #1 지그문 그르캐 안 나차나요. {지금은 그렇게 안 낳잖아요?}

10214 #1 세장 쥬로리. {세상 쥬쥬이.}

10214 @ 요새는 머 두리나 머 마:니 나야 세시구 그르치요. {요새는 뭐 둘이나 뭐 많이 낳아야 셋이고 그렇지요.}

10214 #1 아푼 대만 망:코. {아픈 데만 많고.}

10214 #1 기냥 이레 교회를 댜기니까. {그냥 이렇게 교회를 다니니까.}

10214 #1 하나니미 경강 주셔서 이르캐 그냥 부짜꼬 사라요. {하나님이 건강 주셔서 이렇게 붙잡고 살아요.}

10214 @ 또 막 맘:두 쥬 퍼난::해야지요머. {또 막 마음도 쥬 편안::해야지요 똬.}

10214 #1 허허허. {허허허.}

10214 @ 애들 배길: 하고 돌: 하자나요? {애들 백일 하고 돌 하잖아요?}

10215 #1 예, 배길도 하고. {예, 백일도 하고.}

10215 # 그린대 우리는 원칭 옴:나라 모:싸라 가주:. {그런데 우리는 옛날에 못 살아가 지고:.}

10215 # 배길 돌도 제대로 모태조따고. {백일 돌도 제대로 못해 쥬다고.}

10215 # 지금 싸람더런 머 호화로개 하지만. {지금 사람들은 뭐 호화롭게 하지만.}

10215 # 그 머 어트개 바쁘고. {그 똬 어떻게 바쁘고.}

10215 # 사라가는데 바쁘고 해. {살아가는 데 바쁘고 해.}

10215 # 배길 돌 이렇 거 제대로 모태조. {백일 돌 이렇 거 제대로 못 해쥬.}

10215 @ 어트개 해요? {어떻게 해요?}

10215 @ 예저내는 그래도? {예전에는 그래도?}

10215 # 그: 도라오면. {그 돌아오면.}

10215 # 그래도 어:: 동네사람덜 떠케 가주 노나 머꼬. {그래도 어 동네사람들 떡해 가지고 나눠 먹고.}

10215 # 술 거통 거 바다다 노나 머꼬. {술 같은 거 받아다가 나눠 먹고.}

10215 #1 배기래는뇨. {백일에는요.}

10215 #1 선생님? {선생님?}

10215 @ 네:. {예.}

10215 #1 배기래는뇨. {백일에는요.}

10215 # 그래도 머. {그래도 뭐.}

10215 #1 백설구 마니 해요. {백설기 많이 해요.}

10215 #1 백설구. {백설기.} 10215 @ 백설. {백설기.}

10215 @ 예::. {예.}

10215 #1 배설구 아시지요? {백설기 아시지요?}

10215 @ 예. {예.}

10215 #1 하얀 백설구. {하얀 백설기.} 10215 # ㅎㅎ. {ㅎㅎ.}

10215 @ 예. {예.}

10215 #1 고고만 해요. {그거만 해요.} 10215 # 떠케 가주. {떡해 가지고.}

10215 # 하하, 노나 머꼬. {하하, 나눠 먹고.}

10215 #1 고고만 하고. {그거만 하고.}

10215 #1 인재 도:래년 인재 돌떠기래두 하지요. {이제 둘에는 돌떡이라도 하지요.}

10215 @ 애, 애: 애기한테 떡뚜 돌리라 그런다면서요? {애, 애 애기한테 떡도 돌리라고 그런다면서요?}

10215 @ ㅎㅎㅎ. {ㅎㅎㅎ.} 10215 # ㅎㅎㅎ. {ㅎㅎㅎ.}

10215 # 인재 모인 사람드란텐 그래 해 보기도 하능 거요. {이제 모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해 보기도 하는 거요.}

10215 @ 상은 어트개 차려요? {상은 어떻게 차려요?}

10215 @ 돌쌍? {돌상?}

10215 # 돌쌍은 그췌 인재 백설구 그통 거 하면. {돌상은 글췌 백설기 같은 거 하면.}

10215 # 어:: 이래 이우씨람덜 오라캐서두 줌 주고. {예 이웃사람들 오라고 해서도 줌 주고.}

10215 # 노나 주고 머 그르케 하능 거지. {나눠 주고 뭐 그렇게 하는 거지.}

10215 #1 인재 미여꿍 꼬리구. {이제 미역국 끓이고.}

10215 #1 인재 바패 가주구 인재 이르키 나너 머꼬. {이제 밥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나눠 먹고.}

10215 # 오라캐서 인재. {오라고 해서 이제.} 10215 #1 인재 가까운 인재 자기 형제나 가까운 형제드리나. {이제 가까운 이제 자기 형제나 가까운 형제들이나.} 10215 # 술 멩는 사람 이쓰문 술두 한 잔 사다 노나 머꼬. {술 먹는 사람 있으면 술도 한 잔 사다가 나눠 먹고.}

10215 @ 예:. {예.}

10215 @ 그:: 저기:: {그 저기.}

10215 @ 수수과떡 카지 안나요? {수수팔떡 하지 않아요?}

10215 # 수수과떡근 돌, 돌 때 하지 아매. {수수팔떡은 돌 때 하지 아매.}

10215 # 돌: 때. {돌 때.}

10215 @ 예. {예.}

10215 @ 돌 때. {돌 때.} 10215 # 돌 때. {돌 때.}

10215 # 돌 때. {돌 때.}

10215 @ 예. {예.}

10215 #1 돌 때요:: {돌 때요.}

10215 #1 저: 자라는 사라문요:: {저 잘하는 사람은요.}

10215 #1 무지개떡기라고 이찌요? {무지개떡이라고 있지요?}

10215 #1 백설구로 해 가주 체루 놔 가주구. {백설기로 해 가지고 켜로 놓아 가지고.}

10215 @ 아, 예예. {아, 예예.}

10215 #1 자란 사람 거 무지개떡기라고 체를 봐 가주구. {잘한 사람 그 무지개떡이라고 켜를 놓아 가지고.}

10215 # 체체로 물디리능 거 보기 조:라고. {켜켜로 물들이는 거 보기 좋으라고.}

10215 #1 파랑 거 빨강 거 노랑 거 이르케 해 가주구. {파란 거 빨간 거 노란 거 이렇게 해 가지고.}

10215 #1 인재 이르케 해서: 그래 인재 하고. {이제 이렇게 해서 그래 이제 하고.}

10215 #1 인재 수수과떡카고. {이제 수수팔떡 하고.}

10215 #1 예저내 그르케 해썬요. {예전에 그렇게 했어요.}

10215 @ 예. {예.}

10215 #1 그래 지그먼 고령 거또 하고 망 머 인, 인절미도 하고 막 부치고 그라자나요.  
{그래 지금은 그런 것도 하고 막 뭐 인, 인절미도 하고 막 부치고 그러잖아요?}

10215 #1 예저낸 그르케배끼 아내썬요. {예전엔 그렇게밖에 안 했어요.}

10215 # 지끄미나 호화롭개 하지머:: {지금이나 호화롭게 하지 뭐::.}

10215 @ 예:: {예.}

10215 #1 자라는 사라문 더러 그르케 해꼬. {잘 하는 사람은 더러 그렇게 했고.}

10215 # 살:기가 조아저쓰니까. {살기가 좋아졌으니까.}

10215 @ 음:. {음.}

10215 @ 애들 키울 때에. {애들 키울 때:}

10215 @ 애 키울 때요. {애 키울 때요.}

10215 @ 제일: 기어개 남는 이리 이썬요? {제일 기억에 남는 일이 있어요?}

10215 @ 머 애가 아파따거나 아니면 애가 머 조아서 자:래서 그래따거나 하여튼? {뭐 애가 아팠다거나 아니면 뭐 좋아서 잘해서 그랬다거나 하여튼?}

10215 # 인저 그렇 건 더러 이썬썬요. {이제 그런 건 더러 있었어요.}

10215 # 애:가 머: 기에 벌거지가 드러가 가주고. {애가 뭐 귀에 벌레가 들어가 가지고.}

10215 # 막: 날릴 치구 이런 수도 이썬꼬. {막 난리를 치고 이런 수도 있었고.}

10215 # 그라고 인재 또 디:기도 하는 수가 쪼끔 이썬꼬:. {그리고 또 데기도 하는 수가 조금 있었고.}

10215 # 어:: 인재 고런 때가 좀 낭감해썬요. {에 그런 때가 낭감했지요.}

10215 @ 어트가다가 귀애? {어떻게 하다가 귀애?}

10215 # 기개 글썄 이 옛날:: 찌번. {그게 글썄 이 옛날 집은.}

10215 # 어:: 그 지금집보담 다르자나요? {에 지금 집과는 다르잖아요?}

10215 # 이 기냥 머 별거지드리 드러갈 공간이 마:느니까. {이 그냥 뭐 별레들이 들어갈 공간이 많으니까.}

10215 # 그릉 기 드러와 가주 귀에 어트개 드러가 가주. {그런 게 들어와 가지고 귀에 어떻게 들어가 가지고.}

10215 # 바:매 날리럴 주길 때가 참 어려워쥬요. {밤에 난리를 칠 때가 참 어려웠지요.}

10215 @ 음:. {음.}

10215 @ 그래서 귀:는 안 상해쥬요? {그래서 귀:는 안 상했어요?}

10215 # 예, 안 상해쥬요? {예, 안 상했어요?}

10215 @ 아유:, 다행이내요. {아유, 다행이내요.}

10215 # 그거시 빼내 와쥬. {그것이 빼내 왔어.}

10215 #1 아니::, 제가 쥬: 기영 남능 거릴 항 가지 해 디릴까요? {아니 제가 제일 기억 남는 거를 한 가지 해드릴까요?}

10215 @ 할, 할머니께, 할머니께두 따루 또 여쭙 볼게요. {할 할머니께, 할머니께도 또 여쭙 볼게요.}

10213 #1 우리 큰따리요. {우리 큰딸이요.}

10215 @ 예, 예. {예 예.}

10213 #1 쥬: 마지가:: 어:: 그때 당시는:: 머든지: 구해짜나요? {제일 맘이가 에 그때 당시는 뭐든지 귀했잖아요?}

10215 @ 예. {예.}

10213 #1 그래 가주구서 해 달라능 거뚜 모태 주고::. {그래 가지고서 해 달라는 것도 못 해 주고.}

10213 #1 또: 머 그릉 기 마니 이쥬요. {또 뭐 그런 게 많이 있지요.}

10213 #1 근대 기영남능기 이 시장이 요기가 그저내 쫓쫓 이쥬쥬요. {근데 기억 남는 게 이 시장이 요기가 그전에 조금 있었어요.}

10213 #1 근대 점빵이 하나 인는데. {근데 가게가 하나 있는데.}

10213 #1 우리 큰딸 그 키우는데 점빵애다 제가 인재 도니 업쓰니까 모: 싸주자나요? {우리 큰딸 그 키우는데 점방애다 제가 이제 돈이 없으니까 못 사주잖아요?}

10213 #1 따라 완는데. {따라 왔는데.}

10213 #1 그래서 인재 모: 싸주니까::. {그래서 못 사주니까::.}

10213 #1 야가 해 달라능 걸 아내주니까요. {애가 해 달라는 걸 안 해주니까요.}

10213 #1 지 지가 울다가 막 이르캐 까무러치드라고요. {지 지가 울다가 막 이렇게 까무러치더라고요.}

10213 #1 그래 까물르쳐 가주 기저를 해 가주구서넌. {그래 까무라쳐 가지고 기절을 해 가지고는.}

10213 #1 이거 기냥 어트가까 시꾸 막. {이거 그냥 어떻게 될까 싶고 막.}

10213 #1 지금 병원도 만차나요? {지금 병원도 많잖아요?}

10213 #1 인재 그때 당시에는 여기 저기::. {이제 그때 당시에는 여기 저기.}

10213 #1 인재 이 양바니 알지요. {이제 이 양반이 알지요.}

10213 #1 그 대천약쭈라구 그 그: 병위니 하나 이쥬쥬요. {그 대천약수라고 그 병원이 하



나 있었어요.}

10213 #1 고 하나만 딱: 이써썌요. {그 하나만 딱 있었어요.}

10213 #1 거기럴 데리고 인재 가썌요. {거기를 데리고 이제 갔지요.}

10213 #1 가떠니마넨 인재 주사도 노코 어트개 가주 깨: 나썌요. {갔더니만 이제 주사도  
놓고 어떻게 해 가지고 깨어 났지요.}

10213 #1 지가 그때 당시에 열::매나 놀랜는지 몰라요. {제가 그때 당시에 얼마나 놀랐는  
지 몰라요.}

10213 #1 그 기어기 지금두 이써요. {그 기억이 지금도 있어요.}

10213 #1 그걸 모태썌 가지고 마:미 아프고. {그걸 못 해썌 가지고 마음이 아프고.}

10215 @ 놀래기도 하고::. {놀라기도 하고::.}

10215 @ 맘: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10215 @ 속:또 상하고 그르차나요? {속도 상하고 그렇잖아요?} 10213 #1 예:. {예:.}

10213 #1 마:미 말두 모타개 아파썌요 머. {마음이 말도 못하게 아팠지요 뭐.}

10215 @ 보모 부모드리 참 그 애들:한테 잘 모태중 거 그렇 검만 남짜너요? {부모 부모들  
이 참 그 애들한테 잘 못해준 거 그런 것만 남잖아요?}

10213 # 허허. {허허.}

10215 @ 허허. {허허.}

10213 # 그거 옴:날싸람더런 어썌 썌가 옴넝 거여. {그거 옛날사람들은 어썌 수가 없는  
거야.}

10213 # 이썌 썌 인능 기지. {있을 수 있는 거지.}

10213 #1 \*\*\*\*\* 마를 하문 말도 모타지요. {\*\*\*\*\*말을 하면 말도 못하지요.}

10213 #1 팔람매 키웅 걸 다: 얘기 하자면. {팔 남매 키운 걸 다 얘기 하자면.}

10213 #1 그린대 인재 처따리니까 기냥 고고 항 가지만 얘기해 드리능 거지. {그런데 첫  
딸이니까 그냥 그거 한 가지만 얘기해 드리는 거지.}

10213 #1 머: 옴:나랜 그리차나요? {뭐 옛날엔 그렇잖아요?}

10213 #1 옴썌 가주구. {없어 가지고.}

10215 @ 예:. {예.}

10223 @ 이재 또 나이가 게:속 들면 항가파자나요? {또 나이가 계속 들면 환갑하잖아요?}

10223 # 항가파지요. {환갑하지요.}

10223 @ 예. {예.}

10223 #1 항가분 해썌요. {환갑은 했어요.}

10223 #1 이 집 냥바는. {이 집 양반은.}

10223 #1 예휴, 인재 줌 아:들두 크구. {예휴, 이제 줌 아이들도 크고.}

10223 #1 인재 이래 나, 살:기가 썌꿈 그냥 저기하고 하니까. {이제 이래 나, 살기가 조금  
그냥 저기하고 하니까.}

10223 #1 애:드리 커서 즈:더리. {애들이 커서 저희들이.}

파일번호: 03

SCB\_YD\_03

조사내용: 구술발화-결혼생활 이야기, 시집살이; 의생활-목화, 삼 재배와 길쌈

조사지역: 충북 영동군 용산면 구촌리

제보자: 김순임(77세, 여; 돼지띠)

조사자: 박경래(세명대학교 교수)

조사일: 2011년 7월 3일

조사장소: 제보자의 집

조사시간: 1시간 26분 20초

## 1.1. 일생의례(보조 제보자의 출생과 성장)

10201 @ 할머니::는 이르미 어트개 되요? {할머니는 이름이 어떻게 돼요?}

10201 #1 김수니미요. {김순임이요.}

10201 #1 김순임. {김순임.}

10201 @ 순-임? {순임?}

10201 #1 예:. {예.}

10201 @ 이른 일곱싸리고. {일흔일곱 살이고.}

10201 @ 그러면 무슨 띠지요? {그러면 무슨 띠지요?}

10201 # 돼:지띠. {돼지띠.}

10201 @ 돼지띠. {돼지띠.}

10201 @ 학교는 어트개 다니셔썬요? {학교는 어떻게 다니셨어요?}

10201 #1 저넌 학교도 안 땡기썬요. {저는 학교도 안 다녔어요.}

10201 @ 학교 안 다니시고. {학교 안 다니시고.} 10201 #1 예. {예.}

10201 #1 학교::럴 나럴 땡기개꿈 대:, 해:도 되넌대 우리 어머니가 엔:나라라 그라넌가.  
{학교를 나를 다니게끔 해도 되는데 우리 어머니가 옛날이라고 그랬는지.}

10201 #1 여자가 머 그르개 그렁 거 해서 머 하냐고. {여자가 뭐 그렇게 그런 거 해서 뭐 하냐고.}

10201 #1 안 학, 해교를 암 보내 주드라구요. {안 학(교), 학교를 안 보내 주더라고요.}

10201 @ 네:. {네.}

10201 #1 그래서 전 머 안 땡기썬요. {그래서 전 뭐 안 다녔어요.}

10201 #1 학교럴. {학교를} 10201 # 엔:나랜 그릴 때여. {옛날엔 그릴 때야.}

10201 #1 예, 땡기넌 사라먼 땡기썬마넌. {예, 다니는 사람은 다녔지만.}

10201 #1 예, 저넌 학교애도 안 땡기썬요. {예, 저는 학교애도 안 다녔어요.}

10201 @ 저 하교갈 때두 여자애드른 잘 암 보낸대요, 머. {저 학교 갈 때도 여자애들은 잘 안 보냈는데요, 뭐.}

10201 #1 으: 그기 잘 안보내주드라고. {응 그게 잘 안 보내 주더라고.} 10201 # 그저넌  
여자더런 어짜다 땡기요. {그전에는 여자들은 어찌다 다녀요.}

10201 # 돈: 줌 인는 사람드른 보내고. {돈 줌 있는 사람들은 보내고.}

10201 @ 예:. {예.}

10201 # 그 등록금두 내고. {그 등록금도 내고.}

10201 @ 예. {예.}

10201 # 그래야 되니까. {그래야 되니까.}

10201 @ 예. {예.}

10201 # 수업료 내야 되고. {수업료 내야 되고.}

10201 @ 예:. {예.}

10201 # 그래 가주 여가내 암 보내써. {그래가지고 여간해 안 보냈어.}

10201 #1 해해해. {해해해.}

10201 @ 할머니 맨: 처매 겨로내쓸 때::: {할머니 맨 처음에 결혼했을 때:::}

10201 #1 예. {예.}

10201 @ 시댁식구 누구누구 이써썩요? {시댁 식구 누구누구 있었어요?}

10201 #1 시댁쓰꾸애:: 인재:: 시 저:기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 계시고요. {시댁식구에 이제 저기 우리 시어머니 시아버지 계시고요.}

10201 #1 저 낭바나고 인재 저우리 시:동상아고 고르케 니:씨꾸드라고요, 오니까. {저 양반하고 우리 시동생하고 그렇게 네 식구더라고요, 오니까.}

10201 #1 니:씨꾸 사시는데 우리:: 아번니미 시아번니미 애: 오니까 아주 마니 아프시드라고요. {네 식구 사시는데 우리 아버님이 오니까 아주 많이 아프시더라고요.}

10201 #1 마:니 아프시 가주구 저 온 두 달마내 도라가서썩요. {많이 아프셔가지고 제가 온 두 달만에 돌아가셨어요.}

10201 @ 음. {음.}

10201 #1 인재: 사변나:는 고이드매 제가 와꺼던요. {이제 사변나던 그 이듬해 제가 왔거든요.}

10201 #1 저 열려서 쌀 머거서 사버니 나썩요. {저 열여섯 살 먹어서 사변이 났어요.}

10201 #1 사버니, 열려서 쌀 머거서 사변 난는데. {사변이 열여섯 살 먹어서 사변이 났는데.}

10201 #1 인재 그 이 지비 폭파내 인재 이기 다: 막꼬:. {이제 그 이 집이 폭탄에 이제 이게 다 맞고.}

10201 #1 인재 기냥: 임시루 흑짱으루 이르게 지불 지: 가주구서. {그냥 임시로 흠장으로 이렇게 집을 지어 가지고.}

10201 #1 그래 사시더라고요. {그렇게 사시더라고요.}

10201 #1 어 인재 아번니미 편차나 가주 두러누시썩꼬. {이제 아버님이 편찮아 가지고 드러누우셨었고.}

10201 #1 그래서 인재 그냥 그르키 사라썩요 머. {그래서 그냥 그렇게 살았지요 뭐.}

10201 #1 허허허. {허허허.}

10201 @ 처:매요? {처음에요?}

10201 #1 예. {예.}

10201 #1 그 와 가주구 인재 그르케 사:는데 폭타내 마자 가주 사:닝께. {그 와 가지고 그렇게 사는데 폭탄에 맞아 가지고 사니까.}

10201 #1 온:, 오니까루 머:: 머가: 머가 이썩요? {오니까 뭐 뭐가 뭐가 있어요?}

10201 #1 폭탄 마꾸. {폭탄 맞고.}

10201 #1 그냥 식꾸덜만 사라 가주 인는데. {그냥 식구들만 살아 가지고 있는데.}

10201 #1 그래니께 인재 요래 이런 상이 옛날 상 똥그렁 거 이짜나요? {그러니까 이제 이래 이런 상 옛날 상 똥그란 거 있잖아요?}

10201 #1 쪼마::난 똥그란 상이 인는데. {조그마한 똥그란 상이 있는데.}

10201 #1 고기다가 인재 이르께 또 내 홀목꺼치 요로케 가농 겐로. {고기다가 이제 이렇게 또 내 손목같이 이렇게 가는 것으로.}

10201 #1 인재 요로케 네:, 네:구덩이다가 네꾸덩이애다가 요로케 인재 요로케 지동얼 해 가주구. {이제 요렇게 네 네구더이다가 네 구덩이애다가 요렇게 이제 요렇게 기둥을 해 가지고.}

10201 #1 요로케 마라자면 고 상얼 고로케 쪼마::난 상애다가 고로케 해 가주구 잡썰떠라 고요. {요렇게 말하자면 그 상얼 고렇게 조그마한 상애다가 고렇게 해 가지고 잡수시더라고요.}

10201 #1 사변 나고 인재 고 이듬 와쓰이 머가 이썬요? {사변 나고 그 이듬해 왔으니 뭐가 있어요?}

10201 #1 그래서 장:도 인재: 거 폭탄 마즌: 장:인데. {그래서 장도 이제 그 폭탄 맞은 장인데.}

10201 #1 재:장이더라고요. {재장이더라고요.}

10201 #1 장:이. {장이.}

10201 #1 재가 막 그이. {재가 막 거기.}

10201 #1 이 지비 옛날: 인재 초가찌비라서 거기 타짜나요? {이 집이 옛날 초가집이라서 그게 탔잖아요?}

10201 #1 그래니께 인재 그 장팡이 인재:. {그러니까 이제 그 장독대가 이제.}

10201 #1 막 이기 지비 폭탄 마자 타쓰닝께. {막 이게 집이 폭탄 맞아 탔으니까.}

10201 #1 장팡애 인재 모도 어트개 뿌서전는지. {장독대에 이제 모두 어떻게 부서졌는지.}

10201 #1 어트개 헐는지. {어떻게 했는지.}

10201 #1 그냥 그기: 그 이르께 거더내, 재릴 거더내썬두 그 장애 소:개 재장이 좀 드러 가주 이썬요. {그냥 그게 여기 이렇게 걸어내, 재를 걸어냈어도 그 장애 속에 재장이 좀 들어 가지고 있어요.}

10201 #1 근도 엄쓰닝께 인재 그거래도 머거야지 어트가거썬요. {그런데 없으니까 이제 그거라도 먹어야지 어떻게 하겠어요.}

10201 #1 개서 인재 그래 그 재장얼 이제 머꾸. {그래서 이제 그래 그 재장을 이제 먹고.}

10201 #1 머: 캐: 피란::내 그런 재 이르께 와 가주구 이르께 사닝께 모:등 기 다: 부조캉개 만치요 인재. {뭐 이렇게 피란에 그런 이제 이렇게 와 가지고 사니까 모든 게 다 부족한 게 많지요.}

10201 #1 살:자면. {살자면.}

10201 #1 인재 그르께 기양 사:능 게. {이제 그렇게 그냥 사는 게.}

10201 #1 해해. {해해.}

10201 #1 그르께 사라썬요. {그렇게 살았어요.}

10201 #1 고래 살다 보닝께 인재.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제.}

10201 #1 참 쪼끔씩 이래 나사저 가주구 이르께 기냥 사라썬요. {참 조금씩 이렇게 나아져 가지고 이렇게 그냥 살았어요.}

10201 #1 사:는데 그르께 예저내: 이르께 멍녕 기 그썬 그러는재:. {사는데 그렇게 예전에

이렇게 먹는 게 글썽 그러는지.}

10201 #1 버리, 그런 버리꼬개라구 이써 가주구서. {보리, 그런 보릿고개라고 있어 가지고.}

10201 #1 인제 그:: 버리가 엉가::니 인제 이르케 이그먼. {이제 그 보리가 웬간히 이제 이렇게 익으면.}

10201 #1 고거털 뜨더다가 인제 쪼끔 살살 보까요. {그거를 뜯어다가 이제 조금 살살 볶아요.}

10201 #1 소태다가. {술에다가.}

10201 #1 소태다가 인제 보꾸만 그제 인제 점 요리케 어느 정도 저기 말릴 정도가 대지요. {술에다가 이제 볶으면 그제 좀 이렇게 어느 정도 저기 마를 정도가 되지요.}

10201 #1 그라문 고거털 도구통애다 쿵쿵 안 찌꾸 살짝살짝살짝 찌어요. {그러면 그것을 절구애다 쿵쿵 안 찼고 살짝살짝살짝 찼어요.}

10201 #1 그라문 꺼꾸리 쪼끔 버껴저만. {그러면 껌질이 조금 벗겨지면.}

10201 #1 그걸로 인제 이르케 밥또 해 머꼬. {그걸로 이제 이렇게 밥도 해 먹고.}

10201 #1 인제 걸 또 매:찌 가주고서루 버리떠기라구 또 인제 그거털. {이제 그걸 또 매쪼어 가지고서 보리떡이라고 또 이제 그것을.}

10201 #1 그 찌:면 차지자나요? {그 찌으면 차지잖아요?}

10201 #1 그래서 그걸 버리떠기라고 그거뚜 해 머꼬. {그래서 그걸 보리떡이라고 그것도 해 먹고.}

10201 #1 밀:도 인제 이르케 그거뚜 밀도 인제 또 마:니 이경 거 아나고 어지가::니 이궁 거털 인제 뜨더다가 인제 그거뚜 버리처럼 그르케 인제 살살살 보켜 가주구선 인제 그래 그걸루 이르케 이 찌:면 그제 인제 그개: 밀:떠기 대지요, 인제. {밀도 이제 이렇게 그것도 밀도 이제 또 많이 익은 거 안 하고 어지간히 익은 것을 이제 뜯어다가 이제 그것도 보리처럼 그렇게 살살 볶아가지고 그래 그걸로 이렇게 찼으면 그제 이제 그제 밀떡이 되지요, 이제.}

10201 #1 그래 가주구 인제 그걸루 그래 머꼬. {그래 가지고 이제 그걸로 그래 먹고.}

10201 #1 그 피라내 와 가주 그르케 살라구 하니께 그키 마:니 힘들더라고요. {그 피란에 와 가지고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그렇게 많이 힘들더라고요.}

10201 #1 아:주 기냥. {아주 그냥.}

10201 @ 머 아무 거뚜 얹는데 그개 얼마나 힘들게써요?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개 얼마나 힘들겠어요?}

10201 #1 예::, 머 다: 타 가주구유. {예, 뭐 다 타 가지고요.}

10201 #1 아무 거뚜 웅꾸 그개 힘들더라고요. {아무 것도 없고 그렇게 힘들더라고요.}

10201 #1 그 힘드르케 사란는데. {그렇게 힘들게 살았는데.}

10201 #1 그기 인제: 그 쑥또 인제 이르케 뜨더다가::. {그 이제 그 쑥도 이제 이렇게 뜯어다가.}

10201 #1 인제: 가루하고 찌 가주구서 콩얼 인제 당과서 인제 그걸 꼬리개 인제 매이다 타요. {이제 가루하고 찼어 가지고서 콩을 담궜서 이제 그걸 끓이게 이제 맷돌에 다가 타요.}

10201 #1 이르케: 그 맷토리 이짜나요? {이렇게 그 맷돌이 있잖아요?}

10201 #1 거기다가 인제 그걸 가려다가 인제 거기다 쿵, 주걸 꼬리면. {거기다가 이제 그

걸 갈아다가 이제 거기다 콩, 죽을 끓이면:}

10201 #1 밀가루하:고 인제 쭈파고 찌: 가주구서. {밀가루하고 이제 쭈하고 찜어 가지고서.}

10201 #1 그래 요래요래 수지비럴 인제 콩주개다가 인제 그래 느:요. {그렇게 요래요래 수제비를 콩죽에다가 이제 그렇게 넣어요.}

10201 #1 그래 가주구 그거럴 인제 쌀 쪼:꿈 느쿠. {그래 가지고 그거를 이제 쌀 조금 넣고.}

10201 #1 그래 해 가주구 그걸 인제 수제비. {그렇게 해 가지고 그걸 이제 수제비.}

10201 #1 콩죽수제비라구 그래 해 가주구 그래두 머꾸. {콩죽수제비라고 그래 해가 지고 그래도 먹고.}

10201 #1 인제 그라다가 살:다 보닝개 인제 이런 가:미 나자나요. {그러다가 살다가 보니까 이제 이런 감이 나잖아요.}

10201 #1 또 가:미. {또 감이.}

10201 #1 이런 감나무에 가미 나만. {이런 감나무에 감이 나면.}

10201 #1 가:문 인제 이르캐 사과탈 때는 몸: 머꾸. {감은 이렇게 사과탈 때는 못 먹고.}

10201 #1 어지가::니 이그만. {어지간히 익으면.}

10201 #1 그 버리농사럴 지 가주구서 인제. {그 보리농사를 지어 가지고서 이제.}

10201 #1 저: 방애까내 가서 인제 그거럴 찌:면. {저 방앗간에 가서 그거를 찜으면.}

10201 #1 인제 엉가::니 씨쿠. {이제 어지간히 이제 씻고.}

10201 #1 인제: 고기: 널: 찜도가 대:면. {이제 그제 널 정도가 되면.}

10201 #1 그 인제 가루가 나와요. {그 이제 가루가 나와요.}

10201 #1 고거 엉가:니 널 찜도 델 때. {그거 어지간히 널 정도 될 때.}

10201 #1 그래 인제 버리카루럴 으:- 그 :버리쌀 가루럴 그거럴 내 가주구. {그래 보릿가루를 음 그 보리쌀 가루를 그거를 내 가지고.}

10201 #1 가명가니 이궁 거하구. {감 어지간히 익은 거하고.}

10201 #1 어: 인제 이르캐 가:덜 찌: 가주구서. {에 이제 이렇게 감을 찜어 가지고서.}

10201 #1 그 또 인제 가루럴 쪼끔 인제 써꺼 가주구 그래 인제 그거하구 인제 이래 주구. {그 또 이제 가루를 조금 이제 섞어 가지고 그래 이제 그거하고 이제 이렇게 주고.}

10201 #1 밀가루두 인제 그 밀가루럴 인제. {밀가루도 이제 그 밀가루를 이제.}

10201 #1 또 좀 고웅거:넌 인제 또 따루 해 노코. {또 좀 고운 것은 이제 또 따로 해 놓고.}

10201 #1 이제 또 좀 이르캐 세, 센, 세:절로 빼요. {이제 또 좀 이렇게 세 세 세 가지로 빼요.}

10201 #1 밀가루를 멘지 농사징거럴 빼면. {밀가루를 \*\* 농사 지은 것을 빼면.}

10201 #1 그람 세끼로 하만. {그러면 세 가지로 하면.}

10201 #1 그때두: 인제 예:저내넌 그리트라고요. {그때도 이제 예전에는 그렇더라고요.}

10201 #1 인제 이르캐 남자더른: 좀 인제 쪼끔 인제 종: 걸루 주고. {이제 이렇게 남자들은 좀 이제 조금 이제 좋은 걸로 주고.}

10201 #1 우리 여자더런 인제 좀 그: 인제 흙물가루 이렇 걸루 또 국쭈 해 가주구. {우리 여자들은 이제 좀 그 후물가루 이런 걸로 또 국수 해 가지고.}

10201 #1 그래서도 머꼬. {그래서도 먹고.}

10201 #1 그 사:능 개 그르케 예:저넨 그르케 사라썌요. {그 사는 게 그렇게 예전에 그렇게 살았어요.}

10201 #1 그라고 꼬추농사두 어디 지금거치 그르케 마:능가요? {그리고 꼬추농사도 어디 지금같이 그렇게 많은가요?}

10201 #1 어디. {어디.}

10201 #1 그람 꼬추농사 그르케 만:치 아느만. {그러면 꼬추농사 그렇게 많지 않으면.}

10201 #1 인재 쪼끔 인재 꼬추 거통 거 이르케 인재 농사지서 인재 하먼. {이제 조금 이제 꼬추 같은 거 이렇게 농사 지어서 하먼.}

10201 #1 꼬치장두 두 가지로 다마 가주구서 인재 그래. {꼬추장도 두 가지로 담귀 가지고 그래.}

10201 #1 인재 쪼 손니미나 오고. {이제 쪼 손님이나 오고.}

10201 #1 인재 이르케 쪼 남자덜 오쪼 이르케 쪼 두 아지루 다마 가주구 인재. {이제 이렇게 쪼 남자들 옷쪼 이렇게 쪼 두 가지로 담귀 가지고.}

10201 #1 해해해. {해해해.}

10201 #1 그래 가주구 인재 남자드라고 손니물 땀 조웅 걸루 노쿠. {그래 가지고 이제 남들하고 손님 올 때는 좋은 걸로 놓고.}

10201 #1 인재 우리드른 그냥 이르케 머꼬. {우리들은 그냥 이렇게 먹고.}

10201 #1 그 예지 그르케 사라썌요. {그 예전에 그렇게 살았지요.}

10201 #1 그저내는. {그전에는.}

10201 @ 아까 저 후물까루라 하능개? {아까 저 후물가루라 하는 게?}

10201 @ 밀까루::를 찌어서:? {밀가루::를 찢어서:?}",

10201 @ 가루가, 가루를 조은 고운 가루를 빼구 뒤에 나오는 거 그걸 후물까루라 그러는 거예요? {가루가, 가루를 좋은 고운 가루를 빼고 뒤에 나오는 거 그걸 후물가루라고 그러는 거예요?}

10201 #1 예: 디애 꺼요. {예 뒤에 (나오는)거요.}

10201 #1 거기는 밀찌우리라구 또 이썌요. {거기는 밀기울이라고 또 있어요?}

10201 @ 빨:경 거. {붉은 거.}

10201 #1 예: 그 쥬:: 흙:물, 세 가지거덩요. {예 제일 후물, 세 가지거든요.}

10201 #1 인재 처매:: 빼면 쪼 이게 그 밀껍데기가 나오기 때매 쪼 빨궁 개 나오거덩뇨. {처음에 빼면 쪼 이게 그 밀껍데기가 나오기 때문에 쪼 붉은 게 나오거든요.}

10201 #1 그럼 빨구르망 그거넨 인재 이르케 또 막. {그러면 붉으스름한 그거는 이제 이렇게 또 막.}

10201 #1 그: 왜 밀 그르케 이르케 밀 빠수녕 개 이짜너요? {그 왜 밀 그렇게 이렇게 밀 빵는 게 있잖아요?}

10201 #1 그람 거 가서 인재 밀:개가 이썌요. {그러면 거기 가서 이제 고무래가 있어요.}

10201 #1 그라먼 그걸루 끌거내요. {그러면 그걸로 긁어내요.}

10201 #1 얼렁. {얼른.}

10201 #1 슬쩍 빠스러질 때 그걸 끌거내고. {슬쩍 부서질 때 그걸 긁어내고.}

10201 #1 그 인재 빠스먼 그르내 그기: 조:웅 가루가 나와요. {그 이제 빵으면 그런데 그 게 좋은 가루가 나와요.}

10201 #1 뽕:양 개. {보양 개.}

10201 #1 고고 인재 따루 하고. {고고 이제 따로 하고.}

10201 #1 또 인재 또 또 쪼꿈 인재 더 빠수면. {또 이제 또 또 조금 더 빵으면.}

10201 #1 인재 고: 두말까루가 좀 뽕궁 개 나오지요. {이제 그 두말가루가 좀 붉은 게 나오지요.}

10201 #1 인재 뽕 뽕구루망 그거 인재 또 따루 하고. {이제 붉 붉으스름한 그것은 이제 또 따로 하고.}

10201 #1 그 밀:찌우리라고 이썬요. {그 밀기울이라고 있어요.}

10201 #1 건대 밀찌우리라고 인는데 그건 밀찌 그 인재 찌끄리넌 밀찌우리대 그거털 인재 저: 가:밀 저런 감: 뽕그루말 때 고고털 그렁 거 인재 따든지 준 이르게 떠러징 걸 줍던지 해 가주구 밀찌우리대다가 인재 고 가:밀 콕콕 찌 가주구서 그래 인재 이르게 해 가주구 애:덜 주구. {그런데 밀기울이라고 있는데 그건 밀기(울) 그 찌끄러기는 밀기울인데 그거를 이제 저 감을 저런 감 붉으스름할 때 고것을 그런 거 이제 따든지 줍(던지) 이렇게 떨어진 것을 줍던지 해 가지고 밀기울에다가 그 감을 콕콕 찢어가지고서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 주고.}

10201 @ 그거 이르미 따로 이썬요 그거? {그거 이름이 따로 있어요 그?}거

10201 #1 그기: 인재: 거시기 저 인재 감::, 감떠기라 구러지. {그게 이제 거시기 저 이제 감, 감떡이라 그러지.}

10201 #1 감떡. {감떡.}

10201 #1 허허. {허허.}

10201 #1 감떠기라구 해 가주구 그르케 해 머거떠요. {감떡이라 해 가지고 그렇게 해 먹었어요.}

10201 @ 예:. {예.} 10201 #1 예:. {예.}

10201 #1 그: 그르케: 여러 가지털 해서:: 먹따 보닝개 그르케 머께 대더라고요. {그 그렇게 여러 가지를 해서 먹다가 보니까 그렇게 먹게 되더라고요.}

10201 @ 여기가 가:미 마:니 나오는 데니까 인재 그르케? {여기가 감이 많이 나오는 데니까이제 그렇게?}

10201 #1 예: 예. {예 예.}

10201 @ 그러면 그 그 감 떠 떠 뜰봉 건 업써저요? {그러면 그 그 감 뽕 뽕 뽕은 건 없어요?}

10201 #1 예, 쪼:면 업써저요. {예, 찌면 없어요.}

10201 #1 왜 예:저내 삭까루 이짜나요? {왜 예전에 사카린 있잖아요?}

10201 @ 예. {예.}

10201 #1 삭까루털 인재: 무래다 타 가주구 쪼꿈 써꺼 가주 버무리지요, 인재. {사카린을 이제 물에다 타 가지고 조금 섞어 가지고 버무리지요 이제.}

10201 #1 그 밀찌우리대다가. {그 밀기울에다가.}

10201 #1 그래서 써꺼 가주구서 그래서 찌면. {그래서 섞어 가지고 그래서 찌면.}

10201 #1 인재 그거를 이르게 뭉치 가주구 애:덜 주면 그 잘 머거요. {그거를 이렇게 뭉쳐 가지고 애들 주면 그렇게 잘 먹어요.}

10201 #1 애:더리. {애들이.}

10201 #1 떠기라고, 허허. {떡이라고, 허허.}



10201 #1 예, 그르캐 머꾸. {예, 그렇게 먹고.}

10201 #1 인재 그기:: 이르캐 해 가주 사:능 거넌 그기 일리리 다 말 모태요. {그게 이렇게 해 가지고 사는 것은 그것은 일일이 다 말 못해요.}

10201 #1 예저내 그르키 산 생가글 해 보면. {예전에 그렇게 산 생각을 해 보면.}

10201 @ 이거 머 제 제쳐래 머끼 어려우니까 그냥 미리두 줌 이끼두 저내 뜨더다 머꾸 머 이러자나요? {이거 뭐 제철에 먹기 어려우니까 그냥 미리도 좀 익기도 전에 뜯어 다 먹고 뭐 이러잖아요?}

10201 #1 그러묘, 예:. {그럼요, 예.}

10201 @ 아까 저: 저:기 머야? {아까 저 저기 뭐야?}

10201 @ 수 수수:? {수 수수:?}",

10201 @ 쭈수때 그거? {수수깡 그거?} 10201 #1 쭈쭈때, 예. {수수깡, 예.}

10201 @ 그건? {그거?}

10201 #1 부지러 가주구. {부러뜨려 가지고.}

10201 @ 부지러 가주구 이르캐 저기 홀통 거뚜 결구근? {부러뜨려 가지고 이렇게 저기 훑은 것도 결국은?}

10201 #1 그건 나라그루 인재. {그런 나락을 이제.}

10201 @ 예. {예.}

10201 #1 예, 쌀라라 쌀라오는 나라글 그걸루 홀터 가주구. {예, 쌀나락, 쌀 나오는 나락을 그걸로 훑어 가지고.}

10201 #1 인재 방애애다 찌서 얼렁 얼렁 머걸라거. {이제 방아애다 찢어서 얼른 얼른 먹으려고.}

10201 #1 인재 그릭, 그리캐. {이제 그렇(게) 그렇게.} 10201 @ 머라구요? {뭐라고요?}

10201 # 초련 멍는다 그래. {초련 먹는다고 그래.}

10201 # 초련. {초련.} 10201 #1 예, 초련. {예, 초련.}

10201 @ 초련:? {초련?}

10201 #1 예:. {예.}

10201 # 초련. {초련.}

10201 @ 저 그말두 지금 침: 드러보능 건대요. {저 그 말도 지금 처음 들어보는 건데요?}

10201 #1 예. {예.}

10201 #1 초려는 인재::. {초련은 이제::.}

10201 #1 초, 초려내:. {초련에.} 10201 # 쟈: 츠:매 할찌개. {제일 처음에 할 적에.}

10201 #1 초려내 멍넌:: 거럴 인재: 업씨 살다 보니까. {초련해 먹는 거를 이제 없이 살다가 보니까.}

10201 @ 네. {네.}

10201 #1 초련 멍는 방애럴 인재 그르캐 가주 찌서 먹찌요. {초련 먹는 방아를 이제 그렇게 해 가지고 찢어서 먹찌요.}

10201 #1 방애까내 가서. {방앗간에 가서.}

10201 # 초려니라 고란다고. {초련이라고 그런다고.}

10201 # 츠:매 그래 홀터 가주구 해문. {처음에 그렇게 훑어 가지고 하면.}

10201 #1 예. {예.}

10201 @ 예:. {예.}

10201 @ 그걸 초런 멍는다 그래요? {그걸 초런 먹는다 그래요?}

10201 #1 예. {예.}

10201 #1 예, 초런 머걸 때 그리케 해 가주 먹지요. {예, 초런 먹을 때 그렇게 해 가지고 먹지요.}

10201 #1 그거 얼렁 머 얼렁 익절: 모타자나요. {그거 얼른 뭐 얼른 익지를 못하잖아요?}

10201 #1 배가 고프고 하니께. {배가 고프고 하니까.}

10201 #1 그걸 인재 홀터다가 이거 홀찌깨라구 그래요. {그걸 이제 훑어다가 이것을 벼훑이라고 그래요.}

10201 @ 예. {예.}

10201 #1 예, 그 홀찌깨 인재 쑈수때로 맨드롱 기 그기 홀찌깨요. {예, 벼훑이 수수깡로 만든 게 그게 벼훑이요.}

10201 @ 예, 홀찌깨. {예, 벼훑이.}

10201 #1 예:, 홀트, 홀룬다고 홀찌깨라구 구라대요. {예:, 훑는다고 벼훑이라고 그러데요.}

10201 @ 예 예. {예 예.}

10201 #1 예, 이르케 하고. {예, 이렇게 하고.}

10201 #1 인재 그:: 방해두 인재 찌:면 그거 인재 그거두 버리쌀 다: 나올 때 그거 내놓 거 인재 그 버리쌀 내고:. {이제 그 방아도 이제 찢으면 그거 인재 그것도 보리쌀 다 나올 때 그거 나온 거 이제 그 보리쌀 내고.}

10201 #1 이랄 때 나오능 거 그걸루 인재 애:덜 사까루 느: 가주구. {이럴 때 나오는 거 그걸로 애들 사카린 넣어 가지고.}

10201 #1 이래 또 그걸루 또 이르케 개:떠글 또 만드러 가주구. {이제 또 그걸로 또 이렇게 개떡을 또 만들어 가지고.}

10201 #1 그래두 주구:. {그래도 주고.}

10201 #1 그르케 사라썩요. {그렇게 살았어요.}

10201 #1 사:능 기. {사는 게.}

10201 #1 ㅎㅎㅎ. {ㅎㅎㅎ.}

10201 #1 그라다가 내털두 크구::. {그러다가 애들도 크고.}

10201 #1 인재 모두 인재 공부두 이래 갈치구 하니께 즈더리 다: 나가서 살구. {이제 모두 이제 공부도 이렇게 가르치고 하니까 자기들이 다 나가서 살고.}

10201 #1 인재 이래 사:니께 애:더리 돈 조 가주 인젠 이르케 사라요. {이제 이렇게 사니까 애들이 돈 쥐 가지고 이제 이렇게 살아요.}

10201 #1 허허허. {허허허.}

10201 @ 할머니 절머썰 때 고생하셔쓰니. {할머니 젊었을 때 고생하셨으니.}

10201 #1 예:. {예.}

10201 @ 인젠 머:: 노녀내는 쪼:꿈 그래두 맘: 퍼나개 이쓰셔야지. {이제 뭐 노년에는 조금 그래두 마음 편하게 있으셔야지.}

10201 #1 예:. {예.}

10201 #1 아이, 피라내 머. {아이, 피란에 뭐.}

10201 #1 장녀내:: 인재 사... {작년에 이제 사...}

10201 #1 저기: 피라 머: 다 타빠리고 아::무 거뚜 움넨대. {저기 피란 뭐 다 타버리고 아무 것도 없는데.}

10201 #1 오니께 글썽 그냥 흐그루 지벌 만드러 가주. {오니까 글썽 그냥 흠으로 집을 만  
들어 가지고.}

10201 #1 흑짱지불 지코:. {흑장집을 짓고.}

10201 #1 요: 아내만 요래 발라 가주 살더라고요. {요 안에만 이렇게 발라 가지고 살더라  
고요.}

10201 #1 요래 아내만. {이렇게 안에만.}

10201 #1 아내만 인재 발라 가주 그래 살구. {안에만 발라 가지고 그렇게 살고.}

10201 #1 우리 인재 아번니먼 그르케 펜차느시 가주구 인재 계시는데. {우리 이제 아버님  
은 그렇게 편찮으셔 가지고 이제 계시는데.}

10201 #1 머:: 우리 사춘 시아즈바이가 야꾸걸 하는데. {뭐 우리 사춘 시아주버니가 약국  
을 하는데.}

10201 #1 그 야글 암만 지:다 써도 안 드시고. {그 약을 아무리 지어다 써도 안 들고.}

10201 #1 그래 들떨 아나드라고요. {그래 (약이) 듣지를 앓더라고요.}

10201 #1 그래 가주구서 인재 저 온 두: 달마내 도러가시썸. {그래 가지고서 저 온지 두  
달만에 돌아가셨어}

10201 @ 워나개 머: 그: 예전 어르신드리 드시능 거뚜:: 만 만 모뜨시지::. {워낙에 그 예  
전 어르신들이 드시는 것도 많 많이 못 드시지.}

10201 @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지. {고생은 고생대로 하시지.}

10201 #1 예:. {예.}

10201 @ 그런데다가 머 치료::나 재대로 되께썸요? {그런데다가 뭐 치료나 제대로 되었겠  
어요?}

10201 @ 그르니깐. {그러니깐.}

10201 #1 사머 그전 저뿌니 아니라. {사뭇 그전 저뿐만 아니라.}

10201 #1 제 또래나 저 우칭이나 이래 그 머: 다: 그르케 고생하고 사라짜나요. {제 또래  
나 저 위층에나 이렇게 그 뭐 다 그렇게 고생하고 살았잖아요.}

10201 #1 지금 우리 미태칭::서부터먼. {지금 우리 밑에층서부터는.}

10201 #1 인재 가마니 보먼 그런: 경얼 안 재끼썸요. {가만히 보먼 그런 경우를 안 겪었  
지요.}

10201 #1 우리 우칭하구 저하구넌 그런 경령얼 지끼찌마는. {우리 위층하고 저하고는 그  
런 경험을 겪었지만은.}

10201 #1 우리 미태 칭더런 그렁 걸 몰루구 사라썸요. {우리 밑에 층들은 그런 걸 모르고  
살았지요.}

10201 #1 고 미태서부터 차차차차 지끔까지 인재 그랭개 업썸요. {그 밑에서부터 차차차  
차 지금까지 그런 게 없지요.}

10201 @ 조아저썸요. {좋아졌지요.}

10201 #1 예:. {예.}

10201 @ 하라버지 그르신대 팔람매라 그르셔짜나요? {할아버지가 그러셨는데 팔 남매라  
그러셨잖아요?}

10201 @ 아까 할머니두? {아까 할머니도?} 10201 #1 예예. {예예.}

10201 #1 팔람. {팔 남(매).} 10201 @ 지금 다 어디: 어디 가:서 사라요? {지금 다 어디  
어디 가서 살아요?}

10201 #1 지금 인재 저기 저:: 이천:, 이천 가서 이썬요. {지금 이제 저기 저 이천, 이천 가서 있어요.}

10201 #1 우리 네째 아더리. {우리 넷째 아들이.}

10201 @ 예:. {예.}

10201 #1 이천:: 거기 가서 인재 그: 현대자동차에 인재 거기 가서. {이천 거기 가서 그 현대자동차에 이제 거기 가서.}

10201 #1 기냥 밤 머꼬 살가요. {그냥 밥 먹고 살아요.}

10201 #1 그라고 우리 큰따른, 이 켈: 큰따리 저:: 대구. {그리고 우리 큰딸은, 이 제일 큰 딸이 저 대구.}

10201 #1 대구 살:고. {대구 살고.}

10201 #1 개 서저마고 사라요. {개 서점하고 살아요.}

10201 #1 대전서. {대전서.}

10201 #1 그라고 인재 우리 크나더리: 인재 우리 딸미태가 인재 크나더린대. {그리고 이제 우리 큰아들이 이제 우리 딸 밑에가 큰아들인데.}

10201 #1 대전 사라요. {대전 살아요.}

10201 #1 대전 그 으나수 아빠트애 가 살거던요. {대전 그 은하수 아파트에 가 살거든요.}

10201 #1 거기 사:는대. {거기 사는데.}

10201 #1 거기서 인재: 대전교도소라카능대 거기 이썬요. {거기서 이제 대전교도소라고 하는데 거기 있어요.}

10201 #1 예. {예.}

10201 @ 교도관:이싱가? {교도관이신가?}

10201 #1 예, 교도가내 거기 이꾸. {예, 교도관으로 거기 있고.}

10201 #1 우리 두째 딸도 인재 대저니꾸요. {우리 둘째 딸도 이제 대전 있고요.}

10201 #1 근대 우리 세 우리 세:째 아더런 대구인넌대. {그런데 우리 세 셋째 아들은 대구 있는데.}

10201 #1 대구 가 이썬요. {대구에 가 있어요.}

10201 #1 우리 세째 아들두. {우리 셋째 아들도.}

10201 #1 대구 가 이꼬:. {대구 가 있고.}

10201 #1 인재 우리:: 망내따른 저:: 부여라는대 가서 이썬요. {우리 막내딸은 저 부여라는 데 가서 있어요.}

10201 @ 충남? {충남?}

10201 #1 예, 그라고 인재 우 아덜로 해서 망내가 여기 유성기어배 취지캐 가주. {예, 그리고 아들로 해서 막내가 여기 유성기업에 취직해 가지고.}

10201 #1 그래 땡기구. {그래 다니고.}

10201 @ 다: 머 잘. {다 뭐 잘.}

10201 #1 예, 기냥. {예, 그냥.}

10201 @ 계시내요? {계시내요?}

10201 #1 예:, 애:더리 예 기냥 그래. {예:, 애들이 예 그냥 그래.}

### 1.3. 생업활동

- 10308 #1 그저넨: 그르케 사느라고 가덜 갈치고 이랄 때넨 막 담배농사:: 해짜나요. {그전에는 그렇게 사느라고 그애들 가르치고 이럴 때는 막 담배 농사 했잖아요?}
- 10308 #1 담배농사릴 한.. {담배농사를 한..}
- 10308 #1 그르케 담배농사 해 가주구 우리 아:덜 갈치구. {그렇게 담배 농사를 해 가지고 우리 아이들 가르치고.}
- 10308 #1 그때 당시는 또 이르게 사내끼를 짜 가주구서 지부루 이르게 이르게 여꺼썩요. {그때 당시는 또 이렇게 새끼를 꼬아 가지고서 쥔으로 이렇게 이렇게 엮었어요. }
- 10308 #1 담배릴. {담배를.}
- 10308 @ 하나씩 다: 끼워짜나요? {하나씩 다 끼웠잖아요?}
- 10308 #1 다: 끼 가주고요:: {다 끼워 가지고요.}
- 10308 #1 그래 여꺼 가주구서 그걸 해 가주구. {그래 엮어 가지고서 그걸 해 가지고.}
- 10308 #1 막창이라고 이썩요. {막창이라고 있어요.}
- 10308 #1 여 야지:: 다라 나오자나요? {여기 야지리 달아 나오잖아요?}
- 10308 #1 인재 달때애다가 우에서부 야지야지 다라 나와 가주구. {달대에다가 위에서부터 야지야지 달아 나와 가지고.}
- 10308 #1 그거뚜 으디 저기 머 하: 한 줄빼기두 두 아니구. {그것도 어디 저기 뭐 한, 한 줄빼기도 또 아니고.}
- 10308 #1 그기 마::나요. {그게 많아요.}
- 10308 #1 아주 기냥 그래 가주 그 건:조시리라는 데 짝:: 차 가주구서. {아주 그냥 그래 가지고 그 건조실이라는 데 짝 차 가지고.}
- 10308 #1 막창이라는데랄 라오면 사라미 망 무래 탁: 빠징 거 거터요. {막창이라는 데를 나오면 사람이 막 물에 탁 빠진 거 같아요.}
- 10308 #1 막창께 나와서. {막창께 나와서.}
- 10308 #1 맨: 꼬파내 인재 하구 이르게 나올 때는. {맨 끝판에 이제 하고 이렇게 나올 때는.}
- 10308 #1 인재 그 달때라능 개 인는데. {그 달대라는 게 있는데.}
- 10308 #1 그걸 바꼬서 그러케 하는데. {그걸 밟고서 그렇게 하는데.}
- 10308 #1 그건 이르게 얼마나 그기 힘드려요:: {그건 이렇게 얼마나 그기 힘들어요.}
- 10308 #1 산내끼루 짜 가주구 하능 기 그르케 했는데. {새끼로 짜 가지고 하는 게 그렇게 했는데.}
- 10308 #1 그라다 봉개 우리는 그거럴 인재: 하다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그거를 하다가.}
- 10308 #1 인재 아:덜두 크구 이라구 아내썩요. {이제 아이들도 크고 이러고 이제 안 했어요.}
- 10308 #1 인재 그냥 기냥 애:덜두 이르게 저기 하구 한다 그러면. {그냥 그냥 애들도 이렇게 저기 하고 한다고 그러면.}
- 10308 #1 나중애 하는 사람덜 보니까 엄청 시워요. {나중에 하는 사람들 보니까 엄청 쉬워요.}
- 10308 #1 그냥 인재 막 다발채 이르게 따다가요. {그냥 이제 막 다발채 이렇게 따다가요.}
- 10308 #1 다발로 어:: 이랜 저그 저기가 이때요. {다발로 에 이런 저기 저기가 있대요.}
- 10308 #1 저 철짱으로 이르게 해 놓 기. {저 철장으로 이렇게 해 놓은 게.}
- 10308 #1 한다, 한다발씩 기냥 가따 그걸 탁 풀러 가주구서. {한다 한다발씩 그냥 갖다 그

걸 탁 풀러 가지고.}

10308 #1 짹 까라 노쿠서넌 우에다가 인재. {짹 깔아 놓고서는 위에다가 이제.}

10308 #1 그거뚜 철장 여: 여 널비가 요고만, 요마넌 하지요. {그것도 철장 요 요 너비가  
요고만 요만은 하지요.}

10308 #1 근대 그걸루 탁 까따 노쿠서 인재 이르키 그:. {그런데 그걸로 탁 갖다 놓고서  
이제 이렇게 그.}

10308 #1 기기 저기 이캐 거기 짱구넌 개 이때요. {그게 저기 이렇게 거기 잠그는 게 있  
더라고요.}

10308 #1 가따 팡 눌러노면 짹 양짜개 다 땡기거드뇨. {갖다 팡 눌러 놓으면 짹 양쪽에  
다 뭉거든요.}

10308 #1 그람 가따 그걸루 기냥 하나캐 그르캐 십때요:, 오냥. {그러면 갖다 그걸로 그냥  
하나캐 그렇게 쉽데요:, 워낙.}

10308 #1 아이구:: 우리는 그:르캐 힘들게 해 가주 사라썬요. {아이구 우리는 그렇게 힘들  
게 해 가지고 살았어요.}

10308 #1 그저내 기냥 산내끼 꿩 골루 점:부 끼 가주구. {그전에 그냥 새끼 꾀 걸로 전부  
끼워 가지고.}

10308 #1 예:, 그래서 그르캐 해 가주구 인재 애:더럴 갈치 가주 이르캐 사란는데. {예:,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애들을 가르쳐 가지고 이렇게 살았는데.}

10308 #1 인재 바번 머꼬 사라요. {이제 밥은 먹고 살아요.}

10308 #1 즈더리 인재 기냥 모두. {자기들이 그냥 모두.}

10308 @ 예:. {예:}

10308 #1 가서 사니까, 허허. {가서 사니까, 허허.}

10308 @ 손두 마:니 가자나요? {손도 많이 가잖아요?}

10308 @ 그 담배농사가?: {그 담배농사가?}

10308 #1 말:도 모태요::. {말도 못 해요.}

10308 #1 그때넌 꼭찌 지짜나요::? {그때는 꼭찌 짓잖아요?} 10308 # 지그문, 지그문, 시  
워요. {지금은 지금은 쉬워요.}

10308 # 조릴 아내요. {조리를 안 해요.}

10308 # 조릴 아나고 그냥 다발채로 가따 바치는데. {조리를 안 하고 그냥 다발채로 갖다  
바치는데.}

10308 @ 그렇지요. {그렇지요.}

10308 #1 예:. {예:}

10308 # 그땐 조릴 일리리 해 가주 매드벌 지야 디야. {그땐 조리를 일일이 해 가지고 매  
듭을 지어야 돼.}

10308 #1 새걸 다:: 가리썬요. {색을 다 가렸어요.}

10308 #1 종 거는 종 거대루. {좋은 거는 좋은 거대로.}

10308 #1 노:랑 건 노랑 거때루. {노랑 거는 노랑 것대로.}

10308 #1 빨궁 건 빨궁 거. {붉은 건 붉은 거.}

10308 #1 새카망 건 새카망 거대루. {새까만 건 새까만 것대로.}

10308 #1 젤:: 새카망 건 또 젤: 새카망 거대로 막. {제일 새까만 건 또 제일 새까만 것대  
로 막.}

10308 #1 이르게 해 가주구서넌 그걸 또 하꾸라구 바가썬요. {이렇게 해 가지고서는 그걸 또 장사라고 박았어요.}

10308 #1 하꾸. {상자.}

10308 #1 하꾸라고 이러는 인재 저:기: 그: 나무루 쟁:기 이썬요. {상자라고 이러는 이제 저기 그 나무로 짠 게 있어요.}

10308 #1 고래 거기다가 팍팍 느 가주구 인재 발바 가주구서루 그거 인재 빼: 가주구 무 꺼짜나요. {그래 거기다가 팍팍 넣어 가지고 이제 밟아 가지고서 그걸 이제 빼 가지고 묶어쥬아요.}

10308 #1 그거 저르케 해 가주구. {그거 저렇게 해 가지고.}

10308 #1 그르케 무꺼 가주구서는 이래 해 가주 가따 바치서. {그렇게 묶어 가지고서는 이렇게 해 가지고 갖다 바쳐서.}

10308 #1 그걸 인재 돈: 그래 해서 그걸루 아:더럴 모두 이래 갈치고. {그걸 돈 그래 해서 그걸로 아이들을 모두 이렇게 가르치고.}

10308 #1 그르케 사라썬요. {그렇게 살았지요.}

10308 #1 지그먼 담배농살 진농 검 지그먼 또 아나는 사라문 아나자나요. {지금은 담배농사를 짓는 건 지금은 또 안 하는 사람은 안 하쥬아요.}

10308 #1 하는 사람 하드라고요. {하는 사람은 하더라고요.}

10308 #1 또 그린대 우리::가 안 하니 안 하고 한 이: 녀닝가 삼녀닝가 댜:는데. {또 그린데 우리가 안 하니 안 하고 한 이 년인가 삼 년인가 댜는데.}

10308 #1 아이 그르케 수워라게 농살 지뜨라구요. {아이 그렇게 수월하게 농사를 짓더라고요.}

10308 #1 아이구 우린 그:르케 애럴 머꾸 나 농살 썬:썬요. {아이고 우린 그렇게 애를 먹고 나 농사를 지었쥬아요.}

10308 #1 고냥 애:덜 갈 때. {그냥 아이들 가르칠 때.}

10308 @ 그거 불 때는 거뚜 또 이리자나요? {그거 불 때는 것도 또 일이쥬아요?}

10308 @ 그거? {그거?}

10308 @ 보일러 아꼐라구. {보일러 아끼려고.}

10308 #1 예::. {예.}

10308 #1 그래 가주구 그걸 또 부릴 때요:. {그래 가지고 그걸 또 불을 때요.}

10308 # 그개 기수리라고. {그개 기술이라고.}

10308 #1 거기 이르게 해 가주 미태서: 부릴 때면. {거기 이렇게 해 가지고 밑에서 불을 때면.}

10308 #1 그거 썬느라고 바매 잠두 모짜자나요 또. {그거 썬느라고 밤에 잠도 못 자쥬아요 또.}

10308 #1 밤짜물 모짜고 머 그냥 그르케. {밤잠을 못 자고 뭐 그냥 그렇게.}

10308 #1 해 가주 그거릴 일리리 그걸 또 꼭썬릴 지차나요. {해가지고 그거를 일일이 그걸 또 꼭지를 짓쥬아요.}

10308 #1 노랑 거 되 꼭썬 지치. {노랑 거 꼭지 짓지.}

10308 #1 또 그 다:매 꺼, 다:매 꺼 인재 메쥬루 이르게 해 가주구. {또 그 다음에 거, 다음에 거 이제 몇 등급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10308 #1 꼭썬를 지:서 하꼐 박썬요. {꼭지를 지어서 상자를 박지요.}

10308 #1 기냥이나 해요? {그냥이나 해요?}

10308 #1 지그먼 다발루 막 이르게 해 가주 하니까 얼마나 시원요. {지금은 다발로 막 이렇게 해 가지고 하니까 얼마나 시원요.}

10308 #1 다:: 꼭지를 지 가주구 그래 해 가주구 해써. {다 꼭지를 지어 가지고 그렇게 해 가지고 했어.}

10308 #1 아유:: 참 그때 옛날 재래르능 거 생가글 하구 살면 일리리 마:털 모태요. {아유 참 그 때 옛날 \*\*는 거 생각을 하고 살면 일일이 말을 못 해요.}

10308 @ 그거 옛날에 건조시래서 꺼내면 비오는나리든, 날 조온 나리든 아주머니들 또 어, 처마 밑에 안자 가주 그거 싹 이래. {그거 옛날에: 건조실에서 꺼내면 비 오는 날이든, 날 좋은 날이든 아주머니들 또 어, 처마 밑에 앉아 가지고 그거 싹 이렇게.}

10308 #1 그럼뇨::, 노별 으더 가주 하지요. {그럼요, 뚝을 얻어 가지고 하지요.}

10308 #1 예:. {예.}

10308 #1 담배조리꾸널 인재 머 열맹이고 인재 머 열매 열매고 인재 이르게 으더 가주. {담배조리꾼을 이제 뭐 열 맹이고 이제 뭐 열매 열매고 이렇게 얻어 가지고.}

10308 #1 그거를 머 열탄 열땀 명 어떤지 어짜던지 해 가주구서. {그거를 뭐 열, 한 열땀 명 얻든지 어찌든지 해 가지고서.}

10308 #1 그거뚜 인재 줄:, 노별 으더야 대요:. {그것도 조리, 뚝을 얻어야 돼요.}

10308 #1 고건 그래 노부더가주 인재 글 점::부 새까리 가주구. {그건 그래 뚝을 얻어 가지고 그걸 전부 색을 가지고.}

10308 #1 꼭지를 매 가주구서. {꼭지를 매어 가지고서.}

10308 #1 그래 가주구서 하꼬 바가서 가따 바치자나요. {그래가지고 상자 박아서 갖다 바치잖아요.}

10308 @ 그 꼭지 매능 거 그거 하능 걸 조림, 조리한다 그러능 거요? {그 꼭지 매는 거 그거 하는 걸 조림, 조리한다 그러는 거예요?}

10308 #1 예, 예 꼭지 진능 거릴 인재 조리라 구라지요. {예, 꼭지 짓는 거를 이제 조리라 그러지요.}

10308 #1 꼭지를. {꼭지를.} 10308 @ 예. {예.}

10308 #1 예, 조리를 한다. {예, 조리를 한다.}

10308 #1 아이구 그 담배조리:-라구 하지요. {아이고 그 담배조리라고 하지요.}

10308 #1 인재 그르케 수부카만 엄청 힘들개. {그렇게 수북하면 엄청 힘들개.}

10308 #1 우리들 상:거넌 애기 모태요:. {우리들 산 거는 애기 못 해요.}

10308 #1 허허허. {허허허.}

10308 @ 저:: 저: 학교다닐 때두 저히 어머니 그렇 거 하셔꺼든뇨. {저 저 학교 다닐 때도 저희 어머니 그런 거 하셨거든요.}

10308 #1 예:. {예.}

10308 @ 우리는 농사는 인재 그 안 해는데. {우리는 농사는 이제 그 안 했는데.}

10308 @ 남, 남들 그 담배조리한다 그러면 가서서 그렇 거 하시구. {남 남들 그 담배조리한다 그러면 가서서 그런 거 하시고.}

10308 @ 그렇 건 제가 바써요. {그런 건 제가 봤어요.}

10308 #1 그르치유. {그렇지요.}



10308 #1 그른대 지금 죄송하지만 선생니먼 지금 어트개 대시썌요? {그런데 지금 죄송하  
지만 선생님은 지금 어떻게 되셨어요?}

10308 @ 쉬운네:시요. {썌넷이요.}

10308 #1 시은내시애요? {썌넷이애요?}

10308 #1 개띠? {개띠?}

10308 @ 예 예. {예 예.}

10308 #1 개띠? {개띠?}

10308 @ 마:느로. {만으로.}

10308 #1 만, 마:느로. {만으로.}

10308 @ 깨띠. {개띠.}

10308 #1 우리 큰따리 깨띠거든뇨. {우리 큰딸이 깨띠거든요.} 10308 @ 예. {예.}

10308 #1 신느이요. {썌넷이요.}

10308 #1 우리 큰따리. {우리 큰딸이.}

10308 @ 예:. {예.}

10308 #1 어::. {어.}

10308 #1 우리 큰따리 지금 신느이고. {우리 큰딸이 지금 썌넷이고.}

10308 #1 우리 크나더리 지금 스:이여. {우리 큰아들이 지금 (썌)셋이야.}

10308 #1 썌스이. {썌셋.}

10308 #1 연연생얼 해 가주그서. {연연생을 해 가지고.}

10308 #1 예, 처다이 연연생얼 그래 인재 \*\*\* 나쿠서 인재. {예, 첫 아이를 연연생을 그래  
\*\*\* 낳고서 이제.}

10308 #1 연연생얼 해 가주구. {연연생을 해 가지고.}

10308 @ 언제부턴가 전 나이도 잘 모르개썌요. {언제부턴가 전 나이도 잘 모르썌어요.}

10308 @ 이개 따저 바야지 알지. {이개 따저 봐야지 알지.}

10308 #1 하하하하. {하하하.}

10308 # 하하하하. {하하하.}

10308 #1 그르치유. {그렇지요.}

10308 # 난 아덜 딸 이럼 전부 다, 다:: 모르넌데 머. {난 아들 딸 이름 전부 다 다 모르는  
데 똬.}

10308 # 며싸린지두. {몇 살인지도.}

10308 #1 호호. {호호.}

10308 # 허허. {허허.}

10308 @ 애기 손자들 생기면 손자 이름두 잘 몰르는데요. {애기 손자들 생기면 손자 이름  
도 잘 몰르는데요.} 10308 #1 예:, 헤헤헤. {예:, 헤헤헤.}

10308 # 허허. {허허.}

#### 1.4. 식생활

10509 #1 아이구::, 옴:나래넌:: 아주 고생한 사람덜 저기 드리보면.. {아이고, 옛날에는 아  
주 고생한 사람들 저기 들어보면.}

10509 #1 머 이캐 참 향 거 생가카면. {뭐 이렇게 참 한 거 생각하면.}

10509 # 이 찌기 쭉뚜 하::두 뜨더다 머거싸 가주구 쭉뿌링이꺼지 캐다가. {이 저기 쭉도 하도 뜯어다가 먹어대서 쭉뿌리까지 캐다가.}

10509 #1 그그를 기냥 찌 가주구서 막: 이르캐 해서 머꼬. {그것을 그냥 찢어 가지고서 막 이렇게 해서 먹고.}

10509 #1 막 그래 사라짜나요. {막 그래 살았잖아요.}

10509 #1 우리보다 더 고생한 사람더런 그래써요 또. {우리보다 더 고생한 사람들은 그랬어요 또.}

10509 #1 그르캐 사라써요. {그렇게 살았어요.}

10509 #1 쭉뿌링이꺼지 다: 캐다가. {쭉뿌리까지 다 캐다가.}

10509 @ 머 드래 머글 겨뚜 업써짜나요? {뭐 들에 먹을 것도 없었잖아요?}

10509 @ 지그미니까 그거뚜. {지금이니까 그것도.} 10509 #1 업써요, 예:. {없어요, 예.}

10509 @ 뜨드면 다: 나무린대두 안 뜨찌만 엔나래는 머. {뜯으면 다 나물인데도 안 뜯지만 옛날에는 뭐.} 10509 #1 그러묘, 예:. {그럼요, 예.}

10509 #1 하::두 서루 뜨더다 머거싸두. {하도 서로 뜯어다 먹어대서.}

10509 #1 쭉뚜 우꾸::. {쭉도 없고.}

10509 #1 나물두 별루 읍써요. {나물도 별로 없어요.}

10509 #1 막 저런 큰:: 사느루 가야 이꾸. {막 저런 큰 산으로 가야 있고.}

10509 #1 그르치, 근대. {그렇지, 근대.}

10509 #1 지그면 머: 나무리구 머구 혼해빠지자나요. {지금은 뭐 나물이고 뭐고 혼해빠지잖아요.}

10509 #1 다:: 머 그래쓰니캐. {다 뭐 그랬으니까.}

10509 @ 사내 나물뜨르 뜨드더두 다녀 보써써요? {산에 나물 뜯으 뜯으려도 다녀 보셨어요?}

10509 #1 인재 사내 나물 뜨드루두 메 뻔 가써요. {산에 나물 뜯으려도 몇 번 갔어요.}

10509 #1 저는 마닝 안 가써요. {저는 많이는 안 갔어요.}

10509 #1 팔람매를 키올라카닝캐. {팔 남매를 키우려니까.}

10509 #1 맨:날 머 그: 지배서: 어: 머 인재 이끼도. {매일 뭐 그 집에서 에 뭐 이제 있기도.}

10509 #1 지배서 일:하기도 저기하고. {집에서 이러기도 저기 하고.}

10509 #1 나물두 제대로 난 뜨더다 먹뚜 모태서요. {나물도 제대로 난 뜯어다 먹지도 못했어요.}

10509 @ 나물 이르물 몰라서 저는 머깨빠개 몰라요. {나물 이름을 몰라서 저는 몇 개밖에 몰라요.}

10509 #1 하하하하하. {하하하하하.}

10509 @ 취:나물 머 이렇 거 머깨바개 모르고 근대. {취나물 뭐 이런 거 몇 개밖에 모르고 그런데.}.

10509 #1 예:, 그르치요:. {예, 그렇지요.}

10509 @ 으:르신들 얘기 드러보니까 나물 종류두 갱:장이 만트라구요. {어르신들 얘기 들어 보니까 나물 종류도 굉장히 많더라고요.}

10509 #1 예: 예:. {예 예.}

10509 #1 저년 나물 뜨드루 메 뵈 가보도 모태썰요. {저는 나물 뜯으러 몇 번 가보지도 못 했어요.}

10509 #1 나무른 뜨드루. {나물을 뜯으러.}

10509 #1 나물 뜨드리 갈 새도 업떠라고요. {나물 뜯으러 갈 새도 없더라고요.}

10509 #1 사:느라고. {사느라고.}

10509 #1 어트개 살:다보녕개, 해해. {어떻게 살다보니까, 해해.}

10509 #1 그래서 기냥. {그래서 그냥.}

10509 #1 이 저기 여기 저:기 지그먼 잘사라요. {저기 여기 저기 지금은 잘 살아요. }

10509 #1 그 사람더리. {그 사람들이.}

10509 #1 예: 나경이 어머이라고 인년대 그 사라미 가주 오면. {예:, 나경이 엄마라고 있는데 그 사람이 가지고 오면.}

10509 #1 저는 마:니 사 머거썰요. {저는 많이 사 먹었어요.}

10509 #1 저는 갈 썰는 우꾸. {저는 갈 새도 없고.}

10509 @ 예:. {예.}

10509 #1 예 개서 그래 그 지배 지금 잘 사라요. {예 그래서 그래 그 집은 지금 잘 살아요.}

10509 #1 그런 사람드리. {그런 사람들이.}

10509 #1 예, 지금 잘 살구 이썰요 그집. {예,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그집.}

10509 @ 맨:처매 겨론 하셔 가주구 시논 살리말 때:. {맨 처음에 결혼 하셔 가지고 싰혼 살림할 때.}

10509 @ 여:기 하라버지 말쓰무로는 이 집:. {여기 할아버지 말씀으로는 이 집.}

10509 @ 썰:기 여기, 여기, 여기요? {저기 여기, 여기 여기예요?} 10509 #1 예, 예, 예. {예 예 예.}

10509 #1 여기서 여기 오녕개 기냥 피라내집 초가썰배요. {여기 오니까 그냥 피란에 지은 초가집이에요.}

10509 #1 흑썰 바가. {흑장 박아.}

10509 #1 이제 초가썰비 여 아내만 발르, 배까태서 발르지두 앙꾸. {초가집이 여기 안에만 바르고, 바깥에서 바르지도 앗고.}

10509 #1 그래는데 진재 제가 와 가주구서. {그랬는데 이제 제가 와 가지고.}

10509 #1 여 이는 발루구 나는 흑 떠 버주고 이래 가주 발러썰요. {이 이는 바르고 나는 흑 떠 부여주고 이렇게 해 가지고 발랐어요.}

10509 #1 그래 가주구 살다가. {그래 가지고 살다가.}

10509 #1 인재 또 머: 새루 인재: 초가지별 작꾸 이구:.. {이제 또 뭐 새로 이제 초가집을 작꾸 이고.}

10509 #1 이르캐 살다가. {이렇게 살다가.}

10509 #1 나중애는 이제 이기 예: 모새로 인재:.. {나중애는 이제 이게 모래로 이제.}

10509 #1 저: 새며나고. {저 시멘트하고.}

10509 #1 이래: 저:.. 여기 또랑까애 거기서루 인재 개와라구 박, 개와 박떠라고요. {이래 저 여기 도랑가에 거기서 이제 기와라고 박 기와 박더라고요.}

10509 #1 모새털 퍼다가. {모래를 퍼다가.}

10509 #1 그걸루 인재 또 이 지병얼 또 뜨더내구서. {그걸로 이제 또 이 지붕을 또 뜯어 내고.}

10509 #1 그걸루 새로부 또 함: 번 이:썰썰요. {그걸로 새로 또 한 번 이었었어요.}

10509 #1 그걸루 이:다가 인재 그걸 이 인재 새루 여기서 인재. {그걸로 이다가 이제 그걸 이 이제 새로 여기서 이제.}

10509 #1 쯔 보조 해준다:: {저 보조 해준다.}

10509 #1 지벌 지면:. {집을 지으면.}

10509 #1 그리 해 가주구서 인재 그래 그저 한 팔백만원 바더 가주구서 이 거 징 거예요.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그렇게 한 팔백만원 받아 가지고 이거 지은 거예요.}

10509 #1 그래 가주 지:썰요. {그래 가지고 지었어요.}

10509 #1 지 가주 인재 지금 애:덜두 저래 살구. {지어 가지고 지금 애들도 저렇게 살고.}

10509 #1 기냥 이리캐 사:냥깡 이기 만조가지요 머. {그냥 이렇게 사니까 이게 만족이지요 뭐.}

10509 #1 허허허. {허허허.}

10509 @ 예:. {예.}

10509 #1 예:. {예.}

### 1.1. 일생 의례(결혼 생활)

10211 @ 처:매 시논살리말 때는 어떻 걸 까꾸 마련하셔썰요? {처음에 신혼살림할 때는 어떤 걸 가지고 마련하셨어요?}

10211 @ 그때 머 전쟁:터라. {그때 뭐 전쟁터라.}

10211 @ 전쟁 끝나고 나서라 머. {전쟁 끝나고 나서라 뭐.}

10211 # 아::무거뚜 읍썰. {아무것도 없지.}

10211 #1 아::무거뚜 읍썰썰요:. {아무것도 없었지요:}.

10211 #1 그췌에: 기냥 머:. {글췌 그냥 뭐.}

10211 #1 그럭또 우꼬오: 머 살리미라고넌. {그릇도 없고 뭐 살림이라고는.} 10211 # 살리미라곤 아주 일절 읍능 기여. {살림이라고는 아주 일절 없는 거야.}

10211 #1 인재 논 마:니 인재 그 쯔꿈 이썰썰요. {이제 논은 많이 이제 조금 있었지요.}

10211 #1 인재 그 논만 받 쯔꿈마구 이르캐 논만 쯔꿈 이췌넌대. {이제 그 논만 받 조금 하고 이렇게 논만 조금 있었는데.}

10211 #1 그 얘기릴 다 모태요. {그 얘기를 다 못해요.}

10211 #1 선생님, 허허허허. {선생님, 허허허허.}

10211 @ 살림사리는 어떻 걸 처:매 마련하셔썰요 그러면? {살림살이는 어떤 걸 처음에 마련하셨어요 그러면?}

10211 #1 츠:매요? 츠매 와. {처음에요? 처음 와.} 10211 @ 겨론 처:매 하셔썰 때? {결혼 처음에 하셨을 때?}

10211 #1 겨론 츠매:: 인재 해 가주구넌 인재 아무거뚜 참 업짜나요? {결혼 처음에 이제 해 가지고는 이제 아무것도 참 없잖아요?}

10211 #1 다 태우구 아무거뚜 우꾸:. {다 태우고 아무것도 없고.}

10211 #1 여기서 인재 우리 아번님 저 아프시니께. {여기서 우리 아버님 아프시니까.}

10211 #1 자꾸 인재 머 돈: 이췌면 쯔그 령 거뚜 쯔 이르캐 하다 봉께. {자꾸 이제 뭐 돈

이 있으면 좀 그런 것도 좀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211 #1 돈:도 엄능가 그르케 근대. {돈도 없는가 그렇게 그런데.}

10211 #1 제가: 어: 딸만. {제가 어:: 딸만.}

10211 #1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사:형제구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사 형제고요.}

10211 #1 아더리 업썩요. {아들이 없어요.}

10211 #1 그래 가주 다 시집 보내고 인재 이랑께 제가 제 혼자 나마 가주구 인재 살다가.  
{그래 가지고 다 시집 보내고 이러니까 제가 저 혼자 남아 가지고 살다가.}

10211 #1 아버지가 열두살 잡싸서 도라가시 가주구. {아버지가 열두 살 먹어서 돌아가서  
가지고.}

10211 #1 어 인재: 어머니 혼자 계시닝께. {어머니 혼자 계시니까.}

10211 #1 저 우리 아버지가 구 남매여. {저 우리 아버지가 구 남매야.}

10211 #1 그래 구 남매대. {그래 구 남매인데.}

10211 #1 켈:: 종마리 자건아버지럴 인재 오시라케. {제일:: 끝에 작은아버지를 오시라고  
해서.}

10211 #1 옴:나리 그리차나요? {옛날이 그렇잖아요?}

10211 #1 여기 지그먼 여자드리 다: 해머꼬 사는데. {여기 지금은 여자들이 다 해 먹고 사  
는데.}

10211 #1 옴:나래넌 모태 머거요. {옛:날에는 못 해 먹어요.}

10211 #1 인재 해먹덜 모타구 이랑께 인재. {이제 해 먹지를 못하고 이러니까.}

10211 #1 우리 어머니가 인재 시동상이 온다고 고라니께 오라케 가주구 한 때 사라썩  
요. {우리 어머니가 이제 시동생이 온다고 그러니까 오라고 해 가지고 한 데 살  
았어요. }

10211 #1 한 때 살:다가 인재 저넌 인재 이르케 와 가주구. {한 데 살다가 저는 이렇게 와  
가지고.}

10211 #1 그::거럴 인재 얘기럴 한다면 이 양바니 인재 줌 저기 하지마넌. {그것을 얘기  
한다면 이 양반이 이제 줌 저기 하지만.}

10211 #1 인재 저두 이르케 시집 인재 와 가주구 살지마넌. {이제 저도 이렇게 시집을 와  
가지고 살지만.}

10211 #1 우리:: 어머니가 인재 도넬 좀 쪼끔 이썩썩요. {우리 어머니가 돈을 좀 조금 있  
었어요.}

10211 #1 쪼 이썩넌대. {조금 있었는데.}

10211 #1 그때:: 도느루 한, 한 오:마년이면 큰::도니썩요. {그때 돈으로 한, 한 오만이면  
큰 돈이었어요.}10211 @ 그러치요. {그렇지요.}

10211 #1 예, 오마너니면 큰도넌대. {예, 오만 원이면 큰돈인데.}

10211 #1 인재 이::마년넌 내가 장내릴 놔썩요. {이제 이만 원은 내가 장례를 냈어요.}

10211 #1 이마년는 인재 굴 우리 어머니 매지루 이르케 놔따가. {이만 원은 이제 그것을  
우리 어머니 뭇으로 이렇게 놓았다가.}

10211 #1 이 양바니 알지마넌. {이 양반이 알지만.}

10211 #1 그거럴 고만 자:꾸 이:자 쪼끔쪼끔 주더라가 말다가 이라민성. {그거를 그만 자:  
꾸 조금 주다:가 말다가 이러면서.}

10211 #1 그라다가 고만 다른 대루 이살 갸, 두 찌비다 이살 가곤 이제 떠 빠리썩요, 그거

넌. {그러다가 그만 다른 데로 이사를 가, 두 집이 다 이사를 가고 이제 떼어 버렸어요, 그것은.}

10211 #1 그라고서 인재 고 돈: 이:마뉘느루 제:가 인재 아수웅 걸 사떠요. {그리고 그 돈 이만 원으로 제가 아쉬운 거를 샀어요.}

10211 #1 여기서. {여기서.}

10211 #1 머 다: 피라내 다:: 저기 하고나니께 읍짜나요. {뭐 다 피란에 다 저기 하고 나니까 없잖아요.}

10211 #1 그래 가주구 인재 머 여 강우리사고. {그래가지고 뭐 광주리 사고.}

10211 #1 머: 우지런 빨래 두드리능 거 그렇 거뚜 읍써요. {뭐: 이런 빨래 두드리는 거 그런 것도 없어요.}

10211 #1 빨래 인재 직. {빨래.}

10211 #1 연:나랜 푸를 해:짜나요. {옛날에는 풀을 했잖아요.}

10211 #1 예, 푸레가주 이런 재 그런 빨래 두드리러닝 기. {예, 풀 해가지고 이런 이제 그런 빨래 두드리는 거.}

10211 #1 이: 돌:맹이를 그때 또느로 그걸로: 그때 삼쳐뉘닝가:: 온 머 열매가 그래 주고 사써요. {이 또 돌맹이를 그때 돈으로 그걸로: 그때 삼천 원인가 원 뭐 얼마인가 그렇게 주고 샀어요.}

10211 #1 그래 주구 사고. {그렇게 주고 사고.}

10211 #1 이제 머 나 아수웅 거. {뭐 나 아쉬운 거.}

10211 #1 그러:기 인재 이렇 거 쪼끔씩 인재 그냥 그렇 거 사 그냥 사고. {그릇이 이제 이런 거 조금씩 이제 그냥 그런 거 사, 그냥 사고.}

10211 #1 그래 고 도느루 고래고래 사써요. {그래 그 돈으로 그그렇게 그렇게 샀어요.}

10211 #1 소곰도 사서 장도 당꼬 머. {소곰도 사서 장도 담고 뭐.}

10211 #1 어트개 이르캐 하다 보니께. {어떻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10211 #1 인재 노니 좀 이쓰니께 농사를 지차나요. {논이 좀 있으니까 농사를 짓잖아요.}

10211 #1 인재 농사 지닝께 기냥 그 농사 징 걸로 인재 그래:캐 머꼬. {농사 지니까 이제 그냥 그 농사 지은 걸로 그렇게 먹고.}

10211 #1 그래 사라찌요. {그래 살았지요.}

10211 #1 머, 머:가 이써요? {뭐 뭐가 있어요?}

10211 #1 피라내 기냥 다 태우구 아무 거뚜 읍쓰닝까. {피란에 그냥 다 태우고 아무 것도 없으니까.}

10211 #1 그냥 인재 도:니 읍쓰닝께. {그냥 이제 돈이 없으니까.}

10211 #1 근대 이:마뉘 고골로 기냥 머 요고쪼고 사닝께 줌 그래두 사거떠라구요, 기냥. {그런데 이만 원 그걸로 그냥 뭐 이것저것 사니까 좀 그래도 사졌더라고 요, 그냥.}

10211 #1 허허허, 예. {허허허, 예.}

10211 #1 그래 가주구 그래 기냥 사라찌요. {그래 가지고 그렇게 그냥 살았지요.}

10212 @ 그리:고 나서는 처째, 처다이::는 느께 난 세미니요 그럼? {그리고 나서는 첫째, 첫 아이는 늦게 난 셈이네요 그러면?}

10212 #1 스물느이에 나, 이 양반 구닌 가따 와 가주. {스물넷에 나, 이 양반 군인 갔다 와 가지고.}

10212 #1 열려더래 와 가주구. {열여덱에 와 가지고.}

10212 #1 이 양반 스물라나구 저넌 열려더래 와꺼더뇨. {이 양반 스물하나고 저는 열여덱에 왔거든요.}

10212 #1 그린대 인재 이 양반 구녕 가따 와서 스물네새 나썸요. {그런데 이 양반 군인 갔다 와서 스물넛에 낳았어요.} 10212 @ 예. {예.}

10212 #1 스물네새 나코 두째넌 수물다, 저넌 스물 다서시구. {스물넛에 낳고 둘째는 스물다(섯) 저는 스물다섯이고.}

10212 #1 이 양바넌 인재 그때 처다럴 스물-일고배 나썸요. {이 양반은 이제 그때 첫 아이를 스물일곱에 낳았지요.}

10212 #1 세:사릴 더 잡싸쓰닝께. {세 살을 더 잡셨으니까.}

10212 #1 스무릴고배 나:꼬. {스물일곱에 낳고.}

10212 #1 스물 여더래 와서 나:코. {스물여덱에 와서 낳고.}

10212 #1 저넌 스물 다서새 나:코 그래썸요. {저는 스물다섯에 낳고 그랬지요.}

10212 #1 허허허. {허허허.}

10212 #1 두:째릴. {둘째를.}

10212 @ 그때::는 입뎡 아나서썸요? {그때는 입뎡 안 하셨어요?}

10212 #1 왜 아내요:. {왜 안 해요:}.

10212 #1 입떠시 해썸요. {입뎡을 했지요.}

10212 #1 고래 저:: 안진때기라구 저:기 가능대 그그 지금두 생가기 나요. {그래 저 앓은 뎡이라고 저기 가는데 그거 지금도 생각이 나요.}

10212 #1 거기릴 인재 우리 시어먼님마고:. {거기를 우리 시어머님하고.}

10212 #1 저 와서 두 달마내 시아번님 도라가시고. {저 와서 두 달만에 시아버님 돌아가시고.}

10212 #1 이 양바나고 스이가. {이 양반하고 셋이.}

10212 #1 지금두 기영려기 나자나요. {지금도 기억이 나썸아요.}

10212 #1 하두: 고생얼 해 가주. {너무 고생을 해가지고.}

10212 #1 입:떠설 해썸마넌. {이 입뎡을 했지만.}

10212 #1 그스 인재 그때 콩바또 매고 머: 그렁 거 하루 인재 거길 드러가썸썸요. {그것은 이제 그때 콩밭도 매고 뭘 그런 거 하러 이제 거기를 들어갔었어요.}

10212 #1 근대 그 감자릴: 어째 머거썸요:. {그런데 그 감자를 어째 먹었어요.}

10212 #1 감자릴 이제 어찌 그기 줌. {감자를 그게 줌.}

10212 # 머릴? {뭘?}

10212 # 아니여, 지금 교순니마고 대화 햐. {아니야, 지금 교수님하고 대화 해.}

10212 # 아이, 여 교순니마고 대화한다니께. {아이, 여 교수님하고 대화한다니까.}

10212 # 허, 경노당이여. {허, 경로당이야.}

10212 #1 얘기해두 대유? {얘기해도 돼요?} 10212 @ 예? {예?}

10212 #1 그래서 인재 우리가 인재 세시꾸 인재 거길:: 가썸요. {그래서 우리가 셋이 거길:: 갔어요.}

10212 #1 간넌대. {갔는데.}

10212 #1 그때 뎡: 점 머거쓰면 시푸드라고요. {그때 뎡 줌 먹었으면 싶더라고요.}

10212 #1 머가 머글께 읍썸요::. {뭘가 먹을 게 없어요::.}

10212 #1 밥, 밥 줌 머꼬 가쓰면 시푼대두. {밥, 밥 줌 먹고 갔으면 싶은데도.}

10212 #1 우째 밥뚜:: 또 머꾸 또 그리코. {어째 밥도 또 먹고 또 그렇고.}

10212 #1 그래가주구서루 간넌대 감자털 머꼬 간넌대. {그래가지고서 왔는데 감자를 먹고 왔는데.}

10212 #1 감자가 도깨뎡가. {감자가 독했는가.}

10212 #1 아::주 막 거서 토헨넌대. {아주 막 거기서 토했는데.}

10212 #1 진짜 머 똥부까지 다: 토해 가주구서루::. {진짜 뭐 똥물까지 다 토해 가지고서.}

10212 #1 마: 기냥 사:라미 히미 업써 가주구 막 쓰러질 쯔경이더라고요. {막 그냥 사람이 힘이 없어 가지고 막 쓰러질 지경이더라고요.}

10212 #1 그래 가주구 그래 거기서. {그래 가지고 그래서 거기서.}

10212 #1 그래 그르캐:: 하후 인재 와써요, 그냥. {그래 그렇게 하고 이제 왔어요, 그냥.}

10212 #1 어트개 그르캐 인재 오루 머. {어떻게 그렇게 이제 오고 뭐.}

10212 #1 그: 머꾸 수웅 거야 마랄 쭈가 업써쨌요 머. {그 먹고 싶은 거야 뭐 말할 수가 없었지요 뭐.}

10212 #1 그렁 거야. {그런 거야.}

10212 #1 그대 그때 당신 암만 머꾸 시버두 읍써서두 몬머꾸:. {글쎄, 그때 당시는 아무리 먹고 싶어도 없어서도 못 먹고.}

10212 #1 쫘, 그릴 그르캐 사라쨌요. {쫘, 그렁(게) 그렇게 살았지요.}

10212 #1 입떠타넌 대야 머. {입뎛하는 대야 뭐.}

10212 #1 허허허. {허허허.}

10212 #1 재 다: 머 그르치. {이제 다 뭐 그렇지.}

10212 #1 줌 재 나:중애 이르캐 살다 보넵개. {줌 이제 나중에 이렇게 살다 보니까.}

10212 #1 또 차차 쫘 나사지구 해서 인재 내가 저 사머끼도 하구 인재 그래쨌요. {또 차차 쫘 나아지고 해서 이제 내가 저 사 먹기도 하고 그랬지요.}

10212 #1 쫘, 허. {쫘, 허.}

10212 #1 그때가 제일 애머거쨌요. {그때가 제일 애먹었어.}

10212 #1 글 그때 쥔: 애털 머꾸. {그 그때 제일 애를 먹고.}

10212 #1 우리:: 인재 쥔-쥔, 우리 세쥔 머수마: 이쨌서는 가:넌 어째 또 캐 고기가 머꼬 습때요. {우리 이제 셋쥔, 우리 셋쥔 머슴애 있어서는 개는 어째 또 크렇게 고기가 먹고 싶대요.}

10212 #1 그래서 인재 옴나래 왜 이기 저 픽, 피:뽕, 피::쭈장사라고 뎡기쨌요. {그래 이제 옛날에 왜 이렇게 저 피, 핏국 핏국 장사라고 다녔어.}

10212 #1 이래 깡, 깡통얼 이르캐 쨌다::나개 만드러 가주구. {이렇게 깡 깡통을 이렇게 기다랗게 만들어 가지고.}

10212 #1 이래 가주구서. {이래 가지고서.}

10212 #1 거기다 쫘지다 끼 가주구 이걸 쨌걸 인재 이르캐 끼 가주구서. {거기에다 꼬리에다 끼어 가지고 이것 저것 이제 이렇게 끼어 가지고서. }

10212 #1 거기다 이르캐. {거기다 이렇게.}

10212 #1 쫘지 끼서 고고 하나애다가 이르캐 쨌털 요마:난대다가 하낙쨌 바다쨌요. {꼬리 끼어서 그거 하나애다가 이렇게 쨌을 요만한 데다가 하나쨌 받았어.}

10212 #1 고 하나 쫘지 깡 거만 하나 하면. {그 하나 꼬리 끼운 것만 하나 하면.}

10212 #1 그래서 인재 고거털 쨌털 인재 내가 우리 어면넛떠러. {그래서 이제 그거를 쨌



을 이제 내가 우리 어머님더러.}

10212 #1 어머님 저기 저 픽, 픽픽 끄리명년 장사 완년대:. {어머님 저기 저 피 핏국 끓여 먹는 장사가 왔는데.}

10212 #1 어머님, 저거 쫌 사 가주 머그먼 조캐썬요. {어머님, 저거 쫌 사 가지고 먹으면 좋겠어요.}

10212 #1 이라니께. {이러니까.}

10212 #1 그췌 요런 싸털 요마:낭 종고래기다가 주구. {글췌 요런 쌀을 요만한 종그래기에다가 주고.}

10212 #1 우리 어머니미 사떠요. {우리 어머님이 샀어요.}

10212 #1 그라년대 얼마나 머꾸 수운지 그냥 그 양은소태다가 인재. {그랬는데 얼마나 먹고 싶은지 그냥 그 양은솔에다가 이제.}

10212 #1 양언소::설 산년대. {양은솔을 샀는데.}

10212 #1 양언. {양은.}

10212 #1 고기다 얼마라 얼마럴 머꾸 수버편지. {거기다 얼마나 얼마나 먹고 싶었던지.}

10212 #1 막 스프룩 끄능 거럴 그거럴 머거썬요. {막 스프룩 끓는 것을 그것을 먹었어요.}

10212 #1 그냥 하:두 머꾸 시버 가주구. {그냥 하도 먹고 싶어 가지고.}

10212 #1 그래서 그걸 머거떠니마넌 다::시넌 몬머꺼떠요. {그래서 그걸 먹었더니만 다시는 못 먹겠어요.}

10212 #1 막 고거 물리 가주구. {막 그거 물려 가지고.}

10212 @ 음. {음.}

10212 #1 아이구: 그래 인재 울 그르께 두 버닐 엘: 머꾸. {아이구 그래 이제 그렇게 두 번을 애를 먹고.}

10212 #1 그 디루넌 머 별로 그르께: 애암머꼬 그냥 애더럴 그래 키워썬요. {그 뒤로는 뭐 별로 그렇게 애 안 먹고 그냥 애들을 그렇게 키웠어요.}

10212 #1 허허. {허허.}

10212 #1 재 그: 입떠시라능 개 아무래도 다: 이썬요. {이제 그 입덧이라는 게 아무래도 다 있지요.}

10212 #1 그거넌 이썬만 그래두 아:덜 두럴 그르께 애럴 머거썬요. {그것은 있지만 그래도 애들 둘을 그렇게 애를 먹었어요.}

10212 #1 그라고 그냥 쫌 이떠서넌 다 하고 살지요. {그리고 그냥 쫌 입덧은 다 하고 살지요.}

10212 @ 그리구 나서 인재 애:를 나차나요? {그리고 애를 낳잖아요?}

10212 @ 요샌 다 병워내 가서 난는데. {요새는 다 병원네 가서 낳는데.}

10212 #1 예:. {예.}

10212 @ 엔나래는 지배서 나짜나요? {옛날에는 집에서 낳았잖아요?}

10212 #1 지배서 나썬요. {집에서 낳았지요.}

10212 @ 금 누가 도와 주셔썬요? {그럼 누가 도와 주셨어요?}

10212 #1 우리 할머니가. {우리 할머니까.}

10212 #1 우리 시어머니. {우리 시어머니.}

10212 #1 처다 낳: 때넌 말도 모타개 애머거썬요. {첫 아이 낳을 때는 말도 못하게 애를 먹었지요.}

10212 #1 아주 그췌. {아주 글췌.}

10212 #1 공개 스물느이에 그레 난:는대. {그러니까 스물넷에 그레 낳았는데.}

10212 #1 처다 낱: 때너 진짜 머 마:리라고 하면 말:도 모타지요, 기냥. {첫 아이를 낳을 때는 진짜 뭐 말이라고 하면 말도 못 하지요, 그냥.}

10212 #1 이긴 피라니닝개 인재 돌:맹이 따듬또기 어덜췌요. {피란이니까 이제 돌맹이 다듬잇돌이 어디 있어요.}

10212 #1 요마::난, 빼파::칸 요론 납짜칸 따듬도기다가 거기다가 뚜디리 이번넌대. {요만한, 빼딱뚜름한 요런 납작한 다듬잇돌에다가 거기에다가 두드려 입었는데.}

10212 #1 그거::털 부짜꼬 하::글 쓰구 아글 쓰구 해 가주구는. {그것을 붙잡고 악을 쓰고 악을 쓰고 해 가지고는.}

10212 #1 우리 어먼니미 이 양반떠러 니가 줌 디 꼬러나라, 디에서:. {우리 어머님이 이 양반떠러 내가 좀 이렇게 끌어 안아라, 뒤에서.}

10212 #1 이라드라고요. {이러더라고요.}

10212 #1 그래서 인재 그라 꼬라아나췌넌대. {그래서 이제 끌어 끌어안았었는데.}

10212 #1 그거뚜 실쿠 아무거뚜 시러요. {그것도 싫고 아무 것도 싫어요.}

10212 #1 내가 주꺼쓰닝개 머 다: 그냥. {내가 죽겠으니까 뭐 다 그냥.}

10212 #1 개 그건만 막 이래 디루 부짜꾸 주거라구 히. {그래 그것만 막 이렇게 뒤로 붙잡고 죽어라 하고, 히.}

10212 #1 아이구 그 생각걸 하면 지금두 그냥 머 그: 일리리 다 모타지요.{아이고 그 생각을 하면 지금도 그냥 뭐 그 일일이 다 못하지요.}

10212 #1 그냥 처다난 그::르케 애릴 머꾸 나떠요, 그. {그냥 첫 아이는 그렇게 애를 먹고 낳았어요, 그.}

10212 #1 아유:: 생각해보면 머 피라내 머 이췌요? {아유 생각해 보면 뭐 피란에 뭐 있어요?}

10212 #1 따듬독뚜 움찌 아무거뚜 움쓰닝까. {다듬잇돌도 없지 아무 것도 없으니까.}

10212 #1 돌:매이가 요마::난, 그 납조강 기, 요마:항 기 이떠라고요. {돌맹이가 요만한, 납작한 게 요만한 게 있더라고요.}

10212 #1 고골 노코서 그냥 빨래릴 인재 푸래 가주구 뚜디리가주... {그걸 놓고서 그냥 빨래를 풀 해 가지고, 두드려 가지고...}

10212 @ 그러면:~? {그러면:~} 10212 #1 아휴:: 그레 제:가 와 가주구 인재 그르케 사:느닝개. {아휴 그레 제가 와 가지고 그렇게 사니까.}

10212 #1 인재 돈 이:마뉘느로 따듬뚝뚜 사개꾸. {돈 이만 원으로 다듬잇돌도 사겠고.}

10212 #1 강우리두 사개꼬 머:. {광주리도 사겠고 뭐.}

10212 #1 이 숙칼도 인재 좀 사개꼬 머. {이 숟가락도 이제 좀 사겠고 뭐.}

10212 #1 저르케 장: 담는대 소금도 쭈 사 가주구 인재 좀 구거렁 거뚜 하거꾸. {저렇게 장 담그는데 소금도 좀 사 가지고 이제 좀 그런 것도 하겠고.}

10212 #1 이:마느로 이걸 찌걸 쪼끔 하거떠라고요. {이만 원으로 이것 저것 조금 하겠더라고요.}

10212 #1 개선 이르케 해 가주구 인재 살구:. {그래서 이렇게 해 가지고 살고.}

10212 #1 인재: 머 농살 지:닝개 인재 머 아수웅 거넌 별루 우:꼬. {이제 뭐 농사를 지니까 이제 뭐 아쉬운 것은 별로 없고.}

10212 #1 그래 인재 이 양바니 또 인재 가 가주구. {그래 이제 이 양반이 또 이제 가 가지고.}

10212 #1 피라내 깨진, 이 소시 깨저뜨라고요. {피란에 깨진, 이 술이 깨졌더라고요.}

10212 #1 폭타내 마자 가주. {폭탄에 맞아 가지고.}

10212 #1 게 그거털 밀가루루: 이르게 아주까리라고 이짜나요? {그래 그것을 밀가루로 이렇게 아주까리라고 있잖아요?} 10212 @ 예:. {예:.}

10212 #1 아주까리 그거털. {아주까리 그것을.}

10212 #1 명: 씨, 명 요래 발라 가주 명씨하고요. {목화 씨, 목화 이렇게 발라 가지고 목화씨하고요.}

10212 #1 고 명하구 아주까리하:고 가루 좀 쪼끔씩 꼭:꼭 찌 가주구서. {그 목화하고 아주까리하고 가루 좀 조금씩 콕콕 찌어 가지고서.}

10212 #1 그걸루 손 깨진덜 발르머뇨 한 여르른 가요. {그걸로 술 깨진 데를 바르면요 한 열흘은 가요.}

10212 @ 아:. {아:} 10212 #1 여를써건. {열흘씩은.}

10212 #1 근대 인재 고래 가주구 바다 먹따가. {근데 그래 가지고 받아 먹다가.}

10212 #1 나중에 그 소때우는 사라미 와 가주구 그래 그걸루 때와 가주구. {나중에 그 술 때우는 사람이 와 가지고 그래 그걸로 대워 가지고.}

10212 #1 예:, 그르케 살다가. {예, 그렇게 살다가.}

10212 #1 우리 세째 성이 일번 사라썬요. {우리 셋째 형님이 일본에서 살았어요.}

10212 #1 일본서 사라썬는데. {일본에서 살았었는데.}

10212 #1 그래 인재 일번 인년 성이 나와 가주구. {그래 이제 일본에 있는 형님이 나와 가지고.}

10212 #1 쫘, 좀 오설 좀 가져와 가주구. {쫘, 좀 옷을 좀 가져 와 가지고.}

10212 #1 애:들 오뚜 좀 인재 이케 이피닝개 좀, 좀 그걸로 쪼끔 나뜨라고요 좀. {애들 옷도 좀 이제 입히니까 좀, 좀 그걸로 조금 낫더라고요 좀.}

10212 #1 그래서 인재 아:들 오뚜 그걸루 좀 이피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 옷도 그걸로 좀 입히고.}

10212 #1 돈:도 쪼끔 쥐:서 그냥 이거 쪼끔 좀 사구. {돈도 조금 쥐서 그냥 이것 조금 좀 사고.}

10212 #1 술또 가마소설. {술도 가마술을.}

10212 #1 세죽 꼬리넨 가마술. {쇠죽 끓이는 가마술.}

10212 #1 그거털 인재 또 하나 사 주더라고요. {그거를 이제 또 하나 사 주더라고요.}

10212 #1 그래 그걸루 또 사고. {그래 그걸로 또 사고.}

10212 #1 인재 소선 인재 양은소선 이 양바니 인재 또 저기 인재 영동 왜 장인데. {이제 술은 이제 양은술은 이 양반이 이제 또 저기 이제 영동 왜 장인데.}

10212 #1 장애 가 가주 꼬추 말롱 거 쪼끔 농사징 거 내 가주, 그거 내 가주구 가서 사오구. {장애 가 가지고 고추 말린 거 조금 농사 진 거 내어 가지고, 그거 내어 가지고 가서 사 오고.}

10212 #1 그: 일리리 모태요:. {그 일일이 못 해요.}

10212 #1 얘기. {얘기.}

10212 #1 허허 아주 머 마랄 꺼도 업찌요. {허허, 아주 뭐 말할 것도 없지요.}

10212 @ 근대 그 숯 깨장 걸:: 아까 명:씨하고 밀가루하고?: {그런데 숯 깨진 것을 아까 목화씨하고 밀가루하고?}

10212 #1 예, 명. {예, 목화.}

10212 @ 예. {예.}

10212 #1 명씨: 이케 빼면 이짜나요? {목화씨 이렇게 빼면 있잖아요?}

10212 @ 예. {예.}

10212 #1 그거 명이 이짜나요? {그 목화가 있잖아요?}

10212 #1 거 명. {그 목화.} 10212 @ 예. {예.}

10212 #1 머여씨, 이르케 명. {뭘였어, 이렇게 목화.}

10212 #1 마라, 그 명 나무에 다:래라구 이찌요. {말하면 그 목화 나무에 다래라고 있지요.}

10212 #1 다래에서 명 이러케 송아리 나오자나요? {다래에서 목화 이렇게 송이가 나오잖아요?}

10212 #1 고걸 빼 가주구서 인재 아주까리하고 그거 하고 밀가루 줌 느 가주 짜::꾸 찌여. {그걸 빼 가지고 이제 아주까리하고 그거하고 밀가루 좀 넣어 가지고 자꾸 찢어요.}

10212 #1 자꾸 찢면 그거시 인재 아주 그르케. {자꾸 찢면 그것이 이제 아주 그렇게.}

10212 #1 저 콩 이짜나요? {저 콩 있잖아요?}

10212 #1 또 콩도 쪼끔 느코. {또 콩도 조금 넣고.}

10212 #1 콩알 쪼끔 느쿠. {콩을 조금 넣고.}

10212 #1 그래 가주구서 인재 그래 그걸 찌마뇨:. {그래 가지고 이제 그래 그걸 찢으면요.}

10212 #1 그기 차지요. {그게 차져요.}

10212 #1 그 그걸루 인재 고 떠러, 여그 요 깨진 대릴 인재 풀: 느:가주구. {그걸로 이제 그 떨어, 여기 요기 깨진 데에 그걸 넣어 가지고.}

10212 #1 요래 요래 인재 발라요. {요렇게 요렇게 이제 발라요.}

10212 #1 고 깨진 대릴. {고 깨진 데를.}

10212 #1 쪽:쪽 눌러 가주구. {쪽쪽 눌러 가지고.}

10212 #1 눌러 가미 발르만 게 오:래 가요. {눌러 가면서 바르면 그게 오래 가요.}

10212 #1 그기. {그게.}

10212 @ 아, 그래도 그개 불때구? {아, 그래도 그개 불 때고?} 10212 #1 예, 한 시보 일::, 리시빌꺼지 가요. {예, 한 십오 일::, 이십 일까지 가요.}

10212 @ 불때구 그래두 그개 갱장이 차, 차져서 \*\*\*\*\*? {불 때고 그래도 그개 굉장히 차 차져서 \*\*\*}

10212 #1 예 예: 예, 거기다 소주걸, 소주걸 꼬리두 한 이시빌씩 가요. {예 예 예, 거기에 다 소죽을 소죽을 끓여도 한 이십 일씩 가요.}

10212 @ 어:. {어:.}

10212 #1 근대 그르케: 가주 바다 명는대 인재. {그런데 그렇게 해 가지고 받아 먹는데 이제.}

10212 #1 그 우리, 우리 그:: 세째 성이 그째 일버느루 드러가 가주구서넌. {그 우리 우리 그 셋째 형이 글썸 일본으로 들어가 가지고는.}

10212 #1 그래서 도:널 쫘 줘서 그걸루 콩두 파라서 메주두 꼬리구:. {그래서 돈을 줘서 그걸로 콩도 팔아서 메주도 끓이고.}

10212 #1 저 소뚜 사서 주구:: 머::. {저 술도 사서 주고 뭐.}

10212 #1 그냥 그래 그래 해 가주구 살다, 사라썬요, 그냥. {그냥 그렇게 그렇게 해 가지고 살다가 살았어요, 그냥.}

10212 #1 게 살다 보닝개 기냥. {그래 살다 보니까 그냥.}

10212 #1 인재:: 그래두 노니 땅이 좀 이쓰닝개 기냥 고걸루 인재 농사지서 기냥 이래 머꾸. {이제 그래도 논이 땅이 좀 있으니까 그냥 그걸로 농사 지어서 그냥 이래 먹고.}

10212 @ 그러면 인재 애: 나자나요? {그러면 이제 애 낳잖아요?}

10212 @ 그러면 애 나코 나서 그: 삼 가른다 그러자나요? {그러면 애 낳고 나서 그 삼 가른다 그러잖아요?}

10212 #1 예. {예.}

10212 @ 그 태쭈두 찰라야 대고 이렇 건 다: 어트개 해야 되요? {그 태쭈도 잘라야 되고 이런 건 다 어떻게 해야 돼요?}

10212 #1 태쭈 찰르닝 거닌 우리 시어머니미:. {태쭈 자르는 거는 우리 시어머니미.}

10212 #1 그르케 애럴 머꼬: 나 하닝개. {그렇게 애를 먹고 하니까.}

10212 #1 처다넌 세상에 히미 업썬요. {첫아이는 세상에 힘이 없어요.}

10212 #1 여기 코도 모 푸러요. {여기 코도 못 풀어요.}

10212 #1 히미 하나:두 읍썬 가주. {힘이 하나도 없어 가지고.}

10212 #1 이개 머 이르케 그냥 하두 모태썬요. {이게 뭐 이렇게 그냥 하지도 못했어요.}

10212 #1 아무 거또. {아무 것도.}

10212 #1 그래 인재 우리 어먼니미 하시썬요. {그래 우리 어머니미 하썬지요.}

10212 #1 우리 어먼니미 인재 이르케 한넌대:. {우리 어머니미 이제 이렇게 했는데.}

10212 #1 인재: 날떠러 보라 구라다라고요. {이제 나더러 보라고 그러더라고요.}

10212 #1 다:매넌 니가 해야지 댜다고 그래서. {다음에는 네가 해야지 된다고 그래서.}

10212 #1 보라고 하넌대. {보라고 하는데.}

10212 #1 이개 보니까. {이렇게 보니까.}

10212 #1 인재 애기난 대. {아기 낳은 데.}

10212 #1 태쭈럴 자::꾸 요래 양짜그로 요리개 요리개 해요. {태쭈를 자꾸 요렇게 양쪽으로 요렇게 요렇게 해요.}

10212 #1 요르케 자:꾸 양짜그루 훌떠라고요. {요렇게 자꾸 양쪽으로 훌떠라고요.}

10212 #1 그라드니마넌 인재 요기두 실:루 째매라카고. {그러더니 여기도 실로 동여매라고 하고.}

10212 #1 요짜개두 째매라카고. {이쪽에도 동여매라고 하고.}

10212 #1 애기 인넌대. {아기 있는데.}

10212 #1 인재 요만::창 낭구구. {이제 요만큼 남기고.}

10212 #1 인재 고기 썬너. {고기를 썬어.}

10212 #1 인재 이르케 썬, 썬너 가주 요짜개 째매구 해 가주구 피두 몬 나오개 해 가주. {이제 이렇게 썬, 썬어 가지고 요쪽에 동여매고 해 가지고 피도 못 나오게 해 가지고.}

10212 #1 이개 태라구 이짜나요? {이게 태라고 있잖아요?}

10212 @ 예. {예.}

10212 #1 또. {또.}

10212 #1 그거 인재 또 이르게 나오니까 인재. {그거 이제 또 이렇게 나오니까 이제.}

10212 #1 사:라미 \*\*\* 살거뜨라고요. {사람이 \*\*\* 살겠더라고요.}

10212 #1 그래선 우리 어먼니미 알키 조가주구서넌 그래 그대루 인재 제가 해:썩요.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가르쳐 줘가지고는 그래 그대로 제가 했어요.}

10212 #1 어, 제가 그래 우리 어먼니미. {어, 제가 그래 우리 어머님.}

10212 #1 손자를 인재:: 우리 크나하구 둘째하구 야하구 \*\*하구 나쓰닝께. {손자를 우리 큰아이하고 둘째하고 애하고 \*\*하고 나았으니까.}

10212 #1 인재 우리 네:, 네째꺼지 해:썩요. {우리 네 넷째까지 했지요.}

10212 #1 네째꺼지 우리 어먼니미 사라서 우리 어먼니미 해:썩요. {넷째까지 우리 어머님이 살아서 우리 어머님이 했어요.}

10212 #1 그라고서넌 인재 꼭 꼬리주구 이개 삼 헐는데. {그리고는 국 끓여주고 이제 이개 삼 했는데.}

10212 #1 아들 스:이넌 인재 기냥. {아들 셋은 그냥.}

10212 #1 허허. {허허.}

10212 #1 제:가 그냥 인재 큰딸하고 그냥 이래 하고. {제가 그냥 이제 큰딸하고 그냥 이렇게 하고.}

10212 @ 그르구 나면. {그리고 나면.}

10212 @ 여르매도 불 때지요 막, 방애다가? {여름에도 불을 때지요 막, 방애다가?}

10212 #1 그러묘:. {그럼요.}

10212 #1 상::구 불 때고 사라썩요. {계속 불 때고 살았지요.}

10212 #1 상::구 불 때고::. {계속 불 때고.}

10212 #1 꼬치 좀 따머 어디 마를 때가 이썩요. {고추 좀 따면 어디 말릴 데가 있어요.}

10212 #1 그래 방애다 말라썩요. {그래 방애다 말렸어요.}

10212 #1 방애다 말르다가 인재. {방애다 말리다가 이제.}

10212 #1 어디 살:다가 보니까루 인재 또 이: 연타니 나와 가주구서. {어디 살다가 보니까 이제 또 이 연탄이 나와 가지고.}

10212 #1 연:타늘 인재 저 우리 아래채 요기 인는 쪼만 방애다가 인재 해 가주구. {연탄을 이제 저 우리 아래 채 여기 있는 조그만 방애다가 이제 해 가지고.}

10212 #1 고기다가 인재 또. {거기다가 이제 또.}

10212 #1 또 그래서 꼬추능 거기다 말르구. {또 그래서 고추는 거기다 말리고.}

10212 #1 인재 지 연타늘 인재 또 이래 또 버::개다가 인재 요래: 해 노코. {이제 연탄을 또 이래 부엌애다가 이제 이렇게 해 놓고.}

10212 #1 방애 그 연타닐 때고 불두 때고 이래 두부 가지루 해서 때구 사라썩요. {방애 그 연탄을 때고 불도 때고 이렇게 두 가지로 해서 때서 살았어요.}

10212 @ 조리::. {조리::.}

10212 @ 저 사누조리 할 때두 따뜨타개 하지 안나요? {저 산후조리할 때도 따뜻하게 하지 않나요?}

10212 #1 사누조리털 어티개 해요? {산후조리를 어떻게 해요?}

10212 #1 시어먼니미 게실 때야 사누조리 인저 일쭈이런 해썩요. {시어머님이 게실 때야 산후조리 이제 일쭈일은 했지요.}

10212 #1 예:저내 일쭈일 아니 일쭈일 아니면 더::넌 안나조요:. {예전에 일쭈일 아니 일쭈

일 아니면 더는 안하지요.}

10212 #1 예저넨 그래서요 다. {예전에는 그랬어요 다.}

10212 #1 그래서 인재 일쫓이른 시어머니미 이썸 때 해찌마년:: {그래서 이제 일주일은 시어머니가 있을 때 했지만.}

10212 #1 아: 넬나트루근 인재 우리 어먼니미 해찌요. {아이 넷 낳도록은 우리 어머님이 했지요.}

10212 #1 낸: 나쿠능 우리 내째 아들: 두살 머저서 우리 할머이가 도라가시구. {넷 낳고는 우리 넷째 아들 두 살 먹어서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시고.}

10212 #1 그미티루넨 인재 제가 해찌만. {그 밑으로는 이제 제가 했지만.}

10212 #1 그르키 이르키 아픈 대가 마:나요:. {그렇게 이렇게 아픈 대가 많아요.}

10212 #1 선생님 내가 기냥 너머너머 아파요:. {선생님 내가 그냥 너무너무 아파요.}

10212 #1 이래머: 아파 가주구서. {이래 뭐 아파 가지고서.}

10212 #1 허허. {허허.}

10212 #1 어떤 때는 이르키 생가글 해보면 그래요. {어떤 때는 이렇게 생각을 해 보면 그래요.}

10212 #1 아이구: 내가 어트개 그러구루 살다가 내 몸만 이르케 대꾸나:: 시퍼 가주구. {아이구 내가 어떻게 이러구로 살다가 내 몸만 이렇게 됐구나 싶어 가지고.}

10212 #1 한시만 생가기 마:이 드러갈 때가 이썸요. {한심한 생각이 많이 들어갈 때가 있어요.}

10212 #1 허허. {허허.}

10212 #1 왜 그러케 마니 난능가 모르개썸요. {왜 그렇게 많이 낳았는가 모르겠어요.}

10212 #1 허허허. {허허허.}

10212 #1 근대 그:: 가조깨라고 이썸썸요. {근데 그 가족계획이라고 있었어요.}

10212 #1 가족깨 인재 그거 헐는데 저넨 그개 마뜰 아내 가주구 모태썸요. {가족계획 그거 했는데 저는 그게 맞지 않아 가지고 못 했어요.}

10212 #1 모타고. {못 하고.}

10212 #1 그개 팔 램매럴 인재 난는대루 다: 키워썸요. {그렇게 팔 남매를 이제 낳는 대로 다 키워어요.}

10212 @ 잘 키워썸요 머? {잘 키워지요, 뭐?}

10212 #1 예. {예.}

10212 #1 팔 램매럴 다: 기냥 고 난-는대루 다 고대루 키워 가주구. {팔 남매를 다 그냥 그 낳는 대로 그대로 키워 가지고.}

10212 #1 즈더리 저래 다: 가서 바번 머꼬 살:고 인재 이라넹개. {저희들이 저렇게 다 가서 밥은 먹고 살고 이러니까.}

10212 #1 애:더리 인재 돈: 주구 이라니개 이르케 사:닝개. {애들이 이제 돈 주고 이러니까 이렇게 사니까.}

10212 #1 인재 이걸로 저넨 만조커고 이르케 사라요. {이걸로 저는 만족하고 이렇게 살아요.}

10212 #1 고양이, 허허. {그냥, 허허.}

10212 @ 예:. {예:}.

10212 #1 예. {예.}

10214 @ 조리할 때 처:매 인재 애 나코 나면:. {조리할 때 처음에 애 넣고 나면.}

10214 @ 국뚜 끄려 주구 밥뚜 해주구 그러자나요? {국도 끓여 주고 밥도 해주고 그러잖아요?}

10214 #1 예, 우리 시어머니미 하시쨌요. {예, 우리 시어머님이 하셨지요.}

10214 @ 예. {예.}

10214 @ 그걸? {그걸?}

10214 #1 일:쭈일 간. {일주일 간.}

10214 @ 예, 그걸 머라 그래? {예, 그걸 머라 그래?}

10214 @ 맨:처매 멩는 밥? {맨 처음에 먹는 밥?}

10214 #1 근대 인재: 처꼭빠비라 구라자나요. {그런데 이제 첫국밥이라고 그러잖아요.}

10214 @ 예:. {예.}

10214 #1 처꾸개 처매 애기 나서 인재 바패 주능 개 처꼭빠비여. {첫국에 처음에 아기 낳아서 이제 밥해 주는 게 첫국밥이야.}

10214 @ 그거는 어트개 머거쨌요? {그거는 어떻게 먹었어요?}

10214 #1 그거넌 인재 예 인재 이 양바니 인재. {그거는 이제 예 이제 이 양반이 이제.}

10214 #1 그때는 미여기 어디 기:해쨌요:. {그때는 미역이 어디 귀했어요.}

10214 #1 머기 기해 가주구:. {미역이 귀해 가지고.}

10214 #1 떡뚜 사다 노치두 아내쨌요. {미역도 사다 놓지도 않았어요.}

10214 #1 여기 점빵이 하나 이쨌는데. {여기 전방이 하나 있었는데.}

10214 #1 거기 가서 이 양바니 가서 사 가주구 와서. {거기 가서 이 양반이 가서 사 가지고 와서.}

10214 #1 그래 인재 우리 어떤니미 그래 끄리 줘:쨌요. {그래 우리 어머님이 그래 끓여 주었지요.}

10214 #1 그땐 왜 미역뚜 그르개 기하등가 몰라요. {그땐 왜 미역도 그렇게 귀했던가 몰라요.}

10214 #1 미역뚜 기해쨌요. {미역도 귀했어요.}

10214 #1 떡뚜 요마:낭 거 하나 가주구 인재 일쭈일 그냥 그려 머거쨌. {미역도 요만한 거 하나 가지고 이제 일주일 그냥 끓여 먹었지.}

10214 #1 쪼끔씩. {조금씩.}

10214 @ 요새는 머 미역 다:. {요새는 뭐 미역 다:}

10214 #1 막: 미역 천지 아니애요? {막 미역 천지 아니예요?}

10214 @ 재배하자나요? {재배하잖아요?}

10214 #1 그러묘. {그럼요.}

10214 @ \* \*\*\* 머. {\* \*\*\* 뭐}

10214 #1 미여기 머 얼마나 마나요? {미역이 뭐 얼마나 많아요?}

10214 #1 지금 애기 안 나두 미여꾸걸 머 얼마나 끄리머거요? {지금 아기 안 나도 미역국을 뭐 얼마나 끓여 먹어요?}

10214 @ 예. {예.}

10214 #1 저두 지금두 미역꼭 잘 끄리 머거요. {저도 지금도 미역국 잘 끓여 먹어요.}

10214 #1 지금. {지금.}

10214 #1 그때는 미역뚜 기해 가주구. {그때는 미역도 귀해 가지고.}



10214 #1 요런 거 하나만 하니배 기냥 꼬리 머꾸, 그러면 끝나능 거요, 인재. {요런 거 하나면 한 입에 그냥 끓여 먹고, 그러면 끝나는 거요, 이제.}

10214 #1 머꾸기구 머꾸 머. {미역국이고 뭐고 뭐.}

10214 #1 허허허. {허허허.}

10214 #1 그때 당시는. {그때 당시는.}

10215 @ 배기리나: 돌:잔치 아까 제가 여쭙 바짜나요? {백일이나 돌잔치 아까 제가 여쭙 봤잖아요? }

#1 예:. {예.}

10215 @ 배길:: 가통 거 예저내 잔치는 잘 아내쨌요? {백일 같은 거 예전에 잔치는 잘 안 했지요?}

10215 @ 배길? {백일?}

10215 #1 아내쨌요::. {안 했어요.}

10215 #1 우리 애덜:. {우리 애들.}

10215 #1 쫘. {쫘.}

10215 #1 배기::른 기냥 인재 기냥 내빌라두구:. {백일은 그냥 이제 그냥 내버려두고.}

10215 #1 인재 돌만. {이제 돌만.}

10215 #1 그냥 미여꿍만 그 나른 배기리면 그날 인재 기냥 미여꿍만 꼬리서 기냥 바파구 머꼬:. {그냥 미역국만 그 날은 백일이면 그날 이제 그냥 미역국만 끓여서 그냥 밥 하고 먹고.}

10215 #1 인재 돌:때년 기냥 인재. {이제 돌 때는 그냥 이제.}

10215 #1 돌, 돌떠그루 해 줘야 조타: 하닝개 기냥 인재 그래. {돌, 돌떡으로 해 줘야 좋다고 하니까 그냥 이제 그래.}

10215 @ 머머 해쨌요, 돌 때는? {뭘뭘 했어요, 돌 때는?}

10215 #1 돌 때 인재 기냥:: 이: 기냥 백설구 떡카구. {돌 때 이제 그냥 이 그냥 백설기 떡하고.}

10215 #1 그또 그냥 이르게 백설구. {그것도 그냥 이렇게 백설기.}

10215 #1 그때마내도 자라넌 사람덜 이르게 떠걸. {그때만 해도 잘 하는 사람들 이렇게 떡을.}

10215 #1 무:지개 떠그라 무:지개 떠기라고 이르게 해놔요. {무지개 떡이라고, 무지개 떡이라고 이렇게 해놔요.}

10215 # 수수파떠기라 고라능 거, 수부파떡. {수수팔떡이라 그러는 거야, 수수팔떡.}

10215 #1 그때 인재 그르캐: 해논는데. {그때 이제 그렇게 해 놓는데.}

10215 #1 무지개 떠기라고 머 무털 이르게 세:가지 디리서 요르게 해요:. {무지개 떡이라고 뭐 물을 이렇게 세 가지 들여서 이렇게 해요.}

10215 #1 고로캐 해 논는데. {그렇게 해 놓는데.}

10215 #1 우리넌 인재 그렇 거뚜 모태쨌요. {우리는 이제 그런 것도 못 했어요.}

10215 #1 모타고 그냥 인재 백설구 하구. {못 하고 그냥 이제 백설기 하고.}

10215 #1 쭈수 그. {수수 그.}

10215 #1 흘쩍캐라카넹 거 만드는 거. {벼훔이라고 하는 거 만드는 거.}

10215 #1 거기서 나오, 뚜디리면 나오거던뇨. {거기서 나오는, 두드리면 나오거든요.}

10215 #1 거거 쭈수때. {그거 수수깡.}

10215 #1 그거 인재 농사짓 겐루 그걸 글개 해 가주구서. {그거 이제 농사 지은 겐로 그  
것을 그렇게 해 가주구서.}

10215 #1 그걸 빠시 가주구 인재 이래 쭈수파떠기라구 인재. {그걸 바쉬 가지고 이제 이  
렇게 수수팔떡이라고 이제.}

10215 #1 예, 쭈수파떠기라카지요, 그거덜. {예, 수수팔떡이라고 하지요, 그것을.}

10215 #1 쭈수파떡. {수수팔떡.}

10215 @ 그 고물? {그 고물?}

10215 @ 고무를 팔 파스로? {고물을 팔 팔으로?} 10215 #1 파스루. {팔으로.}

10215 # 어, 파스루 하능 거 인재. {어, 팔으로 하는 거.} 10215 #1 예 예. {예 예.}

10215 #1 파스루. {팔으로.}

10215 @ 예. {예.}

10215 # 고물루 하구. {고물로 하고.}

10215 @ 돌:. {돌.}

10215 @ 애들 돌, 돌잔치 하면서 돌쌍은 안 차려요? {애들 돌 돌잔치 하면서 돌상은 안  
차려요?}

10215 #1 그때 당신 돌싸리. {그때 당시는 돌상이.}

10215 #1 돌:쌍은 우리넌 모차리썩요. {돌:상은 우리는 못 차렸어요.}

10215 #1 우리애:덜 팔 람매 다:: 모태존넌대. {우리 애들 팔 남매 다 못 해줬는데.}

10215 #1 이 삼신:깨라고 이짜나요? {이 삼신 할머니라고 있잖아요?}

10215 #1 삼신할매이라고. {삼신할머니라고.}

10215 #1 요 구석찌다가. {이 구석에다가.}

10215 @ 예. {예.}

10215 #1 이제 지별 까라요. {이제 짚을 깔아요.}

10215 #1 지별 깨::끄시 인재 다:: 추리서. {짚을 깨끗이 이제 다 추려서.}

10215 #1 인재 이깨 다: 추리 가주. {이제 이렇게 다 추려가지고.}

10215 #1 깨끄타개 추리 가주 인재. {깨끗하게 추려 가지고 이제.}

10215 #1 구석찌다가 쪽:: 깔구서. {구석에다가 쪽 깔고서.}

10215 #1 미어꾸 끄리고. {미역국 끓이고.}

10215 #1 인재 그 쌀-바벌 해 가주구서 인재 그래 거기서. {이제 그 쌀밥을 해 가지고서  
제 그렇게 거기서.}

10215 #1 맨간자하고 인재 요래 썩가지. {맨간장하고 이렇게 세 가지.}

10215 #1 물 떠 노코. {물 떠 놓고.}

10215 #1 고로개 바가지다 무털 떠 노, 떠 노코. {그렇게 바가지에다 물을 떠 놓(고) 떠  
놓고.}

10215 #1 예, 그래 가주구서. {예, 그래 가지고서.}

10215 # 삼신할마이한테 빈:다고 그래서. {삼신할머니한테 빈다고 그래서.}

10215 #1 하하하. {하하하.}

10215 # 구석찌다가 그르개 하능 기여. {구석에다가 그렇게 하는 거야.}

10215 #1 하하하, 예. {하하하, 예.}

10215 @ 예. {예.}

10215 #1 그래 노코 인재 삼신할마이 바가지라고. {그래 놓고 삼신할머니 바가지라고.}

10215 #1 인재 여 엔:나래 실경 이르케. {이제 여기 옛날에 시렁 이렇게.}

10215 @ 예. {예.}

10215 #1 저: 매:노차나요? {저 매어 놓잖아요:??}

10215 #1 실경이라고 이르케 예:. {시렁이라고 이렇게.}

10215 # 집짐마둥 이따시피 해요. {집집마다 있다시피 해요.} 10215 #1 그러면 인재 거기  
다가 매주 다.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매주 다.}

10215 #1 매주릴 끄리서 달구 이라자나요, 고런대. {매주를 끓여서 달고 이리잖아요, 그  
런데.}

10215 #1 인재 거기다 매주루두 달구. {이제 거기다 매주도 달고.}

10215 #1 구석찌다가 삼신바가지라구 인재 물 떠 놓능 거요. {구석에다가 삼신바가지라고  
이제 물 떠 놓는 거요.}

10215 #1 그거넌 바가지. {그것은 바가지.}

10215 #1 고기다가 인재 물두 떠 노코. {거기다가 이제 물도 떠 놓고.}

10215 #1 그래야 인재 그기 어퍼나요 또. {그래야 이제 그걸 얹어 봐요 또.}

10215 #1 멸뚜:죽 해 노코. {\*\*\* 해 놓고.}

10215 #1 또 나중에 인재 또 애:덜 인재 또 인재 머 아프거나 머 어트가거나 하면. {또 나  
중에 이제 또 애들 이제 또 이제 뭐 아프거나 뭐 어떻게 하거나 하면.}

10215 #1 인재 집까라 노쿠 물 떠다 노쿠 또. {짚 깔아 놓고 물 떠다 놓고 또.}

10215 #1 우리 할마이넌 또 빌:대요. {우리 할머니는 또 빌대요.}

10215 # 흐흐, 비러, 비러. {흐흐, 빌어, 빌어.}

10215 #1 그러면 애더리 인재 그래 또 켜잔코. {그러면 애들이 이제 그래 또 켜참고.}

10215 #1 그래 가주구. {그래 가지고.}

10215 #1 그르케 살:구. {그렇게 살고.}

10215 #1 머 애들 도:래넌 항상 인재 기냥 그르케 백설구하구: 저 쭈수파떠카구. {뭐 애들  
둘에는 항상 그냥 그렇게 백설기하고 저 수수팔떡 하고.}

10215 #1 우린 이르케배끼 아내조써요. {우린 이렇게밖에 안 해 쫘어요.}

10215 #1 떡꾸끄리던지 바패 노코 이래 직까라 노코. {미역국 끓이든지 밥해 놓고 이렇게  
짚 깔아 놓고.}

10215 #1 고기다가 인재 기냥 바팡 거럭 미여꼭 항 거럭, 맹간장 인재 요래 쫘 떠 노  
코. {거기다가 이제 그냥 밥 한 그릇 미역국 한 그릇, 맹간장 이제 이렇게 쫘  
떠 놓고.}

10215 #1 떠꾸걸 해 놓 거 \*\*. {떡국을 해 놓은 거 \*\*.}

10215 #1 이래 처꾸빠비라구 애기 나면 또 그르케 해요 또. {이래 찻국밥이라고 애기 낳  
으면 또 그렇게 해요 또.}

10215 @ 예. {예.}

10215 #1 이르케 해노. {이렇게 해놓지.}

10215 #1 그리캐:: 해찌요 머. {그렇게 했지요 뭐.}

10215 @ 쭈수파떠근 언제까지 해 조써요? {수수팔떡은 언제까지 해 쫘어요?}

10215 @ 며쌀 쟁도까지? {몇 살 정도까지?}

10215 #1 그거넌 돌 때만 해줘써요. {그거는 돌 때만 해쫘어요.}

10215 @ 그 뒤에는? {그 뒤에는?}

10215 #1 안: 해 조씨요. {안 해 줬어요.}

10215 #1 예. {예.}

10215 #1 그거 \*\* 이 그 열 쌀 먹뚜룩 해 주면 조태요. {그거 \*\* 열 살 먹도록 해 주면 좋대요.}

10215 #1 열 쌀 먹뚜룩. {열 살 먹도록.}

10215 #1 그리타는대 우리넌 그러켄 안 해조 바씨요. {그렇다는데 우리는 그렇게는 안 해 줘 봤어요.}

10215 @ 아::, 그래서. {아::, 그래서.} 10215 #1 열 쌀 먹뚜룩 아내 보고. {열 살 먹도록 안 해 보고.}

10215 #1 냥 돌 때. {그냥 돌 때.}

10215 #1 돌 때만 이제 그래 해 주구넌 안해 조씨요. {돌 때만 그렇게 해 주고 안 해 줬어요.}

10215 @ 요새 머그니까 수수파떡기 마신는데 저 어려쉴때는 그개 그르캐 머끼 시러썬 요. {요새 먹으니까 수수팔떡이 맛있는데 저 어렸을 때는 그개 그렇게 먹기 싫었어요.}

10215 # 마저. {맞아.}

10215 @ 근대. {근데.} 10215 #1 그래두 마시. {그래도 맛이.}

10215 @ 그런대 저히 어머니가, 지금 말씀하신, 제가 그래서 여쭙 보녕 거애요? {그런데 저히 어머니가, 지금 말씀하신, 제가 그래서 여쭙 보는 거예요?}

10215 @ 거이 열 쌀 때까지 해씨요? {거의 열 살 때까지 했어요?} 10215 #1 예. {예.}

10215 @ 저: 하꼬 다닐 때까지 그걸 해주셔씨요. {저 학교에 다닐 때까지 그걸 해주셨어요.}

10215 @ 그래 가주구 저는 머끼 시른대 자꾸만 생일만 대면 해 주능 거애요. {그래 가지고 저는 먹기 싫은데 자꾸만 생일만 되면 해 주는 거예요.}

10215 #1 해: 주지요, 그기 조태요. {해 주지요, 그개 좋대요.}

10215 #1 그췌 열 쌀 먹뚜루기요. {글췌 열 살 먹도록이요.}

10215 #1 열 쌀 먹뚜룩 수수파떡해주른 저 조타닌대 아:내조씨유. {열 살 먹도록 수수팔떡 해 주면 저 좋다는데 안 해 줬어요.}

10215 #1 저넌. {저는.}

10215 #1 함 분 돌 때만 우리애더런. {한 번 돌 때만 우리 애들은.}

10215 #1 다:: 돌 때만 함 분 해 주만 안 해조요, 거냥. {다 돌 때만 한 번 해 주면 안 해 줘요, 그냥.}

10215 #1 해주두 모타고. {해주지도 못하고.}

10215 #1 막: 그냥 그냥 지 생이리라구 인재. {막 그냥 그냥 제 생일이라고.}

10215 #1 양 며:공만 끄리 주구. {그냥 미역국만 끓여 주고.}

10215 #1 인재 이래 바벌 줌 머 인재. {이제 이래 밥을 줌 뭐 이제.}

10215 #1 그때 머 쌀두 얼마나 기해요:: {그때 뭐 쌀도 얼마나 귀해요.}

10215 #1 그래서 쌀바비라고 인재 쪼끔 해:서 주구 미여꾸 끄리서 기냥 이래 주구 이래 췌. {그래서 쌀밥이라고 이제 조금해서 주고 미역국 끓여서 그냥 이렇게 주고 이랬지.}

10215 #1 그러캐 아:내씨요. {그렇게 안 했어요.}

10215 #1 저는 해보지 아내씨요. {저는 해 보지 않았어요.}

10215 #1 그런 시가니 읊구. {그런 시간이 없고.}

10215 #1 해 줄 씨간두 읊서. {해줄 시간도 없어.}

10215 @ 모르개씨유, 근때 저히두: 그르캐 풍조카개 살:지를 아나꺼든뇨. {모르겠어요, 그 때 저희도 그렇게 풍족하게 살지를 않았거든요.}

10215 @ 그런대 하이튼 그 저 수수파떠근 그르캐 하시드라고요. {그런데 하여튼 그 저 수수팔떡은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10215 #1 예 그걸 해 주만 조태요. {예 그걸 해주면 좋대요.}

10215 #1 예. {예.}

10215 #1 수수파떠글 그래 열 쌀 먹뚜룩 해 주면 조:타캐서. {수수팔떡을 그래 열 쌀 먹도록 해 주면 좋다고 해서.}

10215 #1 그래 해: 주넌 엄마드리 마:나씨요. {그렇게 해 주는 엄마들이 많았어요.}

10215 #1 저넌 해 주두 모태떠요. {저는 해 주지 못했어요.}

10215 @ 수수두 저기 수 수수두 찰 개 이꾸 메 개, 메, 메 개 이꾸 그래요? {수수도 저기 수, 수수도 찰 개 있고 메 개, 메 메 개 있고 그래요?}

10215 #1 예:. {예.}

10215 #1 게 그 수수파떠카능 거넌 찰 걸루 해야 대요. {그래 그 수수팔떡하는 것은 찰 걸로 해야 돼요.} 10215 @ 예. {예.}

10215 #1 예:, 찰 걸루 하고. {예, 찰 걸로 하고.}

10215 #1 메거넌 인재 메쌀. {메 거는 멍쌀.}

10215 #1 그거넌 방애 찰 때두 그거넌 인재 메싸런 바배, 바불 해 머꼬. {그거는 방아 찹을 때두 그거는 이제 멍쌀은 밥애, 밥을 해 먹고.}

10215 #1 찰거넌 인재 거 수수파떠갈 때. {찰 거는 이제 그 수수팔떡 할 때.}

10215 #1 떠개 머걸 때. {떡 해 먹을 때.}

10215 #1 그러구 인재 그걸루 저: 수수부꾸미라고 뭐:요. {그리고 이제 그걸로 저 수수부꾸미라고 구워요.}

10215 #1 부침개루요. {부침개로요.} 10215 @ 예. {예.}

10215 #1 그르닝개 부침개루 꾸만 그걸루 떠꼭 끄리넌 대두 느쿠:. {부침개로 구우면 그걸로 떡국 끓이는데도 넣고.}

10215 #1 어: 기냥 인재 이르캐 부꾸미라고 그 그래요. {예 그냥 이제 이렇게 부꾸미라고 그것을 그래요.}

10215 #1 수수부꾸미라구 그래요. {수수부꾸미라고 그래요.}

10215 #1 그그 이러멀. {그것 이름을.}

10215 @ 예. {예.}

10215 #1 부침개 쑤넌 거덜. {부침개 굽는 거를.}

10215 #1 그래 가주 그르캐 해서두 해 머꾸 고라지요.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해서도 해 먹고 그러지요.}

10215 #1 찰 걸렁 그르캐 해요. {찰 것으로는 그렇게 해요.}

10215 #1 두 가지루. {두 가지로.} 10215 @ 그거 찌기 비, 방배 매능 거 이짜나요? {그거 저기 방 비 매는 거 있잖아요?}

10215 #1 예:. {예.}

10215 @ 하:양 거? {하얀 거?}

10215 #1 예:. {예.}

10215 @ 그거, 그거는 멍거예요? {그거는 멘 거예요?}

10215 #1 그건:: 그. {그건 그.}

10215 @ 찰 거예요, 그개? {찰 거예요, 그개?}

10215 #1 그기요:. {그게요.}

10215 @ 두 가지 다르나요? {두 가지가 다른가요?}

10215 #1 지그먼:: 그 비매녕거넌 어:: 별로 조털 아내요. {지금은 그 비 매는 것은 에 별로 좋지를 않아요}

10215 #1 엔:날 수수거털 아내요. {옛날 수수같지 않아요.}

10215 #1 그거넌. {그거는.}

10215 #1 근대 그기 마니 안 나온다카대요. {그런데 그게 많이 안 나온다고 하데요.}

10215 #1 그 비 매녕거넌. {그 비 매는거는.}

10215 #1 근대:. {근데.} 10215 # 찰쭈수, 메쭈수. {찰수수, 메수수.}

10215 #1 우리::, 우리덜 농 엔:나래 농사질 때넌. {우리, 우리들 농 옛날에 농사지을 때는.}

10215 #1 그르케 막 비, 비 매녕 거 이렇 거: 직 지금거치 징: 개 안 나오고요. {그렇게 막 비 매는 거 이런 거 지금같이 긴 게 안 나오고요.}

10215 #1 비털 매도 거냥 인재 쪼마:치, 쪼만하지요.{비를 매도 그냥 이제 조그만큼 조그만하지요.}

10215 #1 인재 엔:날 우리덜. {이제 옛날 우리들.}

10215 @ 빨강 거두 이썬썬요? {빨강 것도 있었어요?} 10215 #1 예, 우 엔:날 우리덜 비 매 가주 쓸 때넌. {예, 옛날 우리들 비 매 가지고 쓸 때는.}

10215 #1 빨가나이 쪼마::나니 머 다: 매두 쪼매:내썬요, 그냥. {빨간하니 조그만하니 뭐 다 매도 조그만 했어요, 그냥.}

10215 #1 고래서 고령 걸루 그냥 메쭈수 찰쭈수 인재 이렇 걸루 해: 가주구. {그래서 그런 걸로 그냥 메수수, 찰수수 이제 이런 걸로 해 가지고.}

10215 #1 뚜디리 가주 이래 해 머거짜마넌. {두드려 가지고 이렇게 해 먹었지만은.}

10215 #1 그거 지금 나오는 이른 그른 비짜리넌 엔:나래넌 읍썬썬요. {그거 지금 나오는 이런 그런 빗자루는 옛날에는 없었어요.}

10215 #1 지금 이기 중녀내 그기 나와짜나요. {지금 이게 중년에 그게 나왔잖아요.}

10215 #1 그 비 매능 개. {그 비 매는 게.}

10215 #1 비 매능 거두 오래 돼:찌. {비 매는 것도 오래 됐지.}

10215 #1 그 인재 비 매능 거 나오능 거 또 오래되겐내. {그 이제 비 매는 거 나오는 것 또 오래 되겠네.}

## 1.1. 일생 의례(시집살이)

10218 @ 할머니문 지금 얘기 드려보니까 머. {할머니는 지금 얘기 들어보니까 뭐.}

10218 @ 저:기 씨집싸리 가툼 거는 별루 안 하신 거 가트내요? {저기 시집살이 같은 것은 별로 안 하신 거 같네요?}

10218 #1 씨집싸린 안: 해썌요. {시집살이는 안 했어요.}

10218 @ 예. {예.}

10218 @ 그냥 마음. {그냥 마음.}

10218 #1 예, 시집싸린. {예, 시집살이는.}

10218 @ 그런:대서는 마으른 퍼나서땡거 가태요. {그런 데서는 마음은 편하셨던 거 같 아요.}

10218 #1 예:, 우리 할머니가. {예:, 우리 할머니가.}

10218 #1 아::주 마미 차카시구요. {아주 마음이 착하시고요.}

10218 #1 아주 인재: 이: 이르캐 피라내 와 가주 산다구. {아주 이제 이 이렇게 피란에 와 가지고 산다고.}

10218 #1 아주:: 저 얼마나 기냥 애끼지 몰라요. {아주 저럴 얼마나 그냥 아꼈는지 몰라요.}

10218 #1 그라고 옐:나래넌 저::기 또: 아드렐 마니 나면. {그리고 옛날에는 저기 또 아 들 을 많이 낳으면.}

10218 #1 메느릴 엄청 조아해짜나요. {며느리를 엄청 좋아했잖아요.}

10218 #1 개서 우리 어먼니미 어: 줌 예 그전: 인재 그저내넌 점.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에 줌 예(전) 그전 이제 그전에는 줌.}

10218 #1 어 형제루 마니 내려오고. {에 형제로 많이 내려 오고.}

10218 #1 인재 독썌:도 이썌꼬. {이제 독신도 있었고.}

10218 #1 형제로:만 내려와꺼던뇨. {형제로만 내려왔거든요.}

10218 #1 우리 어먼님 대꺼지. {우리 어머님 대까지.}

10218 #1 예전부텅 그래따는대. {예전부터 그랬다는데.}

10218 #1 우리: 대에 이:: 요그 이 양반 동짜 돌리무루 와 가주구서넌. {우리 대에 이 요 기 이 양반 동자 돌림으로 와 가지고는.}

10218 #1 자손드리 줌 호내썌요. {자손들이 줌 혼했어요.}

10218 #1 그래 가주구 딸 하나 나쿠서 아 이제 아드렐 인재 내리 느이렐 나꺼던뇨. {그래 가지고 딸 하나 낳고서 이제 아들을 이제 내리 넷을 낳았거든요.}

10218 #1 그라니 우리 어먼니미 세상에 나 혼자만 메느리 봉 거거치. {그러니 우리 어머 님이 세상에 나 혼자만 며느리 본 것같이.}

10218 #1 아::주 그냥 그르캐 저렐 생가걸 하더라고요. {아주 그냥 그렇게 저를 생각을 하 더라고요.}

10218 #1 그라구 인재 고상안다구. {그리고 이제 고생한다고.}

10218 #1 우리 어먼니미 인재 이르캐 와 가주구 고생한다: 이르캐 아주 한다구. {우리 어 머님이 이제 이렇게 와 가지고 고생한다 이렇게 아주 한다고.}

10218 #1 우리 어먼니미 아::주 마미 천시니썌요. {우리 어머님이 아주 마음이 천신이었 어요.}

10218 #1 아주 그냥. {아주 그냥.}

10218 #1 우리 어먼님 나 하나두 시집싸리 안 씨기썌요. {우리 어머님 나 하나도 시집살 이 안 시켰어요.}

10218 @ 시택-카구 칭전하구 혹씨 그 습파니 달라 가주구. {시택하고 친정하고 혹씨 그 습관이 달라 가지고.}

10218 @ 며 실쑤하시거나 며 그렁 거는 업썌썌요? {뭐 실수하시거나 뭐 그런 거는 없었어요?}

10218 #1 그렇 거넌 업써요. {그런 거는 없어요.}

10218 @ 예. {예.}

10218 @ 음식:. {음식.}

10218 @ 제사 음식기나 머 명절 풍수비나 이렇 거뚜 여기 다 그렇 거 차이가 별루 업써  
요? {제사 음식이나 뭐 명절 풍습이나 이런 것도 여기 다 그런 거 차이가 별로  
없지요?}

10218 #1 별로 업써요 그렇 건. {별로 없지요 그런 건.}

10218 #1 그린대 인재 우리넌 인재 이:. {그런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이.}

10218 #1 저넌 인재 칠팔손::하구 인재 이 당숙. {저는 이제 칠, 팔촌하고 이 당숙.}

10218 #1 이런 대서 인재 나 저한테 당숙떠라고 칠팔손 이런 대서 인재 만치. {이런 데서  
이제 저한테 당숙들하고 칠팔촌 이런 데서 많지.}

10218 #1 저넌 딸만:: 우리 아버지가 네시라서요. {저는 딸만 우리 아버지가 넷이라서요.}

10218 #1 그 이제 시집을 다: 오고 나니까 그 뒤루넌 머. {그 이제 시집을 다 오고 나니까  
그 뒤로는 뭐.}

10218 #1 어 친정에 그리차나요? {어 친정에 그렇잖아요?}

10218 #1 그래 가주구 인재 사춘 동생::도 인재 이르게 그 여르시고. {그래 가지고 사춘  
동생도 이제 이렇게 그 여렸이고.}

10218 #1 예, 그래서 인재 이 고무덜두 여르시구 이르치마넌. {예, 그래서 이제 이 고모들  
도 여렸이고 이렇지만은.}

10218 #1 저::만 우리 아버지 대에서. {저만 우리 아버지 대에서.}

10218 #1 예: 우리 크나부지하구 우리 아버지하구 둘, 두 형제부니 딸만 이써요. {예 우리  
큰아버지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둘, 두 형제 분이 딸만 있어요.}

10218 #1 그르케. {그렇게.}

10218 #1 그래 가주구서 줌: 그 자소니 줌 기:헨넌대 인재. {그래 가지고 줌 그 자손이 줌  
귀했는데 이제.}

10218 #1 줌 친정애두 자소니 줌 마니 귀한 태기써써요, 예:저내넌.{줌 친정애도 자손이  
줌 많이 귀한 턱이었었어요 예전에는.}

10218 #1 그랜넌대 여기두 오닝개. {그랬는데 여기도 오니까.}

10218 #1 그르케 인재 줌 형제더리 우, 우:애서넌 형제더리 두 분씩 머 이르게 줌 되더라  
고요. {그렇게 이제 줌 형제들이 위, 위에서는 형제들이 두 분씩 뭐 이렇게 줌 되  
더라고요.}

10218 #1 이 양반두 인재 형제::구. {이 양반도 이제 형제고.}

10218 #1 그르케 이란넌대 인재 우리 이 양반 동자 돌리매 와 가주구. {그렇게 이랬는데  
이제 우리 이 양반 동자 돌림에 와 가지고.}

10218 #1 우리더리 그르케 마:니 나찌요. {우리들이 그렇게 많이 낳았잖아요.}

10218 @ 예. {예.} 10218 #1 그라이 그라닝개 우리 어먼니미 그르케 조아 하시드라고요,  
막. {그러니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이 그렇게 좋아 하시더라고요, 막.}

10218 #1 우리 어먼니먼 이: 이 동네서도 너::머 차카고::. {우리 어머님은 이 이 동네에서  
도 너무 착하고.}

10218 #1 그리케 아주 저기:: 참 조은 으:러니라구 이르게 마:니 애:기릴 드러써요. {그렇  
게 아주 저기 참 좋은 어른이라고 이렇게 많이 얘기를 들었어요.}



10218 @ 그르니까 자손드리 잘 되지요. {그르니까 자손들이 잘 되지요.}

10218 #1 하하. {하하.}

10218 #1 그렇 거 가태요. {그런 거 같아요.}

10218 #1 호호호. {호호호.}

10218 #1 예. {예.}

10220 #1 피란 가따 와서두. {피란 갔다 와서도.}

10220 #1 이우찌배:: 비가 오면 이우찢 배럴 먼지 더퍼주고. {이웃집에 비가 오면 이웃집  
벼를 먼저 덮어주고.}

10220 #1 내꺼넌 나중애 애 가서 이르게. {내 것은 나중애 가서 이렇게.}

10220 #1 비가 와도 그 애 너렁 거릴 퍼 당꼬 이르게 하신 냥바니래요. {비가 와도 그 애  
넌 것을 퍼 담고 이렇게 하신 양반이래요.}

10220 @ 예. {예.}

10220 #1 예, 그래서 그르케 자손드리 잘 되닝 거 가태요. {예, 그래서 그렇게 자손들이  
잘 되는 거 같아요.}

10220 #1 저두 그래요. {저도 그래요.}

10220 #1 그래 참: 너머 천시니어썬요. {그래 참 너무 천신이었어요.}

10220 #1 아주 우리 어먼니미. {아주 우리 어머님이.}

10220 #1 난 시집싸리라곤 아나고 사라썬요. {난 시집살이라고는 안 하고 살았어요.}

10220 #1 머 그냥 옴:나래넌 그리차나요. {뭐 그냥 옛날에는 그렇잖아요.}

10220 #1 사넝 거꾸 우리 어먼님 진짜 배두 마니 골쿠 도라가시썬요. {사는 것도 우리 어  
머님 진짜 배도 많이 꿰고 돌아가셨어요.}

10220 #1 고래 저두 그냥 이르게 와서 사넝대 야:럴 느이럴 라코. {그래 저도 그냥 이렇게  
와서 사는데 아이를 넷을 낳고.}

10220 #1 그 인재 우리 어먼님 도라가시썬마는. {그 이제 우리 어머님은 돌아가셨지만은.}

10220 #1 대영고기라고 먹짜나요:? {대양곡이라고 먹잖아요?}

10220 #1 대양곡 그거: 먹찌, 농사넌 지꼬 사라도:. {대양곡 그거 먹지 농사는 짓고 살아도.}

10220 #1 인재 그때는 스탱그럭 이썬요. {이제 그때는 스테인리스 그릇이었어요.}

10220 #1 스탱 그러깁대. {스테인리스 그릇인데.}

10220 #1 바불 그냥 인재 요만:창 요래 디리면. {밥을 그냥 이제 요만큼 요렇게 드리면.}

10220 #1 나럴 애기 어머이라구 그냥 나럴 그걸 반천 더러썬요. {나를 아기 어머니라고  
그냥 나를 그걸 반쯤 덜어 썬요.}

10220 #1 반천 더러 주면: 내 그기 안 너머가요. {반쯤 덜어 주면 내가 그게 안 넘어  
가요.}

10220 #1 그래 아이고:: 어먼님 날 이걸 더러 주면 대냐고 잡썬라면. {그래 아이고 어머님  
날 이걸 덜어 주면 되냐고 잡수라면.}

10220 #1 야야 너넌 애:기 어머니라 머거야 한다. {야야 너는 아기 어머니라 먹어야  
한다.}

10220 #1 이라민성 그르케 날 머그라구 더러주구 이러카싱 냥바니지. {이라면서 그렇게  
날 먹으라고 덜어 주고 이렇게 하신 양반이지.}

10220 #1 그라구 인재 어머니가 또: 파리 인재 느:이라서. {그리고 이제 어머니가 또 딸이  
이제 넷이라서.}

10220 #1 하난 일번 가서 이꼬. {하나는 일본 가서 있고.}

10220 #1 인재 이 우리 어머니가 팔십다서새 도라가션넌대. {이제 이 우리 어머니가 팔십 다섯에 돌아가셨는데.}

10220 #1 친정 어머니가. {친정 어머니가.}

10220 #1 인재 딸래:: 스 스이찌배 여기 저기 가서 마:니 계시고. {이제 딸네 셋 집에 여기 저기 가서 많이 계시고.}

10220 #1 또 저한테 와서두 마:니 계시고. {또 저한테 와서도 많이 계시고.}

10220 #1 그래서 이따가 우리 어머니럴 인재 조카한테 가서 도러가서썩요. {그래서 있다가 우리 어머니는 조카한테 가서 돌아가셨어요.}

10220 #1 우리 사:촌동생한테 가서. {우리 사촌동생한테 가서.}

10220 @ 요쭈 예. {예.}

10220 @ 요쭈 며느리드른 어때요? {요쭈 며느리들은 어때요?}

10220 @ 올날 생가캐 보면? {올날 생각해 보면?}

10222 #1 우리:: 메닐래더넌 차캐요 다:. {우리 며느리들은 착해요 다.}

10222 #1 안죽까지넌뇨. {아직까지는요.}

10222 #1 안죽까진 다: 차칸대. {아직까진 다 착한데.}

10222 #1 다른 사람덜 매너리덜 머:: 어띠코 머가 어띠코 막 이르게 썩능 거 보만. {다른 사람들 며느리들 뭐 어떻고 뭐가 어떻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

10222 #1 아, 그링가 이리루. {아, 그런가 이래도.}

10222 #1 우리 메늘래더런 아직꺼진 잘: 해요. {우리 며느리들은 아직까지는 잘 해요.}

10222 #1 자라고 차캐요 다. {잘하고 착해요 다.} 10222 #1 다. {다.}

10222 #1 메늘래. {며느리들.} 10222 @ 아직까지가 아니라 차카먼 계속 차카지요. {아직까지가 아니라 착하면 계속 착하지요.} 10222 #1 하하하. {하하하.}

10222 @ 며느리::가 또 잘:하면 더 이쁘자나요? {며느리가 또 잘 하면 더 예쁘잖아아요?}

10222 #1 예:. {예.}

10222 #1 해해해. {해해해.}

10222 @ 귀여꼬. {귀엽고.}

10222 #1 예 근대 우리: 큰메느리가 쌍둥이럴 나썩요. {예 그런데 우리 큰며느리가 쌍둥이를 낳았어요.}

10222 #1 쌍둥이럴 천 처다드럴 쌍둥이럴 천빠애 나쿠서넌 재 형재나쿠서넌 안 나요. {쌍둥이를 첫 첫아들을 첫 배에 낳고서는 형제 낳고는 이제 안 나요.}

10222 #1 인재 우리 쌍둥이더리 하난 커 가주 지금 쌍둥이 하난 구닌 가구. {이제 우리 쌍둥이들이 하나는 커 가지고 지금 쌍둥이 하나는 군인 가고.}

10222 #1 하난 지배 이꾸 인재. {하나는 집에 있고 이제.}

10222 #1 그뚜 곧 간대요. {그것도 곧 간대요.}

10222 #1 가:두 그리타는대. {개도 그렇다는데.}

10222 #1 메느리가 고래:: 함 분 나서 애기두 안 낳 거 거틀꺼요 아매. {며느리가 그래 한번 낳아서 애기도 안 낳은 거 같을 거요 아매.}

10222 #1 근대 그르키 차캐요. {그런데 그렇게 착해요.}

10222 #1 근대 차카고. {그런데 착하고.}

10222 #1 어:: 내가 우리 메늘래한테 잘 모:대 중 거시 인재 줘 마:미 아프지요. {예 내가

우리 며느리들한테 잘 못해 준 것이 좀 마음이 아프지요.}

10222 #1 허허허. {허허허.} 10222 @ 멀 모태줘요, 멀. {뭘 못 해 줘요, 뭘.}

10222 #1 음 머: 좀 자래조야 하년대. {으, 뭐 좀 잘 해줘야 하는데.}

10222 #1 즈:더란테 내가 도:널 타 쓰고 사닝께. {자기들한테 내가 돈을 타 쓰고 사니까.}

10222 #1 멀 좀 잘: 모태주자나요. {뭘 좀 잘 못 해주잖아요.}

10222 #1 허허. {허허.}

10222 @ 에이: 그거야. {에이: 그거야.}

10222 #1 즈더란테 자래 줘야 대년대 잘 모태주고. {자기들한테 잘해 줘야 되는데 잘 못 해주고.}

10222 @ 키워중 거만 해두 얼마대요. {키워준 것만 해도 얼마대요.}

10222 #1 하하하. {하하하.}

10222 #1 그래자내두 그래요:. {그러잖아도 그래요.}

10222 # 으허허허. {으허허허.}

10222 #1 아이구, 내가 느더란테 이르게 쓰 이르게 살고:: 이르게 줌 모:태준다 하면. {아이구, 내가 너희들한테 이렇게 살고 이렇게 줌 못 해준다 하면.}

10222 #1 우리 아:들래가 그래요. {우리 아들네가 그래요.}

10222 #1 엄마 저 키워중 거마내두 고맙따구 고래요. {엄마 저 키워준 것만 해도 고맙다고 그래요.}

10222 # 재산널 좀 물려 주고 이라면 조은대 그 맘:대루 안 뛴따 근. {재산을 좀 물려주고 이라면 좋은데 그게 마음대로 안 뛴디다 그건.}

10222 #1 하하하하. {하하하.}

10222 # 돈 벌 기회가 읍꼬. {돈을 벌 기회가 없고.}

10222 # 그라고 또 그때년 돈 벌 어: 장사나 머 여러 가지 조꺼니 안 마저 가주구. {그리고 또 그때는 돈 벌 에 장사나 뭐 여러 가지 조건이 안 맞아 가지고.}

10222 # 머 우짤 수 읍꼬. {뭐 어쩔 수 없고.}

10222 #1 사닝 거시 그리치요 머. {사는 것이 그렇지요 뭐.}

10222 # 예:저넨 다: 고생하구 살:자나요. {예전에 다 고생하고 살잖아요.}

10222 @ 재산 물려 주능 거 아무 소용업써요. {재산 물려 주는 거 아무 소용없어요.}

10222 # 어허허허. {어허허허.}

10222 #1 허허. {허허.}

10222 @ 그거는 아무 소용어꾸. {그거는 아무 소용 없고.}

10222 @ 저는 그러케 생가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10222 @ 그 재산 물려줄::라면. {그 재산 물려 주려면.}

10222 @ 그냥 내가 사라인은 동아내 그 재산 가주구 떠나개 이따가. {그냥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그 재산 가지고 편하게 있다가.}

10222 # 글썸, 내.. {글썸, 내..} 10222 @ 죽, 죽, 주거야지 덴다 이런 생가기거더뇨. {죽 죽 죽어야지 된다 이런 생각이거든요.}

10222 @ 그러니까 어르신들두 그르케 생가카시면 떠나자나요? {그러니까 어르신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면 편하잖아요?}

10222 #1 예:, 저. {예, 저.} 10222 # 쫄쫄 미하난 저문 이찌요 머. {조금 미안한 점은 있지요 뭐.}

10222 # 다룬 사라먼 참 재사니 마나 가주구. {다른 사람은 참 재산이 많아가지고.}

10222 #1 근대. {근대.}

10222 @ 아휴::. {아휴.}

10222 #1 인제 우리 아덜:리나 메느리더리한테 제가 그러지요. {우리 아들이나 며느리들한테 제가 그러지요.}

10222 #1 나넌: 자식떠란테 큰소리두 모타구:. {나는 자식들한테 큰 소리도 못하고.}

10222 #1 난 느:더란테 이기 타 쓰구 이래 사닝께 내가 모듬 기. {나는 너희들한테 이렇게 타 쓰고 이렇게 사니까 내가 모든 게.}

10222 #1 우리 메늘래한테두 미안하다카구. {우리 며느리들한테도 미안하다고 하고.}

10222 #1 내가 이르께 더러 그래요. {내가 이렇게 더러 그래요.}

10222 #1 고라먼: 예:: 어먼니미 아나푸고. {그러면 예 어머니미 안 아프고.}

10222 #1 바패 잠쭈꼬 아번님 바배 주고. {밥 해 잠수시고 아버지님 밥 해 주고.}

10222 #1 어따 어먼니 경:강항 거시 조치:. {무엇보다 어머니 건강하신 것이 좋지.}

10222 #1 그렇 거 우리가 버러 우리가 멍녕 거지:. {그런 거 우리가 벌어 우리가 먹는 거지.}

10222 #1 그르기 조치. {그른게 좋지.}

10222 #1 그런 생각 하시지 말구 몸만 경강해 달라고:: 그래요. {그런 생각하시지 말고 몸만 건강해 달라고 그래요.}

10222 #1 머: 마:내 조따. {뭐 안 해 줬다.}

10222 #1 해 조따 머, 어트개따. {해 줬다 뭐, 어떻게 했다.}

10222 #1 이런 소린 함:번두 아내요. {이런 소리는 한 번도 안 해요.}

10222 #1 우리 메느리더리. {우리 며느리들이.}

10222 @ 그렇까:: 건강하싱 개 해 주능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하신 게 해 주는 거예요.}

10222 #1 예, 예예. {예, 예예.}

10222 #1 그래요. {그래요.}

10222 #1 아번님. {아버님.}

10222 @ 아프구 누워 게서 바요. {이프고 누워 게서 봐요.}

10222 @ 그럼 누가 와서 바야 되는데 그개 얼마나 힘들어... {그럼 누가 와서 봐야 되는데 그개 얼마나 힘들어...}

10222 #1 예, 그런대. {예, 그런데재.}

10222 @ 그거 안 해 주능 건만매두. {그거 안 해 주는 것만 해도.}

10222 #1 아번님 바비나 해주고:: 어먼니 경강항 기 저: 조타고. {아버님 밥이나 해주고 어머니 건강한 게 저 좋다고.}

10222 #1 인제 그르케 그:: 얘기지 머. {그렇게 그런 얘기지 뭐.}

10222 #1 다른:: 얘긴 할 꺼 아니요. {다른 얘긴 할 거 아니요.}

10222 #1 우리 메늘래가 다 차캐요. {우리 며느리들이 다 착해요.}

10222 #1 하하하. {하하하.}

10222 @ 사위두, 사위들두 잘 하자나요? {사위도 사위들도 잘 하잖아요?}

10222 #1 예, 사위덜두 우리 사우덜그튼 아들 읍써요. {예, 사위들도 우리 사위들같은 아들 없어요.}

10222 #1 진짜, 참 머 우리집 낭바니 여 이따시피 해도. {진짜, 참 뭐 우리집 양반이 여기 있다시피 해도.}

10222 #1 우리 사우덜두 참: 잘해요. {우리 사위들도 참 잘 해요.}

10222 #1 우리 사우더리:. {우리 사우들이.}

10222 #1 사우더리 인재 오면 용돈 주지:. {사우들이 이제 오면 용돈 주지.}

10222 #1 딸래도 고라지 머:. {딸네도 그러지 뭐.}

10222 #1 우리 아덜래덜도 그라고. {우리 아들네들도 그라고.}

10222 #1 그랑개 그래 이르게 살지요. {그러니까 그래 이렇게 살지요.}

10222 @ 장, 장모가 사위:. {장모가 사위:.}

10222 @ 장모는 사위 사랑이라 그런대자녀요? {장모는 사위 사랑이라 그런다잖아요?}

10222 #1 그랑개 그걸 모태중개 미아나지요. {그러니까 그걸 못 해주니까 미안하지요.}

10222 @ 아이고 마미:지요 머. {아이고 마음이지요 뭐.}

10222 @ 마:미구:!. {마음이고.}

10222 #1 예. {예.}

10222 #1 글 모태중개 미아나지 항상. {그걸 못 해주니까 미안하지 항상.}

10222 @ 처가찌배 오면 머 밥 따뜨타개 해 주면 그개 고마웁 거지요, 뭇. {처가집에 오면 뭇 밥 따뜻하게 해 주면 그개 고마운 거지요, 뭇.}

10222 #1 으흥. {으흥.}

10222 #1 게 인재 기냥 바번 기냥 해주지요 머. {그래 이제 그냥 밥은 그냥 해 주지요 뭐.}

10222 #1 바번 해주지만. {밥은 해 주지만.}

10222 #1 즈:더리 다 해 가주 와서 머꼬. {자기들이 다 해가지고 와서 해 먹고.}

10222 #1 즈:더리 와서 해 가주. {자기들이 와서 해 가지고.}

10222 #1 즈:더리 가주 와서 머거요. {자기들이 가지고 와서 먹어요.}

10222 #1 즈:드리 가주 와 가주 해 머꼬. {자기들이 가져 와 가지고 해 먹고.}

10222 #1 그라니께. {그러니까.}

10222 #1 게 내가 그라지요. {그래 내가 그러지요.}

10222 #1 머든, 모등 기 느덜 보기 미안하다카면. {뭇든, 모든 게 너희들 보기 미안하다고 하면.}

10222 #1 그런 소리 하지 말라카지.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하지.}

10222 #1 해. {해.}

10222 @ 옴:나라는 머 사위:가 저 뽕년손니미라구 해찌만. {옛날에는 뭇 사위:가 뽕년 손님이라고 했지만.} 10222 #1 으호호호. {으호호호.}

10222 #1 뽕년손니미라카고 사위가:: 장모사랑은, 사위([uy]) 사랑은 장모라카자나요. {뽕년 손님이라고 하고 사위가:: 장모사랑은, 사위 사랑은 장모라고 하잖아요.}

10222 #1 근대 그::런 사랑얼 제가 모타고 나니 미아나지요. {그런데 그런 사랑을 제가 못 하고 사니 미안하지요.}

10222 @ 머 얘기 하시능 거보니까 잘 하시는데. {뭇 얘기 하시는 거 보니까 잘 하시는데.}

10222 #1 하하하. {하하하.}

10222 #1 잘 하덜 모태요 허허. {잘 하질 못해요 허허.}

10222 #1 그냥 뽕만 기냥 오면 바번 기냥 해 주지. {그냥 뽕만 그냥 오면 밥은 그냥 해 주지.}

10222 @ 손자드른: 그럼: 얼마나 되요? {손자들은 그럼 얼마나 돼요?}

10222 @ 손자두 망:켄내요? {손자도 많겠네요?}

10222 # 손자: 만치요. {손자 많지요.}

10222 # 이 왜손자-하는 둘씩, 둘씩. {이 외손자는 둘씩, 둘씩.}

10222 @ 예. {예.}

10222 # 두리고. {둘이고.}

10222 # 근디 우리 친손자덜두 둘씩,둘씩. {그런데 우리 친손자들도 둘씩, 둘씩.}

10222 #1 딸도 둘씩, 둘씩기구 그래요. {딸도 둘씩, 둘씩이고 그래요.}

10222 #1 아이구 아이구. {아이고, 아이고.} 10222 # 딸 하나뿐니유. {딸 하나뿐이요.}

10222 # 우리 아:드리야 아들. {우리 아들이야 아들.}

10222 @ 어::. {아.}

10222 #1 아덜래넌::. {아들네는.}

10222 #1 우리가 인재 아덜:-런 딸 하나뿐니구. {우리가 아들은 딸 하나뿐이고.}

10222 #1 어:: 딸도 인재 망내따런 또 아덜만 두:리구. {에 딸도 이제 막내딸은 또 아들만  
둘이고.}

10222 # 맹:끄투머린 \*\*\*\*\*. {맨끄트머린 } 10222 #1 인재 큰딸하고 두째딸하고만 남매  
야. {큰딸하고 둘째 딸하고만 남매야.}

10222 #1 남매. {남매.}

10222 @ 예. {예.}

10222 # 그 남자가 훨씬 더 마너요. {그 남자가 훨씬 더 많아요.}

10222 @ 그르겐내요. {그렇겠네요.}

10222 #1 인재 형제::, 형제, 형제더리 더 만치. {이제 형제, 형제, 형제들이 더 많지.}

10222 #1 아:드리 더 마:나요. {아들이 더 많아요.}

10222 #1 우리 두:째 아드리 남매지 아더런. {우리 둘째 아들이 남매지 아들은.}

10222 #1 두째 아더리 여기 여 영동 여기 경강아빠뜨 사:는대. {둘째 아들이 여기 여 영동  
건강아파트 사는데.}

10222 #1 가:더리 남매구. {개들이 남매고.}

10222 #1 그르카고넌 아덜::리 형제요 형제. {그러하고는 아들이 형제요 형제.}

10222 @ 함 번 저::기 지배 이캐 모이면 머 그냥. {한 번 저기 집에 이렇게 모이면 뭐  
그냥.}

10222 #1 잘 짜리도 업썰요. {잘 자리도 없어요.}

10222 @ 벽쩍벽쩍하겐내요. {벽적벽적하겠네요.}

10222 #1 예, 여기꺼지 다: 자도 막 짝 차지요. {예, 여기까지 다 자도 막 짝 차지요.}

10222 @ 방이 이르캐 마:는대요 방이? {방이 이렇게 많은데요 방이?}

10222 #1 예. {예.}

10222 @ 예, 그르캐썰요. {예, 그렇겠어요.}

10222 # 그래서 이기 지별 질 때 아덜 파리 망:키 때미내. {그래서 이게 집을 지을 때 아  
들 딸이 많기 때문에.}

10222 # 여기 세:, 방 세:카내다가 여 화장실릴 이 아내 여기다 느야 되닝 거릴. {여기 세,  
방 세 칸에다가 여기 화장실을 이 안에 여기다 넣어야 되는 것을.}

10222 # 이걸 방으로 쓸라고. {이걸 방으로 쓰려고.}

10222 # 하나 더 느코. {하나 더 넣고.}

10222 # 저 화장실릴 저리 밀, 밀치내뿌리썰. {저 화장실은 저리 밀쳐, 밀쳐 내버렸어.}

10222 #1 다: 지 노코서 그래 여기다 화장시를 느:써요. {다 지어 놓고는 그래 여기에다 화장실을 넣었어요.}

10222 @ 음:. {음:.}

10222 #1 개서 여기 다: 자도, 다: 자두 기냥. {그래서 여기 다 자도, 다 자도 그냥.}

10222 #1 쯤 헤헤 그래요. {쯤 헤헤 그래요.}

10222 #1 그래도 한 한: 이틀 그르케 인재 머여 기냥 그래다가 인재 여러시 이따가 가면. {그래도 한 한 이틀 그렇게 이제 뭐야 그냥 그러다가, 여럿이 있다가 가면.}

10222 #1 집뚜 다 빙 거 그쪄요 머. {집도 다 빈 것 같지요 뭐.}

10222 @ 허저::나지요? {허전::하지요?}

10222 #1 예, 허저나구. {예, 허전하고.}

10222 #1 명절 때넌 머 막 그냥 인재 한 이틀 그냥 그르케 만:치요. {명절 때는 뭐 막 그냥 한 이틀 그냥 그렇게 많지요.}

10222 @ 그래도 그러케 또 으:. {그래도 그렇게 또.}

10222 @ 와따:가면: 조차나요? {왔다:가면: 좋잖아요?} 10222 #1 허허허. {허허허.}

10222 #1 예::, 조치요::. {예, 좋지요.}

10222 @ 모미 불퍼날 때는 힘드롱 거 가튼대요. {몸이 불편할 때는 힘든 것 같은데요.}

10222 @ 와따 가면 그래두 그개 호무:타구. {왔다가면 그래도 그개 호뭇하고.}

10222 #1 예:, 그럼뇨. {예, 그럼요.}

10222 #1 그기: 인재 우리넌 인재:: 그래 글::루 그래 이내선. {그게 이제 우리는 이제 그 래 그것으로 그렇게 인해서.}

10222 #1 자숙덜루 이내서 이르키 살지요. {자식들로 인해서 이렇게 살지요.}

10222 #1 우리 자식뜨리 다: 효자요. {우리 자식들이 다 효자요.}

10222 #1 고래도. {그래도.}

10222 #1 부모들한테 함 분 나쁜 소리 함 번 아나고. {부모들한테 한 번 나쁜 소리 한 번 안 하고.}

10222 #1 아직꺼지넌 나이가 오십 썰썰 너머쪄도. {아직까지는 나이가 오십 살씩 넘었 어도.}

10222 #1 머: 부모덜란테 나쁜 소리하고 머. {뭐 부모들한테 나쁜 소리하고 뭐.}

10222 #1 이르친 아내요. {이렇지는 않아요.}

10222 #1 어, 그런대 인재 아푸로넌 몰라도 아지까진. {어, 그런데 앞으로는 몰라도 아직 까지는.}

10222 #1 허허허. {허허허.}

10222 #1 지금 얘기 드려보면뇨. {지금 얘기 들어보면요.}

10222 #1 그런 사람 쯤 이써요. {그런 사람 쯤 있어요.}

10222 #1 그런 사람덜도. {그런 사람들도.}

10222 #1 그래니. {그러니.}

10222 #1 쯔, 아직까지넌. {쯔, 아직까지는.}

## 1.5. 의생활

10402 @ 엔나래 저:기 질쌘하자나요? {옛날에 저:기 질쌘하잖아요?}  
10402 #1 해썌요:. {했지요.}  
10402 @ 예. {예.}  
10402 #1 저 와서 해썌요. {제가 와서 했지요.}  
10402 @ 주로 머 시머썌요? {주로 뭘 심었어요?}  
10402 @ 멀루 해썌요:~? {뭄로 했어요?}  
10402 #1 인재 삼배::더 나보고요. {이제 삼배도 봐보고요.}  
10402 #1 인재 머 모캐 가주고. {이제 뭘 목화 가지고.}  
10402 #1 그거 해서 인재:. {그거 해서 이제.}  
10402 #1 인재: 지캐: 이르캐 명: 자사 가주. {이제 이렇게 명 자아 가지고.}  
10402 #1 그걸루 배두 하꼬구 {그걸로 배도 했고.}  
10402 @ 모카:는 언제: 어디애 시머썌요, 주로? {목화는 언제 어디애 심었어요, 주로?}  
10402 #1 저::기 저 지금 고속도로 나썌요. {저기 저 지금 고속도로 났어요.}  
10402 #1 거기. {거기.}  
10402 #1 거:기 저 여:: 아내 저 골짜기 거기가 방애 두썰. {거기 저 여 안에 저 골짜기 거기가 밭이 두 썰기.}  
10402 #1 밭-티 두, 여래 두 썰기 이썌요. {밭이 두, 요래 두 썰기 있어요.}  
10402 #1 그룬대 향 군대년 인재 밭:거통 거 머 버썌두 하구. {그룬데 한 군데는 이제 밭 같은 것 뭘 \*\*\* 하고.}  
10402 #1 그렁 거 하고. {그런 거 하고.}  
10402 #1 거기다 향 가라 향 가지년 저 썌때기썌 명얼 가라뻬요. {거기다 한 가지, 한 가지는 저 썌 썰기는 미영을 갈았어요.}  
10402 #1 고 명이 잘: 대요. {그 미명이 잘 돼요.}  
10402 #1 양지라서. {양지라서.}  
10402 #1 개서 인재 거거 명:: 인재 거기다 해서 따다가. {그래서 이제 그거 미영 이제 거기다 해서 따다가.}  
10402 #1 인재 방 뜨신대 말러 가주구. {방 따뜻한 데에서 말러 가지고.}  
10402 #1 그 이캐 썌아시라고 이썌요. {그 이렇게 썌아라고 있어요.}  
10402 #1 거기다 이르캐 인재 돌리서 인재. {거기다 이렇게 이제 돌려서 이제.}  
10402 #1 그걸루 인재 이르캐 해 가주구. {그걸로 이제 이렇게 해 가지고.}  
10402 #1 활. {활.}  
10402 #1 화리라, 화:를 아시능가 몰라. {활이라, 활을 아시능가 몰라.}  
10402 #1 이 대나무 이르::캐 후리 가주구. {이 대나무 이렇게 휘어 가지고.}  
10402 #1 녹끄누로 이르캐. {노끈으로 이렇게.}  
10402 #1 저:: 노끄나라카면 아신, 아시지? {저 노끈이라고 하면 아시(나), 아시지?}  
10402 @ 예예. {예예.}  
10402 #1 노끈 그걸루 이르캐 화를 만, 이르캐 만드러 가주구. {노끈 그걸로 이렇게 활을 만(들여)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10402 #1 그걸루 인재 예 이런머::.. {그걸로 이제 예 이런 뭘...}



10402 #1 베::루 항 거 이썬요. {베로 한 거 있어요.}

10402 #1 베루 요로캐. {베로 이렇게.}

10402 #1 베 낭 거 그 뚜꺼웁 겐루. {베 난 거 그 두꺼운 겐로.}

10402 #1 요르캐 지구서로. {이렇게 지고서.}

10402 #1 거 화를 탕 여기다 메:. {그 활을 탕 여기다 매고.}

10402 #1 이르캐 씨아루 아사 가주구. {이렇게 씨아로 앓아 가지고.}

10402 #1 명 아승 겐 딱 여기다 땅애다 노코. {미영 앓은 겐 딱 여기애다 땅애다 놓고.}

10402 #1 고 활로 이르캐 이거덜 탕. {그 활로 이렇게 이거를 탕.}

10402 #1 이겔로 자버땡기며 탕:탕 이르캐 하머뇨. {이겔로 잡아 당기면서 탕탕 이렇게 하  
면요.}

10402 #1 그기 다:: 타저요. {그게 다 타저요.}

10402 #1 그 아주 보::안 쇼:미 대자나요. {그 아주 보안 숨이 되잖아요.}

10402 @ 예. {예.}

10402 #1 그겔루 인재 이 저:기 이런 상애나. {그겔로 이제 이 저기 이런 상애나.}

10402 #1 머 이런 이르캐 찌, 큰 상, 이런 큰상:애나 이런대. {뭐 이런 이렇게 기(다란) 큰  
상, 이런 큰 상애나 이런 데.}

10402 #1 이런 상 이런 대나 노코션 이거. {이런 상, 이런 데나 놓고션 이거.}

10402 #1 그, 그 쭈수:때 이짜나요? {그, 그 수숫대 있잖아요?}

10402 #1 그 쭈수 안 쓸 때 땡:: 꼭때기. {그 수수 안 쓸 때 땡 꼭때기.}

10402 #1 그 비 매능 거 끄능 거. {그 비 매는 거, 꿇은 거.}

10402 #1 거 쪼끔 굴궁 기 이썬요. {그 조금 굵은 게 있어요.}

10402 #1 고골루 인재 이르캐 마라요. {그겔로 이제 이렇게 말아요.}

10402 #1 꼬추라구 해요 그거덜. {고치라고 해요 그것을.}

10402 #1 요망:코마개 마라 가주구서 인재. {요만큼하게 말아 가지고서 이제.}

10402 #1 거 빼요. {그거 빼요.}

10402 #1 또 빼고 또 빼개 믹. {또 빼고 또 빼게 막.}

10402 #1 마::니 이르캐 싸 노코서닌 인재 그겔 해 가주고. {많이 이렇게 쌓아 놓고서는  
이제 그겔 해 가지고.}

10402 #1 그겔:: 그 삼, 삼끔내키로 요로캐 살짱 무꺼서 해: 노먼뇨. {그거 그 삼 삼끔으로  
요렇게 살짱 묶어서 해 놓으면요.}

10402 #1 그래두 그거덜 인재 노부터 가주구두. {그래도 그거를 눅을 얻어 가지고도.}

10402 #1 인재 그거덜 망 마:니 하년 사람더런 노부터 가주구. {이제 그거를 막 많이 하는  
사람들은 눅을 얻어 가지고.}

10402 #1 그겔루 인재 이르캐 두레명이. {그겔로 이제 이렇게 두레명이.}

10402 #1 두레명이라 구래요. {두레명이라 그래요.}

10402 #1 그 노부터 가주구 그래서 그겔 러서. {그 눅을 얻어 가지고 그래서 그겔 넣어서.}

10402 #1 인재 노부터서 타::고 머. {이제 눅을 얻어서 타고 뒀.}

10402 #1 막 꼬추 말구 이르캐 해 가주구두 하구. {막 고추 말고 이렇게 해 가지고도  
하고.}

10402 @ 두레 명이요? {두레 미명이요?}

10402 #1 예:. {예.}

10402 # 두레놉. {두레놉.}

10402 #1 여러시 하나께 두레명이라 구래구. {여럿이 하나까 두레명이라고 그러고.}

10402 # 두레놉. {두레놉.}

10402 #1 예:, 그래:. {예, 그래.} 10402 @ 두레놉, 두레명. {두레놉, 두레명.}

10402 #1 개 두레명:: 노부터 가주구. {그래 두레 미명 놉을 얻어 가지고.} 10402 # \*\*\* 사라멸 마니 모으닝걸 두레. {\*\*\* 사람을 많이 모으는 걸 두레.} 10402 @ 예. {예.}

10402 #1 그래 가주 인재 그거 꼬추두 이르케 무꿍 거 그걸 가따가 인재. {그래 가지고 그거 고치도 이렇게 묶은 거 그걸 가지고 이제.}

10402 #1 또:: 명차. {또 명 자아.}

10402 #1 이르케 가: 그거덜 이르케 그걸 저기 물래라구 고래요. {이렇게 가, 그걸 이렇게 그걸 저기 물래라고 그래요.}

10402 #1 여 요러캐. {여 이렇게.}

10402 #1 물래 아실걸료? {물래 아실걸요?} 10402 @ \*\*\*\* 똥그랑 거? {똥그란 거?} 10402 #1 예, 그걸로 이러캐. {예, 그걸로 이렇게.}

10402 #1 인재 이진 가:라기고. {이제 이진 가락이고.}

10402 #1 가라기라능 거 이르케 해 가주 주럴 때: 가주구. {가락이라는 건 이렇게 해 가지고 줄을 매어 가지고.}

10402 #1 거기다 이거 둘루미 이래: 이래 이르케 빼:자나요. {거기다 이거 두르며 이렇게 이렇게 빼잖아요.}

10402 #1 실 가누::개 빼녕 거 가주구. {실 가늘게 빼는 거 가지고.}

10402 #1 아홉새 베, 여덟새 베, 단새 베 이리카거던노. {아홉새 베, 여덟새 베, 다섯새 베 이렇게 하거든요.}

10402 #1 그러면 인재 그기 이 단새 베가 젤: 나쁜 베구요. {그러면 그게 이 다섯새 베가 제일 나쁜 베고요.}

10402 #1 인재 여덟새 베, 아홉새 베가 젤: 공: 거요. {여덟새 베, 아홉새 베가 제일 고운 거예요.}

10402 #1 매 여 고::개 자성 거년 인재 아홉새 베. {매 여 곱게 자은 것은 이제 아홉새 베.}

10402 #1 아홉새 베라. {아홉새 베라고.}

10402 # \*\*\* 잘 빼야. {\*\*\* 잘 빼야.}

10402 @ 그:: 아홉새 베하구 다섯째, 다섯새 베가 처:으매 함 번 할 때 나오능 거요, 아니면 두 번, 세 번? {그 아홉새 베하고 다섯 베, 다섯새 베가 처음:에 한번 할 때 나오는 거예요, 아니면 두 번, 세 번?}

10402 # 아니, 게:소캐서 게:소캐서 조은 시럴 뽀바야 대능 거여. {아니, 계속해서 계속해서 좋은 실을 뽑아야 되는 거야.}

10402 #1 게::소개 조:시럴 마쳐야 대요. {계속해서 중심을 맞춰야 돼요.}

10402 @ 여러 번 해:서? {여러 번 해:서?}

10402 #1 예, 인재 다섯 베라녕 거년 기냥 인재 부르릉부르릉부르릉하면 인재 구:개 나와요. {예, 이제 다섯새 베라는 것은 그냥 부르릉부르릉부르릉 하면 이제 굵게 나와요.}

10402 # 세:개 하느라고 그라넝 거여. {빨리 하느라고 그러는 거야.} 10402 #1 꼬부릉 그  
라고. {꼬부릉 그러며.}

10402 #1 세개 나와따 인제 해 가주구. {세개 나왔다 이제 해 가지고.}

10402 #1 부릉 구랑개 나와 굴:거요 고개. {부릉 그러니가 나와서 굶어요 그개.}

10402 #1 그 아매 그걸루 하만 인재 그기 다쎄 베고요. {그 아마 그걸로 하면 그 다섯새  
베고요.}

10402 #1 명이:: 인재 안 조용 거 이쎄요. {미영이 이제 안 좋은 거 있어요.}

10402 #1 명도 씨절루 빼거던뇨. {미영도 세 등급으로 빼거든요.} 10402 @ 네, 예.  
{네 예.}

10402 #1 그러면 인재 그: 명이라넝 거릴 인재 그거릴 씨절로 빼면. {그러면 이제 그 미영  
이라는 것을 이제 그것을 세 등급으로 빼면.}

10402 #1 쎄:나뽕기 다쎄 베요. {제일 나쁜 게 다섯새 베요.}

10402 #1 그라고 인 맬: 저 쎄:: 조울 게 이쎄요. {그리고 이제 맬 저 제일 좋은 게 있  
어요.}

10402 #1 보::얀 인재 고: 모캐가 뽀:야캐 피닝 기 이꺼던뇨. {보얀 그 목화가 보양게 피는  
게 있거든요.}

10402 #1 그르까먼 고 조용 거:릴 인재 가리고. {그렇게 하면 좋은 것을 이제 가리고.}

10402 #1 나뽕 거 가리구 시:절루 가리지요 거기. {나쁜 거 가리고 세 등급으로 가리지요,  
거기.}

10402 #1 그러면 인재: 일곱새 베, 아홉새 베 인재 그기 쎄: 조용 거요. {그러면 이제 일  
곱새 베, 아홉새 베 이제 그개 제일 좋은 거예요.}

10402 @ 예. {예.}

10402 #1 다섯새 베가 그기 인지 병이, 명이 나뽕 걸루. {다섯새 베가 그개 이제 명이, 미영  
이 나쁜 걸로.}

10402 #1 부릉:부릉 자사 가주구 내. {부릉부릉 자아 가지고 이제.}

10402 # \*\* 꼬트머릴 하능 기여. {\*\* 꼬트머리를 하는 거야}

10402 #1 예, 그래 가주 그걸루 인재 나뽕 걸루 인재 그걸 베머 그기 다쎄 베요. {예, 그  
래 가지고 그걸로 나쁜 걸로 이제 그걸 베면 그개 다섯새 베요.}

10402 #1 제::일 조용 거넝 인재. {제일 좋은 것은 이제.}

10402 #1 하하하. {하하하.}

10402 @ 그러면 그개:. {그러면 그개.}

10402 #1 예. {예.}

10402 @ 다섯새:를 나를 때. {다섯새 베를 날 때.}

10402 @ 그러잉까 여러 번 뽀바서 다쎄, 저기 아홉새 베가 대능 거요? {그러니까 여러 번  
뽀아서 다섯새, 저기 아홉새 베가 되는 거예요?}

10402 @ 아니면 처::매 뽀불 때 굳? {아니면 처::음에 뽀을 때 그?}

10402 #1 처:매 불:, 보풀 때부터 뽀뽀, 뽀뽀:: 모캐가 나뽕 기 이쎄요. {처음에 보풀 부스  
풀 때부터 뽀뽀, 뽀뽀 목화가 나쁜 게 있어요.} 10402 # 그건 모와 자체가. {그  
건 목화 자체가.}

10402 #1 모카 다래라가요:. {목화 다래가요.} 10402 # 모와 자체가 나뽕 걸루 항거다 이  
거여. {목화 자체가 나쁜 걸로 한 거다 이거야.}

10402 #1 명: 나무애. {미영 나무애.}

10402 #1 명 나무애. {미영 나무애.} 10402 # 인재 시리, 시리 고개 암 빠져 나온다 이거요. {이제 실이 실이 곱게 안 빠져 나온다 이거요.}

10402 #1 명 나무애 보::야캐 저 작 조웅: 거 이썬요. {미영 나무애 보양게 저 작(은) 좋은 거 있어요.}

10402 #1 명이::. {미영이.}

10402 @ 예. {예.}

10402 #1 고래 핑 개 하::야캐 요래 예 피자나요. {그렇게 핀 게 하양게 요렇게 예 피잖아요.}

10402 @ 하:양 거 {하얀 거.}

10402 #1 그러면 조웅 거 따루 하구요. {그러면 좋은 거 따로 하고요.}

10402 #1 고:다매 또 따루 하구. {그 다음에 또 따로 하고.}

10402 #1 켈:: 나뽕 거 또: 인재 좀 이썬요, 그기. {제일 나쁜 것 또 이제 좀 있어요, 그게.}

10402 #1 그렇 건, 아속 그거덜 이르캐 타만 기냥 뽕떡. {그런 건, 아이 그것을 이렇게 타면 그냥 뽕떡.}

10402 #1 그기 인재 그기 뽕떡 인재 저: 베라카지요. {그게 이제 뽕떡, 이제 저 베라고 하지요.}

10402 #1 그걸 짜:면. {그걸 짜면.}

10402 #1 그건 안 조아요, 베가. {그건 안 좋아요, 베가.}

10402 #1 그람 이 그걸루 머:덜 하냐며 여자덜 소:곧태입꾸요. {그러면 그걸로 뭐를 하느냐 하면 여자들 속옷 해 입고요.}

10402 #1 인재 남자덜런 바지저고리덜 맨들자나요. {이제 남자들은 바지저고리를 만들잖아요.}

10402 @ 예. {예.}

10402 #1 바지 저고릴 맨들면 인재 그걸루 두루매기 맨들구. {바지저고리를 만들면 이제 그걸로 두루마기 만들고.}

10402 #1 옴:나랜 그래짜나요. {옛날엔 그랬잖아요.}

10402 #1 조웅 건 인재 아홉새 베, 일곱새 베 이걸루 해 가주고. {좋은 건 이제 아홉새 베, 일곱새 베 이걸로 해 가지고.}

10402 #1 그걸루 남자덜 두루매기 맨들고. {그걸로 남자들 두루마기 만들고.}

10402 #1 바지저고리, 쪼끼, 이렇 걸루 만들자나요. {바지저고리, 조끼, 이런 걸로 만들잖아요.}

10402 #1 그래 가주구서루 그래 인재 근:, 그르캐 해서. {그래 가지고그래 이제 그건 그렇게 해서.}

10402 #1 그걸로 하지. {그걸로 하지.}

10402 @ 아, 그러니까 그게 다섯새 베, 일, 일곱새 베, 아홉새 베 하능 개. {아:, 그러니까 그게 다섯새베, 일곱새베, 아홉새베 하는 게.}

10402 @ 모과::가? {목화가?}

10402 #1 예, 모카에서. {예:, 목화에서.}

10402 @ 조:웅 건지 안 조웅 건지 거기서부터 결정대능 거지요? {좋은 것인지 안 좋은 것인지 거기서부터 결정되는 거지요?}

10402 #1 예, 거기서부터, 인재. {예, 거기서부터, 예.}

10402 #1 요기년 인재 젤: 조용 거. {여기는 이제 제일 좋은 거.}

10402 #1 요긴 두:째, 요긴 세:째요. {여기는 둘째, 여기는 셋째야.}

10402 #1 세째가 젤: 나뽕 거지요. {셋째가 제일 나쁜 거지요.}

10402 @ 예. {예.}

10402 #1 예, 그기 명이 안 조아요. {예, 그게 미영이 안 좋아요.}

10402 #1 그거년. {그것은.}

10402 #1 젤:: 조용 거시 인재 보::야캐 명 송오리서부텅 고로캐 잘 피요. {제일 좋은 것이 보양게 미영 송이에서부터 그렇게 잘 피어요.}

10402 #1 인재 고건 따루 해 가주구. {이제 그건 따로 해 가지고.}

10402 #1 제:일 고웅 걸루 그로캐 하지. {제일 고운 걸로 그렇게 하지.}

10402 # 상중하로 가리닝 거여. {상중하로 가리는 거야.}

10402 @ 예. {예.}

10402 @ 그게 인재 처:매 달리면. {그게 이제 처음에 달리면.}

10402 @ 꼬치 퍼따가 지면 이르캐 똥:그라캐 요로:캐 반들반들 하자나요? {꽃이 피었다가 지면 이렇게 동그랗게 요롱게 반들반들 하잖아요?}

10402 #1 예:. {예.}

10402 #1 다래. {목화다래.}

10402 #1 다래가 열:지 아나요? {목화다래가 열지 않아요?}

10402 @ 예: 고골. {예, 그걸.}

10402 @ 씨버 머그먼. {씹어 먹으면.}

10402 # 그양 고대도 얘기헤짜이. {그냥 방금도 얘기했듯이.}

10402 # 물:랄 돌리 가주 이 시릴 뽐는 데도 기수리 드러가. {물레를 돌려 가지고 이 실을 뽐는 데도 기술이 들어가.}

10402 @ 예. {예.}

10402 #1 근대 인재 그기 고::웅 거년뇨. {그런데 그게 고운 것은요.}

10402 # 이 가느라야 되니까 조용 거년. {이게 가늘어야 되니까 좋은 거는.}

10402 @ 그르치요. {그렇지요.}

10402 #1 고고 아홉새 베 맨들라면. {그거 아홉새 베 만들려면.}

10402 #1 이 정:성으루 드리야 돼요. {이 정성으로 드리야 돼요.}

10402 #1 시:리, 시:리 인재: 쫓::꼬루 나와야 대거더뇨. {실이, 실이 이제 죽 고르게 나와야 되거든요.}

10402 @ 예. {예.}

10402 #1 예 꼬추털 살고마::창 지 가주구 인재. {예 고치를 살짝 쥐어 가지고 이제.}

10402 #1 요래 살::살 돌르민성 요래 고 시를 뽐바요. {이렇게 살살 돌리면서 요렇게 그 실을 뽐아요.}

10402 #1 그래 가주구 인재 고골루 젤: 조용 개 아홉새 베요. {그래 가지고 이제 그걸로 제일 좋은 게 아홉새 베요.}

10402 #1 으음. {으음.}

## 1.5. 의생활(옷 만들기)

10419 #1 게 그걸루 인재 두루마기, 바지저고리 머 인재 남자덜 해 주구. {그래 그걸로 이제 두루마기, 바지저고리 뭐 이제 남자들 해 주고.}

10419 #1 인재 그 두 번째두 인재 또 바지저고리, 두루마기 그렁 거 만드는 사람두 이꾸. {이제 그 두 번째도 또 바지저고리, 두루마기 그렁 거 만드는 사람도 있고.}

10419 #1 젤: 나뽕 거넌 여자들 소:곤. {제일 나쁜 것은 여자들 속옷.}

10419 #1 으호호호. {으호호호.}

10419 #1 여자덜 소:곰 만드려 입짜나요. {여자들 속옷 만들어 입잖아요.}

10419 #1 옴:나래넌 지그먼 팬트라카자나요? {옛날에는 지금은 팬티라고 하잖아요?}

10419 #1 옴:나래 그걸루 팬트 맨들구. {옛날에는 그걸로 팬티 만들고.}

10419 #1 고, 고쟁이라구 이썬요. {고, 고쟁이라고 있어요.}

10419 #1 여꺼지 지다낭 거. {여기까지 기다란 거.}

10419 #1 그렁 거. {그런 거.}

10419 @ 여 미태까지 내려오능 거지요? {여기 밑에까지 내려오는 거지요?}

10419 #1 예:, 마창 거 고쟁이. {예:, \*\*\* 고쟁이.}

10419 #1 이 그두 그 여자 오시 세 가지요. {이 그것도 그 여자 옷이 세 가지예요.}

10419 #1 여자 오뚜. {여자 옷도.}

10419 #1 여자런 세 가진. {여자들은 세 가지는.}

10419 #1 남자넌 팬트하구 바지저고리 이부먼 되는데. {남자는 팬티하고 바지저고리 입으면 됐는데.}

10419 #1 여자, 아주, 이지 예:저내넌 게 두: 가지, 세 가지럴 이버요. {여자, 아주 \*\* 예 전에는 그 두 가지, 세 가지를 입어요.}

10419 #1 여자는뇨. {여자는요.}

10419 @ 세 가지요? {세 가지요?}

10419 #1 예, 네:가지꺼지 입찌요. {예, 네 가지까지 입지요.}

10419 @ 어떠캐설? {어떻게 해서?}

10419 #1 예. {예.}

10419 @ 그 이르미 다: 다를꺼 아니요? {그 이름이 다 다를 거 아니예요?}

10419 #1 예:. {예.}

10419 @ 그럼? {그럼?} 10419 #1 팬트. {팬티.}

10419 #1 팬트:: 이꾸서 인재 이 또 고쟁이라구 이썬요. {팬티 입고서 이제 이 또 고쟁이라고 있어요.}

10419 #1 그거, 그거 이꾸. {그거 그거 입고.}

10419 #1 또:: 인재 또 저기: 기냥 이르게 바지처럼 만드려 가주. {또 이제 저기 그냥 이렇게 바지처럼 만들어 가지고.}

10419 #1 그냥 인재 이르게 가래, 가래꼬장이라구 이썬요. {그냥 이제 이렇게 가래, 고래 꼬장이라구 있어요.}

10419 #1 가래꼬쟁이. {가래꼬쟁이.}

10419 #1 그래 그거하구 세 가지 이꾸. {그래 그거하고 세 가지 입고.}

10419 #1 이, 그 소:꼬시라넌 거넌뇨. {이, 그 속옷이라는 거는요.}

10419 #1 소:꼬시라닝 거닌 바지가 지그무로 마라면 여자덜 합빠지 막. {속곳이라는 거는 바지가 지금으로 말하면 여자들 핫바지 막.}

10419 @ 통 큼거? {통 큰 거?}

10419 #1 예:, 큼: 거 이래 막. {예, 큰 거 이렇게 막.}

10419 #1 그럼 인재 그렇 거: 해 가주구. {그러면 이제 그런 거 해 가지고.}

10419 #1 그걸루 또 해 소:꼬시라구 이벼요. {그걸로 또 해(서) 속곳이라고 입어요.}

10419 @ 소꼬시 고쟁이 바까태 이벼요, 안내 이벼요? {속곳이 고쟁이 바깥에 입어요, 안에 입어요?}

10419 #1 켈: 배까태 임녕 거시 소:꼬시요. {제일 바깥에 입는 것이 속곳이요.}

10419 @ 소꼴? {속곳?}

10419 #1 예. {예.}

10419 @ 단소꼬슨 머요? {단속곳은 뭐요?}

10419 #1 그기 단:소꼬시여. {그게 단속곳이야.}

10419 @ 그개 단:소꼬시애요? {그게 단속곳이에요?}

10419 #1 예, 예, 그기 단:소꼬시요. {예 예, 그게 단속곳이요.}

10419 #1 켈: 나중애 인재... {제일 나중애 이제...}

10419 #1 제일 나중. {제일 나중.}

10419 #1 거테:. {겉에.}

10419 #1 치마:미태. {치마 밑에.}

10419 #1 그래 저: 바로 치마 미태 임녕기 단:소꼬시요. {그래 저 바로 치마 밑에 입는 게 단속곳이에요.}

10419 @ 예:. {예.}

10419 #1 예. {예.}

10419 #1 그라고도 또 치마 이꾸 압치마 입짜나요, 또? {그리고도 또 치마 입고 앞치마 입잖아요, 또?} 10419 @ 예. {예.}

10419 #1 근대 여자덜두 허리띠라구 이써요. {그런데 여자들도 허리띠라고 있어요.}

10419 #1 허리띠. {허리띠.}

10419 @ 예. {예.}

10419 #1 그뚜 허리띠를 만드러 가주구. {그것도 허리띠를 만드어 가지고.}

10419 #1 허리띠라고 또 째매자나요. {허리띠라고 또 동여매잖아요.}

10419 @ 그 저. {그 저.}

10419 #1 여자들 옴나래 여자드리 엄청 마:니 이벼요, 오설:. {여자들 옛날에 여자들이 엄청 많이 입어요, 웃을.}

10419 #1 지그먼 여자드리 쪼꿈 이꾸:. {지금은 여자들이 조금 입고.}

10419 #1 남자드리 마:니 입짜나요, 지그먼. {남자들이 많이 입잖아요, 지금은.}

10419 #1 예, 예저내넌 남자더런 머: 인재 기냥 팬트 이꼬. {예, 예전에는 남자들은 뭐 그냥 팬티 입고.}

10419 #1 바지저고리 그냥 이부만 댜는데. {바지저고리 그냥 입으면 댜는데.}

10419 #1 여자드른 우애도 인재 저기 속:쩍쌈 이꼬. {여자들은 위에도 이제 저기 속적삼 입고.}

10419 #1 허리띠 하:고. {허리띠 하고.}

10419 #1 또 조고리 입짜나요. {또 저고리 입잖아요.}

10419 @ 적삼하고 저고리하고 어트개 팔라요? {적삼하고 저고리하고 어떻게 팔라요?}

10419 #1 적싸면 인재 여러매 입넙 개 적싸미이요. {적삼은 이제 여름에 입는 게 적삼이  
에요.}

10419 @ 여르매? {여름에?}

10419 #1 예:. {예.}

10419 #1 적싸면 여러매 입넙 개 적싸미고. {적삼은 여름에 입는 게 적삼이고.}

10419 #1 배기접찌고리라카능 거 인재 트래다 바거 가주구 인재. {배기접찌고리라고 하는  
것은 이제 틀에다 박아 가지고 이제.}

10419 #1 \*\*\* 배기접찌고리리야. {\*\*\* 배기접찌고리래.}

10419 #1 저고리를 또 트래 바거 가주 해 이버요. {저고리를 또 틀에 박아 가지고 해 입  
어요.}

10419 #1 니비서. {누비어서.}

10419 #1 그거시 인재 배기접찌고리라 고라지. {그것을 이제 배기접찌고리라고 그러지.}

10419 @ 배기접찌고리는 그림 하양걸로 겨부로, 저브로 맨드러요? {배기접찌고리는 그림  
하얀 걸로 겹으로, 겹으로 만들어요?} 10419 #1 바가 가주구요. {박아 가지고요.}

10419 @ 예. {예.}

10419 #1 예, 기냥 이캐 두쳐버로 해 가주. {예, 그냥 이렇게 두 겹으로 해 가지고.}

10419 #1 두쳐부루 바가서 해 이버요. {두 겹으로 박아서 해 입어요.}

10419 @ 그말두 지금 처:음 드러보는 마리아요. {그 말도 지금 처음 들어보는 말이에요.}

10419 #1 예. {예.} 10419 @ 흐. {흐.}

10419 #1 배기조고리요? {배기저고리요?}

10419 #1 바금저고리. {박음저고리.}

10419 @ 예, 배기접찌고리래능 거 침: 드러 보는 마리아요. {예, 배기접찌고리라는 거 처음  
들어 보는 말이에요.}

10419 #1 예. {예.}

10419 #1 예. {예.}

10419 #1 바거, 배기접찌고리라 그리요, 바가서 입넙 거요. {배기접찌고리라고 그래요, 박  
아서 입는 거요.}

10419 @ 예. {예.}

10419 #1 바검접찌고리지요. {박음접찌고리지요.}

10419 #1 인재 그개. {이제 그개.} 10419 @ 네. {네.}

10419 #1 예. {예.}

10419 @ 그러면 인재 아까 그: 다래. {그러면 아까 그 다래.}

10419 @ 다래: 그냥 다래라고 해요, 모콰따래라 그래요? {다래 그냥 다래라고 해요, 목화  
다래라 그래요?}

10419 #1 모콰따래. {목화다래.}

10419 #1 모콰따랜대 그르케 아주: 사라무루 마라면 이뿐 사람. {목화다래인데 그렇게 아  
주 사람으로 말하자면 예쁜 사람.}

10419 #1 중간 싸람 아이구 왜 저러케 미워, 이르차나요? {중간 사람 아이고 왜 저렇게  
미워, 이렇잖아요?}



10419 #1 그거 마창가지지요, 그기:. {그거와 마창가지지요, 그제.}

10419 #1 아주 그 보::안 아주 송오리 때부터 그리케 아주 명 송오리가 조아요: 이뿌구:.  
 {아주 그 보안 아주 송이 때부터 그렇게 아주 미영 송이가 좋아요 예쁘고.}

10419 @ 예. {예.}

10419 #1 보::이안 한. {보안.}

10419 # 그냥 맨:처매 \*\*\*. {그냥 맨 처음에 \*\*\*.}

10419 #1 그래서 인재 고고릴 따루 모아 나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따로 모아 놔요.}

10419 # 아:, \*\*\*\*\*. {아, \*\*\*\*\*}

10419 #1 고걸 따로 막 푸대에다가 인재 막 말라야 대요. {그걸 따로 막 부대에다가 이제 막 말려야 돼요.}

10419 # 낭중에 여능 건. {나중에 여는 건.}

10419 #1 그거뚜 또오. {그것도 또.}

10419 #1 그거뚜 막 이르케 인재 베타다가 말루면. {그것도 막 이렇게 이제 별에다가 말리면.}

10419 # 뽕떡 \*\*. {뽕떡 \*\*.}

10419 #1 인재 그걸 보:온 베, 중 그 중간절루 이르케 세갈 세 가지루 그래 빼 가주구서.  
 {이제 그걸 보온 베, 중 중간 등급으로 이렇게 세가(지), 세 가지로 빼 가지고서.}

10419 #1 고걸 말라 가주구서 그래 씨아시 아사 가주 구라자나요 그기. {그걸 말려 가지고 그렇게 씨아 앓아 가지고 그러잖아요 그제.}

## 1.5. 의생활(목화, 삼)

10402 #1 이기 명 송이자나요. {이게 미명 송이잖아요.}

10402 #1 미영송이. {목화송이.}

10402 #1 다:래송이. {다래송이.}

10402 #1 조:웅거. {좋은 거.}

10402 #1 그개 처째요, 지금. {그게 첫째요, 지금.}

10402 @ 명송이라 그래요? {목화송이라 그래요?}

10402 #1 예. {예.}

10402 @ 그 하야캐 핑 거? {그 하얏게 핀 거?}

10402 #1 예:, 명송이. {예, 목화송이.} 10402 @ 그거 저: 바태 죽:: 피어 이쓰면 그거 이뿌자나요? {그거 저 밭에 죽 피어 있으면 그거 예쁘잖아요?}

10402 #1 예:. {예.} 10402 # 이:쁘지요. {예쁘지요.}

10402 #1 그기 인지 다래송(이), 다래:송이라구 하는데. {그게 이제 다래송이, 다래송이라고 하는데.}

10402 #1 다래송이가 아니라 명송이라카드라고요, 그거럴. {다래송이가 아니라 목화송이라 하더라고요, 그것을.}

10402 @ 다래는 암 핑 거 얘기하자나너요? {다래는 안 핀 거 얘기하잖아요?}

10402 #1 예, 그기 다래고요. {예, 그게 다래고요.}

10402 #1 예, 그래서 인재 명송인데. {예, 그래서 이제 목화송인데.}

10402 #1 채고 조용 걸 명송인데. {최고 좋은 게 목화송인데.}

10402 #1 그거 저: 바태서 그거 채::고 조용 거털 뽀바요:. {그거 저 밭에서 그거 최고로 좋은 것을 뽑아요.}

10402 #1 조고 인재 또 인재 고기 젤: 먼저 피거던뇨. {저거 이제 또 이제 고개 제일 먼저 피거든요.}

10402 #1 그람 뽀꼬. {그럼 뽑고.}

10402 #1 그 다:매는 글 뽀바다가 저런 동사내다가 저런 대다가 인재 피 너러요, 그거털. {그 다음에는 그걸 뽑아다가 저런 동산에다가 저런 데다가 이제 퍼 넣어요, 그것을.}

10402 #1 이래 피: 널먼. {이렇게 퍼 널먼.}

10402 #1 인재 그또 먼저 피능 거 이꼬 나중 피능 기 이썬요. {이제 그것도 먼저 피는 게 있고 나중에 피는 게 있어요.}

10402 #1 그래서 고거또 또 고고 피기.. {그래서 그것도 또 그거 피기..}

10402 #1 그저 따루 인재 또 하고. {그저 따로 이제 또 하고.}

10402 #1 젤 나중 피능 기 그기 뽀떡빠라 그래요, 그개. {제일 나중에 피는 게 그것을 뽀떡빠라 그래요, 그걸.}

10402 #1 그래서 그거 여자덜 소고태 입꼬 머:. {그래서 그거 여자들 속옷 해 입고 뭐.}

10402 #1 그냥 여자덜 소고또 그기 머. {그냥 여자들 속옷도 그개 뭐.}

10402 #1 여자드리 기냥 팬트 해 이꼬. {여자들이 그냥 팬티 해 입고.}

10402 #1 그 고쟁이 이꼬. {그 고쟁이 입고.}

10402 #1 소꼬디꼬. {속곳 입고.}

10402 #1 하하. {하하.}

10402 #1 거기다가 또 치마 이꼬, 압쳐마 이꼬. {거기다가 또 치마 입고, 앞치마 입고.}

10402 #1 아이구::, 여기다 허리띠 하구:. {아이구, 여기다 허리띠 하고.}

10402 #1 인재 또 썩썩쌈 입, 저고리 입찌, 아휴:. {또 속적삼 입(지), 저고기 입지, 아휴.}

10402 #1 여자드리 그르캐 마:니 이버요. {여자들이 그렇게 많이 입어요.}

10402 #1 여자더런 지그먼 마 이르캐 다리가 나오구 이래 파리 나오자나요: {여자들은 지금 은 막 이렇게 다리가 나오고 이렇게 팔이 나오잖아요?}

10402 #1 그저내넌 이기 나오면뇨. {그전에는 이게 나오면요.}

10402 #1 저 와스만 해두요. {저 왔을 때만 해도요.}

10402 #1 여기 여 미태 산적찌비 이썬썬요. {여기 요 밑에 산적집이 있었어요.}

10402 #1 산적찌비 이썬넌대. {산적집이 있었는데.}

10402 #1 이:기 지금도 그 영상 김씨 사적찌비요. {이게 지금도 그 용산 김씨 산적집 이요.}

10402 #1 근대 요:기 산지기가 사란는데. {그런데 여기 산지기가 살았는데.}

10402 #1 저 와스마내도 산지기::라구 인재 저 그 사람드리. {저 와서만 해도 산지기라고 이제 저 그 사람들이.}

10402 #1 이 XX이라 그래썬요. {이 XX이라고 그랬어요.}

10402 #1 이XX이 아버지가 마루니라 구라대요. {이XX이 아버지가 마름이라고 그러대요.}

10402 #1 거: 이XX이 아버지가. {그 이XX이 아버지가.}

10402 #1 그른대 그 사람드리 저떠러 아썬님, 아썬님 이래썬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저더러 아썬님, 아썬님 이랬어요.}

10402 #1 츠:매 저 와서마내두 여기 와서. {처음에 저 와서만 해도 여기 와서.}

10402 @ 예. {예.}

10402 #1 그 사람더리 아쥌님, 아쥌님 이래꺼더뇨. {그 사람들이 아씨님, 아씨님 이랬거든요.}

10402 #1 그래는대 그 사람덜두 더 잘사랴요, 지금. {그랬는데 그 사람들도 더 잘 살아요, 지금.}

10402 #1 여가 양바니라고 양방꼬지라고. {여기가 양반이라고, 양반곳이라고.}

10402 #1 그래서 인재: 저도 우리 어머니가 나릴 하나 키워. {그래서 이제 저도 우리 어머니가 나릴 하나 키워.}

10402 #1 인재 매:, 망내딸 그서 저 열뚜 살 머건는데. {이제 매, 막내딸 거기서 저 열뚜 살 먹었는데.}

10402 #1 어디루 내놔야 하까 시꾸:. {어디로 내놔야 할까 싶고.}

10402 #1 어머니 혼자 양 그리커썬요. {어머니 혼자 안 그렇겠어요.}

10402 #1 망내딸 하나릴. {막내딸 하나를.}

10402 #1 어디루 내놔야 조우까 시꾸. {어디로 내 놔야 좋을까 싶고.}

10402 #1 머 그냉 이래 저래 생가카다가. {뭐 그냥 이래 저래 생각하다가.}

10402 #1 영상 김씨는 이 지비, 여기 영상 김씨내 양바니라고. {용산 김씨는 이 집이, 여기 용산 김씨네가 양반이라고.}

10402 #1 그 인재 우리넌 금녕 김씨구:. {그 이제 우리는 금릉 김씨고.}

10402 #1 여기넌 인재 영동, 영동 영상 김씨라카더라고요. {여기는 이제 영동, 영동 용산 김씨라고 하더라고요.}

10402 #1 그래서 인재, 그래서 인재 버:넌 달라도 인재 이르캐 강간 강가찌리 와썬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이제 본은 달라도 이제 이렇게 김가는 김가끼리 왔어요.}

10402 #1 오:긴 완넌대. {오긴 왔는데.}

10402 #1 그래 인재 옴:나래 인재 참 그래 와 자주 이래 사는데. {그래 이제 옛날에 이제 그렇게 와 가지고 이렇게 사는데.}

10402 #1 자기 이:: 지배 사넌 사라미 저한테 장 아쥌님, 아쥌님 이르카더라고요. {저기 이 집에 사는 사람이 저한테 장 아씨님, 아씨님 이러케 하더라고요.}

10402 #1 처:매 와가선. {처음에 와 가지고는.}

10402 #1 그르케 사라, 여가 여기 양반터라구요. {그렇게 살아, 여기가 여기 양반터라고요.}

10402 #1 양반싸람 터라구. {양반사람 터라고.} 10402 @ 예. {예.}

10402 @ 그러면 모콰:, 모카:: 모캐라구 하지요? {그러면 목화, 목화, 모과라고 하지요?}

10402 @ 근대 그개 씨 암 뽕 거::를 얘기하능 정가요? {그런데 그개 씨 안 뽕 것을 얘기하는 건가요?}

10402 # 모콰? {목화?}

10402 @ 예. {네.}

10402 #1 예, 목, 씨 암 뽕 건 모콰고요. {예, 목, 씨 안 뽕 건 목화고요.}

10402 # 모콰넌 씨 암 뽕 거. {목화는 씨 안 뽕 것.}

10402 @ 씨 뽕면 인재? {씨 뽕면 이제?}

10402 #1 씨 뽕 거넌 명송이. {씨 뽕 거는 목화송이.}

10402 @ 명송이. {목화송이.} 10402 #1 예, 탕 거. {예, 탄 거.}

10402 #1 이르캐 타자나요? {이렇게 타잔하요.}

10402 @ 그러면 숨:하고 명송이하고는 어트개? {그러면 숨하고 목화송이하고는 어떻게?}

10402 #1 숨:하고. {숨하고.}

10402 @ 명송이:가? {목화송이가?}

10402 # 인재 탕 건 소:미지, 탕 건. {이제 탄 건 숨이지, 탄 것은.}

10402 #1 예, 탕 건 소:미고. {예, 탄 건 숨이고.}

10402 #1 인재 그 씨 암 빵 건 송이, 송이지. {그 씨 안 뻥 건 송이, 송이지.}

10402 #1 명송이. {목화송이.}

10402 #1 명::. {목화.}

10402 #1 인재 그 다:래에서 뻥 개 명송이지요. {그 다래에서 뻥 개 목화송이지요.}

10402 #1 다래에서 뻥 개. {다래에서 뻥 게.}

10402 @ 아, 씨, 씨, 씨가 인능 거? {아, 씨, 씨, 씨가 있는 것?}

10402 #1 예, 씨 드러 가주. {예, 씨 들어 가지고.}

10402 #1 예, 조:웅 거 인재 고기 명송이고. {예, 좋은 거 이제 그게 목화송이고.}

10402 #1 씨 드, 씨가 들고. {씨 들, 씨가 들고.}

10402 #1 고 재: 고고 명 이캐 뻥 개 고 명송이지요. {그 이제 고고 미영 이렇게 뻥 게 목화송이지요.}

10402 #1 뻥 기. {뻥 게.} 10402 @ 씨 뻥거? {씨 뻥 거?}

10402 #1 예. {예.}

10402 # 씨 빼 가주 탕 거. {씨 빼 가지고 탄 거.}

10402 # 탕 거는 소:미라고 마라지. {탄 거는 숨이라고 말하지.} 10402 @ 소:미고. {숨:이고.}

10402 #1 예. {예.}

10402 #1 건 토미고. {그건 숨이고.}

10402 #1 인재 거그 다:래에서 이르캐 피 가주구서 명이 요래: 나오자나요. {이제 거기 다래에서 이렇게 피어 가지고 목화가 이렇게 나오잖아요.}

10402 #1 고기 명송이지. {그게 목화송이지.}

10402 @ 예. {예.}

10402 @ 그개, 그개 그러면 목, 모콰라고 해요, 그거? {그개, 그개 그러면 목, 목화라고 해요, 그걸?}

10402 #1 예, 그개 인재 옰:나래넌 그기 미영이라구 헨넌대. {예, 그개 이제 옛날에는 그개 미영이라고 했는데.}

10402 #1 모콰라고 그라지요, 그기. {목화라고 그러지요, 그개.}

10402 # 그기 옰:나래 미영 쏹이니 이라고. {그개 옛날에 명송이라고.}

10402 #1 예:. {예.}

10402 #1 예기 모콰라 하대요, 지그먼. {이걸 목화라고 하대요, 지금은.}

10402 @ 그러면 월래 모카가 이르캐 큰 나무자나요? {그러면 월래 목화가 이렇게 큰 나무잖아요?}

10402 @ 이캐? {이렇게?}

10402 #1 예:. {예.}

10402 # 남. {나무.}

10402 @ 그, 그걸 모과라고 하고? {그, 그걸 목화라고 하고?}

10402 #1 예, 목 나개 예: 모과나무. {예, 목(화)나개 예 목화나무.}

10402 @ 예. {예.}

10402 @ 거기에 달링 걸 명이라고 하고? {거기에 달린 걸 명이라고 하고?}

10402 #1 예:. {예.}

10402 @ 그걸로 저기 시:를 뽀부면 그 시:른 무슨 시:리라 그래요? {그걸로 저기 실을 뽀으면 그 실은 무슨 실이라고 그래요?}

10402 # 씨는 장 그 있어. {씨는 장 거기 있어.}

10402 @ 실, 씨? {실, 실?}

10402 #1 시:른 인재: 그기. {실:은 이제:}.

10402 # 실. {실.}

10402 # 시:른 인재 무명시:리구. {실은 이제 무명실이고.}

10402 #1 명, 명시리지요 머, 인재. {명, 명실이지요 뭐 이제.}

10402 @ 명실, 무명실? {명실, 무명실?}

10402 #1 예:, 무명시리지요. {예, 무명실이지요.} 10402 # 무명시리라 구라지 머. {무명 실이라 그러지 뭐.}

10402 #1 근대 그기 물래루 자사 가주구:. {그런데 그게 물레로 자아 가지고.}

10402 #1 여 이르케 여매 여 구깨가 요마:나면 빼내거든여. {여 이렇게 요만 여 굵기가 요만하면 빼내거든요.}

10402 #1 거 가락개다가 끼머 가주구. {그 가락에다가 끼워 가지고.}

10402 #1 그거 인재 그래 그기 가라기라고 고래서. {그거 이제 그래 그게 가락이라고 그래서.}

10402 #1 그기 그이 하던 그거 아:실결머. {그게 그이 하는 그거 아실 걸 뭐.}

10402 #1 몰라:. {몰라.}

10402 #1 아시능가? {아시는가?}

10402 #1 우리 큰딸도 그건 몰르겐대. {우리 큰딸도 그건 모를겐데.}

10402 #1 예:, 그기 나트리라구 이썬요. {예, 그게 날틀이라고 있어요.}

10402 #1 나틀. {날틀}

10402 #1 나트리 열: 깨가 이썬요. {날틀이 열 개가 있어요.}

10402 #1 요 구멍이. {요 구멍이.}

10402 #1 요로 이르케 나트리라고. {요롱(게) 이렇게 날틀이라고.}

10402 #1 요로키 요만:창 노퐁 기. {오렇게 요만큼 높은 게.}

10402 #1 기리기가 요 요만, 함 발 델랑가 모르거썬. {길이가 요 요만, 한 발 되려나 모르겠.}

10402 # 그 베털 땀라고. {그 베를 매려고.}

10402 # 나:능걸 날트리라 그래여. {나는 것은 날틀이라.}

10402 #1 예, 고골: 인재 고초털 자사 가주구. {예, 그걸 이제 고치를 자아 가지고.}

10402 #1 명 가라기라 그르구, 열깨를 만드려 가주구. {명 가락이라고 그 열 개를 만들어 가지고.}

10402 #1 고 나트래다가. {그 날틀에다가.}

10402 #1 그거털 인재 한, 하나씩 끼어, 요래. {그거를 이제 한, 하나씩 끼워, 이렇게.}

10402 #1 빼 자주구. {빼 가지고.}

10402 #1 머 열깨털. {뒤 열 개를.}

10402 #1 열깨털 빼 자주구. {열 개를 빼 가지고.}

10402 #1 나 인재 날지요. {날 이제 날지요.}

10402 #1 나능 거시 인재 열 깨털 줄: 줄 뽀바 이르게 다마와요. {나는 것이 이제 열 개를 줄 줄 뽑아 이렇게 담아와요.}

10402 #1 열 깨털 다:. {열 개를 다.}

10402 #1 그러면 인재 가라기 풀리면 또 하나 깡꼬. {그러면 이제 가락이 풀리면 또 하나 끼우고.}

10402 #1 또 또 하다가 또 다름 기 또 머니 떠러지면 그거 또 하나 깡꼬. {또 하다가 또 다른 게 또 먼저 떨어지면 그것도 또 하나 끼우고.}

10402 #1 그래 자주구서루 인재 가래털 메 까래털 맨드느냐 하면. {그래가지고서 이제 가래를 몇 가래를 만드느냐 하면.}

10402 #1 그걸루 베털 이 나라요. {그걸로 베를 이렇게 날아요.}

10402 #1 베 나능거슨 머 암 보시쓸 꺼여. {베 나는 것은 뭐 안 보셨을 거야.}

10402 #1 그러면 인재 머:털 뱅느냐 하면:. {그러면 이제 뭐를 박느냐 하면.}

10402 #1 그거털: 네: 개털 바가요. {그것을 네 개를 박아요.}

10402 #1 네 개털. {네 개를.}

10402 #1 이 고쟁이 요마 요마 요망쿰 쿵 거털 네: 개털 바가요. {이 꼬창이 요만 요만 요만큼 큰 것을 네 개를 박아요.}

10402 #1 요기년 개:세고. {여기는 개새고.}

10402 #1 요긴 참새거든뇨. {요기는 참새거든요.}

10402 #1 고로케 해요. {그렇게 해요.}

10402 #1 그래 자주구서 베털 인재. {그래 가지고 베를 이제.}

10402 @ 개, 개새? {개새?} 10402 #1 나.. {날..}

10402 #1 개:새 참새 이써요, 이르게. {개새 참새 있어요, 이렇게.}

10402 @ 예. {예.}

10402 #1 요 개:새 요기 참새대, 요 개새라 배털 베뿌럴봐요. {요 개새 요기가 참새인데, 요 개새라 베를 벳불을 봐요.}

10402 #1 베뿌럴. {벳불을.} 10402 @ 예. {예.}

10402 #1 베뿌럴 인재 노만. {벳불을 이제 놓으면.}

10402 #1 그 이케 가르케 뽕 거 차곡차곡 항: 거털 그거털 가따가 인재 쌀마요. {그 이렇게 게 가래 이렇게 뽕 거 차곡차곡 한 것을 그것을 갖다가 이제 삶아요.}

10402 #1 그거털. {그거를.}

10402 #1 인재 머때서 인재 이케 해 자주구서. {이제 \*\*\* 이제 이렇게 해 가지고.}

10402 #1 그거 인재 해서. {그거 이제 해서.}

10402 #1 이케 사, 꼬 저:기 푸털 메기요. {이렇게 사, 그 저기 풀을 먹여요.}

10402 #1 푸털. {풀을.}

10402 #1 푸털 이걸 가따가 가래 뽀바 놓 거털. {풀을 이걸 갖다가 가래 뽑아 놓은 것을.}

10402 #1 도투마리라고 이써요, 이르게. {도투마리라고 있어요, 이렇게.}

10402 #1 도투 두 개. {도투마리 두 개.}

10402 #1 이케 말모걸 이르케 두 개 바가 노코. {이렇게 말목을 이렇게 두 개 박아 놓고.}

10402 #1 도투마리를 여기다 이르케 탕 노쿠서루. {도투마리를 여기다 이렇게 탁 놓고서.}

10402 #1 이기 인재 안 땡기 가드축. {이게 안 당겨 가도록.}

10402 #1 말모걸 바가야 대자나요. {말목을 박아야 되잖아요.}

10402 #1 그래서 여기 도투마리라구 노쿠서. {그래서 여기 도투마리라고 놓고서.}

10402 #1 가따가 인재 그거: 열 개:. {갖다가 이제 그거 열 개.}

10402 #1 그 가락 이르케 뺨 거릴 인재 나라요. {그 가락 이렇게 뺨 것을 이제 날아요.}

10402 #1 요:기 요기 여기 참새라고 인재 요짜개 요로케 요로케 해 노코. {요기 요기 여기 참새라고 이제 이쪽에 이렇게 이렇게 해 놓고.}

10402 #1 요기 또 올루 와 가주구. {여기도 또 요리 와 가지고.}

10402 #1 올루 가구 올루 올루 이르케 가요. {요리 가고 요리 요리 이렇게 가요.}

10402 #1 요래 요래 맨드라서 노만. {요렇게 요렇게 만들어서 놓으면.}

10402 #1 그 기: 개::새 참새라고 해요. {그게 개새 참새라고 해요.}

10402 #1 그거릴. {그거를.}

10402 #1 이케 멀:로 하느냐 하면, 꼬챙이릴 이르케 난 그기 이썬요. {이케 뭇로 하느냐 하면 꼬챙이를 이렇게 나는 그게 있어요.}

10402 #1 두 개. {두 개.}

10402 #1 두 개버 이르케 두 개씩 떼능 기요. {두 개 이렇게 두 개씩 빼는 게요.}

10402 #1 그러면 인재 두: 개릴 요 사이릴 요로케 인재 저기 저기 머여. {그러면 이제 두 개를 요 사이를 이렇게 이제 저기 저기 뭐야.}

10402 #1 그렇게 가이패로 이르케 맨들거던너, 저 가이패로. {그러니까 가위표로 이렇게 만들거든요, 저 가위표로.}

10402 #1 요기두 요로케 가이패 요기도 요로케 가이패 맨드라 가주구. {여기도 이렇게 가위표 여기도 요렇게 가위표 만들어 가지고.}

10402 #1 고기따 요로:케 끼머요. {거기다 이렇게 끼워요.}

10402 #1 고고릴 이케. {그거를 이렇게.}

10402 #1 마라자면 인재 이케 이르케 이르케 이르케 생깁 겐. {말하자면 이제 이케 이렇게 이렇게 생깁 겐.}

10402 #1 여기다 이르케 인재:. {여기다 이렇게 이제.}

10402 #1 짬매뜨라고요. {동여맷더라고요.}

10402 #1 이르케. {이렇게.} 10402 @ 예. {예.}

10402 #1 그기 짬매 가주구 이기 요동 모타게 인재 해 노코넨. {그게 동여매 가지고 이게 요동을 못 하게 해 놓고는.}

10402 #1 거기다가. {거기다가.}

10402 #1 머냐하면 인재 바디라고 이썬요. {뭐냐 하면 이제 바디라고 있어요.}

10402 #1 바디. {바디.}

10402 #1 바디릴 인재: 그거시 인넨대. {바디를 이제 그것이 있는데.}

10402 #1 고걸 다:: 끼야 대요. {그걸 다 꿰야 돼요.}

10402 @ 구멍 하나애다가 다 끼워 가주구. {구멍 하나애다가 다 끼워 가지고.} 10402 #1 예, 하나하나 다: 끼: 가주구:. {예, 하나하나 다 꿰 가지고.}

10402 #1 그거뚜 이저빠린내. {그것도 잊어버렸네.}

10402 #1 그거 이기 머, 잉애, 잉애. {그게 이게 뭐, 잉앗대, 잉앗대.}

10402 #1 잉애:: {앵앗대.}

10402 #1 잉애: 잉애, 잉애때릴 인재 거기다 꼬꾸. {잉아 잉아 잉앗대를 이제 거기다  
    꽃고.}

10402 #1 잉애때가 두 개가 되거던너. {잉앗대가 두 개가 되거든요.}

10402 #1 그라만 잉애때릴 꼬꾸서. {그러면 잉앗대를 꽃고서.}

10402 #1 고기다가 인재 그 열 까다::기거던너, 고기. {거기다가 이제 그 열 가닥이거든요,  
    고개.}

10402 #1 열 까당 열까당 나룻 길 인재 다 끼구. {열 가닥 난 길 다 끼우고.}

10402 #1 요래 메 빠:늘 거기 가꺼든너. {요래 몇 번을 거기 갔거든요.}

10402 #1 고기 이르캐. {거기 이르게.}

10402 #1 그기 참 나라서 이르캐 해 노먼. {그게 차 날아서 이렇게 해 놓으면.}

10402 #1 다췌 베: 여덟췌 베 머 일곱췌 베 아홉췌 베. {다섯췌 베 여덟췌 베 뭐 일곱췌  
    베 아홉췌 베.}

10402 #1 이르캐 가따가 이르캐 노머. {이렇게 갖다가 이렇게 놓으면.}

10402 #1 그걸 나라 노먼. {그걸 날아 놓으면.}

10402 #1 그거 인지 그기 고 구멍구멍 다: 끼지요, 인재 고고털 {그거 이제 그게 고 구멍  
    구멍 다 꿰지요, 이제 고것을.}

10402 #1 고고 인재 고곰: 마 바디애다 대. {고거 이제 고거 바디애다 대.}

10402 #1 여기 참새: 개새, 참새가 인넌대 고고털 따지 가주구서 나룻 길 따지서 고기 끼  
    우면 땅:: 마자요. {여기 참새 개새, 참새가 있는데 그거를 따져 가지고 난 길 따  
    져서 고기 끼우면 딱 맞아요.}

10402 #1 여기 저기 바디라고 이췌요, 고개 저개 명: 고 끼능 거. {여기 저기 바디라고 있  
    어요, 그게 저기 목화 그 끼우는 거.}

10402 # 고거시 인재. {그것이 이제.}

10402 #1 고기다 끼 가주구 인재 매:능 기. {거기다 꿰 가지고 이제 매는 게.}

10402 #1 예, 인재 고거시 매닝 기 머냐 하먼. {예, 그것이 이제 매는 게 뭐냐 하먼.}

10402 #1 부털 와 가주구 푸를 꼬리 가주구서 인재 거기다 발라요. {불을 놓아 가지고 풀  
    을 끓여 가지고 거기에다 발라요.}

10402 #1 죽:: 까따가 저기 여기년 그거털 머라고 고라지? {죽 갖다가 저기 여기는 그그것  
    을 뭐라고 그러지?}

10402 #1 그기 머 그기 머라고라지? {그게 뭐 그게 뭐라고 그러지?}

10402 # 꼬쌍개지 머. {꼬쌍개지 뭐.}

10402 #1 여기 이르캐 꼬쌍쟁가? {여기 이렇게 꼬쌍개가?}

10402 #1 그거. {그거.}

10402 #1 꼬쌍개라구 돌:맹일 가따 노쿠 인재. {꼬쌍개라고 돌맹이를 갖다 놓고.}

10402 #1 거기다가 돌맹이털 눌러 놔야지 이기 짝:: 요리캐 가주구 굴러. {거기에다가 돌  
    맹이를 눌러 놔야지 이게 짝 이렇게 가지고 굴러.}

10402 #1 그래가주 이래 이래 푸털 미기 가주 그기 저:기 소:리라구 이췌요, 술:. {그래가  
    지고 이렇게 이렇게 풀을 먹여 가지고 그게 저기 술이라고 있어요, 술.}



10402 #1 베때는 술, 거 아실건데 왜? {베 때는 술, 그 아실건데 왜?} 10402 @ 예. {예.}

10402 #1 그걸루 그래 때: 이르케 기냥 하미 풀 발라 가주. {그걸로 그래 때, 이렇게 그냥 하면서 풀 발라 가지고.}

10402 #1 이래 이래 매구 인재 영가이 말르면. {이렇게 이렇게 매고 이제 인간히 말르면.}

10402 #1 거 개새: 참새 그 두 개털 가따가 인재 저기서 이래 이래 훌꾸. {그 개새 참새 그 두 개를 갖다가 이제 저기서 이렇게 이렇게 훑고.}

10402 #1 여기도 이르케 이르케 인재 내려오면 인재. {여기도 이렇게 이렇게 이제 내려오면 이제.}

10402 #1 이게 두:쥔 천뻔째가 내려가면, 저기 짜년대 인녕 거시 참새요, 고기. {이게 두 개 첫번째가 내려가면 저기 짜는데 있는 것이 참새요, 그제.}

10402 #1 몰라, 그르케 하드라구라 그라개. {몰라, 그렇게 하더라고 그렇게.}

10402 #1 그르케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더라고요.}

10402 #1 그래서 고골루 인재 여 아패 가능 기 이르케 이르케 인재 그거 해서 노면. {그래서 그걸로 이제 이 앞에 가는 게 이렇게 이렇게 이제 그거 해서 놓으면.}

10402 #1 고 디애꺼 요래 요래 해 가주구 말르면 인재 그 도투마리라구 하는디다 감짜나요, 이래. {그 뒤에 것 요렇게 요렇게 해 가지고 마르면 이제 그 도투라미라고 하는 데다가 감잡아요, 이렇게.}

10402 #1 가마서 조:꺼지 가면 인저 또 고라고. {감아서 저기까지 가면 이제 또 그러고.}

10402 #1 그래 가주 그르케 해 노코, 고기다 인재 배트리라구 해는데 고기다 디애다 언저 노코, 그거털. {그래 가지고 그렇게 해 놓고, 고기에다 베틀이라고 하는데 거기다 뒤에다 얹어 놓고, 그것을.}

10402 #1 바디지비라고 해 노코 고래 그 베트리라고 이짜나요? {바디집이라고 해 놓고 그렇게 그 베틀이라고 있잖아요?}

10402 #1 고기다 노코 그래 짜지요 베털. {거기다 놓고 그렇게 짜지요, 베틀.}

10402 #1 그렇 건 다: 하시쥔 꺾 머. {그런 건 다 하셨을 걸 뭐.}

10402 @ 저는 본저근 인는데 어릴 때 바 가주구 잘 몰라요. {저는 본 적은 있는데 어릴 때 봐 가지고 잘 몰라요.}

10402 #1 예. {예.}

10402 #1 그거뚜:. {그것도.}

10402 @ 그거 모르다가 말쓰마시능 걸 가마::니 드르니까 옛날생가기 쪼끔씩 나요. {그거 모르다가 말씀하시는 걸 가만히 들으니까 옛날 생각이 조금씩 나요.}

10402 #1 나지요. {나지요.}

10402 @ 요기다 노쿠서 요로:캐 요로:캐 항 거뚜 생강나구. {할머니가 거기다 놓고서 이렇게 한 것도 생각나고.}

10402 #1 그 삼 삼녕 거, 삼. {그 삼, 삼는 거, 삼.}

10402 @ 예:, 그렇 거뜨리 이케 이르케 얘기::를 드따보니까 쪼끔씩 생가기 나드라고요. {예, 그런 것들이 이렇게 이렇게 얘기를 듣다 보니까 조금씩 생각이 나더라고요.}

10402 #1 예, 예. {예.}

10402 #1 그건 사매요. {그건 삼이에요.}

10402 #1 사민대 그거뚜. {삼인데 그것도.}

10402 #1 그거 사면 또 그거뚜 방애다가, 우린 방애다가 그걸 찰마 가주구 해 바썬요. {그

거 삼은 또 그것도 방에다가, 우리는 방에다가 그걸 삶아 가지고 해 봤어요.}

10402 #1 방에다가. {방에다가.}

10402 #1 에 방에다가 불 마:니 때 가주구 방에다가 쌀마 가주 줌 저 마:니 하덜 안하니까. {에 방에다가 불 많이 때 가지고 방에다가 삶아 가지고 줌 저 많이 하지를 안하니까.}

10402 #1 마:니 하넌 사람더런 막 도라무통에다가 이르게 해 노코. {많이 하는 사람들은 막 드럼통에다가 이렇게 해 놓고.}

10402 #1 막 부릴 소태다 해노코 쓰더라, 쓰더라고요. {막 불을 솥에다 해 놓고 찌더라, 찌더라고요.}

10402 #1 그래 가주 빼끼넌대. {그래 가지고 벗기는데.}

10402 #1 우리는 기냥 방에다가 해바썬요, 방에다. {우리는 그냥 방에다가 해봤어요, 방에다가.}

10402 @ 그걸 삼때가 크:자나요? {그걸 삼대가 크잖아요?}

10402 #1 엄:청 크지. {엄청 크지.}

10402 # 삼때가 한 질반두 더 되니. {삼대가 한 길 반도 더돼.} 10402 @ 예예. {예예.}

10402 #1 아이구 죄송합니다. {아이고 죄송합니다.}

10402 #1 다릴 좀 빼더야지. {다리를 좀 뺏어야지.} 10402 @ 아이 갠차아요. {아이 괜찮아요.}

10402 @ 떠나개 하세요. {편하게 하세요.}

10402 #1 아이고 아이고 아이구 아파, 아이구. {아이고 아이고 아이구 아파, 아이고.}

10402 # 뻥-꼭, 빼꼬카니 해 가주구 고개 잘 커야. {빼꼭 빼꼭하니 해 가지고 곧게 잘 커야.}

10402 @ 예. {예.}

10402 # 이 사미 조용, 조용거시 나온다고. {이 삼이 좋은, 좋은 것이 나온다고.}

10402 #1 근대 이거넌. 그런근데 이거는.}

10402 #1 저넌 이르기 기냥 관저리 이써 가주구. {저는 이렇게 그냥 관절염이 있어 가지고.}

10402 #1 아파서. {아파서.}

10402 #1 여그 가 안자썬느니만. {여기에 가 앉았었더니만.}

10402 #1 아휴:. {아휴.} 10402 @ 떠나개 안즈셔야 대요. {편하게 앉으셔야 돼요.}

10402 #1 예. {예.}

10402 @ 무릎 아프시지요? {무릎 아프시지요?}

10402 #1 무릎비 아파요. {무릎이 아파요.}

10402 #1 펍 아파 가주구 이 관저리. {펍 아파가지고 이 관절이.}

10402 @ 엔나래 찌기 쪼그려 가지고 저 반 마니 매셔쥬? {옛날에 저기 쪼그려 가지고 저 발 많이 매셨쥬?}

10402 #1 하하하. {하하하.}

10402 #1 애:기두 어꾸두 매: 반는데요 머. {아기도 업고도 매어 봤는데요 뭐.}

10402 @ 그래니까. {그러니까.}

10402 @ 그래서 무릎비 그래요. {그래서 무릎비 그래요.}

10402 @ 저이 어머니두. {저이 어머니도.}

10402 #1 우리 두째 머스마 가:를 어꾸서두 매 받는데 머. {우리 둘째 머슴애 개를 업고서  
도 매어 봤는데 뭐.}

10402 #1 인재 너무 부파 가주구. {이제 너무 아파가지고.}

10402 @ 삼::배 시물라면 인재 그걸 머라 그래요? {삼배 심으려면 이제 그걸 뭐라 그  
래요?}

10402 @ 그걸? {그걸?}

10402 @ 삼 심능다 그러나요? {삼 심는다 그러나요?}

10402 @ 사미라. {삼이라.}

10402 # 그르치, 삼 심능다 하능 거지. {그렇지, 삼 심는다 하는 거지.}

10402 #1 사미지유, 삼. {삼이지요, 삼.}

10402 #1 사미, 삼때. {삼대.}

10402 # 사마 사미라고 하능 기여, 사멸. {삼이 삼이라고 하는 거야, 삼을.}

10402 @ 사물? {삼을?} 10402 # 씨럴 뿌리 가주구. {씨를 뿌려 가지고.} 10402 #1 예,  
예. {예.}

10402 # 그르니개 씹능다고 아나고 이게 씹능개 아니고 뿌리 가주구. {그러니까 심는다고  
안 하고 이게 심는 게 아니고 뿌려 가지고.}

10402 # 뿌리 가주 이래\*\*\*. {뿌려 가지고 이렇게 \*\*\*.}

10402 #1 인재 그개 크면 그걸 삼때라구 하지요 인재 그기. {이제 그개 크면 그걸 삼대라  
고 하지요, 이제 그개.}

10402 @ 그개 대:마자나요? {그개 대마잖아요?}

10402 #1 예. {예.}

10402 # 대:마지, 대:마. {대마지, 대마.}

10402 @ 대:마. {대마.}

10402 # 대:마. {대마.}

10402 # 이파링 거 대마:초라고 하고. {이파리는 거 대마초라고 하고.}

10402 #1 아휴, 선생님 보기 죄송합니다, 이래서. {아휴, 선생님 보기 죄송합니다, 이  
래서.}

10402 @ 아이고 아니 갠차나요. {아이고 아니 괜찮아요.}

10402 #1 근대 이짜기 좀 부승 거 가짜요? {근데 이쪽이 좀 부은 거 같지요?}

10402 @ 그러내요. {그러네요.}

10402 @ 쪼끔. {조금.} 10402 #1 부서찌요? {부었지요?}

10402 @ 예, 부언내요. {예, 부었네요.}

10402 #1 예 파쓰럴 부치 가주구 글거서 이래요. {예 파스를 붙여 가지고 끓어서 이래요.}

10402 @ 음:. {음.}

10402 #1 파, 찌넌 피부가 야개 가주구. {파(스), 저는 피부가 약해 가지고.}

10402 #1 파쓰럴 부치면 막:: 겹구워 가주. {파스를 붙이면 막 가려워 가지고.} 10402 @  
가렵쪄? {가렵쪄?} 10402 #1 예. {예.}

10402 #1 여가 지금 부 이쪽 파리가 더 아프거던뇨. {여기가 지금 부(어) 이쪽 다리가 더  
아프거든요.}

10402 #1 여가 부서, 부서찌요, 선생님? {여기가 부었, 부었지요, 선생님?}

10402 @ 예:. {예.}

10402 #1 이 부서 가주구. {이 부어가지고.}

10402 #1 아파 가주구 인재 꾸부리고 이썬떠니 이 이짜기 츠:맨 아프더니 이짜기 또 아프  
더라고요. {아파 가지고 꾸부리고 있었더니 이 쪽이 처음엔 아프더니 이쪽이 또  
아프더라고요.}

10402 #1 근대 이짜기 아프, 또 또 이르케 아파요, 이썬기. {그런데 이쪽이 아프, 또 또  
이렇게 아파요, 이쪽이.}

10402 #1 개도 이썬기. {그래도 이쪽이.} 10402 @ 사진 썬거 보션나요? {사진 썬어 보션  
나요?}

10402 #1 예. {예.}

10402 #1 수썬하라캐요. {수썬하라고 해요.}

10402 @ 뻤가 다라따 그러지요? {뻤가 닳았다 그러지요?} 10402 #1 예예. {예예.}

10402 #1 수수라라캐. {수썬하라고 해.}

10402 #1 수썬하라카녕 거릴 아나고. {수썬하라고 하는 것을 안 하고.}

10402 #1 연골주사라녕 거릴 마자 반년대 이: 아픈지가 오래돼서 그렇가 별로 효파가 업  
능 거 가태요.{연골주사라는 것을 맞아 봤는데 이 아픈 지가 오래 돼서 그런가 별  
로 효파가 없는 거 같아요.}

10402 # 안 되지:. {안 되지.}

10402 # 하냥대 병원내 간는데 \*\*\*\* 정화강 거. {한양대 병원에 갔는데 \*\*\*\* 정확한 거.}

10402 #1 하냥대 병워내는... {한양대 병원에는...}

10402 #1 지배로 어디 와평가부내:. {집으로 어딜 왔던가보네.}

10402 #1 그 아들 지부로 와썬 사진 썬꾸:. {그 아들 집으로 왔지 사진 썬고.}

10402 #1 이 양바나. {이 양반아.}

10402 #1 이거 여 뻤두. {이거 여기 뻤도.}

#### 파일번호: 04

#### SCB\_YD\_04

조사내용: 구술발화-의생활-목화, 삼 재배와 길쌈

조사지역: 충북 영동군 용산면 구촌리

제보자: 김동술(80세, 남, 원숭이띠), 김순임(77세, 여; 돼지띠)

조사자: 박경래(세명대학교 교수)

조사일: 2011년 7월 3일

조사장소: 제보자의 집

조사시간: 13분 10초

10404 @ 삼, 삼물 가라서 크자나요? {삼, 삼을 갈아서 크잖아요?}

10404 # 그르치. {그렇지.}

10404 @ 그럼 인재 수화칼 때 어뜨케 수하캐요, 그거? {그럼 이제 수확할 때 어떻게 수확  
해요, 그것?}

10404 # 근대 그 사멸 일판 가라쓰면. {그런데 그 삼을 일단 갈았으면.}

10404 @ 가마 이썬요, 고고. {가만 있어요, 그거.}

10404 # 이제 까찌끈 커따 이거여. {이게 다 컸다 이거야.}

10404 # 그러면 삼넙쌔길. {그러면 삼잎을.}

10404 # 삼넙쌔기를 미리 다 처내뿌린다고. {삼잎을 미리 다 쳐서 내버린다고.}

10404 # 짹 처내빼리여 삼넙쌔길. {짹 쳐 내버려 삼잎을.}

10404 # 그라고 인제 그걸 비어 가주구. {그리고 이제 그걸 베어 가지고.}

10404 # 다발루 무꺼 가주구. {다발로 묶어 가지고.}

10404 # 큰:: 삼 소시라구 이따고. {큰 삼술이라고 있다고.}

10404 # 이 또랑 까애다 그걸 거러 노코. {이 도랑가에다 그걸 걸어 놓고.}

10404 @ 예. {예.}

10404 # 찢다고 찢. {찢다고 찢.}

10404 # 이 사멸 찢야. {이 삼을 찢야.}

10404 #1 도라무통애. {드럼통애.}

10404 # 어:. {예.}

10404 # 찢야, 인제 소시 크다고 거기. {찌야, 술이 크다고 이제 거기.}

10404 # 이래 머이 큰 소술 자관 어트개 드리, 소설 맹그라 가주구. {이렇게 뭐 큰 술을 좌우간 어떻게 들어, 술을 만들어 가지고.}

10404 # 어: 아주 마:니 가따 쟁강다고 그걸. {에 아주 많이 갖다 쟁다고 그것을.}

10404 # 쟁기 가주구, 어: 그 삼-을 찢 거릴. {재어 가지고, 에 그 삼을 찢 것을.}

10404 # 인제 그래야 또랑 가에서 해 나야. {이제 그래야 도랑가에서 해 놔야.}

10404 # 아::. {예.}

10404 #1 엔:날 거 아실라고 선생님 청주서 오싱 거여. {옛날 거 아시려고 선생님이 청주에서 오신 거야.}

10404 # 그걸 인제 또랑애 가따 인제 무래 당과. {그걸 이제 도랑에 갖다 이제 물에 담가.}

10404 # 당과야 인제, 씨끄, 씨근 다매 빼긴다고. {담가야 이제, 식은, 식은 다음에 벗긴다.}

10404 @ 예:. {예:}

10404 # 빼껴. {벗겨.}

10404 # 빼끼 가주구. {벗겨 가지고.} 10404 @ 예. {예.}

10404 # 인제 대공은... {이제 대...}

10404 # 어:. {예.}

10404 @ 그럼 그거 찢 때는 어트개 찢요? {그럼 그거 찢 때는 어떻게 찢요?}

10404 # 찢넝 건 나수로. {찌는 건 낫으로.}

10404 # 어 나수루 비 뿌리. {낫으로 베어 버려.}

10404 @ 아:, 저기 그 찢...? {아, 저기 그 찢...?}

10404 # 어, 나스로 비 가주 다발루 무꺼 가주구. {어, 낫으로 베어 가지고 다발로 묶어 가지고.}

10404 @ 다발로 무꾸? {다발로 묶고?}

10404 @ 그리구서 저기... {그리고서 저기 ...} 10404 # 인제 어:. {이제 예.}

10404 # 삼쫄설 맹그러논 대 거러논 대다가 가따가. {삼술을 만들어 놓은데 걸어 놓은 데다가 갖다가.}

10404 @ 그: 삼쑈태다가? {그 삼쑈에다가?}

10404 # 싸:가주구 부를 때가주 찢다구. {쌓아 가지고 불을 때가지고 찢다고.}

10404 #1 가::뜯카개. {가득하게.} 10404 # 찢마, 찢마. {삶아, 삶아.}

10404 #1 이 이기 소치라면 선생님. {이 이게 술이라면 선생님.}

10404 #1 이기 소치라면 여길 짹:: 찢귀요 아마. {이게 술이라면 여기를 짹 끼워요 아마.}

10404 #1 이개. {이게.}

10404 #1 짹 찢귀 가주구. {짹 끼워 가지고.} 10404 @ 이, 이 세로루 하나요, 여푸루 누우. {이 세로로 하나요, 옆으로 누워서.} 10404 # 여푸루 누워서 막 찢다고. {옆으로 누워서 막 찢다고.}

10404 @ 예. {예.} 10404 # 어:, 여푸루 누워서 찢다고. {어, 옆으로 누워서 찢다고.}

10404 #1 여푸루 아내찌:. {옆으로 안 했지.} 10404 # 아:이, 여푸루 누워서 찢. {아니, 옆으로 누워서 찢.}

10404 # 판판냥 걸. {\*\*\* \*.} 10404 #1 요로케 어울리지. {이렇게 어울리지.}

10404 # 그기 지:무로 막 찢능 거기 때미내. {그게 김으로 막 찢는 것이기 때문에.}

10404 # 그래서 찢자구 머 그르케 아니야. {그래서 찢자고 뭐 그렇게 안 해.}

10404 @ 그 미태다가 불 때구? {그 밑에다가 불 때고?} 10404 # 어:, 인제 그 미태:. {어, 이제 그 밑에.}

10404 # 이개 아주 끝, 찢 한 한 질반 이르케. {이개 아주 끝, 저 한 한 길 반 이렇게.}

10404 @ 예예. {예.} 10404 # 사람 키루 질반쯤 이르케 크니까, 잘 대면. {사람 키로 길 반 쯤 이렇게 크니까, 잘되면.}

10404 @ 예. {예.}

10404 # 그르케 질:개 크니까. {그렇게 길게 크니까.}

10404 # 아: 이거 새와서 할라카면 골란하고. {에 이걸 세워서 하려면 곤란하고.}

10404 # 또 마이 제대로 모단다고. {또 많이 제대로 못 한다고.}

10404 # 그룽개 막 둔:, 이래 둔너서 기냥 막 쟈다고 재야. {그러니까 막 드러눕, 이렇게 드러누워서 그냥 막 쟈다고 재.}

10404 @ 예. {예.}

10404 # 이쑈 저쑈그로 이래 마쳐서 재 가주구, 가::뜯 이래 싸 가주구 덩꾸 양쑈겔 덩꾸 막 노피 싸 가주구, 어: 지:멀 올리 가주 지물 판 대로 모쑈개 하고 우:로만 올라가게 해 가주 전체릴 전체릴 다 쑈:넌다구. {이쑈 저쑈으로 이렇게 맞춰서 재 가지고 가득 이렇게 쌓아 가지고 덮고 양쑈을 덮고 막 높이 쌓아 가지고, 에 김을 올려 가지고, 김을 판 데로 못 새게 하고 위로만 올라 가게 해 가지고 전체를 다 삶는다고.}

10404 @ 멀루다 더퍼요, 그러면? {뭇로 덮어요, 그러면?}

10404 # 그 인제 더개를 지금 어:. {그 이제 덮개를 지금 예.}

10404 # 옴:나래넌 머 그 저 꼬냥 어::. {옛날에는 뭐 그 저 그냥 예.}

10404 # 거시기 예:: 무슨 저 베, 베그텅 거 이렇 걸로 해 가주구. {거시기 에 무슨 베, 베 같은 걸 이런 것으로 해 가지고.}

10404 # 그거 하넌 사람더리 인제 별또로 멩그라가주구. {그거 하는 사람들이 이제 별도로 만들어 가지고.}

10404 # 이래 덩능 걸 멩그란는데. {이렇게 덮는 걸 만들었는데.}

10404 # 지그먼 조용 기 마이 이찌. {지금은 좋은 게 많이 있지.}

10404 # 조용 기 지끄먼 인재 푸라스티그로 맹궁 거라든지 어짜든지 머. {좋은 게 지금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것이라든지 어짜든지 뭘.}

10404 # 일방 노가-빠지닝 거만 아니면 되넌대. {일방 녹아빠지는 것만 아니면 되는데.}

10404 # 그렇 걸루 해 가주. {그런 걸로 해가지고.}

10404 # 멍:석 끄통걸로 가따 이래 우엘 더꼬. {멍석 같은 것으로 갖다 이렇게 위를 덮고.}

10404 # 단다니 이르캐 더퍼 가주구. {단단히 이렇게 덮어 가지고.}

10404 # 쩌 가주구. {찌 가지고.}

10404 # 그 또랑 까에다 가따 시꿔 가주. {그 도랑가에다 갖다 식혀 가지고.}

10404 # 인재 빼끼 가주구. {이제 벗겨 가지고.}

10404 # 어:: 이걸 말룬다고 말려. {에 이걸 말린다고 말려.}

10404 @ 예. {예.}

10404 # 그라고 저 하:야캐 그 저. {그리고 하얏게 그 저.}

10404 # 삼때는 인재 가따가. {삼대는 이제 갖다가.}

10404 # 에:: 이런대 인재 발, 발:도 여꺼 가주 썬 머꼬. {에 이런 데 이제 발, 발도 얹어 가지고 썬 먹고.}

10404 # 에 지붕, 집 찌먼 지붕 이넌대 거 거기두 가따 깔고. {에 지붕, 집 지으면 지붕 이는데 그 거기에도 가져다 깔고.}

10404 # 머 이래 둘루넌 대두 치구 머 이런 대두 썬 머꼬. {뭘 이렇게 두르는 데도 치고 뭘 이런 데도 썬 먹고.}

10404 # 그 인재 껌띠기럴 베껴 가주구 그게 사미니. {그 이제 껌테기를 벗겨 가지고 그게 삼이니.}

10404 # 그기 베 난는 사미 되닝 거지. {그게 베 찌는 삼이 되는 거지.}

10404 @ 예:. {예.}

10404 @ 그 껌, 껌띠기? {그 껌, 껌테기?} 10404 # 껌띠길 베껴 가주 또. {껌테기를 벗겨 가지고 또.}

10404 # 어: 또 재새걸 해야 그글 어: 짜기야. {에 또 재색을 해야 그것을 에 쩌.}

10404 # 짜개 가주구. {찌 가지고.}

10404 # 인재 시:럴 맹그닝 거여. {이제 실을 만드는 거야.}

10404 # 또 이서 가주구. {또 이어 가지고.}

10404 @ 예:. {예.}

10404 # 이래 가주 씨럴, 씨럴 맹그러 가주구. {이렇게 해 가지고 실을, 실을 만들어 가지고.}

10404 # 어 삼대를 매, 인재 맹그닝 거지. {어 삼대를 만, 이제 만드는 거지.} 10404 @ 아 그래잉 그거. {아, 그러니까 그거.}

10404 @ 껌띠기가: 그리잉까 인재 널, 널부니까 고걸. {껌테기가 그러니까 이제 넓, 넓으니까 그걸.}

10404 # 짜개야. {찌.}

10404 # 짜개야. {찌.}

10404 # 일리리 짜개 가주 또 글 이서. {일일이 찌 가지고 또 그걸 이어.}

10404 @ 예. {예.}

10404 # 이서 가주구. {이어 가지고.} 10404 #1 그걸 멀루 인너냐 하먼뇨. {그걸 뭘로 잊느냐 하먼요.}

10404 #1 그 삼:덜 다 빼끼 넣기. {그 삼을 다 벗기는 게.}

10404 #1 또랑에다가 노코 혼드러머뇨. {도랑에다가 놓고 흔들면요.}

10404 #1 이게 혼드러 가주 \*\*\*\*. {이렇게 흔들어 가지고 \*\*\*\*.} 10404 # 고 하:양 거만, 하:양 거만 남넌다고 하양 거. {그 하얀 것만 하얀 것만 남는다고 하얀 거.}

10404 #1 요로케 하::노콤씩 해 가주구서 요기럴 인재 썩, 요기 썩꿔요. {요렇게 한움콥씩 해 가지고서 여기를 썩, 여기를 썩어요.}

10404 #1 요래 요래 썩꿔 가주구서넌 콧:: 짬매드라고요. {요렇게 요렇게 썩어 가지고는 꼭 동여매더라고요.}

10404 #1 막 하노콤씩. {막 한움콥씩.}

10404 #1 거때 마 아주 예줄바 이 또랑에 여기 무리 마:이 내려가썩요, 그때만 해두. {그때만 해도 아주 \*\*\* 이 도랑에 물이 많이 내려갔어요 그때만 해도.} 10404 # 인재 또랑에서 썩구. {이제 도랑에서 썩고.}

10404 #1 남저남저 흔들머뇨 그기 내리가요. {남실남실 흔들면요 그게 내려가요.}

10404 #1 요 막 흔들만. {요 막 흔들면.}

10404 @ 음. {음.}

10404 #1 그 꺾떠기가:. {그 꺾테기가.}

10404 @ 걱, 거태 인능 거? {걸, 곁에 있는 거?}

10404 # 아주 꺾떠기 새파랑 건 빼꺼저고. {아주 꺾테기 새파란 것은 벗겨지고.}

10404 # 하양 거만 나마야 베릴 땡그녕 거여. {하얀 것만 남아야 베를 만드는 거야.}

10404 #1 근대: 아주 하양 거만 안 남, 썩 그르케 하양 거만 안 나마. {아주 하얀 것만 안 남, 저 그렇게 하얀 것만 안 남아.}

10404 #1 근대 낭기 점 더러 이 불끼두 하구 이런대. {그런데 나무가 좀 더러 이게 불기도 하고 이런데.}

10404 #1 그거럴 인재 기냥 이기 짜갱 그시 이르케 녁쭈:카지 이개. {그거를 이제 그냥 쟈 것이 이렇게 넓적하지 이개.}

10404 #1 그러면 고고럴. {그러면 그거를.} 10404 # 녁쭈카기만 해궁 그개 짜겐다닝개 그 거 또. {넓적하기만 하면 그걸 쪼겐다니까 그걸 또.}

10404 #1 다스 까닥뚜 나오녕 거 이꾸, 여서 까닥뚜 나오녕 거뚜 이꾸. {다섯 가닥도 나오는 거 있고, 여섯 가닥으로 나오는 것도 있고.}

10404 #1 세 가닥뚜 나오녕 기 이꼬, 두 가닥 나오는, 가능 건 그리여. {세 가닥도 나오는 게 있고, 두 가닥 나오는, 가는 것은 그래.}

10404 #1 그래서. {그래서.}

10404 # 삼베도 그걸 가늘기 짜개만. {삼베도 그걸 가늘게 짜면.} 10404 #1 예:. {예.}

10404 # 저 이 머여? {저 이 뭐야?}

10404 # 고대 모과. {아까 목화.}

10404 # 모과 저: 썩쭈 나오녕 거마냥. {목화 저 새수 나오는 것마냥.}

10404 # 더 곤: 삼베가 나오고. {더 고운 삼베가 나오고.}

10404 # 구개 짜개면 인저 뽕떡쌔뽕가 나오녕 거지. {굵게 짜면 뽕떡삼베가 나오는 거지.}



10404 @ 예:. {예.}

10404 # 고고또 고래되요. {그것도 그렇게 돼요.} 10404 #1 처:매 가리야 대요, 그거또 명마냥. {처음에 가려야 돼요, 그것도 목화마냥.}

10404 # 그래 가주 인재. {그래 가지고 이제.} 10404 #1 삼베가요. {삼베가요.}

10404 #1 가쟁이 병: 기 이짜나요. {가지가 벌은 게 있잖아요.}

10404 #1 상태가? {상태가?} 10404 @ 예. {예.}

10404 #1 가쟁이 병 거넌 인재 따로 과, 가리 노코. {가지가 벌은 것은 이제 따로 가, 가려 놓고.}

10404 #1 꼬:꼬타개 매::꼬냥 건 또 따루 하구 이래요. {꽃꽃하게 매끈한 것은 또 따로 하고 이래요.}

10404 #1 명마냥. {목화마냥.} 10404 @ 예. {예.}

10404 #1 그러면 인재 깨꼬타고 키 쿵 거넌 인재 침 재 고::깨 짜개 가주구 인재. {그러면 이제 깨끗하고 키 큰 것은 이제 참 저 굵게 짜 가지고 이제.}

10404 #1 차 저:: 고운 삼베가 대고. {차 저 고운 삼베가 되고.}

10404 #1 이 그 가쟁이 별:구 막 이렇 건 인재 좀. {이 그 가지가 벌고 막 이런 것은 이제 좀.}

10404 #1 그 수:기 이짜나요. {그 숙이 있잖아요.}

10404 #1 고람 재 그렇 건 쪼곰, 쪼곰 구:깨 짜개 가주구. {그러면 이제 그런 건 조금, 조금 굵게 짜 가지고.}

10404 #1 그거또 쪼 내고. {그것도 쪼 내고.}

10404 @ 음:. {음.}

10404 # 그거뚜 모봐로, 모봐로 베 맹그렁거랑 비스타다고. {그것도 목화로, 목화로 베 만드느거랑 비슷하다고.}

10404 #1 안 조용 거로. {안 좋은 거로.}

10404 # 물래에 자:꼬 이래야 된다고 그거또. {물래에 잣고 이래야 된다고 그것도.}

10404 @ 예:. {예.}

10404 # 파야 대니까. {꼬아야 되니까.}

10404 @ 그거 그러면 삼때가 곧:깨 고:깨 할라그러면 좀 심, 저기 갈: 때 줌 달:개 가라야 되겐내요? {그거 그러면 삼때가 곧게 곧게 하려고 하면 좀 심, 저기 갈 때 줌 달게 같아야 되겠네요?} 10404 # 아:이 달:개 가라야 돼요. {아이, 달게 같아야 돼요.}

10404 @ 예:. {예.}

10404 # 너머, 너머 다라도 안 되고. {너무, 너무 달아도 안 되고.}

10404 @ 예. {예.}

10404 # 너무 드무러두 안 대능 기요. {너무 드물어도 안 되는 거요.}

10404 # 고고 참 씨 뿌리능 기. {그거 참 씨 뿌리는 게.} 10404 #1 드물면 가재이가... {드물면 가지가...}

10404 # 씨 뿌리덜 아주 기술쩌그로 해야 대능 거요. {씨 뿌림을 아주 기술적으로 해야 되는 거요.}

10404 @ 그르개씨요. {그렇겠어요.}

10404 # 씨 뿌리덜. {씨 뿌림을.}

10404 @ 예. {예.}

10404 # 이 너무 드물면 가쟁이가 버러서 안 댄다 마리여. {이 너무 드물면 가지가 벌어져 안 된다 말아야.}

10404 @ 예:. {예.}

10404 # 가쟁이가 버러서. {가지가 벌어져.}

10404 #1 그거 그래 가주구 이 토비라구, 여여 이 저기 칼: 뚜꺼운 칼마냥요. {그거 그래 가지고 이 톱이라고, 요요 저기 칼 두꺼운 칼마냥요.}

10404 #1 뚜꺼운 칼 이짜나요. {두꺼운 칼 있잖아요.}

10404 #1 두꺼개 맨들무넌. {두껍게 만들면.} 10404 @ 예. {예.}

10404 #1 두꺼개 맨드러 가주구. {두껍게 만들어 가지고.}

10404 #1 사라미 이르캐두 암 빌 정도루 해 가주구서. {사람이 이렇게 해도 안 벨 정도로 해 가지고서.}

10404 #1 고거 요러캐 무꾼대럴 인재, 요거 무꾼대는 여기 암 빠까지거던너. {고거 요렇게 묶은 데를 이제, 요고 묶은 데는 안 벗겨지거든요.}

10404 #1 빠꺼지덜 아내요, 그기. {벗겨지들 안 해요, 그게.} 10404 @ 예. {예.}

10404 #1 그래서 고건 나두꾸 인재 해 가주구서넌 이기 뽀때기다 노쿠. {그래서 그건 놔 두고 이제 해 가지고서는 이걸 뽀때기에다 놓고.}

10404 #1 이기 요 지리기 요고마난 짐 지버 가주구 이르캐 만드능 기 이씨요 요르캐. {이 게 요 길이가 요것만한 짐, 집어 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게 있어요 요렇게.}

10404 #1 다 빠끼야 대요, 이르캐. {다 벗겨야 돼요, 이렇게.} 10404 @ 예:. {예.}

10404 # 이 이슬 때. {이 이슬 때.}

10404 @ 이슬 때. {이슬 때.}

10404 #1 그래야 \*\* {그래야 \*\*.}

10404 # 이스매럴, 이스매럴. {매듭을, 매듭을.}

10404 #1 그 당과서 이제 그뚜 추지야지. {그 담가서 그것도 축여야지.}

10404 #1 말르면 안 대거던너. {마르면 안 되거든요.}

10404 #1 그래 요래, 토파리 이씨요. {그래 요렇게 톱칼이 있어요.}

10404 #1 톱칼이라캐요, 그거덜. {톱칼이라고 해요, 그것을.}

10404 @ 톱칼? {톱칼?}

10404 #1 예, 토칼. {예, 톱칼.}

10404 #1 그리선 이르키 빠끼 가주구서루넌. {그래서는 이렇게 벗겨 가지고서는.}

10404 #1 에헤, 가쟁이:: 이 나무를 하나 요로캐 가쟁이 요기 요로캐 짜개 가주구. {에-, 가지 이 나무를 하나 이렇게 가지를 여기를 이렇게 켜 가지고.}

10404 #1 요기다 꼬바요. {요기에다 꽃아요.}

10404 #1 꼬바 가주구 인재 이르캐 질만 여자드리 이르캐 다리 여그다가 이르캐 하낙씩 빠 가주 이서요. {꽃아 가지고 이렇게 길면 여자들이 이렇게 다리 여기에다가 이렇게 하나씩 빼어 가지고 이어요.}

10404 # 허허 그 인:너라고. {허허 그 잇느라고.}

10404 #1 거 짜갱 거. {그거 쪼갠 거.}

10404 # 쪽:: 이서야 대니까. {쪽쪽 이어야 되니까.}

10404 @ 예. {예.}

10404 #1 이서 가주구 한 소코리씩 맨드러 가주구넌. 에헤. 비어 가주구 꼬내키루 고고  
 좀 모쓰닝 거 그거럴 요로케 짬매지요 그냥. {이어 가지고 한 소쿠리씩 만들어  
 가지고는, 에헤, 베어 가지고 끈으로 그거 못 쓰는 거 그것을 요렇게 동여매지요  
 그냥.}

10404 #1 그개 십짜루 짬매서 요로:케 쏘다 노코. {그개 십자로 동여매서 요렇게 쏘아 놓  
 고.}

10404 #1 그러면 요로케 모새루 인재 가따 요로케 요로케 해 노코. {그러면 요렇게 모래  
 로 이제 갖다 요렇게 요렇게 해 놓고.}

10404 #1 그거뚜 열 개를 해 가주구서. {그것도 열 개를 해 가지고서.}

10404 #1 그 저기다 저 이르케 에 열개 톱, 이기 맨더닝 거 거거다가 꼬바 가주구. {그 저  
 기다가 저 이렇게 에 열 개 톱, 이렇게 만드는 거 거기다가 꽃아 가지고.}

10404 # 물래루 자사 가주구 꾸리를 맹글, 참 저 가라걸 맹그라 가주 하자나 그또. {물레  
 로 자아 가지고 꾸리를 만들, 참 저 가락을 만들어 가지고 하잖아 그것도.}

10404 #1 그거뚜 명마냥 자사 가주구 고또 해야 대구 또까치 그 명아고 또까타요. {그것  
 도 목화마냥 자아 가지고 그것도 해야 되고 똑같이 그 목화하고 똑같아요.}

10404 # 아, 그런 그런시그루 하닝 거. {아, 그런 그런 식으로 하는 거.}

10404 #1 인재 삼베다 명베다 이래 \*\*\*\* 하능 거또 또까타요. {삼베다 명베다 이렇게 \*\*\*  
 하는 것도 똑같아요.}

10404 # 나닝 거까지두 또까통 거지 인재. {나는 것까지도 똑같은 거지 이제.}

10404 # 과정이. {과정이.}

10404 @ 네. {네.}

10404 # 베트래다 올리 노코 짜닝 거또 머 다 또까터. {베틀에다 올려 놓고 짜는 것도 뭐  
 다 똑같아.}

10404 # 그 인재 꾸리지 그근. {그 이제 꾸리지 그건.}

10404 @ 네. {네.}

10404 # 꾸리털 이 맹그닝 기 인재 부개다 느코 하닝 거 인재 그, 그럼 명, 무명하닝 거랑  
 그 삼베하닝 거랑 또까터고. {꾸리를 만드는 게 북에다 넣고 하는 거 명, 무명하  
 는 거랑 그 삼베하는 거랑 똑같고.} 10404 #1 명두 그리치. {명도 그렇지.}

10404 @ 그럼 가튼 베트래서 하능 거지요? {그러면 같은 베틀에서 하는 거지요?}

10404 #1 예. {예.} 10404 # 예:, 가튼 베트래서 똑까튼 과정으로 하닝 거여. {예, 같은  
 베틀에서 똑같은 과정으로 하는 거야.}

10404 @ 예저내 하루 베 짜면 어너 얼마나 짜씨요? {예전에 하루 베 짜면 어느 얼마나 짚  
 어요?}

10404 #1 예저내 잘 짜넌 사라먼뇨. {예전에 잘 짜는 사람은요.}

10404 #1 이르케 스무 자가 함 필, 열따서 짜두 함 필, 서른 자 함 필 이르케 따지요. {이  
 렇게 스무자가 한 필, 열다섯 자도 한 필, 서른 자 한 필 이렇게 따져요.}

10404 #1 이 스무 자 함 필, 서른 자 함 필 인재 열따서 짜 함 필. {스무 자 한 필, 서른  
 자 한 필 이제 열다섯 자 한 필.}

10404 #1 젤: 그르케 만드라 가지구 인재 필루 나와요. {제일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제  
 필로 나와요.}

10404 #1 그러면 잘 짜넌 사라먼 열따서 짜 그거 다 짜넌 사람두 이꾸. {그러면 잘 짜는

사람은 열다섯 자 그거 다 짜는 사람도 있고.}

10404 #1 스무 자: 다 짜낸 사람두 이꾸 인재 그래요. {스무 자 다 짜는 사람도 있고 이제 그래요.}

10404 #1 근대 인재 그 서른 자: 하, 함 필 짜낸 사라먼 바미나 나지나 짜면 서른 자 찐다 카드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 서른 자 한 필 짜는 사람은 밤이나 낮이나 짜면 서른 자 찐다고 하더라고요.}

10404 # 하루에 모: 찐디야. {하루에 못 찐대.}

10404 # 어림두 업따능 기여:. {어림도 없다는 거야.} 10404 #1 아니 바미나 나지나 짜면: 인재 그르케 찐디야. {아니 밤이나 낮이나 짜면 이제 그렇게 찐대.}

10404 #1 서른 자 함 필. {서른 자 한 필.}

10404 #1 하루에 저 찐디야:, 그르케. {하루에 찐대, 그렇게.}

10404 #1 옴:나래 명 불써 노코 막 그르케 찐다 카대:. {옛날에 그 명 불켜 놓고 막 그렇게 찐다고 하대.}

10404 #1 할부리 형니면 그르케 짜바따는대. {할부리 형님은 그렇게 짜봤다는데.}

10404 # 아 그르케 모짜:. {아 그렇게 못 짜.} 10404 #1 잘: 짜지, 우리 형님 \*\*\*\*\*. {잘 짜지, 우리 형님 \*\*\*\*\*.}

10404 # 한 사:밀써근 걸리지. {한 삼 일씩은 걸리지.}

10404 # 사밀. {삼 일.}

10404 #1 인저 그르케 짜띠야. {이제 그렇게 찌대.}

10404 @ 여기 모시::두 시먼나요? {여기 모시도 심었나요?}

10404 @ 모시? {모시?}

10404 #1 모시는 아내마썰요. {모시는 안 해 봤어요.} 10404 # 모시 아내요 여긴. {모시는 안 해요 여기는.}

10404 @ 여긴 아내요? {여긴 안 해요?} 10404 # 한산모시라고 저짜그루 하능 거지. {한산모시라고 저쪽으로 하는 거지.} #1 저:: 상주서 마니 하지. {저 상주에서 많이 하지.}

10404 @ 상주요? {상주요?}

10404 #1 여 상주 함창이라는 데서 그건 마니해요, 모시는. {여기 상주 함창이라는 데서 그건 많이 해요, 모시는.}

10404 #1 지금두 한다가든대요. {지금도 한다고 하던대요.}

10404 @ 그럼 그거 인재 질쌌할 때요. {그럼 그거 이제 질쌌할 때요.}

10404 @ 어떻 거뜨리 이썰요, 그 기, 기구가? {어떤 것들이 있어요, 그 기, 기구가?}

10404 @ 도구가? {도구가?}

10404 # 도구는 머 어::. {두구는 뭐 예.}

10404 @ 아까 항거, 저기 미영 씨 빼능 거는? {아까 한 거, 저기 미영 씨 빼는 거는?}

10404 # 씨아시. {씨아.}

10404 @ 씨아시고. {씨아고.}

10404 @ 그 실 이러:개 감녕 거는? {그 실 이렇게 감는 거는?}

10404 # 물래. {물래.}

10404 @ 물래고. {물래고.}

10404 @ 열, 열래래능 거뚜 이썰요? {열, 열래라는 것도 있어요?}

10404 #1 가라기라구. {가락이라고.}

10404 @ 가락? {가락?}

10404 #1 예, 가라기 인재 예: 여 명:, 물래애다가 주릴 이르:개 매 가주구. {예, 가락이 이제 여기 미영, 물래애다가 줄을 이렇게 매 가지고.}

10404 #1 여기 저::기 마라자면 여 수판이짜나요? {여기 저기 말하자면 여기 주판있잖아?}

10404 #1 수판그텅 거릴 네 개짜리두 이꾸, 다서 개짜리가 이썬요.{주판같은 것을 네 개짜리도 있고, 다섯 개짜리가 있어요.}

10404 #1 그러면 인재 그거릴 인재 수판거텅 거넌 내빌라두구. {그러면 이제 그것을 이제 주판같은 것은 내버려두고.}

10404 #1 인재 여기두 여기 인재 그: 가라기라구 이썬요. {이제 여기도 여기 이제 그 가락이라고 있어요.}

10404 #1 여기두 빼:꾸카고 이짜개도 빼꾸개요:. {여기도 뽕죽하고 이쪽에도 뽕죽해요.}

10404 @ 이만, 이마:낭 거지요? {이만 이만한 거지요?}

10404 #1 그르켄 안 질지요. {그렇게는 안 질지요.}

10404 @ 쎄 세루 땡 걸 마라능 거? {쇠 쇠로 된 걸 말하는 거?} 10404 # 예, 세루 땡 거 고만. {예, 쇠로 된 거 고만한.} 10404 #1 예, 요 요 요 정도는 대요. {예, 요 요 요 정도는 돼요.} 10404 @ 한 요정도 대능 거 가뜰대? {한 이 정도 되는 거 같던데?}

10404 #1 건 너머 커요. {그건 너무 커요.}

10404 #1 아니 요 정도요, 요 정도 대넌대. {아니 요 정도요, 요 정도 되는데.} 10404 @ 그래요? {그래요?} 10404 @ 제가. {제가.}

10404 #1 요 정도 대요. {요 정도 돼요.}

10404 #1 요 정도 되넌대 가문태넌 인재 고기: 다서 개짜리, 네 개짜리 이썬요. {요 정도 되는데 가운데는 이제 고기 다섯 개짜리, 네 개짜리가 있어요.} 10404 # 줄 그넌 대고. {줄 굵는 대고.} 10404 @ 네네. {네.} 10404 #1 다서 개짜리. {다섯 개짜리.} 10404 @ 똥그랑 거 요로케? {똥그란 거 이렇게?} 10404 #1 예예, 수판 고거텅 거. {예예, 주판 그 같은 것.} 10404 @ 예. {예.}

10404 #1 고고 인넌대. {그거 있는데.}

10404 #1 맨: 우애넌 줌 인재 찰루꾸. {맨 위는 줌 이제 짧고.}

10404 #1 여 가락 꿈넌 대 여기 이마낭 거시 요기넌 인재 그: 멀:루 하느냐 하면. {여기 가락 쫓는 데 여기 이만한 것이 요기는 이제 그 뭇로 하느냐 하면.}

10404 #1 옴:날 수순 찌:기. {옛날 수수 저기.}

10404 # 수숙. {조.} 10404 #1 조 이썬요, 조? {조 있지요, 조?} 10404 #1 조 그거 조 조때여. {조 그거 조 대궁이여.}

10404 # 저 조 그거. {저 조 그거.} 10404 #1 그거: 인재 굴:궁 걸 가따가. {그거 이제 굵은 것을 갖다가.}

10404 # 큰 대궁 그거 그거 하능 기여. {그것은 대궁 그거 그거 하는 거야.}

10404 #1 인재 자근자근자근자근 요래 요래 놀루문뇨. {이제 자근자근자근자근 요렇게 요렇게 누르면요.}

10404 #1 고기: 요래 줌 부서져요. {그게 요렇게 줌 부서져요.}

10404 #1 부서져서. {부서져서.}

10404 #1 이기 고기 부서저만. {이게 그게 부서지면.}

10404 #1 인재 이르케 그 가라기라능 걸 거기다 꼬바요. {이제 이렇게 그 가락이라는 걸 거기에 꽃아요.}

10404 #1 우애꺼넌 짤루꾸. {위에 거는 짧고.}

10404 #1 미텐 질거더너. {밑에는 길거든요.}

10404 #1 거 징 걸 고고 인재 이 요만항 거루 과라개다가 꼬바나요. {그 긴 것을 고고 이제 이 요만한 것으로 가락에다가 꽃아 놔요.}

10404 #1 고 가라개다 미태다가. {고 가락에다 밑에다가.}

10404 #1 꼬바 노코서넌 인재 그래 거기다 몰래 돌리고 인재. {꽃아 놓고서는 이제 그렇게 거기에다 몰래를 돌리고 이제.}

10404 #1 요 수투, 수판 거튼 대넌 인재 주럴 몰래에다 다라 매지요, 몰래에다. {요 수판, 주판 같은 데는 이제 줄을 몰래에다 달아 매지요, 몰래에다.}

10404 # 그 인재. {그 이제.} 10404 #1 다라 매만. {달아 매면.}

10404 #1 인재: 마라자면, 지그무루 마라면 쌀 찢는 방해간처럼. {이제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자면 쌀 찢는 방앗간처럼.}

10404 #1 그기 이케 피때가 도라가자나요. {그게 이렇게 피때가 돌아가잖아요.}

10404 @ 예:. {예.} 10404 #1 인재 그거 도라가드시. {이제 그거 돌아가듯이.}

10404 #1 이르케 돌리면 도라가거더뇨. {이렇게 돌리면 돌아가거든요.}

10404 #1 그라면 인재 요로케 그: 사미구, 인재: 명이구. {그러면 이제 요렇게 그 삼이고, 이제 명주고.}

10404 #1 명얼 그거 고추라카거더너. {명주를 그거 고치라고 하거든요.}

10404 #1 그거나 그거나 또까타요. {그거나 그거나 똑같아요.}

10404 #1 그개: 돌리 가미 자사요. {그게 돌려 가면서 자아요.}

10404 #1 그르케 해 가주구. {그렇게 해 가지고.}

10404 # 그래 씨:리되넌 거여. {그렇게 실이 되는 거야.}

10404 #1 그리케 해 가주 자사 농거럴 이거넌. {그렇게 해 가지고 자아 놓은 것을 이것은.}

10404 #1 명:언 그 인재 쌀마, 저:기 같, 저: 명 베짜넌 거넌 인재 쌀마 가주구 그냥 하지만. {명주는 그 이제 삶아, 저기 명주 베 짜는 거는 삶아 가지고 하지만.}

10404 #1 이거또 쌀마 가주구. {이것도 삶아 가지고.}

10404 #1 그거 삼베넌너. {그거 삼베는요.}

10404 #1 츠:매 어트개 하너냐 하면. {처음에 어떻게 하느냐 하면.}

10404 #1 그르케 빼끼 가주구 이르케 그 이씨요, 그 이르케 빼끼는 톱카리. {그렇게 벗겨 가지고 이렇게 그 있어요, 그 이렇게 벗기는 톱칼이.}

10404 #1 요거 징 개요. {이거 긴 개요.} 10404 @ 예예예. {예예예.}

10404 #1 고걸루 빼끼 가주구서. {그걸로 벗겨 가지고서.}

10404 #1 인재 요래 그런 대서 고 사마 가주구서. {이제 요런 그런 데서 삼아 가지고.}

10404 #1 인재 요망콧씩 채:나 머 어디 요런 똥고라난대 강우리나 이 암 부틀 때, 곧:대, 그개 암 부틀 때요. {이제 요만콧씩 채나 뭐 어디 요런 똥그란데 광주리나 이 안 불을 데, 고운 데, 그개 안 불을 데요.}

10404 #1 고론대다 해서 다마서 해 가주구 인재. {그런 데다 해서 담아서 해 가지고 이제.}

10404 #1 엉가니 항 거대먼 쏘다서 인재 이래 십자로 무꺼 가주 여 나코서. {언간히 한 게 되면 쏘아서 이제 이렇게 십자로 묶어 가지고 여기 놓고서.}

10404 #1 또 다시 또 하지요 머 인재. {또 다시 하지요 뭐 이제.}

10404 #1 그래서 그르캐 가주 하는데. {그래서 그렇게 해 가지고 하는데.}

10404 #1 그거 이르캐 토펙 때 그 만드러 가주 그르캐 사마 가주구 이르캐 그기 맨드라 노코. {그것을 이렇게 톱플 때 그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삼아 가지고 이렇게 거기 만들어 놓고.}

10404 #1 이기 츠:매년노. {이게 처음에는요.}

10404 #1 그리캐 해서 해, 맨드러 노쿠. {그렇게 해서 해, 만들어 놓고.}

10404 #1 또 저기 이썬요:. {또 저게 있어요.}

10404 #1 인재 그걸 몰래애다 자승 거 이짜나요. {이제 그걸 몰래애다 잔 거 있잖아요.}

10404 #1 그거 인재 그 순, 어: 조: 그 대궁애다가 고거 가라기라고 요만큼 만드러 놓 거. {그것 이제 그 순, 에 조 그 대궁애다가 고거 가라기라고 요만큼 만들어 놓 은 거.}

10404 #1 그러면 그거털 어디다 하느냐 하면 자세가 이썬요. {그러면 그것을 어디애다 하느냐 하면 얼레가 있어요.}

10404 #1 자세. {얼레.}

10404 #1 자세라고요. {얼레라고요.}

10404 #1 둥::그러냥 개 이만큼 커요. {둥그런한 게 이만큼 커요.}

10404 #1 막 한 통::그러냥 거시. {막 한 둥그란한 것이.}

10404 #1 저::기 주릴 가따가 다러 매노코. {저기 줄을 갖다가 달아 매어 놓고.}

10404 #1 하하하. {하하하.} 예 그래 인재. {예, 그렇게 이제.}

#### 파일번호: 05

#### SCB\_YD\_05

조사내용: 구술발화-목화, 삼 재배와 길쌈, 누에치기

조사지역: 충북 영동군 용산면 구촌리

제보자: 김순임(77세, 여, 돼지띠), 김동술(80세, 남, 원숭이띠)

조사자: 박경래(세명대학교 교수)

조사일: 2011년 7월 3일

조사장소: 제보자의 집

조사시간: 33분 15초

10404 #1 이 그 사멸 인재: 이르캐 그걸루 요래 한대. {이 그 삼을 이렇게 그걸로 이렇게 한 데.}

10404 #1 짬맨대를 토부루 이르캐 만드러 가주구. {묶은 데를 톱으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10404 #1 요고 짜겐 대다가 그걸 이르캐 인재 거리 노쿠서넌. {이거 쪼겐 데다가 그걸 이렇게 걸어 놓고서는.}

10404 #1 그걸 인재 이르캐 여기다 사마서. {그걸 이렇게 여기다 삼아서.}

10404 #1 만들면 씹짜루 무껴서 내 노쿠. {만들면 십자로 묶어서 내놓고.}

10404 #1 또 고 채:로 하나 담 또 그라고. {또 그 채로 하나 다 하면 또 그렇게 하고.}

10404 #1 그래 맨드라 다 해 가주구. {그래 만들어 다 해 가지고.}

10404 #1 그거릴 인재 꾸리릴 가 이르케 또 가마서 짜놓 거뚜 따루 이꾸. {그거를 꾸리를 이렇게 또 감아서 짜 놓은 것이 또 따로 있고.}

10404 #1 그거 인재 또 사멸 인재 또 가락 가라그로 맨등 거릴 열 깨릴 해 놔요. {그거 또 삼을 또 가락으로 만든 거를 열 개를 해 놔요.}

10404 #1 이거 쏘이, 만드라짜나요. {이거 \*\* 만들었잖아요.}

10404 @ 예. {예.}

10404 #1 만드라서 십짜로 해 놓거릴 열 깨릴 해 노코서. {만들어서 십자로 해 놓은 것을 열 개를 해 놓고서.}

10404 #1 쿵::거 이래 막 마라자면 이기 물레나 또까툇 거여. {큰 거 이렇게 막 말하자면 이게 물레나 똑같은 거야.}

10404 #1 물레년 그 이르케 이르케 해 가주 인재 그거 삼 가락뚜 인재 거그다 이르케 해 노치만. {물레는 그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이제 그거 삼 가락도 거기에다 이렇게 해 놓지만.}

10404 #1 이기 인재 그거또 이래: 새:가 이썬요. {이게 이제 그것도 이렇게 새가 있어요.}

10404 #1 참새, 개:새. {참새, 개새.}

10404 #1 에 이 그 베마냥. {에 이 그 베마냥.}

10404 #1 그르케 만드라서 인재 그걸 이르케 둥구러케 할 때애. {그렇게 만들어서 이제 그걸 이렇게 둥그렇게 할 때애.}

10404 #1 그거뚜 인재 꼬불 이르케 둥구러케 할 때. {그것도 이제 꽃을 둥그렇게 할 때.}

10404 #1 이쪼그루 하나 하구 또 하고 이쪼그루 또 하나 하구 이래요 그걸. {이쪽으로 하나 하고 또 하고 이쪽으로 또 하나 하고 이래요 그것을.}

10404 #1 그라면 이거 가라기 그거 열 개가 다 풀리두룩 거기다가 다: 가마요. {그러면 이것 가락이 그거 열 개가 다 풀리도록 거기에다가 다 감아요.}

10404 #1 인재 그거또 인재 마라자면 베마냥 열따서 췌:. {이제 그것도 이제 말하자면 베마냥 열다섯 자.}

10404 #1 스무 자, 서른 자, 머: 이르케 하두룩 그걸 인재 만드러 가주구 해요, 그거릴, 그기다 이르케. {스무 자, 서른 자, 뭐 이렇게 하도록 그걸 만들어 가지고 해요, 그것을, 거기에다 이렇게.}

10404 #1 그 쿵:: 거 이마냥 거 자세라능 거시 이썬요. {그 큰 거 이만한 거 자세라는 것이 있어요.}

10404 #1 거 자세애다가 그르케 해놔요, 이르케. {그 자세애다가 그렇게 해놔요, 이렇게.}

10404 #1 그만 이망:쿵 무껴저면 인재 그걸 끌러요. {그만 이만큼 묶어지면 이제 그걸 풀어요.}

10404 #1 끌릴 때 요 개:새 참새가 이꺼더너. {풀 때 요 개새 참새가 있거든요.}

10404 #1 두 가 이르케 두 가지루 이르케 여기가 십짜루 이래이래 한대가. {두 가(지) 이렇게 두 가지로 이렇게 여기가 십자로 이렇게 이렇게 한 데가.}

10404 #1 그람 고거릴 무껴야 대요. {그러면 고것을 묶어야 돼요.}

10404 #1 그거 다: 쏘다지면 모타자나요. {그거 다 쏘아지면 못하잖아요.}



10404 #1 요거뚜 무꺼 노코 요거뚜 무꺼 노코 무꺼야 대요, 고로케. {요것도 묶어 놓고 요  
것도 묶어 놓고 묶어야 돼요, 그렇게.}

10404 @ 아. {아.}

10404 #1 애. {예.}

10404 @ 개새 참새라능 개? {개새 참새라는 게?}

10404 #1 예. {예.}

10404 @ 나중애 이개 그 가마쓸 때: 이거 암 풀리지개 할라구 해놓 거내요? {나중애 이게  
그 가감았을 때 이게 안 풀어지게 하려고 해 놓은 거내요?} 10404 #1 예. {예.}

10404 #1 그래 가주구 그거털 인재 그래: 인재 고로케 만드라요. {그래 가지고 그거를 이  
제 그래 이제 그렇게 만들어요.}

10404 #1 그래 만드라서 인재 그르케 맨드러 놓 거 이르게 해 노만 그걸 가따가 찢 인재  
저개 이르게 해가주구 저: 그거털 인재 이르게 또 그걸로 인재 베릴 나라요. {그  
렇게 만들어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을 이렇게 해 놓으면 그걸 갖다가, 찢,  
이제 저기 이렇게 해 가지고 저 그것을 이제 이렇게 또 그것으로 베를 날아요.}

10404 #1 배우처럼 나라요. {베처럼 날아요.}

10404 #1 인재 이개 다시 그거털 이르게 가마 가주구. {이제 이게 다시 그것을 이렇게 감  
아 가지고.}

10404 #1 인재 이르게. {이렇게.}

10404 #1 그거털 인재 이르게 가마 가주구서넌 해 노코. {그것을 이제 이렇게 감아 가지  
고서는 해 놓고.}

10404 #1 저:기다 해 노코 그거뚜 베마냥 똑까지 만드라요, 이래. {저기다 해 놓고 그것도  
베마냥 똑같이 만들어요, 이렇게.}

10404 #1 이르게 해 노코 고걸 이러케 이키 그걸 나라 가주 이르게 나라 가주구서 그 해  
가주구. {이렇게 해 놓고 고걸 이렇게 이렇게 날아 가지고 이렇게 날아 가지고서  
그 해 가지고.}

10404 #1 가, 그걸 가마 가주구서루. {감, 그걸 감아 가지고서.}

10404 #1 이르게 해 놓걸 이래 거 이: 저: 그 자새라넌 대다 해 놓 거털 해 가주구. {이런  
게 해 놓은 것을 이렇게 그 그 자새라는 데다 해 놓은 거를 해 가지고.}

10404 #1 그래서 그걸 이르게 저::기짜개다 해서 이르게 꼬바 가주구 다: 이르게 가마 가  
주구서루 새루 이르게 날지요. {그래서 그걸 이렇게 저기 쪽에다 해서 이렇게 꽃  
아 가지고 다 이렇게 감아 가지고서 새로 이렇게 날지요.}

10404 #1 고골 또 고대루 요기 베마냥 이르게. {고걸 또 그대로 여기 베마냥 이렇게.}

10404 #1 그래 해 주구서니 그 똑까지 베마냥 짜요. {그래 해 가지고서는 그 똑같이 베마  
냥 짜요.}

10404 #1 그거뚜 인재 이개 매 가주구. {그것도 이제 이렇게 매어 가지고.}

10404 @ 예:. {예.}

10404 #1 풀 발라 가주구. {풀 발라 가지고.}

10404 #1 그르케 만드라 가주 하드라구유. {그렇게 만들어 가지고 하더라고요.}

10404 @ 이거 아까. {이거 아까.} 10404 #1 근대 나넌 그 삼베는 해바쳐요. {그런데 나  
는 그 삼베는 해 봤어요.}

10404 #1 무명베하구. {무명베하고.}

10404 #1 그거넌 우리 어먼니미 해 가주구. {그것은 우리 어머님이 해 가지고.}

10404 #1 그거넌 인재 와 가주구 한 이삼 년 헨능가 몰라요. {그것은 이제 와 가지고 한 이삼 년 했는가 몰라요.}

10404 #1 그르케 하구서넌 고만 안 하드라고요. {그렇게 하고서는 그만 안 하더라고요.}

10404 #1 그이 츠비여 다: 나더라고요. {그 \*\*\* 다 나더라고요.}

10404 #1 너나 나나 할 꺼 읍씨.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10404 # \*\* 저녀 암 마꼬. {\*\* 전혀 안 맞고.}

10404 #1 예, 아나드라고요. {예, 안 하더라고요.}

10404 # 대번 막. {대번 막.} 10404 @ 그래두 그: 총기 조:으시내요. {그래도 그 총기 좋으시내요.}

10404 @ 절:머쓸 때 해보싱 걸 지금 이르케 자세:하개 말씀하시내요. {젊었을 때 해보싱 걸 지금 이렇게 자세하게 말씀하시내요.} 10404 #1 저넌 열려덜 싸래 여기 와써 두 베럴 째는대요. {저는 열여덟 살에 여기 왔어도 베를 째는대요.}

10404 @ 그쎬요. {글쎬요.}

10404 #1 예. {예.} 10404 @ 그쎬요, 지금:. {글쎬요, 지금.} 10404 #1 예. {예.}

10404 #1 예. {예.}

10404 @ 그, 그르구 보면 그거 오십 년 저내 하싱 건대:. {그 그러고 보면 그거 오십 년 전에 하신 건데.}

10404 #1 예. {예.}

10404 @ 그걸 지금 다: 기어카고 계신대. {그걸 지금 다 기억하고 계신데.}

10404 #1 열려덜 쌀 머거서두 여기 와 가주구서 째는대요. {열여덟 살 먹어서도 여기 와 가지고 째는대요.}

10404 #1 지가 이캐. {제가 이렇게.}

10404 #1 우리 어먼니머 차라래. {우리 어머님은 차라리.}

10404 #1 그거이 베 또 디에서 이크 이캐 패 가주구. {그거 베 또 뒤에서 이렇게 이렇게 퍼 가지고.}

10404 #1 도토마리 이르케 감녕 거 그거뚜 제:가 해떠요. {도투마리 이렇게 감는 거 그것도 제가 했어요.}

10404 #1 해 가주구 인재 그거뚜 이캐 잉:애라구 이르케 다라노면. {해 가지고 이제 그것도 이렇게 잉앗대라고 이렇게 달아 놓으면.}

10404 #1 그걸 가따 이래 해 노면. {그걸 갖다 이렇게 해 놓으면.}

10404 #1 잉애때가 이쎬요. {잉앗대가 있어요.}

10404 #1 이래 잉애때. {이렇게 잉앗대.}

10404 #1 다러 이르케 다러 매녕 거. {이렇게 달아 매는 거.}

10404 #1 그라면 인재 고 개:새 참새럴 두 군데다 꼬바요, 요래. {그러면 그 개새 참새를 두 군데다 꽃아요, 요렇게.}

10404 #1 이 꼬바 노쿠서 인재 그거럴 꼬챙이가 그 잉애때라구 이쎬요. {이 꽃아 놓고서 이제 그것을 꼬챙이가 그 잉앗대라고 있어요.}

10404 #1 잉:애 이캐 잉:애, 이르케 거넌 잉:애요. {잉앗대 이렇게 잉앗대 이렇게 거는 잉앗대요.}

10404 @ 예. {예.} 10404 #1 고기. {거기.}

10404 #1 어트개 생긴느냐 하면. {어떻게 생겼느냐 하면.}

10404 #1 꼬쟁이가 이르캐 간따난 전지마냥 요고만:항 기 요만:창 징 기 이썬요. {꼬챙이가 이렇게 간단한 전지마냥 요고만한 게 요만큼 긴 게 있어요.}

10404 #1 요만:창 징 강대. {요만큼 긴 건데.}

10404 #1 가쟁이가 버러 가주구. {가지가 벌어 가지고.}

10404 #1 또 요로캐 요만창언 요고요고 내 집빠머 요고요고 하난: 땔꺼여. {또 요렇게 요만큼은 요거 요고 내 뽕으로 요거 요거 하나는 될 거야.}

10404 #1 요만:창 널롱 기 이썬요. {요만큼 넓은 게 있어요.}

10404 #1 그라먼 인재 고 꾸리하나 이르캐. {그러면 이제 그 꾸리 하나 이렇게.}

10404 #1 인재 여 이 저: 시:리 이썬요. {이제 여 이 저 실이 있어요.}

10404 #1 실:. {실.}

10404 #1 굴군 실: 인재. {굵은 실 이제.}

10404 #1 그 명우루 자사 가주구 시:를 만들자나요. {그 명으로 자아 가지고 실을 만들잖아요.}

10404 #1 그라구 연:나랜 온 꾸매:넌. {그리고 옛날엔 옷 꿰매는.}

10404 #1 오슬 꾸매거드너. {옷을 꿰매거든요.}

10404 #1 그걸루 해서. {그것으로 해서.}

10404 #1 그거 인재 그 실:로 가따가. {그거 이제 그 실을 갖다가.}

10404 #1 인재 요로캐. {이제 요렇게.}

10404 #1 이개 하나넌 또 미태로 제키고. {이개 하나는 또 밑으로 젖히고.}

10404 #1 또 하나 여기 잉애 이르캐 결:구. {또 하나 여기 잉앗대 이렇게 결고.}

10404 #1 또 이루 가서 또 하나, 하나 올루 제끼 노쿠. {또 이리 가서 또 하나, 하나 이리로 젖혀 놓고.}

10404 #1 또 하나 이래 거러 가주. {또 하나 이렇게 걸어 가지고.}

10404 #1 요로캐 해서 또 이르 넌, 내리가먼. {이렇게 해서 또 이리 내, 내려가먼.}

10404 #1 하나 요로캐 재껴 노코. {하나 이렇게 젖혀 놓고.}

10404 #1 또 요콜로 거러 요로캐고. {또 이걸로 걸어 이렇게고.}

10404 #1 똑 하낙씩 재끼 나야 대요. {꼭 하나씩 젖혀 놓아야 돼요.}

10404 #1 이저럴 마냐개 요 두: 개를 우:로 가던지. {이것을 만약에 요 두 개가 위로 가든지.}

10404 #1 저 두 개가 미테루 가던지 이라면 이기 모:지래자나요. {저 두 개가 밑으로 가든지 이러면 이게 모자라잖아요.}

10404 #1 고 바디지비라카는디 끼는 대가요. {그 바디집이라고 하는데 끼우는 데가요.}

10404 @ 나중애 이르캐 할라 그래능 거지요, 이르캐? {나중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 거지요, 이렇게?} 10404 #1 예, 이릭. {예, 이렇게.}

10404 #1 예, 이리캐 만드러 가주구. {예,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10404 @ 예 하낙씩? {예 하나씩?}

10404 @ 예. {예}

10404 #1 이르캐 가주구서 고기 잉애때라는 대가 그뚜 잘 꼬바야지. {이렇게 가지고서 고기 잉앗대라는 데가 그것도 잘 꽃아야지.}

10404 #1 그거뚜 하나래두 빠지머뇨 꼭. {그것도 하나라도 빠지면요.}

10404 #1 이: 하나래두 그 잉애::때가 하나래두 빠지면. {이 하나라도 그 잉앗대가 하나라도 빠지면.}

10404 #1 거기가: 다시 인재 요: 잉애때를 만드라 가주구. {거기가 다시 요 잉앗대를 만들어 가지고.}

10404 #1 거기다 꼬바야 돼요. {거기에다 꽃아야 돼요.}

10404 #1 그래서 고고 정신불명하고 하나. {그래서 그거 정신차리고 하나.} 10404 # \*\*\*\* 드르가면. {\*\*\*\* 들어 가면.}

10404 #1 하나 띄우구 또 요래 하고. {하나 띄우고 또 요렇게 하고.}

10404 #1 하나두 고고뚜 해야 돼요. {하나라도 그것도 해야 돼요.}

10404 #1 고골로 고로캐 재끼 가매. {고걸로 고렇게 젓혀 가며.}

10404 #1 하나 재끼구 또 하나 걸:구 하나 재끼구 또 하나 걸:구 이래 가주군. {하나 젓히고 또 하나 걸로 하나 젓히고 또 하나 걸고 이렇게 해 가지고는.}

10404 #1 그 잉애때라카녕 거를 인재 요 베트래다 이르게 썬썬요. {그 잉앗대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요 베틀에다 이렇게 썬썬요.}

10404 #1 조:조그루 인재 그 발로. {저쪽으로 그 발로.}

10404 #1 발로 자부맹기구 함 번 이짜그루 느쿠 또 짜구. {발로 잡아 당기고 한 번 이쪽으로 넣고 또 짜고.}

10404 #1 이짜그루 노코 탐 발 탕 노쿠 또 짜고 이라거드녀. {이쪽으로 놓고 발 탁 놓고 또 짜고 이러거든요.}

10404 #1 그기. {그게.} 10404 # 조사, 조사저야 대니까. {쫐아 쫐아저야 되니까.}

10404 @ 네. {네.}

10404 #1 예, 그라기 때미 잉애애다가 인재 이기 저: 디애는 또: 개:새가 올라가고. {예, 그러기 때문에 잉앗대다가 이제 이게 저 뒤에는 또 개새가 올라가고.}

10404 #1 아패 짜너능 거 인재 또 하나 이썬요. {앞에 짜 놓는 거 또 하나 있어요.}

10404 #1 그래 거 거기 디루 이래 이래 올리구서. {그래 거 거기 뒤로 이렇게 이렇게 올리고서.}

10404 #1 아패 인재 그 바디지비라구 이짜나요. {앞에 그 바디집이라고 있잖아요.}

10404 #1 개서 인재 탕 노만. {그래서 이제 탁 놓으면.}

10404 #1 인재 이기 하난 미트루 가 노쿠 우애 이꺼드녀. {이제 이 하나는 밑으로 가 놓고 위에 있거든요.}

10404 #1 그람 고기다가 부걸 느:만. {그러면 거기에다가 북을 넣으면.}

10404 #1 바디지부루 딱 짜고. {바디집으로 탁 짜고.}

10404 #1 이쫐그루 갈 때넌 바렐 오그리면. {이쪽으로 갈 때는 발을 오그리면.}

10404 #1 또 이기 새:가 이르게 대고. {또 이게 새가 이렇게 되고.}

10404 #1 클루 노쿠 그래 가주구. {그리로 놓고 그래 가지고.}

10404 #1 그래 가주 짜서요. {그래 가지고 쥘어요.}

10404 #1 그거럴 그저내 지가 그래 해바꺼드녀. {그거를 그전에 제가 그래 해 봤거든요.}

10404 #1 지금두: 이르게 생가캐 보면 그 베트::래 대해서 베릴 짜라면 쥘 꺼 가태요. {지금도 이렇게 생각해 보면 그 베틀에 대해서 베를 짜라면 쥘 것 같아요.}

10404 #1 제 마:매, 짜 바서루. {제 마음에, 짜 봐서.}

10404 @ 그럼뇨, 쥘 쭈 이썬요. {그럼요, 쥘 수 있지요.} 10404 #1 예:. {예.}

10404 #1 근대 매:능 거뚜 머 어: 그거뚜 이르캐 제가 해봐꺼드녀. {그런데 매는 것도 뭐  
에 그것도 이렇게 제가 해봤거든요.}

10404 #1 그래 가주구. {그래 가지고.}

10404 #1 그래서 인재 그걸 이래 풀 발라 가주 해 가주.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렇게 풀  
발라 가지고 해 가지고.}

10404 #1 이그만 미테 이래 이래 해 가주 말루카 가주구. {이것만 밑에 이렇게 이렇게 해  
가지고 말려 가지고.}

10404 #1 씨다드머 가주 강꼬 강꼬 그라자나요. {쓰다듬어 가지고 감고 감고 그러잖아요.}

10404 @ 아까 그 개새하고 참새라 그래짜나요? {아까 그 개새하고 참새라고 그랬잖아요?}

10404 #1 예. {예.}

10404 @ 그개 그 베트래 인능 거지요? {그개 그 베틀에 있는 거지요?}

10404 #1 예. {예.}

10404 @ 배트래? {베틀에?}

10404 #1 예. {예.}

10404 @ 폼 폼 찌기 작때기? {꽃, 꽃(는) 저기 막대기?} 10404 #1 하난 디:루 가구. {하  
나는 뒤로 가고.}

10404 @ 예. {예.}

10404 #1 잉애때 인는 대 하나 이찌요. {잉앗대 있는 데 하나 있지요.}

10404 @ 예. {예.}

10404 #1 예, 잉애 여기 바디지비 올라가 가주 요긴 참새. {예, 잉앗대 여기, 바디집이 올  
라가 가지고 여기는 참새.}

10404 #1 디:애 가능 거 이르캐 이개 미리 가주구 갈 때는 사침때라구 이썬요. {뒤에 가는  
거 이렇게 이렇게 밀어 가지고 갈 때는 사침대라고 있어요.}

10404 #1 사침때라구 인녕 거시 예: 요로캐. {사침대라고 있는 것이 예 이렇게.} 10404 #  
그 상가경으로 맹근 거시. {그 삼각형으로 만든 것이.} 10404 #1 찌 예 삼가경이  
루 이썬요. {저 예 삼각형으로 있어요.}

10404 @ 음. {음.}

10404 #1 삼가경이루 인녕 거. {삼각형으로 있는 거.}

10404 # 상가털 이래 떠바치고 인녕 거지. {\*\*를 이렇게 떠 받치고 있는 거지.}

10404 # 떠바치고 인녕 거릴 새릴 노깨 맹그러. {떠 받치고 있는 것을 새를 높게 만들어.}

10404 #1 그래 가주 이르캐 떠바치 가주구서넌 이기 인재 항 군대루 그건 내쳐 올라가지  
요. {그래 가지고 이렇게 떠받치고서는 이게 이제 한 군데로 그건 내쳐 올라가  
지요.}

10404 #1 거: 인재 뒤왜 인재 잉애: 잉애때 뒤왜 인능 거시 인재 그. {그 이제 뒤에 이제  
잉앗대 뒤에 있는 것이 그.}

10404 # 두, 두 개, 두 가다그로 갈라 가주구 쪽: 올라가는데 이누미 요 까지 가따면 \*를  
\*\*스니까. {두 두 개 두 가닥으로 갈라 가지고 죽 올라 가는데 이 놈이 요기까지  
갔다면 \*를 \*\*\*니까.}

10404 #1 어 고고시 그녕개 인재. {어 고것이 그러니까 이제.}

10404 @ 부기 와따가. {북이 왔다가.} 10404 # 베가 대능 기여. {베가 되는 거야.}

10404 # 부기 와따 가따 하면서. {북이 왔다 갔다 하면서.} 10404 #1 예, 그기. {예, 그게.}

10404 #1 예, 그거시 인재 그: 그 잉애때가 인재 올라가밍성. {예, 그것이 이제 그 잉앗대가 올라가면서.}

10404 #1 아패 또 인재 고 잉애때 저태 개새가 이썬요. {앞에 또 이제 고 잉앗대 곁에 개새가 있어요.}

10404 #1 개새가 이썬면 잉애때는 기냥 올라가민 인재 이캐 두. {개새가 있으면 잉앗대는 그냥 올라가면서 이렇게.}

10404 #1 어, 마라자면 인재 기릴 발키 주고. {예, 말하자면 길을 밝혀 주고.}

10404 #1 인재 개새가 인재 하나 인녕찌 쪽: 글루 올리면. {개새가 하나 있는 것이 죽 그리로 올리면.}

10404 #1 아패 인재 짜능 거 이구 짹 올리서. {앞에 짜는 거 있고 짹 올려서.}

10404 #1 거 도투마리 우리 짹 올리 노코서넌. {그 도투마리 위로 짹 올려 놓고서는.}

10404 #1 인재 요기 아패 참새가 이꺼더너, 짜넌대. {이제 요기 앞에 참새가 있거든요, 짜는 데.}

10404 @ 고기? {고게?}

10404 #1 잉애가 인재 고골루. {잉앗대가 고것으로.}

10404 #1 잉애가 바를 자부맹기만. {잉앗대가 발을 잡아 당기면.}

10404 #1 인재 저기 올라가고. {저기 올라가고.}

10404 #1 탕 노면 인재 그기 내리가고 그라거더너. {탁 놓으면 이제 그게 내려 가고 그러거든요}

10404 # 하나넌 내려가고. {하나는 내려 가고.}

10404 #1 그러면 인재 고기 자부맹길 때 요짜그루 봉 느쿠. {그러면 이제 고기 잡아당길 때 요쪽으로 북 넣고.}

10404 #1 탕 노코 하면 이짜그로 노코. {탁 놓고 하면 이쪽으로 넣고.}

10404 #1 예, 개서 아패 꺼는 자꾸. {예, 그래서 앞의 꺼는 자꾸.}

10404 # 그기 인재 부개서 시:리 드러가 가주구. {그게 이제 북에서 실이 들어가 가지고.}

10404 #1 그기 인재 씨리. {그게 이제 실이.}

10404 #1 거기: 이캐 꾸리 감녕 거 넌녕 거시 머냐하면 부기라구 그래요. {거기 이렇게 꾸리 감는 것 넣는 것이 뭐냐하면 북이라고 그래요.}

10404 @ 예. {예.}

10404 #1 고 부기 인재 드러가따 나가따. {그 북이 들어갔다 나갔다.}

10404 @ 요로캐 생겨서 요게 홈파징 거? {이렇게 생겨서 이게 홈 파진 거?}

10404 #1 예, 고기 꾸릴 고기다 느쿠. {예, 거기다 넣고.}

10404 #1 인재 꾸리릴 먼 포라맹기개 하넌 대나물 야:깨 까까 주구. {꾸리를 못 돌아다니게 하는 대나무를 얇게 깎아 주고.}

10404 #1 거 부개다가 요로:캐 살짝 꿈능 기 이썬요. {그 북에다가 이렇게 살짝 쾅는 게 있어요.}

10404 #1 그기 고와야 저기: 그: 시:리 양 끄너저요, 고개. {그게 고와야 저기 그 실이 안 끊어져요, 고게.}

10404 #1 고고시 야간 북뿐다 야:간 노파야 돼요, 고기. {그것이 약간 북보다 약간 높아야 돼요, 고게.}

10404 #1 고래 가주구 고기 반들반들: 해야지. {그래 가지고 그게 반들반들 해야지.}

10404 #1 그기 조금 거칠면 시털 꼬너 머거요. {그게 조금 거칠면 실을 끊어 먹어요.}

10404 #1 개서 마:치마께 고 꼬바 자주구서 그래. {그래서 마침맞게 고 꽃아 가지고서 그래.}

10404 #1 그걸루 짜지요. {그걸로 짜지요.}

10404 @ 그럼 아까 그 참새하고 개새가 하는 여카리 머애요? {그럼 아까 그 참새하고 개새가 하는 역할이 뭐예요?}

10404 #1 그기 인재: 올라갈 때 짜구. {그게 이제 올라갈 때 짜고.}

10404 #1 이쪼그루 늘 때 짜구 그라거드너. {이쪽으로 넣을 때 짜고 그러거든요.}

10404 #1 개:새라카녕 거는 인재 거 잉애때 디왜 인녕 거. {개새라고 하는 것은 그 잉앗대 뒤에 있는 거.}

10404 #1 인재 길 발키 주녕 거거더너. {이제 길 밝혀 주는 거거든요}

10404 #1 개새가. {개새가.}

10404 @ 예. {예.}

10404 # 두 갈, 두 가다그로 버러점 버러만 논농 기지. {두 가(닥), 두 가닥으로 벌지면 벌러만 놓는 거지.}

10404 #1 예. {예.}

10404 #1 예. {예.}

10404 @ 아:, 그러면 이개 저기 시 실:, 저기 아까 거기 부기 와따 가따할 때 시:리 이르케 나라 나라 노차나요? {아:, 그러면 이개 저기 실 실, 저기 아까 거기 북이 왔다 갔다 할 때 실이 이렇게 날아 날아 놓잖아요?}

10404 # 아패 가능 거. {앞에 가는 거.}

10404 #1 예. {예.}

10404 #1 예. {예.}

10404 @ 근대 하나는 올루 가고 하나는 올루 가, 요로케 요로케할 때 그개 쓰나요? {그런데 하는 요리로 가고 하나는 요리로 가, 요렇게 요렇게할 때 그개 쓰나요?}

10404 #1 예. {예.}

10404 #1 잉애따라카 잉애. {잉앗대라고 하(는) 잉아.}

10404 #1 잉애때가 고 저태 바루 인재 고래 이써요. {잉앗대가 고 곁에 바로 이제 그렇게 있어요.}

10404 # 잉애때가 인재 올라가따 니리가따하든지 발루 자부댕기면. {잉앗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든지 발로 잡아 당기면.}

10404 # 함 분 올라가구 함 분 내리가주구 그기 되능 기여. {한 번 올라가고 한 번 내려가지고 그기 되는 거야.}

10404 @ 예. {예.}

10404 @ 그래 잉애때두 이꾸. {그래 잉앗대도 있고.}

10404 @ 활때라능 거뚜 이써요? {활대라는 것도 있어요?}

10404 # 그 발루 자바 댕기능 거. {그 발로 잡아 당기는 거.}

10404 @ 이르:캐 둥:그러캐. {이렇게 둥그렇게.}

10404 #1 예, 그 밀때라녕 거넌 인재 아패 곁 다 짜면 도토마릴 미러요. {예, 그 밀대라는 것은 앞의 걸 다 짜면 도투마리를 밀어요.}

10404 #1 작때기로. {막대기로.}

10404 #1 그래 미르먼 인재 미리 노쿠서. {그래 밀면 이제 밀어 놓고서.}

10404 #1 이거 아패 다: 짱 걸, 또 이 또 여기 거기 이썬요. {이거 앞에 다 짬 것을, 또 이 또 여기 거기 있어요.}

10404 #1 저: 저:기 이: 머지, 그기 어:. {저 저기 이 뭐지, 그게 예.} 10404 # 달때는 달 때는 시, 시, 시:래다 이래 다라멜, 발, 바래다 다라멜리가주 끈두. {달대는 달대는 실 실 에다 이렇게 달아 멜, 발 발에다 달아 매 가지고 꿔도.}

10404 #1 이기 바다, 바디:. {이게 바다 바디.}

10404 #1 그거 짜능 건 바디지비구. {그거 짜는 건 바디집이고}

10404 #1 이거 마능 거시 머지? {이거 마는 것이 뭐지?}

10404 #1 마능 거? {마는 거?}

10404 @ 말코. {말코.}

10404 #1 말루코. {말코.}

10404 @ 말코. {말코.}

10404 #1 예, 말코. {예, 말코.}

10404 #1 허허, 더 잘 아시네. {허허, 더 잘 아시네.}

10404 #1 이기 말코라카드라고요. {이게 말코라고 하더라고요.}

10404 #1 그래서 고 말코 거기 다: 짜면 요기다가 강:꼬. {그래서 고 말코 그거 다 짜면 요기다가 감고.}

10404 #1 또 인재 그거: 인재 또 바 저기 잘 가라고. {또 이제 그거 이제 또 저기 잘 가라고.}

10404 #1 기르멀 살짝 빨라요, 바디지배. {기름을 살짝 빨라요, 바디집에.}

10404 #1 고거릴 저기 바디애다가 고: 바디집 말고. {고것을 저기 바디애다가 그 바디집 말고.}

10404 #1 바디:는, 바디는 실 켜 거고. {바디는 실 켜 것이고.}

10404 #1 바디지번 인재 거기: 거 바디지별 쌍 기 바디집. {바디집은 이제 거기 그 바디를 짬 게 바디집.}

10404 # 짜닝 거지, 짜닝 거. {짜는 거지, 짜는 거.}

10404 @ 그거 할 때 쩌 등애다가 이르케 끈 매 가주구 이르케 자버다니자나요? {그거 할 때 저 등애다가 이렇게 끈 매어 가지고 이렇게 잡아 당기잖아요?}

10404 @ 이개? {이게?} 10404 #1 붙-태. {부티.}

10404 #1 부태. {부티.} 10404 @ 아. {아.}

10404 @ 예. {예.}

10404 #1 예, 이건 부태여. {예, 이건 부티야.}

10404 @ 예. {예.}

10404 @ 그리구 미태 발루다가 이르케 해 가주구. {그리고 밑에 발로 이렇게 해 가지고.}

10404 @ 아까 말쓰마싱 것처럼 이르케 발루 자바다녀따 미리따 그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발로 잡아 당겼다 밀었다 그런?}

10404 #1 그거넌 인재 저기 그 신:넌 거기다 대따고 신태라 구라대요. {그거는 저기 그 신을 거기다 대었다고 신추리라고 그러대요.}

10404 #1 또 거넌. {또 그거는.} 10404 @ 신태? {신추리?} 10404 #1 예. {예.}

10404 #1 시늘 고기다 대 가주구서. {신을 고기에다 대어 가지고.}



10404 #1 그래구 인재 그 신태를 자부댕기구 노쿠. {그리고 이제 그 신태리를 잡아 당기고 놓고.}

10404 # 그 나무를 저 활거치 꾸부렁거 이써야 댜다... {그 나무를 저 활같이 꾸부러진 게 있어야 댜다....}

10404 #1 그거또 여러 가지요, 그기가 보만뇨. {그것도 여러 가지요, 거기가 보만요.}

10404 #1 그기 이기 인재 그기 처:매 머냐고 하먼. {이게 그제 이제 그제 처음에 댜냐고 하먼.}

10404 #1 이기 이캐: 저기 시, 삼가경으로 만둥 거시, 그거시. {이게 이렇게 저기 시, 삼가경으로 만든 것이, 그것이.}

10404 #1 저거여. {저거야.}

10404 #1 아이고 이, 이베 아까 강 뱅뱅 도라요. {아이고 이 입에 아까 뱅뱅 돌아요.}

10404 #1 몰란내요. {모랐내요.}

10404 #1 사침때요. {사침대요.}

10404 @ 사침때. {사침대.}

10404 #1 예, 거 사침때가 베릴 이르캐 두지버노먼. {예, 그 사침대가 베를 이렇게 뒤집어 놓으면.}

10404 #1 두지버서 이르캐 세워노먼. {뒤집어서 이렇게 세워 놓으면.}

10404 #1 사침때가 가서 이르캐 이캐 가서 바치요. {사침대가 가서 이렇게 이렇게 가서 받쳐요.}

10404 # 두 가다그로 갈라 주능 기여. {두 가닥으로 갈라 주는 거야.}

10404 # 이기 두 가다그로. {이게 두 가닥으로.} 10404 #1 예, 그기. {예, 그제.}

10404 # 두 가다그로. {두 가닥으로.} 10404 #1 두 가다그루 갈라주능 건 개새가 갈라 주고. {두 가닥으로 갈라주는 건 개새가 갈라 주고.}

10404 #1 개서 인재 그 사침때를 개새가 인재 이르캐 가주구 이르키 이쓰먼. {그래서 그 사침대를 개새가 이제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있으면.}

10404 #1 고 개새::루 해 가주구 사침때를 바짝 올리요. {그 개새로 해 가지고 사침대를 바짝 올리요.}

10404 #1 도토마리 저태로. {도투마리 곁으로.}

10404 #1 그래 올리면 인재 고기 개:새가 따라가지요. {그렇게 올리면 고기 개새가 따라가지요.}

10404 #1 고 아패다. {그 앞에다.}

10404 #1 그래 노코 인재 찌는 데는 참새가 찌고. {그래 놓고 이제 찌는 데는 참새가 찌고.}

10404 #1 그기 그래 마리 그르태요. {그제 그렇게 말이 그렇데요.}

10404 #1 그기, 해해해. {그제, 해해해.}

10404 @ 음:. {음:.}

10404 #1 찌넌 대서 인재 인녕 거 개:새 참새가 그래 그르태요. {찌는 데서 이제 있는 거 개새 참새가 그렇게 그렇데요.}

10404 #1 거기. {거기.}

10409 @ 모시:는 기리:를 달, 기리를 쥔 때는 멀루, 자루 하지요? {모시는 길이를 달, 길이를 쥔 때는 뭇로, 자로 하지요?}

10409 # 자로 재지. {자로 재지.}

10409 @ 자로 하고. {자로 하고.}

10409 #1 예. {예.}

10409 #1 다 짜면 자로 재:지요. {다 짜면 자로 재지요.}

10409 #1 근대 츠:매부텀 이기 베: 날 때요. {그런데 처음부터 이게 베 날 때요.}

10409 # 베 날째는 더 길다고. {베 날 때는 더 길다고.}

10409 #1 예. {예.}

10409 # 지그면 어: 삼십센치 자가 아니지. {지금은 예 삼십센티미터 자가 아니지.}

10409 @ 예. {예.}

10409 #1 베: 날 때년. {베 날 때는.}

10409 #1 베:, 베가 날 때두 이 저:기 거시기. {베, 베가 날 때도 이 저기 거시기.}

10409 #1 만들 때, 그기 인재 그: 그르케 도토마리 가물 때. {만들 때, 그게 이제 그 그렁  
게 도투마리 감을 때에.}

10409 #1 그기 향 가래 두 가래럴 만들지 그거뚜:. {그게 한 가래 두 가래를 만들지 그  
것도.}

10409 # 향 가래 두 가래 보면 이 베 날 때 정해저녕 거여. {한 가래 두 가래 보면 이 베  
날 때 정해지는 거야.}

10409 # 베 날 때. {베 날 때.}

10409 #1 그르키 날 때 거기서 정해 가주 가주구서루:. {그렇게 날 때 거기서 정해 가지고  
가지고서.}

10409 #1 그거 츠:매 날 때 그기 정해저 가주 하능 거여. {그게 처음에 날 때 정해저 가지  
고 하는 거야.}

10409 # 땅에서 딱 재 가주구 날 때 고기 이 \*\*\* 정해지능 거여. {땅에서 딱 재어 가지고  
날 때 고게 이 \*\*\* 정해지는 거야.}

10409 @ 아까 그 한 필? {아까 그 한 필?}

10409 # 거 함 필. {그 한 필.}

10409 @ 한 필 그러면 기리가 정해저 인나요, 아니면 그개? {한 필 그러면 길이가 정해저  
있나요, 아니면 그개?}

10409 # 정, 정해 인능 기여. {정해저 있는데.}

10409 #1 예. {예.}

10409 @ 얼마를 함 피리라 그래요? {얼마를 한 필이라고 그래요?}

10409 # 그렁케 날 때 정해저 인능 기여. {그러니까 날 때 정해저 있는 거야.}

10409 #1 그기 스무 자. {그게 스무 자.}

10409 #1 열따서 짜, 서룬 자. {열다섯 자, 서룬 자.}

10409 # 스무 자면 스무 자럴 땅에서 딱 재 가주구. {스무 자면 스무 자를 땅에서 딱 재어  
가지고.}

10409 #1 서룬 자까지 이썬요. {서룬 자까지 있어요.}

10409 # 그기, 그기. {그게 그게.}

10409 #1 서룬 자까지. {서룬 자까지.}

10409 # 그기 스무 자를 기준해 가주 나능 거여. {그게 스무 자를 기준으로 해 가지고 나  
는 거야.}

10409 # 그래 에 네: 필짜리가 이꼬. {그렇게 에 네 필짜리가 있고.}

10409 # 두 필짜리. {두 필짜리.}

10409 # 세 필짜린 읍찌 아마. {세 필짜리는 없지 아마.}

10409 #1 개:미가 이써요. {개미가 있어요.}

10409 #1 개:미. {개:미.}

10409 #1 개미 거 개미라고 하녕 거너뇨. {개미 그 개미라고 하는 거는요.}

10409 #1 꺼기다 꺼먹 치를 해놔요. {거기에다 검은 칠을 해 놓아요.}

10409 #1 함 필. {한 필.}

10409 #1 요기만 함 피리다. {여기면 한 필이다.}

10409 # 표시하느라고. {표시하느라고.}

10409 #1 표시. {표시.}

10409 @ 음. {음.}

10409 #1 요꺼지 짜면 함 피리다. {여기까지 짜면 한 필이다.}

10409 #1 그기 개미라구 하대요, 또 그거넌. {그게 개미라고 하대요, 또 그것은.} 10409  
 # 이 \*부러저넌 대다 고 치릴 해논넌다 이거여. {이 \*부러지는 데다 고기 칠을  
 해 놓는다 이거야.}

10409 @ 아:. {아:}.

10409 #1 그래 가주 인재 고기. {그래 가지고 고기.} 10409 # 그래서 함 피리 대녕 거지.  
 {그래서 한 필이 되는 거지.}

10409 #1 이진 나을 때 여기 인재 저 나라 가주구서. {이진 나을 때 여기 이제 저 날아  
 가지고서.}

10409 #1 나을 때 인재 다: 나오면. {나을 때 이제 다 나오면.}

10409 #1 고기 나른 대가 인재 요기 요가 함 피리자너 요 포털 해놔요, 요러캐. {고기 난  
 데가 이제 요기 요기가 한 필이잖아 요기 표를 해놔요, 요렇게.}

10409 #1 썩카망 걸로. {새까만 걸로.}

10409 #1 그래 고로캐 해 노트라고요. {그래 그렇게 해 놓더라고요.}

10409 @ 그러면 베 짜기저내 그르잉까 함 피리라구 하능 개 열따서 짜다 이르게 딱 정해  
 징 개 아니고. {그러면 베 짜기 전에 그러니까 한 필이라고 하는 게 열다섯 자다  
 이렇게 딱 정해진 게 아니고.}

10409 @ 이버내는 열따서 짜로 함 필 짜개따. {이번에는 열다섯 자로 한 필 짜겠다.}

10409 @ 이버내는 스무 자를 짜개따, 이르게 정하능 거지요? {이번에는 스무 자를 짜겠  
 다, 이렇게 정하는 거지요?} 10409 #1 정하지요, 정해야지요, 예. {예.}

10409 #1 이쪼개: 말머걸. {이쪽에 말목을.}

10409 # 할, 한 말코애넌 정해져 가주 인능 기여. {한, 한 말코애는 정해져 있는 거야.}

10409 @ 예:. {예.}

10409 @ 아, 한 말코. {아, 한 말코.}

10409 # 어, 한 말코애는 건 열따서 짜 함 필. {어, 한 말코애는 그것은 열다섯 자 한 필.}

10409 @ 예. {예.}

10409 # 수무 자 함 피리면 수무 자 함 필. {스무 자 한 필이면 스무 자 한 필.}

10409 @ 예. {예.}

10409 # 이르게. {이렇게.}

10409 @ 음:. {음.}

10409 @ 그래잉까 처:매 짜기 저내 수무 자짜리로 찢 건지 열따서 짜 짜리 찢 건지 이걸  
정하고 짜능 거내요? {그러니까 처음에 짜기 전에 스무자 짜리로 찢 건지 열다섯  
자짜리 찢 건지 이걸 장하고 짜는 거내요 ?}

10409 # 아이 정해져 이따구. {아이 정해져 있다고.}

10409 #1 정해즈 인능 기 인재 저 나라요, 날 때요, 베릴 날 때:. {정해져 있는 게 이제  
저 날아요, 날 때요, 베를 날 때.} 10409 # 날 때 정해져 인능 기여, 정해져 인능  
기여. {날 때 정해져 있는 거야, 정해져 있는 거야.} 10409 @ 그르니까요, 날  
때. {그러니까요, 날 때.}

10409 #1 예, 요기 개:새 참새릴 해 노코요. {예, 여기 개새 참새를 해 놓고요.}

10409 #1 요기넌 하나요. {여기는 하나요.}

10409 #1 말머글 하나 딱 빠가요. {말목을 하나 딱 박아요.}

10409 #1 저: 가서 하나만 바가 노코. {저기 가서 하나만 박아 놓고.}

10409 #1 여기서넌 개새 참새릴 맨드러 가주구. {여기서는 개새 참새를 만들어 가지고.}

10409 #1 하나 딱 빠가 논 대가 열따서 짜다. {하나 딱 박아 놓은 데가 열다섯 자다.}

10409 #1 스무 자다. {스무 자다.}

10409 # 딱 정해져 인능 기여. {딱 정해져 있는 거야.}

10409 #1 이케 정해져 가주 이써요. {이렇게 정해져 가지고 있어요.}

10409 #1 고 하나, 말모카나 바가 논대. {고 하나, 말목 하나 박아 놓은 데.} 10409 @ 예  
예. {예예.}

10409 #1 그람 고기다가 인재 치를 해요. {그러면 고기에다가 칠을 해요.}

10409 #1 새카망 걸 가따 치를 해드라고요. {새까만 걸 갖다 칠을 하더라고요.}

10409 #1 그래 가주구선 고꺼지: 인재 하먼. {그래 가지고 거기까지 이제 하먼.}

10409 #1 고꺼지 인재 이기 여기서 불라 가주. {거기까지 이제 이제 여기서 \*\* 가지고.}

10409 #1 매 가주구 요래 다: 그기 여:꺼지 따라오자나요. {매어 가지고 어떻게 다 그게  
여기까지 따라 오잖아요.}

10409 #1 따라오면 도투마리에다. {따라오면 도투마리에다.}

10409 #1 고기 가마 논 도투마리에다가 고기가 함 필 찢 대라능 걸루 포를 하드라고요.  
{거기 감아 놓은 도투마리에다가 거기가 한 필 찢 데라는 걸로 포를 하더라고요.}

10409 #1 고로케 하더라고요, 그걸.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것을.}

10409 @ 예::. {예.}

10409 #1 예, 저여.. {예, 저..} 10409 # 그르케 하드록 대 인능 기요, 그기. {그렇게 하도  
록 되어 있는 거요, 그게.}

10409 #1 그러면 인재 요기가 열따서 짜 짜따. {그러면 이제 요기가 열다섯 자 찢다.}

10409 #1 그러면 여 인저 아, 요가 썬카망 거 나옴 거 봉께. {그러면 여 이제 아, 요기가  
새까만 거 나온 거 보니까.}

10409 #1 여기가 스무 자 짜다 이거시 그리 가주 나오드라고. {여기가 스무 자 찢다 이것  
이 그래 가지고 나오더라고.}

10409 @ 대:개 인재 그렁 거가주구 음:-슬 해 입짜나요? {대개 이제 그런 거 가지고 옷을  
해 입잖아요?}

10409 #1 예. {예.}

10409 @ 그걸루? {그걸로?}

10409 #1 예. {예.}

10409 @ 그 오태이불라며는 그 함 필가지며는 어느 정도 해 이버요? {그 옷 해 입으려면  
그 한 필 가지면 어느 정도 해 입어요?}

10409 @ 어른 오슬 ? {어른 옷을?}

10409 #1 어: 함 필가 주구년 그르캐는 안해 보고요. {에 한 필 가지고는 그렇게는 안 해  
보고요.}

10409 #1 그냥 함 필로년 연 대:개 보면. {그냥 한 필로는 여긴 대개 보면.}

10409 #1 인재 자꾸로년 어 여자덜, 여자더런 인재 요기 저기 저: 한 자 모타개 해야 대  
요. {이제 자수로는 에 여자들 여자들은 이제 여기 저기 저 한 자 못 되게 해야  
돼요.}

10409 #1 지리기가. {길이가.}

10409 #1 여자런른. {여자들은.}

10409 #1 근대 남자더런 이 한 자 지리기루 기리기 오설 만들더라고요. {그런데 남자들은  
이 한자 길이로 길이 옷을 만들더라고요.}

10409 #1 그라닝개 인재 고기 오설 만들구. {그러니까 이제 거기 옷을 만들고.}

10409 #1 여기 소매년, 소매두 인재 요기 한 자로 해 가주구 점년대 요기하구. {여기 소매  
는, 소매도 이제 여기 한 자로 해 가지고 접는데 여기 하고.}

10409 #1 키 큰 사라먼 요기다가 꼬똥얼 달더라고요. {키 큰 사람은 여기다 끝동을 달더  
라고요.}

10409 #1 이르키 다라 가주구. {이렇게 달아 가지고.}

10409 #1 예, 그래 가주구. {예, 그래 가지고.}

10409 #1 인재 여지, 남자덜 오선 기리기가 한 자 해야 대요. {이제 여자, 남자들 옷은 길  
이가 한 자 해야 돼요.}

10409 @ 예:. {예.}

10409 #1 여자더런 인재 이기: 그르니께. {여자들은 이제 이게 그러니까.}

10409 #1 한 자를 모:태야 대요. {한 자를 못 해야 돼요.}

10409 #1 이 한 자 지기 너머 지르니께. {이 한 자 길이가 너무 기니까.}

10409 #1 그래 한: 옴:나래년 저 여자덜 저고리가 엄:청 짤루께 이버써요:. {그래 한 옛날  
에는 저 여자들 저고리가 엄청 짧게 입었어요.}

10409 #1 짤루께 이기 때매 여기 겨드랑이 나오니까. {짧게 입기 때문에 여기 겨드랑이가  
나오니까.}

10409 #1 그기 이기 허리띠를 해찌요. {그게 그래서 허리띠를 했지요.}

10409 #1 인재 지그먼. {이제 지금은.}

10409 #1 또 이만큼 이 아주 또 좀 짤루께두 지그먼 또 이르캐 질:개 나오대요, 고개. {또  
이만큼 아주 또 좀 짧게도 지금은 또 이렇게 길게 나오데요, 고개.}

10409 @ 예:. {예.}

10409 #1 근대 고기 여자더런 고기서 반 자 찌리기로 여자덜 오설 해 이버써요, 여서. {그  
런데 거기 여자들은 거기서 반 자 길이로 여자들 옷을 해 입었어요, 여기서.}

10409 @ 그때 그러면 저 베트래서 오감 짤 때 머 노래: 부루구 그르진 아나써요? {그때  
그러면 저 베틀에서 옷감 짤 때 뭐 노래 부르고 그러지는 않았어요?}

10409 #1 해해. {해해.}

10412 @ 베틀노래 이짜너요? {베틀노래 있잖아요?} 10412 #1 체. {체.}

10412 #1 베틀노래가 인년대 저년 그런 노랜 아내바씨요. {베틀노래가 있는데 저는 그런 노래는 안 해봤어요.}

10412 #1 허허허. {허허허.}

10412 #1 베틀노래두 그냥 으냥 이상하드라고요. {베틀 노래도 그냥 그냥 이상하더라고 요.} 10412 # 베틀노랜 자근 누니미 자리야 허허. {베틀노래는 작은 누님이 잘해 허허.}

10412 @ 음:. {음.}

10412 #1 잘 하지요. {잘 하지요.}

10412 #1 그 형니미. {그 형님이.}

10412 @ 지금두 기어카시나요? {지금도 기억하시나요?}

10412 #1 우리 형니미 청애가 엄청 조아요. {우리 형님이 청이 엄청 좋아요.}

10412 # 하지, 엄청 자라지. {하지, 엄청 잘 하지.}

10412 @ 음:. {음.}

10412 #1 엔:나래 항 거 다: 알지요. {옛날에 한 거 다 알지요.}

10412 #1 지금 팔십 두링가? {지금 팔십둘인가?}

10412 # 팔십 스:이. {팔십셋.}

10412 #1 스인가? {셋인가?}

10412 # 나보다 세살 더 잡썩썩. {나보다 세 살 더 잡썩어.}

10412 #1 팔십쟁가? {팔십쟁가?}

10412 @ 고기 청산 사시나요? {거기 청성 사시나요?}

10412 #1 할고리라고 카는대. {할골이라고 하는 데.}

10412 @ 예? {예?}

10412 #1 할골. {할골.}

10412 #1 청산 할골. {청성 할골.}

10412 # 궁출리요, 궁출리. {궁춘리요 궁춘리.}

10412 #1 어, 청산 할골 궁, 궁철리. {어, 청성 할골 궁춘리.} 10412 # 궁출리요. {궁춘 리요.}

10412 # 청상, 청송. {청성, 청성.}

10412 # 청사니 아니고 청성. {청산이 아니고 청성.}

10412 #1 청성? {청성?}

10412 #1 청산, 청사니 안 청성이여? {청산, 청산이 아니고 청성이야?} 10412 # 청사니 아니고 거가 청성이여. {청산이 아니고 거기가 청성이야.}

10412 # 청성 궁출리? {청성 궁춘리?}

10412 # 청성면 궁출리. {청성면 궁춘리.} 10412 #1 아이구 아이구. {아이고 아이고.}

10412 @ 나중애 이거 다: 끝나고 거기 가서. {나중에 이거 다 끝나고 거기 가서.}

10412 @ 이거 저 베틀노래 함 번 해 보시라고 해야 갠내요. {이거 저 베틀노래 한 번 해 보시라고 해야겠네요.} 10412 #1 하하하, 할 껴요. {하하하, 할 거요.}

10412 @ 아니, 제가 무러 보니까 하시는 부니 거::이 업썩썩. {아니, 제가 물어 보니까 하시는 분이 거의 없어요.}

10412 @ 쪼:쫘. {조금.}  
 10412 @ 아패 쪼쫘 하다 이저버려따고 그러시는데. {앞에 조금 하다 잊어버렸다고 그러시는데.} 10412 # 근대 저 우리 자근 누니면 이 무명베고 삼베고 아주 화통한 이여. {그런데 저 우리 작은누님은 이 무명베고 삼베고 아주 화통한 이야.}  
 10412 @ 네:, 그러개요. {네:, 그러개요.}  
 10412 # 베도 잘: 짜고. {베도 잘 짜고.}  
 10412 # 모타능 기 읍써. {못 하는 게 없어.}  
 10412 # 나녕 거나 머 모등 걸 아주. {나는 거나 뭐 모든 걸 아주.}

## 1.5. 의생활(누에치기)

10414 @ 누애두 처짜나요? {누에도 쳄잖아요?}  
 10414 @ 누애? {누에?}  
 10414 #1 누애두 처찌요. {누에도 쳄지요.} 10414 # 여기 누애두 처써찌요. {여기 누에도 쳄었지요.}  
 10414 @ 예저내 그거뚜 해 보셔써요? {예전에 그것도 해 보셨어요?}  
 10414 #1 저두 함: 번 해 바써요. {저도 한 번 해 봤어요.}  
 10414 #1 뽕나무가 업써 가주구, 즈더런. {뽕나무가 없어 가지고, 저희들은.}  
 10414 #1 저너 해볼라 구래떠니. {저는 해보려고 그랬더니.}  
 10414 #1 제 욱씨매 그거럴 인재 해볼라캐써요. {제 욱심에 그것을 이제 해 보려고 했어요.}  
 10414 #1 해볼라구 헐는데. {해 보려고 했는데.}  
 10414 #1 뽕이 모지래 가주 모타거뜨라고요. {뽕이 모자라 가지고 못 하겠더라고요.}  
 10414 @ 그거뚜 그 크기에 따라서 이르미 다르자나요, 그거? {그것도 그 크기에 따라서 이름이 다르잖아요, 그것?}  
 10414 # 근대 이 삼베도 어: 그 시:럴 뽕볼 때 중요항 기여. {그런데 이 삼베도 에 그 실을 뽕을 때 중요한 거야.}  
 10414 # 시를 가늘게 뽕바야지 이 이 새깁. {실을 가늘게 뽕아야지 이 이 새깁.}  
 10414 @ 오시 곱찌요? {옷이 곱지요?}  
 10414 # 어. {어.}  
 10414 # 메 썸 메 썸 하능 기 나오능 거여. {몇 새 몇 새 하는 게 나오는 거야.}  
 10414 #1 맹 조:코 그거또 명하고 또까타요. {종고 그것도 명하고 똑같아요.}  
 10414 # \*\*새니 머냐하면 아주 잘: 항 기여. {\*\*새니 뭐냐하면 아주 잘 한 거야.}  
 10414 # \*\*오고 머 시건 또까통 거여. {\*\*오고 뭐 식은 똑같은 거야.}  
 10414 @ 예:. {예.}  
 10414 #1 삼때가 꼬:꼬타고. {삼대가 꺾끗하고.}  
 10414 #1 가쟁이 안 불고. {가지가 안 번고.}  
 10414 #1 쪼:쫘탕 거넌 그건 그 고운 삼베루 나가요. {꺾끗한 거는 그건 고운 삼베로 나가요.}  
 10414 # \*\*\* 또까꼬. {\*\*\*\* 똑같고}

10414 #1 고롱 거넌. {그런 것은.}

10414 # 뉘꼬치릴 느코 쌀무, 쌀무민성 시:릴 뽐는담 마리어. {누에고치를 넣고 삶으 삶으 면서 실을 뽐는다 말이야.}

10414 @ 예:. {예.}

10414 # 고때가 중요항 거여. {그때가 중요한 거야.}

10414 #1 이 우리 형니면 머 오래해서 머 다 드 잘 알지머. {이 우리 형님은 뭐 오래 해서 뭐 다 더 잘 알지요.}

10414 #1 노래 머 베틀노래두 이평고만 위냥. {노래 뭐 베틀노래도 있더구먼 위낙.}

10414 #1 난 아 안 해바서 모태, 베틀노랜. {난 안 안 해 봐서 못해, 베틀노래는.}

10414 @ 누구한테 가서, 나중애 가면 누구한테 무리바야 대요? {누구한테 가서, 나중애 가면 누구한테 물어봐야 돼요?}

10414 @ 어디루 가요? {어디로 가요?} #1 인재 지배 게:실란지 안 게실른지 그거를 모르 지요. {이제 집에 게실는지 안 게실는지 그것을 모르지요.}

10414 @ 아니, 머 나중애 끝나구 그냥 놀기사마 가따가. {아니, 뭐 나중애 끝나고 그냥 놀 기 삼아 갔다가.}

10414 # 그쎄, 그 저놔. {글쎄, 그 전화.}

10414 #1 거시기 가면뇨. {거기기 가면요.}

10414 #1 궁출리 거기:: 그개. {궁촌리 거기 그개.}

10414 # 저나버노를 알키 조. {전화번호를 가르쳐 줘.}

10414 @ 예, 나중애. {예, 나중애.}

10414 #1 아니, 그라고 거 경노당애 가면. {아니, 그리고 거기 경로당애 가면.}

10414 @ 예. {예.}

10414 #1 그:: 우리 형님또래드리 마:나요. {그 우리 형님 또래들이 많아요.}

10414 @ 예:. {예.}

10414 #1 거: 우리 형님. {거기 우리 형님.}

10414 #1 또 우리가 형니미 업써두 그 경노당애 가만 아시넌 분더리 이쓸꺼. {또 우리가 형님이 없어도 그 경로당애 가면 아시는 분들이 있을 거요.}

10414 @ 할머니 함자는 어트개 되는데요? {할머니 함자는 어떻게 되는데요?}

10414 # 어:, 김배키요. {에 김백희요.}

10414 # 김배키. {김백희.}

10414 @ 음. {음.}

10414 #1 아들, 딸 다: 나가구 혼자 살자나, 지금. {아들, 딸 다 나가고 혼자 살잖아, 지금.}

10414 @ 예:. {예.}

10414 #1 근대 마:냐개 아들래 지배나 딸래 지배나 가면 인재 우꼬. {그런데 만약에 아들 네 집에나 딸네 집에나 가면 이제 없고.}

10414 #1 고 우리 형님두 경노당애 거가 사라요, 노다지. {그 우리 형님도 경로당애 거기 에 가서 살아요, 항상.} 10414 @ 예. {예.}

10414 # 아니지요, 마:냐개 혼차 차자가개 대면. {아니지요, 만약에 혼자 찾아 가게 되면.}

10414 # 저나버놀 알면 전화를 열라카고 가면 된다고. {전화번호를 알면 그 전화를 연락하 고 가면 된다고.} 10414 @ 예예. {예예.}



10414 # 낭중에 머 하다두 대지머. {나중에 뭐 해도 되지 뭐.} 10414 @ 예. {예.}

10414 @ 파월딸쓰미나 언재 함 번 제가. {팔 월쫘이나 언재 한 번 제가.} 10414 #1 마냐  
개 인재 우리지배 오시면 요기서 저나 해 보고 가시두 대고. {만약에 우리집에 오  
시면 여기서 전화 해 보고 가셔도 되고.} 10414 @ 예. {예.}

10414 #1 인재 우리가 우:꾸 마냐개 거기 가시면. {이제 우리가 없고 만약에 거기 가  
시면.}

10414 #1 인재: 그 경노당애 우리 형님보다 나이가 더 마:는 양반두 이꼬. {이제 그 경로  
당애 우리 형님보다 나이가 더 많은 양반도 있고.}

10414 #1 또 자:근 양반두 이구 머. {또 작은 양반도 있고 뭐.}

10414 #1 우리 형님 또래더리 또 마:나요. {우리 형님 또래들이 또 많아요.}

10414 #1 그리 그기 경노당애 가만. {그래서 거기 경로당애 가면.}

10414 #1 어느 부니던지 인재 아:시년 부니 이쫘 꺼요. {어느 분이든지 아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10414 #1 우리 형니미 마냐개 읍떠래도. {우리 형님이 만약에 없더라도.}

10414 @ 예. {예.}

10414 @ 예저넌 누애 처 가주구:: 그거뚜 오감 짜자나요? {예전에는 누애 처 가지고 그것  
도 옷감 짜잖아요?}

10414 #1 우리 형님 그거 마:니 해썬요. {우리 형님 그거 많이 했어요.}

10414 #1 명주. {명주.}

10414 # 젤: 쫘녕거지. {제일 치는 것이지.} 10414 @ 그 명주? {그 명주?} 10414 #1  
예, 명주. {예, 명주.}

10414 #1 명주가 공단 아니요, 고기? {명주가 공단 아니요, 그게?}

10414 # 비다니라 카능진. {비단이라고 하는 것은.}

10414 @ 비단, 예. {비단, 예.}

10414 #1 예:. {예.}

10414 @ 비다니라고두 하구 공다니라고두 하구. {비단이라고도 하고 공단이라고도 하고.}

10414 # 공다니라고두 하고. {공단이라고도 하고.}

10414 #1 예, 근대. {예, 그런데.}

10414 @ 음. {음.}

10414 @ 근대 그거 할라면 인재 뉘, 누애 키우자나요? {그런데 그거 하려면 이제 누애,  
누애 키우잖아요?}

10414 @ 씨, 씨 씨라 그래지요? {씨 씨 씨라 그러지요?}

10414 @ 그 똥고랑 거? {그 둥그랑 거?} 10414 #1 씨 읍썬요. {씨 없어요.}

10414 #1 건: 뉘 뉘럴 크면. {그건 누애를 크면. } 10414 # 오디, 오디라 그러지요. {오디  
오디라 그러지요.}

10414 # 오디. {오디.}

10414 @ 아니, 아니, 그거 말:구 뉘애. {아니 아니 그거 말고 누애.}

10414 @ 뉘애 키울 때? {누애 키울 때?}

10414 # 누애 키울 때 나방? {누애 키울 때 나방?}

10414 #1 뉘애. {누애.}

10414 @ 맨:처매 쟈끄망 거에서? {맨 처음에 조그만 거에서?}

10414 # 아, 그새 나방이 \*\*\*. {아, 글썽 나방이 \*\*\*}

10414 #1 날, 예, 나방이 돼 가주구. {날, 예, 나방이 돼 가지고.}

10414 #1 뇌. {누에.}

10414 #1 뇌:가 하:니 차마노. {누에가 한이 차면요.}

10414 #1 지불 지차나요. {집을 짓잖아요.}

10414 @ 예. {예.}

10414 #1 지불 지면 그개 인재 내오 꼬치라카자나요. {집을 지으면 그걸 누에고치라고 하  
잖아요.}

10414 #1 뇌:꼬치에서 나방이 나와요. {누에고치에서 나방이 나와요.}

10414 #1 나방이 나와 가주 그기 뇌가 인재 아를 깔리드라고요. {나방이 나와 가지고 그  
게 이제 누에가 알을 깔리더라고요.}

10414 #1 인지 조마::이 줍쌀거지. {이제 조그만하게 줍쌀같이.} 10414 # 거서 뇌애가 나  
오녕 거. {거기서 누에가 나오는 거.}

10414 #1 줍쌀처럼. {줍쌀처럼.}

10414 @ 예. {예.}

10414 #1 고고릴 인재 요런 종일 요만:하개 까라 노면. {고거를 이제 요런 종이를 요만하  
게 깔아 놓으면.}

10414 #1 고기 나방이 고기다 아릴 깔리대요. {거기 나방이 거기에다 알을 깔리대요.}

10414 #1 개서 고기 그걸루 인재 나와요. {그래서 고기 그것으로 이제 나와요.}

10414 #1 벌거지가 아주 빠::나개. {벌레가 아주 조그만 하게.}

10414 #1 그럼 인재 그 뽕얼 종::종 쓰러 가주. {그러면 이제 그 뽕을 종종 썰어 가지고.}

10414 #1 새끼 쪼갠 아주 종::종 쓰러 주더라고요. {새끼 적엔 아주 종종 썰어 주더라  
고요.}

10414 #1 그래 가주 줍 크구 크구 하면. {그래 가지고 줍 크고 크고 하면.}

10414 #1 자꾸 인재 기냥 다: 그개 막 올라갈 정도대. {자꾸 이제 그냥 다 그개 막 올라갈  
정도 돼.}

10414 #1 다: 크면 막 기냥 가쟁이채 막 기냥 꺼꺼다가 막 우애다 언저주더라고요. {다 크  
면 막 그냥 가지채 막 그냥 꺾어다가 막 위에다 얹어 주더라고요.}

10414 #1 아, 그렇 거넌 바썬요. {아, 그런 거는 봤어요.}

10414 # 그기 엔나랜 누애도 마이 치, 길르구 그랜는데. {그게 옛날에는 누애도 많이 치  
(고), 기르고 그랬는데.}

10414 # 지금 아내. {지금 안 해.}

10414 @ 예. {예.} 10414 # 한 집뚜 아내. {한 집도 안 해.}

10414 @ 그거 찌기 클 때마다 이르미 달롱가요? {그거 저기 클 때마다 이름이 다른가요?}

10414 @ 그거 저기 밥 암 머꾸 하루 자꾸 막 그르자나요? {그거 저기 밥 안 먹고 하루 자  
고 막 그러잖아요?}

10414 #1 예. {예.}

10414 # 그 네, 스:잠 자면 올라가녕가? {그 네, 석 잠 자면 올라가는가?} 10414 #1 이  
렵? {이름?}

10414 #1 세 잠 자면 올라가넌데. {세 잠 자면 올라가는데.} 10414 # 그리니까. {그러  
니까.}

10414 #1 즈기:, 마 인재 처짬, 두짬, 세짬이더 그르케 올라, 그라드라고요. {저기, 마 이제 첫 잠, 두 잠, 세 잠이다 그렇게 올라 그러더라고요.}

10414 # 잠 자는 대 뽕얼 암 머거. {잠 잘 때는 뽕을 안 먹어.}

10414 @ 예. {예.}

10414 # 고괘 치들고. {고개를 쳐들고.} 10414 #1 어, 잘 때는 암 머거. {어, 잘 때는 안 먹어.}

10414 #1 츠:매 잘 때두 안:대구. {처음에 잘 때도 안 먹고.}

10414 #1 두번째 자고 세번째 자면. {두 번째 자고 세 번째 자면.}

10414 #1 그 인재 꼬추릴 만든다카드라고요. {그 이제 고치를 만든다고 하더라고요.}

10414 @ 그 그거뚜 인재 크면 뽕 먹짜나요? {그 그것도 이제 크면 뽕 먹잖아요?}

10414 @ 그럼 쫄거리두 생기구 똥두 생기자나요? {그럼 쫄거리도 생기고 똥도 생기잖아요?}

10414 @ 그럼 이르키 또 옮겨서 탄 대다가 \*\*\*? {그러면 이렇게 또 옮겨서 다른 데다가 \*\*\*?}

10414 #1 예예, 그러카더라고요. {예 그렇게 하더라고요.}

10414 #1 뇌릴 막 가따가 이르케 해 노터라고요. {누에를 막 갖다가 이렇게 해 놓더라고요.}

10414 @ 그거 머 하능 거라 그래요. {그거 뭐 하는 거라고 그래요.}

10414 @ 그거는? {그거는?}

10414 # 그:. {그.}

10414 #1 잠바개, 잠박. {잠박에, 잠박.} 10414 # 뇌에 기르는 잠박, 잠바개서 장바걸 가르능 거지. {누에 기르는 잠박 잠박에서 잠박을 가르능 거지.} 10414 #1 뇌:, 뇌: 잠박. {누에, 누에 잠박.}

10414 @ 예. {예.}

10414 #1 뇌 이르케 잠바기라 그라대. {누에 이렇게 잠박이라고 그러대.}

10414 #1 그 잠바개다가 해서 칭대루 해 노쿠 거따가 막 뽕얼 주더라고요. {그 잠박에다가 해서 층대로 해 놓고 거기에다가 막 뽕을 주더라고요.}

10414 @ 그러구 나서 나중에 인재 이개 다: 크면 좀 누루수름:해지자나요? {그리고나서 나중에 이제 이게 다 크면 누르스름해지잖아요?}

10414 #1 예. {예.}

10414 @ 집 지끼저내 그거. {집 짓기 전에 그거.}

10414 #1 그르면 인재 거기다가 서비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섰이라고 해요.}

10414 #1 서비라구 올리 주지요. {섰이라고 올려 주지요.}

10414 #1 섷. {섷.}

10414 @ 멀:루 해요, 섷? {뭇로 해요, 섷?}

10414 #1 서벌 인재 저: 속, 속깍까쟁이나 머. {섷을 이제 저 술 소나무 가지나 뭇.}

10414 #1 좀 이른 그렁 걸루 하는데. {좀 이런 그런 걸로 하는데.} 10414 # 엔나랜 \*\*\*\*. {옛날엔 \*\*}

10414 #1 지그면 새루 나옉 거. {지금은 새로 나온 거.} 10414 # 기개루 대 이찌요. {기계로 돼 있지요.}

10414 # 기개루. {기계로.}

10414 # 기계루 짱 거. {기계로 짬 것.}

10414 #1 저기 저걸루 하대요. {저기 저걸로 하대요.}

10414 #1 지그먼 푸라스트. {지금은 플라스틱.}

10414 #1 프라시티루 구멍 빠끔빠끄마개 막 이래 해 가주구 그걸루 이르게 죽: 이르게 해 놔대요. {플라스틱으로 구멍 빠끔빠끔하게 막 이렇게 해 가지고 그걸로 이렇게 죽 이렇게 해 놔대요.}

10414 #1 거 보니까. {그거 보니까.}

10414 #1 근대 지그, 옴:나래넌 속잡 까쟁이 기냥 가쟁이 젤: 마니 버렁 거. {그런데 지금, 옛날에는 술잡 가지 그냥 가지 제일 많이 벌은 거.}

10414 #1 그렇 거뚜 해 노쿠. {그런 것도 해 놓고.}

10414 #1 지부루두 여꼬 머 그래 해찌마넌. {짚으로도 엮고 뭐 그렇게 했지만.}

10414 @ 음. {음.} 10414 #1 옴:나래그치 아나대요, 지그먼. {옛날에 같이 안 하대요, 지금은.}

10414 #1 프라시티루 나오고. {플라스틱으로 나오고.}

10414 @ 그러케 해서 저 하:야케 지자나요? {그렇게 해서 저 하얹게 짓잡아요?}

10414 @ 그걸 머라 그래요? {그걸 뭐라 그래요?}

10414 # 나:꼬치라 그러지. {누에고치라 그러지.}

10414 # 니에꼬치. {누에고치.}

10414 #1 니꼬치지요. {누에고치지요.}

10414 @ 그거 두 개가 드러강 거뚜 이찌요? {그거 두 개가 들어간 것도 있지요?}

10414 @ 두 마리가? {두 마리가?}

10414 #1 예, 쌍둥이. {예, 쌍둥이.}

10414 # 두 마리 드러강 거뚜 이찌요. {두 마리 들어간 것도 있지요.}

10414 #1 예. {예.} 10414 @ 그건 머라 그래요? {그건 뭐라 그래요?}

10414 #1 쌍둥. {쌍둥.}

10414 #1 그거 인재 쌍둥꼬치라카지요 머 그거뚜. {그거 이제 쌍둥고치라고 하지요, 뭐 그 것도.}

10414 @ 음. {음.}

10414 @ 저 그 아내 이르게 짤라 보면 요마냥 거 꿈틀? {저 그 안에 이렇게 잘라 보면 요만한 거 꿈틀?}

10414 #1 번데기. {번데기.}

10414 # 그르치, 번디기. {그렇지, 번데기.}

10414 #1 번데기가 두 개 드러찌요. {번데기가 두 개 들었지요.}

10414 @ 예:. {예.}

10414 @ 고거 찌:기. {그거 저기.}

10414 @ 머야. {뭐야.}

10414 @ 간 해 가주구 살마서 머그먼 마시짜나요? {간 해 가지고 삶아서 먹으면 맛있잖아요?}

10414 # 마시찌요:. {맛있쪼지요.}

10414 #1 에헤헤. {에헤헤.}

10414 #1 속, 소금 느쿠 뽀까 가주구. {소(금), 소금 넣고 볶아 가지고.}

10414 # 그건 그게 실: 뽀뽀할 때. {그건 그게 실 뽀뽀할 때.}

10414 # 실: 뽀뽀할 때 바로 건지내 논능 기 젤: 마시썬. {실 뽀뽀할 때 바로 건지내 놓는 게 제일 맛있어.}

10414 @ 예. {예.}

10414 # 그래 통통항개 드러 가주. {그래 통통한 게 들어 가지고.}

10414 # 통통하고. {통통하고.}

10414 # 아내, 아내 \*\*\*\*. {안예, \*\*\*.} 10414 #1 그거뚜 소설 요래: 거러노차나요? {그것도 술을 요렇게 걸어놓잖아요?}

10414 # 아리 인재 그 참. {알이 이제 그 참.}

10414 #1 그리두 물 느, 그 소설 거러노쿠 거기다가 무리 끄르면. {그래도 물을 넣(고), 그 술을 걸어 놓고 거기다가 물이 끓으면.}

10414 #1 그 네오꼬치를 거기다 느 가주구. {그 누에고치를 거기다 넣어 가지고.}

10414 #1 그거 저기 그: 머여? {그거 저기 그게 뭐야?}

10414 #1 그때는: 음:. {그때는 음.}

10414 #1 지그면 와리바시라고 하지. {지금은 나무젓가락이라고 하지.}

10414 #1 그 이짜나요? {그 있잖아요?}

10414 #1 옴:나랜 그기 업써 가주구. {옛날에 그게 없어 가지고.}

10414 #1 그거 이짜나요. {그거 있잖아요.}

10414 #1 저기 그거 쭈수 파떡캐명녕 거 그거. {저기 그거 수수 팔떡 해 먹는 거 그거.}

10414 #1 그거 인재 재:, 비짜리 매녕 거. {그거 이제 제, 빗자루 매는 거.}

10414 #1 그거 쭈 그 쿵 거 그거덜. {그것 쭈 큰 거 그것을.}

10414 #1 그걸루 인재 쪼꿈 굴궁 걸루 가따가. {그것으로 조금 굶은 것을 찾다가.}

10414 #1 그걸루. {그걸로.}

10415 #1 자:꾸 인지 이르키 둘루면 이 고추가 막 시:리 마이 따라나오면. {자꾸 이제 이렇게 돌르면 이 고치가 막 실이 많이 따라 나오면.}

10415 #1 요 고출 자:꾸 이르케 그걸루 막 일루 저꾸 일루 저꾸. {이 고치를 자꾸 이렇게 그걸로 막 이리 젓고 이리로 젓고.}

10415 #1 막 이라드라고요. {막 이러더라고요.}

10415 #1 가모미서. {감으면서.}

10415 #1 요마:난 소술 하나 거러 노코. {요만한 술을 하나 걸어 놓고.}

10415 @ 아:, 그거. {아, 그거.} 10415 #1 나도 하녕 건 바썬요. {나도 하는 건 봤어요.}

10415 @ 그개, 그르케 손-태다가 그 삼능 거지요, 그거? {그게 그렇게 술에다가 그 삶는 거지요, 그거?}

10415 #1 예:, 소설 거러 노코 요 부릴 때서 쌀마요. {예, 술을 걸어 놓고 요기에 불을 때서 삶아요.}

10415 #1 그람 무리 끄러, 끌차나요? {그러면 물이 끓어, 끓잖아요?}

10415 #1 끄러면 인재 물래루 인재 이르케 돌리면. {끓으면 이제 물레로 이제 이렇게 돌리면.}

10415 #1 시:리 한태 엉키 가주구 여기서 막 쫓는대서 엉키서 나와요. {실이 한태 엉겨 가지고 여기서 막 삶는 데서 엉겨서 나와요.}

10415 #1 그람 인재 이기 자:꾸 이거덜 이르케 돌리민성 막. {그러면 이제 이게 자꾸 이것을 이렇게 돌리면서 막.}

10415 #1 이걸 그냥 놔두면 막 두루루해서 막 이 시:리 엄청 구:깨 나오거더녀. {이걸 그냥 놔두면 막 두루루해서 막 이 실이 엄청 굵게 나오거든요.}

10415 #1 그랑개 자:꾸 그걸루. {그러니까 자꾸 그걸로.}

10415 #1 쭈꾸, 쭈꾸때기. {수수 수수대.}

10415 #1 그 쭈꾸때기자나요? {그 수숫대잖아요?}

10415 @ 예. {예.}

10415 #1 걸로 자꾸 그 저버무루 그걸 막 이르캐 자꾸 제끼더라고요. {그걸로 자꾸 젓가락으로 그걸 막 이렇게 자꾸 젓더라고요.}

10415 #1 소태다 노코 막. {술에다 놓고 막.}

10415 #1 그건 둘루민서 자:꾸 이래 이래 이래 제끼더라고요. {그건 돌리면서 자꾸 이렇게 이렇게 젓더라고요.}

10415 #1 그람 이기 한테 막 엉기 가주구. {그러면 이게 한테 막 엉겨 가지고.}

10415 #1 이걸 빨리 아나면 시:리 구:깨 뽀피드라고요. {이걸 빨리 안 하면 실이 굵게 뽀히더라고요.}

10415 @ 예:. {예.}

10415 #1 거 하능 건 바씨요. {그 하는 건 봤어요.}

10415 @ 음. {음.}

10415 #1 예, 나도 함 번: 함 번 해보고 안 해 바씨요. {예, 나도 한 번 한 번 해보고 안 해 봤어요.}

10415 # 그개 실 뽀능 개 기수리라고. {그개 실 뽀는 게 기술이라고.}

10415 @ 그거 그르닝까 무래다가 사, 쌀마 가주구 해야지. {그거 그러니까 물에다가 사람, 삶아가지고 해야지.}

10415 #1 뽀나무가 업서 가주구. {뽀나무가 없어 가지고.}

10415 @ 그기 시리 뽀피능가 보내요? {그개 실이 뽀히는가 보네요?}

10415 # 아, 그리치. {아, 그렇지.} 10415 #1 예, 예, 소설 요래 요마:낭 냄비릴, 냄비 하나 거러나요. {예, 예 술을 요렇게 요만한 냄비를 냄비 하나 걸어 놔요.}

10415 #1 쫙 쿵 거 요마:낭 거. {쫙 큰 거 요만한 거.} 10414 @ 예:. {예.}

10415 @ 저는 그 시:를 어트개 뽀는지: 그냥 이르캐 다 지불 지어노면 하야차나요? {저는 그 실을 어떻게 뽀는지 그냥 이게 다 집을 지어 놓으면 하얏잖아요?}

10415 #1 예. {예.}

10415 @ 그거 실 뽀부먼 잘 암 뽀피등 거 가튼데: 그 어트개 뽀나 그래뜨니 아, 그개 무래다가 쌀머 가주구 이르캐. {그개 실 뽀으면 잘 안 뽀혔던 거 같던데: 그 어떻게 뽀나 그랬더니 아, 그개 물에다가 삶아가지고 이렇게.}

10415 #1 예. {예.}

10415 #1 물래:. {물래.}

10415 #1 물래 아시자나? {물래 아시잖아?}

10415 @ 예, 예. {예 예.}

10415 #1 인재 물래. {이제 물래.}

10415 #1 그거 인재 거뚜 명 잔는 물래. {그거 이제 그것도 명 갖는 물래.}

10415 #1 그걸루 이르캐 해 가주구. {그걸로 이렇게 해 가지고.}

10415 # 그 뉘애가 마리어. {그 누애가 말이야.} 10415 #1 예. {예.}

10415 #1 거 시:릴료. {그 실을요.}

10415 # 똥꾸녀개서 이거 시:릴 뽀바서 이래 땡그러놓 거란 마리여 그기. {똥구멍에서 이거 실을 뽑아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야 그제.}

10415 @ 예. {예.}

10415 # 니 꼬치가. {누에 고치가.}

10415 @ 예예. {예예.}

10415 # 그리차너? {그렇잖아?}

10415 #1 인제 물래에서. {이제 물래에서.} 10415 # 근데 그개 고대로: 쌀무면, 고대로 고 하나. {그런데 그개 그대로 삶으면 그대로 그 하나.}

10415 @ 꺼꿀로 하능 거지요? {거꾸로 하는 거지요?}

10415 # 아, 꺼꿀로 그걸 다시 뽀바 내녕 거요. {아, 거꾸로 그걸 다시 뽑아 내는 거요.}

10415 @ 뽀바 내는. {뽑아 내는.}

10415 @ 애가, 애가 가머놓 걸 다 푸능 거지요? {애가 애가 감아 놓은 걸 다 푸는 거지요?}

10415 # 고걸 푸녕 거여. {그걸 푸는 거야.}

10415 #1 근대 이르캐 물래애다가 이만:창 가마지자나요. {그런데 이렇게 물래애다가 이만큼 감아지잖아요.}

10415 #1 이개 자꾸 이러카면. {이개 자꾸 이렇게 하면.}

10415 #1 고걸 또 인저 시 저:, 네 군대루 째매 놔야 대요, 고고털. {그걸 또 이제 저 네 군데로 동여매 놔야 돼요, 그것을.}

10415 @ 그르치요, 나중애 암 뭉치지요. {그렇지요, 나중애 안 뭉치지요.}

10415 #1 예예. {예예.}

10415 # 고래 땡그러 놓 걸 다시 뽀바 내녕 거여. {고렇게 만들어 놓은 걸 다시 뽑아 내는 거야.}

10415 #1 고 고래 해가. {그래 해서.}

10415 #1 그래 가주 그걸 또 이르캐 꾸리털 감짜나요. {그래 가지고 그걸 또 이렇게 꾸리를 감잖아요.}

10415 #1 꾸리털 가마 가주 그거뚜 열 깨를 해 노코. {꾸리를 감아 가지고 그것도 열 깨를 해 놓고.}

10415 #1 거기다가 또 그 베 나능 거하고 또:까치 고로캐 해 가주구. {거기다가 또 그 베 나는 거하고 똑같이 그렇게 해 가지고.}

10415 #1 그래서 그거털 짜 가주구 그래. {그래서 그거를 짜 가지고 그래.}

10415 @ 그러캐 해 가주구 이르캐 시, 시:를 이르캐 푸러내능 걸 머 한다 그래요, 그걸? {그렇게 해 가지고 이렇게 실, 실을 풀어내는 걸 뭐 한다 그래요, 그걸?}

10415 #1 그거요? {그거요?}

10415 @ 예. {예.}

10415 #1 그거넌 머 저기: 뇌꼬치. {그거는 뭐 저기 누에고치.}

10415 # 명, 명주실. {명, 명주실.}

10415 # 뽀는다 구라지 머. {뽀는다 그러지 뭐.}

10415 #1 예, 뇌꼬치 실 뽀는다 고라지요. {예, 누에고치 실 뽀는다 그러지요.}

10415 # 명주실 뽀는다 구라지요. {명주실 뽀는다 그러지요.}

10415 @ 예:. {예.}

10415 #1 명주시:리지 내내 그개. {명주실이지 내내 그개.}

10415 @ 그르케 해서 뽀분 다으매 그걸 가주구 인재 또 아까가치 쯡:: 나라서. {그렇게 해서 뽀분 다음에 그걸 가지고 이제 또 아까같이 죽 날아서.}

10415 # 과정은 베 땡그능 거랑 또까튼 방버부로. {과정은 베 만드는 거랑 똑같은 방법으로.}

10415 @ 또 인재 또까튼 방버부로 하능 거지요? {또 이제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거지요?}

10415 #1 예, 예. {예.}

10415 #1 예, 베하고 삼베하고 또:까타요. {예, 베하고 삼베하고 똑같아요.}

10415 # 또까튼 방버부로. {똑같은 방법으로.}

10415 #1 하는 방버번. {하는 방법은.}

10415 # 또까튼 방버부로 하능 거. {똑같은 방법으로 하는 거.}

10415 @ 예. {예.}

10415 # 연:나래. {옛날에.}

10415 #1 그거뚜 삼두 그췌 이마:난 물래라고. {그것도 삼도 글췌 이만한 물래라고.}

10415 #1 큰: 물래라구 해 노코. {큰 물래라고 해 놓고.}

10415 #1 거 개새 참새털 해 노코. {그 개새 참새를 해 놓고.}

10415 #1 그거뚜 그래 짜, 해 가주구넌 그거뚜 꾸리루 감짜나요. {그것도 그렇게 해 가지고는 그것도 꾸리로 감잖아요.}

10415 #1 점부 다. {전부 다.}

10415 #1 그래 가마 가주구서 그거뚜 나라 가주 그거 또까타요. {그렇게 감아 가지고서 그것도 날아 가지고 그거 똑같아요.}

10415 #1 베:나 삼베나 명주나 하닝 거넌 또까타요. {베나 삼베나 명주나 하는 것은 똑같아요.}

10415 #1 쯤 인재 베 이러미 틀리서 그르치. {쯤 이제 베 이름이 달라서 그렇지.}

10416 @ 그거뚜 가튼 베틀루 짜나요? {그것도 같은 베틀로 짜나요?}

10416 #1 예. {예.}

10416 # 그르치요. {그렇지요.}

10416 @ 그러면 그거넌 저기 바디가 다르지요, 그거는? {그러면 그것은 저기 바디가 다르지요, 그것은?}

10416 #1 암, 안 달라요. {안, 안 달라요.}

10416 @ 바디두 가타요? {바디도 같아요?}

10416 #1 예. {예.} 10416 # 바디는 가짜. {바디는 같지.}

10416 # 그른대 인재 요기 글췌 세미라개 더 마, 아주 자자:하개 대이찌. {그런데 이제 요기 글췌 세밀하게 더 아주 자세하게 돼 있지.}

10416 # 그 바두가. {그 바디가.}

10416 #1 아홉새 베: 짜, 저 짜넝 거 하고. {아홉새 베 짜, 저 짜는 거 하고.}

10416 #1 삼베도 곱:개 짜넝 거 하고 이췌요. {삼베도 곱게 짜는 거 하고 있어요.}

10416 #1 바디가요. {바디가요.}

10416 #1 바디 시기. {바디 식이.}

10416 #1 끼능 거넌 그기 저 바디구요. {꺾는 것은 그개 저 바디고요.}

10416 #1 인재 바디에 다: 쨍: 거 거기다가 인재 이르케 생기쓰면 인재. {바디에 다 췌는 거기다가 이제 이렇게 생겼으면 이제.}



10416 #1 고 실:, 실: 쟁 거릴 이르캐 꼬바요. {그 실, 실 쟁 것을 이렇게 쫓아요.}

10416 #1 아래 우애. {아래 위에.}

10416 #1 그라고 꼬뻐, 여 꼬쟁이가 이짜나요. {여그리고 \*\* 여기 꼬쟁이가 있잖아요.}

10416 #1 한짜개는 이르캐 매키구. {한쪽에는 이렇게 막히고.}

10416 #1 한짜개는 하나만 빼면 이르캐 들리자나요. {한쪽에는 하나만 빼면 이렇게 들리잖아요.}

10416 #1 고기다 요르캐 해 노코. {거기다 이렇게 해 놓고.}

10416 #1 머 이르캐 마차 가주구서 꼬쟁이 꼬바 노쿠. {뭐 이렇게 마취 가지고 꼬쟁이 쫓아 놓고.}

10416 #1 그라면 인재 이기 그기 안: 나가자나요. {그러면 이제 이게 그게 안 나가잖아요.}

10416 #1 빠지나가다. {빠져나가다.}

10416 #1 그거 고건 바디지비라 구래요. {그거 고건 바디집이라고 해요.}

10416 #1 그래서 인재 고고 바디지번 인재 부기 드르가따가 나오면. {그래서 이제 고고 바디집은 이제 북이 들어갔다가 나오면.}

10416 #1 그 이르캐 탁 때리면 고 짜:지자나요. {그 이렇게 탁 때리면 그게 짜지잖아요.}

10416 #1 또:까타요. {똑같아요.}

10416 #1 바디, 저: 명주나 머나. {바디, 저 명주나 뭐나.}

10416 #1 근대 그 바디지비라카능 기. {그런데 그 바디집이라고 하는 게.}

10416 #1 저 바디라카능 기. {저 바디라고 하는 게.}

10416 #1 저: 명주 짜는 바딘 참: 고아요. {저 명주 짜는 바디는 참 고와요.}

10416 #1 아주. {아주.}

10416 #1 구먹또 자자::라고. {구멍도 자잘하고.}

10416 #1 그뚜 고꼬. {그것도 곱고.}

10416 #1 또 그거뚜 뿔떡:. {또 그것도 뿔떡.}

10416 # 그건 실. {그건 실.}

10416 # 어, 보름새 바지니 머 이라능 기여. {어, 보름새 바지니 뭐 이러는 거야.}

10416 #1 어, 고기 보름. {어, 고게 보름.}

10416 @ 보름새 바지요? {보름새 바지요?}

10416 #1 예. {예.} 10416 # 아주 아주 가능 거 보름새. {아주 아주 가는 것은 보름새.}

10416 #1 어허허허. {어허허허.} 10416 @ 고 쫘 굴궁 거는뇨? {그 쫘 굶은 거는요?}

10416 # 인재 굴궁 거넌 머 한 열한 새나 열 머 십삼새니 머 이라고 이라는 거지. {굶은 거는 뭐 한 열한 새나 열 뭐 십삼새니 뭐 이러는 거지.}

10416 #1 단새 베 열새 베 그리치:. {닷새 베 엿새 베 그렇지.}

10416 # 아이 썸 그건 명주고, 명주럴 마라능 기지 명주. {아이 저 그건 명주고, 명주를 말 하는 거지 명주.} 10416 #1 단새가 쥔: 라 나중 거고. {닷새가 제일 낮은 것이고.}

10416 @ 아:. {아.}

10416 # 명주넌 인재 그르캐 간다 이기여. {명주는 그렇게 간다 이거야.}

10416 @ 아, 보름 새 그러면 열따서 썸라는 뜨시내요? {아, 보름 새 그러면 열다섯 새라는 뜻이네요?}

10416 @ 여란 새, 열 새. {열한 새 열 새.}

10416 # 이 무명. {이 무명.}

10416 # 이르캐 모봐로 멩그녕 거는 아홉 썩 열 썩까지도 안간다고 열 썩까지 몸 뭉는다고, 아홉 썩, 아홉 썩가 썰: 예. {이렇게 목화로 만드는 것은 아홉 새 열 새까지도 안 간다고 열 새까지 못 뭉는다고, 아홉 새, 아홉 새가 제일.}

10416 @ 예, 아까 아홉 썩. {예, 아까 아홉 새.}

10416 #1 아니여, 아홉 썩가 최고 조용 건. {아니야, 아홉 새가 최고 좋은 건.}

10416 @ 이거는 보름 썩가. {이거는 보름새.}

10416 # 트기항 기고. {특이한 거고.}

10416 # 인재 명주넌 보름 썩. {이제 명주는 보름 새.}

10416 # 보름 썩 너머가능 거뚜 이따까지, 아매. {보름 새 넘어 가는 것도 있다고 하지, 아매.}

10416 #1 보름 썩가 썰: 조용 기여. {보름 새가 제일 좋은 거야.}

10416 # 보름 썩가 최궁 거 아니여? {보름 새가 최고인 거 아냐?}

10416 # 그래, 보름 썩까진 치드라고. {그래, 보름 새까지는 치더라고.}

10416 @ 예:. {예.}

10416 @ 아이고, 오늘 그 그동안 잘 모뜨러똥 거 마니 드런내요. {아이고, 오늘 그 그동안 잘 못 들었던 것 많이 들었네요.}

10416 #1 아하하하. {아하하.}

10416 # 우리도 아:능 거. {우리도 아는 거.}

10416 @ 자세하개를 잘 몬 말씀 잘 모타시드라구 이져버려따구. {자세하게 잘 못 말씀 잘 안 못 하시더라고 잊어버렸다고.}

10416 # 아는 데까지만 얘기하능 기여. {아는 데까지만 얘기하는 거야.}

10416 @ 근대 총기가 조으시니까:. {근대 총기가 좋으시니까.}

10416 @ 그걸 자세하개 말씀해 주시내요. {그걸 자세하개 말씀해 주시내요.}

10416 #1 근대 저두 그걸 해바끼 때때 알지 아내바썩 저두 몰라요. {그런데 저두 그걸 해 봤기 때문에 알지 안 해 봤으면 저두 몰라요.}

10416 # 그저내 하:도 그저넌. {그전에 하도 그전에는.}

10416 # 이름까지두 자:세하개 아라썩는데. {이름까지도 자세하개 알았었는데.}

10416 # 여 나이 먹꼬 이라니께 그기 자꾸 이럼 거텅건 이럼 거텅건 이져버리진다고. {나 이 먹고 이러니까 그 자꾸 이름 같은 거 이럼 같은 건 잊어버린다고.}

10416 @ 안: 쓰자나요? {안 쓰잖아요?}

10416 # 어? {어?}

10416 @ 안 썩. {안 썩.}

10416 # 안 쓰니께:. {안 쓰니까.} 10416 @ 예. {예.}

10416 # 안: 쓰니께 자꾸 이져버리저 가주구. {안 쓰니까 자꾸 잊어버려 가지고.}

10416 # 강가 밍가두 시꾸 이르트라구. {긴가민가도 싶고 이렇더라고.}

10416 @ 예:. {예:.}

10416 # 생가캐보면. {생각해 보면.}

10416 #1 아이고, 우리 선생니미 이개 오시 가주구. {아이고, 우리 선생님이 이렇게 오서 가지고.}

10416 #1 이르캐 수고두 하시구. {이렇게 수고도 하시고.}

10416 @ 아유, 얘기를 해 주시니까 그르치요. {아유, 얘기를 해 주시니까 그렇지요.}

10416 #1 아하하하. {아하하하.}

## 제 2 편 어휘

### 2.1. 농경

#### 2.1.1. 경작

20101	벼	벼   나락  cf. 차나락  cf. 메나락
20102	이삭	벼이삭
20103	볍씨	찢나락   씨베
20104	못자리	모짜리
20105	모판	모칸
20106	쟁기	쟁기
20107	보습	후칭이썰, 보습(나무로 만들어 못 움직이게 끼우는 것)
20108	벗	*
20108-0-1	-이	*
20109	극쟁이	후칭이
20110	씨레	쓰:레
20111	번지	번지
20112	모내기	모심는다   모싱기(모내기보다 옛말)   모내기
20113	흙덩어리	흑땡어리
20114	고무래	밀개
20114-1	고무래(곡식)	밀개, 큰밀개
20114-2	고무래(재)	밀개, 짜근밀개
20114-3	고무래(흙)	밀개
20114-4	고무래(미는 것)	밀개
20114-5	고무래(당기는 것)	밀개
20115	쇠스랑	쇠갈고리   갈고리(등그렇게 한 것)   소시랑(바로 꼬부러진 것)
20116	꼭쟁이	목쟁이
20117	쟁이	꼭쟁이   쟁이(끝이 넓적한 것)   살포쟁이(꼬쟁이보다 더 넓은 것)
20118	삽	삽:
20119	호미	호매이   호미
20120	농기구	연장
20121	김	지심   잡초
20122	김매다	지심매로 간다   지심맨다   잡초뽑는다   풀맨다
20123	애벌 매다	초벌지심맨다   아시맨다('초벌맨다'보다 옛말)   만물맨다(처음에 하는 것)

20123-1	두벌 매다	두벌맨다
20123-2	마지막(세벌) 김매기	세벌맨다
20124	논둑	논뚜렁(큰 것)
20124-1	논두렁	새:뚝(좁은 것)
20125	밭둑	바뚜렁   두둑   두렁
20126	밭두둑	밭두둑
20127	밭고랑	바꼬랑
20128	밭이랑	고랑
20128-1	(밭이랑을) 타다/갈다/째다/파다	바꼬랑을 탄다
20128-2	이랑밟기	버리받 밟기   밀받 밟기   밟빠끼
20129	보리	보리   버리
20129-1	가을보리	보리   버리   갈:보리
20129-2	봄보리	봄빠리   봄버리   봄보리
20130	보리쌀	보리쌀
20131	가을갈이	갈:가리   갈:가리 친다   추경
20132	깜부기	깜:비기
20133	두엄	퇴:비   거름(퇴:비보다 옛말)
20134	거름	거름   거름준다

### 2.1.2. 타작

20201	추수하다	추수한다   갈:거지한다
20202	벼단	단:   나락판(옛말)   벼판
20202-1	벼단	한주먹판
20202-2	벼단	한주먹판, 두:주먹판
20202-3	벼단	묵판
20203	가리	티미
20204	가리다	나락티미 찐는다('찐는다'는 곡식, 돌 등에 씌)   집까린다   나락가린다(곡식에만 가리다를 씌)
20205	벧가리	티미
20206	난가리	*
20207	타작	타:작   탈고기라(요즘말)   타자칸다
20208	벼훑이	쫓찌개
20208-1	그네	훑찌개
20209	개상	개:상   자리개   cf.자리개 타작

20209-1	자리개	자리개끈   개:상 타자카는 끈
20209-2	자리개절	자리개 타자칸다   자리개지리라 카능 기여
20210	도리깨	도루캐
20210-1	도리깨장부	도루캐 장:치
20210-2	도리깨열	두루캐
20210-3	도리깨꼭지	꼭쭈마리
20211	벼짚	벼짚   나락짚
20211-0-1	-을	벼짚 가주와라   나락짚 가주와라  cf. 벼찌비   cf. 나락찌비
20211-0-2	-에	벼찌배 불내따
20212	새 꺾기	훼:기
20213	쭈정어	쭈정어   빈:쭈정어
20214	티	티가   티
20215	까끄라기	뽕씨미
20216	풍구	풍구   풍기
20217	원두막	원두막
20218	허수아비	허수아비
20219	흉년	흉년
20220	머슴	머섬(옛말)   일:꾼
20221	놉	날품꾼   풍꾼
20221-0-1	-을	품꾸널 산다   노벌 은는다
20222	품앗이	푸마시
20223	품삿	품쌈
20223-0-1	-으로	품쌈걸   품쌈그로

### 2.1.3. 방아 찧기

20301	방아	방애   방아
20302	디딜방아	디딜뽕아
20303	방앗공이	방애꼬   방애고
20304	방아확	확:   호악
20305	물레방아	물레방아
20306	연자방아	연자방아
20307	절구	도구통   도구방애   도구방아
20308	절구통	도구통
20309	절굿공이	도구때

20310	절구질	도구때질 한다
20311	겨	껍떠기
20312	보릿겨	버리껍떼기   버리덩기   덩기(옛말)
20313	왕겨	나락껍떼기   왕겨
20314	쌀겨	나락땅기
20315	검불	검부저기
20316	껍질	껍떼기(굴, 조개)   껍떠기

#### 2.1.4. 곡물

20401	곡식	곡씩
20402	찹쌀	찹쌀   차나락(옛말)
20403	멥쌀	멥쌀   메나락(옛말)
20404	쌀보리	쌀버리
20405	조	조(열매)   수수(식물)
20406	차조	찰조   차조
20407	메조	메조
20408	좁쌀	좁쌀
20409	잘다	잘다
20410	조이삭	수숙이사기나(옛말)   조이사기나(요즘말)
20411	수수	쭈수
20411-1	붉은색 수수	쭈:수
20411-2	장목수수	세:경쭈수
20411-3	찰수수	찰수수
20411-4	메수수	메수수
20412	수수깡	수수때   수수때공   수수#대공
20413	옥수수	옥쭈수   강냉이(옛말)
20413-1	찰옥수수	찰강냉이   찰옥쭈수
20413-2	메옥수수	메강냉이   메옥쭈수
20414	귀리	개버리
20415	메밀	메밀
20416	콩	콩
20417	콩깍지	콩깍때기
20418	메주	메주
20419	매달다	매:달지
20420	띄우다	띄운다   띄워

20421	곰팡이	곰:팽이
20422	강낭콩	유두콩
20423	콩기름	콩기름
20424	깨	깨
20424-1	참깨	창깨
20424-2	들깨	들깻넉(식물)   들깨
20425	고소하다	고춧다   고수워서

### 2.1.5. 채소

20501	채소	나물
20502	나물	산나물
20502-1	나물(밭)_재료	나물
20502-2	나물(밭)_반찬	나물
20502-3	나물(들)_재료	들라물
20502-4	나물(들)_반찬	쑥나물   씬병나물
20502-5	나물(산)_재료	산나물
20502-6	나물(산)_반찬	두릅나물   고사리나물
20503	푸성귀	나물
20504	다듬다	다듬넌다
20505	반찬	반찬
20506	무	무:
20507	썰다	썬:다   쓰러라
20508	무청	무이핀대   무입
20509	시래기	씨래기
20510	무말랭이	무:고재기
20511	장다리무	무종다리   종다리
20512	배추	배:추, 배:차(옛말)
20513	고깡이	꼬깡이   속:꼬깡이
20514	오이	오이   무뢰(옛말)
20515	오이지	장아치   오이장아치
20516	오이소박이	오이김치   오이소배기(조사자 제시)
20517	가지	가지
20518	호박	호:박
20519	고구마	고구마

20520	감자	감자
20521	우영	우영
20522	파	파
20523	고추	꼬추   고추
20524	시금치	시금치
20525	미나리	메나리
20526	부추	부:추   정구지(옛말)
20527	상추	상추
20528	마늘	마늘
20529	생강	생강
20530	냉이	냉:이   나싱개(옛말)
20531	달래	달래   달롱개(옛말)
20532	도라지	도라지   도래(옛말)
20533	더덕	더덕

## 2.2. 음식

### 2.2.1. 주식과 부식

20601	쌀밥	쌀밥
20602	찬밥	참밥
20602-1	더운밥	뜨심밥
20603	조밥	좁쌀밥
20604	누룽지	누룽지
20605	눌은밥	누룽지밥
20606	송농	송농이라카농 기여
20607	뜨물	뜸물   보리뜸물   쌀뜸물
20608	김(蒸氣)	짐:
20609	갱죽(羹粥)	진:넙죽(조사자 제시)
20610	싱겁다	싱겁따
20611	국수	국쭈
20612	칼국수	손꼭쭈   칼국쭈   국쭈(옛날에는 모두 국쭈)
20612-1	기계국수/틀국수	틀국쭈
20613	건더기	건디기   국#건디기
20613-1	국물	궁물
20614	고명	*



20615	꾸미	끼미(떡국에 맛나라고)
20616	미역	미여쪽   미역
20617	김(海苔)	김:
20618	수제비	쭈제비   쭈제비쪽
20619	끼니	때릴 굴머따   때(끼니보다 많이 사용함)   끼니
20620	미음	미음(죽보다 묽음)
20620-1	(미음을)끓이다/쭈다/삶다	쑤다 그라지
20621	엿기름	열절금
20622	식혜(食醴)	시캐(요즘말)   단술(옛말)
20623	식해	*
20624	달다(甘)	달다
20625	가루	가루
20625-0-1	-에	가루에다
20625-0-2	-을	가루럴
20625-0-3	-도	가루가   가루두
20626	밀가루	밀까루
20627	밀기울	지으리라   지을
20628	미숫가루	미수까루

### 2.2.2. 반찬과 별식

20701	간장	간장   장물(옛말)
20702	된장	텐:장
20703	고춧가루	꼬추까루
20704	고추장	꼬추장   고추장
20705	소금	소금   소금무레
20706	김치	배:추김치   김치루   찐지(옛말)
20707	김장	김치 당군다   찐지 당군다(옛말)   찐지(배추, 무, 깍뚜기 등을 통틀어 일컫기도 함)   김장 당군다 (과거와 현재 모두 사용함)
20708	깍뚜기	깍:뚜기   깍:뚜기 김치
20709	나박김치	김치쪽
20710	담그다	동:김치 당군다
20710-0-1	-고	당구구 이따
20710-0-2	-어라	당과라   당구라 그라지
20711	양념	양념

20712	버무리다	양념 버무리 는는다   버무리야(보조 제보자1)   버무리다
20713	버섯	버섯
20713-0-1	-이	버서시
20714	콩나물	콩나물
20714-1	콩나물	콩나물 반찬   콩나물 무침(보조 제보자1)
20714-2	숙주(나물)	숙쭈나물(보조 제보자1)   청포나물   숙쭈나물 반찬
20715	두부	두부
20716	비지	비지
20716-1	비지떡	비지전   비지떡
20717	달걀	달가리네   계란   달걀(옛말)
20718	가래떡	떡까래
20719	시루떡	시루떡
20720	송편	송편
20721	빻다	맹근다
20722	흰떡	절편 맹그는 떡
20723	고물	고물   떡꼬물
20724	팔죽	동지파죽   파죽
20725	새알심	새알수지비
20726	백설기	백설구
20727	튀밥	티밥
20728	술	술
20729	막걸리	막걸리   탁주
20730	소주	쏘주
20731	부침개	적   저걸 꺾:멍는다   저걸 부치멍넌다

### 2.2.3. 부엌과 그릇

20801	부뚜막	부뚜막
20802	가마솥	가마솥   가마소시라구   가마솥
20802-0-1	-을	가마솥 찢는다   가마쏘설 가주와라
20802-0-2	-에	가마쏘세
20803	아궁이	아궁이   부어가웅이
20803-0-1	-이	아궁이가
20804	그을음	ㄱ:럼   ㄱ:러미 부터따 cf. ㄱ:실리따

20805	불쏘시개	불쏘시개
20806	연기	영기
20806-1	내(煙氣)	*
20807	그을리다	끄실리따
20808	부지깽이	부지깽이   부주땡이
20809	부삽	불삽
20810	넙다	내굽따
20811	냄비	냄비
20812	그릇	그른   그르시라구
20812-0-1	-을	그르설
20813	뚜껑	뚜껑
20814	주발 뚜껑	놀뚜껑
20815	사발 뚜껑	사기뚜껑   사발뚜껑
20816	숟뚜껑	숟뚜껑
20817	밥주걱	주걱(통칭)   밥쭈걱
20818	손가락	수저(손가락, 젓가락을 통칭)   수깅
20819	젓가락	저범(옛말)
20820	종지	종발
20821	보시기	탕:끼
20822	뚝배기	투가리
20823	접시	접씨
20824	조리	조:로   조:리(보조 제보자1)
20825	이남박	함박
20826	바가지	바가지   방나물
20827	행주	행주
20828	행구다	행군다   행귀
20829	설거지	설거지
20830	개숫물	자심물
20831	찌꺼기	찌꺼기
20832	화로	화:로
20833	화롯불	화:로뿔
20834	부젓가락	불저까락
20834-0-1	-이	부저까락
20834-1	부손	불쏘시개
20835	다리쇠	삼바리(다리쇠와 다름, 동그랗고 밑에 다리가 세 개)   바리땡   차:납(조사자 제시)

20836	석쇠	적쇠
20837	도시락	도시락
20838	바구니	바구니(조사자 제시)
20839	뒤주	쌀뚜주   두주(통칭)
20840	찬합	*
20841	강판	*
20842	개다리소반	개다리상

## 2.3. 가옥

### 2.3.1. 방과 가구

20901	안방	안방
20902	벽	벼기지   벽   베름빡(옛말)
20903	다락	다라기구   다락
20904	벽장	벽짱
20905	감추다	감춘다
20906	흙	상처   흙겨리   흐:미(옛말)
20907	돌쩌귀	문쩌도리(숫쇠, 암쇠와 숫쇠의 통칭은 없음)   돌 쪼구(암쇠, 암쇠와 숫쇠의 통칭은 없음)   문:지도 리(숫쇠, 암쇠와 숫쇠의 통칭은 없음)
20907-1	암 짝	돌쪼구
20907-2	수 짝	문쩌도리   지도리
20908	미닫이	밀:창
20909	여닫이	문   여다지(조사자 제시)
20910	덧문	던문   덤문
20911	열다	열구   여러라
20912	문고리	몽꼬리
20913	자물쇠	자물통
20914	가치다	가쳐따   가쳐서
20915	열쇠	자물쇠(열:쇠)
20916	잠그다	장과야지   장과라
20917	구멍	구녀기   구멍이   구녀건
20917-1	취구멍	지구멍
20918	찢다	찢는다   찢저 논는다

20919	구들	구들   구돌   구돌   구두럴 뜨넌 사라미
20920	흙받기	흑판   흑빠지
20921	흙손	*
20922	흙칼	호칼
20922-1	흙칼(나무로 만든 것)	나무호칼
20922-2	흙칼(쇠로 만든 것)	호칼
20923	바르다	바른다   발러라   바르구
20924	장판	장판
20925	종이	종이
20926	도배	도배   도배한다
20927	구석	구석   구석찌
20928	굽도리	굽또리   굽또리한다
20929	깨끗하다	깨끄태저따   깨끄타다
20930	문지방	문찌방
20930-0-1	-에	문찌방애 안찌마라
20931	틈	문싸이에   트미라 쏘리는   문트미 버러저따   사이(틈과 같은 말이라고 함)
20932	가장자리	마루#가   가상이
20933	가운데	가운데   한복판(아주 중심)
20934	시렁	실경(전체)
20935	살강	실경   정제실경이지
20936	선반	섬반(조사자 제시)   성반
20937	서랍	서랍   빼다지(옛말, 조사자 제시)
20938	경대	화장대(요즘말)   경대(옛말)   거울(면:경과 체경 을 모두 거울이라고 함)
20939	거울	밍:경   면:경(작은 거)   체경(큰 거)
20940	걸다	건:다   거러라
20941	호룽	호룽

### 2.3.2. 건물

21001	지붕	지병   지붕
21001-0-1	-에	지붕에다
21002	기와	개와   개와년
21003	기와집	개와집
21004	수키와	수끼와

21005	암키와	암끼와
21006	대들보	대들뽀
21007	서까래	서까래
21008	추녀	귀통이(cf 추녀: 귀통이로 나가는 긴 서까래)
21009	처마	처마   처마끝   처마꼬터머리
21010	오두막	오두막쩍
21011	초가집	초가쩍
21012	이영	영
21012-0-1	-에서	영이라구   영얼   영마람 사이에서(영마람:영을 엮어서 말아 세운 것)
21013	용마름	용마람
21014	기스락	처마끄치라   처마끈
21015	낙숫물	처맘물
21015-1	기스락물	씨근물   집씨근물
21016	사닥다리	새다리(옛말)   사다리
21017	용마루	용마루   cf 용마루끼와   cf 용마루개와
21018	토방	뜨럭
21019	댓돌	*
21019-1	섬돌	뜰팡(마당에서 뜨럭으로 올라가게 계단식으로 놓은 돌)
21020	마루	마루(방 앞에 돌아가며 놓은 것)
21020-0-1	-에	마루에
21021	툃마루	쫑마루   툄마루(조사자 제시)
21022	기둥	지둥
21023	주춧돌	주춧뿔
21023-0-1	-을	주춧뿔
21024	굴뚝	굴:뚝

### 2.3.3. 마당

21101	뜰	화단(뜰은 집안에 처맘물 떨어지는 안쪽을 뜰이라고 함)
21102	마당	마당
21103	넓다	넙따
21103-0-1	-어서	넙버서
21104	넓히다	늘퀴야 된다   늘퀴야 된다(길)   널퍼야 된다(길)

21105	곳간	곡까나라구두 하구
21106	외양간	오양간
21107	마구간	외양간
21108	광	도장얼 광:(보조제보자1)   광:
21109	헛간	허간
21110	쓰레기	쓰레기(지금)   허텀설거지(옛말)
21111	장독대	장:짱
21112	장독 뚜껑	항아리 뚜껑
21113	변소	변소(요즘말)   치간(옛말)   디간(옛말)   똥시간(옛말)
21113-1	똥장군	똥짱군
21114	울타리	울따리
21115	담	담장
21115-0-1	-에	담장에
21115-0-2	-도	담장이   담장두
21116	사립문	삼짝
21117	뒤꼍	디뜰, 디안
21117-0-1	-에서	디아내서   디뜨래서
21118	바깥	바깥   바까치   바까틀
21118-0-1	-에	바까태 가서
21119	모퉁이	모퉁이
21120	모서리	모배기

#### 2.3.4. 마을과 가게

21201	마을	큰 동네   마을(요즘말)   동네(옛말)
21202	윗마을	우똥내(옛말)   움마을(요즘말)
21203	이웃	이운
21203-0-1	-이	이우싸라미   이우설
21203-0-2	-에	이우세
21204	마을가다	마시리라구 하지   마실간다   마시래 놀러간다
21205	우물	새:떨파   새암(옛말), 시암
21206	두레박	두릅박
21207	샘(泉)	움물
21208	가(邊)	주변   새암가시라구
21208-0-1	-을	시암 가설 둘러본다

21208-0-2	-에	시암 까새 푸리난다
21209	물지게	물찌개
21210	가게	상점  가:게(상점보다 옛말, 점방과 같은 말)   점: 빵(가장 오래된 말, 가게와 점방은 같은 말)
21211	싸다	싸다
21212	비싸다	비싸다
21213	흥정	흥정   흥정얼 한다
21214	거간꾼(중매인)	중개사   거관(옛말)
21215	잔돈	잔도느루
21216	에누리	까까달라   에누리(남는 돈의 뜻)
21217	거스름돈	거시름똥   거시름또널
21218	거스르다	거실러달라
21219	꾸다(借)	빌린다(요즘말)   꾸다(옛말)   채헨다(옛말)   채 헨다   채해달라(옛말)
21219-0-1	-어야	꿔:서   꿔:야   빌리서   빌려서   채해서   첸:다
21220	구두쇠	궁:그튼 사라미다   구두세가튼 사라미다
21221	말기다	매끼노코
21222	나머지	남는도는   나머지
21223	덤	더:무로   가외결루 더준다   덤:
21224	몫	내모가지다   내모기다
21224-0-1	-을	내 모걸 챙기따
21225	빛	비시 만:타
21225-0-1	-을	비설 가파따
21225-0-2	-에	비세
21226	이자(利子)	이자   이자럴
21227	심부름	심:부름
21228	두름	한짜(짜에다 담은 것)   한 간 두:간   한 두름 두 두름(한 간, 두 간과 같음)
21228-1	축	한 축
21228-2	꽤	한 축
21228-3	접	한 접
21228-4	쌈	한 쌈
21228-5	두름	쌈지   뭉치
21228-6	단/뭇	다발 cf 항개비, 두개비
21228-7	단/뭇	단:   한단 두:단
21228-8	툇	한 톤   토시라 카지



21228-9	모숨	한 오콤   두 오콤   오콤
21229	컬레	한 커리
21230	마지기	마지기
21230-1	한 마지기의 넓이	150평을 한 마지기
21231	꾸러미	한 줄, 두: 줄   주리라칸다구
21232	그루	한 나무, 두: 나무   항 구루, 두: 구루   동가리 (=토막, 끊었을 때)   한 주, 두: 주
21233	포기	포기
21234	저울	저울
21235	자루(包袋)	포대(요즘말)   자루나   자루두   자루라구두(옛말)
21235-0-1	-을	자루 좀 가져와라   자루럴
21235-0-2	-에	자루에다
21236	하나	하나
21236-1	한 개	항 개
21236-2	한 되	한: 되
21236-3	한 말	한 말
21237	둘	둘:
21237-1	두 개	두: 개
21237-2	두 되	두: 되
21237-3	두 말	두: 말
21238	셋	셋
21238-1	세 개	세 개
21238-2	세 되	세: 되   스: 되
21238-3	세 말	세: 말   스: 말
21239	넷	넌
21239-1	네 개	네: 개
21239-2	네 되	네: 되   느: 되
21239-3	네 말	네: 말   느: 말
21240	다섯	다섯
21240-1	다섯 개	다서 개
21240-2	다섯 되	다서: 때   단 때
21240-3	다섯 말	다섬 말   단: 말
21241	여섯	여섯
21241-1	여섯 개	여서 개
21241-2	여섯 되	여서: 때   열 때
21241-3	여섯 말	여섬 말   염: 말

21242	일곱	일곱
21242-1	일곱 개	일고 개
21242-2	일곱 되	일고 때
21242-3	일곱 말	일곱 말
21243	여덟	여덜
21243-1	여덟 개	여덜 개
21243-2	여덟 되	여덜 때
21243-3	여덟 말	여덜 말
21244	아홉	아호
21244-1	아홉 개	아호 개
21244-2	아홉 되	아호 때
21244-3	아홉 말	아홉 말
21245	열	열:
21245-1	열 개	열 개   열: 개
21245-2	열 되	열 때   열: 꽤
21245-3	열 말	열: 말
21246	스물	수물:
21246-1	스무 개	스무: 개
21246-2	스무 되	스무: 되
21246-3	스무 말	스무: 말
21247	서른	서른   서:룬
21247-1	서른 개	서룻: 개
21247-2	서른 되	서른 되
21247-3	서른 말	서른: 말
21248	마흔	마:흔
21248-1	마흔 개	마응: 개
21248-2	마흔 되	마흔 되
21248-3	마흔 말	마흔: 말
21249	쉰	췌:
21249-1	췌 개	췌: 개
21249-2	췌 되	췌: 되
21249-3	췌 말	췌: 말
21250	예순	예:순
21250-1	예순 개	예순: 개
21250-2	예순 되	예순 되
21250-3	예순 말	예순 말

21251	일흔	칠십   이르니라구두(옛말)
21251-1	일흔 개	이룬: 개
21251-2	일흔 되	이른 되
21251-3	일흔 말	이른 말
21252	여든	팔십   여드니라구두(옛말)
21252-1	여든 개	여든: 개
21252-2	여든 되	여든 되
21252-3	여든 말	여든 말
21253	아흔	구십   아흐니라구두(옛말)
21253-1	아흔 개	아흔: 개
21253-2	아흔 되	아흔 되
21253-3	아흔 말	아흔 말
21254	백	백
21254-1	백 개	백:
21254-2	백 되	백 꽤
21254-3	백 말	백 말
21255	이백	이: 백
21256	한둘	하나둘   한둘
21256-1	한두 개	한두 개
21256-2	한두 되	-
21256-3	한두 말	-
21257	두셋	둘셋   두셋
21257-1	두세 개	두세 개
21257-2	두세 되	-
21257-3	두세 말	-
21258	두서넛	두서넛
21258-1	두서너 개	-
21258-2	두서너 되	-
21258-3	두서너 말	-
21259	서넛	-
21259-1	서너 개	센내 개   서너 개
21259-2	서너 되	-
21259-3	서너 말	-
21260	네댓	너댓
21260-1	네댓 개	너대개
21260-2	네댓 되	-

21260-3	네댓 말	-
21261	대여섯	대여섯
21261-1	대여섯 개	다서여서깨   대여서깨
21261-2	대여섯 되	-
21261-3	대여섯 말	-
21262	예닐곱	여닐곱
21262-1	예닐곱 개	여서일고깨   여닐고깨
21262-2	예닐곱 되	-
21262-3	예닐곱 말	-
21263	일여덟	이고여덜
21263-1	일여덟 개	일고여덜깨
21263-2	일여덟 되	-
21263-3	일여덟 말	-
21264	여덟아홉	여덜아홉
21264-1	여덟아홉 개	여덜아홉깨
21264-2	여덟아홉 되	-
21264-3	여덟아홉 말	-
21265	여남은	여나문
21265-1	여남은 개	아호열 깨   여나무 개
21265-2	여남은 되	-
21265-3	여남은 말	-

## 2.4. 의복

### 2.4.1. 복식과 장식

21301	치마	치마   치매 지리기(보조 제보자1)
21302	길이	지리기
21303	저고리	저고리
21304	색동저고리	색똥저구리
21305	두렁이	배띠(보조 제보자1)
21306	무늬	무네
21307	고쟁이	고쟁이(보조 제보자1)   가랭이 고쟁이(보조 제보자1, 가랑이 터진 옷)
21308	바지	바지(옛말)   바지(요즘말) cf. 아래또리 양복(요즘말)

21309	두루마기	두루마기
21310	의복	이복
21311	구겨지다	꾸기저따   꾸기저
21312	웃고름	오꼬름
21313	단추	단추
21314	동정	동정
21315	걸	견
21315-0-1	-에	거테
21315-0-2	-을	거타구   거틀
21316	홀옷	호돈   호도시
21317	겹옷	겨븐
21318	잠방이	밤:바지   반:바지   호빠지
21319	누더기	그:지온   누:디기(옛말)
21320	거지	거:지   으더배기(옛말)   동냥아치(보조 제보자1)
21321	구걸	동냥하러   구걸한다(조사자 제시)
21322	조끼	쫓끼
21323	내의	소:곤   내:복
21324	껴입다	찌임는다
21325	소매	소매
21326	주머니	주머니
21327	호주머니	봉창   개:쭈미
21328	허리띠	허리빵(천)   혁때(가죽)
21329	댕기	댕기
21330	도포	도:포
21331	삿갓	사깁(비 피하는 것이고 대나무로 만든 것)   방:갓 (그림, 작은 것, 해가림)   방가시라구두
21331-0-1	-에	사까슨   사까세
21332	고깔	꼬:깔
21333	사모	사:모(허리띠는 관대)
21334	유건	유건
21335	대님	댄님
21336	감발	감:발
21337	짚신	집썸   집썰기(옛말)
21338	미투리	미:토리
21338-1	(짚신을) 삼다/만들다/트 다/결다	삼넌다

21339	나막신	나무깨다(나무 슬리퍼)   나무깨(나무 슬리퍼)   나막썬
21340	설피(雪皮)	*

## 2.4.2. 바느질과 세탁

21401	명주	명주   바:단
21401-1	명주실	명주실 cf. 명주 오시구
21402	목화	모과
21402-1	목화다래	다:래   모과다:래
21403	무명	무명
21403-1	무명실	무명실
21404	씨아	씨아시
21405	자새	자:새(조사자 제시)   cf 꼬뽕이 자:새(새끼를 꼬아서 감아 놓는 바)
21406	물레	물레
21407	베	베짖다
21408	질쌈	질싸만다   질쌈
21409	골무	골미
21410	반질고리	반질꺼리(반덜그릇에 넣는 것들)
21411	가위	가위   가새(옛말)
21411-0-1	-을	가새 사와라   가새털 이러빠려다
21411-0-2	-에	가새에   가위에
21412	마르다(裁)	마른다   말른다, 마르지(보조 제보자1)
21412-0-1	-고	말르기 위해서   마르고 이따
21412-0-2	-어라	마르거라   말라따   마르지 마라라
21413	형겔	홍:겹때기(보조 제보자1)   헌겹때기
21413-0-1	-을	홍:겹때기를
21413-0-2	-에	홍:겹때기에
21414	바늘	바늘
21415	꿰다	깎다
21415-0-1	-고	끼구 이따
21415-0-2	-어라	껴라   끼라   끼어 가주구   끼어따
21416	바느질	바느질   바늘질
21417	재봉틀	재봉틀
21418	끈	끈

21419	노끈	노(=노끈)   노끈
21420	참바	동애줄(짚으로 한 것, 굵게 한 것)   꼬뽕이(짚으로 하는 것이 보통임, 가는 것)   참바(삼으로 만든 것, 짚으로 만든 것)
21421	매듭	매등가지   매등가지가 생겨따
21421-1	(매듭을) 맺다/짓다/위다 /묶다	맹근다
21422	보자기	보   보자기(조사자)
21423	이불	이불
21424	숨	숨:, 소:떨
21425	포근하다	포근하다
21426	홀이불	혼니불
21427	겹이불	겹니불
21427-1	숨이불	숨:니불
21428	누비이불	니비이불
21429	베개	비:개
21430	베갯잇	호겹띠기   비개호청(보조 제보자1)
21430-0-1	-에	호청애
21431	목침	목치미라구두 하구   목침
21432	퇴침	퇴:침
21433	방석	자부동   방석, 방:석기여   깔뽕석
21434	담요	담:뇨
21435	빨래하다	빨래   빨래한다
21436	빨랫방망이	방맹이   빨래뽕맹이
21437	빨래터	빨래터
21438	빨랫줄	빨래줄
21439	다리미	다리미
21439-1	다림질	다리미질 한다
21440	인두	윤:두
21441	다듬잇방망이	다드미 방맹이
21442	다듬잇돌	따듬뚝   다듬뚝
21443	다듬이질	다드미질

## 2.5. 민속

### 2.5.1. 세시 풍속

21501	설날	설:   설:랄
21502	설	설:, 설:센다
21503	선달 그믐날	서:딸그믐날
21504	묵은세배	* cf 세:배(설:랄 아침에 함)
21505	올해	올해
21505-0-1	-는	·올해는   ·올개는 푸녀니 드러따(自)
21505-1	작년	장년
21505-2	재작년	재장년   cf 그재장년(재작년의 이전 해)
21505-3	내년	내년
21505-4	후년	내훈년
21505-5	내후년	저내훈년
21506	작은설	자근설
21507	웃	유시지   유:까주와라
21507-0-1	-을	유:설
21507-0-2	-에	유:세 마자따
21507-1	웃놀이	윤:노리
21508	웃가락	유:까치   가치
21508-1	도	또
21508-2	개	개
21508-3	걸	걸
21508-4	웃	윤:
21508-5	모	모
21509	단동	도
21509-1	외동무니	한동무니 간다   cf 한동무니 나따
21509-2	두동무니	어퍼따   두:동무니 어퍼따   cf 두동무니 나따
21509-3	석동무니	세: 개 어퍼따   세:동무니 어퍼따   석:똥무니   cf 세:동무니 나따
21509-4	넉동무니	마거퍼따   막#어퍼따   마거퍼따   늑:똥무니(옛 말)   네동무니(많이 사용함)   cf 망나따
21509-5	막동	망나간다
21509-6	단동무니	*
21510	보름	보름



21510-1	삭망	상망   삭-망
21511	추석	추석
21512	망월	달짬노리
21513	취불놀이	지불로리(논뚜럭, 밭뚜럭 태우는 것)
21514	자치기	자치기
21514-1	작은 막대	* (쪼만 막때기)
21514-2	긴 막대	자막때기
21515	수수께끼	수수께끼(조사자)
21516	호미씻이	백쫑노리   호무시 메긴다(옛말)   호무시(옛말, 일꾼들에게 놀리고 잔치를 베풀어 주는 일, 백쫑노리와 같다고 함)
21517	팽과리	깽가리
21518	장구	장:구
21519	결두리	새이   새이참   새:참
21520	무당	무:당
21520-1	박수	정쟁이   점쟁이(점만 하는 사람)   무:당
21521	고수레	고시래
21521-1	고수레!	고시래뿔 머꾸 자끼 잡썸 물러가라(점쟁이들이 하는 말)   고시래(일반인이 산이나 들에서)
21522	점쟁이	점쟁이
21523	상여(喪輿)	행상   상여
21524	굴건	굴건
21525	제사	기지사
21526	제기	목끼(나무로 만든 것)   제:기(통칭)
21527	귀신	몽다리기신(남녀를 모두)   기:신
21528	도깨비	도깨비

## 2.5.2. 농경용품

21601	고삐	꼬뽕이
21602	굴레	굴레   굴레 째다
21603	명에	명아   명에
21604	길마	질마   cf 옹기(거름 싣는 것), 걸채(벼 싣는 것)
21605	부리망	머거리   소머거리
21606	구유	구시
21607	작두	작뚜

21608	꿀	세:꿀   말꿀   꿀(조사자 제시)
21609	여물	여물
21610	쇠죽	세:죽   쏘죽
21611	쇠죽바가지	가마뺏   가매뺏
21612	수레	구루마
21613	끌다	끌구   끌른
21613-0-1	-고	끌코
21614	바퀴	바키
21615	새끼(繩)	새끼
21615-1	새끼(짐승의)	새끼
21616	망태기	망태기   cf 꿀망태(꿀 넣는 것)
21617	떡둥구미	둥기미   지부루 멍강기여
21618	거적	거적때기
21619	가마니	가마니
21619-1	가마니틀	가마니틀
21620	돛자리	도짜리
21621	자리틀	자리틀
21621-1	(자리틀) 짜다/치다/만들다/결다/매다	자리짚다
21622	왕골	왕골
21623	삼태기	산태미
21623-1	짚 삼태기	짚 산태미
21623-2	싸리 삼태기	어렁이
21624	명석	명석
21625	어레미	얼기미
21625-1	고운체	체(고운 것, 가루 치는 것)
21625-2	굵은체	얼기미
21626	대장장이	대장쟁이
21627	대장간	대장간
21628	풀무	불무
21629	모루	머리썰   메(큰 거)   cf 망치(작은 것, 손으로)
21630	모루채	*
21631	갈퀴	갈구리, 갈:키, 깔키   세깔꾸리
21632	집게	찌깨
21633	장도리	망치   장도리(=몹 빼는 망치)
21633-1	노루발	빠:루   노루발

21634	툽	툽
21634-0-1	-에	토배
21635	도끼	도:키
21636	자루(柄)	자루
21636-0-1	-을	자루털   날짜루털
21636-0-2	-에	자루예
21637	갈고리	갈꼬리
21638	썰기	썰:기
21639	송곳	송:곤
21639-0-1	-에	송고시라카능기여   송고세
21640	빼죽하다	빼쪼카지
21641	숫돌	수뜰
21641-0-1	-에	수또래
21642	맷돌	매내매 매뜰
21642-1	수쇠	메썰(통칭)   썩썰
21642-2	암쇠	암썰
21643	지게	지게
21644	발채	바:소고리 cf. 탕개튼다, 탕개
21645	지게 작대기	지게 작때기
21646	막대기	막때기
21647	몽둥이	몽덩이   몽둥이루

### 2.5.3. 생활용품

21701	빗자루	비짜루
21702	광주리	광주리
21703	소쿠리	소코리
21704	함지	함지(네모지게 짜서 담는 것)
21705	풀비	베매는 술:   술:   풀베
21705-1	귀알	풀베
21706	독	도건   독
21706-0-1	-에	·도개다
21707	물독	물항아리(작은 것)   물판지(큰 것)   물-단:지
21708	항아리	항아리(크기 순서: 독>단:지>항아리>병)
21709	단지	단:지   단지에다

21710	물동이	동이   물뚱이
21711	파리	파뱅이
21712	웅기	웅:기
21713	표주박	표주박
21714	키(箕)	칭이
21715	떡살	떡쌀
21716	다식판	다식틀(다식판도 쓴다고 함-조사자)
21717	시루	시루
21717-0-1	-을	·시루털
21717-0-2	-에	·시루애다
21718	시룻밑	엉그리
21718-0-1	-에	엉그리에
21719	시룻번	미렁번
21720	부싷돌	부세또린데
21720-0-1	-을	부세또털
21721	부시	부세
21722	부싷깃	부세 심지
21723	담배	담:배
21724	담뱃대	담배때
21725	담배설대	설쭈
21726	대통	대꼬바리
21727	물부리	물쭈   cf 대떠리
21728	담배쌈지	담배쭈머니(끈이 있음)   담배쌈지(끈 없음)
21729	부채	부채
21730	토시	토:시
21731	벼루	베루
21732	가락지	가락찌(옛말)   반지(요즘말)
21733	비녀	비녀
21734	참빗	참빈   참비시내
21734-0-1	-을	참비설   cf 열기비설
21734-0-2	-에	참비세   cf 열기비세
21735	열레빗	열기빈   열기비스루   열기비시내
21736	세숫대야	세수때
21737	비누	비누
21738	도투마리	도토타리
21739	활대	신발때

21740	잉앗대	잉애때
21741	부티	부테?   복테?
21742	도롱이	도링이

## 2.6. 인 체

### 2.6.1. 얼굴과 머리

21801	이마	이마
21802	이마빼기	이마뺍 = 마:뺍   마:뺍
21803	눈자위	*
21804	검은자위	꺼먹창
21805	흰자위	흰창
21806	눈꺼풀	능꺼풀
21807	거적눈	*
21808	눈썹	눈썹
21808-0-1	-이	눈썹비 빠저따
21809	속눈썹	송:눈썹
21809-0-1	-이	송:눈썹비
21810	눈두덩	눈뚜더개 cf. 운눈뚜더개
21811	안경	양:경
21812	안경집	양:경집
21813	돌보기	돌뽀기   뚝뽀기
21814	주름살	주름쌀
21814-0-1	-이	주름싸리
21815	엿되다	애때보인다
21816	수염	시염
21817	구레나룻	구진날구지
21817-0-1	-을	구진날구지럴   구진날구지 시여멸
21818	코	코
21818-0-1	-이	코가
21819	콧수염	·코씨염
21820	코딱지	코딱쟁이   코딱쟁이
21821	콧구멍	코꾸멍
21821-0-1	-을	코꾸멍얼
21821-0-2	-에서	코꾸멍에서

21822	콧물	콧무리   말근코가
21823	입술	입썰
21823-0-1	-에	입쭈래 밥티기가 부터따
21824	다물다	다문다   다무러라
21825	어금니	아금니
21826	던니	던니
21827	회파람	회파람
21828	침	침
21829	삼키다	생킨다   생키고 이따
21830	가래(痰)	가:래
21831	뱀다	뱀는다   배타라   배꼬이따
21832	혀	세
21833	헛바늘	세빠느리 선다
21834	긋볼	기뺨 cf. 전체는 기고
21835	귀고리	기고리
21835-1	귀걸이	기싸개
21836	귀지	기창
21837	귀이개	기지개
21838	소리	소리가   소리도
21839	엮들다	여:똥는다
21840	귀청	기창 떠러전다
21841	귀밑	기미티라구   기밑
21841-0-1	-에	기미태
21842	관자놀이	관대노리   관대뺨
21843	기미	지미가 낀다   기미가 끼다
21844	주근깨	주궁깨
21845	턱	턱   테가리(비칭)
21846	턱수염	턱씨염
21847	뺨	뺨
21847-1	볼	볼(볼과 뺨이 같은 부위라 함)
21848	가름하다	보자기   cf 계름하다(잘 못 생겼다)
21849	보조개	절쭈카다   둥구스름하다
21850	머리카락	머리카락
21851	비듬	기미   비듬(많이 사용), 비드미라구두 해요(조사자)
21852	기계총	기계뚝   기계또기 올라따
21853	정수리	배코( [백호] )

21854	대머리	대:머리   대:머리가 까저따
21855	고수머리	꼬두머리
21856	가르마	가름배
21856-1	가르마 타다/가르다/하다	탄다
21857	가마(旋毛)	가:마
21857-1	가마(鼎)의 성조 · 음장	가마소시라   큰 가마
21857-2	가마(轎)의 성조 · 음장	가:마
21857-3	가마(窯)의 성조 · 음장	가:마   웅기가마
21857-4	가마(가마니)의 성조 · 음장	가마니
21858	뒤통수	티통수
21859	뒗떨미	목떨미
21860	목	목, 모가지
21861	먹살	먹쌀(조사자 제시)   모가지

## 2.6.2. 상체

21901	어깨	어깨
21902	밀치다	미러따
21903	겨드랑	저드랑이
21904	등	등
21905	가슴	가슴
21906	걸리다	(담:)절린다   절린다   절리서
21907	갈비뼈	갈비뼈   갈비때(옛말)
21908	허파	폐   허파
21909	썰개	썰개   썰개
21910	콩팔	콩판   신:장
21910-0-1	-에	썸:장에   콩파세
21910-0-2	-을	신:장을   코파슬 이시때야 댄다
21911	팔	팔
21912	팔꿈치	팔꿈치
21913	팔짱끼다	저드랑 찌따   겨드랑 찌따
21914	손톱	손톱
21915	오른손	오른손   바른손(옛말)
21916	왼손	웬손
21917	다르다	딸리 이피먼   달르게
21917-0-1	-아서	다르니깨   달려서

21917-1	틀리다	틀리따   틀리지
21918	원손잡이	원손재비 cf. 오른손재비
21919	엄지손가락	음지송꼬락   엄지송꼬락
21920	집게손가락	인지송꼬락
21921	가운뎃손가락	중지   가운테 송꼬락
21922	약손가락	약찌   약찌송꼬락
21923	새끼손가락	새끼송꼬락
21924	생인손	생손   생손꼬락 알른다
21925	사마귀	샤:마구
21926	손아귀	아구썸   아구씨미 시다
21927	손목	팔목   손목   흘목
21928	뺨	뺨   함 뺨
21929	허리	허리
21930	지팡이	지팡이   개화장(옛말)
21931	옆구리	여꾸리
21932	간지럽다	간질커린다   간지루워서   간지러워
21933	간지럼	간지르물
21934	잔허리	짚로커리   짚록허리
21935	근육	그:늑   그:늑쌀
21936	배꼽	배꼽
21937	목물	등말   등말한다카지

### 2.6.3. 하체

22001	복사뼈	복송씨
22002	발가락	발까락
22003	발바닥	발빠닥
22004	발톱	발톱
22005	냄새	냄:새
22006	고린내	꼬랑내
22007	굳은살	뚝쌀
22008	정강이	앞짱갱이
22009	종아리	종아리(종아리와 장딴지가 같은 말이라 함)
22010	장딴지	장딴지
22011	회초리	해초리



22012	무릎	무릅꼭
22012-0-1	-을	무릅파글 다쳐따
22012-0-2	-에	무릅파게
22013	오금	오곰쟁이
22014	엉덩이	응:덩이   엉:덩이
22015	궁둥이	궁:덩이   볼:기짹(궁:덩이와 비슷함)
22016	볼기	볼:기짹
22017	멍	명드러따
22018	멍울	응어리가 생겨따
22019	가랑이	가래장이   가래쟁이   가랭이
22020	사이	이 썸이에   이 싸이에
22021	살	사타구니(여자에게)   가래장이(남자에게)
22021-0-1	-이	사타구니가   가래장머리가
22021-0-2	-을	사타구니털
22022	사타구니	*
22023	가래툰	가래토시 생겨따   가래툰
22023-0-1	-을	가래토설
22024	허벅다리	허벅따리(허벅찌와 구분하지 않는다고 함)
22025	넙적다리	허벅찌(허벅따리와 같음)   cf 넙적따리
22026	가부좌(跏趺坐)	책쌍다리   양반다리
22026-1	가부좌(跏趺坐) 치다/앉다/트다/꼬다/하다	책쌍다리루 안자따   꺾:서 안자따

#### 2.6.4. 질병과 생리

22101	감기	감:기
22102	기침	기치미 나지   기치멀
22103	재채기	재채기   재채기가 난다
22104	사레	사:레 들린다
22104-1	사레 들리다/만나다/걸리다	들리녕거
22105	딸꾹질	겔떼기   겔떼기를 한다   겔떼기가 난다
22106	트림	기트름   기트르미 난다
22107	곰보	곰:보
22108	천연두	쳐년두   손:님
22109	여드름	여드름
22110	학질	마라리아   초악

22110-1	하루거리	초아기네
22110-2	이틀거리	초악
22110-3	매일 앓는 학질	초악
22111	홍역	홍역
22112	불거리	가래톳   가래토시라   불거리(조사자 제시)
22113	땀띠	땀때기
22114	두드리기	두드리기
22115	버짐	비듬   버듬
22115-1	마른버짐	마름버듬
22115-2	진버짐	짐버듬   진버듬
22115-3	도장버짐	진:버듬   도장버듬(조사자 제시)
22116	문둥이	나병환자(요즘말)   문둥뽕환자(옛말)   문:덩이(옛말)
22116-1	문둥병	나:병(요즘말)   문:둥이뽕(옛말)   문둥뽕(옛말)
22117	부스럼	부시럼(머리에 많이 나는 것)
22117-1	종기	종:기(온몸 전체에 많이 나는 것)
22118	고름	고름
22119	곰기다	골무라칸다   공기먼 종:기가 되능거지
22120	난쟁이	·난:쟁이
22121	사팔뜨기	사:파리, 사:파리눈
22122	언청이	어청이
22123	소경	붕:사   맹:인
22123-1	당달봉사	·단달봉사
22124	애꾸	애꼬눈
22125	눈곱	눈꼽째기
22126	다래끼	다래키
22126-1	다래끼	우따래키
22126-2	다래끼	아래따래키
22127	절름발이	절름바리
22128	곱사등이	곱싸
22129	귀머거리	기머거리
22130	말더듬이	밤:병어리   반:병어리
22131	병어리	병어리
22132	잠꾸러기	잠청이
22133	줄리다	줄리나   줄리지요
22134	하품	하품 나지
22135	졸음	조르미 온다

22135-0-1	-을	조르멀
22135-0-2	-에	자매 겨워   조르미 겨워서
22136	잠꼬대	장꼬대한다

## 2.7. 육아

22201	입덧	입똥   입똥탄다
22201-0-1	-을	입똥슬
22202	갓난아이	깐나나   깐난아기
22203	어린아이	어리나   어린아기
22204	경기(驚氣)하다	놀:래따   경끼가 나따
22205	눅히다	누피구
22206	계집아이	여시가   지지바(비칭)
22207	예쁘다	이뿌다
22208	사내아이	머시마(조금 비칭)   남자아
22209	아우 타다	아수탄다
22209-1	아우보다	아수바따
22210	야위다	말라따   여여따   패리해저따
22211	쌍둥이	쌍둥이
22212	오줌	오줌   소:변
22213	똥	똥
22214	기저귀	기저기
22215	뉘다(排便)	뉘 주야   뉘 준다
22216	방귀	방:구
22216-1	뀌다	깁다   끼:만
22217	구린내	·꾸룬내
22218	구리다	꾸리다
22219	포대기	퍼대기
22220	기지개	지지개 쓴다   기:지개 쓴다
22220-1	기지개를 켜다/하다/쓰다	쓴다
	/퍼다	
22221	거짓말	거:짐말
22222	남부끄럽다	남부꾸룸따   남사시룸따(조사자 제시)
22223	겹쟁이	겹쟁이
22224	불쌍하다	불쌍하다

22225	죄암죄암	지암지암   잼:잼
22226	곤지곤지	진:진   진:진진:진 한다
22227	따로따로	따루따루 해라
22228	도리도리	도리도리
22229	짹짹	짹짹
22230	부라부라	불무:불무:(좌우로)   들랑날랑(앞뒤로)
22231	걸음마	거름마
22232	아장아장	아장아장  cf. 드문드문, 뚜벅뚜벅
22233	넘어지다	자빠지지   업:뜨러전다
22234	곤두박질	꺼꿀루 내리 배킨다   쭈시 배किन 거
22235	안기다	앵긴다   앙긴다
22236	바람개비	발랑개비
22237	호드기	헤띠기(작은 것), 통수(굵고 긴 것)
22238	숨바꼭질	숨바꼭질
22239	소꿉놀이	반두깨비노리
22240	사금파리	새금파리
22241	연	연:
22241-1	방패연	방패연
22241-2	가오리연	가오리연
22242	걸리다	걸치지, 걸치여   걸치녕 거지
22243	고누	*
22244	땅뻗기	땅뻗끼   땅뻗끼노리
22245	팽이	팽이
22246	딱지치기	딱찌치기
22247	구슬	마:부리   다마(일본말)   다마치기(일본말)
22248	그네	구네
22248-1	그네를 뛰다/타다/구르다	구네 띄기   떤다
22249	밑신개	발판
22250	굴렁쇠	굴:렁세(조사자 제시)   도롱태(조사자 제시)
22251	굴리다	돌리기 한다
22251-0-1	-고	돌리고
22251-0-2	-어야	굴리서   굴려서
22252	자전거	자전거
22253	몽말	몽마 태운다   몽마 태와준다
22254	말타기	말타기 한다   말타기 노리한다
22255	달음박질	다름박질 천다

22256	썰매	썰매
22256-1	얼음을(썰매를) 지치다/타다	탄다
22256-2	송곳	송곳   송고스로
22257	엄살	엄살
22257-1	(엄살) 부리다/피우다/떨다/하다	엄살편다
22258	부아	화:가 난다(부애난다와 같다고 함)   부애 난다

## 2.8. 친족

22301	아버지	아버지
22301-1	아버지(호칭)	아버지   아빠(어릴 때)
22302	어머니	어머니
22302-1	어머니(호칭)	어머니   엄마(어린 사람이 씀)
22303	할아버지	하라부지   하라버지   하라부지
22303-1	할아버지(호칭)	·하라부지
22304	할머니	할머니
22304-1	할머니(호칭)	할머니
22305	남편	남편
22305-1	남편(호칭)	여보
22306	아내	집사람(젊을 때)   안싸람(중년 이상)   아내(젊었을 때, 친구에게)   내:자(중년 이상)   식꾸(나이 많을 때, 젊었을 때도)
22306-1	아내(호칭)	여보
22307	형	형님(성숙한 후, 장가 갈 나이 이상)   형(어렸을 때)
22307-1	형(호칭)	형님(성숙한 후)   형(어렸을 때)
22308	아우	동생(어렸을 때, 성숙한 후)   동상   아우(성숙 18세 이상, 옛날에는 15세 이상)
22308-1	아우(호칭)	·동생, 이름부름(어릴 때)
22309	누나	누님   누이   누나
22309-1	누나(호칭)	누나   누님
22310	누이	동생
22310-1	누이(호칭)	이름(어릴 때), 동생
22311	자식	자식   자시기
22312	만아들	만짜식   마다덜
22313	만딸	만딸

22314	막내	종마리(남녀 구분 없음)   망내
22315	오빠	오빠(어릴 때)   오라버니
22315-1	오빠(호칭)	오빠   오라버님   오라버니
22316	언니	형님   형(언니는 지금 쓰는 말이라고 함, 언니는 존대하는 말이 아니라고 함)
22316-1	언니(호칭)	형님, 형
22317	아비	애비(아이 있을 때)   이럼 부르기도
22317-1	아비(호칭)	이럼   OO애비, OO애비야   OO애비
22318	어미	애기   에미
22318-1	어미(호칭)	OO에미   아덜 이르멜 불르지   OO에미야
22319	손자	손자
22320	손녀	손녀
22321	사위	사우
22321-1	사위(호칭)	O스방
22322	외손자	왜손자
22323	외손녀	왜손녀
22324	꾸짖다	꾸지저 준다 cf. 타일르지, 타이르능 거, 타일러 준다
22324-0-1	-고	꾸지꼬 있다 cf. 타일르고, 타이르고
22324-1	나무라다	나무래준다   나무래고
22325	총각	총:각
22326	처녀	처:녀
22327	혼인	겨론   호닌   호닌시기라고는 잘 안 함
22327-1	혼인식	겨론식
22328	혼인 잔치	잔:치 한다   겨론잔치
22329	장가가다	장:가 간다
22329-1	시집가다	시직 깐다
22330	혼숫감	혼수   혼수감
22331	함	사:주함   함
22332	겹사돈	접싸돈
22333	새색시	새닥
22333-1	새색시(호칭)	새새닥
22334	시아버지	시아버지   cf. 시하라부지
22334-1	시아버지(호칭)	아번님
22335	시아머니	시아머니   cf. 시할머이
22335-1	시아머니(호칭)	어먼님

22336	비위	비우렐
22337	아주버니	시아주먼님
22337-1	아주버니(호칭)	시아주먼님
22338	서방님	시동생
22338-1	서방님(호칭)	서방님
22339	도련님	시동상
22339-1	도련님(호칭)	시동생님   도련님
22340	형님	형님
22340-1	형님(호칭)	동서:(윗동서가 아랫사람 부를 때)   형님
22341	시누이	시누
22341-1	시누이(호칭)	형님
22341-2	아가씨	아가씨
22341-3	아가씨(호칭)	아가씨
22342	올케	올케
22342-1	올케(호칭)	올케   형님(나이 많으면)
22343	매형	매형   자형
22343-1	매형(호칭)	매형
22344	매제	매제
22344-1	매제(호칭)	매제   O스방
22345	큰아버지	크나번님   백뿐님   크나부지
22345-1	큰아버지(호칭)	크나번님   크나부지
22345-2	아버지의 둘째 형(호칭)	크나부지, 크나번님(호칭)   둘째 크나부지(지칭)
22345-3	아버지의 셋째 형(호칭)	셋째 크나부지(지칭)   크나부지, 크나번님(호칭)
22346	큰어머니	크너먼님   뱅몬님
22346-1	큰어머니(호칭)	크너먼님   크너머니
22346-2	아버지 둘째 형의 아내(호칭)	둘째 크너먼님(지칭)
22346-3	아버지 셋째 형의 아내(호칭)	셋째 크너먼님(지칭)   크너먼님(호칭)   크너머니
22347	큰집	큰집(둘째 이하는 자근지비라고 함, 제일 맏집만 큰지비라고 함)
22348	작은아버지	삼촌   자그나부지
22348-1	작은아버지(호칭)	자그나부지
22349	작은어머니	자그너머니
22349-1	작은어머니(호칭)	자그너머니
22350	삼촌	삼촌
22350-1	삼촌(호칭)	삼촌
22351	아저씨	당숙   아자씨

22351-1	아저씨(호칭)	당숙아자씨
22352	아주머니	아주머니
22352-1	아주머니(호칭)	당수아주머니
22353	조카	조카
22354	조카딸	조카딸
22355	고모	고모
22355-1	고모(호칭)	고모   고몬님
22356	고모부	고모부
22356-1	고모부(호칭)	고모부님
22357	고종	고종사촌   고종   고종가니다
22358	이모	이모
22358-1	이모(호칭)	이모   이몬님
22359	이모부	이모부
22359-1	이모부(호칭)	이모부   이모분님
22360	이종	이종   이종사촌 간   이종사촌
22361	외삼촌	왜삼촌
22361-1	외삼촌(호칭)	왜삼촌
22362	외숙모	왜송모
22362-1	외숙모(호칭)	왜송모
22363	외중	왜사촌
22364	외할아버지	왜하라부지
22364-1	외할아버지(호칭)	왜하라부지   왜하라분님
22365	외할머니	왜할머니
22365-1	외할머니(호칭)	왜할먼님   왜할머니
22366	장인	장:인   병장
22366-1	장인(호칭)	병장님
22367	장모	장:모   병몬님
22367-1	장모(호칭)	장몬님   병몬님
22368	처남	처남
22368-1	처남(호칭)	형님   동생(손아래)   처남(손아래)
22369	처남댁	처나무댁
22369-1	처남댁(호칭)	처나무댁? (형수님이라고는 안한다고 함)
22370	홀아비	호래비
22371	홀어미	호래미   호러미
22372	계모	서:모(결혼식을 안 한 사람)   계:모(정식으로 결혼한 사람)



22372-1	계부	이부대비
22373	아저씨	동네아자씨
22373-1	아저씨(호칭)	아자씨   항꼴 아자씨(宅號+아자씨)
22374	아주머니	동네아주머니   동네아주마니   아줌마(비칭)
22374-1	아주머니(호칭)	택호+아주머니
22375	사나이	장:사(특히 힘이 센 사람)   장:정(장성한 사람, 어른이 된 사람)
22376	영감	손자이름+하라부지   영감
22376-1	할머니를 낮추어 말할 때(저 늙은 할망구)	손자이름+할미(평칭 이하)   손자이름+할머니(평칭)   할망구(욕이나 비칭은 아님, 친하게 쓰는 말)
22377	나이	나이   연세
22377-0-1	-를	나이럴
22378	환갑	항갑   항가배   환:갑
22378-1	환갑잔치	항갑잔치
22379	사투리	사:투리   지방사투리

## 2.9. 동물

### 2.9.1. 물에 사는 동물

22401	물고기	고기   물꼬기
22402	민물고기	뭍물꼬기 cf. 바다물꼬기
22403	피라미	피리
22404	지느러미	가재미?   지느러미(꼬리 빼고)
22405	아가미	아가미
22406	창자	창사구
22407	송사리	송사리 떼
22408	헤엄	히엄친다   헤엄
22409	메기	메:기
22410	자라	자:라
22411	거북	거부기
22412	미꾸라지	미꾸라지
22413	개구리	깨구리   개구리
22414	올챙이	올챙이
22415	두꺼비	두꺼비   두께비
22416	거머리	거:머리
22417	다슬기	올뱅이   고:덩이

22418	우렁이	논올뱅이
22419	고등	올뱅이
22420	달팽이	달:팽이
22421	새우	새우
22421-1	새우(대)_민물	징:기미
22421-2	새우(소)_민물	새뱅이
22421-3	새우(대)_바다	대:하
22421-4	새우(소)_바다	새우
22422	새우젓	새우젼
22422-0-1	-이	새우저시   저슨 마:니 이쓰니까
22423	가재	가:재
22424	갈치	갈치
22425	고등어	고등어
22426	가오리	가오리
22427	가자미	가재미
22428	멸치	메루치   멸치
22429	명태	명태
22429-1	동태	동태
22429-2	황태	부거
22429-3	노가리	명태새끼   노가리
22429-4	북어	부거
22429-5	생태	명태   생태
22430	조기	조구   조기   굴비
22431	도미	도미?
22432	뱀장어	장:어   뱀:장어
22433	낙시	낙씨
22434	미끼	낙씨뱀   미끼
22435	낙깃대	낙씨때
22436	얼레	자:새   실짜새
22437	조개	조:개
22438	소라	소라

## 2.9.2. 곤충과 벌레

22501	벌레	벌레   벌거지(옛말)
-------	----	--------------

22502	날벌레	날빨거지
22503	파리	파리
22503-1	쉬파리	똥파리
22504	쉬슬다	시씨러따
22505	가시	까시씨러따   시씨러따 cf. 기:디기(큰 거)
22506	진딧물	뚝물
22506-1	(진딧물) 끼다/얹다/생기다	끼:따
22507	잠자리	잠자리
22508	방아깨비	땅개비
22508-1	암컷	땅개비
22508-2	수컷	깨때기
22509	메뚜기	메띠기   메뚜기
22510	여치	연:치
22511	사마귀	사:마구   버:무땅개비
22512	벌	벌:
22512-1	(벌) 치다/기르다/키우다	벌 천다   버를 친다
22513	땅벌	땅빨
22514	나비	나비
22515	하루살이	하루사리
22516	풍덩이	풍덩이   핀덩이
22517	모기	모:기   모:구
22518	장구벌레	물빨거지
22519	매미	매:미
22520	개똥벌레	개똥벌거지   개똥벌레
22521	반딧불	개똥불
22522	거미	거:미
22523	굼벵이	굼:벵이
22524	구더기	기:디기
22525	노래기	노내각씨
22526	그리마	거르매
22527	지네	지네
22528	개미	개:미
22529	바구미	바:구미
22530	진드기	가버진지
22531	벼룩	빼룩   빼루기
22532	이(蟲)	이:

22532-1	서캐	세카리
22532-2	빈대	빈대
22533	송충이	송충이
22534	귀뚜라미	끼뜨라미
22535	누에	누에
22536	고치	꼬추   꼬치
22537	번데기	번디기
22538	지렁이	지렁이   꿈:깡이
22539	회충(蛔蟲)	해충
22540	소금쟁이	소금장사?(검은색)   물꺼미?(회색)
22541	방개	방:개   똥방개(검은색)   암빵개(흰색 테두리가 있음)

### 2.9.3. 가축

22601	가축	가축
22602	암소	암소
22603	송아지	송아지
22604	송아지 부르는 소리	내:미내미
22605	황소	수쑈   황소
22606	길들이다	기털 디리야지
22606-1	소 모는 소리_앞으로 가라	이라
22606-2	소 모는 소리_그 자리에 서라	워:
22606-3	소 모는 소리_오른쪽으로 돌아	이랴로
22606-4	소 모는 소리_왼쪽으로 돌아	어더더더더
22606-5	소 모는 소리_뒤로 물러나라	물러:
22607	쇠고기	소고기
22608	고기(肉)	고기
22609	들치	들치
22610	꼬리	꼬리
22611	망아지	말망아지
22612	당나귀	당나귀
22613	갈기	갈기머리(조사자)

22614	돼지	돼:지
22614-1	멧돼지	메때지
22615	주둥이	cf 거:두리   주둥이
22616	돼지 머리	대지 대가리(비칭, 평칭)   대지 머리(평칭)
22617	돼지우리	대지우리   대지막
22617-1	오래오래	오래오래
22618	개(犬)	개
22618-1	수개	쭈개
22618-2	암개	암개
22619	강아지	강아지
22620	염소	염소   염생이 cf. 뱅염생이
22621	고양이	고양이
22621-1	수고양이	·수꼬양이
22621-2	암고양이	·암고양이
22622	토끼	토끼   cf. 산토끼
22623	거위(鵞)	게우   거위
22624	암탉	암딱
22625	병아리	병아리
22626	모으다	모은다
22627	수탉	장딱
22627-0-1	-이	장따기 울:먼
22628	벃(鷄冠)	벼슬
22629	부리	주둥아리
22630	모이	모시
22630-0-1	-을	모시털
22630-1	모이다	모여든다
22631	닭털	터리지   닥털
22632	닭똥	달기똥
22633	어리	병아리통(많이 씹)   둥어리
22634	닭장	닥쩍   달기집   달기장
22635	둥우리	알똥어리
22636	날개	날개   cf. 당날개
22637	깃	지털
22637-0-1	-을	지터리라구

#### 2.9.4. 들짐승과 날짐승

22701	호랑이	호:랑이   범:
22702	살쾡이	살가지
22703	여우	여우
22704	원숭이	원:숭이
22705	사슴	사슴
22706	노루	노:루
22706-0-1	-이	노루가
22706-0-2	-을	노루털
22707	고슴도치	고슴도시
22708	두더지	두더지
22709	족제비	족제비
22710	뱀	비암   뱀:
22711	도마뱀	도내비암
22712	구렁이	구렁이
22713	살무사	독싸
22714	생쥐	새양지
22715	박쥐	박:찌
22716	거꾸로	꺼꾸루   꺼꿀루
22717	다람쥐	다람지
22718	새(鳥)	날짐성   새
22719	꿩지	꼬랑지
22720	솔개	솔개
22721	독수리	독쭈리
22722	제비(燕)	제:비
22723	두루미	두루미
22724	소쩍새	소쪽새
22725	평	평
22726	장끼	장평   장:끼
22727	까투리	암평   ?까토리
22727-1	꺼병이	꿩예병아리
22728	종달새	노고조리
22729	빼꾸기	소쪽새가 빼꾸기여
22730	기러기	기러기

22731	뜸부기	뜸부기
22732	올빼미	오빼미 cf. 부엉이
22733	까치	칸치   까:치
22734	딱따구리	딱따구리
22735	덧	차구(쥐 잡는 것, 쪽찌비 차구)   차개(새 잡는 것)   쪽찌비차구
22735-0-1	-을	차구ړ
22736	올가미	홀몽가지

## 2.10. 식물

### 2.10.1. 꽃과 식물

22801	진달래꽃	진달래   창꼬시라구
22802	철쭉꽃	개:쭉   철쭉꼬시라구
22803	민들레	민들레(조사자 제시)
22804	맨드라미	민들래미
22805	봉선화	봉송아
22806	파리	파:리
22807	해바라기	해바라기
22808	꽃봉오리	몽아리   꾀몽아리
22809	시들다	시드러저따   시든다
22810	질경이	질강이
22810-1	질경이(식물 이름)	질강이
22810-2	질경이(식용(반찬) 이름)	질강이나물 반찬
22811	뽕기	뽕뽕
22812	비름	비름   참비름
22813	쇠비름	세:비름
22814	씀바귀	썸냉이   썸바구(조사자 제시)   썸나물(통칭)   썸버구(입썸기만 면는다고 함)
22815	고들빼기	꼬들빼기
22815-1	고들빼기(식물 이름)	꼬들빼기
22815-2	고들빼기(식용(반찬) 이름)	썸나물반찬   꼬들빼기김치
22816	고사리	고사리
22817	고비	*
22818	도깨비바늘	진동찰

22819	도꼬마리	도꾸마리
22820	억새	억새풀   억새
22821	갈대	갈때
22822	이끼	이:끼
22823	아주까리	아주까리
22824	담쟁이	*
22825	수세미	쭈세미
22826	덩굴	녕쿨
22827	덤불	덩쿠리
22827-1	가시덤불	까시덩쿨
22828	잔디	짚디   잔디

## 2.10.2. 나무

22901	소나무	소나무
22902	솔방울	솔뽕울
22903	관솔	광솔
22904	솔가리	갈비
22905	그러모으다	글거 모은다
22906	뽕나무	뽕나무
22907	오디	오돌갱이
22908	도토리	굴밤
22909	떡갈나무	떠갈
22910	상수리	창굴밤
22911	옷	온나무   오칠   오시라
22911-0-1	-으로	오칠한다   오선
22912	버드나무	버드나무
22913	느티나무	느티나무   느트나무 cf. 정자나무(마을 입구나 마을 어디에 그늘이 있어 쉴 수 있는 큰 나무)
22914	그림자	그림자
22914-1	그늘	그느리
22915	숲	수비
22915-0-1	-을	수벌
22915-0-2	-에	수피 우거진
22916	시원하다	시어나다
22917	절레	절레꼰   절레꼬시



22918	칠	칠거지(옛말)   칠거지덩쿨
22918-0-1	-에	칠거지덩쿨레
22919	가지(枝)	가지
22920	끌	끄터머리
22920-0-1	-이	끄시지
22920-0-2	-을	끄터머리를
22920-0-3	-에	끄터머리에   끄테
22921	삭정이	삭따리
22921-1	삭정이를 판다/꺾다/하다	깡는다   판다
22922	나무	나무
22922-0-1	-을	나무럴
22922-0-2	-에	나무에
22923	나무하다	나무해 온다   나무하루 가따
22924	그루터기	미똥아리
22924-1	그루터기	미똥아리
22925	등걸	원목   등크럭(벤 채로 남겨 둔 것)
22926	장작	장작
22927	패다	짜깁다   팬다
22928	부스러기	찌꺼기   뿌시리기   뿌시러기
22929	숫	순
22929-0-1	-이	수시지
22929-0-2	-을	수설
22929-0-3	-에	수세다
22930	불잉걸	알부리나마따
22931	썩	순(가지에서)   수니(가지에서)   싸기(땅에서)
22932	잎	입싸구
22932-0-1	-을	입싸기   입싸기를   입싸군
22932-1	잎사귀	입싸구
22933	가랑잎	가랑니피라구   가랑니비라구
22934	뿌리	뿌링이

### 2.10.3. 과일과 열매

23001	능금	능금(옛말)   cf. 사과(사과를 옛날에 능금이라 함)
23002	돌배	돌배

23003	복숭아	복쑹아
23004	곶감	꼬감
23005	홍시	홍시
23006	고욤	고욤 cf. 고욤나무
23007	살구	살구
23008	앵두	앵두
23009	자두	자:두
23010	오얏	옹애
23010-0-1	-을	옹애럴
23011	석류	성뉴
23012	모과	모:과
23013	과일	과:일
23014	꼭지	꼭때기   꼭찌
23015	밤	밤:
23015-1	밤송이	밤:송이
23015-2	팻밤	푼뽀
23015-3	알밤	알밤
23015-4	쌍둥밤	쌍아리   쌍아리밤
23016	보늬	밤:버니기   버니기
23017	호두	호두   추자(옛말)
23018	가래(秋子)	*
23019	개암	깨금
23020	머루	머:루
23021	다래	다:래
23022	청미래덩굴	망개덩쿨
23023	으름	어:름
23024	참외	차:메   외:(통칭)
23025	딸기	딸기
23025-1	딸기(밭)_재배	딸기   산딸기
23025-2	딸기(밭)_야생	*
23025-3	딸기(들)_재배	*
23025-4	딸기(들)_야생	개미딸   덤불딸기
23025-5	딸기(산)_재배	*
23025-6	딸기(산)_야생	녕쿨딸기   나무딸기   산딸기   덤불딸기
23026	뱀딸기	개미딸   개미딸기
23027	마름(菱)	*

## 2.11. 자연

### 2.11.1. 산과 들

23101	산꼭대기	상꼭때기
23102	기슭	지슬가지
23102-0-1	-에	지슬가지에
23103	골짜기	골짜기   산꼴짜
23104	메아리	사눌림
23105	고함	감:
23105-1	(고함) 치다/지르다/하다	감: 지른다
23106	묘	산소   뵤
23107	뿔자리	뿔짜리 보러 땡긴다   산소짜리 보러 땡긴다
23107-1	광중	광:정
23108	구덩이	구덩이
23109	비탈	삼빠야리
23110	가파르다	까폴다
23111	언덕	언덕
23112	낭떠러지	절벽(바위로 되어 있음, 바위가 까까지른 듯이 된 곳)   cf. 베랑(벼랑은 바위가 튀어나와 아래가 빈 공간인 곳)
23113	들(野)	들:판
23113-0-1	-에	들파네
23114	벌	벌판(논밭이 없는 곳)
23115	갈림길	쌍갈래길   갈라정 길(여러 갈래)   갈림길(조사자 제시)
23116	헤어지다	갈라진다   헤어진다
23117	바위	바우(박힌 것)   바위뿔   바우뿔
23117-0-1	-을	바우럴
23117-0-2	-에	바우예   바위에
23118	돌(石)	돌:멩이
23118-0-1	-을	돌멩일 cf. 돌멩이가
23118-0-2	-에	돌:멩이에
23119	자갈	자갈
23120	모래	모새
23120-0-1	-를	모새럴
23121	진흙	진흙

23121-1      찰흙

지:르기라 그라지 | 질:흙 | 찰흙

## 2.11.2. 강과 바다

23201	물	무ړ
23202	거품	거품
23203	개운하다	깨우나다
23204	도랑	도:랑(도랑(작음)<내:(중간)<강(큼))
23204-1	붓도랑	보또랑
23205	둑	뚝(작은 것) cf. 방:천   제:방   무너미(물 빠져 나가는 곳)
23206	잠기다	쟁기따
23207	개울	개울(도랑<개울<내<강)
23208	내(川)	내
23209	미역 감다	미역 껌는다
23210	발가승이	빨가덩이
23211	목욕하다	모욕, 모욕하루 간다   찰:넌다
23212	수채	수채   수채꾸넉
23213	개굴창	하수구   또랑   개굴창이(조사자 제시)
23214	시궁창	개굴창
23215	웅덩이	웅:덩이
23216	수렁	수:
23217	늪	느비라구두   늪찌대
23217-0-1	-에	늪찌대에 빠져따
23218	배(船)	배
23219	나루터	나루터
23220	돛	돛판배   돛
23220-0-1	-에	도세   도시
23221	돛대	도때
23222	돛배	돛판배
23223	돛 줄	도쭈리지
23224	돛줄	?다실끼여 달
23225	거루	*
23226	상앗대	?사때
23227	개펄	개빨
23228	물	육찌

23228-0-1	-으로	육찌루
23229	밀물	밀물
23230	썰물	썰물
23231	가라앉다	가라안자따   cf 침수대따
23232	그물	구물
23233	해녀	해:녀

### 2.11.3. 시후

23301	새벽	새벽   새병녀캐 가따   새벽 찌내
23302	새벽밥	새벽빤
23303	아침	아침
23304	아침밥	아침   아침식짜   아침빤   조:시칸다
23305	점심	전:심
23306	저녁	저녁
23307	설핏하다	저무러간다   설푸타다(해가 있고 불으스레할 때)
23308	노을	노을
23308-0-1	-을	노오렐 보고 이따
23309	불그레하다	북따   불그스름하게 퍼저따
23310	해거름	해거름판   해거름파니 돼:따
23311	땅거미	땅꺼우리 생긴다
23312	봄	봄
23313	여름	여름
23314	더위	더우가   더위가
23315	추위	추우가
23316	가을	가으리지   가으리
23316-0-1	-에	가으래 한다   가으래
23317	겨울	겨을
23317-0-1	-에	겨으래
23318	얼음	어러미
23319	오늘	오닐
23320	내일	내일
23321	모레	모:래
23322	글피	글패
23323	그글피	그글패

23324	어제	어제
23325	그저께	아:래
23326	그그저께	그아래
23327	훗날	후일
23328	하룻날	하룻날
23329	이튿날	이튿날
23330	사흘날	사흘날
23331	나흘날	나흘날
23332	닷셋날	달썬날
23333	엿셋날	열썬날
23334	이렛날	이렌날
23335	여드렛날	여드렌날
23336	아흐렛날	아흐렌날
23337	열흘날	열흘날
23338	하루	초하루
23339	이틀	이틀
23340	사흘	사흘
23341	나흘	나흘
23342	닷새	달썬
23343	엿새	열썬
23344	이레	이레
23345	여드레	여드레
23346	아흐레	아흐레
23347	열흘	열흘
23348	한나절	반나절
23348-1	반나절	바내반나절
23349	그믐	그믐날   그믐
23349-1	그믐께	그믐께   cf 보름께
23350	지금	지금
23351	아직	아직
23352	이제	지금 머글라구 한다   인재 머글라구 한다
23353	이미	이미 때는 지내가따(조사자 제시)
23354	요즈음	요샌
23355	금방	방금 머꾸 완는데?

#### 2.11.4. 날씨와 방향

23401	별	땡땡태   버선
23401-0-1	-이	벼시   해삐시
23401-0-2	-을	해삐설 쪼인다
23402	따스하다	포근하다   따뜨타다   포그내 저따
23403	아지랑이	아지랑이 낀다
23404	응달	그늘   음달   음달진데
23405	양달	양다래   양달
23406	비(雨)	비
23407	가랑비	가랑비
23408	이슬비	이슬비
23409	안개	앙개낀다
23410	눈개	*
23411	무지개	무:지개   무지개 마이 앙 끼여
23412	소나기	쏘나기   쏘내기
23413	갑자기	갑짜기
23414	홍수	홍수저따
23415	병개	병개 친다   병개   병개뿔
23416	천둥	천둥   천둥얼 한다
23417	벼락	베락
23418	무섭다	무섭따
23419	함박눈	함방눈
23420	싸락눈	싸랑눈
23421	발자국	발짜국
23422	진눈깨비	진눈개비   진눈개비
23423	우박	우:박
23424	고드름	고드름
23425	햇무리	햄물저따
23426	달무리	달물저따   달물 에와따
23427	둥글다	둥굴지   똥구랑걸
23428	은하수	으나:수
23429	금성	새뿔
23430	가뭄	가뭄 든다, 가뭄미 드러따
23431	마르다	마른다

23431-0-1	-어서	말라   말라서   암 말러
23432	위	우래   우
23433	아래	아래
23434	왼쪽	웬짝   왼쪽
23435	오른쪽	오른짝   오른쪽
23436	결	여푸루 와라   저태루
23436-0-1	-에	저태
23437	회오리바람	해오리바람
23438	북풍	북풍
23439	남풍	남풍
23440	동풍	동풍
23441	서풍	서풍



## 제 3 편 음운

### 3.1. 음운 체계

#### 3.1.1. 단모음

31001	테(輪)	테
31001-0-1	-이/가	테가
31001-0-2	-보다	테보담
31002	태(胎)	태
31002-0-1	-이/가	태가
31002-0-2	-보다	태보담
31003	떼(群)	떼
31003-0-1	-이/가	떼가
31003-0-2	-보다	떼보담
31004	때(時)	때
31004-0-1	-이/가	때가
31004-0-2	-보다	때보담
31005	틀(機)	틀
31005-0-1	-이/가	트리
31005-0-2	-보다	틀보담
31006	털(毛)	털
31006-0-1	-이/가	터리
31006-0-2	-보다	털보담
31007	글(文)	글
31007-0-1	-이/가	그리
31007-0-2	-보다	글보담
31008	걸(옷)	걸
31008-0-1	-이/가	거리
31008-0-2	-보다	걸보다
31009	기(旗)	기
31009-0-1	-이/가	기가
31009-0-2	-보다	기보담
31010	귀(耳)	기

31010-0-1	-이/가	기가
31010-0-2	-보다	기보담
31011	시(生時)	시
31011-0-1	-이/가	시가
31011-0-2	-보다	시보담
31012	쉬(蠅卵)	시
31012-0-1	-이/가	시가
31012-0-2	-보다	시보담
31013	쇠(鐵)	썰
31013-0-1	-이/가	썰가
31013-0-2	-보다	썰보담
31014	왜:국(外國)	왜:국
31014-0-1	-이/가	-
31014-0-2	-보다	왜:국쁘다
31015	왜국(倭國)	왜놈
31015-0-1	-이/가	-
31015-0-2	-보다	왜놈보다
31016	쉬:다(休)	
31016-0-1	-이/가	시:지
31016-0-2	-보다	시:고
31017	쇠:다(설을~)	
31017-0-1	-이/가	세:지
31017-0-2	-보다	세:고
31018	베(布)	
31018-0-1	-이/가	베가
31018-0-2	-보다	베보담
31019	배(船)	
31019-0-1	-이/가	배가
31019-0-2	-보다	배보담
31020	배(腹)	
31020-0-1	-이/가	배가
31020-0-2	-보다	배보담
31021	(떡)메	
31021-0-1	-이/가	메가
31021-0-2	-보다	메보담
31022	매(鞭)	

31022-0-1	-이/가	매가
31022-0-2	-보다	매보담
31023	메:다(擔)	
31023-0-1	-이/가	메:고
31023-0-2	-보다	멘다
31024	매:다(繫)	
31024-0-1	-이/가	매고
31024-0-2	-보다	맨다
31025	떼:다(分離)	
31025-0-1	-이/가	·떼고
31025-0-2	-보다	텐다
31026	때:다(炊)	
31026-0-1	-이/가	·때고
31026-0-2	-보다	땨:다
31027	베:다(切斷)	
31027-0-1	-이/가	베고
31027-0-2	-보다	벤:다
31028	배:다(孕胎)	
31028-0-1	-이/가	배:따
31028-0-2	-보다	밴다
31029	세:다(算)	
31029-0-1	-이/가	세:고
31029-0-2	-보다	세아린다   쉐다
31030	새:다(漏泄)	
31030-0-1	-이/가	새:고
31030-0-2	-보다	샌다
31031	뒤(後)	
31031-0-1	-이/가	디:가
31031-0-2	-보다	디보다
31032	되(升)	
31032-0-1	-이/가	데가
31032-0-2	-보다	데보담
31033	게:(蟹)	
31033-0-1	-이/가	게:가
31033-0-2	-보다	게보담

31034	개:(犬)	
31034-0-1	-이/가	개가
31034-0-2	-보다	개보담

### 3.1.2. 이중모음

31035	여럿(多)	
31035-0-1	-이/가	여러시
31035-0-2	-보다	여:럿뽀담
31035-0-3	-을/를	여:러설
31036	물결(波)	
31036-0-1	-이/가	물꺼리
31036-0-2	-보다	물결보담
31036-0-3	-을/를	물꺼럴
31037	예:의(禮儀)	
31037-0-1	-이/가	예이가
31037-0-2	-보다	예이보담
31037-0-3	-을/를	예이럴
31038	계:획(計劃)	
31038-0-1	-이/가	계해기
31038-0-2	-보다	계핵뽀담
31038-0-3	-을/를	계해걸
31039	규칙(規則)	
31039-0-1	-이/가	규치기
31039-0-2	-보다	규칙뽀담
31039-0-3	-을/를	규치걸
31040	휴일(休日)	
31040-0-1	-이/가	휴이리
31040-0-2	-보다	휴일보담
31040-0-3	-을/를	휴이럴
31041	교통(交通)	
31041-0-1	-이/가	교통이
31041-0-2	-보다	교통보담
31041-0-3	-을/를	교통얼
31042	효:자(孝子)	

31042-0-1	-이/가	효:자가
31042-0-2	-보다	효:자보담
31042-0-3	-을/를	효:자털
31043	웬일(何事)	
31043-0-1	-이/가	웬리리나
31043-0-2	-보다	웬닐루
31043-0-3	-을/를	어짚리리나
31044	궤:( 짹 )(櫃)	
31044-0-1	-이/가	궤:짹   궤:짜기
31044-0-2	-보다	궤:작뵤담
31044-0-3	-을/를	궤:짜겅
31045	왜란(倭亂)	
31045-0-1	-이/가	왜난   왜나니
31045-0-2	-보다	왜난보담
31045-0-3	-을/를	왜나닐
31046	헛대(鷄架)	
31046-0-1	-이/가	헛때가
31046-0-2	-보다	헛보담
31046-0-3	-을/를	헛털
31047	원망(怨望)	
31047-0-1	-이/가	원망스럽따
31047-0-2	-보다	원망하느니
31047-0-3	-을/를	원망얼
31048	권:투(拳鬪)	
31048-0-1	-이/가	권:투가
31048-0-2	-보다	권:투보담
31048-0-3	-을/를	권:투털
31049	의논(議論)	
31049-0-1	-이/가	상이한다   으:노내 가주
31049-0-2	-보다	으:노내 가주 하능 거보담
31049-0-3	-을/를	으:노닐
31050	무늬(紋)	
31050-0-1	-이/가	무네가
31050-0-2	-보다	무네보담
31050-0-3	-을/를	무네털
31051	왕(王)	

31051-0-1	-이/가	왕:   왕:이
31051-0-2	-보다	왕:보담
31051-0-3	-을/를	왕얼
31052	과자(菓子)	
31052-0-1	-이/가	과자가
31052-0-2	-보다	과자보다
31052-0-3	-을/를	과자럴

### 3.1.3. 장모음·성조

31053	일(一)	
31053-0-1	-이/가	이리
31053-0-2	-보다	일보담
31054	일:(事)	
31054-0-1	-이/가	이:리
31054-0-2	-보다	일:보담
31055	매(鞭)	
31055-0-1	-이/가	매가
31055-0-2	-보다	매보담
31056	매:(鷺)	
31056-0-1	-이/가	매:가
31056-0-2	-보다	매보담
31057	밤(夜)	
31057-0-1	-이/가	바미
31057-0-2	-보다	밤보담
31058	밤:(栗)	
31058-0-1	-이/가	바:미
31058-0-2	-보다	밤:보담
31059	눈(眼)	
31059-0-1	-이/가	누니
31059-0-2	-보다	눈보담
31060	눈:(雪)	
31060-0-1	-이/가	누:니
31060-0-2	-보다	눈:보담
31061	말(馬)	

31061-0-1	-이/가	마리
31061-0-2	-보다	말보담
31062	말(斗)	
31062-0-1	-이/가	마리
31062-0-2	-보다	말보담
31063	말:(言)	
31063-0-1	-이/가	마:리
31063-0-2	-보다	말:보담
31064	손(客)	
31064-0-1	-이/가	손님
31064-0-2	-보다	손님보담
31065	손(手)	
31065-0-1	-이/가	소니
31065-0-2	-보다	손보담
31066	손:(孫)	
31066-0-1	-이/가	소:니
31066-0-2	-보다	손:보담
31067	배(梨)	
31067-0-1	-이/가	배가
31067-0-2	-보다	배보담
31068	배:(倍)	
31068-0-1	-이/가	배:가
31068-0-2	-보다	배:보담
31069	별(罰)	
31069-0-1	-이/가	버리
31069-0-2	-보다	별보담
31070	별:(蜂)	
31070-0-1	-이/가	버:리지
31070-0-2	-보다	별:보담
31071	솔(松)	
31071-0-1	-이/가	솔립   소:리
31071-0-2	-보다	솔립뽀담   솔보담
31072	솔:(刷)	
31072-0-1	-이/가	소:리지
31072-0-2	-보다	솔:보담
31073	줄(鉉)	

31073-0-1	-이/가	주리
31073-0-2	-보다	줄보담
31074	줄:(연장)	
31074-0-1	-이/가	주:리
31074-0-2	-보다	줄보담
31075	돌:(石)	
31075-0-1	-이/가	도:리
31075-0-2	-보다	돌:보담
31076	담(牆)	
31076-0-1	-이/가	다미
31076-0-2	-보다	담보담
31077	담:(膽)	
31077-0-1	-이/가	다:미
31077-0-2	-보다	담절리만
31078	들:(野)	
31078-0-1	-이/가	들:   드:리
31078-0-2	-보다	들:보담
31079	달-(縣)	
31079-0-1	-고	달고
31079-0-2	-더라	달더라 cf. 매:단다
31080	달-(甘)	
31080-0-1	-고	달고
31080-0-2	-더라	달더라
31081	달:-(熱)	
31081-0-1	-고	달:지
31081-0-2	-더라	달더라
31082	갈-(換)	
31082-0-1	-고	갈:고 이따
31082-0-2	-더라	갈:더라
31083	갈-(磨)	
31083-0-1	-고	갈고
31083-0-2	-더라	갈더라
31084	갈:-(耕)	
31084-0-1	-고	갈:고
31084-0-2	-더라	갈더라



31085	걷-(收)	
31085-0-1	-고	거:꼬
31085-0-2	-더라	거:떠라
31086	걸:-(步)	
31086-0-1	-고	거:꼬
31086-0-2	-더라	거:떠라
31087	적-(書)	
31087-0-1	-고	저꼬
31087-0-2	-더라	적떠라
31088	적:-(小)	
31088-0-1	-고	적:꼬, 즉:꼬
31088-0-2	-더라	적:떠라, 즉:따

## 3.2. 음운 과정

### 3.2.1. 활용

#### 1) 기초 항목

32001	막-(防)[ㄱ]	
32001-0-1	-지	막찌
32001-0-2	-고	마꼬
32001-0-3	-더라	막떠라
32001-0-4	-으니까	마그닝까
32001-0-5	-아/어(-았/었다)	마가라
32002	흐르-(流)[一]	
32002-0-1	-지	흘르지
32002-0-2	-고	흐르고
32002-0-3	-더라	흐르더라
32002-0-4	-으니까	흐르니까
32002-0-5	-아/어(-았/었다)	흘러서
32003	오-(來)[ㄴ]	
32003-0-1	-지	오지
32003-0-2	-고	오고
32003-0-3	-더라	오더라
32003-0-4	-으니까	오닝까
32003-0-5	-아/어(-았/었다)	와서

32004	듣-(聞)[ㄷ 변]	
32004-0-1	-지	드지
32004-0-2	-고	드꼬
32004-0-3	-더라	드떠라
32004-0-4	-으니까	드르닝께
32004-0-5	-아/어(-왔/었다)	드러라
32005	많:-(多)[ㄴᄃ]	
32005-0-1	-지	만:치
32005-0-2	-고	망:코
32005-0-3	-더라	만:터라
32005-0-4	-으니까	마:느닝께
32005-0-5	-아/어(-왔/었다)	마:나서
32006	맡-(任)[ㅌ]	
32006-0-1	-지	마찌
32006-0-2	-고	마꼬
32006-0-3	-더라	마뜨라
32006-0-4	-으니까	마타쓰닝께   마틀팅께
32006-0-5	-아/어(-왔/었다)	마타따
32007	알:-(知)[ㄹ]	
32007-0-1	-지	알:지
32007-0-2	-고	알:구
32007-0-3	-더라	알:터라
32007-0-4	-으니까	아:닝까
32007-0-5	-아/어(-왔/었다)	아라서
32008	감:-(閉眼)[ㄱ]	
32008-0-1	-지	감:찌
32008-0-2	-고	깡:꼬
32008-0-3	-더라	감:떠라
32008-0-4	-으니까	까무닝께
32008-0-5	-아/어(-왔/었다)	까마서
32009	벗-(脫)[ㅍ]	
32009-0-1	-지	버찌
32009-0-2	-고	버꼬
32009-0-3	-더라	버떠라
32009-0-4	-으니까	버스닝께
32009-0-5	-아/어(-왔/었다)	버서라

32010	올-(可)[ㄹ]	
32010-0-1	-지	올치
32010-0-2	-고	올코
32010-0-3	-더라	올트라
32010-0-4	-으니까	오른 널   오르니깨
32010-0-5	-아/어(-왔/었다)	오라따
32011	입-(着衣)[ㅂ]	
32011-0-1	-지	입찌
32011-0-2	-고	이꼬
32011-0-3	-더라	입떠라
32011-0-4	-으니까	이브닝깨
32011-0-5	-아/어(-왔/었다)	이버따
32012	바꾸-(換)[ㅌ]	
32012-0-1	-지	바꾸지
32012-0-2	-고	바꾸고
32012-0-3	-더라	바꾸드라
32012-0-4	-으니까	바꾸닝깨
32012-0-5	-아/어(-왔/었다)	바꼬따   바꿔따
32013	덮-(覆)[ㅍ]	
32013-0-1	-지	덮찌
32013-0-2	-고	더꼬
32013-0-3	-더라	덮떠라
32013-0-4	-으니까	더푸닝깨
32013-0-5	-아/어(-왔/었다)	더퍼따
32014	묻:- (問)[ㅁ 변]	
32014-0-1	-지	무찌
32014-0-2	-고	무:꼬
32014-0-3	-더라	무뜨라
32014-0-4	-으니까	무르니깨
32014-0-5	-아/어(-왔/었다)	무러따
32015	나:- (癮)[ㄴ 변]	
32015-0-1	-지	나:찌
32015-0-2	-고	나꼬
32015-0-3	-더라	나:떠라
32015-0-4	-으니까	나쓰닝깨
32015-0-5	-아/어(-왔/었다)	나사서   나사쓰먼

32016	닫-(閉)[ㄷ]	
32016-0-1	-지	다찌
32016-0-2	-고	다꼬
32016-0-3	-더라	다떠라
32016-0-4	-으니까	다드니까
32016-0-5	-아/어(-왔/었다)	다다서
32017	쫓-(追)[ㅈ]	
32017-0-1	-지	쫓찌
32017-0-2	-고	쫓꼬
32017-0-3	-더라	쫓떠라
32017-0-4	-으니까	쫓츠니까
32017-0-5	-아/어(-왔/었다)	쫓차서
32018	베-(枕)[ㅂ]	
32018-0-1	-지	비찌
32018-0-2	-고	비:고
32018-0-3	-더라	비:드라
32018-0-4	-으니까	비:닝까
32018-0-5	-아/어(-왔/었다)	비:따   비:라
32019	깨-(破)[ㅈ]	
32019-0-1	-지	깨찌
32019-0-2	-고	깨:고
32019-0-3	-더라	깨:더라
32019-0-4	-으니까	깨:닝까
32019-0-5	-아/어(-왔/었다)	깨:따
32020	펴-(伸)[ㅍ]	
32020-0-1	-지	피찌
32020-0-2	-고	피:고
32020-0-3	-더라	피:더라
32020-0-4	-으니까	피:니까
32020-0-5	-아/어(-왔/었다)	피따
32021	밝-(明)[ㄹ]	
32021-0-1	-지	박찌
32021-0-2	-고	바꼬
32021-0-3	-더라	박떠라
32021-0-4	-으니까	발그니까
32021-0-5	-아/어(-왔/었다)	발가서

32022	삶:- (烹) [ㄹ]	
32022-0-1	-지	쌈:찌
32022-0-2	-고	쌈:꼬
32022-0-3	-더라	쌈:떠라
32022-0-4	-으니까	쌈:무닝깨
32022-0-5	-아/어(-았/었다)	쌈:마서
32023	울:- (吟) [ㄹ]	
32023-0-1	-지	을:푸지
32023-0-2	-고	을:푸고
32023-0-3	-더라	을:푸더라
32023-0-4	-으니까	을:푸닝깨
32023-0-5	-아/어(-았/었다)	을:퍼   을:퍼서
32024	밟:- (踏) [ㄹ]	
32024-0-1	-지	밟:찌
32024-0-2	-고	밟:꼬
32024-0-3	-더라	밟:떠라
32024-0-4	-으니까	밟:부닝깨
32024-0-5	-아/어(-았/었다)	밟:바따
32025	하:- (爲) [ㅏ 변]	
32025-0-1	-지	하:지
32025-0-2	-고	하:고
32025-0-3	-더라	하:더라
32025-0-4	-으니까	하:닝깨
32025-0-5	-아/어(-았/었다)	하:서
32026	맺:- (結) [ㅈ]	
32026-0-1	-지	매:찌
32026-0-2	-고	매:꼬
32026-0-3	-더라	매:떠라
32026-0-4	-으니까	매:즈닝깨
32026-0-5	-아/어(-았/었다)	매:저라
32027	없:- (無) [ㅂ]	
32027-0-1	-지	웁:찌
32027-0-2	-고	어:꾸   우:꾸
32027-0-3	-더라	웁:떠라   웁:떠라
32027-0-4	-으니까	웁:쓰닝깨
32027-0-5	-아/어(-았/었다)	웁:써서   웁:써

32028	앉-(坐)[ㄴ]	
32028-0-1	-지	안찌
32028-0-2	-고	앙:꼬
32028-0-3	-더라	안:떠라
32028-0-4	-으니까	안즈닝깨
32028-0-5	-아/어(-왔/었다)	안자   안자따
32029	비비-(刮)[ㅣ]	
32029-0-1	-지	비비지
32029-0-2	-고	비비고
32029-0-3	-더라	비비드라
32029-0-4	-으니까	비비닝깨
32029-0-5	-아/어(-왔/었다)	비비서
32030	끄-(消)[ㅡ]	
32030-0-1	-지	끄지
32030-0-2	-고	끄고
32030-0-3	-더라	끄더라
32030-0-4	-으니까	끄닝깨
32030-0-5	-아/어(-왔/었다)	꺼따
32031	꺾-(折)[ㄱ]	
32031-0-1	-지	꺾찌
32031-0-2	-고	꺾꼬
32031-0-3	-더라	꺾떠라
32031-0-4	-으니까	꺾끄닝깨
32031-0-5	-아/어(-왔/었다)	꺾꺼따
32032	신:-(履)[ㄴ]	
32032-0-1	-지	신:찌
32032-0-2	-고	싱:꼬
32032-0-3	-더라	신:떠라
32032-0-4	-으니까	시느닝깨
32032-0-5	-아/어(-왔/었다)	시너따
32033	보-(視)[ㄱ]	
32033-0-1	-지	보지
32033-0-2	-고	보고
32033-0-3	-더라	보더라
32033-0-4	-으니까	보닝깨
32033-0-5	-아/어(-왔/었다)	봐:따

32034	추-(舞)[ㄷ]	
32034-0-1	-지	추지
32034-0-2	-고	추고
32034-0-3	-더라	추더라
32034-0-4	-으니까	추닝까
32034-0-5	-아/어(-왔/었다)	춰:따
32035	피우-(吸煙)[ㅍ]	
32035-0-1	-지	피우지
32035-0-2	-고	피우고
32035-0-3	-더라	피우더라
32035-0-4	-으니까	피우닝까
32035-0-5	-아/어(-왔/었다)	피워서   피워따
32036	서-(立)[ㅅ]	
32036-0-1	-지	서지
32036-0-2	-고	스고
32036-0-3	-더라	스더라
32036-0-4	-으니까	스닝까
32036-0-5	-아/어(-왔/었다)	서따
32037	기-(匍腹)[ㄱ]	
32037-0-1	-지	기지
32037-0-2	-고	기고
32037-0-3	-더라	기드라
32037-0-4	-으니까	기닝까
32037-0-5	-아/어(-왔/었다)	기어
32038	이-(戴)[ㅇ]	
32038-0-1	-지	이지
32038-0-2	-고	이고
32038-0-3	-더라	이더라
32038-0-4	-으니까	여닝까
32038-0-5	-아/어(-왔/었다)	여따
32039	아니-(否)[ㅇ]	
32039-0-1	-지	아니지
32039-0-2	-고	아니고
32039-0-3	-더라	아니더라
32039-0-4	-으니까	아니닝까
32039-0-5	-아/어(-왔/었다)	아니서

32040	되-(升)[니]	
32040-0-1	-지	데지
32040-0-2	-고	데고
32040-0-3	-더라	데드라
32040-0-4	-으니까	데닝깨
32040-0-5	-아/어(-았/었다)	데:따
32041	있-(有)[씨]	
32041-0-1	-지	이찌
32041-0-2	-고	이꼬
32041-0-3	-더라	이떠라
32041-0-4	-으니까	이쓰닝깨
32041-0-5	-아/어(-았/었다)	이씨따
32042	놓-(放)[ㅎ]	
32042-0-1	-지	노치
32042-0-2	-고	노코
32042-0-3	-더라	노터라
32042-0-4	-으니까	노:닝깨
32042-0-5	-아/어(-았/었다)	낵:따
32043	훔-(擄)[ㅍ]	
32043-0-1	-지	훔찌
32043-0-2	-고	훔꼬
32043-0-3	-더라	훔떠라
32043-0-4	-으니까	훔트닝깨
32043-0-5	-아/어(-았/었다)	훔터따
32044	곱:- (麗)[ㅂ 변]	
32044-0-1	-지	곱찌
32044-0-2	-고	고:꼬
32044-0-3	-더라	곱떠라
32044-0-4	-으니까	고:우닝깨
32044-0-5	-아/어(-았/었다)	고:와서
32045	쥐:- (握)[기]	
32045-0-1	-지	지지
32045-0-2	-고	쥐:고   지고
32045-0-3	-더라	쥐더라   지:더라
32045-0-4	-으니까	지:닝깨
32045-0-5	-아/어(-았/었다)	지:서



32046	가-(去)[ 去 ]	
32046-0-1	-지	가지
32046-0-2	-고	가고
32046-0-3	-더라	가더라
32046-0-4	-으니까	가닝까
32046-0-5	-아/어(-왔/었다)	가따

## 2) 일반 항목

32047	먹-(食)	
32047-0-1	"{-지,-고,-더라}"	머꼬
3204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머거따
32048	뜯-(摘)	
32048-0-1	"{-지,-고,-더라}"	뜨꼬
3204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뜨더따
32049	같-(如)	
32049-0-1	"{-지,-고,-더라}"	또까꼬
3204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또까타서
32050	얕-(淺)	
32050-0-1	"{-지,-고,-더라}"	야꼬
3205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야타서
32051	흩-(散)	
32051-0-1	"{-지,-고,-더라}"	흐찌
3205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흐터저따
32052	날:-(飛)	
32052-0-1	"{-지,-고,-더라}"	날고
3205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날라서
32053	울:-(泣)	
32053-0-1	"{-지,-고,-더라}"	운:다
3205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우리따
32054	일:-(淘)	
32054-0-1	"{-지,-고,-더라}"	일고
3205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이러서
32055	얼:-(凍)	
32055-0-1	"{-지,-고,-더라}"	얼:지

3205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어러따
32056	넘:- (越)	
32056-0-1	"{-지, -고, -더라}"	넘찌
3205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너머서
32057	숨:- (隱)	
32057-0-1	"{-지, -고, -더라}"	숨찌
3205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수머따
32058	쉽:- (易)	
32058-0-1	"{-지, -고, -더라}"	시:꼬
3205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시워서
32059	눅:- (臥)	
32059-0-1	"{-지, -고, -더라}"	눅찌
3205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누어서
32060	깁:- (縫)	
32060-0-1	"{-지, -고, -더라}"	지꼬
3206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지어따
32061	밈:- (憎)	
32061-0-1	"{-지, -고, -더라}"	밈떠라
3206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미워서
32062	높:- (高)	
32062-0-1	"{-지, -고, -더라}"	높찌
3206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노파서
32063	짓:- (作)	
32063-0-1	"{-지, -고, -더라}"	지:꼬
3206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지닝깨
32064	붓:- (腫)	
32064-0-1	"{-지, -고, -더라}"	부:꼬
3206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부어따
32065	웃:- (笑)	
32065-0-1	"{-지, -고, -더라}"	우꼬
3206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우서서
32066	짓:- (吠)	
32066-0-1	"{-지, -고, -더라}"	지떠라
3206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지서서
32067	꽃:- (插)	
32067-0-1	"{-지, -고, -더라}"	꼬꼬

32067-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꼬자서
32068	낱-(産)	
32068-0-1	"{-지,-고,-더라}"	나터라
32068-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나:따
32069	땅:-(辯)	
32069-0-1	"{-지,-고,-더라}"	따코
32069-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따:서
32070	꿍-(切)	
32070-0-1	"{-지,-고,-더라}"	꿍코
32070-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끄너따
32071	괜찮-(無妨)	
32071-0-1	"{-지,-고,-더라}"	괜찬트라
32071-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괜차능가
32072	읽-(讀)	
32072-0-1	"{-지,-고,-더라}"	이꼬
32072-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일거따
32073	뜯:-(瀝)	
32073-0-1	"{-지,-고,-더라}"	뜯:꼬
32073-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뜯:버서
32074	옮:-(遷)	
32074-0-1	"{-지,-고,-더라}"	옴떠라
32074-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올마서
32075	통:-(貫)	
32075-0-1	"{-지,-고,-더라}"	뜨꼬
32075-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뜯버따
32076	꿍-(跪)	
32076-0-1	"{-지,-고,-더라}"	꿍코
32076-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꾸러서
32077	닿-(抗, 연필 심이 ~)	
32077-0-1	"{-지,-고,-더라}"	달터라
32077-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다라서
32078	닿:-(煎, 솥에서 장이 ~)	
32078-0-1	"{-지,-고,-더라}"	달코
32078-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다라따
32079	짜-(鹽)	
32079-0-1	"{-지,-고,-더라}"	짹찌

3207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짜서
32080	말-(捲)	
32080-0-1	"{-지,-고,-더라}"	말고
3208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마라따
32081	쓰-(書)	
32081-0-1	"{-지,-고,-더라}"	쓰고
3208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써따
32082	오르-(登)	
32082-0-1	"{-지,-고,-더라}"	올라가고
3208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올라가따
32083	바쁘-(忙)	
32083-0-1	"{-지,-고,-더라}"	바쁘더라
3208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바빠서
32084	고프-(餓)	
32084-0-1	"{-지,-고,-더라}"	고푸지
3208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고파서
32085	쏘-(射)	
32085-0-1	"{-지,-고,-더라}"	쏘지
3208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쏘:따
32086	꾸-(夢)	
32086-0-1	"{-지,-고,-더라}"	꾸고
3208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꿔:따
32087	머무르-(留)	
32087-0-1	"{-지,-고,-더라}"	머물지
3208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머무러따
32088	다듬-(整)	
32088-0-1	"{-지,-고,-더라}"	다듬꼬
3208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다드머서
32089	견디-(忍)	
32089-0-1	"{-지,-고,-더라}"	전디고
3208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전디서
32090	마르-(裁)	
32090-0-1	"{-지,-고,-더라}"	마르고
3209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말라서
32091	끼-(烟鎖, 안개가 ~)	
32091-0-1	"{-지,-고,-더라}"	끼지

32091-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껴서
32092	마시-(飮)	
32092-0-1	"{-지,-고,-더라}"	마시지
32092-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마시따
32093	세:-(強)	
32093-0-1	"{-지,-고,-더라}"	써:지
32093-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써:서
32094	포개-(重疊)	
32094-0-1	"{-지,-고,-더라}"	포개지
32094-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포개따
32095	두드리-(敲)	
32095-0-1	"{-지,-고,-더라}"	두드리지
32095-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두드리따
32096	켜-(點燈)	
32096-0-1	"{-지,-고,-더라}"	키:고
32096-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켜:도
32097	쐈:-(바람을)	
32097-0-1	"{-지,-고,-더라}"	쐈:고
32097-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쐈:라
32098	쇠-(老)	
32098-0-1	"{-지,-고,-더라}"	세:지
32098-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세:서
32099	쉬:-(饔, 밥이 ~)	
32099-0-1	"{-지,-고,-더라}"	시:지
32099-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시:서
32100	희-(白)	
32100-0-1	"{-지,-고,-더라}"	히고
32100-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히서
32101	볶-(炒)	
32101-0-1	"{-지,-고,-더라}"	보꼬
32101-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보까따
32102	안:-(抱)	
32102-0-1	"{-지,-고,-더라}"	양:꼬
32102-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아나따
32103	묻-(埋)	
32103-0-1	"{-지,-고,-더라}"	무꼬

32103-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무더따
32104	불:- (吹)	
32104-0-1	"{-지,-고,-더라}"	불:지
32104-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부러따
32105	빨:- (洗濯)	
32105-0-1	"{-지,-고,-더라}"	빨지
32105-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빠라라
32106	죽:- (死)	
32106-0-1	"{-지,-고,-더라}"	죽찌
32106-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주거따
32107	걸:- (步)	
32107-0-1	"{-지,-고,-더라}"	거:꼬
32107-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거리따
32108	가물:- (旱)	
32108-0-1	"{-지,-고,-더라}"	가물지
32108-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가무라서
32109	줄:- (睡)	
32109-0-1	"{-지,-고,-더라}"	줄:고
32109-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줄라서
32110	쓸:- (掃)	
32110-0-1	"{-지,-고,-더라}"	쓸지
32110-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씨러따
32111	감:- (捲)	
32111-0-1	"{-지,-고,-더라}"	강:꼬
32111-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가마따
32112	더듬:- (摸)	
32112-0-1	"{-지,-고,-더라}"	더듬찌
32112-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더드머따
32113	굽:- (炙)	
32113-0-1	"{-지,-고,-더라}"	구꼬
32113-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구어서
32114	무겁:- (重)	
32114-0-1	"{-지,-고,-더라}"	무겁찌
32114-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무구워서
32115	잇:- (連)	
32115-0-1	"{-지,-고,-더라}"	이:꼬

3211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이서서
32116	빗-(梳)	
32116-0-1	"{-지,-고,-더라}"	빈 꼬
3211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비서라
32117	까맣-(黑)	
32117-0-1	"{-지,-고,-더라}"	까마코
3211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까:마서
32118	넣-(入)	
32118-0-1	"{-지,-고,-더라}"	느치
3211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느:라
32119	고:-(煮)	
32119-0-1	"{-지,-고,-더라}"	고:꼬
3211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과:라
32120	없-(載)	
32120-0-1	"{-지,-고,-더라}"	언찌
3212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언저놔:라
32121	귀찮-(囁)	
32121-0-1	"{-지,-고,-더라}"	기창캐
3212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기차나서
32122	바르-(剔, 생선 뼈를~)	
32122-0-1	"{-지,-고,-더라}"	발르더라
3212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발라서
32123	맑-(淸)	
32123-0-1	"{-지,-고,-더라}"	막떠라
3212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말가서
32124	굵:-(膿)	
32124-0-1	"{-지,-고,-더라}"	곰:찌
3212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골마따
32125	굵:-(太)	
32125-0-1	"{-지,-고,-더라}"	국:떠라
3212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굴:거서
32126	얇:-(薄)	
32126-0-1	"{-지,-고,-더라}"	엽:찌
3212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열:버서
32127	썰-(春, 곡식을 절구에다 ~)	
32127-0-1	"{-지,-고,-더라}"	썰:코

32127-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썰런다
32128	잃-(失)	
32128-0-1	"{-지,-고,-더라}"	일치
32128-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이러따
32129	핥-(舐)	
32129-0-1	"{-지,-고,-더라}"	할꼬
32129-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할타준다
32130	짧-(短)	
32130-0-1	"{-지,-고,-더라}"	짧찌
32130-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짧바서
32131	놀라-(驚)	
32131-0-1	"{-지,-고,-더라}"	놀:래지
32131-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놀:래따
32132	자-(宿)	
32132-0-1	"{-지,-고,-더라}"	자고
32132-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자따
32133	못:하-(不爲)	
32133-0-1	"{-지,-고,-더라}"	모:타더라
32133-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모:태서
32134	모르-(不知)	
32134-0-1	"{-지,-고,-더라}"	모르더라
32134-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몰라서
32135	아프-(痛)	
32135-0-1	"{-지,-고,-더라}"	아푸지
32135-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아파서
32136	크-(大)	
32136-0-1	"{-지,-고,-더라}"	크고
32136-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커서
32137	꼬-(索, 새끼를 ~)	
32137-0-1	"{-지,-고,-더라}"	꼬고
32137-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꽈:따
32138	쭈-(造)	
32138-0-1	"{-지,-고,-더라}"	쭈고
32138-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쭈:따
32139	맞추-(組合)	
32139-0-1	"{-지,-고,-더라}"	마추고



3213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마춰따
32140	테우-(梧)	
32140-0-1	"{-지,-고,-더라}"	테우고
3214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테워서
32141	이:-(盖, 지붕을 ~)	
32141-0-1	"{-지,-고,-더라}"	이:고
3214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이어따
32142	갈기-(打)	
32142-0-1	"{-지,-고,-더라}"	갈기지
3214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갈기따
32143	기다리-(待)	
32143-0-1	"{-지,-고,-더라}"	기다리고
3214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기다리따
32144	세:-(算)	
32144-0-1	"{-지,-고,-더라}"	시:고
3214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시어따
32145	빼-(拔)	
32145-0-1	"{-지,-고,-더라}"	빼고
3214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빼:따
32146	켜-(引, 톱으로 ~)	
32146-0-1	"{-지,-고,-더라}"	키고
3214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키따
32147	되:-(硬)	
32147-0-1	"{-지,-고,-더라}"	데:지
3214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데:서
32148	쉬:-(休)	
32148-0-1	"{-지,-고,-더라}"	시:고
3214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시:라
32149	할퀴-(搔)	
32149-0-1	"{-지,-고,-더라}"	할키지
3214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할키따
32150	눌:-(焦)	
32150-0-1	"{-지,-고,-더라}"	눌지
3215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누리따
32151	깨닫-(覺)	
32151-0-1	"{-지,-고,-더라}"	깨다꼬

32151-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깨다라따
32152	마렵-(오줌이 ~)	
32152-0-1	"{-지,-고,-더라}"	매렵찌
32152-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매러워서
32153	부끄럽-(恥)	
32153-0-1	"{-지,-고,-더라}"	남부꾸릅뜨라
32153-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부꾸러워서
32154	가깝-(近)	
32154-0-1	"{-지,-고,-더라}"	가깝뜨라
32154-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가까워서
32155	깊-(深)	
32155-0-1	"{-지,-고,-더라}"	기꼬
32155-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기퍼서
32156	긔:- (劃)	
32156-0-1	"{-지,-고,-더라}"	그:꼬
32156-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그어따
32157	씻-(洗)	
32157-0-1	"{-지,-고,-더라}"	씨꼬
32157-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씨처라
32158	쪼-(搗)	
32158-0-1	"{-지,-고,-더라}"	쪼터라
32158-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쪼:따
32159	잡-(搔)	
32159-0-1	"{-지,-고,-더라}"	잡가 머꼬
32159-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잡가 멍는다
32160	굶:- (飢)	
32160-0-1	"{-지,-고,-더라}"	굶:찌
32160-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굶머따
32161	닮:- (似)	
32161-0-1	"{-지,-고,-더라}"	당:끼 마려니다
32161-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달마따
32162	싫-(厭)	
32162-0-1	"{-지,-고,-더라}"	실치
32162-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시러서
32163	끓-(𪓗, 달같이 ~)	
32163-0-1	"{-지,-고,-더라}"	끓키양캐

3216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고라따
32164	붓:-(注)	
32164-0-1	"{-지,-고,-더라}"	부찌
3216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부어라
32165	타-(乘)	
32165-0-1	"{-지,-고,-더라}"	타고
3216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타따
32166	마르-(乾)	
32166-0-1	"{-지,-고,-더라}"	말르고
3216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말라따
32167	쓰-(苦)	
32167-0-1	"{-지,-고,-더라}"	씨더라
3216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씨서
32168	슬프-(哀)	
32168-0-1	"{-지,-고,-더라}"	슬푸지
3216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슬퍼서
32169	기쁘-(喜)	
32169-0-1	"{-지,-고,-더라}"	기뿌더라
3216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기빠서
32170	쏘-(蜚, 벌이 ~)	
32170-0-1	"{-지,-고,-더라}"	쏘터라
3217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썩:따
32171	주-(興)	
32171-0-1	"{-지,-고,-더라}"	주고
3217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줘:따
32172	키우-(育)	
32172-0-1	"{-지,-고,-더라}"	키우고
3217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키워따
32173	가두-(囚)	
32173-0-1	"{-지,-고,-더라}"	가두지
3217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다서
32174	부수-(碎)	
32174-0-1	"{-지,-고,-더라}"	부수지
3217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부서따
32175	나누-(分)	
32175-0-1	"{-지,-고,-더라}"	노누고

32175-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나눠따
32176	속이-(欺)	
32176-0-1	"{-지,-고,-더라}"	소기더라
32176-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소기서
32177	끼-(插)	
32177-0-1	"{-지,-고,-더라}"	끼고
32177-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끼따
32178	튀-(跳)	
32178-0-1	"{-지,-고,-더라}"	팅기고
32178-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팅기따
32179	괴:-(滄)	
32179-0-1	"{-지,-고,-더라}"	괴:지
32179-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괴:따
32180	여위-(癰)	
32180-0-1	"{-지,-고,-더라}"	여위지
32180-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여왜따
32181	맵-(辛)	
32181-0-1	"{-지,-고,-더라}"	맵떠라
32181-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매워도
32182	뀌:-(屍)	
32182-0-1	"{-지,-고,-더라}"	끼고
32182-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끼:닝까
32183	고치-(改)	
32183-0-1	"{-지,-고,-더라}"	곤치고
32183-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곤치서
32184	싣:-(載)	
32184-0-1	"{-지,-고,-더라}"	싣찌
32184-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시러서
32185	얻:-(得)	
32185-0-1	"{-지,-고,-더라}"	어:더오드라
32185-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어더따
32186	빡-(粉碎)	
32186-0-1	"{-지,-고,-더라}"	빠떠라
32186-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빠:따
32187	파랑-(碧)	
32187-0-1	"{-지,-고,-더라}"	파라코

3218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파:라서
32188	다르-(異)	
32188-0-1	"{-지,-고,-더라}"	다르더라
3218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달라도
32189	푸-(汲)	
32189-0-1	"{-지,-고,-더라}"	푸고
3218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퍼따
32190	누-(尿)	
32190-0-1	"{-지,-고,-더라}"	누고
3219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뉘:따
32191	더:럽-(汚)	
32191-0-1	"{-지,-고,-더라}"	더:럽찌
3219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더:러워서
32192	거두-(收)	
32192-0-1	"{-지,-고,-더라}"	거:떠라
3219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거더디린다
32193	끓-(沸)	
32193-0-1	"{-지,-고,-더라}"	끓치
3219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끄러따
32194	이기-(承)	
32194-0-1	"{-지,-고,-더라}"	이기고
3219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이기서
32195	부시-(照)	
32195-0-1	"{-지,-고,-더라}"	부시지
3219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눈부시서
32196	자빠지-(後)	
32196-0-1	"{-지,-고,-더라}"	자빠지지
3219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자빠저따
32197	일으키-(使起)	
32197-0-1	"{-지,-고,-더라}"	인내키지
3219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이르키따
32198	당기-(引)	
32198-0-1	"{-지,-고,-더라}"	당기지
3219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당기따
32199	버리-(捨)	
32199-0-1	"{-지,-고,-더라}"	버리지

3219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버리따
32200	훔치-(盜)	
32200-0-1	"{-지,-고,-더라}"	훔치지
3220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훔치따
32201	지-(負)	
32201-0-1	"{-지,-고,-더라}"	지고
3220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저따
32202	와:-(暗誦)	
32202-0-1	"{-지,-고,-더라}"	웨우고
3220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웨워따
32203	사귀-(交)	
32203-0-1	"{-지,-고,-더라}"	사기더라
3220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사기라
32204	썩-(腐)	
32204-0-1	"{-지,-고,-더라}"	썩썩
3220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썩거서
32205	질-(泥)	
32205-0-1	"{-지,-고,-더라}"	질더라
3220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지러서
32206	까불-(箕)	
32206-0-1	"{-지,-고,-더라}"	까불더라
3220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까부러따
32207	드물-(稀)	
32207-0-1	"{-지,-고,-더라}"	드물더라
3220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드무러서
32208	줄:-(縮)	
32208-0-1	"{-지,-고,-더라}"	줄더라
3220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주러따
32209	심:-(植)	
32209-0-1	"{-지,-고,-더라}"	심:꼬
3220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시머따
32210	쓰다듬-(撫)	
32210-0-1	"{-지,-고,-더라}"	쓰다듬썩
3221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쓰다드머 준다
32211	사:납-(猛)	
32211-0-1	"{-지,-고,-더라}"	사납썩

32211-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사나와
32212	가볍-(輕)	
32212-0-1	"{-지,-고,-더라}"	개거꼬
32212-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개벼워서
32213	젓:- (撈)	
32213-0-1	"{-지,-고,-더라}"	저꼬
32213-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저서따
32214	두껍-(厚)	
32214-0-1	"{-지,-고,-더라}"	두껍떠라
32214-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두꺼워서
32215	무르-(軟)	
32215-0-1	"{-지,-고,-더라}"	물르고
32215-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물러서
32216	분지르-(折)	
32216-0-1	"{-지,-고,-더라}"	뿌질고
32216-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뿌지러따
32217	배우-(學)	
32217-0-1	"{-지,-고,-더라}"	배우고
32217-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배와서
32218	다리-(屣)	
32218-0-1	"{-지,-고,-더라}"	다리더라
32218-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다려따   다려서
32219	후비-(窻, 귀를 ~)	
32219-0-1	"{-지,-고,-더라}"	히비고
32219-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히비서
32220	아리-(痛)	
32220-0-1	"{-지,-고,-더라}"	아리지
32220-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아리도
32221	그리-(畫)	
32221-0-1	"{-지,-고,-더라}"	그리지
32221-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그리따
32222	저리-(癲)	
32222-0-1	"{-지,-고,-더라}"	저리지
32222-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저리서
32223	불리-(增)	
32223-0-1	"{-지,-고,-더라}"	불구지

32223-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불귀따
32224	뜨시-(溫)	
32224-0-1	"{-지,-고,-더라}"	뜨시고
32224-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뜨시따
32225	끓이-(使沸)	
32225-0-1	"{-지,-고,-더라}"	끄리고
32225-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끄리따
32226	누비-(縫)	
32226-0-1	"{-지,-고,-더라}"	누비지
32226-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누비따
32227	구기-(皺)	
32227-0-1	"{-지,-고,-더라}"	꾸기지
32227-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꾸기따
32228	비:-(空)	
32228-0-1	"{-지,-고,-더라}"	비지
32228-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비어따
32229	식히-(使冷)	
32229-0-1	"{-지,-고,-더라}"	시쿠지
32229-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시꿔라
32230	매-(草)	
32230-0-1	"{-지,-고,-더라}"	매고
32230-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매:따
32231	매:-(結)	
32231-0-1	"{-지,-고,-더라}"	매지
32231-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매:따
32232	뛰-(走)	
32232-0-1	"{-지,-고,-더라}"	떠지
32232-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떠:따
32233	담:-(盛)	
32233-0-1	"{-지,-고,-더라}"	담:꼬
32233-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다마서
32234	가렵-(癢)	
32234-0-1	"{-지,-고,-더라}"	개룰찌
32234-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개러워서
32235	때리-(打)	
32235-0-1	"{-지,-고,-더라}"	때리고



3223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때리따
32236	어둡-(暗)	
32236-0-1	"{-지,-고,-더라}"	어둡떠라
3223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어두워서
32237	잡-(執)	
32237-0-1	"{-지,-고,-더라}"	잡찌
3223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자바따
32238	차-(蹴)	
32238-0-1	"{-지,-고,-더라}"	차지
3223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차따
32239	모자라-(不足)	
32239-0-1	"{-지,-고,-더라}"	모자라더라
3223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모:자라서
32240	부르-(呼)	
32240-0-1	"{-지,-고,-더라}"	부르더라
3224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불러도
32241	따르-(注)	
32241-0-1	"{-지,-고,-더라}"	따루지   다루더라
3224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따봐따   따라라
32242	쪼:- (啄)	
32242-0-1	"{-지,-고,-더라}"	쪼실고
3224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쪼시라
32243	두-(置)	
32243-0-1	"{-지,-고,-더라}"	두고   두지
3224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나뒤:따   뒤:서
32244	시키-(使)	
32244-0-1	"{-지,-고,-더라}"	시키지
3224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시키따
32245	지리-(漏, 오줌을 ~)	
32245-0-1	"{-지,-고,-더라}"	저리고
3224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저려따
32246	던지-(投)	
32246-0-1	"{-지,-고,-더라}"	던지고
3224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던저따
32247	모이-(集)	

32247-0-1	"{-지,-고,-더라}"	모이지
3224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모여든다
32248	만지-(搦)	
32248-0-1	"{-지,-고,-더라}"	만지지
3224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만저따
32249	쪼:- (囓)	
32249-0-1	"{-지,-고,-더라}"	쪼:고
3224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쪼:따
32250	비틀-(捻)	
32250-0-1	"{-지,-고,-더라}"	비틀고
3225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비트리따
32251	돕:- (助)	
32251-0-1	"{-지,-고,-더라}"	도와준다
3225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도:꼬
32252	씹-(咀)	
32252-0-1	"{-지,-고,-더라}"	씹꼬
3225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씹버따
32253	미끄럽-(滑)	
32253-0-1	"{-지,-고,-더라}"	미끄럽찌
3225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미꾸루워서
32254	닿-(接)	
32254-0-1	"{-지,-고,-더라}"	다:떠라
3225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다:서
32255	누르-(壓)	
32255-0-1	"{-지,-고,-더라}"	눌르고
3225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눌러따
32256	주무르-(揉)	
32256-0-1	"{-지,-고,-더라}"	주무르지
3225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주물러따
32257	메우-(填)	
32257-0-1	"{-지,-고,-더라}"	메우지
3225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메워따
32258	고소하-(香味)	
32258-0-1	"{-지,-고,-더라}"	꼬습따
3225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꼬소워서
32259	내리-(降)	

32259-0-1	"{-지,-고,-더라}"	내리고
3225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내리따
32260	구르-(轉)	
32260-0-1	"{-지,-고,-더라}"	궁굴지
3226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궁구러
32261	만들-(作)	
32261-0-1	"{-지,-고,-더라}"	맹글고
3226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맹그러
32262	늙-(老)	
32262-0-1	"{-지,-고,-더라}"	늙떠라
3226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늙거간다   늙거따
32263	앓-(病)	
32263-0-1	"{-지,-고,-더라}"	알치
3226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아라따
32264	따르-(隨)	
32264-0-1	"{-지,-고,-더라}"	따르더라
3226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따라서
32265	사-(買)	
32265-0-1	"{-지,-고,-더라}"	사고 이따
3226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사와라
32266	치우-(除)	
32266-0-1	"{-지,-고,-더라}"	치우지
3226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치위라
32267	부러지-(被折)	
32267-0-1	"{-지,-고,-더라}"	뿌러지지
3226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뿌지러저따
32268	다치-(傷)	
32268-0-1	"{-지,-고,-더라}"	다치지
3226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다쳐따
32269	느리-(緩)	
32269-0-1	"{-지,-고,-더라}"	느리더라
3226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느리따
32270	무치-(和, 나물을 ~)	
32270-0-1	"{-지,-고,-더라}"	무치고
3227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무쳐따

32271	죄:-(締)	
32271-0-1	"{-지,-고,-더라}"	조이고
3227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조여따
32272	팔-(賣)	
32272-0-1	"{-지,-고,-더라}"	팔고
3227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파라따
32273	뽑-(選)	
32273-0-1	"{-지,-고,-더라}"	뽑꼬
3227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뽑바따
32274	뒤지-(索)	
32274-0-1	"{-지,-고,-더라}"	디지고
3227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디저 본다   디저따
32275	마치-(終)	
32275-0-1	"{-지,-고,-더라}"	마치고
3227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마쳐따
32276	절이-(鹽)	
32276-0-1	"{-지,-고,-더라}"	저리고
3227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저려따
32277	휘-(曲)	
32277-0-1	"{-지,-고,-더라}"	휘고
3227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휘라
32278	줍:-(拾)	
32278-0-1	"{-지,-고,-더라}"	주꼬
3227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주서와라
32279	빼앗-(奪)	
32279-0-1	"{-지,-고,-더라}"	빼찌
3227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빼사따
32280	기울-(傾)	
32280-0-1	"{-지,-고,-더라}"	기울더라
3228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기우리따
32281	아깝-(惜)	
32281-0-1	"{-지,-고,-더라}"	아깝찌
3228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아까와서
32282	반갑-(歡)	
32282-0-1	"{-지,-고,-더라}"	방갑떠라
3228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방가워서

32283	찌-(蒸)	
32283-0-1	"{-지,-고,-더라}"	찌더라
32283-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찌따
32284	노랑-(黃)	
32284-0-1	"{-지,-고,-더라}"	노:라코
32284-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노:라서
32285	푸르-(靑)	
32285-0-1	"{-지,-고,-더라}"	푸루더라
32285-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푸러서
32286	서두르-(忙)	
32286-0-1	"{-지,-고,-더라}"	서둘지
32286-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서둘리따
32287	서투르-(不熟)	
32287-0-1	"{-지,-고,-더라}"	서툴지
32287-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서:투러서
32288	게으르-(怠)	
32288-0-1	"{-지,-고,-더라}"	게우르지
32288-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게올러서
32289	따뜻하-(溫)	
32289-0-1	"{-지,-고,-더라}"	따뜨타고
32289-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따뜨태서
32290	춡-(寒)	
32290-0-1	"{-지,-고,-더라}"	춡찌
32290-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추워서
32291	뜨겁-(極熱)	
32291-0-1	"{-지,-고,-더라}"	뜨겁뜨라
32291-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뜨구워서
32292	미지근하-(微溫)	
32292-0-1	"{-지,-고,-더라}"	미지그나지 : 미지근-하더라
32292-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미지그내서
32293	차갑-(寒)	
32293-0-1	"{-지,-고,-더라}"	차갑찌
32293-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차가와서
32294	부럽-(羨)	
32294-0-1	"{-지,-고,-더라}"	부럽떠라
32294-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부러워서

32295	알밋-(憎)	
32295-0-1	"{-지,-고,-더라}"	알밋떠라
3229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알미워서
32296	비슷하-(類似)	
32296-0-1	"{-지,-고,-더라}"	비스타지
3229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비스테서
32297	새롭-(新)	
32297-0-1	"{-지,-고,-더라}"	새롭떠라
3229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새로워서
32298	서:럽-(悲痛)	
32298-0-1	"{-지,-고,-더라}"	서럽떠라
3229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서:리워서
32299	까다롭-(難)	
32299-0-1	"{-지,-고,-더라}"	까:다롭떠라
3229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까다로워서
32300	외롭-(孤)	
32300-0-1	"{-지,-고,-더라}"	외롭찌
3230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외로워서
32301	아쉽-(不滿)	
32301-0-1	"{-지,-고,-더라}"	아쉽찌
3230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아:시워서
32302	단단하-(固)	
32302-0-1	"{-지,-고,-더라}"	단단하드라
3230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단단해서
32303	늦-(晚)	
32303-0-1	"{-지,-고,-더라}"	느찌
3230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느저따
32304	남:-(餘)	
32304-0-1	"{-지,-고,-더라}"	남:찌
3230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나마따
32305	남기-(使餘)	
32305-0-1	"{-지,-고,-더라}"	남기지
3230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냉기따
32306	넘어뜨리-(使倒)	
32306-0-1	"{-지,-고,-더라}"	넘겨떠리지
3230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넘겨떠리따

32307	쭈그러뜨리-(使凹)	
32307-0-1	"{-지,-고,-더라}"	쭈그라티리지   쭈골트리고
3230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쭈골티리따   쭈골트리서
32308	전주-(比)	
32308-0-1	"{-지,-고,-더라}"	전주지
32308-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전쥬 본다
32309	외우-(誦)	
32309-0-1	"{-지,-고,-더라}"	에우고
32309-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에워라
32310	문지르-(摩)	
32310-0-1	"{-지,-고,-더라}"	문질르드라
3231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문질러따
32311	가리키-(指)	
32311-0-1	"{-지,-고,-더라}"	갈키지
3231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가리키따   갈키:따   갈키서
32312	가르치-(敎)	
32312-0-1	"{-지,-고,-더라}"	갈키고
32312-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갈켜따   갈키따   갈키서   갈켜서
32313	겨누-(照準)	
32313-0-1	"{-지,-고,-더라}"	겨누고
32313-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겨눠따
32314	겨루-(競)	
32314-0-1	"{-지,-고,-더라}"	겨루고
32314-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겨뤄따
32315	달래-(慰撫)	
32315-0-1	"{-지,-고,-더라}"	달개고
32315-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달개따
32316	본받-(效)	
32316-0-1	"{-지,-고,-더라}"	뿐뜨지
32316-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뿐바다라
32317	어지르-(散)	
32317-0-1	"{-지,-고,-더라}"	어지르지
32317-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어지리서
32318	달리-(走)	
32318-0-1	"{-지,-고,-더라}"	달리더라

32318-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달려서
32319	우기-(拗)	
32319-0-1	"{-지,-고,-더라}"	우기고
32319-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우기서
32320	중얼거리-(獨言)	
32320-0-1	"{-지,-고,-더라}"	중얼거리고
32320-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중얼거리서
32321	지껄이-(騷)	
32321-0-1	"{-지,-고,-더라}"	지꺼리고
32321-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지꺼리따
32322	다니-(行)	
32322-0-1	"{-지,-고,-더라}"	댕기더라
32322-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댕기따
32323	떨어뜨리-(使落)	
32323-0-1	"{-지,-고,-더라}"	떠러티리지
32323-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떠러티리따
32324	깨-(覺)	
32324-0-1	"{-지,-고,-더라}"	깨:더라
32324-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깨:따
32325	시-(酸)	
32325-0-1	"{-지,-고,-더라}"	시더라
32325-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시:따
32326	솟-(湧)	
32326-0-1	"{-지,-고,-더라}"	소떠라
32326-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소사서
32327	좋:-(好)	
32327-0-1	"{-지,-고,-더라}"	조:터라
32327-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조:아서
32328	빨강-(赤)	
32328-0-1	"{-지,-고,-더라}"	빨가터라
32328-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빨가서
32329	끌:-(曳, 땅에 질질 ~)	
32329-0-1	"{-지,-고,-더라}"	끌터라
32329-0-2	"{-아/어도, -아/어서, -았/었다}"	끄리따
32330	넓-(廣)	



32330-0-1	"{-지,-고,-더라}"	넙떠라
32330-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넙버도
32331	하얏-(白)	
32331-0-1	"{-지,-고,-더라}"	하야터라
32331-0-2	"{-아/어도, -아/어서, -왔/었다}"	하야서

### 3.2.2. 곡용

32332	국(羹)	
32332-0-1	-이/가	구기
32332-0-2	-을/를	구걸
32332-0-3	-에(서)	구개다
32332-0-4	-으로	구그로
32332-0-5	-도	국또
32333	논(沓)	
32333-0-1	-이/가	노니
32333-0-2	-을/를	노널
32333-0-3	-에(서)	노내
32333-0-4	-으로	노느로
32333-0-5	-도	논도
32334	쌀(米)	
32334-0-1	-이/가	싸리
32334-0-2	-을/를	싸럴
32334-0-3	-에(서)	싸래
32334-0-4	-으로	쌀로
32334-0-5	-도	쌀도
32335	봄(春)	
32335-0-1	-이/가	보미
32335-0-2	-을/를	보멸
32335-0-3	-에(서)	보메
32335-0-4	-으로	보문
32335-0-5	-도	봄도
32336	집(家)	
32336-0-1	-이/가	지비
32336-0-2	-을/를	지벌

32336-0-3	-에(서)	지베
32336-0-4	-으로	지부로
32336-0-5	-도	집또
32337	옷(衣)	
32337-0-1	-이/가	오시
32337-0-2	-을/를	오설
32337-0-3	-에(서)	오세
32337-0-4	-으로	오스로
32337-0-5	-도	오또
32338	방(房)	
32338-0-1	-이/가	방이
32338-0-2	-을/를	방얼
32338-0-3	-에(서)	방애
32338-0-4	-으로	방으로
32338-0-5	-도	방도
32339	낫(晝)	
32339-0-1	-이/가	나시지
32339-0-2	-을/를	나슬
32339-0-3	-에(서)	나재
32339-0-4	-으로	나재로   나즈로
32339-0-5	-도	나또
32340	낯(顔)	
32340-0-1	-이/가	나시
32340-0-2	-을/를	나설
32340-0-3	-에(서)	*
32340-0-4	-으로	나스로
32340-0-5	-도	나또
32341	부엌(廚)	
32341-0-1	-이/가	부어기
32341-0-2	-을/를	부어걸
32341-0-3	-에(서)	부어개서
32341-0-4	-으로	부어그로
32341-0-5	-도	부엌또
32342	밭(田)	
32342-0-1	-이/가	바시
32342-0-2	-을/를	바설

32342-0-3	-에(서)	바태   바태서
32342-0-4	-으로	바트로
32342-0-5	-도	바또
32343	앞(前)	
32343-0-1	-이/가	아피
32343-0-2	-을/를	아펠
32343-0-3	-에(서)	아패
32343-0-4	-으로	아푸로
32343-0-5	-도	압또
32344	넋(魂)	
32344-0-1	-이/가	넉빠저따   넉씨
32344-0-2	-을/를	넉노코   너걸
32344-0-3	-에(서)	*
32344-0-4	-으로	*
32344-0-5	-도	넉또
32345	흙(土)	
32345-0-1	-이/가	호기
32345-0-2	-을/를	호걸
32345-0-3	-에(서)	호개
32345-0-4	-으로	호으로
32345-0-5	-도	후또
32346	여덟(八)	
32346-0-1	-이/가	여더리
32346-0-2	-을/를	여더릴
32346-0-3	-에(서)	여더래
32346-0-4	-으로	여덜로
32346-0-5	-도	여덜도
32347	돌(週歲)	
32347-0-1	-이/가	도리
32347-0-2	-을/를	도를
32347-0-3	-에(서)	도래
32347-0-4	-으로	*
32347-0-5	-도	돌
32348	값(價)	
32348-0-1	-이/가	갑씨
32348-0-2	-을/를	갑셀

32348-0-3	-에(서)	갑썰
32348-0-4	-으로	갑쓰로
32348-0-5	-도	갑또
32349	속:(內)	
32349-0-1	-이/가	소:기
32349-0-2	-을/를	소:걸
32349-0-3	-에(서)	소:계
32349-0-4	-으로	소:그로
32349-0-5	-도	속:또
32350	돈:(錢)	
32350-0-1	-이/가	도:니
32350-0-2	-을/를	도:널
32350-0-3	-에(서)	도:내
32350-0-4	-으로	도:느로
32350-0-5	-도	돈:도
32351	발(足)	
32351-0-1	-이/가	바리
32351-0-2	-을/를	바렬
32351-0-3	-에(서)	바래
32351-0-4	-으로	발로
32351-0-5	-도	발도
32352	짐(物)	
32352-0-1	-이/가	지미
32352-0-2	-을/를	지멸
32352-0-3	-에(서)	지메
32352-0-4	-으로	지므로
32352-0-5	-도	짐도
32353	입(口)	
32353-0-1	-이/가	이비
32353-0-2	-을/를	이벌
32353-0-3	-에(서)	이베
32353-0-4	-으로	이부로
32353-0-5	-도	입또
32354	낫(鎌)	
32354-0-1	-이/가	나시
32354-0-2	-을/를	나설

32354-0-3	-에(서)	나세
32354-0-4	-으로	나스로
32354-0-5	-도	나또
32355	강(江)	
32355-0-1	-이/가	강이
32355-0-2	-을/를	강얼
32355-0-3	-에(서)	강애
32355-0-4	-으로	강으로
32355-0-5	-도	강도
32356	젖(乳)	
32356-0-1	-이/가	저시
32356-0-2	-을/를	저설
32356-0-3	-에(서)	저세
32356-0-4	-으로	저스로
32356-0-5	-도	저또
32357	꽃(花)	
32357-0-1	-이/가	꼬시
32357-0-2	-을/를	꼬설
32357-0-3	-에(서)	꼬세
32357-0-4	-으로	꼬스로
32357-0-5	-도	꼬또
32358	팥(赤豆)	
32358-0-1	-이/가	파시
32358-0-2	-을/를	파설
32358-0-3	-에(서)	파세
32358-0-4	-으로	파스로
32358-0-5	-도	파또
32359	옆(側)	
32359-0-1	-이/가	여피다
32359-0-2	-을/를	여펼
32359-0-3	-에(서)	여패
32359-0-4	-으로	여푸로
32359-0-5	-도	여패도   엽또
32360	삯(賃金)	
32360-0-1	-이/가	품싸기
32360-0-2	-을/를	품싸걸

32360-0-3	-에(서)	품싸개
32360-0-4	-으로	품싸그로
32360-0-5	-도	품싸또
32361	닭(鷄)	
32361-0-1	-이/가	다기
32361-0-2	-을/를	다걸
32361-0-3	-에(서)	다개
32361-0-4	-으로	다그로
32361-0-5	-도	다또
32362	밖(外)	
32362-0-1	-이/가	바끼
32362-0-2	-을/를	바걸
32362-0-3	-에(서)	바깨
32362-0-4	-으로	바깨로
32362-0-5	-도	바까또

## 제 4 편 문법

### 4.1. 대명사

#### 4.1.1 인칭대명사

40101	나	나
40101-0-1	내-가	내가
40101-0-2	내	내
40101-0-3	나-를	나를
40101-0-4	나-에게	나한테   나를 달:라
40101-0-5	나-와	나하고
40101-0-6	나-는	나년
40101-0-7	나-도	나도
40102	저/제-가	저   제가
40102-0-1	저-가	저   제가
40102-0-2	저-의	제
40102-0-3	저-을/를	저를
40102-0-4	저-에게	저한테
40102-0-5	저-와/과	저하고
40102-0-6	저/-는	저년
40102-0-7	저/-도	저도
40103	우리	우리   우리가
40104	저희	저희 아번님
40105	너	너
40105-0-1	너-가	니:가
40105-0-2	너-의	니
40105-0-3	너-을/를	너를
40105-0-4	너-에게	너한테
40105-0-5	너-와/과	너하고
40105-0-6	너-는	너년
40105-0-7	너-도	너도
40106	자네	자네(화자보다 어린 사람에게)
40107	당신	당시니 가봐:
40108	너희	느: 아부지
40109	개	자:가

40109-1 애  
40109-2 재  
40110 자기  
40111 당신

야:가 | 야  
저애가 | 자:가 | 자  
지 말만  
자기

#### 4.1.2. 의문대명사

40112 누구-요/누구십니까  
40112-0-1 누-가  
40112-0-2 누구-의  
40112-0-3 누구-를  
40112-0-4 누구-에게  
40112-0-5 누구-와  
40113 무엇-이냐/입니까  
40113-0-1 무엇-이  
40113-0-2 무슨  
40113-0-3 무엇-을  
40113-0-4 무엇-과

누구여 | 누구시여  
누가  
어:편 사람 | 누구 께여  
누구 만내구 | 누구 만넨니? | 누구  
구털(조사자 제시)  
누구 줄라구 | 누구 가따쥘나 | 누구  
한태(조사자 제시)  
누구하구 한디야?  
머:가 드런나 | 머더냐 | 무어십니  
까 | 머:냐(조사자 제시)  
머:가  
머:냐 | 먼: 닐 하나  
머 머글래 | 머: 시키까 | 머: 머글  
꺼 시키까  
멀: 달만나 | 머:하구 비스타나

#### 4.1.3. 그 밖의 대명사

40114 어디  
40115 언제  
40116 어느  
40117 왜  
40118 얼마나  
40119 어떻게

어디  
언제 cf. 어티키(이유)  
어덩 거냐 | 어덩 거시 | 어던 지  
비  
왜  
메씨간 걸리나 | 얼마나  
어트캐

#### 4.1.4. 지시대명사, 지시부사

40120 이것  
40121 그것

이기 | 이거 | 이견 | 요건 | 내꺼  
그기 | 그거 | 그견 cf. 니견, 니꺼



40122	저것	저거   저기   저건
40123	여기	여기   cf. 요기(장 고자리일 때)
40124	거기	거기
40125	저기	저기
40126	이리	이리   cf. 요:리
40127	그리	그리
40128	저리	저리

## 4.2. 조사

### 4.2.1. 격조사

40201	-이/가(무엇이)	갑씨
40202	-이/가(무엇이)	코가
40203	-을/를(어디를)	기럴
40204	-을/를(무엇을)	무럴   바벌
40205	-에게/게(사람에게)	저사람 줘라   저사람한테 가따 줘라
40206	-보고/더러(누구더러)	누굴보고 당시니라 키야   누구한테
40207	-보고/더러(누구보고)	누구한테 요글히야   누구더러(조사자 제시)
40208	-에(집에)	우리 지배 간다
40209	-에(나중에)	또 만나자   언재 또 만나자   또 후에 만나자(조사자 제시)
40210	-에서(큰집에서)	큰지배서
40211	-에서(서울에서)	서울서   청주에서두
40212	-에서(여기에서)	용산서 서울까지
40213	-으로(참쌀로)	참쌀로   쌀로   참쌀로 멩근다
40214	-으로(짚으로)	지푸로   벼찌부로
40215	-으로(새끼로)	새끼로
40216	-으로(어디로)	어디로
40217	-와/과(수박과 참외)	수박 차메(자주 조사를 생략)   수 바카고 차메털(많이 사용)
40218	-와/과(나와)	나하고
40219	-보다(정보다)	나보담   형보담   형보다
40220	-처럼(돼지처럼)	대:지거치 똥똥하다   도:치기거치 찌따
40221	-만큼(너만큼)	너망큼   너만치   너망꿈

40222	-만큼(먹을 만큼만)	머글 망큼만   머글만치만
40223	-아/야(복남아)	붕나마!
40224	-아/야(복남이)	붕나미, 자네 어디 가능가
40225	-아/야(영수야)	영수야!   영수, 자네 이리 와
40226	-아/야(누님)	누님!
40226-1	-아/야(누님!!예)	*
40227	-아/야(할아버지!)	하라버지!   하라번님(성인)
40227-1	-아/야(할아범요!)	*
40228	-이랑(술이랑 고기랑)	술하고 고기하고 떠카고
40229	-커녕(만 원은커녕)	마너는 커냥 처닌두 읍따

#### 4.2.2. 보조사

40230	"-은/는(술은, 담배는)"	수른   담:배는
40231	-만(딸만)	딸만
40232	"-도(키도, 얼굴도)"	키도   얼굴도
40233	-마다(날마다)	날마덩   만날   매일
40234	-부터(오늘부터)	오늘부터
40235	-까지(내일까지)	내일까지
40236	-조차(물조차)	씨조차
40236-1	-조차(비할라)	비오는데
40237	-이야/야(말이야)	마:른   마:리야 청산유수지
40238	-을랑(소릴랑)	준다 쏘린   소린   소릴랑(조사자 제시)
40239	-이라도(부자라도)	부:자라도 cf. 부:잔대
40240	-밖에(너밖에)	너배깬 엍따
40241	-가지고(싸가지고)	싸:가주 간다

#### 4.2.3. 문장 뒤 조사

40242	-고(간접인용조사)(오라고)	오라칸다
40243	-요(높임)(알았어요)	아리썸니다(-친밀, ‘-어요’ 보다 공손)   아라썸요(+친밀)   아라썸요   cf. 아라요
40244	-요(높임)(했지요)	누가해썸니까   누가 헨나요   누가 하셔썸니까   누가하셔썸요(‘-습니까’보다 더 공손하다 함)

## 4.3. 종결어미

### 4.3.1. 명령법

40301	-아라(앉아라)	안자라
40302	-게(앉게)	앙깨
40303	-으오(앉으시오)	안즈세요   안즈십씨오(안즈세요와 비슷하게 공손)
40304	-으십시오(앉으십시오)	안즈십씨오   안즈세요
40305	-세요(앉으세요)	안즈세요   안즈십씨오

### 4.3.2. 청유법

40306	-자(가자)	가자
40307	-세(가세)	가새
40308	-으오(가오)	가십씨다   가요   가십시오
40309	-십시다(가십시다)	가שי지요   가세요
40310	-세요(가세요)	가십씨오   가세요

### 4.3.3. 의문법

40311	-니(오니)	오나?
40312	-나(오나)	오녕가?
40313	-오(오오)	와요?
40314	-습니까(옵니까)	오고 인능가요?   오고 인나요?   오고 이쑈니까?
40315	-나요(오나요)	오능가요?   옵니까?   오고 이쑈니까?
40316	"길에서 우연히 만나서, 어디 가는지를 물을 때(가니)"	가나?   가능가?   어디 가니?
40317	"길에서 우연히 만나서, 어디 가는지를 물을 때(가나)"	어디 가능가?
40318	"길에서 우연히 만나서, 어디 가는지를 물을 때(가시오)"	어디 가십니까?   어디 가시능기오 (친형)   어디가세요?(동서 간)
40319	"길에서 우연히 만나서, 어디 가는지를 물을 때(가십니까)"	어디 가십니까   어디 가시능가요?   어디 가세요?
40320	"길에서 우연히 만나서, 어디 가는지를 물을 때(가세요)"	어디 가시능가요?   어디 가세요?   어디 가십니까?

#### 4.3.4. 서술법

40321	-는다(먹는다)	잘 멏는다
40322	-네(먹네)	잘 멏네
40323	-오(먹소)	잘 멏내요
40324	-습니다(먹습니다)	잘 멏내요
40325	-네요(먹네요)	잘 머꼬 인내요(식사 진행 중)   잘 멏내요(식사 완료 후)
40326	웃이 작다고 말할 때(작다)	작따
40327	웃이 작다고 말할 때(작네)	장:내
40328	웃이 작다고 말할 때(작소)	장:내요
40329	웃이 작다고 말할 때(작으십니다)	장내요
40330	웃이 작다고 말할 때(작으세요)	자그내요

#### 4.3.5. 반말

40331	-아(아파)	아풍가?   아퍼?(많이 사용)
40332	-지(거지)	갈꺼지?(확인 의문) cf. 꼭 갈꺼여?(의문문)

#### 4.3.6. -이다

40333	-이다(생일이다)	생이리다
40334	-이니(생일이니)	생이리나?(많이 사용)   생이리니? (조사자 제시)
40335	-이네(생일이네/생일일세)	생이리내
40336	-인가(생일인가)	생이링가?
40337	-이오(생일이오)	생시니릅니다   생이릅니다   생시 닙니다
40338	-이오(생일이오?)	생시닙니까?   생이리시지요?(친 형)   생시녕가요?(친형)
40339	-입니다(생신이십니다)	생시니릅니다   생시닙니다
40340	-입니까(생신이십니까)	생시니리지요?   생시녕가요?
40341	-이지지요(생신이지지요)	생시니릅니다   생시닙니다
40342	-이지지요(생신이지지요?)	생시니리지요?   생시녕가요?
40343	의문사가 있는 -이다(무엇이냐)	무어시냐?   머:냐?   무슨 물겨니 냐?

40344	의문사가 있는 -이다(무엇인가)	뭇:가?   무슨 물겨녕가?
40345	의문사가 있는 -이다(무엇이오)	무순 물겨녕니까?   머:요?(뭇:요?)(많이 사용)   뭇:싫니까(친형)
40346	의문사가 있는 -이다(무엇입니까)	뭇:싫니까?, 머:싫니까?   뭇:예요?, 머:예요?   뭇:요?, 머:요?(많이 사용)
40347	의문사가 있는 -이다(무엇인가요)	뭇:요?, 머:요?   뭇:싫니까?, 머:싫니까?   뭇:예요?, 머:예요?
40348	의문사가 있는 -이다(무엇이야)	머:여?
40349	의문사가 있는 -이다(무엇이어요)	머:여?

#### 4.3.7. 그 밖의 종결어미

40350	-습니다( 많 습니다 )	만:내요
40351	-습디다( 많 습디다 )	만트라고요
40352	-는구나/구나(먹는구나)	멍는다   머꼬이따   멍는구나   멍능구나
40353	-는구먼/구먼(먹는구먼)	잘 멍는다(많이 사용)   잘 멍능구먼
40354	-일세(오랜만일세)	오래칸마니다   오래칸마닐쎄
40355	-으마(값으마)	가깨따   가깁내   가파줍새   가풀깨
40356	-음세(값음세)	가깨따   가품새   가푸깨   가파줍새   가풀깨
40357	-올라(다칠라)	다칠라 조시매라(많이 사용)   다치니까 조시매라

#### 4.4. 연결어미

40401	-고/-고서(먹고서)	머꼬(많이 사용)   머꼬서
40402	-으면서(보면서)	보민성   머그민성
40403	-어/-어서	바빠서   추워서
40404	-으니/-으니까	따뜨타녕께 cf. 따뜨태서
40405	-관테	이리 이낄래   무순이리 이쎄
40406	-다가	오다가
40407	-거든	만내결랑
40408	-더라도	마시드래도 쪼끔만 마셔라   피우드래도
40409	-으려고	나누어 머글라고 마:이 사따

40410	-도록	죽뚜룩   밤새:두룩   빠:지도룩
40411	-을수록	노폴쭈룩   마늘쭈룩 애끼라
40412	-듯이	물쓰드탄다   도:니 만:타고 물쓰드 탄다
40413	-지	연소꿈만 본다   유스만 보고

## 4.5. 주체 존대

40501	-셔(오셔)	와   오시어(조금더 존대)
40502	-셨소(하셨소)	싱구시썬?

## 4.6. 시제

40601	-는/ㄴ-(웃는다)	운:넌다
40602	-는/ㄴ-(기어간다)	긴다   기간다
40603	-는/ㄴ-(크다)	크다
40604	-는/ㄴ-(생일이다)	생이리다
40605	-고 있-(오고 있다)	오고 이따
40606	-았/었-(먹었니/잡수셨습니까)	머건냐?   잡수셔썬니까?(형)   식 싸하셔썬니까?(형)   식싸하썬능 가?(친구)   밤머건능가?(친구)   식싸하셔썬요?(형)
40607	-았/었(왔었다)	와썬는대(장년 요맘때-)
40608	-더-(먹더라)	머꾸 이떠라   먹떠라
40609	-더-(먹더냐)	먹떠냐?(친구 이하 사람에게)   멍 뎡가?(친구 이하 사람에게)   머꼬 이뎡가요?(어른에게)
40610	관형형(만나는)	만나는
40611	관형형(만난)	본 친구   만난 친구
40612	관형형(만났던)	침: 만난   침: 만나편
40613	관형형(만날)	만날
40614	관형형(큰)	큰 cf. 자:근
40615	관형형(크던)	크든   그때는 크더니
40616	관형형(켰던)	큰:   그땐 크던대 지그먼 작:떠라   커썬는대 지그먼 작:따
40617	-겠-(알겠다)	양개따   암 마시개따
40618	-겠-(오겠다)	올꺼 가따   쏘다질꺼 가따

## 4.7. 부정

40701	부정(안 먹었어/먹지 않았어)	암 머거써(많이 사용)   먹찌 아나써
40702	부정(안 좋다/좋지 않다)	안 조와   조치 아나
40703	부정(안 깨끗하다/깨끗하지 않다/깨끗 안 하다)	깨끄타지 아나   앙 깨끄티야(많이 사용)   깨끄짜나
40704	부정(장가 안 갔다/안 장가갔다/장가가 지 않았따)	장:개 앙 가써   장:가 앙 강 걸   장:가 앙 가써
40705	부정(안 만나 보았다/만나 보지 않았따 /만나 안 보았다)	암 만내 봐:써(많이 사용)   만내보 지 아나써
40706	부정(먹지도 않고)	먹뚜 아나고 잠만 잔다   cf 가지 도 앙코 지배만 인니?
40706-1	부정(먹도 않고)	먹뚜 앙코 잠만 잔다
40707	부정(못 마신다/마시지 못한다)	몸: 마신다(많이 사용)   몸: 멍는다
40708	부정(맞잖소/안 맞소)	내마리 마찌?   마리 마짜나요?

## 4.8. 사동과 피동

### 4.8.1. 사동

40801	살리다	살리떠니   살려떠니   살린다
40802	늘리다	키운다   늘린다(많이 사용)
40803	말리다1	말룬다   말루쿤다
40804	말리다2	말려라   말린다
40805	얼리다	얼린다
40806	녹이다	노킨다
40807	신기다	싱:끼라   싱키고   싱켜라
40808	보이다	보인다
40809	알리다	알려준다   알린다
40810	입히다	이핀다
40811	앉히다	안친다
40812	벗기다	베긴다   베끼지
40813	웃기다	우:긴다   우끼서   우끼따
40814	썩히다	썩꿔따   썩쿠지
40815	숨기다	감춰놔:따   감춰따   숨기따   숨 기지
40816	끓기다	궁겨라   궁기고   궁겨떠니
40817	깨우다	깨워라   깨우고   깨우지

40818	돌우다	도꾼다   도파라  cf. 쏘파라, 소꾸 두룩
-------	-----	------------------------------

#### 4.8.2. 피동

40819	잡히다	채피따   채퍼따
40820	깎이다	까까저따   깨껴따(많이 사용)
40821	끼이다	끼어따   끼어서   끼:지
40822	떼이다	떼여따   떼여서
40823	채이다	채여따   채이지
40824	단히다	다쳐따   다치지 양캐
40825	들리다	들린다
40826	업히다	어피따   어피서   어퍼 이따   어 피고
40827	바뀌다	배껴따   배껴서   cf 바뀌야 댄다
40828	썩히다	씨핀다   씨피따   씨피서
40829	엷히다	치해따   치해서   매켜서   매켜 따   언쳐따   언쳐서(언쳐따, 치해 따, 매켜따는 모두 같은 말이라고 함)
40830	찍히다	찌켜따   찌켜서
40831	눌리다	눌려서
40832	실리다	실려간다
40833	꿇기다	꼬너저따, 꼬너저서   꿇기따, 꿇겨 서, 꿇기지
40834	꺾히다	꺾킨다   꺾키지

#### 4.9. 보조용언

40901	싶다(싶은)	바꼬 수웅기 머냐?
40902	싶다(싶더니)	십떠니
40903	보다(보세요)	이버 보실래요   이버 보세요
40904	버리다(버렸네)	머거 치와 빠리따
40905	대다(댄다)	우러 대:서
40906	-나/는가 보다(오려나 보다)	올려나 부다   올라나 부다(많이 사용)
40907	-나/는가 보다(자나 보다)	자나 보다   자능개비다
40908	-나/는가 보다(추운가 보다)	추웅거 가따   추웅가비다



## 4.10. 부사

41001	실컷	실컷 머거라   실:컨
41002	많이	마:니
41003	너무	너머
41004	조금	쪼:꿈   쪼꿈만 마셔라
41005	자주	자주 가따
41006	빨리	썰:개 와따   빨리 와따
41007	얼른	썰:기 머거야지   빨리 머거야지   얼릉 머거야지
41008	기어코	그:여코
41009	가끔	더러더러   가:꿈
41010	먼저	먼저
41011	나중에	나:중에
41012	가득	가득
41013	몽땅	다:   몽땅
41014	모조리	썩   야지리 cf. 야지리 썩 다 뽀버 따
41015	혼자	혼자
41016	항상	항상   늘:   언제나
41017	똑똑히	똑또기 바:라   똑띠기 바:라
41018	겨우	겨:우
41019	늘	항상   언제나   늘
41020	저절로	지절루
41021	자꾸	자꾸   자꾸만
41022	설마	설마
41023	하마터면	하마트면(조사자 제시)   까타카면 크닐 날뻔해따
41024	함께	가치(많이 사용)   함께
41025	걸핏하면	건뜨타면   투카면(건뜨타면과 같 은 말이라 함)
41026	공연히	고여:니   멍썩하니 트지별 잠는다
41027	그냥	그냥
41028	매우	아주 썰다   마:니   엄청나게
41029	곧장	월창 가따와라   곶썰 가따와라
41030	벌써	벌써   썰기 다: 끈넌니?
41031	가장	젤: 박따(많이 사용)   가장:(조사자

41032	가만히	제시) 가마:니   조용:이 cf. 꼭(한 자리에 꼭 있어라)
41033	미리	미리
41034	이따금	드문:드문

## 4.11. 관용적 표현

### 4.11.1. 관용구

41101	관용구(여보)	여보(호칭)   당신(호칭, 지칭에 다 씀)
41102	관용구(여보세요)	여보시오(남녀 모두)   여보개(남)
41103	관용구(들어가세요)	꿈개씼니다   끈씼니다
41104	관용구(수고하세요)	안녕히 계시오
41105	관용구(오랜만에 만난 친구 사이의 인사말)	오래칸마니내!
41106	관용구(아침 출근길에 마주친 동네 어른에게 하는 인사말)	안녕하세요
41107	관용구(오랜만에 찾아 뵈는 어른에게 큰절을 올리면서 하는 말)	그동안 안녕하셔씼니까   편하셔씼 니까   펴나니 계셔씼니까
41108	관용구(여기 있습니다(물건을 사고 돈을 주면서 하는 말))	물건까빔니다   물건깁 여기 이씼 니다
41109	관용구(예(질문에 대한 긍정의 대답))	마자써   예
41110	관용구(아니(질문에 대한 부정의 대답))	아닙니다   아니오   아니어
41111	관용구(아무렇지도 않다)	아무치두 안타
41112	관용구(내버려 뒀)	내비뒀
41113	관용구(개나 소나)	또나 개나 머   대나 가나 아:무나 물고댕긴다   으:징이 뜨:징이   어 중이 떼징이

### 4.11.2. 속담

41114	속담(밀 빠진 독에 물 붓기)	미빠진 도개 물부끼다
41115	속담(바늘 도둑이 소 도둑 된다)	바늘 도두기 소도둑땡다
41116	속담(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안 땡 굴:뚜개 연기 나갠나   안 땡 굴:뚜개 연기 나랴 cf. 세: 살 머근 버르시 여든살까지 간다 빈: 수래가 요라나다 가년 마리 고와야 오년 마리 곱따 가지 마는 나무에 바람 잘 날 업따

## 국립국어원 지역어 조사 추진 위원회

- |       |              |
|-------|--------------|
| ◆ 위원장 | 이기갑(목포대학교)   |
| ◆ 위 원 | 강영봉(제주대학교)   |
| ◆ 위 원 | 곽충구(서강대학교)   |
| ◆ 위 원 | 김무식(경성대학교)   |
| ◆ 위 원 | 김봉국(부산교육대학교) |
| ◆ 위 원 | 김정대(경남대학교)   |
| ◆ 위 원 | 박경래(세명대학교)   |
| ◆ 위 원 | 소강춘(전주대학교)   |
| ◆ 위 원 | 최명옥(서울대학교)   |
| ◆ 위 원 | 한영목(충남대학교)   |



